# 국제고려학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 국제고려학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16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 국제고려학

# 제16호

# 차례

기조발표	
통일을 향한 사회 문화 교류의 과제 / 이배용	Ģ
『민족유산보호법』제정에 즈음하여 / 리혜정	11
심포지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시풍속의 계승발전에 대하여 / 공명성	13
일반논문	
『론어언해』와 16세기 유경언해의 언어적특성 고찰 / 김광수	21
『번역로걸대』와『로걸대언해』의 비교연구 / 김영수	49
말줄기와 토결합표기의 력사적 변천에 대하여 / 문영호	79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의 어휘 배열 순서	
─ 친족 명칭 어휘를 중심 <u>으로</u> ─ / 연규동	109
접촉언어학의 시점에서 본 중국 조선족의 언어사용 실태와 전망 / 장훈권	127
동시통역의 분류와 신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홍성일·황춘화	161
On Subject Omission in Japanese and Korean	
-Declarative Sentences and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 Eunjoo Park	179

The Languages of Korean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 Nam Sun Song	211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고찰 -이용서비스지원기관을 중심으로- / 강민호	241
한국과 대만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아내학대의 관련성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박지선·윤정수·김정숙·엄기욱·나카지마 가즈오	261
한국 '기지촌', 이민자 2세 아이들의 언어생활 / 정육자	279
한국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 정희성	305
한국문화와 효의 현대적 의미 변용 연구 -효의 현대적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 최태호	331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 칸 앞잘 아흐메드	343
김달수와 문학운동 -리얼리즘연구회를 중심으로- / 히로세 요이치	367
Modern Places, Modern Minds -Functions of Narrative Space in Yi Gwangsu's Novels- / Lyudmila Atanasova	397
21세기 한민족(한겨레, 조선동포)공동체 형성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한국철학의 과제 / 김방룡	417
한국전통사상 속에 나타난 관용의 정신 / 이병욱	431
Suffering, Evil, and the Emotions  -A Joseon Debate between Neo-Confucianism and Buddhism- / Eric Nelson	447
해양명칭 논쟁의 본질과 해법 모색 -한국의 동해 명칭을 사례로- / 이상규	463

한국의 재외동포 포용정책과 탈영토화	
-초국가주의의 '도전'에 직면한 민족국가의 '응전'- / 송창주	495
조선봉건왕조실록번역의 학술적 기초 / 송현원	521
The Significance of the Sillok in the Western World	
-Past, Present, and Future- / Milan Hejtmanek	551
새로 조사발굴된 고구려 평양성 일대의 성곽 유적들에 대하여 / 손수호	567
전후복구기 보건의료분야 재건에서 외국 원조의 성과와 영향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국립의료원- / 황상익	587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 '아리랑'의 곡명과 곡수에 대한 연구 / 공명성	6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과 개발실태 / 김철준	629

# 통일을 향한 사회 문화 교류의 과제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제12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 토론 회를 통해 코리아학의 학술적 깊이를 더하고 코리아학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제고하는 성과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대회를 준비해 오신 국제고 려학회 도날드 베이커 회장님과 학회 임원, 간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학회에 조선사회과학원의 리혜정 원장님과 연구자여러분이 참석하셔서 학술적 문화적 소통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이 된 것은 남북학술교류사의 또 하나 큰 자취로 남게 될 의미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에 짜여진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 이 귀한 자리에함께 하지 못한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남과북의 사회 문화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저의기대와 구상을 전하는 것으로 토론회 발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끝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론 적 통일의 주장을 뛰어넘어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진지한 공론의 장 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과 북의 주민들 모두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단 후 심화되어 온 사회 문 화 이질화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문화 이질화의 극복방안의 하나로 전통문화의 복원을 통한 문화적 동질성의 확보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전 통문화가 파괴된 것도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조사 및 복원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 양측은 대체로 현재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데 진력하느라 전통 문화를 의미있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유한 것이 가장 미래적이고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있는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양측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 세계화의 문화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가치와 규범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주민들은 공히 조상숭배의 효 사상, 공동체적 질서, 미풍양속의 명절풍 습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정신의 가치가 부상되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우리의 정신 유산은 미래지향적인 세계화의 자산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아 리랑, 단오제, 한산모시 길쌈 등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매우 좋은 본보기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역사공동체라는 인식에서 필연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하나의 실체를 탐구하는 남과 북의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토론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 감으로써 역사 인식에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주고 하나로 묶어주어 진정한 동행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는 중심축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오히려 세계평화 정착의 점화지가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양측의 노력과 합의로 경의선 철도가 뚫려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달릴 때 기차역에서 때로는 기차간에서 그동안 고단했던 삶을 이야기하고 위로할 때 민족의 화합과 내일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12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의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희망의 실현에 다가서는 한 걸음이 내딛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이 귀중한 자리를 만드시고 함께 해 주신 국제고려학회와 조선사회과학원 연구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민족유산보호법』제정에 즈음하여

리혜정

조선사회과학원장

저는 먼저 제12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의 학 자선생들과 동포학자선생들에게 조선사회과학원의 전체 학자선생들이 보내 는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의 성과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국제 고려학회 도날드 베이커 회장님과 송남선 부회장님, 배룡 사무총장님을 비 롯한 본부 사무국성원들과 비엔나종합대학 라이너 도멜스 교수님에게 보내 는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제12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는 코리아학을 연구하는 많은 나라의 학자선생들이 참가하여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담은 론문들을 발표하는 동시에 서로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코리아학 연구를 한단계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체 토론회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가 열의 속에 그리고 국제고려 학회 본부사무국의 남모르는 수고 속에 이번 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조선사회과학원 학자대표단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합니다.

코리아학을 연구하는 학자선생들이 앞으로의 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민족유산보호법을 새 로 채택한 것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유산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온 귀 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입니다. 민족의 오랜 력사와

문화는 민족유산을 통하여 후세에 전해지게 되며 해당한 력사적 시대의 문화는 그 시기에 창조된 민족유산에 의하여 확증되게 됩니다. 민족유산을 잘보호·관리하여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으며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가장 올바른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는 이미 오래전에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법규들을 제정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하여 옴으로써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시기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새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기본원칙들과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리용, 복원을 비롯하여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모두 6개장 6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채택된 민족유산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서는 조선사회과학 원 민속학연구소 소장인 공명성선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시풍속의 계승발전에 대하여

공명성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장

조선 인민은 오랜 력사적 기간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 과정에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왔다.

민속전통을 고수하고 빛낸다는 것은 력사적으로 창조되어 대를 이어 전해 오는 우수하고 아름다운 풍습을 적극 찾아내고 살려나가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민속전통을 고수하고 빛내는 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해당 민족을 떠난 민속전통이 있을 수 없듯이 민족성을 담고있지 않는 민 속전통이라 있을 수 없다.

민족성은 해당 민족의 근본적이고 고유한 사상정신적 및 심리적 특성으로 서 민족이 계승하는 애국전통이나 문화전통뿐 아니라 민속전통에도 체현되어 있으며 그러한 전통에 기초하여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고 발전·풍부화된다.

다시 말하여 민족의 기질이나 성격, 감정과 정서, 취미와 같은 민족성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섬세하고 다양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 민속전통이다. 그러므로 민속전통을 고수한다는 것은 민족성을 살려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 며 민속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민족성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고유한 민속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력사적 및

현실적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20세기 전반기 일제에 의한 조선강점은 우리 인민의 민속전통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일제는 조선민속을 없애거나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을 조선사람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정하고 식민지통치 전기간 의식주생활풍습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결과 일제시기 우리 민족의 많은 민속전통이 이지러지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혼탕이 되었다.

민속전통을 고수·발전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문화교류가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지는 속에 해당 나라와 민족의 문화가 고수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전통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공화국에서 세시풍속을 비롯한 고유한 민속전통을 적극 찾아내고 고수·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시종일관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 였다.

세시풍속은 해당 민족의 전통생활풍습에서 주되는 내용의 한부분을 이룬다.

세시풍습은 해마다 같은 계절의 같은 날에 관습적으로 진행되는 민속명절과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나 건강, 장수, 농업이나 어업에서의 풍년, 풍어, 마을이나 나라의 안녕 등을 바라는 여러 가지 의례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의례들은 제사로부터 의상, 음식, 노래, 춤, 민속놀이에 이르는 다양한 풍습들과 밀접한 련관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세시풍습은 해당 민족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옷차림풍습이나 식생활풍습, 가족생활풍습과 같은 다른 풍습보다도 내용과 범위가 넓고 다채로운 정신적 및 문화정서적 내용을 담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절세의 위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현명한 지도밑에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세시풍속전통이 전면적으로 계승 · 발전되어 왔다.

첫째로, 설과 추석을 비롯한 전통적인 세시날들을 뜻깊게 맞이하고 그에 맞는 의례들과 민족음식, 민속놀이를 적극 살려나가고 있다.

세시풍속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해당 민족의 민족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인민들 속에서 장려되어온 설, 정월 대보름, 청명, 추석, 삼복, 동지 등 속절과 절기에 따르는 전통의례와 행사들 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널리 장려되고 있다.

세시풍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가정들에서는 이러한 날들에 해당 명절과 절기에 맞는 의례들을 진행하며 그에 따르는 민족음식 을 만들어 먹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공화국정부와 해당전문기관들의 적 극적인 방조와 조직밑에 평양시와 각 도, 시, 군에 꾸려진 민족음식전문식당 들에서는 예로부터 소문난 자기지방의 토배기음식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지금 해마다 세시날들을 맞으며 진행되고 있는 씨름을 비롯한 민속경기대회, 민족옷전시회, 민족음식품평회, 민속가구전시회들은 사회적으로 세시풍속전통을 살려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민속명절을 즐겁고 의의있게 쇠고 민속놀이를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은 온 사회에 명랑하고 락천적인 분위기를 돋구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명절, 정월대보름, 청명, 추석을 국가적인 휴식일로 정하고 이 날에 다양한 문화 오락 체육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상의 성묘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학생,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민속놀이를 알려주고 그들이 민속놀이를 일상적으로 즐겨 놀도록 장려하는 한편 중앙뿐 아니라지방별, 학교별, 계층별, 계절별에 따르는 민족체육경기와 종목별 민속놀이경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민속놀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민족성과 함께 보람찬 로동과 생활의 기쁨을 안겨준다.

둘째로, 세시날들에 전통적으로 진행되던 고유한 민속음악과 민속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족적 감정과 선률, 률동을 담은 민속음악과 민속무용은 사람들을 류다르게 즐겁고 유쾌하게 해주며 커다란 민족적 홍취를 불러일으킨다.

지방의 다양한 민요와 민속춤을 적극 발굴 · 보존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 예술전문학교와 대학들의 과정안 에도 민요, 민족악기, 민속무용을 적극 살려나가고 있다.

교육부문만이 아니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사회단체들에서도 민족 적 흥취가 나는 민요와 민속춤을 대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실이다.

그리고 가정들에서도 피리, 저대, 퉁소, 가야금, 장고와 같은 민족악기를 정상적으로 다루면서 정서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고유한 민요의 창 법과 굴림, 민속무용의 춤가락의 본태를 살리면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고 있다.

셋째로, 민족의 아름다운 가정생활풍습이 고수·발전되고 있다.

가정은 사회에 세포로서 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은 사회적으로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이바지한다.

공화국에서는 가정성원들사이에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도덕, 풍습으로 찬양되어 온 호상 믿음과 신의, 사랑과 존경, 협조와 양보의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청춘남녀의 결혼도 전통풍습대로 이웃과 마을사람들, 친우들이 서로 도우면서 건전하게 진행되고 첫나들이, 반살기, 사돈보기와 같은 풍습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출생과 100일맞이와 첫돌맞이를 가정과 사회의 경사로 여기고 축하해 주고 늙은이들의 생일의례를 뜻깊게 진행하는 풍습이 사회적 관심 속에서 의의있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로, 세시풍속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소개선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

개 · 선정하고 있다.

신문과 잡지, 텔레비죤, 소리방송 등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세시 풍습의 하나하나를 그 유래와 변천, 내용과 특성, 우수성을 리해하기 쉽게 해설하여 선전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시에 따르는 옷차림풍습, 지방적 특색이 있는 음식, 명절맞이풍습, 조선 절과 전통적인 례의범절, 민속놀이의 방법과 그 우수성, 고유한 민요와 민속 춤 등의 선전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세시풍속전통이 적극 고수되고 높이 발양되는 속에 공화국 민속학계에서는 이와 보조를 맞추어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상전래로 전하여오는 우수한 민족적 풍습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연구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민속학의 부문연구사업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민족적 풍습을 고증하고 해설한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최근 공화국 민속학계에서 이룩한 성과는 우선 민속학 연구발전의 당적원칙을 확고히 틀어지고 과학연구기지들을 훌륭히 꾸린 것이다.

과학연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사회발전이 담보되는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공화국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민속학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89(2000)년 사회과학원에 민속학연구소를 새로 조직하여 연구사업과 후비육성사업도 전망성있게 진행하고 있다.

민속학연구소에서는 민족생활풍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의식주생활풍습, 사회문화생활풍습, 가족생활풍습, 민속음악과 무용, 민속공예와 구전설화 등과 함께 특히 세시풍속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 지방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풍습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연구도 하는 겸직교원제도가 정연하게 있으며 중앙과 각도의 력사박물관과 조선민속박물관의 학술원들 역시 해당 지방의 구체적인 민속자료들을 수집하며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속을 전공하는 후비들도 국가의 커다란 관심 속에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민속학강좌에서는 해마다 민속전문가들을 수십명씩 키 워내고 있으며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대학들과 전문학교, 중학교들에 서도 전통적인 민족풍습을 과정안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공화국에서는 새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민족생활양식을 여러 측면에서 연구하고 높여나가도록 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우는데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공화국 민속학계에서 이룩한 성과는 다음으로 연구소, 박물관, 대학들에서 여러 분야의 민속관계도서들을 집필·발행하여 민속학을 과학리론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전통계승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년간에 집필·발행된 세시풍속관계 도서들도 여러책에 달한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민속을 종합적으로 취급한 도서들로서는 『조선의 민속전통』(전7권), 『조선민속사전』, 『조선민속학개요』(고대-중세편), 『조선 민속학』(교재), 『우리나라 민속유산』, 『조선의 민속과 정서생활』 등을 대표 적으로 들 수 있다.

세시풍속에 대한 전문연구도서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옷차 림관계도서로는 『조선세시풍속에 대한 연구』, 『조선의 관혼상제』, 『우리나라 민속명절』등이 있고 세시음식이나 놀이와 관련된 도서로는 『우리나라 식생 활풍습』, 『조선식생활사』(1, 2), 『조선민족발효음식사연구』, 『조선의 떡』, 『각도 지방음식』, 『지방별 민족음식』, 『조선의 민속놀이연구』, 『지능놀이』,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례의범절』, 『체력단런놀이』, 『조선의 민속놀이편람』, 『고구려사람들의 무술 및 체력단런놀이』, 『조선무술사연구』, 『어린이민속놀 이』등이 있으며 주택생활관계도서로는 『해방전 우리나라 살림집과 생활양 식』, 『중세 우리나라 살림집시설의 리용풍습』등이 있다.

민속예술관계도서로는 『조선악기발달사』, 『고구려사람들의 예술활동에 관한 연구』, 『조선민요조식에 관한 연구』, 『조선의 민족음악과 무용』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조선민속상식』, 『조선의 사계절과 민속』, 『12달민속이야기』,

『중세회화들에 반영된 생활풍습연구』, 『조선풍속사』 등 여러 부문의 수많은 연구도서들이 출판되고 있다.

민속관계 단행본과 함께 수백건의 과학소론문, 상식소론문이 『조선고고연 구』, 『민족문화유산』, 『력사과학』과 같은 과학잡지와 『로동신문』, 『민주조 선』, 『평양신문』, 『청년전위』를 비롯한 대중잡지 그리고 중앙방송, 텔레비죤 등에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

여러 가지 민속관계자료들을 수집 · 연구하고 도서로 출판하는 과정에 우 리 민족의 우수한 세시풍속관련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고 고증되어 조선민속 학을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론어언해』와 16세기 유경언해의 언어적특성 고찰

**김광수** 연변대학

# 1. 들어가기

삼국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립과 발전, 그리고 한자와 한문이 전파는 유학사상이 조선에 전입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고 고려시기에도 통문관, 한어도감에서 한어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사역원이 설치되면서 한어연구와 통역원 양성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체계가 이루어졌다.

《론어》는 유교의 기본 경전으로 알려진 사서(四書)의 하나이며 공자의 말씀과 모습을 제자들이 정리하여 수록한 문헌으로서 유교 경전을 공부할때 가장 기본으로 삼았다. 리조시기 선조(宣祖)는 즉위 초부터 경서 해석이학자들마다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서 언해를 명했으며 1585년(선조 18)에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이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1590년(선조 23)에 『론어언해』를 포함한 사서 언해를 간행하였다. 이때 이산해(李山海), 정철(鄭澈) 등 당대의 대표적 유신들 31인이 참여해 간행된 책이 『론어언해』 원간본인데 이후에도 이 책의 수요가 많았던만큼 20세기 초까지 여러 차례중간(重刊)되여 현재는 매우 많은 이본(異本)들이 전해지고있다.

『론어언해』는 원문인 한문을 앞에 싣고 뒤에 언해를 붙이는 형식으로 되여있다. 원문에는 조선글자로 된 한자음과 토가 있고 언해문에도 한자와 한자음이 표기되여있다. 본고는 1590년 교정청에서 간행한 『론어언해』 판본을 통하여 16세기 유경언해에 나타난 조선어의 표기와 문법적형태, 어휘 및 문

장 등 언어적특성을 고찰한다. 이는 조선어사 연구는 물론 유경 번역문체의 언어적특성 고찰에도 일정한 도움이 있을것이다.

# 2. 표기와 어음변화

조선어 발전력사에서 16세기 말은 우리말 어음체계가 기본적으로 확립된 시기라고 말할수 있다. 순한소리로부터 거센소리, 된소리 3계렬이 이미 확립 되였고 또한 표기에서도 근대나 현대와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우선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즉 표음주의 철자법이 실행됨이 『론어언해』에 도 나타나고있다.

- (1) 定公이 묻주오디 一言에 可히 써 邦을 興호리라 호느니 인느니잇가?
- (2) 罔의 生홈은 힝혀 免한얀난니라.

이러한 현상으로서 뒤음절 첫소리 "ㄴ"의 영향으로 음절 끝소리 "ᄉ"가 "ㄴ"로 역행동화 한 "貫호얀ᄂ니라, 剛호얀눈, 学호얀눈다, 호얀노라"가 보 인다.

어음생략('우'와 '어'의 생략) 현상도 유경언해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上을 犯혼을 好티 아니 호고 乱을 作홈을 好홀 者 잇디 아니 호니라.
- (2) 北辰이 그 所애 居 향거든 모든 별이 共喜 フ 투니라.

"한자+호-"형 동사가 체언형으로 되면서 "오"가 소실되고 "ㅗ"가 덧나는 현상(모음조화와는 관계없음)으로서 "憾홈이, 更홈애, 穀만홈이, 乱홈을"과 같이 유경언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5038어절/378차)

- (1) 陳文子 馬十乗을 둣더니 棄호야 違호고 他邦애 至호야…
- (2) 사름이 다 兄弟를 둣거늘 내 홀로 업도다.

과거시칭형태 "-엇-"은 "두-"와 결합할 때 모음 '어'가 축약되고 받침 "ᄉ"가 앞음절에 붙어 "둣-"로 표기된다.

모음조화는 알타이제어의 공통한 특성으로서 중세조선어 초기 단계까지 만 해도 모음조화가 상당히 준수하였으나 16세기 말 유경언해에 모음조화의 파괴현상이 표기에 나타난다.

- (1) 繚는 蔡에 適호고 四飯이언 結은 秦에 適호고…(→結은)
- (2) 子 골 약사 敎를 두면 類 업소리니라.(→敎롤)
- (3) 由아! 너를 알옴을 フ른칠 띤뎌 아는 거슬 아노라 ㅎ고…(→너를)

조선어에서 거센소리 현상은 언어의 내적변화에서 자음과 자음의 결합으로 산생되는 어음변화현상이다. 거센소리의 "ㅎ+¬→ㅋ/ ㅎ+⊏→ㅌ/ ㅎ+ㅂ→ㅍ/ ㅎ+ㅈ→ㅊ"처럼 어음축약 현상이 음절내부 표기에 나타나는데 "ㅎ+¬→ㅋ"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 (1) 退커든 그 私를 省혼되 또한 足히 뻐 発한난니…
- (2) 子疾이 病커시늘 子路 門人으로 호여곰 臣을 사맛더니…

유경언해에 "어두자음군"이 표기에 나타나는데 주로 현재에서의 된소리표 기로 쓰인다. "서, 사, 사, 바, 바"와 특수한 표기로서 "ㄹㄷ"와 "ㄸ"가 나타나며 받침에 "ㄹㅂ"도 보인다.

지: 后帝의, 따: 朞月똔룸, 써: 高宗뿐, 따:ᄠ들, 씨: ᄡ다, ㄹㄷ¹: 몯홅둧, 折홅 子는 , 從홅者, 致홅者, 아니홅배 따: 이실뛰대, ㄹㅂ: 앏픽

유성마찰음"△"와 아음 "○"음의 표기도 나타나고있다. "△"는 주로 강조 형 도움형태에<sup>2</sup>, "○"는 상대높임법 종결형태에 쓰였다.

<sup>1</sup> 사이소리 """를 "ㅅ"로 대체하였다가 "ㅅ"가 "ㄷ"로 바뀌는 과정에 나타난 표기일듯함.

- (1) 三年을 父의 道애 고티미 업세사 可히 孝 ] 라 닐을 이니라.
- (2) 道인는 딕 나사가 正호면 可히 学을 됴히 너긴다 닐을 이니라.
- (3) 子貢이 묻주와 골오디 賜는 엇더 ㅎ닝잇고?
- (4) 孟武伯이 묻주오디 子路는 仁 당 잉가?

유성마찰음 "△"와 아음 "○"음의 표기는 이밖에도 "後에라, 스싀룰, 나스 가디", "알꺼시닝잇가, 호시노닝잇고" 등에 나타나는데 음절형식은 많이는 "싀"와 "닝"처럼 쓰인다.

현대조선어의 력사적어음교체 현상 "ㄷ→ㄹ", "ㅂ→ㅗ/ㅜ" 현상이 표기에 나타나고있다.

- (1) 公門에 드르실시 躬을 麹듯 하샤 容티 몯홅듯 하더시다.
- (2) 賎홈이 붓그러우며 邦이 道 업슴에 富호고 또 貴홈이 붓그러우니라.

력사적어음교체 "듣-: 드르샤, 드르시노니, 드르시고", "갓갑-: 갓가오니라, 붓그럽-: 붓그러우니라, 붓그러우며" 등 형태가 나타난다.

# 3. 문법적형태

조선어는 교착어로서 문법적형태가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런결해주며 문장에서의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적의미도 문법적형태에 의해 실현된다. 조선어의 문법적형태에는 체언형태와 용언형태가 있는데 16 세기 간행된 『론어언해』에서도 그 사용에서 그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sup>2</sup> 김영수(2001: 111)에서는 『불경언해』까지 널리 쓰다가 『삼강행실도언해』에 이르러 동요상태 에 있던 자음 "△"가 『유경언해』에서는 완전히 소실되였다고 함.

<sup>3</sup> 안병희·이광호(1990)『중세국어문법론』(p198)에서는 "사"는 중세국어에서 강세를 표시하는 보조조사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조사라고 함.

## 3.1. 체언형태

『론어언해』에서 중세조선어의 체언형태가 기본적으로 모두 나타나고있다. 특징적이라면 주격형태 "가"의 출현, 규정여격형태 "앳/엣"의 사용, 격형 태에서의 모음조화의 파괴, 존경의 여격형태의 사용 등을 들수 있다.

## 3.1.1. 주격형태: (이/가)

- (1) 葉公이 孔子를 子路의게 무러들…
- (2) 四海 안히 다 兄弟니 君子 엇디 兄弟 업습을 患 리오.
- (3) 孔丘가 골오딕 이시니라.
- (4) 子貢의게 무러 골오딕 夫子는 聖이신 者가 엇디 그 能이 하시뇨?
- (5) 이 魯 ] 孔丘의 徒가 対호야 골오디…
- (驕喜이, 郡喜이, 糧이, 魯人이, 訥이, 達巷党人이/ 孔丘가, 者가)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주격형태 "가"가 ≪론어언해(1, 2, 3, 4)≫에서 4 번 출현함⁴으로써 16세기말 유경언해에 이미 사용되지 않았겠는가 추정해 볼수가 있다.

# 3.1.2. 속격형태: (의/익, 앳/엣)

- (1) 長幼의 節을 可히 廃티 몯 하거니…
- (2) 사름을 다룬 나라히 무른실시 再拝 하 보내더시다.
- (3) 楚앳 狂인 接輿 歌학고 孔子를 過학야 골오덕…
- (4) 四方엣 民이 그 子를 襁으로 負ㅎ야 니르리니…(→四方앳)
- (5) 골 🤈 샤딕 山梁엣 雌雉 📗 時 🗎 뎌 時 🗎 뎌(→山梁앳)

례 (3), (4), (5)의 "楚, 四方, 山梁" 등 비활동체명사들은 일반적으로 속격

<sup>4</sup>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p.165)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근대국어에서 특수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것은 근대국어 초기인 17세기가 이 주격조사의 발달의 초기임을 방증하는것으로 보고 있음.

을 가지지 않기에 중세조선어에서는 이 단어들의 규정형으로 쓰일 때에는 속격이 아니라 규정여격을 취하였다(렴종율 1989: 85). 그리고 (4)와 (5)에서 특별히 "-엣-"의 사용에서 모음조화의 파괴현상이 보였다.

(蔵武仲의, 諸夏의/앏픽 / 箪앳, 君子앳, 山梁엣〈규정여격-장소, 시간, 특징, 소속성〉)

## 3.1.3. 대격형태:(을/울, 를/룰)

- (1) 君子는 道를 憂호고 貧을 憂티 아니 호닉니라.(→道물)
- (2) 내 누를 소기료 하늘 홀 소긴뎌?
- (3) 皇陶를 挙호시니 仁티 아니혼 者 遠호고…

(残울, 殺혺을, 賈물, 敗호니를, (준수)/업스물, 敎를, 愛를(파괴)

대격형태에서의 독특한 현상은 모음조화의 파괴이다. 즉 중세조선어 초기에 격형태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는 중세말기인 16세기 말기에 파괴되고 있다.

#### 3.1.4. 여격형태:(에/애/예, 의게, 씌)

- (1) 公門에 드르실시 窮을 麹듯 호샤 容티 몯홅듯 흐더시다.
- (2) 사름이 다 見항고 更홈에 사름이 다 仰항노니라.
- (3) 君子는 義예 喩 하고 小人은 利예 喩 하는니라.
- (4) 子路를 季孫의게 愬호야들 子服景伯이 써 告호야.
- (5) 皇皇 で 신 后帝 의 昭告 で 노니…

(奔홈에/射홈애/義예/네게, 公明賈의게, 民의게/ 공자의)

여격형태는 활동체명사와 비활동명사에 의해 "에/애/예"와 "의게5"로, 양성

<sup>5</sup> 고대어에서는 속격과 여격이 미분화상태에 있었으며 그것이 서로 분화된 후에도 그 구두적 발음은 그대로 [에I였던것 같다. 력사적으로 여격토 《의게》가 《에게》로 되어 《의》가 《에》로 된것도 결국은 이러한 구두어 발음과 관련된다고 할수 있다(렴종률(1980)『조선어 문법구조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86)

모음과 음성모음에 의해 "에/애/예"로, 주체가 비존경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에 의해 "의게"와 "씌" 두개 쌍으로 갈라진다. 여격형태도 모음조화가 준수되지 않은 례들이 보인다.

#### 3.1.5. 위격형태: (에셔/예셔, 에겨셔)

- (1) 道에서 聴학고 塗에서 説학면 徳을 棄홈이니라.
- (2) 磬을 衛예셔 擊 하시니 貰룰 荷 하고…
- (3) 陳에겨서 糧이 絶 다...

(塗에서, 周公에서, 衛예셔/ 陳에겨셔)

위격형태는 비활동체와 활동체 명사에 의해 "에서(8)6, 예셔(1)"와 "에겨셔 (1)"로 갈라지지만 그 사용이 다른 체언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태이다.

#### 3.1.6. 조격형태: (로/으로, 으로, 오로, 로서, 로써/으로써, ㄹ+로 〈대격+조격〉)

- (1) 朋友로 더브러 交호딕 言홈애 信이 이시면…
- (2) 四方엣 民이 그 子를 襁으로 負호야 니르리니…
- (3) 子賢티 아니흔 이를 보고 안 로 스스로 省홀띠니라.
- (4) 麻로 冕이 礼이 늘이 제 純오로 ᄒ니…
- (5) 冉子 朝로셔 退하야들 子 골으샤딕 엇디 晏호뇨?
- (7) 百姓이 足디 몯 한면 君이 눌로 더브러 足 하시리잇고?

조격형태는 개음절과 페음절에 따라 "로"와 "으로/ 오로"로, 음성과 양성에 따라 대응되지만 "으로"의 사용이 상당히 위축되였다. 자격의 의미와 도구나 자료를 나타내는 형태는 "로셔"와 "로써/으로써"로 나뉘며 격형태가 결합된 "ㄹ+로(대격+조격)"형태도 나타난다.

<sup>6</sup> 출현한 빈도수.

## 3.1.7. 구격형태:(와/과)

(1) 子 골 약사 뒤 剛과 毅와 木과 訥이 仁에 갓가오니라.

구격형태는 체언의 병렬을 나타내는바 초기 중세조선어와 다른 사용이 보 인다. 즉 병렬되는 마지막 단어에까지 붙여쓰임이 보이지 않는다.

## 3.1.8. 호격형태

- (1) 子 골으샤딕 由아 너를 알옴을 フ락칠 띤뎌 아는 거슬 아노라 학고.
- (2) 子 골으샤딕 二三子아 偃의 言이 是한니 前言은 戱홈이니라.
- (3) 이러툿혼 사름이여 魯애 君子 | 업스면 이 어듸가 이룰 取交리오.

호격형태에는 "아"와 "이여"가 쓰이며 "이여"는 직접호칭이 아니라 간접호 칭이며 이에는 감동, 영탄, 존경의 의미도 포함하여 나타낸다.

## 3.1.9. 절대격형태

- (1) 四海 안히 다 兄弟니 君子 엇디 兄弟 업슴을 患히리오.
- (2) 罪 인닉니를 敢히 赦티 아니 여다…

절대격형태는 주로 "君子, 兄弟, 罪"에서처럼 주격에서 절대격이 많이 나타나고있다.

# 3.1.10. 체언의 용언형

체언의 용언형은 서술격형태 즉 명사의 풀이말 형태를 말하는데 "이"와 "]"가 많이 쓰인다

- (1) 詩 | 三百애 훈 말이 써 蔽 ㅎ 야시니 골온 思 | 邪 업송 <u>이</u>니라.
- (2) 狐貉 닙은 이로 더브러 立호딕 붓그려 아니 하나는 그 由 신뎌?

# 3.1.11. 후치사적단어

이러한 단어들은 문장론적기능을 이룰수 있는 점에서는 격토와 류사한 점

을 가지나 그것이 16세기 말까지는 문법적추상화가 덜 되여 단어로서의 면 모를 많이 띠고있으므로써 격토와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

드려〉더러:

(1) 子 子貢 드려 닐어 골 으샤티 네 回로 더브러 뉘 愈 호 뇨?

이것은 동사 "'드리-(데리다, 동반하다)' 의 이음형 드리-+어〉 드려"로 이루어진것이다.

이셔〉에서:

(1) 子 磬을 衞예셔 擊 하시니 蕢물 荷 호고…

이것은 동사"'이시-'의 이음형 이시-+어〉이셔, 에+이셔〉예셔", "에+겨시-+어〉에겨셔"로 된것이다.

브터〉부터:

- (1) 버디 遠方으로브터 오면 또한 즐겁디 아니 한라?
- 이것은 동사"'븥-'의 이음형 븥-+어〉브터"로 된 형태이다.

도곤, 두곤:

- (1) 子 골 약사 디 民이 仁에 水火도곤 甚 하니…
- (2) 叔孫武叔이 朝애 태우드려 닐어 골오딕 子貢이 仲尼두곤 賢 하나라.
- 이것은 동사"'두-'의 이음형 두-+-고+강조형태 'ㄴ' "로 된 형태이다.
- 도움형태: (는/는, 은/은)
  - (1) 子 골으샤디 君子는 義예 喩 하고 小人은 利예 喩 하는니라.
  - (2) 君子는 可히 小에 知티 몯 호고 可히 大옌 受 홀꺼시오 小人은 可히 大옌 受 티 몯 호고 可히 小에 知 홀꺼시니라.

도음형태 "는/는" 과 "은/운"은 앞에 있는 체언의 끝음절이 개음절과 페음절 그리고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으로 의해 구분된다. 여기에서도 양성모음과음성모음의 대립이 파괴되고있다.

이밖에도 "도, 만, 사" 등 도움토도 활발히 쓰였음을 확인할수 있다.

도: 君子 天下애 適홈도 업스며 莫홈도 업서…

만: 丘의 学을 好홈만 걷디 몯호니라.

라: 父의 道애 고티미 업세라 可히 孝 │라 닐을 이니라.

### 3.2. 용언형태

#### 3.2.1. 종결형태

종결형태는 주로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오면서 말을 끝맺어주거나 말을 듣는 상대를 대우해주는 기능을 한다. 종결형태를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ㄱ"로 시작되는 종결형태:

- (1) 晏平仲은 人으로 더브러 交홈을 善히 항농다 오라되 敬항곤여.
- (2) 이제 내 人의게 그 言을 듣고 그 行을 観 호노니 予의게 이룰 改 호<u>과라.</u> "-곤여(-고녀) -주로 의문을 나타냄/ -과라(명령의 의미)"

#### "ㄴ"로 시작되는 종결형태:

- (1) 朋友로 더브러 交홈애 信티 몯호가 伝코 習디 몯호개니라.
- (2) 엇디 이 道를 由티 아니ㅎ는고?
- (3) 너는 그 羊을 愛한는다 나는 그 礼를 愛한노라.

"느"로 시작되는 종결형태는 주로 현재와 관련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한 형태들로는 "-ㄴ가, -ㄴ고, -ㄴ대, -ㄴ뎌, -ㄴ누니라(이미 나타난 사실), -ㄴ다(행동이 현재 진행) / -└니라, -└니이다, -└니잇가, -└니잇가, -└니잇고, -└다, -└닝이다, -└닝이고, -└또다, -└냐, -└뇨(현재 진행됨/줄어서 'ㄴ'로 됨) / -눈고, -눈다, -눈뎌(현재 진행됨)/ -노라, -노쇠이다, -노이다, -놋다, -뇨, -농이다(현재진행의 일반화)/ -느니라/ -니라, -니이다,

-니잇가, -니잇고, -닝잇가, -닝잇고, -닝잇고(이미 나타난 사실/줄어서 'ㄴ'로 됨)" 등 형태들이다.

"ㄷ"로 시작되는 종결형태:

- (1) 或이 골오디 뉘 닐오디 鄹人의 子를 礼를 안다 흐더뇨?
- (2) 힘을 溝洫에 다 호시니 禹는 내 間然홈이 업도다.

이러한 형태들로는 "-더뇨, -더니라, -더니잇가, -더라, -더시다, -더이다, -데이다(직접 보았거나 체험한 사실)", "-도다/ -로다, -도소이다, -돗더라, -두다(감탄 및 시적인 우아한 의미적색채)" 등 형태들이 나타난다.

"ㄹ"로 시작되는 종결형태:

- (1) 子 골 우샤 디 엇디려뇨 엇디려뇨 아니 ㅎ 눈 者 눈 내 엇디려뇨?
- (2) 讚과 膚의 受意 愬 行티 몯 한면 可히 遠이라 닐으리니라.
- (3) 子의 삼가시는 바는 齎와 戦과 疾이러시다.

이러한 형태들은 "-ㄹ가, -ㄹ까, -랴, -ㄹ띠오, -러시다, -려뇨, -로라, -리니라, -리라, -리러니라, -리로다, -리로송이다, -ㄹ셔, -리오, -리이다, -리잇가, -리잇고, -린뎌, -링잇가, -링잇고(앞으로 나타날 사실을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 추측 등 의미도 나타냄)"등이 있다.

"시"로 시작되는 종결형태는 시킴을 나타낸다.

(1) 陳恒이 그 君을 弑 하니 請컨댄 討 하 쇼셔.

## 3.2.2. 접속형태

접속형태는 문장에서 용언과 용언 그리고 단일문과 단일문을 이어주면서 각종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형태이다. 접속형태도 『론어언해』에서 다른 형태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되였다.

- "ㄱ"로 시작되는 접속형태:
- (1) 上을 犯홈을 好티 아니 하고 乱을 作홈을 好홀 者 ] 잇디 아니 하니라.
- (2) 邦君이아 樹로 門을 塞호거들 管氏 또호 樹로 門을 塞호며…
- (3) 子 ] 골 으샤 디 速고자티 말며 小利를 보디 마를 띠니…
- (4) 子의 道를 説티 아니홈이 아니언마는 힘이 足디 몯호이다.

이러한 형태들은 "-고, -고도, -고야, -고쟈, -고쟈티, -고저, -곤(병렬)-과뎌/-거놀, -거늘, -거니, -거니와, -거든, -건(언)마는, -거시놀, -거시든, -건뎡, -건대, -건뎡, -건디(의지, 단정)"등이 있다.

#### "ㄴ"로 시작되는 접속형태:

- (1) 本이 셤애 道 ] 生항 느니 孝弟는 그 仁항욜 本인더?
- (2) 만일에 民의게 施홈을 너비학고 能히 済홈이 衆혼딘 엇더 학닝잇고?
- (3) 내 태우의 後에 従 한 논디라 可히 徒行티 몯호모로 뻬니라.

이러한 형태들은 "-ㄴ딕, -ㄴ딘, -ㄴ대(-은대), -ㄴ더(-은더), -노니, -논디라(규정토+불완전명사), -나(으나), -ᄂ니, -니(으니, 야니-니와)(ㄴ+ 모음결합형), -늘(-여늘), -늘(-여늘)(불완전명사적 단어+격형태)" 등이 있다.

#### "ㄷ"로 시작되는 접속형태:

- (1) 大臣은 道로 써 님금을 셤기다가 可티 아니커든 그치는니…
- (2) 손을 左로 흐며 右로 흐더시니 옷앏뒤히 檐퉁 흐더시다.

이러한 형태들은 "-다가, -다니, 더니, -더시니, -되(-으되, -오딕), -도(-어도, -야도)(불완전명사'드'+모음 '아/어, 오/우'형), -디, -딕(-어딕, -오딕), -든 (어든)(불완전명사 '드'+체언형태"등이 있다.

#### "ㄹ"로 시작되는 접속형태:

(1) 만일에 王者 ] 이실따라도 반드시 世後에 仁호노니라.

(2) 子 ] 골 오샤딩 富를 可히 求홀꺼신대 비록 채를 잠는 士 ] 라도…

이러한 형태들은 "-ㄹ띠라도, -ㄹ시, -ㄹ제, -ㄹ씨, -ㄹ꺼시나, -ㄹ꺼신댄, -ㄹ띠언뎡, -ㄹ띤댄, -ㄹ제(규정토+불완전명사), -라도, -러도, -려니와(-으려니와), -로소니, -리니(-오리니), -려(으려), -리러니(-으리러니)('ㄹ'+모음 '아/어, 오/우'형)" 등이 있다.

#### "口"로 시작되는 접속형태

- (1) 나는 弟학며 謹학고 信학면 너비 衆을 愛호딕 仁을 親히 홀 띠니…
- (2) 내 태우의 後에 従 한 그라 可히 徒行티 몯호모로 뻬니라.

이러한 형태들은 "-며(-으며, -우며)(모음 야/여형), -모로(명사적단어+격형 태)"등이 있다

#### "아/어/여"로 시작되는 접속형태

- (1)이 또혼 政을 홈이니 엇디호야삭 그 政을 한다 한리오?
- (2) 簣를 일오디 몯호야셔 그침도 내의 그침이 フ투며…
- (3) 柳下恵 ] 士師 ] 되여셔 세 번 黜 하여들 사름이 골오 다...

이러한 형태들은 "-야셔/-여셔. -야삭" 등이 나타난다

#### 3.2.3. 규정형태

규정형태는 주로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뒤에 오는 체언을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 (1) 子 ] 골 으샤 디 弟子 ] 드러는 孝 한고 나는 弟 한 며…
- (2) 달은 날애 또 혼자 셧거시늘 鯉 │ 趨호야…
- (3) 나를 陳 한 던 者 다.

이러한 형태들로는 "-는, -은, -을, -ㄴ, -논, -던"등이 나타난다.

## 3.2.4. 수식형태

수식형태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해 주는 기능을 하는 문법적형태이다.

- (1) 君子는 可히 가게 홀띠언뎡 可히 싸디게 몯 여다…
- (2) 子路 ] 몸이 뭇도록 외오려 혼대…
- (3) 学홈을 밋디 몯홀듯 힉고 오히려 일흘가 저허홀띠니라.

이러한 형태들로는 "-게, -도록, -듯" 등이 있다.

#### 3.2.5. 시칭형태

- (1) 水火는 내 蹈학야 死학는 者를 보앗거니와 仁을 蹈학야 死학는 者를 보디 목게라…
- (2) 樊遅 ] 御호야떠니 子 ] 告호야 골으샤딩…
- (3) 俎豆의 事는 일즉 드럿거니와 軍旅의 事는 学디 몯 한도이다.

이러한 형태들로는 "-앗-/-엇-/-얏-, -앗더니, -야쩌니, -얏거든, -얏더니/-엿더니, -언노니, -언마는, -엇거니와, -엇고" 등이 있다.

# 3.2.6. 존경형태

존칭에는 "주체존경형태(-시-), 객체존경형태(-줍-, -오-), 청자존칭형태" 등이 있다.

# 3.2.6.1. 주체존칭형태

- (1) 疾에 君이 視호거<u>시</u>든 東으로 首호<u>시</u>고 朝服을 加호시고 臣을 拖호더<u>시</u>다.
- (2) 曾子 ] 골 으샤딩 내 날로 세가지로 내 몸을 술피노니…
- (3) 公애 祭 호시심애 肉을 宿디 아니 호시며 祭肉은 三日에 出티 아니 호더시니

이러한 형태들로는 "-시고, -시니, -시되, -시며, -시모로, -시심애, -시어시 놀, -신대, -신뎌, -실제, -으시누니, -우샤딕, -우시고, -어시놀. -샤눈, -시 눈, -시문, -실쉭"등이 나타난다.

## 3.2.6.2. 객체존경형태

- (1) 아래내 夫子 ] 쯰 뵈으와 知를 몯즈오니…
- (2) 子路 | 골오디 願컨댄 子의 志를 듣줍고져 항농이다.

이러한 현태들로는 "- 주오니, - 주와, - 줍고져, - 줍노이다" 등이 나타난다.

#### 3.2.6.3. 청자존칭형태

- (1) 公事 ] 아니어든 일쪽 偃의 室에 니르디 아니호 느닝이다.
- (2) 哀公이 묻주와 골오딕 엇디호면 民이 服호 느닝잇고?
- (3) 哀公의 告호야 골으샤딕 陳恒이 그 君을 弒호니 請컨댄 討호쇼셔

이러한 형태들로는 "- 누닝이다, - 누닝잇고, -리잇가, -리잇고" 등 다양한 형태들이 쓰임이 보인다.

- 용언의 체언형태와 격형태의 결합:
  - (1) 貧호야도 蹈홈이 업스며 富호야도 驕흠이 업소딕 엇더호닝잇고?
  - (2) 徳의 脩티 몯홈과 学의 講티 몯홈과 義를 듣고 能히 徙티 몯호며…
  - (3) 人의 근물 아디 몯흠을 患티 말고 人을 아디 몯흠을 患홀띠니라.
  - (4) 子 ] 골으샤디 君을 셤굠애 礼를 다홈을 사름이 써 蹈혼다 한 다.

이러한 형태드로는 "홈/홈/음: 窮홈이(170), 乱홈을(90), 言홈애(66), 貴홈은(16), 言흠을(8), 美홈과(7), 莫홈도(7), 盼홈이여(6), 終흠애(2), 업슴애, 업슴이, 養흠이니"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유경언해≫에 나타난 문법적형태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 장 사이에 쓰이면서 다양한 문법적-관계적의미를 나타냄을 알수 있다.

# 4. 어휘적특성

『론어언해』의 문헌에서 사용된 어휘들은 기타 문체에서 사용된 어휘들과 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고있는바 아래 그 특징을 상세히 고찰한다.

4.1. "- ㅎ다"형 한자어 동사와 형용사:

한자에 "- ㅎ다"접미사를 결합시켜 동사, 형용사화 된 어휘가 상당히 많이 수를 차지한다.

- (1) 학고(274): 貧학고 樂학며 富학고 礼를 好한는 者만 곧디 몯학니라.

이러한 어휘들로는 이 밖에도 "擯호-, 筭호-, 彬彬호-, 殯호-, 称호-, 盪호-, 敝호-, 有心호-/ 근심호-, 그러호-, 공경호-, 힝호-, 君되-" 등이다.

한자를 어근으로 하는 "-하다"형 동사나 형용사들이 많은바 이는 후세에 조선어단어구성에 한자어휘, 특히는 "-하다"형 한자어휘가 많아진 것이 ≪유경언해≫와 밀접관계가 있지 않겠는가고도 생각된다. "-하다"형은 한자어만 나타난것이 아니라 고유어에도 나타나고있는바 례를 들면 "덛덛흐-, 더흐-, 뜯흐-, 몬져흐-" 등이다.

(1) 夫子 ] 어듸 擧디 아니 하시며 또 한 엇디 덛덛 한 師 ] 이시리오?

# 4.2. 한자를 그대로 표기한 명사

한자로 표기한 한자어휘가 많다. 한문의 독송을 위해서는 규범이 못되는 한자어휘가 역문에서 적잖게 그대로 쓰이고있다.

(1) 子 ] 골 우샤딩 <u>居處</u>에 恭형며 <u>事</u>를 執홈이 敬형며 <u>人</u>을 与홈이 忠**홈을** 비록 <u>夷狄</u>에 갈따라도 可히 棄티 몯홀꺼시니라.

(2) 子 ] 골 우샤딩 <u>君子</u> ] 義로 써 <u>質</u>을 삼고 <u>礼</u>로 써 行 여 <u>孫</u>으로 써 出 여 명으로 써 成 한 나 君子 ] 라.

이러한 어휘들로는 "公子 신, 射 신뎌, 微子는, 詩는, 魯公 드려, 慢 티, 賈 롤, 皋陶롤, 后帝의, 駟도, 堯舜도, 水火도곤, 朋友에는, 兄弟에는, 後에 아, 陳에겨셔, 塗에셔, 周公에셔" 등 한자어 명사들이다. 이밖에도 한자를 직접 쓰거나 혹은 "- 한다"형 용어로도 쓰인 어휘 "邦, 防, 方/ 邦 한 -, 放 한 -, 方 한 -"도 보인다.

이와 같이 『론어언해』 한자로 표기한 한자어휘가 그대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유경언해》는 원문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것이 아니라 필독도서로서의 《유경》의 내용을 더 잘 리해하게 할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번역도 원전독송의 편리를 위해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위주로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김영수 2001: 116-117).

## 4.3. 동음어의 산생

언어의 사용에서 동음어의 존재는 피면할수 없는 언어적현상이다. 특히 《유경언해》에서 한자를 직접 사용하거나 "호다"와 직접 결합하여 사용하 였기에 단음절 한자동음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家, 稼, 賈, 駕/ 公, 工, 恭, 功/ 器, 己, 期, 杞, 氣, 沂, 驥/成人, 聖人/ /加 ō -, 可 ō -, 嘉 ō -, 暇 ō -, 称 ō -/ 干 ō -, 簡 ō -, 諫 ō -, 間 ō -/ 憾 ō -, 敢 ō -, 甘 ō -, 監 ō -/ 剛 ō -, 講 ō -, 解 ō -, 隆 ō -/ 堅 ō -, 見 ō -, 狷 ō -/ 敬 ō -, 更 ō -, 耕 ō -, 経 ō -/ 奇 ō -, 幾 ō -, 棄 ō -, 棄 ō -, 東 ō -, 欺 ō -, 起 ō -, 僟 ō -/ 니 ō -, 泥 ō -/ 인 ō -, 人 ō -, 仁 ō -, 因 ō -, 忍 ō -, 訒 ō -

그러나 한자는 어디까지나 뜻글자이고 또한 일정한 언어적환경에서 이러 한 동음어가 쓰이기에 동음어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 4.4. 한자어를 조선어자모로 표기

대체적으로 한자어휘는 한자로 표기하고 고유어휘는 정음으로 표기하였는데 별반 규칙성이 없이 부분적인 한자어휘들을 정음자로 표기한것이 있고 또한 한자와 조선어자모로 함께 쓴 어휘들도 나타나고있다.

- (1) 음식: 사오나온 옷과 사오나온 음식을 븟그리는 者는 足히 더브러 議티 몯홀 꺼시니라.
- (2) 공경호-: 民의 義를 힘쓰고 鬼神을 공경코 멀리호면 可히 知라 닐올 띠니라.
- (3) 진실로: 子 ] 골 으샤되 진실로 仁에 志호면 惡이 업무니라.

이러한 어휘는 이밖에도 "신하, 빅셩/ 〈양호-, 지극호-, 〈랑호-, 힝호-/ 쟝춧, 심히, 만일, 극진히, 감히, 각각, 가히" 등 어휘들이 나타난다. 일부 어휘들은 한자와 조선글자로 기록되었다.

① -1: 仁티 아니 호니를 疾홈을 너모 <u>심히</u> 홈이 亂홈이니라. -2: 그 進홈을 与 호고 그 退를 与홈이 아니니 엇디 甚히 호리오?

이러한 어휘는 이 밖에도" 公子 신/ 공자의, 將춫/쟝춫, 음식/ 飲食, 니호-/泥호-"등 어휘들이 있는바 이러한 한자어들은 장기간의 사용과정에 이미 벌써 한자어가 우리말 어휘 중에 들어와 한자어라는 인식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말 어휘 속에 깊이 침투된 한자어도 이시기 있었음을 말할수가 있다.

## 4.5. 의존명사의 사용

의존명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의존명사 앞에서 규정해 주는 성분과 함께 쓰이면서 여러가지 의미,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바 『론어언해』에 술어 성의존명사의 그 쓰임이 적잖게 보인다.

**뚄름(21)**:

- (1) 祭예 敬을 思한며 喪에 哀를 思한면 그 可홀 ᄯ롬이니라.
- (2) 골오디 이러툿 홀 ᄯ름이니잇가?
- (3) 근룰 알리 업거든 이예 말<u>뜻 룸</u>이니 …… 섓(2):
- (1) 子 ] 골 으샤 되 어디 반 도시 高宗뿐이라오?
- (2) 夫人이 言티 아닐 <u>뿐</u>이언뎡 言호면 반드시 中홈이 인느니라. 이밖에도 일반성의존명사 "것, 바, 이"등의 쓰임도 보인다.

바(21):

- (1) 民의 利호 바룰 因호야 利케 호니……
- (2) 位 업수믈 患티 말오 써 立홀 <u>빠</u>룰 患ㅎ며 …… 것(9):
- (1) 由는 果항니 政을 從홈애 므스거시 이시리오?
- (2) 恥와 辱을 遠학며 因홈애 그 親홀 이를 일티 아니학면 ……

#### 4.6. "ㅎ 종성체언"의 사용

15세기 "ㅎ 종성체언"이 주로 모음 아래나 향음자음 뒤에 "ㅎ"가 붙어 쓰인 어휘들이다. 이러한 어휘가 16세기 『론어언해』에도 그 쓰임이 줄지 않고있다.

- (1) 하늘히 厭호시리라 하늘히 厭호시리라.
- (2) 右로 흐더시니 옷앏뒤히 檐퉁 흐더시다.

이러한 어휘들로는 "무울ㅎ: 무울히, 뫼ㅎ: 뫼흘, 길ㅎ: 길혜, 우ㅎ: 우흐로, 열ㅎ: 열히오, 안ㅎ: 안히" 등으로 나타나고있다.

#### 4.7. 단어조성법

조선어 단어조성법에서도 "합성법, 접시법, 품사전성법" 등의 형태가 나타난다.

- (2) 접사법:

접두사법: 大故, 大國 수이, 大賚, 大謀, 大廟, 大賓, 大事, 大師, 大臣, 大臣, 大人, 大葬 · , 大宰, 大節, 大祭, 大賢 접미사법: 아름답-

(3) 품사의 전성: 갓가이, 巧히, 近히, 儼然호-, 儼然히, 飽히, 便便히, 疾히, 足히, 奪히, 심히, 足게, 진실로, 히여곰, 시러곰, 홀로

#### 4.8. 글말체 어휘와 어휘의 형태변종

『론어언해』는 번역문체인만큼 글말체어휘가 많은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또한 번역자 자체의 어휘 사용 습관으로 하여 어휘들의 다양한 변종들이 나 타나고있다.

글말체 어휘들은 "반도시, 비로소, 말미암-, 히여곰, 시러곰, 비록, 사맛-"와 어휘의 다양한 변종들은 "므섯, 므스, 므스것, 므슴/ 져근, 져기/ 세, 석/ 붓그럽-, 붓그리-" 등이 나타난다.

# 5. 문장론적특성

우선 『론어언해』의 문장의 형식을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원문에 한자음과 구결식토 그리고 성조를 달았고 다음 언해문을 놓았다.

## 5.1. 언해문을 현대어로 옮기면:

① 子·ᄌ ㅣ 曰・왈夏:하禮ㆍ례를 푬오能눙言언之지 나 杞ㆍ긔不ㆍ블足ㆍ죡徵 딩也:야 ㅣ며 殷은禮ㆍ례를 푬오能눙言언之지 나 宋:송不ㆍ블足죡徵딩也:야 눝 文 문獻:헌 이 不ㆍ블足ㆍ죡故ㆍ고也:야 ㅣ니 足ㆍ죡則ㆍ즉푬오能눙徵딩之지矣:의 로리라.

② 子 ] 골 으 샤 되 夏 入 礼를 내 能히 니르나 杞예 足히 徵티 몯 ᄒ 며 殷 入 礼를 내 能히 니르나 宋에 足히 徵티 몯홈은 文과 獻이 足디 몯 혼 故 ] 니 足 ᄒ 면 내 能 히 徵호리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夏의 례는 내 능히 말하나 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며 殷의 례를 내 능히 말하나 宋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은 문헌자료 가 충분하지 못한 원인이니 (문헌이) 충분하면 내 능히 증명하리라."

유경언해문 중『론어언해』의 문장론적인 특성을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 5.2. 고정된 대화체 격식문장

주로 공자와 제자 혹은 기타 나라 사람들과 공자의 대화가 대부분을 이룬 다. 가장 많은 형식:

子 ] 골 은 샤디 言을 巧히 한며 色을 수히 홀이 仁홀이 鮮한니라.

(2) **(子夏 ], 子禽이, 有子 ], 樊遲 ], 哀公 ])**… … (묻주와, 무러)줄오디(220)… ….-니뎌!/ - ' 나?, -닝잇고?

有子 | 골오디 礼의 用이 和 | 貴호니 先王의 道 | 이 아름다온 디라

孟懿子 ] 孝를 묻주온대 子 ] 골 우 샤 되 遠홈이 업슴이니라.

례에서 보면 공자는 "골 우샤딩"형식이고 제자 혹은 기타 사람은 "골오딩, 묻즈온대"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 5.3. 렬거형 형식문

우선 공자와 제자의 대화 또는 공자가 도리를 설명하는것이므로 여러가지 사실을 라렬하여 설명하기에 이러한 문장형식이 많은것이다.

- (1)… 호고… … 호며… … 호고… … 호며……-니라.
- 子 ] 골 약 샤 디 千乘 시나라 흘 道호 티 일을 敬하고 信 한 미를 節 호고 사름을 愛 후 며 民을 브료 티 時로 써 흘 때니라.
- 子 ] 줄 약 차 위 學 호고 思티 아니 호면 罔 호고 思 호고 學 다 아니 호면 殆 호 느 나라.
  - 子 ] 골 이 샤 디 臨호 디 莊 으로 써 <u>항 면</u> 敬 <u>항 고</u> 孝 항 며 慈 <u>항 면</u> 忠 <u>항 고</u> 善을 擧 항 고 能 티 몯 항 는 이를 고 르치면 勸 항 느니라.
- (3) ㅎ며…ㅎ면…ㅎ고…ㅎ며… …ㅎ면…-니라.

諒을 호면 多聞을 호면 益 호면 極辟을 호면 善柔를 호면 便佞을 호면 된 한 나라.

君子는 可히 가게 홀띠언뎡 可히 싸디게 몯 ㅎ 며 可히 긔홀띠언뎡 可히 罔티 몯 홀꺼시니라.

(4)… 이… … 면 … … ㅎ며 …이 … 면 … … ㅎ며… … 면… … 니라. 有子 ] 줄오딕 信<u>이</u> 義예 갓가오<u>면</u> 言을 可히 复<u>ㅎ며</u> 恭<u>이</u> 礼예 갓가오<u>면</u> 恥와 辱을 遠<u>ㅎ며</u> 因홈애 그 親홀 이를 일티 아니<u>ㅎ면</u> 또흔 可히 宗호얌즉<u>호니라</u>.

례문에서 보여주다싶이 공자가 도리를 설명할 때 병렬형식을 많이 썼다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단순형 병렬접속토 "-고, -며", 조건형 종속접속토 "-면" 을 많이 사용했다.

## 5.4. 다양한 문장론적수법

『론어언해』는 다양한 문장론적수법을 리용하여 번역의 표현적효과를 높 혔다고 말할수 있다.

(1) 대구형 형식문들이 상당이 많다.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사실을 설명할 때 대구형식으로 설명한다.

子 ] 골 으 샤 되 그 鬼 ] 아닌 거슬 祭홈이 豁이오. 義를 보고 한다 아니홈이 勇이 업습이니라?

子 ] 골 은 샤 디 君子 ] 食홈에 胞홈을 求티 아니 ᄒ며, 居홈에 安홈을 求티 아니 ᄒ며, 事에 敏 ᄒ며, 言에 愼 ᄒ고, 道인는 딕 나사가 正 ᄒ면 可히 學을 됴히 너긴다 닐을 이니라.

(2) 련쇄적수법도 사용하였다. 두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의 사실을 설명할 때 대구형식으로 설명한다.

學학고 思티 아니학면 罔학고/ 思학고 學디 아니학면 殆학느니라.

(3) 여러가지 사실을 라렬하면서 토반복의 수법도 사용하였다.

子 ] 골 은 샤딩 내 열히오 또 다 는 새 學애 志 한 고

설흔에 立호고

마은애 惑디 아니호고

쉬에 天命을 알고

여슌에 耳 | 順호고

닐흔에 무움의 欲호는 바를 조차 矩에 넘디 아니호라.

### 5.5. 부정문

문장의 부정형에서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을 사용하였으나 긴 부정문이 사용이 더욱더 우위를 차지함을 확인할수 있다.

#### 5.5.1. 긴 부정문

- (1)… …디 아니호/티 아니호(69+146=215)… … 子 | 줄 º 샤딕 鳳鳥 | 니르<u>디 아니호</u>며 河애 図 | 나디 아니호니… 사름이 아디 몯호야도 慍티 아니호면 또흔 君子 | 아니가?
- (2)… …디 몯호/티 몯호(68+76=144)… … 三年을 學홈애 穀애 뜬호디 아니호노니룰 수이 언<u>디 몯호</u>리니라. 武를 니른샤딕 극진히 美호고 극진히 善티 몯호다 호시다.
- (3) … …디 말/ 티 말(3+14=17)

짧은 부정문에서는 "아니(안이) 하다, 못하다"의 형식으로만 쓰였음이 확인된다.

#### 5.5.2. 짧은 부정문

(1) …아니/안…

子 ] 골 우 샤 뒤 禘 ] 임의 灌홈으로 브 터 往 훈 者 는 내 보고져 <u>아니</u> 호노라. 簡애 居 호고 簡을 行 호면 아니 너무 簡 호 닝잇가?

그 물을 策호야 골오되 敢히 後호는 줄이 아니라 물이 나사가디 <u>안이</u> 홈이라 항니라

또 한 그 가온대 인닉니 義아니오 富코 또 貴홈은 내게 浮雲 フ틴니라.

(2) 몯 .....

對호야 골오딕 몯호얀노라.

골으샤딕 詩를 學한얀다 對한야 골오딕 몯한얀노이다.

### 5.6. 문장에서 높임법의 사용

『론어언해』의 문장의 형식은 대화형식이지만 주로 공자와 제자 그리고 공자와 기타 나라 사람들과의 대화이기에 높임법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여 주로 안높임법과 가장 높임법이 보인다.

자공과 공자, 樊遲와 공자, 哀公(魯國的國君)과 孔子가 대화를 분석해 본다.

### (1) 자공과 공자:

子貢이 골오되 貧호야도 韜흠이 업스며 富호야도 驕흠이 업소되 엇더호<u>닝잇고</u>? 子 ] 골으사되 可호나 貧호고 樂호며 富호고 礼를 好호는 者만 곧디 몯호<u>니라.</u> 子貢이 골오되 詩예 닐오되 切툿호고 磋툿호며 琢듯호고 磨툿호다 호니 그 이 롤 닐옴인뎌?

子 ] 줄 은 샤 디 賜 는 비로소 가히 더브러 詩를 니르리<u>로다</u>. 往을 告흠애 來子를 알<u>오 녀</u>?

#### (2) 樊遲와 공자:

#### (3) 哀公(魯國的國君)과 孔子:

哀公이 <u>묻주와 골오디</u> 엇디호면 民이 服호느<u>닝잇고</u>?

孔子 ] 對호야 <u>골으샤</u> [ 直을 擧호고 모든 枉을 錯호면 民이 服호고 枉을 擧호고 모든 直을 錯호면 民이 服다 아니 호난닝이다.

이들의 대화에서 주로 나타난 계칭형태는 "-닝잇고?/-니라, -인뎌?/ -로다? -고녀? -랴? -닝잇고?/닝이다." 등이다.

### 5.7. 중국어 번역투의 격식

여러곳에서 중국어 고한어 번역투의 글말의 특성이 나타나는바 "以(써), 斯, 是(이)"등이 대표적인 레이다.

#### (1) 以(附):

不以禮節之(-礼로 <u>써</u> 節티 아니면)/ 亦足以發(또 ᅙ 足히 <u>써</u> 發 ᄒ ㄴ니) - 구·조 ] 曰·왈詩시三삼百·빅애 —·일言언以:이蔽·폐之지 ᄒ니 曰·왈思〈無무邪샤 ] 니라.

子 ] 골 으 샤 디 詩 ] 三百애 현 말이 <u>써</u> 蔽 한 야시니 골 온 思 ] 邪 업숨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시경≫ 3백5편을 한마디 말로써 개괄한다면 사상이 순 수하고 사악함이 없느니라."

#### (2)斯, 是(이):

斯害也已。(이 害니라.)/ 是知也。(이 알옴이니라.)

### 6. 결론으로

이상과 같이 유경언해의 대표적인 문헌인 1590년에 간행된『론어언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언어적특징을 개괄할수 있다.

첫째, 표기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즉 표음주의 철자법이 실행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뒤음절 첫소리 "ㄴ"의 영향으로 역행동화를 거쳐 음절 끝소리 "ㅅ"가 "ㄴ"로 변화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현상이 표기에 적용되고 "ㅎ+ㄱ→ㅋ" 처럼 어음축약 현상이 음절내부 표기에 나타난다. "어두자음군", 유성마찰음"△"와 아음 "○"음의 표기, 력사적어음교체 현상에서 독특한 표기적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문법적형태에서 체언형태의 특징이라면 주격형태 "가"의 사용, 규정 여격형태 "앳/엣"의 속격의 기능, 격형태에서의 모음조화의 파괴, 여격형태에서는 활동체명사와 비활동명사에 의해 "에/애/예"와 "의게"로 대응,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의해 "에/애/예"로, 주체가 비존경과 존경의 대상에 의해 "의게"와 "씌" 처럼 두개 쌍으로 갈라진다. 위격형태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고 주격에서 절대격이 많이 쓰이며 도움토에서의 모음조화가 파괴되며 후치사적단어는 문법적추상화를 거치는 과정에 단어의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용언형태는 종결형태, 접속형태 등이 언해문에서 다양한 문법적형 태가 나타나 서로 다른 문법적기능을 놀았다면 기타 규정형태, 수식형태, 존칭형태는 그 시기 다른 문헌과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유경언해문에 사용된 어휘들은 "- ㅎ다"형 한자어 동사와 형용사, 한자를 그대로 표기된 중국어명사, 다양한 동음어의 사용, 일부 조선글자로 표기된 한자어, ㅎ종성체언, 의존명사의 쓰임, 글말체의 어휘 등에서 독특한어휘적특징들이 나타났다.

다섯째, 문장론적으로는 고정된 대화체문장, 렬거형 문장형식, 다양한 문 장론적표현기법, 단조로운 장형부정문, 안높임과 가장높임형태 대응, 중국어 번역형식 등에서 유경언해문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이 찾아볼수 있었다. 총적으로 교정청본 『론어언해』를 통하여 16세기 말 조선어의 언어적특성 과 함께 유교경전의 언해문체로서의 독특한 표기와 문법적형태, 어휘 및 문 장에서 나타난 특성을 찾아볼수 있었다.

#### 참고문헌

고영근(2006) 『표준중세국어문법』, 집문당

김영수(2001)『조선중세한문번역본의언어사적연구』, (조선)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김영황(1996)『조선언어학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영황(1997)『조선어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종훈·박영섭 등(1997) 『한국어의 력사』, 대한교과서.

김형규(1954)『국어학사』, 백영사.

렴종률(1980)『조선어문법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렴종률(1990)『조선어내적발전사연구』, 사회과학출팎사

리득춘·리승자·김광수(2006)『조선어발달사』, 연변대학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홍기문(1966)『조선어력사문법』, 사회과학출판사.

#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의 비교연구

**김영수** 연변대학

『번역로걸대』는 한학자이며 어학자인 최세진이 고려시기부터 중국어 학습용으로 쓰이던 ≪로걸대≫를 16세기 초에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고 『로걸대언해』는 1670년에 정태화¹에 의하여『번역로걸대』의 원문은 놔두고 역문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출판한 책이다. 따라서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는 원문은 하나로 되여있지만 160여년이란 세월을 사이두고있기 때문에역문에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또 이 시기의 언어적 변화를 반영하고있어 번역사 연구에는 말할것도 없고 조선어의 변화, 발전연구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본문에서는 『번역로걸대』(상)과 『로걸대언해』(상)을 대상으로 하여 각이한 측면에서 이 두 작품의 차이를 대비, 분석하고저 한다.

## 1. 서사규범

첫째, 『번역로걸대』에는 정음자로 표기한 정음과 속음을 망라하여 번역문에도 사성표기가 붙지만 『로걸대언해』에는 사성표기가 붙지 않고있다.

<sup>1</sup> 정태화(1602-1673): 조선시대의 문신

례: 你幾時離了王京(상 1장)

역문: 네: 언·제 王京의·셔·떠난·다(초)<sup>2</sup>

네 언제 王京의셔 떠난다(중)

표기상의 어려움으로 하여 원문의 사성표기는 생략하였는데 역문을 보면 『번역로걸대』에는 사성표기가 있지만 『로걸대언해』에는 사성표기가 없다. 이것은 『로걸대언해』가 간행될 때에는 《두시언해》(중간본)와 같이 이미 서사규범에서 사성표기가 없어졌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둘째, 자음 《 $\triangle$ 》가 『번역로걸대』에서는 쓰이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다 《 $\bigcirc$ 》로 변하였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딕싈	딕일
	어버스	어버이
	지어	지어
	요소시	요亽이
	닉싈	닛일
	٥١م]	070]
	댓무수	댓무우

이것은 자음 ≪△≫가 『로걸대언해』에 이르러 조선어의 자음체계에서 소 실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셋째, 자음 ≪ ○ ≫가 『번역로걸대』에서는 초성에나 종성에 다 쓰이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다 ≪ ○ ≫로 되였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깃게이다	깃게이다
	형	형

<sup>2</sup> 서술의 편리를 위해 『번역로걸대』의 례문출처를 (초)로 표시하고 『로걸대언해』의 례문출처를 (중)으로 표시한다.

 스숭
 스숭

 외방
 외방

이것은 ≪ ○ ≫가 『번역로걸대』시기에는 하나의 초성으로 쓰이였지만 『로 걸대언해』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소실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넷째, 모음조화규칙이 파괴되면서 말줄기와 토, 단어의 어음구성의 표기 가 달라지고있다.

#### ㄱ 말줄기와 토의 표기상의 차이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한나홀	<b>호나</b> 흘
	弓手를	弓手罩
	나그내를	나그내룰
	공부를	공부를
	우리를	우리를
	죽거늘	죽거늘

### ㄴ. 단어의 어음구성표기상의 차이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아드	아므
	밧분	밧븐
	업스니	업스니
	조보니	조브니
	불フ리	불그리
	노한라	노흐라
	서르	서루
	니르다	니루다

례의 비교에서 보다싶이 『번역로걸대』에서는 말줄기의 끝모음과 토의 결합에서  $\ll l$ ,  $\perp$ ,  $\sim \gg$ 의 양성모음이 끝모음으로 될 때에는 한자어휘를 포함

하여 토 ≪울, 룰≫ 등과 결합되고 ≪ㅓ, ㅜ, 一≫와 같은 음성모음이 끝모음으로 될 때에는 토 ≪을, 를≫ 등과 결합되며 단어의 어음구성에서도양성은 양성모음끼리, 음성은 음성모음끼리 결합되는 규칙성이 있다. 하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이 모음조화규칙이 파괴되여 량자간에 례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있다. 물론 『번역로걸대』에서도 부분적으로 모음조화규칙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너히≫, ≪갑슬≫ 등과 같은 표기와 ≪불 ᄀ리≫와 ≪불그리≫처럼 한 단어에 두가지 표기가 다 쓰인 현상들이 있다. 그러나 『로걸대언해』에 비해서는 모음조화규칙이 의연히 작용한다고 말할수 있다.

다섯째, 하철표기와 상철표기로 인한 표기상 차이가 있다.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사루미	사름이
그를	글을
지비	집이
콩므를	콩물을
새벼리	새별이
수리	술이
모미	몸이
우므른	수물은
म}-म]	밥이
이리	일이
	사루미 그를 지비 콩므를 새벼리 수리 모미 우므른 바비

례에서 보다싶이 『번역로걸대』는 하철표기가 위주로 되고있는 반면에 『로걸대언해』는 상철표기에로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는데 이 두책의 상권에서만 해도 하철과 상철표기로 인하여 표기가 달라진것이 34개에 달한다. 이것은 시대가 현대에 접근함에 따라 형태주의표기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여섯째, 받침표기가 다른것들이 일부 있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다亽	다숫
	당시론	당시롱
	짓	집
	겨틔	겻틔
	접페라	저페라
	그르	그릇
	우믌	우믈
	안직	아직
	곫프다	골프다
	일즉	일즙
	미처	밋처
	므	크
	초호롯날	초호론날

일곱째, 한자어휘에 대한 표기상 차이가 있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밋싈	每日
	양육	羊肉
	십 리	十里
	촌	村
	됴뎡	朝廷
	텬하	天下
	쥬싄	丰人

례에서 보다싶이 『번역로걸대』에서 정음자로 표기한 단어들을 『로걸대언 해』에서는 다시 한자로 표기하고있는데 이 표기상 차이는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의 상권들에만 하여도 48곳이나 있다.

## 2. 어음변화와 관계되는 서사표기

첫째, 『번역로걸대』에서는 모음 《 Ì ≫, 자음 《 ㄹ ≫ 아래에서 《 ㄱ ≫ 가 탈락되였지만3 『로걸대언해』에서는 탈락되지 않아 그대로 표기하고있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풀오	풀고
	돌와	물과
	더블오	더블고
	혜오	혜고
	내오	내고

이것은 훈민정음이 창제되여서부터 자음 ≪¬≫가 모음 ≪ | ≫와 자음 ≪ㄹ≫ 밑에서 탈락되던 현상이 17세기 중반기에 이르러 탈락되지 않던 어 음현상을 반영하고있다.

둘째, 된소리과정을 보여주는 표기가 나타나고있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열근	열끈
	글커든	끌커든
	구지람	<b>무지람</b>
	거슨	꺼슨
	갈 길	갈 낄

이것은 『번역로걸대』에서 부분적으로 순한소리로 발음되던것이 『로걸대 언해』에 이르러 된소리화과정을 겪는 어음현상을 반영하고있다.

셋째, 기음의 동반여부에 따라 『번역로걸대』에서의 ≪븍녀긔≫와 같은 표기가 『로걸대언해』에서는 ≪븍녀킈≫으로 표기되는데 이것은 기음화현상

<sup>3 15</sup>세기에는 자음 "¬"이 모음 "ㅣ"와 자음 "ㄹ"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하였다.

<sup>54</sup> 국제고려학 16호

## 이 늘어나고있음을 말하여준다.

넷째, 받침 ≪⊏≫가 ≪△≫로 발음됨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고있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벋	벗
	곧	곳
	쁜	<u></u>
	굳다	굿다
	혜왇고	헤왓고

이것은 『번역로걸대』까지는 받침 ≪ ⊏ ≫ 가 고유한 음가로 발음되여 발음 체계가 ≪ㄱㄴㄷㄹㅁㅂㅅ°≫의 8종성이던것이 『로걸대언해』에 이르러 ≪⊏≫가 ≪△≫로 된데서 7종성으로 된것을 반영하고있다.

다섯째, 모음의 어음적변화에 따라 단어나 토의 표기가 달라진것들이 있다.

### ㄱ. 단어의 표기가 달라진것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호야브리다	해여보리다
	너므	너모
	나괴	나귀
	다믄	다만
	쟈글	져글
	읜양	왼양
	어옛비	어엿비
	일핀되다	일편되다
	항호야	향호야
	브리우거니	브리오거니
	서우니	서오니
	일훔	일홈
	둡고	덥고

드릭니
광주리
닐곱
어듬도곤
<b>호</b> 엿더니
허믈
드호
머물올기
더오니
데오라
다
녜

# ㄴ. 토의 표기가 달라진것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주워(워)	주어(어)
	갑소로(오로)	갑스로(으로)
	가져(져)	가쟈(쟈)
	누녀	누냐
	마시려(려)	마시랴(랴)
	사디(디)	사되(되)
	<u>∞</u> o}(o})	ठ्व(व)
	따해(해)	따헤(헤)
	술풀리여(여)	술풀리야(야)
	라	롸

# ㄷ. 어음이 줄어들면서 표기가 달라진것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두의저려	뒤저어
	두의티기	뒷티기
	<del>물</del> 어디여	<del>믈</del> 허뎌

구으리혀	구르텨
가희	개
수욼갑	술갑

이 세개 류형에 속하는 단어들의 표기상 차이는 앞모음이 뒤모음화되거나 뒤모음이 앞모음화되며 높은모음이 낮은모음이 되거나 또는 낮은모음이 높 은모음이 되는 변화와 어음이 줄어들면서 표기상 차이가 생긴것들인데 부분 적으로 방언의 차이에서 생긴 변화도 있다.

여섯째, 상하철표기와 어음변화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것이 있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골외누니	フ래누니
	닐오미	니루미
	독버리	독별이

이것은 어음상 차이가 기본으로 되면서 상철과 하철에 의해 표기가 달라 진것들이다.

일곱째, 일정한 시간적간격으로 인하여 표기가 조금씩 달라진것이 있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딥피	딥히
	녑발치	녑팔지
	알프로	앏흐로
	요제예	요ぐ이
	저치다	적시다
	언메나	얼머나
	언멘고	언머고
	그테	긋틱
	골잇떡	골리떡
	인방	외방

여덟째, 두음법칙에 의한 표기상 차이가 있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례
 네

 량
 냥

이것은 『번역로걸대』에서 한자어휘를 정음자로 형태를 고정시키여 자음 《ㄹ》가 어두에 쓰인것들인데 『로걸대언해』에 이르러 두음법칙에 따라 표 기하데서 《ㄹ》와 《ㄴ》의 표기상 차이가 생기게 된것이다.

## 3. 어휘상의 차이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의 어휘상의 차이는 주로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과 고유어와 고유어의 교체에서 나타나고있다.

## 첫째, 고유어휘와 한자어휘

『번역로걸대』(상)과 『로걸대언해』(상)의 고유어휘와 한자어휘의 사용비례가 다르다.

번역로걸대(상)

총어휘수 5381

고유어휘 5126

한자어휘 255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례: 95:5

로걸대언해(상)

총어휘수 5367

고유어휘 4910

한자어휘 457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례: 91:9

이 수치가 보여주다싶이 『로걸대언해』는 『번역로걸대』보다 160년후에 나 온것이지만 한자어휘의 사용이 『번역로걸대』를 훨씬 초과하고있다. 이것은 년대순과는 역행하는것으로 고유어휘가 한자어휘로 이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 이 두책에서 구를 망라하여 고유어휘와 한자어휘가 서로 바뀐 현 상들을 보기로 한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웃듬으로 보미	主見
	니건 힛	往年
	니건 히	前年
	여듧	팔
	닷	오
	밤마다	每夜
	흥졍 フ숨	貨物
	고로	綾子
	호근 깁	小絹
	아숨	권당
	어미	母親
	도틔 고기	豬肉
	<b></b>	鹹淡
	아릭두곤	在前에 比
	쳔	錢物
	屍身	주검
	쌋 님자	地主
	사름 업슨 되	無人處
	나그내	客人
	구읫	官司
	앏픠	在前
	설엊다	收拾
	누무새	菜蔬

飢渴	비 골프고 목물라
뎐코져	옴굘디
不明학면	곳곳디 아니흐면
出入	나들이
黑林	어득훈 수프리
堅執	구디 잡고
細絲	フ눈 시리

례의 비교들을 보면 ≪屍身≫을 제외하고는 다『번역로걸대』의 고유어휘나 고유어휘로 된 말마디들이『로걸대언해』에서 한자어휘로 바뀌고있다. 이 것은 부분적고유어휘가 한자어휘로 이행한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 둘째, 고유어휘사이의 교체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사이에는 시간적차이로 인하여 부분적고유 어휘들의 교체가 나타나고있다.

례:	(번역로걸대)	(로걸대언해)
	앗가사	ヌ
	호마	의미
	년	다룬
	어위오	너무니
	이대	됴히
	병으로미	ᇤ이
	번드기	번드시
	콤(씩)	식
	볏딥	닛딥
	밋뷔	닛뷔

고유어휘와 고유어휘의 교체에서 보듯이 『로걸대언해』에서 교체한 고유 어휘들은 대부분 현대조선어에서 쓰이는 고유어휘들이지만 교체된 『번역로

걸대』의 고유어휘들은 부분적단어외에는 다 고어로 되였다.

## 4. 문법상의 차이

『번역로걸대』와『로걸대언해』는 비록 원문은 하나로 되여있지만 시간적 차이가 160여년이 되기때문에 문법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필자가 초보적으로 계산해본데 의하면 이 두책에서 문법상의 차이가 모두 45차 나 타나고있다

아래에 원문과 대조하면서 이 두책의 문법면의 각이한 현상들을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 첫째, 존경표식의 차이

례: ① 你是高麗人卻怎么漢兒言語說的好(상권 2장)

역문: 너는 高麗시 사루미어시니 또 엇디 漢語 닐오미 잘 ㅎ느뇨(초) 너는 高麗시 사롬이어니 또 엇디 漢語 니름을 잘 ㅎ느뇨(중)

② 大哥說的是(상권 41장)

역문: 큰 형님 니르샤미 올호시이다(초) 큰 형의 니름이 올타(중)

『번역로걸대』에서는 례문들에서 다 주체존칭의 토 ≪시≫가 붙으나 『로 걸대언해』에서는 ≪시≫가 붙지 않고있다.

### 둘째, 문장성분의 차이

례: ① 你那衆學生內中多少漢兒人 多少高麗人(상권 7장) 역문: 네 모든 선빈듕에 언메나 漢兒人이며 언메나 高麗스사름고(초)

뎌 모든 션븨듕에 언머는 漢시 사름이며 언머는 高麗시 사름고(중)

『번역로걸대』에서의 ≪언메나≫는 원문처럼 상황어로 되였지만 『로걸대 언해』에서는 워문의 구조를 조절하여 ≪언머는≫는 주어로 되고있다.

② 你減了些箇如何(상권 23장)역문: 네 져그나 더로디 엇더 호뇨(초)네 져기 더로미 엇더 호뇨(중)

『번역로걸대』에서는 토 ≪ 디≫를 써서 역문이 복합문으로 되였지만 『로 걸대언해』에서는 주격토 ≪ 이≫를 써서 ≪ 더록≫이 주어로 되고있다

③ 你自別換與五分好的銀子便是 要甚么合口(公內 65장)

역문: 네 각벼리 닷분만 됴호 은을 반고와 주면 곧 올커니 쓰나 므스므라 입힐 후리오(초)

『번역로걸대』에서는 이음토 ≪면≫으로 하여 앞과 뒤의 단일문이 가정관 계로 되고있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주격토 ≪이≫로 하여 ≪이≫의 앞부 분이 다 주어구로 되고있다.

> ④ 辭了主人家去來 (상권 38장) 역문: 쥬신손딕 하딕흐라 가져(초) 主人의게 하딕흐고 가져(중)

『번역로걸대』에서는 방식접속토 《라》(러)가 붙어 《하딕호라》(하직하러》가 술어 《가져》(가자)의 목적상황어로 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병렬접속토 《고》가 붙어 《하딕호고》가 《가쟈》와 행동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면서 접속술어로 되고있다.

#### 셋째. 문법적형태의 차이

례: ① 我們自做飯吃時鍋竈碗碟都有么(상권 68장)

역문: 우리 손조 밥 지어 머그면 가마와 노곳자리와 사발와 뎝시왜 다 잇누녀(초) 우리 손조 밥 지어 먹으면 가마와 노고자리와 사발 뎝시 다 잇노냐(중)

『번역로걸대』에서의 《뎝시왜》의 《왜》는 구격토 《와》와 주격토 ≪ │ ≫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것은 15세기에 구격형태가 련속될 때 마지막 에도 구격토를 붙이고 거기에 다시 다른 토를 붙이는 문법형태의 반영인데 이와 같은 문법적표식이 『로걸대언해』에 이르러서는 례문의 ≪뎝시≫ 뒤에 구격토가 붙지 않는것으로 변화되였다.

② 主人家別處快鍘刀借一箇來(상권 19장)

역문: 쥬신하 다른 디 드는 쟉도 한나 비러 오고려(초) 쥬인아 다른 딕 드는 쟉도 한나흘 비러 오라(중)

우선 이 례문에서는 호칭토의 차이가 보이는데 이것은 15세기에 널리 쓰 이던 호칭토 ≪하≫가 17세기에 이르러 ≪아≫로 변한것을 반영하고있다. 맺음토 《려》와 《라》의 차이는 권유문과 명령문의 차이를 나타내고있 다.

## 넷째, 복합문에서의 단일문과 단일문의 의미적련결방식의 차이

司: ①毎日學長將那頑學生師傅上稟了那般打了時只是不怕(公社7公)

역문: 민실 學長이 골외는 學生을 다가 스승님의 숣고 그리려도 다함 저티 아닌 누니라(초)

每日 學長이 더 フ래는 學生을다가 스승의 숣고 그리티되 그저 젓티 아니 ㅎ 느니라(중)

『번역로걸대』에서는 ≪그리 텨(쳐)도≫의 도움토 ≪도≫로 하여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이 양보적관계를 이루고있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이음토 ≪되≫로 련결되여 앞과 뒤구절이 대립적관계로 되었다.

② 你既往北京去時我是高麗人漢兒地面裏不慣行(상권 7장)

역문: 네 호마 北京 향호야 가거니 나는 高麗스 사루미라 한짜해 니기 둔니다 몯호야 잇노니 네 모로매 나를 두려 벋 지어 가고려(초) 네 이믜 北京을 향호야 갈 쟉시면 나는 高麗스 사름이라 漢스 짜히 니기 둔니다 못호엿노니 네 모로미 나를드려 벗 지어 가고려(중)

『번역로걸대』에서는 ≪가거니≫의 접속토 ≪거니≫로 앞과 뒤의 구절을 조건적관계로 맞물리게 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쟉시면≫의 접속토 ≪면≫으로 앞과 뒤의 구절을 가정관계로 맞물리게 하였다.

### 다섯째, 종결범주의 차이

례: ① 你休怪 好去着回來時 卻來我店裏下來(상권 38장) 역문: 네 허믈 말오 이대 가쇼셔 도라오실 제 또 와 우리 뎜에 브리쇼셔(초) 네 허믈 말고 됴히 가라 도라올제 또 우리 店에 와 브리오라(중)

『번역로걸대』에는 례문의 ≪쇼셔≫와 같은 종결토가 상권에서 세번 나타 나고있는데 『로걸대언해』에서 다 ≪라≫로 되여 권유문과 명령문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② 你那裏打聽去(상권 70장)역문: 네 아모디나 듣보라 가고려(초)네 어딕 듯보라 갈짜(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종결토 ≪려≫를 써서 역문이 권유문으로 되였고

『로걸대언해』에서는 ≪ㄹ싸≫를 써서 역문이 의문문으로 되였다.

### 여섯째, 단일문과 복합문의 차이

례: ① 疾快將草料拌上着 盡着他吃着 咱睡去來(상권 38장)

역문: 셸리 딥과 콩둘 가져다가 버므려 주라 제 모습신장 먹게 ᄒ져 우리 자라 가져(초)

설리 딥과 콩을 가져다가 버므려 주어 잇긋 뎔로 ㅎ여 먹게 ㅎ고 우리 자라 가자(중)

『번역로걸대』에서는 각기 종결토 《주라》의 《라》, 《ㅎ져》의 《져》 로 하여 세개의 단일문으로 되고 있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각기 접속토 《어》, 《고》로 하여 하나의 복합문을 이루고있다.

② 我也心裏這般想着 你說的恰和我意同(상권 11장) 역문: 나도 무슨매 이리 너기노라 네 닐오미 내 뜯과 곧다(초) 나도 무음애 이리 성각호였더니 네 닐오미 맛치 내 뜻과 굿다(중)

『번역로걸대』의 례문은 종결토 ≪노라≫로 하여 두개의 각기 다른 단일 문으로 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접속토 ≪더니≫로 하나의 복합문을 이루고있다.

례문과 같은 단일문과 복합문의 차이가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의 가장 큰 문법적차이로 되고있는데 모두 29번 나타나고있다. 그중 26번은 『번역로걸대』의 단일문들이 『로걸대언해』에서 복합문으로 된것이고 다만 세번만은 『번역로걸대』의 복합문이 『로걸대언해』에서 단일문으로 된것이다. 이것은 회화체에서도 단일문이 복합문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5. 번역자의 리해상의 차이

『번역로걸대』와『로걸대언해』는 비록 원문은 ≪로걸대≫ 하나이지만 160여년이란 시간적차이로 하여 똑 같은 원문에 대한 번역자의 리해가 서로 다를 때가 가혹 있는데 이 리해상 차이로 하여 역문도 서로 달리 되는것이 있다.

례: ① 我在漢兒學堂裏學文書來(상권 2장) 역문: 내 되 흑당의셔 글 빈호라(초) 내 漢흑당의셔 글 빈호라(중)

원문의 《漢兒》에 대한『번역로걸대』와『로걸대언해』의 리해가 서로 다른데『번역로걸대』에서는 《漢兒》을 북방의 오랑캐로 보고 《되》라고 하였고『로걸대언해』에서는 중국사람으로 보고 그대로 《漢》으로 처리하였다. 조선어에서의 《되》는 한자 《胡》에 대응되는 말이다. 《胡》는 워낙 북방의 작은 종족 이를테면 옛적의 흉노4 등을 멸시하여 이르는 말인데 《되》는 북방의 뜻인 《뒤》에서 온 말이다.

② ...也有些利錢么 那的也中(상권 13장) 역문: 져그나 니쳔 잇느녀 긔아 잇느니라(초) 져그나 니쳔 인느냐 그는 또 무던ᄒ니(중)

《中》은 보통 구두어에서 《된다》, 《괜찮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만 례문의 원문에서는 그 문맥으로 보아 《된다》거나 《괜찮다》는 의미로 쓰인것이 아니라 의미가 전이되여 《있다》는 의미로 쓰이였다. 『번역로걸대』에서는 이 전이된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의연히 《괜찮다》는 뜻으로 리해하고 《무던호니》로 번역하여 역문이 오역으로 되였다.

<sup>4</sup> 기원전 4세기 말에서 기원 1세기까지 몽골 고원과 동투르키스탄 일대를 지배하여 번영했던 유목기마민족을 가리킨다.

- ③ 是秆草好若是稻草時這頭口們多有不吃的(公社 18장)
- 역문: 좃딥피아 됴호니 호다가 볏딥 피면 이 증승둘히 먹디 아니호리 만호니 라(초)

이 좃딥피 됴호니 호다가 닛딥 피면 이 증승들히 먹디 아니호리 만호 니라(중)

원문의 《是》에 대한 리해가 서로 다르다. 『번역로걸대』에서는 판단동 사로 보고 강조토 《아》로 표시하고 『로걸대언해』에서는 대명사로 보고 《이》로 대응시키였는데 원문의 말을 주고 받는 문맥으로 보아 『번역로걸 대』의 리해가 정확하다고 할수 있다.

- ④ 炒的半熟時 調上些醬水生蔥料物拌了 鍋子上蓋覆了 休着出氣燒動火一霎兒 熟了(상권 21장)
  - 역문: 봇가 반만 닉거든 쟝믈와 파와 약둘 빠 노하 젓고 가맛 우흘 둡고 김나게 말오 블 디더 두면 아니한 스시에 닉느니라(초) 봇가 반만 닉거든 쟝믈의 파와 교토를 빠 노하 섯고 가마 두에 덥고 김나게 말고 블 씨더 훈 디위만 흐면 닉느니라(중)

원문의 《調上些醬水生蔥料物拌了》의 《醬水生蔥料物》에 대한『번역로 걸대』와『로걸대언해』의 리해가 서로 다르다.『번역로걸대』에서는 《醬水》(쟝믈), 《生蔥》(파), 《料物》(약, 교토)을 다 병렬된 단어로 보고있지만『로걸대언해』에서는 《醬水》를 《生蔥》, 《料物》을 타는 바탕으로 보고있다. 기실 원문에서는 이 세 단어가 다 병렬된 관계로 되여있기때문에『번역로걸대』의 리해가 정확하다고 할수 있다.

⑤ 那箇人家 我恰纔糴米去來 不肯糴與我 他們做下見成的飯與我吃了(상권 45장) 역문: 더 지븨 내 앗가 궁 뿔 박고라 갓다니 나를 박괴여 주디 아니호고 저희 지석 잇는 밥을 우리 주워 머기고(초) 더 人家의 내 앗가 궁 뿔 박고라 갓더니 즐겨 날을 박괴여 주디 아 니호고 저희 지어 잇는 밥을 우리 주어 먹이고(중) 원문의 《不肯》에 대한 리해가 서로 다르다. 『번역로걸대』에서는 《不肯》을 부정을 표시하는 하나의 단어로 리해하여 《주디 아니호고》로 처리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두개의 단어로, 즉 《不》를 부정으로 보고 《肯》을 형용사 《즐기다》로 리해하여 《즐겨…주디 아니호고》로 대응시키였는데 기실 여기서는 『번역로걸대』의 리해가 정확한것이다.

⑥ 你自來到京裏賣了貨物卻買棉絹到王京賣了前後住了多少時(상권 14장)

역문: 네 본디 셔울 가 천량 프라 또 소옴 집 사 王京의 가프노라 호야 前後에 언메나 오래 머므는다(초)

네 본디 셔울 가 貨物을 프라 또 소옴과 집을 사 王京에 가프노라 호 면 前後에 언메나 오래 머믈러뇨(중)

원문의 ≪賣了≫의 앞뒤구절의 련결에 대한 리해에 차이가 있다. 『번역로 걸대』에서는 앞구절을 뒤구절의 조건으로 보고있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앞뒤구절을 가정관계의 련결로 보고있다. 실상 원문의 문맥을 보면 기정사실을 조건으로 하고 묻기때문에 가정관계로 보는것은 잘못된 리해이다.

#### (7) 這簡姓金是小人姑舅哥哥(公司 15公)

역문: 이는 성이 숲개니 이는 내 아븨 동성 누의와 어믜 동성오라븨게 난 형이오(초)

이는 姓이 金개니 이는 小人의 아븨 누의 어믜 오라븨게 난 형이오(중)

《姑舅哥哥》에 대한 리해가 서로 다르다. 『번역로걸대』에서는 《아버지의 누이와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낳은 형》으로 리해하였고 『로걸대언해』에 서는 《아버지의 누이가 낳은 형》과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낳은 형》으로 리해하고 있는데 론리적으로 보아서는 『로걸대언해』의 리해가 정확한것이다.

## 6. 표현방식의 차이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는 시간적차이로 하여 역문의 표현방식에서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있다.

아래에 번역기교의 적용과 일반적인 어휘선택, 토의 사용과 나누어 이 두 책의 표현방식상 차이를 대비, 분석하고저 한다.

첫째, 번역기교면에서의 차이

번역기교면에서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의 차이는 주로 첨가수법과 생략수법에서 나타나는데 첨가수법의 차이가 9곳 있고 생략수법의 차이가 17곳 있다.

### ㄱ. 첨가수법5의 차이

례: ① …若再撤簽試不過 將出免帖來毁了 便將功折過免了打…(상권 4장)

역문: ···· 한다가 다시 사술 쌔혀 외오디 몯한야도 免帖 내여 히야브리고 아리 외와 免帖 타 잇던 공오로 이번 몯 외온 죄를 마초와 티기를 면한거 나와···(초)

… 한다가 다시 사술 쌔혀 외오디 몯한여도 免帖 내여 해여 브리고 곳 功을 다가 過에 마초아 마즘을 면한거니와…(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의 《功折》의 뜻을 역문에서 명백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역문에서 원문에 없는 구 《아릭 외와 免帖 타 잇던 공오로 이번 몯 외온 죄를≫를 첨가하고있으나 『로걸대언해』에서는 이와 같은 첨가수단을 쓰지 않고있다.

② 我往山東濟寧府東昌高唐收買些絹子綾子棉子回還王京賣去(상권 12장) 역문: 내 山東 濟寧府엣 東昌高唐 근쳐둘해 가 집과 고로와 소옴둘 거두워 사 王 京의 도라가 풀라 가노라(초)

<sup>5</sup> 원문에 없는 어휘를 역문에서 역문언어의 표현수요에 따라 보태는 수법

내 山東 濟寧府엣 東昌高唐의 가 집과 능과 소<del>음을</del> 거두어 사 王京의 도라 가 풀라 가노라(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에 없는 《근쳐둘해》를 보충하여 간 지방을 명백히 밝히고있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근쳐둘해》와 같은 단어를 첨가하지 않고있다.

- ③ 這鍘刀是我親眷家的他不肯我哀告借將來 風刃也似快 你小心些使休壞了他的 (公刊 19장)
- 역문: 이 쟉도는 이 우리 아수믜 짓 거시니 데 즐겨 주디 아니커늘 내 물이 날이 비러오니 보름 놀으티 쾌하니 네 조심하야 쓰고 느밋것 하야보리디 말라 (초)
  - 이 쟉도는 이 우리 권당의 집 거시니 데 즐기디 아니커들 내 먹이 닐너 비 러오니 보름들 것티 쾌하니 네 조심하여 쓰고 느믜것 해여보리디 물라 (중)

『번역로걸대』에서는 뜻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원문에 없는 ≪주디≫를 첨가하여 내용이 잘 안겨오게 하고있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원문에 따라 직역만 한데서 역문이 리해하기 어렵게 되여있다.

④ 如今那賊在官司车裏禁着(상권 30장)

역문: 이제 그 도주기 구읫 옥애 이셔 가텻\니라(초) 이제 그 도적이 官司 옥에 번드시 이셔 가텻\니라(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에 따라 순수한 직역을 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동사 ≪이셔≫를 수식하기 위하여 원문에 없는 단어 ≪번드시≫를 첨가하고있다.

⑤ 他見將文引趕着高麗馬 往北京做買賣去(公권 51장)

역문: 제 이제 글월 가지고 高麗시물 모라 복경 셔울로 홍정호라 가느니(초) 제 시방 글월 가지고 高麗시 물 모라 복경을 향호야 흥정호라 가느니(중) 『번역로걸대』에서는 ≪븍경≫(북경)이 수도라는것을 밝히기 위하여 원문에 없는 ≪셔울≫을 첨가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원문에 충실하여 ≪셔울≫과 같은 단어를 첨가하지 않고있다.

⑥ 參兒高也 敢是半夜了(상권 57장)

역문: 숨성별도 놉거다 밤쓩인 못하다(초) 숨성이 놉파시니 밤쓩인 듯하다(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첨가수법을 써서 원문에 없는 ≪별≫을 보충하여 ≪숨성≫이 별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히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직역만 하면서 첨가수법을 쓰지 않고있다.

#### ㄴ. 생략수법6의 차이

① 到你那地面里也有些利錢么(상권 13장)

역문: 네 싸해 가 져그나 니천 잇누녀(초) 네 뎌 싸히 가 져그나 니천 인누냐(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의 대명사 ≪那≫(뎌)를 군더더기로 인정하여 생략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원문대로 역문에서 살리고있다.

② 怕你不信時別個店裏試商量去( 상권 18장)

역문: 너옷 믿디 몯호야 호거든 다룬 뎜에 의론호야 보라 가되여(초) 저컨대 네 밋디 아니커든 다룬 뎜에 시험호여 商量호라가라(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역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문의 형용사 ≪怕≫ (두렵다)와 동사 ≪試≫(시험하다)를 생략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생략하지 않고있다.

<sup>6</sup> 원문에서는 필요한 단어지만 역문의 견지에서는 군더더기로 되기에 역문에서 뻬는 수법.

③ 我這馬們不曾飲水裏 等一會控到時飲水去(公司 31장)

역문: 우리 이 물들히 물 아니 머것더니 혼디위 쉬요물 고장 히야든 기들워 머기라 가져(초)

우리 이 물들을 일즙 물 머기디 아녓더니 혼디위 쉬요물 잇긋 흐야든 기 드려 머기라 가자(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의 ≪曾≫(일즙)의 의미가 역문에서 ≪머것더니≫의 ≪엇≫(였)에 의해 표현되는데 비추어 ≪일즙≫을 생략하였지만 『로걸 대언해』에서는 생략하지 않고있다.

④ 休那般説 小心的還好(상권 34장)

역문: 그리 니르디 말라 조심호미 됴호니라(초) 그리 니르디 말라 조심호미 도로혀 됴호니라(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의 부사 ≪還≫(도로혀)를 생략하였지만 『로걸 대언해』에서는 원문대로 쓰고있다.

⑤ 這般時我只在車房裏宿主人家哥小人又有一句話敢說么(상권2장)

역문: 이러면 내 술윗방의셔 자마 쥬신 형님하 쇼신이 또 호마리 이시니 닐엄즉 호가(초)

이러면 내 술윗방의셔 자마 小人이 또 훈 말이 이시니 닐넘즉홀가(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에 따라 ≪主人家哥≫(쥬신 형님)을 역문에서 그대로 쓰고 있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생략하고있다.

⑥ 咱們買些燒餅 炒些肉吃了過去(상권 61장)

역문: 우리 쇼빙 사고 고기 봇가 먹고 디나 가져(초)

우리 져기 燒餅 사고 져기 고기 복가 먹고 디나 가자(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의 ≪些≫(져기)를 군더더기로 인정하여 생략하

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순수한 직역을 하여 생략하지 않고있다.

둘째, 일반적인 표현방식의 차이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는 일반적인 표현방식에서 시간적차이로 하여 관습적표현이나 어휘선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있는데 문장을 단위로 차이나는 부분이 159곳이나 된다.

## □. 어휘교체에 의한 차이

례: ① 既是這月初一日離了王京到今半箇月怎么纔到的這裏(상권1장)

역문: 이믜 이 둜 초호롯 날 王京의셔 떠나거니 이제 반드리로티 엇디 앗가스 예 오뇨(초)

이믜 이 둘 초호론날 王京의셔 뻐나시면 이제 반둘에 다두라써둔 엇디 굿 여긔 오뇨(중)

『번역로걸대』에서의 고유어휘 《앗가사》가『로걸대언해』에서 《灵》 으로 변하였는데 이것은 력사적어휘교체라고 할수 있다. 이밖에 접속토 《니》와 《면》, 《반드리로딩》와 《반둘에 다드라써등》의 표현상차 이가 있다.

② 只除那裏好但是遼東去的客人們別處不下都在那裏安下我年時也在那裏下來十分 便當(상권 11장)

역문: 다믄 게만 됴호니 믈읫 遼東으로서 간 나그내둘히 년 티 브리디 아녀 다 데 가 브리누니 나도 전년회 데 브리엿다니 マ장 편안호더라(초) 다만 게만 됴흐니 믈읫 遼東으로셔 가는 나그내들히 다룬 티 브리오디 아니 호고 다 더긔 브리오누니 나도 쳐년에 더긔 브리웟더니 マ장 편당호더라(중)

《년 뒤》와 《다른 뒤》는 고유어휘사이의 교체에서 오는 차이이다. 이밖에 《간》과 《가눈》데 의한 토 《ㄴ》와 《눈》의 차이와 《아녀》와 《아니호고》, 《편안》과 《편당》과 같은 차이가 있어 표현형태가 달

라지고있다.

③ 既這般路澀時 咱們又沒甚么忙勾當 要甚么早行(상권 30장)

역문: 한마 이리 길히 어렵거니 우리 아무란 밧분 일 업거니 <u>ㅁ스</u>ㅁ려 일 녀리 오(초)

이믜 이리 길히 머흘면 우리 또 아므란 밧븐 일이 업스니 므슴 아라 일 네 리오(중)

《호마》와 《이믜》는 고유어휘의 교체에서 생긴 차이이다. 그리고 《어렵다》와 《머흘다》(멀다)는 어휘선택의 차이이며 《거니》와 《면》, 《려》와 《아》는 접속토의 사용상 차이이다.

### ㄴ. 표현관습이 변화된 차이

례: 主人家哥休怪 小人們這裏定害(상권 43장) 역문: 쥬신형아 허믈마르쇼셔 小人둘히 예 와 해자후고 널이과이다(초) 쥬인형아 허믈말라 小人들히 예 와 슈페흐여이다(중)

≪해자 후고 널이 과이다≫는 15세기에는 관습적으로 쓰이였지만 『로걸 대언해』가 나온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이러한 용법이 없어진데서 ≪슈페후 여이다≫와 같은 표현상차이가 생기게 되였다.

### ㄷ 어휘선택의 차이

례: ① 說書罷又做甚么工課(상권 3장) 역문: 글 사김호기 뭋고 또 므슴 공부호닉뇨(초) 글 니로기를 뭋고 또 므슴 공부호닉뇨(중)

② 近有相識人來說(상권 8장) 역문: 요소시예 사괴는 사루미 와 닐오딕(초) 요소이 서루 아는 사롭이 와 니루되(중)

### 74 국제고려학 16호

- ③ 我也心裏這般想着(상권 11장) 역문: 나도 무수매 이리 너기노라 (초) 나도 무음애 이리 성각호였더니(중)
- ④ 說的是依着你 天明時行(상권 31장)역문: 닐오미 올타 네 말 드러 하늘 붉거든 가리라(초)닐오미 올타 네 말대로 하늘 붉거든 가리라(중)

례문들에서 《사김호기》와 《니르기》, 《사괴는》과 《서르 아는》, 《너기다》와 《싱각호다》, 《드러》와 《대로》 등은 의미적으로 서로 비슷한 단어들인데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들 을 선택한데서 표현상의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 리. 수사적표현방식의 차이

례: ① 淺淺的井兒只着繩子拔水(상권 31장) 역문: 역가온 우므레 노호로 물 기러내느니라(초) 역트나 엿튼 우물이니 그저 줄드레로 물을 깃느니라(중)

『로걸대언해』에서는 ≪ 엿트나 엿튼≫과 같은 반복의 수법을 쓰고있으나 『번역로걸대』에서는 이와 같은 수법이 쓰이지 않아 차이가 나고있는데 이것은 시대가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수사법이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는것이다.

② 今年爲旱澇不收···(상권 53장)역문: 올히 フ물락물씨이락 ㅎ야 거두디 몯호 젼츠로···(초)올히 フ물고 물 씨여 거두디 못흔 젼츠로···(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들을 렬거하여 ≪▽물락믈끼이락≫과 같은 표현수법을 쓰고있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일반적인 서술로 묘사하여 표현상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 ㅁ 직역과 의역에 의한 표현상의 차이

례: 可知有頑的(상권 7장)

역문: 골외누니 잇닷 마리아 니루려(초) 그리어니 フ래누니 잇누니라(중)

『번역로걸대』에서는 《有頑的》는 《골외노니 잇다》는 식으로 직역하고 《可知》는 《마리사 니루려》로 의역하였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다직역으로 처리하여 표현이 서로 다르게 되였다.

# 7. 어순상의 차이

『번역로걸대』(상)과 『로걸대언해』(상)에는 어순배렬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10개 있는데 그것을 류형별로 보기로 한다.

# ㄱ. 목적어의 배렬

례: 咱們往順城門官店裏下去來(상권 11장)

역문: 우리 順城門읫 뎜에 가 브리엿져(초)

우리 順城門읫 官店을 향호야 브리오라 가자(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데서 ≪가 브리엿져≫의 어순으로 되고있지만 『로걸대언해』에서는 목적어를 술어앞에 내 놓아 조선말의 어순관습에 맞게 하였다.

# ㄴ. 수사와 명사의 배렬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에서의 어순상의 차이는 수사와 명사의 배 렬에서도 나타나고있다.

#### 76 국제고려학 16호

례: ① 這六箇馬每一箇五升料一束草通算過來(상권 11장)

역문: 이 여슷 무리 및 혼나히 콩 닷되 딥 혼뭇곰호야 통히혜요니(초)

이 여슷물이 민 혼나헤 닷되 콩과 혼뭇 딥식호여 통호여 혜오니(중)

- ② 捕盗官襲將去 到箇村裏差了一百箇壯漢將着弓箭器械(公司30公)
- 역문: 捕盗官이 디죵호야 가 촌애 가 장혼 사름 일칙을 시겨 화살 연장 가지고(초) 捕盗官이 디죵호여 가 村의 가 一百 壯漢을 시겨 화살 연장 가지고(중)
- ③ 我四箇人 炒着三十箇錢的羊肉 將二十箇錢的燒餠來(상권61장)
- 역문: 우리 네 사락미 돈 셜흔 나챗 양의 고기 봇고 돈 스므 나챗 쇼빙 가저오라(초) 우리 네 사름의게 셜혼 낫 돈엣 羊肉을 복고 스므 낫돈엣 燒餠을 가져 오라(중)

례 ①에서『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의 《五升料一束草》의 구조를 조절하여 《콩 닷되 딥 혼뭇곰》으로 배렬하여 조선말어순답게 하였지만『로걸대언해』에서는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답습하여『번역로걸대』와 상반되는 《닷되 콩과 혼뭇 딥식》으로 배렬하여 비록 조선말어순의 자유로움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약간 어색한 감이 들게 하였다. 례 ②와 ③에서는 각기 《장혼 사롬 일뵉》과 《一百 壯漢》,《돈 설혼 나챗 양의 고기》와 《설혼 낫돈엣 羊肉》,《돈 스므나챗 쇼빙》과 《스므 낫 돈엣 燒餅》의 수사와 명사의 배렬상 차이를 보이고있다.

# ㄷ. 문장성분이 바뀌는 어순배렬

① 你那綾絹棉子就地頭多少價錢買來到王京多少價錢賣(상권13장)

역문: 네 더 고로와 깁과 소음돌홀 밋싸해셔 언멋 갑소로사 王京의 가 갑슬 언머의 프는다(초)

네 더 능과 깁과 소옴을 밋 싸히셔 언멋 갑스로 사 王京의 가 언멋 갑시 픽는다(중)

『번역로걸대』에서는 원문의 ≪多少價錢賣≫를 역문에서 구조를 조절하여 ≪갑슬 언머의 프는다≫로 하여 문장성분을 원문과 다르게 하였지만 『로걸 대언해』에서는 원문의 문장성분과 일치하게 하여 『번역로걸대』와는 서로 다 른 어순으로 배렬하고있다

② 你燒的鍋滾時 下上豆子(상권 19장)역문: 네 가마의 블 디더 フ장 글커든 콩 녀허 두고(초)네 블 씨더 가매 끌커든 콩을 녀허 두고(중)

원문의 《燒的鍋》의 어순을 『번역로걸대』와 『로걸대언해』가 각기 달리처리하고있는데 전자는 어순을 원문과 달리하여 《가마의 블 디더》로 하고후자는 원문처럼 《블 씨더 가매》로 배렬하여 문장성분이 전자와 서로 달리되게 하고있다.

『번역로걸대』와『로걸대언해』에 대한 이상의 비교를 통하여 시대적흐름에 따라 부분적자음 이를테면 자음 ≪△≫거나 ≪○≫의 소실, 모음조화규칙의 파괴, 하철표기가 상철표기로 이행, 단일문의 복합문 경향 등을 엿볼수 있는 동시에 한자어휘의 사용이 증가되거나 번역이 거칠어지는 시대적흐름에 역행되는 현상들도 볼수 있다.

### 참고문헌

『번역로걸대』(翻譯老乞大) 16세기 초, 영인본

『로걸대언해』(老乞大諺解) 1670년, 영인본.

『金山词霸』계산기사전.

안병호(1982)『조선어발달사』, 료녕인민출판사.

아병희·이광호(1990)『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리림(1996)『고대한어문법분석』, 중국사회과학출판사

김광수 편(2008)『조선고문헌선독』, 연변대학출판사.

김영수(2001)『조선중세한문번역본의언어사적연구』, (조선)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말줄기와 토결합표기의 력사적 변천에 대하여

문영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 1. 머리말

언어의 변화와 발전은 표기의 변화와 발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음성언어가 가지는 시공간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것을 적는 언어적 기호인 글자가 발생하면서 언어교제의 한 실현 형식인 글말생활의 력사, 기록의 력사가 시작되었다.

글자가 발생하여 쓰이기 시작하여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발생초기의 기록을 비롯하여 이전의 기록들을 보느라면 표기에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글자 사용과정에 표기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표기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글자류형과 글자모양의 변화, 말소리들의 산생과 소멸에 의한 변화로부터 이루어진 력사발전의 합법칙적 현상이다.

표기에서의 변화는 우와 같은 원인에 의한 변화도 있지만 표기방식의 달라짐으로 인한 변화도 있다.

표기방식에는 일반적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하는 형태주의표기방식 (개굴이, 거북이, 책과, 먹다, 먹으니, 안다, 안으니)과 발음대로 적은 발음주의표기방식(개구리, 거부기, 책과, 먹따, 머그니, 안따,아느니)이 있다.

조선어에서 해당시기의 표기방식이 어떠하였는가는 말줄기와 토의 결합 시 어떻게 표기하였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받침으로 끝나 는 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와 결합할 때 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의 첫소리로 적었는가 아닌가, 받침으로 끝나는 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토와 결합할 때 발음나는 대로 적었는가 아닌가를 보면 당시의 표기방식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어에서 말줄기와 토 사이에서의 표기방식의 변화라고 할 때 그것은 형태주의표기방식의 발음주의표기방식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로부터 5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창제초기의 문헌들의 표기를 지금의 표기와 대비해 보면 우와 같은 표기방식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표기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는가를 1447년에 간행된 『룡비어천가』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문헌들의 표기자료들간의 호상대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종합분석하여 그 변천과정을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훈민정음창제후 첫 국문간행물인 『룡비어천가』의 표기 방식에 대하여 체언말줄기와 체언토, 용언말줄기와 용언토와의 결합표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룡비어천가』의 표기방식에 기초하 여 그 이후 표기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15세기, 16세기~17세기, 18세기말~20세기 초로 나누어 분석한다.

# 2. 『룡비어천가』와 15세기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

# 2.1. 『룡비어천가』의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

1444년 우리 민족의 고유글자 훈민정음이 창제된 당시 오늘날과 같이 정식 규범이라고 한 것은 없었지만 글쓰기를 해설한 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해례)와 함께 『룡비어천가』이다.

『훈민정음』(해례)가 글자결합의 방법을 해설한 책이라면 첫 국문문헌인

#### 80 국제고려학 16호

『룡비어천가』는 시가를 훈민정음으로 써서 글쓰는 방식을 해설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룡비어천가』는 매우 가치가 있으며 당시의 글말규범을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로 된다.

『룡비어천가』를 짓는 데는 『훈민정음』(해례)의 편찬을 책임졌던 정린지 (1396~1478)와 『고려사』 편찬에 참가한 권제(1387~1445), 시짓기와 해서에 능한 안지(1377~1464) 등의 문인들이 참가하였다. 1445년 4월에 한문으로 그 초고가 완성되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것을 쓰는데서 나서는 규범 확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설치하였던 언문청에 넘어가 2년나마 우리 말로 번역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447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10권 125장으로 되어 있다.

『룡비어천가』는 1447년에 초간본이 나온 이후 1612년과 1659년, 1765년에 다시 간행되었는데 1612년의 판본을 광해본, 1659년의 판본을 효종본, 1765년의 판본을 영조본이라고 한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첫 국문문헌인 『룡비어천가』에서 말줄기가 토와 결합할 때 어떤 표기방식을 취하였겠는가를 례들어 보자.

불휘 기픈 남군 보르매 아니 뮐씨 곶 됴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2)

뒤헤는 모딘 즁성 알픽는 기픈 모새 열른 어르믈 하늘히 구티시니(30)

우의 실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픈'은 용언말줄기 '깊-'에 규정토 '-은'이, '브릭매'는 바람을 뜻하는 옛날말 '브롬'에 여격토 '-애(-에) '가, '됴코'는 용언말줄기 '둏'에 이음토 '-고'가, '시미'는 샘을 뜻하는 옛날말 '심'에 주격토 '-이'가, '므른'은 물을 뜻하는 옛날말 '물'에 도움토 '-은'이, '이러'는 용언말줄기 '일-'에 이음토 '-어'가, '바릭래'는 바다를 뜻하는 옛날말 '바룰'에 여격토'-애(-에) '가, '알픽눈'은 '앞'을 뜻하는 옛날말 '앒'에 여격토 '-익'에 도움토 '눈'이 결합한 '익눈'이, '어르물'은 얼음을 뜻하는 옛날말 '어름'에 대격토 '-

을'이, '구티시니'는 용언말줄기 '굳히-'에 존경토 '-시-'와, 이음토 '-니'가 붙은 것인데 오늘날의 표기방식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르다. 즉 '기픈:깊은', '빅릭 때: 빅룸애', '됴코: 둏고', '시미:심이', '므른:물은', '이러:일어', '바릭래: 바룰 애', '알픽는:앒익는', '어르물:얼음을', '구티시니:굳히시니'로서 말줄기와 토를 구별하는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말줄기의 끝자음을 토의 첫소리로 적는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인 『룡비어천가』 간행 시기의 표기방식은 오늘 날과는 다른 발음주의표기방식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그러면 『룡비어천가』에서는 말줄기가 토와 결합할 때 무조건 발음주의표 기방식을 취하였는가.

이에 대하여 체언말줄기와 체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와 용언말줄기와 용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 2.1.1. 체언말줄기와 체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

체언말줄기와 체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가 발음주의표기방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말줄기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와 결합할 때, 혹은 받침으로 시작되는 토와 결합할 때 어떻게 표기하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룡비어천가』에는 받침으로 끝나는 고유어 명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하늘(하늘), 구름, 곁, 길, 날, 밤, 눈, 말, 몸, 목숨, 밑, 밖, 안, 벗, 벼슬, 살, 손, 집, 별, 아버님, 어머님, 여름, 남, 일곱, 여섯, 아들(아들), 뚤(딸), 도죽(도적), 님금(임금), 이름(일훔), 무숨(마음), 뜯(뜻), 홁(흙)' 등 받침을 끝소리로 하는 많은 고유어 명사들이 체언토와 결합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

<u>굴허에 무를 디내샤 도</u>주기 다 도라가니(48) 굿븐 <u>위</u>을 모두 들이시니 聖人 神武 | 엇더호시니(88) 黑龍이 호 <u>사래</u> 주거 白龍을 살아내시니 子孫之慶을 神物이 술팅니(22) 東門 <u>방긔</u> 독소리 것그니 聖人 神功이 또 엇더항시니(89) 블근 새 그를 므러 寢室 <u>이</u>페 안주니 聖子革命에 帝祐를 뵈숙팅니(7)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체언토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이, 의, 를, 에, 으로, 과'와 같은 격토, '마다, 는, 조차' 등과 같은 도움토, 복수토 '들'과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격토와 결합할 때를 기본으로 서술한다.

## -주격토 '-이'와 결합할 때

『룡비어천가』에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주격 토 '-이'와 결합한 것이 총 42회 나오는데 체언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주격토 '-이'의 첫소리로 적은 것이 40회 나온다.

# -대격토 '-울/-을'과 결합할 때

는문 쁜 다른거늘 <u>남그</u>물 救 한시고 六合애도 精卒을 자 본시니(24)
 方面을 몰라 보시고 <u>변스를</u> 도도시니 하志 모속물 뉘 고티속 본리(85)
 石壁에 수멧던 녜뉫 글 아니라도 하志 <u>昨들</u> 뉘 모르속 본리(86)
 나라해 忠臣이 업고 한 본사 至誠이실씨 여린 홀글 하늘히 구티시니(37)

『룡비어천가』에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대격 토 '-월/-을'과 결합한 것이 총 48회 나오는데 체언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 로 시작되는 대격토 '-월/-을'의 첫소리로 적은 것이 47회 나온다.

# -속격토 '-이/-의'와 결합할 때

員의 <u>지븨</u> 가샤 避仇홇 소닉 마리 兩漢 故事에 엇더학니잇고(28) 城 아래 닐흔 살 쏘샤 <u>닐흐늬</u> 모미 맛거늘 京觀 올 밍フ락시니(40) 君命엣 바오리어늘 몰 <u>겨틔</u> 엇마フ시니 九逵 都人이 다 놀라슨 팅니(44) 마순 사스민 등과 도준기 입과 눈과 遮陽 기세 쥐 네도 잇더신가(88)

『룡비어천가』에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속격 토 '-이/-의'와 결합한 것이 총 15회 나오는데 모두 체언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속격토 '이/의'의 첫소리로 적고 있다.

-여격토 '-애/-에'와 결합할 때

<u>첫</u>나래 讒訴를 드러 兇謀 ] 날로 더을씩 勸進之日에 平生 기 뜯 몯 일우시니(12) 四海를 년글 주리여 <u>기</u>른매 빈 업거늘 얼우시고 또 노기시니(20) 뒤헤는 모딘 즁성 알픽는 기픈 <u>모새</u> 열흔 어르믈 하늘히 구티시니(30) 물 우흿 대허믈 훈 소누로 티시며 싸호는 한쇼를 두 소내 자보시며(87)

『룡비어천가』에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여격 토 '-애/-에'와 결합한 것이 총 24회 나온는데 모두 체언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여격토 '-애/-에'의 첫소리로 적고 있다.

-조격토 '- 으로/-으로'와 결합할 때

驪山 役徒룰 일호샤 <u>지</u>본로 도라오싫제 열희 모속물 하늘히 달애시니(18) 물 우흿 대허물 훈 소닉로 티시며 싸호는 한쇼를 두 소내 자본시며(87)

『룡비어천가』에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격 토 '- 으로/-으로'와 결합한 것이 총 4회 나오는데 모두 체언말줄기의 끝자음

#### 84 국제고려학 16호

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격토 '- 으로/-으로'의 첫소리로 적고 있다.

총체적으로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격토와 결 합한 것이 모두 133회인데 그중 체언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격토의 첫소리로 적은 것이 130회로서 97.7%이다. 이것은 『룡비어천가』에 서는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격토와 결합할 때 오늘날과는 달리 체언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격토의 첫소리 로 적는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체언말줄기와 체언토와의 결합표기에서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한 것은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격토와의 결합표기에서 뿐 아니라 ' ] '를 뒤세운 체언말줄기와 여격토 '-에'와의 결합표기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오늘날에는 ' ] '를 뒤세운 말줄기 아래에서도 발음에는 관계없이 형태주의 적으로 '-에'를 쓰고 있지만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룡비어천가』에서는 '-에' 가 아니라 '-예'를 쓰고 있다

狄人스 서리예 가샤 狄人이 골외어늘 岐山 올모샴도 하눓 쁘디시니(4) 逃亡애 命을 미드며 놀애예 일훔 미드니 英主△ 알픽 내내 붓그리리(16) 내 百姓 어엿비 너기샤 長湍을 건너싫 제 힌 므지게 히예 뻬니이다(50) 도리예 뻐딜 무를 넌즈시 치혀시니 聖人 神力을 어느 다 술팅리(87)

『룡비어천가』에는 'ㅣ'를 뒤세운 체언말줄기가 여격토 '-에'와 결합한 것이 총 14회 나오는데 모두 '-에'가 아니라 발음대로 적은 '-예'로 나오고 있다. 'ㅣ'가 'ㅔ'와 결합하면 반드시 'ㅖ'로 된다는 발음법칙의 원리를 고려한다면 우의 실례들에 보이는 '예'는 철저히 발음나는 대로 적은 표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라고 하지 않고 구태여 'ㄱ, ㄷ, ㅂ'로 끝나는 체언말줄기로 한정한 것은 우와 같은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

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발음이 변하므로 이때 표기를 발음대로 하였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로는 '가, 를, 들, 도, 마다…' 등이 있는데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구격토 '-과'와 복수토 '들', 도움토 '도, 마다' 등이다. 그런데 『룡비어천가』에는 복수토, 도움토와 결합한 실례들이 나오지 않고 구격토 '-과'와 결합한 것이 2회 나온다.

마순 사스미 등과 도주기 <u>입과</u> 눈과 遮陽 기세 쥐 네도 잇더신가(88) 솘바올 <u>닐</u>곱과 이븐 나모와 투구 세 사리 네도 또 잇더신가(89)

우의 실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과', '넙굽+과'를 발음대로 적는다면 '입과', '넙굽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발음주의 표기방식을 취한 앞의 경우와는 달리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우의 통계분석을 종합하면 『룡비어천가』에서는 체언말줄기가 체언토와 결합할 때에 일률적으로 어느 한가지 표기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하였는가 아니면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하였는가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표기방식을 취하였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발음주의표기방식을, 후자의 경우에는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다는 것, 이러한 표기방식이 당시의 규범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 2.1.2. 용언말줄기와 용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

용언말줄기와 용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가 발음주의표기방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체언말줄기와 체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와 마찬가지로 용언 말줄기의 끝소리가 받침인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와 결합할 때, 혹은

받침으로 시작되는 토와 결합할 때 어떻게 표기하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룡비어천가』에는 말줄기의 끝소리가 받침인 용언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깊다, 높다, 잇다(있다), 업다(없다), 듣다, 앉다, 엱다(얹다), 모이다(몬다), 믿다, 죽다, 살다, 맞다, 막다, 알다, 잡다, 닞다(잊다), 숣다(사뢰다), 놀다(날다), 밧다(벗다), 일다, 믈다(물다), 멀다, 굳다, 묻다'등 받침을 끝소리로 하는 적지 않은 용언들이 용언토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이음토 '- 익 며/-으며', '- 익 니/-으니'와 결합할 때

『룡비어천가』에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이음토 '- ' 며/-으며', '- ' 니/-으니'와 결합한 것이 총 9회 나오는데 모두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의 첫소리로 적고 있다.

-이음토 '-아/-어'와 결합할 때

식미 기픈 므른 フ무래 아니 그츨씩 내히 <u>이러</u> 바루래 가누니(2) 보야미 가칠 <u>므러</u> 즘켓 가재 연주니 聖孫將興에 嘉祥이 몬제시니(8) 무리 病이 <u>기퍼</u> 山脊에 몯 오루거늘(109) 豺狼이 構禍 Ì 어늘 一間 茅屋도 업사 움 무더 사루시니이다(111)

『룡비어천가』에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이음토 '-아/-어'와 결합한

것이 총 32회 나오는데 용언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의 첫 소리로 적은 것이 29회 나온다.

-규정토 '-운/-은'과 결합할 때

불휘 기픈 남군 본론매 아니 뮐씨 곶 됴코 여름 하누니(2) 구든 城을 모른샤 강 길히 입더시니 셴 하나비를 하늘히 브리시니(19) 현근 선비를 보시고 御座애 니르시니 敬儒之心이 엇더호시니(82) 늘근 선비를 보시고 禮貌로 우르시니 右文之德이 엇더호시니(82) 모매 브튼 일로 仁心 몯 일우시니(104)

『룡비어천가』에는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규정토 '-운/-은'과 결합한 것이 총 12회 나오는데 용언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의 첫소리로 적은 것이 11회 나온다.

우의 실례들과 쓰임회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 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하는 경우 오늘의 표기방식과는 달리 말줄기의 끝자음을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의 첫소리로 적는 발음주의표기방 식을 취하고 있다.

 $\triangle$ 받침 '¬,  $\Box$ ,  $\Box$ '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이음토 '-고'와 결합할 때

물 깊고 비 업건마른 하늘히 命호실씩 물 톤자히 건너시니이다(34) 셔블 賊臣이 잇고 혼 부니 天命이실씩 꺼딘 무를 하늘히 내시니(37)

『룡비어천가』에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이음토 '-고'와 결합한 것 이 총 7회 나오는데 모두 토의 첫소리를 발음나는 대로 된소리 'ㄲ'로 적지

### 88 국제고려학 16호

않고 형태를 그대로 살려 'ㄱ'로 적고 있다.

-끼움토 '-더-', '-거-'와 결합할 때

솘바올 닐굽과 이븐 나모와 투구 세 사리 녜도 또 잇더신가(89) 간 고대 禮貌 업더니 盖天英氣실씩 이바디예 머리를 좆수 팅니(95) 唱義班師 | 실찍 千里人民이 <u>몯더니</u> 聖化 | 기프샤 北狄이 또 모드니(9) 兄이 디여 뵈니 衆賊이 좇거늘 재 느려 티샤 두 갈히 것그니(36) 城 아래 닐흔 살 쏘샤 닐흐늬 모미 맛거늘 京觀을 뮝フ루시니(40)

『룡비어천가』에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끼움토 '-더-', '-거-'와 결합 한 것이 총 17회 나타났는데 모두 토의 첫소리를 발음나는 대로 된소리 'ㄸ', 'ㄲ'로 적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살려 'ㄷ', 'ㄱ'로 적고 있다.

이것은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결국 용언말줄기와 용언토와의 결합표기에서는 두 가지 방식 즉 발음주의 표기방식과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있는 바 발음주의표기방식은 받침으 로 끝나는 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와의 결합표기때, 형태주의표기방 식은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말줄기와 받침으로 시작되는 토와의 결합표 기때에 적용되었다.

이상에서 분석 · 서술한 『룡비어천가』의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를 종합 하여 보면 일률적으로 어느 한가지 표기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에,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에는 발음주의 표기방식을 취하고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 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 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에는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으며 이것 을 바로 당시의 표기규범으로 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15세기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

『룡비어천가』와 같은 시기의 표기를 구태여 별도로 취급하게 되는 것은 『룡비어천가』의 표기규범이 이 시기의 다른 문헌들에서 실지 그대로 적용되 었는지, 아니면 같은 시기라도 일정하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 하여서 이다.

15세기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에서는 15세기에 간행된 문헌들인 『석보 상절』, 『월인천강지곡』, 『구급간이방』, 『구급간이방』, 『금강경언해』, 『두시 언해』, 『릉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월인석보』 등의 표기자료를 『룡비어 천가』에서와 같이 토를 중심에 놓고 분석·서술하지 않고 그 이후 시기의 변화가 어휘에 따라 달리 일어났다는 실태를 고려하여 어휘를 중심으로 분석·서술하려고 한다.

# (1) 체언말줄기와 체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 -'님금(임금)'

녜 崆峒애 님그믈 뫼숙와 둔니던 나리여.(『두시언해』3:1)

벼슬 노푼 臣下 | <u>남그믈</u> 돕스바 百官을 다스릴씨 宰相이라 ㅎ느니라(『석보상 절』 9:34)

어딘 하돐 님그미라 혼 쁘디라(『석보상절』1:30)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님금(임금)'이 총 20회 나오는데 그중 19회가 발음 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 -'밥'

알픈 딕 <u>밥을</u> 설오 돍을 가져다가 그 밥을 먹게 ㅎ며(『구급간이방언해』 1:91) 바비 닉거든 바볼 져기 더러 섯거 디허 다 머그면 됴ㅎ리라(『구급방언해』 7:59)

#### 90 국제고려학 16호

내 큰 스승니미 한마 涅槃 한시니 어느 무슨 무로 바불 머그료(『석보상절』 23:41)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밥'이 총 18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얼굴'

얼구른 그리메 逼近 학니 家門엣 소리는 器字 이도다. (『두시언해』 8:25) 萬먼 가짓 얼구를 드리워 뵈시느니라(『금강경삼가해』 4:33)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얼굴'이 총 16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녁(녘) '

모물 빗겨 드르샤 東<u>동녀그로</u> 니루시며 西솅스 <u>너그로</u> 니루시며 빗기 니루시 (『금강경삼가해』1:32)

岷嶺은 南蠻入 北<u>녀기오</u> 徐關은 東海入 西入<u>녀기로다</u>(『두시언해』8:36) 그 山이 東<u>녀근</u> 黄金이오 黄은 누를씨라(『석보상절』1:21) (200회 발음표기)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녁'이 총 247회 나오는데 그중 200회가 발음주의표 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믈(물) '

불휘를 더운 <u>므레</u> 시서(『구급간이방언해』 1:7) 흐르는 므른 脈脈히 빗곗도다(『두시언해』 3:25)

爐롱롤 걷나디 말며 브를 걷나디 말며 <u>므를</u> 걷나디 말라(『금강경삼가해』2:31) 한 비를 느리와 므리 下界예 フ독호야(『석보상절』1:39)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물(물)'이 총 509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 - '뜯(뜻)'

飲食과 衣服과 臥具와 醫藥과로 죽두록 供養하면 네 <u>些덴</u> 엇더뇨(『석보상절』 1:8) 本본來링스 <u>昨</u>더 아니샤 順쑨티 아니홀서 모물 빗겨 드르시다 하나라(『법화경언해』 1:32) 다가 經경을 듣고 <u>昨</u>들 아라 나 업슨 理링물 알오(『두시언해』 3:56)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뜯(뜻)'이 총 437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 식을 취하고 있다.

### - '밑'

왼 녁 귀 <u>미틧</u> 터리 믄득 주거 뫽운 잇고 긔운이 업스며(『구급간이방언해』1:54) 살 <u>미틀</u> 이어 싸혀면 믄득 나누니 섈리 술 내 사는 膏로 브티면 神驗ㅎ니 술 내 사는 膏는 太乙膏類라(『구급방언해』7:3)

곳 미틔셔 흐러 오고 마술로 갈 제 버드나못 フ쉬 어즐호라(『두시언해』 6:15)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밑'이 총 95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의 실례와 쓰임회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다른 문헌들에서 도 쓰임 확률상 약간한 차이는 있지만 『룡비어천가』의 표기방식을 기본적으 로 따르고 있다.

 $\triangle$ 받침 '¬,  $\Box$ ,  $\Box$ '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 -구격토 '-과'와 결합할 때

本末은 <u>민과</u> 근괘니 처엄과 乃終괘 本末이오(『석보상절』13:41) <u>눈섭과</u> 눈괘 分뿐明명호니 各각別뼗호 사롬 아니니라(『금강경삼가해』2:63) 겨집과 子息과는 또 엇던 사롭고.(『두시언해』9:2)

### -도움토 '-도'와 결합할 때

衆生들히 슬허 울오 <u>반도</u> 제여곰 눈호며 집도 제여곰 짓더니(『석보상절』1:44) 水獺의 썌를 머구머시면 즉재 나누니 시혹 <u>방톱도</u> 또 ᄒ리라(『구급방언해』7:49) 金剛山애 뻐러디여도 觀音을 念혼 히므로 혼 <u>터럭도</u> ᅙ야디디 아니ᄒ리니(『석 보상절』21:4)

- 이 시기의 다른 문헌들에 '-꽈'나 '-또'와 같은 표기는 1회도 나타나지 않고 우의 실례들과 같은 표기만 나온다는 것은 『룡비어천가』의 표기방식을 그대 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룡비어천가』의 표기와 같이 'Ì'를 뒤세운 체언말 줄기가 여격토 '-에'와 결합할 때 '-예'로 표기하고 있다.

스물훈 힛 <u>소시예</u> 般若를 니르시니라(『석보상절』6:46) 내 일후물 <u>귀예</u> 훈 번 드러도 病이 업고(『릉엄경언해』1:6) <u>벼개예</u> 굽스러 어려우미 고독호애라(『두시언해』9:49) <u>娑婆世界예</u> 엇데 노니며 衆生 위호야 說法을 엇데호며 方便力은 그 이리 엇더호 니잇고(『금강경삼가해』9)

'-예'의 표기가 1212회 중 1210회 나타났다는 사실은 15세기에는 『룡비어 천가』에서처럼 'ㅣ'를 뒤세운 말줄기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예'로 표기하였 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2.2.2. 용언말줄기와 용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 '먹다'

곡식에 몯내 염근 거슬 머거 모기 부르터 나거든 섈리 고티디 아니 한면 또 사른 물 수이 죽게 한 느니(『구급간이방언해』 2:76)

골판거든 <u>머고매</u> 샹녜 └출 對됭호얫└니(『금강경삼가해』 3:52) 乾薑스 골을 므레 두 도늘 프러 <u>머구미</u> 됴호니라(『구급방언해』 7:70) 숤盞을 해 <u>머그니</u> 나그내 뜨디 훤호도다(『두시언해』 8:50) 桂皮 호 兩을 사호라 믈 넉 되로 글혀 호 되 半을 取호야 둘헤 눈화 <u>머그라(</u>『구급방언해』 7:30)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먹다'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한 것이 총 950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 - '벗다'

緣覺 求ㅎ는 乘의 내 受苦 얽미요매 <u>버서</u> 涅槃 미처 得게 흔 사루미게 니루노니 (『법화경언해』1:158)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벗다'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한 것이 총 42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 - '깊다'

知見이 크고 <u>기퍼</u> 四無量과 四無量은 네 가짓 그지 업슨 德이니(『석보상절』 13:39)

몸 브룐 福복이 <u>기푸믄 기프나</u> 이 上썅乘씽엔 현마 섯버므로미 업스니라(『금강 경삼가해』 3:53)

아자비 여희요매 感念이 <u>기프니</u> 여흰 後에 엇던 사루물 보려니오(『두시언해』 8:61)

甚히 <u>기픈</u> 微妙훈 아디 어려른 法을 브즈러니 讚嘆 ㅎ시누니잇고(『석보상절』13:43)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깊다'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한 것이

#### 94 국제고려학 16호

총 186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 - '듣다'

호 번 보며 호 번 <u>드르며</u> 발 들며 발 드듸요미 낫나치 다 이 寂쪅場땽이니(『금강 경삼가해』 4:47)

네 반• 도•기 子: 중細•솅•히 <u>드르•라</u> •이•제 반• 도•기 너•를 도•라갈 •짜 :업수•물 :뵈•요리•라(『릉엄경언해』 1:27)

누는로 보며 귀로 <u>드로매</u> 골이요미 나디 아니흐며(『두시언해』7:4) 사루미 미혹다 니루니 말솜 <u>드러</u> 言언句궁에 이셔 文문字쫑룰 자불 사루미 이 곧흐니라(『구급방언해』7:28)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듣다'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한 것이 총 345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 - '앉다'

그되와 혼가지로 걷고 또 혼가지로 行형 후야 닐며 <u>안조매</u>(『금강경삼가해』 3:53) 오아 <u>안자</u> 잇더시니 도죽 五百이 五는 다스시오 百운 오니라(『석보상절』 1:5) 세 번 거러가 머리 도로혀 부라고 다숫 번 거러가 <u>안조라</u>(『두시언해』 9:4)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앉다'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한 것이 총 67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 - '잇다(있다)'

靈혼 光明이 호오아 빗나고 法身이 상례 <u>이셔</u>(『석보상절』1:2) 내 긼 가온딕 <u>이쇼니</u> 生理는 시러곰 니루디 몯호리로다(『두시언해』6:49) 모매 스무춘 춘 光광明명이 <u>이시리어니</u> 如영如영 ] 라 흔돌 엇뎨 變변호야 가 미 <u>이시리오</u>(『금강경삼가해』1:18)

- •미 分분別•병•이 이실 :뿌•니언•뎡(『릉엄경언해』2:46)
- 이 시기의 문헌들에는 '잇다(있다)'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한

것이 총 656회 나오는데 모두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의 실례와 쓰임회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룡비어천가』의 표기방식대로 발음주의표기방식이 위주였다.

 $\triangle$ 받침 '¬,  $\Box$ ,  $\Box$ '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항다가 술옷 몯 <u>먹거든</u> 너덧 번에 눈화 머기라(『구급간이방언해』1:4)

本본來링스 根之源원에 도라가니 사름마다 보름 믌결 조초물 <u>벗게</u> 호도다(『금 강경삼가해』5:22)

비 오는 밧긔셔 색락고 이웃짓 브른 바미 깁드록 불갯도다(『두시언해』7:6)

우의 실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음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지 않고 『룡비어천가』에서처럼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형태주의표기방식을 확고히 취하였다는 다른 하나의 자료로는 울림소리인 '-ㄴ'를 첫소리로 하는 토와 결합할 때 철저히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한 것을 통하여 더 잘 알 수 있다.

소•지 能능•히 <u>듣•논</u> 緣원心심•으•로 아•론 本:본性•성•을 사•只•니(『릉엄경언해』 1:22)

고래와 거부블 타 가고져 호논 뜨디 <u>잇노라(『두시언해』</u>8:58)

空處 이 하는 른 色을 슬히 너겨 뷔유물 브터 <u>잇는니라</u> 識處 色과 뷔윰과 슬히 너겨 識을 브터 잇는니라(『석보상절』 1:35)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다면 '듣논'이 아니라 '든논', '잇노라'가 아니라 '인노라', '잇노니라'가 아니라 '인노니라'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형태를 보존하는 방향에서 발음에는 관계없

이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 이것은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에는 철저히 형태주의 표기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상에서 『룡비어천가』와 15세기 말줄기와 토가 결합할 때 어떤 표기방식을 취하였는가를 구체적인 자료에 립각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와같은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의 결과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첫 국문문헌으로서 글쓰기 방식을 서술한 책인 『룡비어천가』에서는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에,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에는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결합할 때,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에는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표기방식은 15세기의 다른 문헌들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그 이후 시기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의 변화

16세기나 17세기, 그 이후 시기의 변화관계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16세기 이후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를 한데 묶어 서술하게 되는 것은 16세기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변화과정이 20세기초까지 계속된 것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여기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16세기~17세기와 부분적으로 소극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난 18세기~20세기 초로 나누어 서술하려고한다.

# 3.1. 16~17세기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에서의 변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생기 기 시작하였다

### 3.1.1. 체언말줄기와 체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변화

△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님금(임금)'의 표기실태를 보자.

『간이벽온방』, 『경민편(중간본)』, 『백련초해』, 『선조행장』, 『소학언해』, 『효경언해』등 16세기의 문헌들에 나오는 '님금(임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의 결합표기를 보면 총 69회 중 4회만이 발음주의표기로 나오고 나머지 65회는 형태주의표기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표기변화는 '얼굴-발음주의표기:4회, 형태주의표기:3회', '물(물)-발음주의표기:31회, 형태주의표기:18회', '녁(녘)- 발음주의표기:12회, 형태주의표기:34회', '입- 발음주의표기:11회, 형태주의표기:12회'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측면을 달리하여 체언토인 격토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말줄기와 결합 할 때를 투시하여 보아도 그 쓰임실태는 마찬가지이다.

### - '-에'

넷 <u>그레</u> 잇느니 フ로딕 길혼 사루문 어딘 이룰 호딕(『소학언해』 6:31) <u>수프레</u> 블근 비치 업스니 기려기 도라오는 소릭로다(『백련초해』 7) フ올과 겨우레 존죨호야 무뎌 기피 간ぐ호고 허비티 말라(『경민편』 중간본 13) 김시 밍셰호야 다른 남진 아니호리라 호고 물에 들어 죽을여 혼대(『속삼강행실 도』 중간본 렬:20)

비로소 내 거긔 나타나 시러곰 큰 벼슬에 니르런노니(『소학언해』5:80) 봄에 내고 녀름에 길우고 フ울히 엮글오고 겨을에 간ぐ 한 道 라(『효경언해』 6)

16세기에 간행된 문헌들을 조사한데 의하면 여격토 '-에'가 총 150회 쓰이 였는데 그중 발음주의표기가 107회, 형태주의표기가 43회이다.

### - '-으로'

문밧긔셔 물 브려 사름으로 유무드리고(『려씨향약언해』 21) 여위여 병 들엇더니 죽을적의 계집으로 더브러 닐오되(『속삼강행실도』 중간본 효: 34) 오직 이 스스로온 뜯으로 드톰이니라(『소학언해』 5:58)

16세기에 간행된 문헌들을 조사한테 의하면 여격토 '-으로'가 총 89회 쓰 이였는데 그중 발음주의표기가 21회, 형태주의표기가 68회이다.

'ㅣ'를 뒤세운 체언말줄기가 여격토와 결합할 때에도 15세기와는 달리 발 음주의표기가 393회, 형태주의표기가 47회로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세 쓸 가진 블근 노무치 다섯 환을 녀허 외녁 엇게예 메라(『간이벽온방』 11) 즘게를 드라도 빈 골티 아닌느니 샹해 모로미 주머니예 녀허 띄여 든니라(『구황 촬요』7)

술위예 댝 들으고 소매에 칼 더혀 나지니 슈을도 뎡 앏픽 가문 너 죽이고 고을 히 들어가 눗빗출 변티 아니호야 (『속삼강행실도』 중간본 효: 3) 어딘 일홈이 후세에 길리 가고(『소학언해』7:53)

꼭 같은 책이지만 간행 시기가 다른 16세기 초의 『박통사』(상)와 17세기 중엽의『박통사언해』를 대비하데 의하면 15세기의 표기방식을 그대로 따른 『박통사』(상)와는 달리『박통사언해』에서는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주격에서는 84.6%, 속격에서는 80%. 여격에서는 85%, 대격에서는 80.4%, 조격에서는 85.7%가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으며 여격형태쓰임에서는 ' ] '를 뒤세운 말줄기 아래에서 70%이상을 '예'가 아니라 '에'로 표기하였다.

16~17세기를 반영하고 있는 『송강가사』, 『로계집』, 『고산유고』의 표기실 태를 통계적으로 보면 주격에서 19.7%, 속격에서 58.3%, 여격에서 72.2%, 대격에서 77.6%, 조격에서 50%로서 대략 총 쓰임가능성의 65.7%를 형태주 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나 타나는 우와 같은 변화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확고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triangle$ 받침 '¬,  $\Box$ ,  $\Box$ '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시근 쥭을 머겨 긔우니 숣슯 호게아 졈졈 <u>쥭과</u> 밥을 머기라(『구황촬요』1) 샹주애 벼개를 거두워 녀코 <u>산과</u> 돗과를 집 쪄 듕히 간슈홀 디니(『번역소학』3:17) <u>계집과</u> 쳡을 디졉 호고 밧긔 이셔는 당상잇 사름을 셤기며(『려씨향약언해』4) 훈 지비 머그면 훈 무술히 병이 업누니(『간이벽온방』9)

우의 실례에서처럼 이 시기에는 앞시기와 마찬가지로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여전히 형태주의표기를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6세기 체언말줄기와 체언토와의 결합에서는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ㅣ'를 뒤세운 체언말줄기가 여격토 '-에'와 결합할 때에만 표기에서 변화가 보이고 받침 '¬, ㄷ, ㅂ'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에는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 3.1.2. 용언말줄기와 용언토와의 결합에서의 표기변화

△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에 도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변화가 보인다.

'먹다'의 쓰임실태를 놓고 보더라도 총 132회 나오는 중에서 32회를 형태 주의표기를 취하고 있다.

└물와 과실을 <u>먹으며</u> 또 돌쌔 대상제 호고 초와 장을 <u>먹으며</u>(『소학언해』 5:44)
 빗フ<u>머그며</u> 술비즈며 쩍 밍フ라 넘즈기 써 업게 호모로(『경민편』 중간본 12)
 반포오는 가마괴 제 어미를 도로 <u>먹여</u> 은혜를 갑는 쁘디라(『선조행장』 53)
 먹을 거슬 숣펴보고 녀막으로 도라 가더니 일이흐믈 삼년을 긋치디 아니흐더라 (『속삼강행실도』 중간본 효: 21)

스스로 술 차반 곤초와 서르 더블어 <u>머거</u> 醉ᄒ며(『소학언해』 5:50) 놀콩을 둠가 불워 시버 <u>머그라</u>(『구황촬요』 6) 또효군 마놀 혼되 디혼 즙 서흡을 다 <u>머그면</u> 다시 아니 <u>머거셔</u> 됴ᄒ리라(『간이

벽온방』16)

 $\triangle$ 받침 '¬,  $\Box$ ,  $\Box$ '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받침 '¬, ⊏, ㅂ'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에도 받침 '¬, ⊏, ㅂ'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형태주의표기를 취하고 있다.

밥<u>먹고</u> 골푼 빈볼로문 다 아로티 법 빈화 어린 모음 고틸 주를 아디 몯호느니 (『계초심화인무언해』 30)

비러<u>먹는</u> 사루미 다 제업을 브즈러니 아니ㅎ는더라(『경민편』중간본 11) 됴아는 쥬천사름이라 아비 훈고을 잇노니(『속삼강행실도』중간본 효:3) 大水杏이 반만 <u>닉고</u> 반만 서니 <u>잇다</u>(『번역박통사』 상:6) 글월란 부러 <u>듣디</u> 아닌누니 어딘 길헤 인이 업거니 뉘 너는 졔도ᄒ리오(『계초심 학인문언해』 48)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우와 같은 형태주의표기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된소리로 표기한 발음주의표기도 일부 보인다.

호룻밤의는 무덤뒤헤 울에굿탄 소릭 <u>잇써</u>놀(『속삼강행실도』중간본 효:11) 庫애 남은 직물이 <u>잇쎄</u> 호야(『소학언해』5:99)

16~17세기 말줄기와 토결합표기에 대한 우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기에 15세기의 표기방식과는 다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변화는 첫째로,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와 'ㄱ, ㄷ, ㅂ'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앞시기의 발음주의표기와 함께 형태주의표기도 적지 않게 하였다는 것 둘째로, 받침 'ㄱ, ㄷ, ㅂ'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받침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 앞시기와 같은 형태주의표기를 기본적으로 취하였지만 된소리로 표기한 발음주의표기도 간혹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있다.

# 3.2. 18~20세기초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에서의 변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변화는 계속되어 많은 경우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다.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받침으로 끝나는 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의 결합표기에서 여전히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아국에 일홈이 잇는 사름이 되니 죽언 지 십년이요 그 아들이 이시되(『을병연행 록』 4)

벗고 입고 입고 벗고 먹고 굼고 검고 먹고 증나에나 씨나주나 임 못 보와 가슴 답답 허터(『춘향전』82)

집에 다녀와 웃옷도 벗지 아니흔 리참셔 \ 기외를 불너세이고 서슬이 시퍼러케 말 시작을 혼다(『재봉춘』50)

정슉이는 정신업시 령감의 입만 바라보고 안졋다가 엇더케 좆든지 오히려 꿈인 가 의심홀 만호더라(『목단화』)

그러나 이 시기에도 받침으로 끝나는 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의 결합표기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님군을 두리고 법을 조심한니 무숨 디긔를 퍼미 이시리오(『을병연행록』77) 년디의 비호실 남군이 아니시나(『한중만록』122)

디연의 물을 만이 붓고 할임풍헌 큰 먹으로 본관의 얼골을 항호여 횔횔 간니(『춘 향전』136)

만경청파 깁푼 물에 긔염 긔염 놉피 써셔 청천에 구름 씀듯 광풍에 낙엽 뜨듯 동동실 써나가듯 사죡를 반쪽이고(『토끼전』6)

이 시기에 나온 『한중만록』, 『을병연행록』, 『춘향전』, 『토끼전』, 『조웅전』, 『장풍운전』, 『경향신문』, 『만인계』, 『재봉춘』 등 일부 문헌들을 조사한데 의 하면 '님군(임금)'은 총 47회 쓰이였는데 모두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으 며 '물(물)'은 총 149회 쓰이였는데 모두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다.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체언토와 결합할 때 뿐 아니라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말줄기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용언토와 결합할 때에도 이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먹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이 시기에 나온 문헌들을 조사한데 의하면 모두 224회 나오는데 앞시기와 같은 발음주의표기방식은 1회도 취하지 않고 전부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다.

도련임 담비 <u>먹어</u> 니의 진격 다다달나 닙벼 넙적 바다 물고 슬음 읍시 안주실 져 (『춘향전』 30)

가정이 또한 집어다가 <u>먹으니</u> 무식한 일이더라(『을병연행록』 41) 결단을 못하나 <u>먹을</u> 길히 업서 닝슈나 미음이나 <u>먹은</u> 일이 업스터(『한중만록』 273) 돈오빅 원에 나를 부려 <u>먹으면</u> 자네도 맛지지는 안네(『재봉춘』 70) 엇던 랑반이라 한는집에다 비즈로 팔고 돈 二百냥을 밧아 <u>먹엇는데</u>(『경향신문』1907)

'닙다(입다)'도 이 시기의 일부 문헌들에 총 106회 나오는데 모두 형태주의 표기방식을 취하였다.

' ] '를 뒤세운 체언말줄기아래에서의 '에' 쓰임에서도 우와 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1727년에 나온 『청구영언』에서 ' ] '를 뒤세운 말줄기아래에서의 여격쓰임이 58회 나타났으나 모두 례외없이 '예'가 아니라 '에'로 표기하였다. 18~20세기 초의 일부 문헌들을 조사한데 의하면 ' ] '를 뒤세운 체언말줄기가 총 763회 나오는데 그중 751회를 '-예'가 아니라 '에'로 표기하였다.

이상의 통계자료는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그 변화가 더 심해졌으며 많은 경우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하는 데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발음주의표기방식이 형태주의표기방식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못하였다. 일부 끝자음에 한하여서는 여전히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고있었다. 즉 '것, 밖, 빛, 옷, 무엇, 잎, 탓, 볕, 곁, 앞, 낮, 넋, 값, 밭, 끝, 및, 벗다, 있다, 없다, 깊다, 많다, 앉다' 등과 같은 '人, ㅊ, ㅈ'받침, 거센소리받침, 된소리받침, 둘받침으로 끝나는 말줄기들은 많은 경우 여전히 발음주의표기방식을 취하였다.

그에 대하여서는 이 시기에 간행된 문헌들에 쓰인 일부 어휘들의 표기실 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 '옷'

적송자는 오슬 주고 안기성은 「「초을 주며(『리대봉전』) 초인을 뮌드러 원수의 옷슬 입히여 장디에 안치고(『신유복전』) 비단 옷을 입고 디옥에 써러지는 것보다 헌 루덕이 입고 텬당에 오르는 것이 낫다 (『만인계』2)

## - '쏫(꽃)'

너는 쥭어 꼬치 되여도 뒤견화라는 쏫치 되고(『춘향전』) 아모리 고흔 쏫이라도 바람에 불녀 기천에 써러지면 다시는 그 쏫을 사랑히는 사람이 업는 것과 갓치(『재봉춘』129)

#### - '밋(밑)'

스스로 성각건디 엇지 우물밋히 기고리의 신셰를 면 흐리오(『재봉춘』2) 바둑이가 마루밋에셔 주다가 외마듸 소리에 놀나 컹컹 지즈며(『재봉춘』27) 일명이 나무밋혜셔 쉬거들(『목단화』8)

### - '닭'

천지가 〈경 업셔 이윽고 닭이 우니(『심청전』) 천지가 샤졍이 업셔 이웃고 원촌의 달기 운이(『심청전』)

#### - '벗다'

마음의 놀는 송금단 져고리를 버셔 쇼년의 머리의 덥고 드러갈시(『장풍운전』10) 의디를 못 닙으오셔 버스시고(『한중만록』 208) 헐버슨 이 옷술 춫고(『경향신문』1906)

### - '깊다'

임당수 깁흔 물의 제물추로 몸얼 파라(『심청전』26) 우물 모양은 개개히 집허 서너 길 아니 되는 곳이 업고(『을병연행록』 60) 근심이 졈졈 깁허셔 인호야 즁병이 되야(『경향신문』 179)

#### - '좇다'

그도 이만콤은 마음씨 좃코 슌실호나 텬셩이 결단셩이 부족호야 션호 일을 보고 도 얼는 단힝ㅎ는 용긔가 업더라(『만인계』17) 그러면 엇더케 힛스면 조킷슴닛가(『재봉춘』74) 작란감은 길동이가 막우 조와 ㅎ 는것이라(『재봉춘』 7)

### - '잇다(있다)'

- 의 아득훈 쇼견은 쳐족를 안보호고 죠흔 버슬홀 묘척니 <u>잇스니</u> 그닐니 엇던호 고(『조웅전』34)

비록 죄가 <u>이셔도</u> 셰상의 져 분 사랑이 아니어든 어미룰 안치고 졔 홀노 나려 어 믜 죵뎨를 <u>죽여시니</u> 엇지 진짓 효성이리오(『을병연행록』 468)

### - '앉다'

침쇼의 니르러 세간과 금침을 다 옴기고 불룰 <u>쓰고 안졋더니</u>(『장풍운전』23) 편의 비단 방석을 노하시니 날을 올나 <u>안즈라</u> 호거놀(『을병연행록』7) 그디는 죠금도 염녀 말고 닉 등에 올닉 <u>안지면</u> 슌식간에 갈 거시니 근심 말고 어셔 올르라(『토끼전』24)

우의 실례들을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받침을 끝소리로 하는 말줄기들은 형태주의표기와 함께 발음주의표기로도 적었다.

이와 함께 우와 같은 어휘들에 한하여서는 형태주의표기와 발음주의표기를 함께하는 복철표기도 나타났다.

스스로 그 손가락을 쓴허 도쟝 되신에 그 성명<u>민테</u> 피 찍은 쟈ㅣ 이십일인이라 (『경향신문』1906)

화계에 덥힌 양귀비 <u>쏫츤</u> 그 안히 에렌이 손수 심은것이라(『목단화』1) 천지가 사정이 업셔 이윽고 <u>닭기</u> 우니 심청이 홀 길 업셔(『심청전』) 우리 두리 버섯신니 벗슬 튼즛 비점니요(『춘향전』 39)

이 <u>깁픈</u> 밤의 어디을 갓뎐야(『조웅전』7)

무숨 염여 <u>잇슬숀가</u> 팔도기성 불너다가 천만지을 다 흐르머 팔션여을 뀌머 녹코 와월중취의 놀기로 무숨 말숨하실숀가(『춘향전』26) 이것은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우와 같은 표기가 이 시기에 와서 더욱 심하여 졌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4. 결론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의 력사적 변천과정은 이상과 같다.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의 력사적 변천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에서 말줄기와 토를 구별하여 표 기하려는 시도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받침으로 끝나는 말줄기와 받침으로 시작되는 토의 결합표 기에서 형태주의표기방식을 취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훈민정음 창제시기부터 말줄기와 토의 결합표기를 발음나는 대로 적으려고 하였다면 우와같은 표기방식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우기 훈민정음 창제이후 16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치는 수세기 동안 표기혼란이 상당한 정도로 심하였던 18세기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온 사실은 이를 립증하여 준다.

그것은 둘째로, 말줄기와 토결합표기의 력사적 변천과정은 곧 받침으로 끝나는 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결합표기의 변화과정이라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시기 받침으로 끝나는 말줄기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결합표기는 오늘날과는 달리 발음주의표기였다. 발음주의표기로부터 형태주의표기로의 이행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고 18세기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으나 20세기 초까지도 형태주의표기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형태부를 철자법상으로 고정할 데 대한 19세기 말~20세기 초 리봉운, 주시경, 최광옥 등 많은 언어학자들과 문필활동가들의 노력과 그 이후 조선어연구회와 새로 개편된 조선어학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1933년 처음으로 통일적인 철자법규범인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나오면서 말줄기와 토결합표기에서는 형태주의표기로의 기본적인 이행이 이루어졌다.

# 참고문헌

- 『룡비어천가』.
- 『구급간이방언해』1, 2.
- 『구급방언해』.
- 『금강경삼가해』.
- 『두시언해』(초간본) 3, 6, 7, 8, 9.
- 『릉엄경언해』1, 2.
- 『법화경언해』1, 6, 9.
- 『석보상절』 11, 13, 19, 20, 21, 23.
- 『월인석보』1, 20.
- 『륙조법보단경언해』.
- 『간이벽온방』.
- 『경민편』(중간본).
- 『구황촬요』.
- 『계초심학인문언해』.
- 『광주천자문』.
- 『려씨향약언해』.
- 『번역박통사』(상).
- 『번역소학』 3, 4, 6.
- 『백런초해』.
- 『석봉천자문』.
- 『선조행장』.
- 『소학언해』 4, 5.
- 『속삼강행실도』(중간본).
- 『효경언해』.
- 『심청전』.
- 『장풍운전』.
- 『조웅전』
- 『춘향전』.
- 『토끼젼』.
- 『한중만록』.
- 『을병연행록』.
- (1906) 『경향신문』.
- (1899) 『독립신문』.
- 『만인계』
- 『목단화』.
- 『재봉춘』.

#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의 어휘 배열 순서

**연규동** 연세대학교

# 1. 머리말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 근대국어 시기에 사역원에서 간행된 유해류 역학서는 한어 또는 한자어를 표제어로 하여 해당 언어의 어휘와 우리말 대 역어를 대비해 놓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유해류 역학서에 수록된 단어들 은 의미 영역인 '부류'에 따라 분류·배열되며, 분류어휘집으로서의 유해류 역학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류이다.

부류(部類)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한데 모아 놓은 기준으로서, 내용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의존해 있는 단어들이 하나의 부류에 속한다. 유해류 역학서마다 어떤 부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부류에 수집되는 어휘가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부류를 통해서 역학서 편찬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휘 분류 체계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부류들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 또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설정된 부류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의미 범주에 따라 한데 모여 있으며 인접한 부류를 중심으로 여러 부류들을 더 넓은 의미영역으로 묶을 수 있다. 이처럼 부류를 기준으로 어휘들이 선택되고 배열되는 이유는 유해류 역학서가 메타언어인 한어(漢語)를 중심으로 관련 외

<sup>\*</sup>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채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61-A00018).

국어를 검색하는 사전의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아직 '가나다 순'과 같은 자모 배열 순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휘를 임의 순서로 배열했 다면 원하는 외국어의 관련 단어를 빠르게 찾아 학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해류 역학서에 수록된 어휘들은 부류 및 부류의 배열 순서 외에도 또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어휘라 할지라도 그중에서 어떤 단어를 수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한된 분량의 문헌에 당시에 사용되던 어휘를 전부 수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학서 편찬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어휘를 선택했을 것이다.

또한, 선택된 어휘들을 배열하는 순서에도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동일한 부류 내에서도 어휘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었다면,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는 데에 불편하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어휘 선택 기준과 어휘 배열 기준은 역학서 편찬자들이 바라보는 어휘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관점에서는 유해류 역학서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sup>2</sup>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부류와는 달리 부류 내 어휘들에 대한 연구는 부류마다 개별적으로 또한 미시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어휘 연구가 가진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해류 역학서에서 제시된 여러 부류 내에서 어휘들이 선택되는 기준과 배열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글에 서는 특히 친족 어휘에 관심을 가진다. 즉, 여러 유해류 역학서마다 어떠한

<sup>1</sup> 이를테면 출산에 관련된 부류 '잉산(孕産)'류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어휘들이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음주, 안주 등 접대 및 잔치에 관련된 부류 '연회(宴會)'류에서 『역』 은 손님을 청하고 대접해서 배웅하기까지의 잔치의 과정이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sup>2</sup> 박찬식(2008)은 유해류 역학서의 천문, 시령, 지리, 천속·인륜, 신체, 용모, 동정, 기식, 궁실, 언어, 인품류에 속하는 어휘들의 구성과 상관 관계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어, '인품(人品)'류에 속하는 어휘는 [존경], [천민], [예지], [평가], [육체], [정신]이라는 의미자질에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친족 어휘가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친족 어휘들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당시 유해류 역학서 편찬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친족 어휘 분류 체계의 일단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해류 역학서들의 편찬자들이 나름대로 어휘 선택 기준과 배열 기준이 있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3

이 글에서 참고한 유해류 역학서와 그 약칭은 각각 다음과 같다.

『역어유해(譯語類解)』(1690) = 『역』

『동문유해(同文類解)』(1748) = 『동』

『몽어유해(蒙語類解)』(1768?) = 『몽』

『왜어유해(倭語類解)』(1780초?) = 『왜』

『방언집석(方言集釋)』(1778) = 『방』

『화어유초(華語類抄)』(1883?) = 『화』4

### 2. 부류 및 부류 배열 순서

여러 가지 언어 요소 중에서 음운이나 문법 범주와는 달리 어휘를 체계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 언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수는 방대하며 어휘 체계는 다른 요소에 비해 고정되지 않고 들고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한 기준에 의해 어휘를 분류하는 일은 한 언어의 어휘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며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크게 효과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유해류 역학서에서 설정된 부류 및 부류 배열 순서의 차이는 당시 역학자들이 이해했던 한국어 어휘체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sup>3</sup> 천족 어휘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박찬식(2008)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다만, 박찬식 (2008)은 유해류 역학서에 수록된 친족 어휘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친족 어휘의 분류 및 배열이 유해류 역학서 각 문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sup>4 『</sup>화어유초(華語類抄』는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으로서 사역원에서 간행된 역학서는 아니다. 하지만 『화어유초』의 활자본의 체제가 그 이전 시기에 간행된 여러유해류 역학서들의 체제와 같으며, 이 문헌의 모두 부류 및 수록된 어휘가 『역』의 영향을받은 것이 확실하므로(연규동 2015 참고) 넓은 의미의 '유해류 역학서'에 포함한다.

것이다. 이는 특히 현대 구조주의 의미론에서 이해하고 있는 낱말밭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친족 명칭 어휘가 수록된 부류는 역학서마다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부류의 명칭이 『역』, 『방』, 『화』에서는 '친속(親屬)', 『동』, 『몽』, 『왜』에서는 '인륜 (人倫)'으로 달라질 따름이다. 부류 명칭으로서의 '인륜(人倫)'은 『동』의 저본으로 생각되는 청나라 문헌 『동문광휘(同文廣彙)』와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에 나오는 이름이다. 『동』의 부류 명칭이 『몽』, 『왜』에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5

부류의 선택은 단지 의미 범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해류 역학서에 나열되어 있는 부류들 사이의 관계는 당시 유해류 역학서의 편찬 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어 어휘의 분류 체계를 보여준다. 게다가 이러 한 분류 체계는 유해류 역학서끼리 어느 정도 유사하므로 사역원 역학자들 이 인식하고 있었던 어휘 분류 기준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 다음은 친족 명 칭 어휘들이 수록된 부류와 그 인접 부류를 보인 것이다.

『역』, 『화』 396食餌 33親屬 36宴享 cf. 220人品

『동』、『몽』③地理 ④人倫 ⑤人品

『왜』⑥方位 ⑦人倫 ⑧人品

『 방』 ④ 尊卑 ⑤ 親屬 ⑦ 身體

『역』, 『화』의 경우, 친족 명칭은 비교적 뒷부분에 배열되어 있다. 『역』의 부류 배열 순서가 [공동체]에 관련된 부류를 먼저 배열하고 다음에 [인간], [개인생활] 관련 부류를 배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연규동 2001 참고), 친족 명칭은 개인 생활에서 필요한 어휘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

<sup>5</sup> 기본적으로 『몽』의 부류는 『동』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정광 1978: 178), 『왜』는 모두 53개 부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 『왜』에만 설정되어 있는 10개 부류를 제외한 43개의 부류 중에서 『동』, 『몽』과 명칭이 다른 것은 기희(技戲), 공식(公式), 연향(宴享), 혼취(婚娶), 화곡(禾穀) 다섯 개뿐이다.

<sup>6</sup> 부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해당 문헌에서 해당 부류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이다.

다. 또한 친족 명칭 다음에 잔치 관련 부류인 '연향(宴享)'류가 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반면, 『동』, 『몽』, 『왜』는 [하늘], [땅]과 같은 자연 관련 부류 다음에 바로 친족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다른 어떤 어휘들보다 친족 명칭 어휘들을 기본 적인 어휘라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러 종류의 사람, 각종 직업 인 등 사람을 가리키는 어휘들이 수록된 부류 '인품(人品)'류가 바로 뒤에 있 어 친족 관련 어휘와 사람 관련 어휘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역』, 『화』에서 친족 관련 어휘와 '인품(人品)'류 어휘들이 따로 떨 어져 있음과 대비된다. 『방』도 친족 명칭은 왕가의 직책을 다루는 부류인 '존비(尊卑)'류와 함께 자연 부류 다음에 배열되어 있다.

# 3. 친족 명칭 어휘의 선택과 배열

유해류 역학서에 수록된 친족 명칭 어휘들은 크게 1) 친척(친족, 외척)과 인척, 2) 존속과 비속, 3) 남성과 여성, 4) 손위와 손아래, 5) 직계와 방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무리지어 있다. 또한 동일한 기준 내에서도 어떤 어휘 를 수록하느냐는 편찬자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 3.1. 존속

### 3.1.1. 친족

### 3.1.1.1. 직계

『왜』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해류 역학서에서 부계 조상의 범위를 4대조까지 수록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역』에서는 나중에 보권에서 추가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양부 등과 같은 직접적이지 않은 부모의 명칭이 빠져 있다. 표제어와 부문의 설정, 표제어 배열, 대역어 등 『동』의 거의 모든 부분을 따르는 『몽』은 처음에는 『동』의 일부 어휘를 수록하지 않았다가 보권에서 다시 추가하고 있다. 돌아가신 모친의 명칭을 수록한 것은 『왜』의 '고비(考

# 妣)'가 유일하다 7

	조상	4대	3대	2대		1대	フ	타
역	+祖宗	高祖父 高祖母	曾祖父 曾祖母	한아비 한어미		아비 어미	+슈양아비 +슈양어미	+졋아비 +졋어미
동	始祖 祖宗	高祖父高祖母	曾祖父曾祖母	祖父祖母	어버이 雙親	父親 母親	繼母 嫡母 養父	/庶母 乳母
몽	始祖	高祖父高祖母	曾祖父曾祖母	祖父祖母	어버이 +雙親	父親 母親	繼母 養父 +嫡母	/乳母
왜	1	-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어버이친	아비부 어미모 고비(考妣)	양부 양모	/유모
並	조샹	고조	증조 증조모	조부 조모	아비 어미		양부 계모 뎍모	/셔모 졋아비 졋어미 슈앙아비 슈앙어미
화	-	高祖父 高祖母	曾祖父 曾祖母	祖父 祖母		父親 母親	-	/슈양어미

### 3.1.1.2. 방계

부계의 방계 존속 중 남성을 나타내는 명칭은 손위와 손아래로 구분하여 그 배우자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여성을 나타내는 명칭은 『역』에서 가장 자세하다. 즉, 다른 문헌에서는 아버지의 여자 형제만을 통칭하고 있는데 비해, 『역』에서는 이들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라 세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화』에서 방계 존속의 여성 명칭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까닭은 편찬자의 의식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이 문헌이 다른 역학서에 비해 분량이 작기 때문

<sup>7</sup> 표 안에 제시되는 어휘들은 각 문헌에서 실제 어휘 배열 순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다른 위치에 수록된 어휘의 앞에는 '/ 표시를 붙였다. '+'가 붙은 어휘는 해당 문헌의 보권(補卷)에서 추가된 단어임을 나타낸다.

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왜』의 경우로서, 부계의 방계 존속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 손위	남성 손아래	기타	여성	배우자
역	同姓물아주비 同姓물아주븨쳐	同姓아 우아주비 同姓아 우아주븨쳐	-	아븨누의 아븨뭇누의 아븨아우누의	同姓叔母夫
동	물아즈비 물아즈븨쳐	아즈비 아즈븨쳐	-	姑母	姑母夫
몽	물아즈비 몰아즈미	아즈비 아즈미	-	姑母	姑母夫
왜	-	숙부 숙모	-	-	-
방	물아자비 물아자븨쳐	아우아자비 아우아자븨처 아자비(通稱)	오촌아자비	아븨누이	고모부
화	同姓뭋아자비 同姓뭋아자븨쳐	同姓아 우아자비 同姓아 우아자븨쳐	-	-	-

### 3.1.2. 외척

### 3.1.2.1. 직계

『왜』에서 모계 존속의 명칭은 전혀 수록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헌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부계 존속이 4대조까지 수록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단출하다. 이는 조선시대의 가족 관계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하겠다.

	남성	여성
역	外祖父	外祖母
동	外祖父	外祖母
몽	外祖父	外祖母
왜	-	-
방	외조부	외조모
화	外祖父	外祖母

### 3.1.2.2. 방계

여성 관련 친족 명칭을 거의 수록하지 않은 『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헌에 수록된 어휘들을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몽』에서 처음에는 배우자들을 수록하지 않았다가 보권에 가서 추가한 것이 눈에 띈다.

	남성	배우자	여성	배우자	기타
역	異姓아즈비 異姓딧아즈비 異姓아 우아즈비 +외아자비	異姓아 <b></b> 주븨쳐 異姓아 <b>우아</b> 주븨쳐	엄의계집동성 어믜형 엄의아 ?	異姓叔母夫	-
동	외삼촌	외삼촌의쳐	姨母	姨母夫	-
몽	외삼촌	+외삼촌의쳐	姨母	+姨母夫	外孫
왜	-	-	-	-	-
방	외삼촌	외삼촌의쳐	어믜계집동성	이모부	-
화	外叔	外叔母	姨母	姨母夫	-

어휘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역』으로서, 부계 존속의 방계 명칭보다 더자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를테면, 부계의 경우에는 '同姓뭇아즈비, 同姓뭇아즈비처'와 그 배우자만 수록되어 있고 통칭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데에 비해서 모계의 경우에는 통칭인 '異姓아즈비'가 수록되어 있으며, 보권에서 '외아자비'까지 추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게다가 어휘의 배열순서도 부계와는 차이가 나는데, 부계에서는 나이에 따라 배열하면서 그 배우자를 각각해당 명칭과 나란히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3.1.1.2. 참고), 모계의 경우에는일단 남성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배우자들을 제시하고 있어 구분이 된다.

### 3.2. 동항렬

### 3.2.1. 직계

직계 동항렬의 명칭은 나이에 따라 세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어휘는 대부분 유사하다.

	남성	배우자	여성 통칭	<u>손</u> 위 여성	배우자	손아래 여성	배우자	기타
역	동성형 동성아 (	兄弟之妻	누의들	뭇누의	뭇누의남편	아익누의	아우누의남편	/二父所 生兄弟
동	형 아 <sup>(</sup>	형의쳐 아 은 의쳐	-	문누의	몬민부	아우누의	아익민부	/同姓 親兄
몽	親兄 형 아 <sup>(</sup>	형의처 아 < 의처	-	물누의	と 妹夫	아익누의	妹夫	+親兄弟
왜	물형 아 <sup>(</sup> 이 형 데 동 성	형수 데수	-	문누의즈	-	아୧누의믹	민부	-
방	형 아 <sup>(</sup>	형의쳐 아 은 의쳐	누의들	뭇누의	-	아익누의	뭋누의남편 아 < 누의남편	-
화	형 아 <sup>(</sup>	형수	누의들	뭇누의	뭇누의남편	아우누의	아우누의남편	-

# 3.2.2. 방계

방계 동항렬의 명칭은 『역』에서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친사촌의 처의 순서로 아주 자세하게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방』과 『화』에서도 주요한 어휘는 수록되어 있다, 반면 『동』과 『몽』에서 방계 동행렬의 명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친사촌의 배우자	기타	모계
역	同姓四寸兄 (同姓四寸)아	오누의게난형 (오누의게난)아 (	兩姨의게난형 (兩姨의게난)아 (	同姓四寸兄의妻 同姓四寸아 <sup>()</sup> 의妻	/同姓 六寸	+異姓四寸
동	-	-	-	-	-	-
몽	-	-	-	-	-	-
왜	종형뎨	-	-	-	지죵	-
방		<b>니외</b> 죵형데	이죵형데	-	-	/이셩 亽촌
화	四寸아 🤈	內外從兄弟	-	-	-	

### 3.3. 비속

# 3.3.1. 직계

직계 비속 명칭은 자녀와 그 배우자의 명칭이 기본이 된다. '妾아돌, 도린 사회' 등과 같은 간접적인 명칭은 『역』에서는 보권에서 수록되고 『방』에서도 그 위치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동』과 『몽』에서는 직접적인 명칭에 이어 바로 제시된다. 특히 『동』과 『몽』, 『방』은 '長子, 次子, 끗틱아들' 등과 같이 나이에 따른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어 다른 문헌과 구분된다(배열 위치는 다르다). 『화』에 '아들'이 수록되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보인다.

	남성		배우자	여성	배	우자	남성 (나이)	7	기타
역	아들	/養子	며\리 물며\리 자근며\리	쌷	사회	-	-	+妾아돌 +막나이 +쌍싱	+슈앙아돌 +뚠남진에 난주식 +드린사회
동	주식 아들	-	며누리	垄	사회	<u></u>	長子 次子 쯧틱아들	雙生子 遺腹子 /첩아들	-
몽	아들	-	며누리	些	사회	<u></u>	물이들 次子 쯧히아들	遺腹子 +雙生子 +쳡아들	-
왜	아들즈	양주	며느리부	녀식	사회셔	-	-	/庶孼	-
늉	아들 못아들 둘재아들 막나이	-	며누리	<b>쌷</b>	사회	-	-	/양주 쳠아돌 유복주 쌍성주	/민메닉리 딕린사회
화	-	-	며누리	뚤	사위	-	-	-	/뚠남진의난 자식

# 3.3.2. 2대 이하 직계

직계 비속 2대에 수록된 어휘들은 모두 남자만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여 흥미롭다. 우선 『역』 은 다른 문헌과는 달리 유일하게 비속 2대의 배우자까지 제시하고 있다. 반

면, 『동』, 『몽』, 『방』은 '曾孫, 玄孫'까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또한 『몽』의 경우에 '外孫'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록된 위치가다른 문헌과는 다르게 모계 명칭들에 배열되어 있다(3.1.2.2. 참고). 모계 명칭에 붙은 접두사 '外-'에 끌린 것으로 이해된다. 『화』에는 직계 비속 2대 이하의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역	孫子	外孫	-	-	孫壻	外孫壻
동몽	孫子	外孫	曾孫	玄孫	-	-
몽	孫子	/外孫	曾孫	玄孫	-	-
왜	손주손	-	증손	-	-	-
방	손주	외손	증손	현손	-	-
화	-	-	-	-	-	-

### 3.3.3. 방계

방계 비속과 관련된 어휘들 역시 대체적으로 문헌마다 유사하다. 『동』과 『몽』에는 오직 남성 지칭 어휘만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과 『왜』, 『방』은 수록된 어휘가 다른 문헌보다 조금 자세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여성에 관한 친족 명칭이 제한적으로 수록된 『왜』가 방계 비속의경우 여성 명칭까지 수록하고 있다.

	남성	여성	기	타
역	아춘아들	아춘뚤	-	-
동	족하	-	-	-
몽	족하	-	-	-
왜	족하질	질녀	-	성질성
방	족하	족하뚤	오촌족하	싱질
화	아춘아들	아춘뚤	-	-

# 3.4. 부부

부부 명칭 역시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화』에서 여성 명칭이 따로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러 문헌에서 간접적인 명칭들이 많이 제시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당시의 다양한 부부 관계를 보여준다.

	남성	여성		기타	
ਰ	남진	계집尊稱호눈말 계집(通稱) 自稱家屬	/謙稱己妻 /後妻 /妾	+안히 +謙稱己妻 +젼실	-
동	지아비	쳐	後妻	/쳠	-
몽	지아비	쳐	-	/쳠	-
왜	지아비부	안해쳐	후실(後室)	/쳠쳡	/嫡室
並0	/남편	처(通稱) 안히 /계집	편실 후쳐	쳠 내친계집	-
화	남진	-	/妾 謙稱己妻	-	-

# 3.5. 인척

# 3.5.1. 처계

처계 존속 명칭은 남성 명칭만 제시하고 있는 『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처계 동항렬의 경우에 『역』과 『몽』은 처음에는 빠져 있다가 보권에 추가되었는데, 『왜』와 『화』 외에는 모두 나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존	속	동항렬		
역	妻父	妻母	妻娚	+딧妻娚 +아 은妻娚	+妻兄 +妻弟
동	妻父	妻母	-	물쳐남 아 약쳐남	妻兄 妻弟
몽	丈人	丈母	-	+물쳐남 +아 < 쳐남	+妻弟
왜	외구(外舅)	-	/쳐남	-	-
방	쳐부	쳐모	쳐남	물쳐남 아우쳐남	쳐형 쳐뎨
화	妻父	妻母	妻娚	-	妻弟

### 3.5.2. 早계(夫系)

부계(夫系) 존속 명칭은 모든 문헌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동항렬의 경우에 『역』과 『몽』은 처음에는 빠져 있다가 보권에 추가되었으며, 『왜』에는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화』의 경우에 남성 명칭은 따로 제시되지 않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존	속	동항렬		
역	싀아비	싀엄이	+뭇싀아자비	+뭇싀누의	
'	' ' '	1 1 1	+아우싀아자비	+아우싀누의	
동	싀아비	싀어미	물싀아즈비	뭇싀누의	
5	-1 of m	거에비	아우싀아즈비	아우싀누의	
몽	시시비	시시미	+물싀아즈비	+몬싀누의	
<b>5</b>	싀아비	싀어미	+아우싀아즈비	+아우싀누의	
왜	싀아비구	싀어미고	-	-	
НĻ	싀아비	시시미	못싀아자비	<u></u> 못싀누의	
방	의아미	싀어미	아우싀아자비	아우싀누의	
화	싀아비	싀어미	-	물싀누의 아우싀누의	

### 3.5.3. 동서

배우자의 배우자에 대한 명칭을 제시하는 문헌은 처계와 부계(夫系)를 모두 수록한 경우와 처계 명칭만 수록한 문헌으로 구분된다. 특히 『역』에서는 매우 다양한 명칭이 제시되고 있다. 4절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처계 명칭의 일부로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

	처계	부계	
역	<b>스나희동</b> 셰	계집동세	+지아븨형의안해니뭇동셰 +지아븨아의안해니아 Չ동셰
동	동셰	계집동셰	-
몽	+동셰	-	-
왜	동셔 츅리	-	-
방	< 나희동세	/계집동셰	-
화	-	-	-

# 4. 친족 명칭 어휘 범주의 배열

이 절에서는 유해류 역학서에서 부류 내 어휘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 문헌에서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역, 화	방	왜	동	몽
존속(친족-직계, 방계) 존속(외척)	존속(친족-직계, 방계) 존속(외척)	존속(친족, 夫계, 처계)	친족(존속)	친족(존속)
-	-	부부	부부	-
동항렬(직계)	동항렬(직계, 방계)	동항렬(직계)	부계(동항렬, 비속)	부계(동항렬, 비속)
비속(방계, 직계)	비속(직계, 방계)	비속(직계, 방계)	-	-
동항렬(방계)	-	동항렬(방계, 처계, 동서)	-	-
-	-	-	모계	모계
-	-	-	-	부부
인척(夫계, 처계, 동서)	인척(처계, 夫계)	*인척(夫계, 처계)	인척(夫계, 처계, 동서)	인척(夫계, 처계, 동서)

이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친척과 인척으로 구분한 문헌이다. 즉, 『왜』는 다른 문헌과는 달리 친척 명칭과 인척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배열하고 있다.

배열1/1: 친척 - 인척(『역』, 『동』, 『몽』, 『방』, 『화』)

배열1/2: 친인척(『왜』)

둘째, 존속 - 동항렬 - 비속과 같이 존비 관계에 따라 배열한 문헌과 부계 - 모계와 같이 남녀 관계에 따라 배열한 문헌이 그것이다.

배열2/1: 존속 - 동항렬 - 비속(『역』,『왜』,『방』,『화』)

배열2/2: 부계 - 모계(『동』, 『몽』)

셋째, 부계(夫系) 명칭과 처계 명칭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는 관점에 따라 배열이 달라진 예로서, 남성 쪽 친족 명칭을 앞세운 경우와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친족 명칭을 앞세운 것으로서, 결과 적으로는 어느 쪽이나 남성을 중심으로 배열 순서를 선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배열3/1: 부계(夫系) - 처계(『역』,『동』,『몽』,『왜』,『화』) 배열3/2: 처계 - 부계(夫系)(『방』)

넷째, 부부 명칭의 배열 순서는 문헌마다 많이 달라진다. 『역』, 『화』는 부부 명칭을 따로 모아 놓지 않고 각각 부계(夫系)와 처계 명칭에 이어 배열한다. 『동』과 『왜』는 존속 명칭 다음에 배열하고 있어 존속 - 부부 - 동항렬 - 비속의 순의 배열을 보인다. 『몽』은 친척 - 부부 - 인척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방』은 인척 명칭에서 처계 - 부부 - 夫계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특히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동』과 『왜』의 배열이 부부의 독자성을 가장 잘 반영한 배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동서 명칭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헌에서 처계 명칭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방』에서는 처계 명칭과 부계(夫系) 명칭에 각각 분리되어 제시된다

# 5. 마무리

지금까지 유해류 역학서를 분류 어휘집이라는 본래의 편찬 의도에 따라 재검토해 보았다. 앞선 여러 연구에서는 수록된 부류의 종류, 부류 배열순서 가 달라짐으로써, 유해류 역학서 편찬자들이 인식했던 거시적인 낱말밭(의미장)을 파악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더 나아가 친족 어휘의 선택 기준, 친족 어휘의 배열 순서 등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문헌 편찬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한국어 친족 어휘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유해류 역

학서의 부류 및 부류 내 어휘들은 무질서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 어휘 분류 체계를 세우고 그에 따라 부류별로 어휘를 수집하고 분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헌별로 달라지는 어휘 선택 및 분류 기준을 통해서 편찬자들의 세계관, 의식 등의 차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족 명칭 어휘가 수록된 부류는 문헌에 따라 '친속(親屬)'류 또는 '인륜(人倫)'류이다.

둘째, 『역』, 『화』의 경우, 친족 명칭은 개인 생활에서 필요한 어휘라고 파악하고 있다. 반면, 『동』, 『몽』, 『왜』는 자연 관련 부류 다음에 바로 친족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다른 어떤 어휘들보다 기본적인 어휘라고 파악한 것이다.

셋째, 친족 명칭 어휘들은 크게 1) 친척(친족, 외척)과 인척, 2) 존속과 비속, 3) 남성과 여성, 4) 손위와 손아래, 5) 직계와 방계 등 여러 기준에 따라무리지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 내에서 수록된 어휘와 배열 순서가 조금씩 달라진다.

넷째, 친족 명칭 어휘들은 위에 제시한 여러 기준에 따라서도 배열순서가 구분된다.

이 글에서 살펴본 유해류 역학서의 친족 어휘의 분류 체계를 한국어의 다른 분류 어휘집들은 물론, 중국 및 일본의 유서(類書)와 비교하여 보면 동양에서의 어휘 분류 체계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변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의미에 따라어휘를 분류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종택(1992)『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남영신(1987) 『우리말 분류사전』, 한강문화사

박금자(1995)「부류 해석 학습서로서의『후몽자회』-『후몽자회』의 의미론적 어휘 부류와 의미 해석」, 『국어학』 26, 국어학회, 317-340.

박용수(1995) 『새 우리말 갈래 사전』, 서울대출판부.

박찬식(2008) 『유해류 역학서 연구 1 -천문, 시령, 지리, 친속·인륜, 신체, 용모, 동정, 기 식, 궁실, 언어, 인품부』, 역락,

연규동(1995) 「동문유해와 몽어유해의 비교」, 『언어학』 17, 한국언어학회, 183-202.

연규동(1996) 「근대국어 어휘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연규동(2001) 「근대국어의 낱말밭」、『언어학』 28, 한국언어학회, 101-128.

연규동(2015)「활자본『화어유초』의 서지학적 연구」、『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227-251.

연규동(2016) 「유해류 역학서의 종합적 검토」, 『2015년도 겨울 국어사학회 · 연세대 언어 정보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국어사학회, 161-182.

임지룡(1989) 「국어 부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국어학』 19, 국어학회, 395-425.

임지룡(1992)『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임홍빈(1993)『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정광(1978) 「유해류 역학서에 대하여」, 『국어학』 7, 국어학회, 159-188.

홍윤표(1985) 「국어 어휘 문헌자료에 대하여」, 『소당 천시권박사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747-73.

홍윤표(1988)「십팔, 구세기의 한글 주석본 유서에 대하여 -특히 '물명고'류에 대하여」, 『주시경학보』1, 탑출판사, 111-129.

# 접촉언어학의 시점에서 본 중국 조선족의 언어사용 실태와 전망

**장흥권** 중앙민족대학

### 1. 머리말

오늘날 언어학분야의 신흥학과의 하나인 접촉언어학에서는 언어접촉이라는 새로운 학술용어가 쓰인다. 언어접촉이라는 학술용어는 20세기 50년대에 동유럽출신의 미국언어학자인 유리얼 와인라이흐(1926-1967)의 저서 『언어의 접촉』(1966: 3-9)에 이미 쓰이였다. 와인라이흐의 저서에는 언어접촉에의하여 생성되는 어휘차용, 이언어사용, 다언어사용, 언어전환, 언어환용, 언어혼합, 언어간섭, 언어동맹, 혼종복합어 등 언어현상이 상세히 서술되였다. 언어학발달사를 더듬어보면 언어접촉과 관련한 언어현상은 19세기 하반기에 독일-오스트리아 언어학자인 휴고 슈하르트(1842-1927)의 론문「언어혼합에 관한 문제』(2003: 174-184)에 이미 기술되였다. 슈하르트는 "언어혼합의 원인은 언제나 사회적인것이며" "두 언어의 혼합"은 "언어교류의 결과"라고 제시하였다. 그는 언어혼합현상과 관련하여 술어 피진, 이언어사용, 혼합공통어, 크레올어, 크레올방언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윈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은 로씨야언어학자인 엔. 에스. 뜨루베쯔꼬이(1890-1938)가 1928년에 언어접촉에 의한 언어동맹현상을 제기하였다. 그후술어 언어혼합은 전후하여 언어호상영향 및 언어접촉 등 용어에 교체되였다.

새 학술용어 접촉언어학은 1979년 6월에 벨지끄의 수도 브류쎌에서 열린 '제 1차국제언어접촉및언어충돌대회'에서 쓰이였다. 따라서 슈하르트의 언어혼 합론과 뜨루베쯔꼬이의 언어동맹론은 접촉언어학의 선행적리론이라고 보게 되고 와인라이흐의 언어접촉론은 접촉언어학의 핵으로 되는 기초적리론이라 고 간주하게 된다.

통시적으로 고찰하여보면 코리아민족언어는 오랜 력사시기를 지내오면서 여러 언어들과 접촉하였는바 삼국시대에 불교문화와 접촉하면서 한어와 계 속 접촉하였고 범어와 일본어, 서역의 고대언어와 접촉하였다. 근대와 현대 에 이르러서는 유럽과 동방의 언어들과 접촉이 잦았고 이와 같은 여러 언어 들과의 접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진행중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코리아민족언어는 일본어와 접촉이 잦았지만 추호도 쇠퇴하지 않고 겨레의 선인들에 의하여 고스란히 전승되여왔다. 특히 1930년대에 조선어학회의 선각자들이 온갖 곤난을 무릅쓰고 겨레말의 표준어를 선정하고 겨레말의 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을 제정하였으며 겨레말사전(기초원고)을 편찬하였는바 겨레말은 표준어의 규범을 지니게 되였다.

접촉언어학의 시점에서 보면 언어접촉연구에서는 상이한 민족언어들간의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각이한 민족언어들의 접촉현상이 연구될뿐만아니라 동일한 민족언어의 여러가지 지역적변종과 사회적변종 및 국제적변종 등의 접촉현상도 다루어지게 된다.

# 2. 해방직후의 언어사용실태

1945년 8·15에 일제가 패망하자 우리 겨레는 저마다 해방된 기쁨을 한가 습 안은채 겨레말을 떳떳하게 사회생활의 일상용어로 쓰게 되였다. 해방직후, 곧 1945년 9월 25일에 중국의 연길현림시정부에서는 "학교부활에 관한 조령"을 여러 조선민족학교에 내려보냈다. 그 조령에는 한글, 중어, 로어 등어문과목이 망라되여있었다.

외세의 조선어말살정책이 감행된 그 살벌한 시기에도 겨레말을 고스란히 지켜온 우리 겨레 교사들은 해방과 더불어 추호의 어려움도 없이 능란한 겨레말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겨레말은 가정에서 익히고 썼으므로 알고있었지만 한글(문자)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가 갸 거 겨'를 열심히 가르쳐주었고 학생들은 글자를 쉽게 배워냈다.

1946년에 연길시에서 주시경선생의 제자인 리호원을 주임으로 한 한글연구회가 창립되였고 그해 7월에 연변에서 조선말방송이 시작되였으며 조선문판 『동북조선인민보』(현재『연변일보』)가 간행되였고 그 신문은 로농판도발행되였다. 연길, 룡정, 목단강 등 도시에서는 겨레말글의 소책자와 잡지가사태처럼 쏟아져나왔다. 룡정시 인민사에서 1947년(?)에 『중등조선말본』(최현배 지음, 1946년 개정판)을 번인하여 발행하고 연길시 대중서원에서 1948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해설서』를 번인하였다. 1947년 초봄에 창설된 연변교육출판사에서는 그해 벌써 조선민족중등학교용교과서 『한글』(1-4학년용)을 편찬, 간행하였고 그후 박상준의 저서 『조선어문법』(1949년 수정판)과 김수경의 저서 『조선어문법』(1955년)을 중학교문법학습용으로 번인하여 여러조선민족학교에 배당하였다.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던 우리의 어버이세대 어른들은 농한기마다 동학반 또는 야학교를 다니면서 겨레말글로 간행된 『식자독본』을 꾸준히 배웠고 나 중에, 지난날의 그 저주로웠던 문맹의 '감투'를 벗어버렸다. 따라서 문맹퇴치 사업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미구에 연변조선족자치구(연변조선 족자치주의 전신)가 창립되자 겨레말은 법적으로 조선민족의 주요한 교제도 구로 규정되였다.

중국은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의 국가인 까닭에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민 족은 모어 이외에 중국에서 민족간의 공용어로 쓰이는 한어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고 한어를 제2언어로 배웠다. 그리고 해방직후의 국제관계에 따라 로어를 배워야만 필요한 지식과 학술 정보를 알아낼수 있었다. 접촉언 어학의 견지로부터 보면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겨레는 사회생활의 필요에 수용하여 두가지 또는 세가지 언어를 구사할수 있는 언어겸용자로서의 '이 언어사용자' 또는 '삼언어사용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였다.

그당시 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여있었고 사회적현상인 언어도 분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쓰인 우리 겨레말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있는 평양의 말과 접촉이 빈번하였다. 겨레말글로 간행된 교과서와 일반도서는 평양판이 수없이 많이 수입되였다. 우리겨레말의 맞춤법과 외국어표기법 그리고 새말도 기본적으로 평양을 따르고있었다. 그때의 국제적관계로 볼 때 평양을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평양을 따랐기때문에 코리아민족의 동일한 언어가 70년동안이나 내려오면서 상이한 나라에서 쓰이는 과정에 크게 차이성이 생기지 않고 이른바 '이질성'도 생기지 않았다.

그때 동북조선인민서점(1950년대 상반기까지 쓰인 서점명)에서는 우리 겨 레의 문인들이 겨레말글로 저술한 도서가 팔리는 이외에 한어를 우리 말글로 번역한 서적과 모스크바에서 우리 말글로 번역한 도서도 들어와 팔렸다. 따라서 중국거주 우리 겨레는 새 사회에서 새말은 평양의 말을 따라 쓰기도하고 한어와 로어로부터 번역한 말을 쓰기도 하였으며 또 자체로 자민족의 기존어휘에 토대하여 새롭게 창출하여낸 말마디를 쓰면서 언어생활을 비교적 순조롭게 영위할수 있었다.

# 3. 오늘날의 언어사용실태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실행되고 그 시행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겨레(2010년도 인구통계: 183만명)는 세계를 내다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하는 기회가 많게 되였다. 뒤이어 중국에서 쓰이는 우리 겨레말은 평양의 문화어와 의연히 접촉함과 아울러 서울의 표준어와도 접촉이 이루어지고 점차 접촉이 잦게 되였으며 또 일본어, 영어와도 접촉하게 되였다. 접촉언어학의 시점으로 보면 중국에서 쓰이는 우리 겨레말에는 여러 언어들과 접촉한 중표로서 여러가지 변이현상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쓰이는 조선민족언어는 다언어접촉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중국거주 조선민족의 언어는 국내외의 다른 민족언어들과 접촉이 빈번한 동시에 동일한 민족언어인 반도 남북의 조선말 및 한국말과의 접촉 도 잦은 까닭에 겨레말의 어휘구성이 풍부화되는 한편 겨레말 관련 사업은 새로운 과제와 국면에 직면하고있다.

### 3.1. 언어요소차용

언어요소의 차용과 관련한 내용은 언어접촉연구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게 된다.

### 3.1.1. 한어와의 접촉

1860년대 이후부터 중국에 천이하여온 조선민족은 한어와 접촉함에 따라한어에서 다부살, 콰이발, 양걸 등 말을 받아들였다. 그중 양걸은 입말에서양걸춤이라고 쓰이기도 한다. 이는 한족의 춤의 한가지인 양걸에 겨레말의동의반복어인 춤을 덧보태줌으로써 그 뜻을 보다 더 명확히 나타내게 한것이다. 이와 같은 단어조성법에 따라 연변의 룡정사람들은 1928년에 해란강에 놓인 콩크리트다리를 룡문교다리라고 동의반복어로 말하였다. 룡정 출신의 소설가인 안수길도 작품에서 철교다리와 연길교다리라는 동의반복어를썼다.

이와 같은 관례에 따라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에서는 발레무, 에이즈병 등 동의반복어식으로 조성된 한어의 혼종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쓰기도 한다. 오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에서는 한어에서 음차하여 받아들인 약간한 단어가 일부는 입말에서 사투리로 쓰이고 일부는 글말에서도 쓰인다.

원어	차용어	의미
扁食	밴세/밴새	만두, 송편
毯子	탄재	담요
大頭白菜	다두배채	양배추
剩錢	승천	거스름돈
蘿蔔	노배	무우, 청무
團長	퇀장	련대장

한어의 새말은 겨레말로 의역하거나 겨레말의 한자음독법으로 음역하여 쓰기도 한다.

傳家寶: 대물림보배 五星紅旗: 오성붉은기 國庫卷: 국고권 經濟特區: 경제특구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에는 한어의 새 말마디를 겨레말의 한자음독법으로 음역하여 받아들인 새말이 많은것이 특징적인 언어적현상으로 된다. 한어에서 쓰이는 사람이름(례: 모택동, 주은래)과 고장이름(례: 북경, 상해), 기관명(례: 국무원, 인민정부) 등은 한어의 원음에 따라 읽거나 적지 않고 관용에 따라 겨레말의 한자음독법에 준하여 읽으며 적는다.

# 3.1.2. 로어와의 접촉

연변과 목단강 일대는 로씨야와 국경이 린접하여있는 까닭에 백여년전부터 중국의 조선민족과 로씨야민족 및 로씨야고려인과의 접촉이 잦았다. 따라서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은 로어기원의 말마디를 받아들였다. 다음의일부 외래어는 방언적변이형에 속한다.

원어		외래어	의미
карман	>	걸만/거르만	호주머니
мундштук	>	무두깨	(담배)물부리
спичка	>	비지깨	성냥
здравствуйте	>	도랏스/도라쓰	악수
булавка	>	물라깨	빈침
сапоги танцы	>	사바께딴스	로씨야춤
ведро	>	메드레	바께쯔
помидор	>	범돌/버미도르	도마도/일년감
вагон	>	바곤	차량
ypa	$\rangle$	우라	만세

1997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중국의 동북 3성 출신의 우리 겨레로인, 장년, 청년 등 제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보자 124명 가운데서 상기 외래어를 들어본적이 있거나 그 말뜻을 아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많았다(졸문 2001.1: 8).

비지깨: 110명 도라쓰: 91명 우라: 77명 거르만: 71명 바곤: 59명 물라깨: 31명 버미도르: 31명 메드레: 30명 사바께딴스: 21명

이와 같이 중국거주 조선민족이 로어기원의 외래어와 로어를 잘 알고있는 실정에 비추어 1985년에 연변대학에 방문학자로 와있다가 일본에 돌아간 일본와세다대학 오오무라 마스오교수는 일본에서 발표한 글 「중국 연변 생활기」에서 "중국, 쏘련, 조선의 접촉점과 같은 연변"에는 "로씨야어가 남아있게 되였"고 연변의 "년장자들가운데는 조, 한, 로, 일 등 네가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1987: 154)고 기술하였다.

겨레말에서 쓰이는 굳어진 말마디인 "역할을 놀다"도 해방직후 로어의 단어결합인 играть роль을 옮겨쓴 평양의 번역어를 본받아 쓰는것이다. 김수 경선생이 번역한 아. 아. 레포르마쯔끼의 저서 『대학용 언어학』(1949)에 번

역어 "역할을 놀다"가 12차나 쓰이였다.

2013년 5월 20일부 『연변일보』의 보도기사문 「훈춘서 로어붐 인다」에 의하면 로써야땅과 가까이 있는 훈춘시 상업거리에서는 로어말 '드라스쩨'를 들을수 있고 훈춘사람이라면 그 거리에서 누구나 '스빠시버'와 같은 인사말한두마디는 할수 있다고 한다.

2010년에 훈춘시정부에서는 훈춘시에 로씨야사람들이 많이 래왕하는 상황에 비추어 훈춘시 상업거리의 간판에 조선문, 중국문, 로씨야문 등 문자를 병용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3.1.3. 영어와의 접촉

1910년을 전후하여 영국과 카나다의 선교사들이 연변에 들어와 학교와 병원 및 교회당을 개설하고 룡정의 '영국덕이'에 영국조계지를 이루어놓았다. 따라서 조선어는 영어와 접촉하게 되였고 영어기원의 외래어가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에 들어와 쓰이게 되였다.

해방전에 잉크, 노트, 파마, 스케트, 세멘(세멘트), 리야까(리어카) 등 영어 기원의 외래어가 들어왔고 개혁개방의 새시기에는 국제적통용어인 텔레비죤, 컴퓨터/콤퓨터, 디스코, 소프트웨어 등 말이 영어에서 들어와 외래어로 쓰인다.

그리고 근년에 외부의 겨레말에서 쓰이는 영어기원의 외래어가 들어와 연변에서 오래동안 쓰인 로어(또는 독일어)기원의 외래어와 동의어계렬을 이루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루빠 / 그룹 테로 / 테러 에네르기 / 에너지 모터찌클 / 모터사이클 쎄미나르 / 세미나 아까테미야 / 아카테미

영어기원의 일부 외래어는 지난날에 우리 말에 들어와서 그 뜻이 전혀 다르게 와전되여 쓰이는 말마디인 '노다지'(No touch)의 의미변화와 마찬가지

로 그 뜻이 변이화되여 다의어 맞잡이로 쓰이는것이 있다. 례를 들면 영어기원의 외래어 '코치'가 그러하다.

- ▲ ○○○시에 국내코치의 과일도매교역시장(제목어)
- ▲ 와이샤쯔업종에서 현대화한 설비로 코치
- ▲ 질에서도 <u>코치</u>의 자리에 섰다. (이상 용례는 연변의 조선글신문에서 인용하였음)

이 용례들에서 외래어 '코치'는 운동팀의 지도원의 뜻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제일, 첫째 또는 으뜸, 앞자리라는 변이화된 의미로 쓰이면서 의미확장을 나타내고있다.

### 3.1.4. 일본어와의 접촉

일제는 1907년에 룡정에 조선통감부림시간도파출소를 개설하고 침략계책을 감행하였고 1909년에는 그 파출소를 철소하고 재간도일본제국총령사관을 세웠으며 국자가(현재 연길시)와 두도구, 백초구에 령사분관을 세웠다. 그후 조선어는 일본어와 접촉이 잦게 되였다.

일본어에서 들어온 외래어 고구마와 곤로 및 다다미 등은 오래전부터 겨레말의 입말과 글말에 늘 쓰이고있으며 닌지, 벤또 등 비규범적단어는 간혹입말에서만 쓰인다. 일본말의 혼종어인 가라오케(ヵヵォケ)도 근년에 우리겨레말에 들어와 쓰인다.

그밖에 일본어에서 1948년부터 새 파생적의미를 지니고 쓰이는 한자접미사 '-족'(族)이 겨레말에 들어와 단어조성요소로 잘 쓰인다. 접미사 '-족'은 명사와 어울려 새 '족형어'(族型語)를 조성하였다. 그 족형어의 어휘적의미를보면 같은 생각이나 경향성을 지니고 같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을 군체화되게 표현하고있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조선글신문에는 출근족(『연변일보』 2001.1.3), 로임족(『연변일보』 1997.5.12) 등 족형어가 쓰인다. 또한 간행물에는 카드족, 핸드폰족, 폭주족 등 용어도 쓰인다. 그리고 근년에 중국의 조선민족이 일본에 많이 왕래하는 까닭에 독일어 Arbeit기원의 일본말 외래어

アルバイト도 들어와 아르바이트족이라고 족형어를 이루었다.

### 3.2. 이언어사용

술어 이언어사용은 이중언어라고도 하지만 김영배교수는 1976년에 술어 이언어사용을 썼고 리숭녕(이숭년) 교수 외 편찬 『국어대사전』(1991)과 국립 국어연구원 편찬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술어 이언어사용을 올림말로 수록하고 뜻풀이를 가하였다.

이언어사용이란 한 사람 또는 한 언어집단이 두 다른 언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언어행위를 가리켜 이른다. 중국의 조선민족은 해방전에 대화상대자와 언어환경 및 담화장면에 따라 모어와 일본어 또는 한어를 번갈아 썼으나 해방후에는 주로 모어와 한어를 교차적으로 쓰고있다.

2007년 상반년에, 중국의 동북 3성에서 북경에 와서 취학하고있는 조선족 대학생 76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조선어사 용능력이 강하고 그들의 이언어사용수준도 비교적 높았다(아래의 수자와 백 분률은 우수생의 수와 비률을 표시함).

모어:	듣기	읽기	말하기	글짓기
	72명	75명	67명	67명
	95%	99%	88%	88%
한어:	듣기	읽기	말하기	글짓기
	65명	67명	52명	50명
	89%	92%	71%	68%

중국거주 조선민족의 이언어사용실정은 화자와 청자의 자연적변수인 년 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고 사회적변수인 계층, 직종, 문화교육수준, 거주지역, 출국경력 등이 다름에 따라 그 사용능력과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입말 과 글말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 3.3. 다언어사용

다언어사용(일명 다언어병용, 다언어겸용)이란 한 사람 또는 한 언어집단 이 세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언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언어실천이라고 정의할수 있다.

유리얼 와인라이흐는 한편의 론문(1972: 100)에서 "복수언어사용상황의 규모와 빈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들 가운데마저 단일언어사용만을 기본으로 하고 복수언어사용을 그 무슨 례외라고 생각하는 일반적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1953년에 저서 『언어의 접촉』에서 "다언어접촉의 문제는 유망한 새 출발점으로 될것이다"(1976: 224-227)라고 예언하였다.

오늘날 국제화와 정보화가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시대에 언어는 사회와 개인의 힘으로서 그 가치를 발현하는바 "언어의 기능은 비단 개인의 교제의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사회적립신출세의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와인라이 호 1966: 78)

룡정출신의 항일투사이며 미술가였던 한락연(1898-1947)은 다언어사용자로서 일찍 조선어, 한어, 일본어를 배웠고 후에 로어, 영어, 프랑스어도 배웠으며 나중에 "열 몇가지나 되는 언어를 알고있었으므로 어디에 가서나 전혀어려움이 없었다"(류옥하 1998: 155).

우리는 2006년 하반년에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겨레의 다언어 학습과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제보자 120명은 다 대학교 또는 전문학교 이상의 문화수준을 갖추고 모어와 한어 및 외국어를 배운 경력과 경험을 지니고있는 지식인들이였다. 제보자들의 다수는, 유치원부터 모어인 조선말을 배우고 소학교시절부터 조선어와 한어를 겸하여 배우며 3, 4학년부터는 외국어도 배워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2007년 7월에 우리는 또 연변에서 언어조사를 하면서 우리 겨레의 학교에서 실행하는 다언어교육의 실태도 고찰하였다. 룡정시조선족실험소학교와 훈춘시조선족소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과목을 설치하고있었고 연길시안의 조선족소학교에서는 2-4학년 학생들에게 매주 두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5,6학년에서는 세시간씩 가르치고있었다. 연변의 초급중학교에서 는 영어과목을 매주 네시간씩 수업하고있었다.

21세기에 살고있는 중국거주 우리 겨레 청소년들은 자민족의 모어를 일찍 배워 잘 파악하는 기초에서 중국의 민족간공용어인 한어도 잘 배우고 외국어도 배워내야만 겨레말글의 문맹(비문해)자가 되지 않고 점차 다언어사용자로 자라날수 있다.

현재 코리아민족의 언어는 전 세계에 약 7,700만명의 사용인구를 갖고있는 중요한 상용적언어이다. 코리아민족언어는 코리아민족의 중요한 교제도 구이고 사유수단이며 또한 코리아민족문화의 주요한 표현형식이며 전 세계 코리아민족의 정체성의 주요표징인것이다.

### 3.4. 이방언병용

술어 이방언병용이란 동일한 민족언어의 한 방언과 다른 한 방언, 방언과 공통어 등의 요소를 번갈아 사용하는 언어사용현상을 가리켜 이른다. 말하 자면 한 민족어의 상이한 지역적방언과 사회적방언 등에 속하는 변이형의 교차적사용을 두고 말한다.

방언	규범어
새비	새우
가새	가위
몰개	모래
방치	방망이

룡정출신의 조선민족시인 윤동주가 1930년대에 시문에 쓴 '푸드오'(푸들

다), '너어는' (널다), '헤는'(헤다), '허양', '가차이'(윤동주, 1985) 등 방언어휘는 연변조선민족의 입말에서 쓰이면서 전승되여 오늘날에도 공시적방언어휘로 쓰이고있다.

연변에서는 또 새로 이루어진 연변방언섬의 어휘로서 담배쉼, 사돈보기, 한치보기 등 새말이 쓰이며 독보조, 사과배, 로인절, 진달래절 등 연변의 독특한 사물과 현상 및 행사를 나타내는 새말이 널리 쓰인다. 이와 같은 새 지역적변이에는 연변지방의 사회생활이 반영되여있고 연변사람들의 정겨운 정서가 슴배여있다.

### 3.5. 국제간변종

술어 국제간변종(국제적변종)은 영국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저서 (1988)에서 인용하였다. 그 용어는 국경 또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상이한 나라들에서 쓰이는 동일한 민족어의 변이현상(variation), 즉 변이형(variant)의 묶음인 변종(variety)을 가리켜 이른다.

# 3.5.1. 기원적측면 및 어종별로 본 변종

코리아민족어의 어휘를 기원적측면과 어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국제간 변종이 보인다.

### 3.5.1.1. 고유어휘에서

연변	평양	서울
돐,돌	돐,돌	돌
안해	안해	아내
우	우	위
닭알	닭알	달걀
옳바로	옳바로	올바로
소가죽	소가죽	쇠가죽

### 3.5.1.2. 한자어휘에서

한자어휘의 발음과 표기에서도 국제간변종이 나타났다.

연변	평양	서울
발취	발취	발췌
론난	론난	논란
외곡	외곡	왜곡
오유	오유	오류
표식	표식	표지
사촉	시촉	사주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의 한자어에서는 어두의 초성 나와 ㄹ을 대체로 두음법칙과는 관계없이 로동, 녀자와 같이 쓰므로 동음어현상을 쉽게 가를 수 있다. 또한 성씨표기에서도 류(柳)와 유(俞), 림(林)과 임(任) 등이 구분되게끔 다르게 표기되여 쓰인다.

### 3.5.1.3. 외래어휘에서

외래어사용과 외국어표기에서도 국제간변종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 연변에서는 외국의 고유명칭은 원음에 준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용 도 허용하는 방도로 표기한다. 따라서 로써야대통령의 성씨를 로어원음에 따라 된소리로 뿌찐이라고 표기하므로 영어를 거쳐 들어온듯한 대응어 푸틴 은 중국의 겨레말의 표기형태와 다른것이다.

중국거주 조선민족의 겨레말 표기법에서는 프랑스어와 로씨야어 및 일본 어 등의 외국어와 그 언어들에 기원을 두고있는 외래어는 원어의 어음특징을 감안하여 겨레말의 거센소리를 쓰지 않고 된소리로 적도록 되여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수도는 빠리라고, 일본의 수도는 도꾜라고 표기한다. 우리 겨레말의 일부 외래어의 변이형은 다음과 같다.

연변	평양	서울
고뿌, 컵	고뿌, 컵	컵
쵸콜레트	쵸콜레트	초콜릿
라지오	라지오	라디오
에네르기	에네르기	에너지
로케트	로케트	로켓
아빠트	아빠트	아파트
꽁뜨	꽁뜨	콩트
뻬치까	뻬치까	페치카

외래어휘는 필요한것을 받아들여 우리말의 어휘구성을 풍부화되게 하여 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외래어는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방해를 끼치게 된다. 그리고 외래어를 써야 하고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를 외래어처럼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근년에 외부의 동일한 민족언어에서 과분하게 쓰이는 일부 외래어와 별로 필요없이 쓰이는듯한 외국어가 중국에서 쓰이는 조선어에 영향을 미치여 겨 레말에 적지 않게 어려움을 빚어내였다. 말하자면 최근에 외부에서 "외래어가 마구 밀려들고있어 조선어에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머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다"(최윤갑 2003: 40).

### 3.5.1.4. 혼종어휘에서

혼종어(hybrid word)란 같지 않은 어종기원의 어휘 또는 어휘적요소가 어울려 이루어진 말마디를 가리켜 이른다. 서울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주표제어에 대하여 『새 국어생활』(2000,1: 63)에 발표한 정호성의 론문에의하면 그 사전에 수록된 혼종어(한자어+고유어가 8.28%, 외래어+고유어가 0.3%, 한자어+외래어가 3.53%, 한자어+외래어+고유어가 0.17%)는 전부 12.28%나 된다. 이는 코리아민족언어의 어휘구성속에 혼종어가 간과할수 없는 비률을 차지하고있음을 실증하여 준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평양 (『조선말사전』 2004년도 평양판 중사전에서 인용)

	따발+총	몸+보신	갑작+부자	고개+인사	접이+우산
	속+샤쯔	오목+렌즈	똬리+필림	노다지+판	세멘+종이
서울	(『동아일보』 201	0년 1.22, 1.25, 4	4.5, 4.8, 4.9에서	인용)	
	노래+방	모기+약	신발+장	털+장갑	촛불+집회
	고기+빵	데뷔+하다	발레+이야기	샤와+실	패션+잡지
연변	(『연변일보』 201	3년 1.15, 1.16, 1	10.22에서 인용)		
	디지털+기술	쇼핑+광장	마이나스+장성	체크+하다	운반+로케트
	경극+ <del>콩클</del>	감시+카메라	진달래+절	은행+카드	석탄거래+쎈터

우의 용례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연변일보』에는 외래어 디지털, 쇼핑 등 새말이 혼종어의 조성요소로 쓰이였고 이미 들어온지 오랜 외래어 마이나스, 로케트, 콩클, 쎈터 등은 기존의 표기대로 적히여 혼종어의 조성요소로 되였다. 중국의 조선문간행물에서는 외래어 콩클을 콩쿠르라고 쓰지 않고 이미 굳어진 관용에 따라 줄곧 콩클이라고 쓴다.

코리아언어의 어휘구성을 그 기원과 어종별의 측면으로부터 고유어휘, 한 자어휘, 외래어휘, 혼종어휘 등 네 하위류형이 있다고 보는 새로운 견해는 반도의 남북과 중국의 일부 조선족언어학자들의 저술에서 일치성을 보여준 다.¹ 이는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에서 실지로 쓰이는 어휘현상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관찰 및 인지능력과 개괄수준의 향상을 립증해주는바 기꺼운 현상이라고 간주하여도 과분하지 않을것이다.

# 3.5.2. 기본어휘와 일반어휘에서

# 3.5.2.1. 기본어휘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과 평양의 조선말 및 서울의 한국말에서 쓰이는

<sup>1</sup> 서울에서 출판된 김종택 저 『국어어휘론』(1993: 224)과 평양에서 간행된 최완호 저 『조선어어 휘론』(2005: 102) 및 북경에서 발표된 장흥권의 론문 「"어휘구성"의 리해와 대비연구」(2003: 286) 등에서는 다 코리아민족어의 혼종어를 외래어와는 다른 어휘류형이라고 갈라 보았음.

우리 겨레말의 기본어휘는 상용성과 견인성을 지니고있는바 기본적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미국 언어학자인 스와데스가 1950년대에 작성한 새「기본어휘조사표」에 수록된 영어단어 216개를 코리아말로 번역하여 대조해보면 그 대응적단어들은 모두 반도의 남북과 중국거주 우리 동포들의 입말과 글말에서 똑같이 상용어로 잘 쓰이는 기본어휘부류에 속한다.

비록 반도의 남북이 70년동안 분단되여있으나 한뿌리를 지닌 코리아언어의 기본어휘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까닭에 반도 남북의동포들사이에는 더 말할나위가 없고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는 코리아민족의 화자들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있다. 그와 같은 언어교제의 순통성의 근간에는 기본어휘가 문법구조와 함께 본바탕을 이루고있다. 그리고 기본어휘에는 코리아민족어의 력사적양상이 잘 깃들어있다.

### 3.5.2.2. 일반어휘

언어는 사회적관습이다. 개개인은 주어진 사회의 자민족어를 습득하고 파악하여 관습적으로 사용한다. 말하자면 사람마다 해당 민족사회의 언어관용에 적응되고 숙습되게 된다.

코리아언어의 일반어휘도 동포들사이에 별로 지장이 없이 잘 쓰이지만 사회가 다름에 따라 거기에는 변이(차이)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중국에서 외국나들이를 하지 않는 동포들은 서울에서 쓰이는 생활용어 복덕방, 삼겹살, 보신탕 등 새말의 뜻을 해득하지 못한다. 중국의 겨레말에서 외래어 다이어 트를 본디 살까기라고 규범지였는데 그 말의 뜻을 리해하지 못하는 외국동 포에게 그 말은 덜먹기, 살빼기의 뜻이라고 알려주면 리해할수 있다고 한다. 평양의 다듬은 말인 옥쌀, 손기척, 끌신 등은 서울사람에게 생소한 말로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서울의 다듬은말인 정보막대, 꾸림정보, 똑똑(손)전화와 같은 새말은 평양사람에게 해득하기 어려운 말로 들릴것이다.

# 3.5.3. 전문(학술)용어에서

코리아민족어의 전문용어에도 변이형이 나타났다. 연변과 반도 남북의 언

어학계에서 쓰이는 언어변이형은 일반언어학과 문법론 등 학술용어에서도 그 차이를 보아낼수 있다.

연변	평양	서울
형태부	형태부	형태소
보어	보어	목적어
규정어	규정어	관형어
토	토	조사, 어미
상황어	상황어	부사어
불완전명사	불완전명사	의존명사

# 3.6. 언어전환

언어전환(코드전환)은 영어로 code-switching, 로어로 кодовое переключение, 일본어로 ¬- ド切り换え, 한어로 語言轉換, 語碼轉換이라고 한다. 미국언어학자 와인라이흐가 그의 저서『언어의 접촉』에서 사용한 영문술어가바로 코드전환(switching, 영문판 1966: 73)이다. 와인라이흐는 그의 저서에서, 언어활동과정에는 대화상대자와 화제에 따라 같지 않은 언어의 코드를바꾸어쓰는 현상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언어전환(코드전환)이란 한 사람 또는 한 언어집단이 한차례의 담화에서 다른 언어나 한 동일언어의 다른 변이형을 바꾸어 쓰는 현상을 가리켜 이른다. 언어전환과 이언어사용의 구별점은 이언어사용은 같지 않은 환경과 장면에서 다른 언어를 번갈아 쓰는 현상이고 언어전환은 한차례의 담화에서 같지 않은 언어요소를 바꾸어 쓰는 현상인것이다.

중국거주 우리 겨레의 화자들은 평양이나 서울에서 온 손님과는 일부 용어를 바꾸어 써야 하므로 평양에서 온 손님과는 콤퓨터, 인터네트라고 쓰고서울에서 온 손님과는 컴퓨터, 인터넷이라고 써야만 자연스러운 표달로 되고청자가 알아듣기 쉽게 된다.

 평양
 서울

 집함
 컨테이너

 밥곽, 곽밥
 도시락

 손기척
 노크

 고려의→동의
 한의

 창문보→창가림
 커튼

코퍼스 말뭉치, 말보둠, 코퍼스

연구생 대학원생

인민학교→소학교 국민학교→초등학교

중국의 조선민족은 평양에서 쓰는 소학교, 연구생 등의 말을 쓴다. 연변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지상에는 한편의 보도기사문에서 라진항구와 관련해서는 집함을 쓰고 부산항구와 관련해서는 컨테이너를 쓴적이 있다. 비록 반도의 남북에서 해방후 다 같이 20세기 30년대에 나온 표준어의 규범에 기초하여 언어정화(언어순화)에 노력하고있으나 지역과 사회체제가 다르고 언어접촉과 규범화원칙이 다름에 따라 사회적현상인 언어에 변이가 나타나지 않을수 없다. 중국의 조선민족은 반도 남북의 새 변이를 다 잘 알아야만 대화상대자의 국적과 지역의 차이에 따라 변이를 옳게 갈라 쓸수 있고 그와 같이 언어행위를 진행해야만 현대언어학에서 일컫는 교제순응(communication accommodation)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 3.7. 언어혼용

언어혼용(일명 코드혼용)이란 일반적으로 언어사용과정에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함부로 섞어쓰는 현상을 가리켜 이른다. 말하자면 주로 언어요소를 부당하게 마구 섞어씀으로써 언어사용에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앞에서 본 언어전환은 합리하고 정상적인 언어요소의 환용현상이지만 언어혼용은 보통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언어사용현상이다.

중국거주 일부 조선민족화자들이 혼용하는 용례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틀림	<del>200</del>
호마	번호
수거	령 <del>수증</del>
피쥬	맥주
뗀노	컴퓨터/콤퓨터
수선	우선
필업	졸업
뗸디(를 맞다)	링게르주사(를 맞다)
합동(을 맺다)	계약(을 맺다)

여기에 쓰인 호마, 수거 등 말답지 않은 말은 중국거주 일부 동포들이 우리 겨레말의 한자음독법으로 한어의 단어를 마구 음역하여 쓰는데서 생긴다. 중국거주 일부 동포들의 입말에는 이와 같이 한어의 대응어를 겨레말의한자음독법으로 음역하여 혼용하는 현상이 가끔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함부로 쓰는 섞개말은 반도의 남북에서 온 손님들에게 혹여 중국의 조선민족동포들이 쓰는 겨레말은 이질화되였다거나 이질성이 생겼다고 느끼게 할 수있는 소인으로 될것이다.

이와 같은 잡탕말은 일부 화자들의 입말에서 쓰이나 글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필가와 출판사의 편집인은 그와 같은 말이 틀린말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 3.8. 언어환용

언어환용이란 한 사람 또는 한 언어집단이 자민족의 모어(제1언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어를 방치하고 다른 민족의 언어를 모어맞잡이로 쓰는 현상을 가리킨다. 한어로는 언어전용(轉用), 일본어로는 言語の取替え, 영어로는 language shift라고 한다.

학계에서는 한시기 언어환용을 언어융합이라고 보았으나 1990년에 쏘련 언어학자 아.예. 까를린스끼(1990: 90)는 현재 "술어 '언어접촉'이 이미 현대

언어학문헌에 도입되여 '언어융합'과 '언어 호상영향' 등 술어를 대체하였다" 고 지적하였다.

현재 연변을 제외하고 조선족이 한족과 접촉이 잦은 잡거지구와 산거지구의 조선민족의 청소년가운데는 개별적언어환용자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들은 모어학습의 적령기에 겨레말을 배워야 할 기회를 놓치고 유치원부터 소학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민족과 어울려 언어생활을 하여온 까닭에 겨레말을 구사하지 못한다. 자민족어의 습득은 어린이시절에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는 언어습득의 기본적리치가 그들에게 시달되지 못한것이다.

### 3.9. 중국 조선족의 언어사용에 대한 총적소견

총체적으로 보면 상술한바와 같이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에는 기본어휘가 전승되고 보존되여 잘 쓰이고있고 새말과 새 표현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외래어가 들어와 겨레말의 어휘구성이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풍부화되고 발전되여가고있다.

어휘구성이 풍부히 된 원인은 조선족이 모어의 기본어휘와 일반어휘를 계승하여 쓰며 자체로 새말을 창출하여 씀에 있고 언어접촉에 의하여 한어의 대응어를 음역 또는 의역 하여 쓰고 세계 여러 언어들에서 필요한 외래어를 수용하여 쓰며 동일한 민족어인 반도 남북의 언어에서 새말, 특히는 정화(순화)한 말을 받아들여 씀에 있다.

현재 중국거주 우리 겨레의 대부분 성원은 모어를 능란히 구사하고있고 많은 사람은 모어와 한어를 번갈아 사용할수 있으며 대학교문화수준을 갖춘 지식인은 대체로 다언어사용자로 되여있다. 모어사용에서도 입말과 글말의 변이형을 갈라 쓰고 일상적회화어에서도 대화상대자와 언어환경 및 장면에 따라 변이형과 규범어를 번갈아 쓰고있다.

요컨대 겨레말은 중국에서 의연히 조선족의 일상생활에서 주요교제도구 로 쓰이고 자체의 발달법칙과 규범화원칙에 따라 어휘구성이 풍부화되며 문 법구조가 정밀화되여가면서 겨레사회에서 응분의 의사소통역할을 수행하며 자민족의 모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있다.

그러나 중국의 겨레사회에는 민족어사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례를 들면 겨레말의 한자음독법으로 한어의 말마디를 마구 음역 하여 입말에 혼용하는 현상, 필요없이 한어의 단어를 마구 음차하여 입말에 쓰는 현상, 필요되지 않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람용하는 현상 등이 존재한다. 심지어 자민족어를 익히지 못한탓에 한어를 모어맞잡이로, 즉 제1언어로 환용하여 쓰는 청소년이 산거지구에 적지 않게 있다.

# 4. 중국 조선족의 언어사용의 전망과 과제

현재 세계에는 6809가지 언어가 있지만 그중 본세기내에 절반 이상의 언어가 소실되고 남아서 쓰일수 있는 언어는 600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Mark Janes 2003: IX). 아라스카대학 크로스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금후 화자가 많은 언어(례: 인구 백만이 넘는 언어) 또는 독립국가 혹은 자치주의 공용언어로 되여 행정의 지지를 받는 언어 300종만이 '안전한 언어'에 속한 다는것이다(Tasaku Tsunoda 2005: 16). 중국거주 조선민족이 사용하는 조선어는 인구 백만이 훨씬 넘는 언어사용자와 민족자치주, 민족자치현을 갖고있는 언어로서 그 사용은 각급 정부의 지지를 받고있으며 조선민족은 줄곧 모어사용권을 충분히 행사하고있다.

# 4.1. 거시적으로 보는 전망

중국에서 쓰이는 우리 겨레말의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거시적 및 미시적 두 시점으로 나누어 론할수 있고 또 이모저모 잘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거시적시점으로 보면 중국에서 쓰이는 우리 겨레말은 여전히 전승되고 보 존되며 풍부화되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단언할수 있다. 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정책 면으로 보면 중국에서 우리 민족어사용은 중국의 현행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등 국가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중국의헌법 제4조에는 "여러 민족은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며 발전시킬 자유를가진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여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국가의 관계법규에 비추어 「조선어문사업조례」를 제정하고 1988년에 공문으로 발표하였다. 이 조례에는 "조선어와 조선문은 조선족인민들이 자치권리를 행사하는주요한 언어문자도구이다. 자치주기관은 조선어문사용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여 조선족 공민들이 본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자유를보장해준다."고 규정되여있다. 상기의 법규와 조례는 현실언어생활에서 실지로 실행되고있다. 이는 지난날 일제가 감행해온 조선어말살정책과 대조해보면 천양지별의 차이가 된다.

둘째, 지역관계 면으로 보면 중국의 조선민족은 월강민족체로서 지역적으로 여전히 반도 남북과 이웃으로 있으면서 아주 밀접한 접촉관계를 갖고있다. 해방후 겨레말은 반도의 북에서 쓰이는 언어와 접촉이 아주 잦았다. 그리고 개혁개방정책의 시달과 더불어 반도의 남에서 쓰이는 언어와의 교류가점차 승화되여가고있다. 서울대학교 리익섭(이익섭)(1994: 330)교수는 저서『사회언어학』에서, 고국과의 접촉이 얼마나 빈번한가도 언어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하면서 고국에서 새 이민들이 계속 합류하고또 고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만큼 언어보존이 잘 된다는것인데 이 역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셋째, 모어관계 면으로 보면 우리 겨레는 해방전에 고국과 똑같이 완전히 같은 한가지 모어를 사용하고있었다. 해방후에 사회제도가 다르고 언어접촉이 다르며 언어규범화(정화, 순화)시책이 다른데서 일반어휘에는 변이현상이 나타났으나 지금도 언어의 기초, 곧 바탕을 이루는 기본어휘와 문법구조 및 음운구성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반도의 인구 약7,500만과 중국의 180여만이 되는 우리 겨레의 인구는 같은 한가지 민족공통어를 상용적언어로 사용하고있는바 전반 코리아언어의 생명력은 장구하리라고 확신하게 된다. 말하자면 반도의 남북에서 코리아어가 사용되고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 겨레말이 쓰이는 한 중국에서 사용되는 조선민족언어는 반도 남북에서 통용되는 민족공통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속 잘 사용되고 전승되며 발전될수 있다고 전망하게 된다.

넷째, 언어교육 면으로 보면 중국에는 조선민족대학생을 모집하는 조선언어문학전문화 관련 학부가 두 대학(연변대학, 중앙민족대학)에 설치되여있다. 그중 연변대학에서는 약 60년동안 겨레말글과 언어학리론을 전공한 전문인재를 많이 양성하였고 또 계속 인재를 육성하고있다. 1990년 5월 19일의 통계(최상해의 구술)에 의하면 연길시 8개소 조선족중등학교의 조선어문교사 97명은 전부 연변대학 본과(학부)와 동 대학 통신학원 조선어문과의 졸업생이였다. 두 대학에서는 우리 겨레의 언어문자를 옳게 다룰수 있는 인재들을 사회에 배출하는바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은 그 교육과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토대가 잘 다지여져있다고 할수 있다. 국가의 언어정책이 확정된후에는 전문화지식과 실무자질을 겸비한 인재가 민족어문의 사용과 보급, 보전, 발전 사업에 필요불가결의 요인으로 된다.

## 4.2. 미시적으로 보는 전망

첫째, 1977년에 설치된 중국 '동북3성조선어문사업지도소조'에서는 자주 겨레말사업을 연구하고 지도한다. 1986년에 결성된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는 수시로 회의를 열고 겨레말을 규범지으며 제때에 규범집을 간행한다. 2007년에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수정 보충판 『조선말규범집』은 무려 728폐지나 되는 큰 규모의 규범본이다.

1981년에 창설된 겨레말연구단체인 중국 조선어학회는 지금도 한해 건너 겨레말 관련 전국성학술토론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이 론문을 발표하며 연구 성과를 교류한다.

1977년에 연길시에서 창간되여 여러차례 제호를 바꾸어 현재 『중국 조선 어문』의 명칭을 띠고 조선글자로 간행되는 어문학술지는 전 세계 범위에서 보아도 반도의 남북을 제외하고는 유일무이하게 조선말글로 발간되는 격월

간 조선어문학술간행물이다.

2014년 3월 25일에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매년 9월 2일을 '조선언어문 자의 날'(朝鲜語言文字日)로 정하고 해마다 조선어문 관련 행사를 펼치도록 되여있다. 이는 자민족 어문에 대한 조선민족의 자긍심과 모어학습의 열의 를 더욱 북돋우어주며 조선어의 성망을 한결 더 높이고 그 영향면을 보다 더 넓히게 할수 있는 적절한 시책인것이다.

상술한 언어사업기구와 언어연구단체 그리고 어문학술지 및 어문관련규정 등은 중국에서 겨레말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사회적기반으로 되여있다.

둘째, 중국에는 조선문서적을 출판하는 공영출판사가 여러곳에 있다. 북경에 민족출판사가 있고 심양에 료녕민족출판사가 있으며 이 출판사들에는 다 조선문편집실이 설치되여있다. 할빈시에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가 있고 연길시에 인민출판사와 교육출판사가 있으며 연변대학에 대학출판사가 있다. 이와 같은 출판사들에서는 학술서적, 일반도서, 교과서와 참고서, 각종 사전 등을 조선어문으로 출판하여 겨레독자들에게 제때에 정신적식량을 공급해줌으로써 인민대중의 민족어문에 대한 독서권익을 보장하여주고있다.

그밖에 여러 조선문출판사에서는 겨레말글로 여러가지 잡지 20여종을 정 기간행물로 편집, 발행하고있으며 또한 10여종이나 되는 신문을 겨레말글로 가행하고있다.

셋째, 전통적 및 신흥적 보도매체에서는 모두 겨레말을 사용한다. 연변위성텔레비죤방송의 겨레말방송은 연변뿐만아니라 료녕성의 신빈현과 북경에 있는 중앙민족대학에서도 시청할수 있다. 중앙인민방송국과 중국국제방송국의 조선어부, 연변자치주의 인민방송, 연변의 여러 현급도시의 방송네트는 모두 조선말로 방송한다. 또한 흑룡강성과 료녕성의 일부 현에서도 조선말로 방송한다. 중앙에 설치되여있는 조선문네트는 제때에 겨레글로 새소식을 전해주고있다. 상기의 청각적 및 시각적 보도매체는 모두 민족어의 보전과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있다.

넷째, 우리의 겨레말로 진행하는 여러가지 문화활동이 해마다 다양한 형

식으로 활발히 펼쳐지고있다. 연변연극단과 연변가무단은 수시로 겨레말로 공연하고 연길시, 룡정시, 도문시, 훈춘시, 목단강시, 무순시 등 여러 도시의 문예단체는 자주 겨레말로 공연하다.

### 4.3. 향후 살펴보아야 할 사항 및 과제

상술한바와 같이 중국에서 쓰이는 우리의 겨레말은 계속 발전할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져있고 그 전망이 여전히 기대된다. 그러나 겨레말의 보급과 사용, 보전과 발전 행정에는 어려움도 적지 않으리라고 사려하게 되는바 이 모저모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 4.3.1. 인구수의 감소와 관련하여

우선 중국에서 우리 겨레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말하자면 겨레말을 사용하는 절대적인구수가 격감되고있다. 우리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최근년간 룡정시안의 우리 겨레 소학교의 학생수는 크게 줄었다.

1995년 7월: 6,400명 2007년 7월: 1,880명

이 통계자료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최근 12년사이에 룡정시안의 우리 겨레의 소학생수가 4,520명이나 줄었다. 이는 놀라운 수자가 아닐수 없다. 룡정시는 중국에서 조선민족인구의 비률이 전 시 총인구가운데서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는 조선족집거도시이다.

# 4.3.2. 학교수효의 격감과 관련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겨레의 인구이동이 급증되면서 겨레의 학교수효가 줄어들었다. 중국에서 조선민족의 유서깊은 교육도시인 룡정시에서는 학생

래원이 부족하므로 오랜 력사를 지닌 우리 겨레의 소학교인 북신소학교와 신안소학교를 합병하여 북안소학교라고 명명하였다. 룡정시구역의 '진'과 '향'가운데서 일부 촌락에서는 조선민족의 입학생수가 부족한 까닭에 우리 겨레의 소학교가 한족소학교에 합병되여 민족련합학교로 변경되였다.

그밖에 중국의 동북지방과 거리가 먼 관내의 산거지구에는 겨레말을 가르치는 공립소학교와 공립중학교가 없다. 따라서 개혁개방의 새 시기에 인구이동의 추세에 따라 관내 도시에 진출한 수많은 우리 겨레 근로자가정의 학생들은 주로 한족학교를 다닌다. 이는 우리 민족이 평소에 가장 관심하고 중요시하는 문제의 하나인 자녀교육에 있어서 후대에 대한 자민족의 전통문화교양과 자민족의 어문사용교육에 어려움을 빚어내게 된다.

### 4.3.3. 모어전승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국의 잡거지구와 산거지구에 거주하는 우리 겨레 제4세, 제5세의 청소 년가운데는 자민족의 어문을 모르는 사람이 해가 갈수록 증장되는 추이를 보여주고있다. 다만 늙은이세대와 장년인세대에서 민족어가 사용되고 청소 년세대에서 자민족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그 민족어는 생명력이 미약하게 되는바 언어의 보존과 유지에 아주 불리하다고 할수 있다.

중국의 일부 산거지구에서 쓰이는 우리의 겨레말도 이 면에서 고행기를 겪고있다. 사회적으로 겨레청소년들로 하여금 모어에 대하여 자긍심과 충성 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각종 문화 활동을 자주 펼침으로써 민족어의 필요성 과 민족어사용의 당위성을 느끼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에서 민족어를 가르치 는 한편 사회에서 필요한 강습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 4.3.4. 복수어휘사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국의 조선어학계에서는 「다듬은말처리세칙」(1990)을 제정하고 "조선과 한국에서 서로 같게 다듬어놓은 말은" 받아들여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반도 의 남북에서 똑같게 다듬어 쓰는 유럽, 아시아, 오스트리아 등 고유명사를 제 때에 받아들여 쓰고있다. 그리고 근년에 반도의 남북에서 쓰는 문장부호 빗 금을 받아들였다. 최근 서울에서는 '화살괄호'(평양: 옮김표, 연변: 서명표)와 '줄임표'를 다르게 겸용할수 있다고 새로 규정하였다. 또 서울에서 널리 써온 단어 '레이더'도 '레이다'를 기본적인 표기로 인정한다고 새로 규정하였다.<sup>2</sup> 이와 같이 필요한 요소를 서로 수용하는 현상은 겨레말글의 발전행정에 나타난 통합의 좋은 실례로서 겨레말글의 단일화를 추진함에 유익한 거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어휘와 관련한 변이에서도 남북간에 서로 존중과 화해, 단합과 협력을 앞 세우는 견지에서, 겨레말의 동의어적변이는 될수록 복수어휘로 처리하는것이 합당하다고 간주하게 된다. 언어변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적변이형을 복수어휘로 치부한다면 중국거주 조선민족의 언어사용에도 유조할것이다.

밥곽, 곽밥	도시락
짐함	컨테이너
식량, 식품	먹거리
손기척	노크
낙지	오징어
려권	패스포트
일없다	괜찮다
에네르기	에너지
시증	비자
인터네트	인터넷

상술한 류형의 변이와 관련하여 서강대학교 곽충구(2001: 26)교수는, 현재 로서는 남북에서 쓰이는 언어를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조건에서 발생한 국

<sup>2</sup> 한국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2012.4: 146-147)에 의하면, 책의 제목을 나타낼 때 '화살괄호'(《》〈〉)도 '낫표'(『』「」)와 같이 쓸수 있고 '줄임표'는 여섯점(·····)을 찍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석점(···)을 찍는것을 허용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서울에서 써오던 '레이다'를 '레이다'와 복수어휘라고 하고 '레이다를 새로 '기본적인 표기'로 인정하였음(국립국어원 보도자료 2014.12.15 참조) 이상 새 규정은 평양과 연변의 기존용법과 같게 된것임.

어의 하위변종으로 인정할수밖에 없을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려대학교 최호 철(2001: 62)교수는, "우리말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같은 말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지역방언과 체제방언"인바 "남의 '표준어'와 북의 '문화어'는 우리말의 또 다른 체제방언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서울대학교 심재기 교수도 "남북분단으로 언어의 이질화를 이야기하는데, 정치와 군사적 차원에서 이질화됐지만 정말로 남북의 언어가 이질화됐다고 는 보지 않습니다. 어휘만 차이가 날뿐이지 통사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측의 "새 어휘도 앞으로 표준어를 정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그동안 2개의 표준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의 어휘에 대한 표준어를 3개, 4개씩 인정할수 있습니다."(『조선일보』 1993.5.25)라고 진술하였다.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문영호 소장도 제7회고려학국제학술토론회 (2005)에서 발표한 론문에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과 관련하여 그 대상어휘들을 언급하면서 '일없다/괜찮다'는 상대적단일화대상으로서 어휘표현과 관습의 한계에서 굳어진것이기때문에 둘 다 사전에 올릴수 있다고 하였으며 '눅다/싸다, 낙지/오징어' 등과 같이 하나로 단일화하지 않아도 사전을 엮을 수 있는것(즉 상대적단일화대상)이라고 론술하였다.

상기의 남북학자들이 언급한 변종가운데는 오래동안 관습적으로 쓰이면서 이미 굳어진 변이가 있고 해방후에 반도의 남북에서 새로 다르게 이루어진 변이도 있다. 중국거주 조선민족을 망라한 온 세계 코리아동포는 남북의언어생활에서 쓰이는 그 복수어휘를 잘 알아야 하며 담화상대자와 언어환경에 따라 동의형말마디를 옳게 골라 써야 할것이다.

# 4.3.5. 외부의 겨레말과의 교류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은 반도의 언어와 한뿌리를 갖고있다. 반도의 남북이 분단된 이후 겨레말은 평양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1992년도 이후는 서울말과도 밀접한 런계를 맺게 되였다. 말하자면 중국에서의 겨레말은 주로 한어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자민족의 모어와 관련해서는 한곬으로 영향을 받던데로부터 이제는 두곬으로 영향을 받고있다.

중국에서 쓰이는 조선어는 근년에 외부의 겨레말과 접촉이 잦은 까닭에 그 말에서 필요한 요소를 받아들이는 한편 생소한 외래어의 사용 등 새로 검토되여야 할 문제점들에 접하고있다. 따라서 중국거주 조선민족의 겨레말 관련 사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 4.3.6. 중국 조선족의 언어 특징에 대하여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원회의에서는 한어로 작성된 문건이 겨레말로 번역되여야 하는 까닭에 중국민족어문번역국에는 조선문번역실이 설치되여있다. 겨레말을 사용하는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는 제때에 한어로 나오는 중앙급신문의 사설과 뉴스를 번역하여야 하고 한어의 새말도 제때에 겨레말로 옮겨놓아야 한다. 요컨대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은 한어와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바 자연히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의 현황과 금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2007년에 발행된 중국 조선어사정위원회 편찬 『조선말규범집』의 머리말에는 "언어는 사회(적)현상인것만큼 해당 사회의 특징을 갖게 되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 그때에 가서도 국내 조선말규범화작업은 의연히 존재하게 될것이다."라고 규명되여있다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은 주로 한어의 영향을 받는 한편 코리아반도 남 북의 언어의 영향과 세계 여러 언어들의 영향을 받으며 연변방언섬의 새말 도 수용하는 상황에서 그 자체의 특징과 규범화원칙에 따라 사용되고 전승 되며 발전되여야 할것이다.

# 5. 념원과 지향 - 맺는말 대신에

민족어 통합의 기초로 될수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고고성을 울린지도 이미 10년이 된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은 "남과 북은 물론 전 세계의 우리 민족을 이어주는 민족적사업"(홍윤표 2005: 9)이라고 본다.

무릇 우리 겨레의 모든 성원은 어디에서 살거나를 막론하고 해방후 사회

체제와 지역차이 및 언어접촉과 언어규범화(정화, 순화)원칙 등이 다름에 따라 이루어진 동일언어의 국제적 변종과 변이의 존재를 직시하고 호상 존중과 화해, 단합과 협동을 창도하는 정신으로 상이한 변이형을 서로 포용하면서 민족어의 어휘구성을 보다 더 풍부화되게 하고 민족어를 한결 더 규범화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것이다. 또한 사람마다 언어행위에서는 대화상대자의 국적과 지역별 차이 등을 념두에 두고 복수어휘를 망라한 말마디를 상대자와 장면에 알맞도록, 즉 "교제순응"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옳게 골라 사용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처사하여야만 코리아민족언어는 변이의 조화로운 통합과 변종의 순조로운 통일이 이룩될수 있을것이다. 2005년에 결의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2010년에 중단되였다가 2014년에 회복되여 2015년에는 먼저 21,000개의 올림말을 두고 남북의 편찬원들이 금강산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였다. 향후 기어코 완수되리라고 믿게 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반도 남북 언어의 통합에 밑바탕이 될수 있을뿐아니라 그 사전의 어문 규범과 용법 및 용례 등은 중국에서 쓰이는 겨레말의 어휘규범화에 귀중한 본보기와계시를 주리라고 사료하게 된다. 해방전에 조선어학회의 선인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어의 통일과 발전을 위하여 자기희생적으로 사전(기본원고)을 편찬하여 력사적대사를 이루어놓은것처럼, 향후 코리아민족어문의 재통일을 위한 반도 남북 언어학자들의 『겨레말큰사전』의 편찬대업이 소망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하여마지않는다.3

<sup>3</sup> 이 글은 2013 년 11월 연변대학에서 열린 남북 언어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한국국립국어 원 주체)에서 발표한 졸고(회의 예고집에 게재)에 바탕을 두고 수정과 보완을 많이 가하여 2015년 8월 오스트리아 윈대학에서 진행된 제12차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언어분과회의에서 구두로 발표한 개정고의 내용을 첨식하고 다듬은것임.

### 참고문헌

- 고영근(2008)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엔씨.
- 김민수(2007) 『현대어문정책론』, 한국문화사.
- 김영황 · 권승모(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도서출판 박이정(2001)
- 곽충구(2001) 「남북한 언어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문제」, 『새국어생활』 제1호.
- 리익섭(이익섭 1994)『사회언어학』, 민음사.

『국제고려학』제10호.

- 문영호(2007)「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과 민족어의 통일적발전」, 『국제고려학』제11호. 심병호(2005)「조선어의 민족성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국어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 장흥권(2001) 「로어기워의 조선말외래어에 대한 조사연구」, 『중국조선어문』 제1호.
- 장홍권(2012)『접촉언어학』중문판, 상무인서관, 2012년 2월 제1차 인쇄. 같은 책 2013년 4월 제2차 인쇄.
- 장흥권(2013) 『접촉언어학과 조선어(한국어)언어학 연구』, 민족출판사.
- 장흥권(2013) 「재중동포의 언어 현실과 전망에 대한 접촉언어학적연구」, 『남북 언어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언어접촉과 언어변이-』, 예고집 발행처: 국립국어원
- 전학석 주필(2000) 『중국조선족언어문자 교육 사용 상황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편찬(2007), 『조선말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
- 최호철(2001) 「서로 다른 어휘의 동질성을 위한 방안」, 『새국어생활』 제1호.
- 최윤갑(2003) 「중국에서의 조선어어휘규범화와 그 특성」, 『세계속의 조선어(한국어) 어휘 구성의 특징과 어휘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민족출판사.
- 홍윤표(2005) 「우리는 겨레앞에 옷깃을 여미고 섰다」,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 백서』,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
- 劉玉霞(1998)「回憶楽然片断」、『緬懷韓楽然』、民族出版社、
- 大村益夫(1987)「中国延辺生活記(その三)」『季刊 三千里』일본문관、제49호
- U. ワインライヒ(会津洋訳 1972)「単一言語使用と多言語使用」,『近代言語学大系3言語と 人間』、紀伊国屋書店
- U. ワインライヒ(神島武彦訳 1976)、『言語間の接触―その事態と問題点―』、岩波書店、
- А. Е. Карлинский (1990) ГОсновы теори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языков ", Алма-ата
- Г. Шухардт(2003) <sup>Г</sup>К вопросу о языковом смешении , <sup>®</sup>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по языкознанию , Москва:Изд-во УРСС, 174-184.
- David Crystal(1988) <sup>©</sup>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sup>®</sup>,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 Janse, Sijmen Tol(2003) FLanguage Death and Language Maintenanc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eter Hans Nelde(2002) 「Language Contact」, 『The Oxford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_1, Oxford University Press.
- Tasaku Tsunoda(2005) <sup>®</sup>Language Endangement and Language Revitalization<sub>3</sub>, Mouton de Gruyter.
- Uriel Weinreich(1966) <sup>®</sup>Language in Contact—Findings and Problem—<sub>®</sub> Fourth Printing, The Hague: Mouton & Co. 3-9.
- (이 글에서 문장부호 이외의 맞춤법과 띄여쓰기 및 외래어표기법 등은 중국조선어학계의 규범과 관용에 따라 썼음.)

# 동시통역의 분류와 신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성일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황춘화

장안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통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확한 시점을 아는 사람도 없고, 증명할수도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말해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류가 자신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민족, 다른 부락과 처음 교류를 시작했을 때 통역 활동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역은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항상 존재해왔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정호정 2011: 20). 따라서 인류의 문자가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된 번역 활동과 비교해 통역은 더 길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역의 한 분야로서의 동시통역의 역사는 짧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파리회담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97년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동시통역은 번역이라는 큰 영역에서의 새로 피어난 작은 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은 꽃은 매우 화려하게 피어났을 뿐만아니라 무서우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20년 간 개혁개방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 경제, 문화 및 과학 영역에 서의 중국의 교류는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대형 국제회의도 급증하게 되었 다. 이에 힘입어 동시통역의 사용 역시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통역사라 는 새로운 직업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지어 국제회의가 집중된 북경, 상해 등 주요 도시에서는 프리랜서 동시통역사들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대학, 연구소, 방송국 등에서 종사하며 번역 관련 업무를 보는 "겸직" 동시통역사도 동시통역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대학들도 통역 및 동시통역 과정을 개설하였다. 특히 2007년 중국교육부가 국무원학위위원회에 〈번역석사 전공학위 개설방안〉을 하달한 후, 대학의 번역석사(MTI=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과정 개설은 더욱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동시통역의 광범위한 응용은 동시통역 관련 학술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부 영역의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동시통역 유형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렇다.

시대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 특히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동시통역의 영역도 넓어져 동시통역은 이제 국제회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새로운 유형의 동시통역이 파생되어 나왔는 바, 사회의 요구와 발전에 맞게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번역계에서 일부 논문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동시통역 분류 및 새롭게 출현한 동시통역 유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을 찾아볼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국내 대학 통번역 교육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전통적인 동시통역 유형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선진적이고 새롭게 출현한 유형에 대해 교학에서 실제적으로 응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왜 동시통역 분류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가? 분류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분류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떠한 새로운 유형이 출현했는가? 또 어떤 동시통역 양식이 출현할 것인가? 이미 출현한 유형에 대해서는어떻게 연구를 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적다. 이에 비추어 본고는 그중 부분적 문제에 대해 탐색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 2. 동시통역의 발전과정 및 특징

### 2.1. 동시통역의 발전과정

동시통역의 시발점에 대해 학계에서는 줄곧 논쟁이 있다. 어떤 사람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파리강화회의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리강화회의의 일부 회담에서 처음으로 영·불 동시통역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동시통역이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张维为 1999: 3). 또 어떤 사람은 완벽한 의미상의 동시통역은 1945년 나치 전범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鲍刚 2005: 4).

이 두 관점을 참고하여 동시통역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최초로 시작된 1919 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파리강화회의로부터 계산할 경우 현재까지 역사는 97년이 채 되지 않는다. 만약 1945년의 뉘른베르크 재판부터 계산한다고 하 면 71년밖에 되지 않는다. 동시통역 역사가 짧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필자는 동시통역의 기원이 1919년에 시작되었다는 입장에 찬성한다. 그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역사는 가장 오래된 사건을 그 시점으로 정한다(史源唯远)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세기 20년대 IBM이 세계 최초의 동시통역 설비를 설계·제작하였고, 1926년 특허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1927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공식적으로 이 설비를 사용하였다(姚斌 2009: 14). 설비까지 다 사용한상황에서 기원을 그 이후인 1945년으로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1945-1946)은 대규모 동시통역을 진행한 본보기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의미에서의 동시 통역이었기 때문에 동시통역의 이정표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그것을 동시통역의 기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후 1947년 UN의 일부 기구들이 공식적으로 동시통역을 도입하기 시작 했다. 1950년에 이르러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도 동시통역으로 대회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UN의 각 기구들 역시 잇달아 동시통역을 사용 하기 시작했으며, 동시통역은 이때부터 더욱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동시통역은 그 시작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신중국은 1952년 북경에서 개최한 아시아 지역 평화회의에서 처음으로 동시통역을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60여 년의 발전 역사에 불과하다.

1970년대 중국이 UN으로 복귀한 후, 동시통역 인재가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동시통역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을 시작했다. 개혁·개방을 주도한 중국정부는 동시통역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통역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1979년 북경외국어대학교에 "UN통역사 훈련반"을 개설하였다(张维为 1999: 5). 모두 8기로 개설된이 과정에서 UN을 위해 200명에 달하는 통역사를 양성했으며, 그중에는 수십 명의 동시통역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정규 통역사 양성의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중국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회의 및 학술회의의 증가, 각 종 양자회담 혹은 다자회담의 빈번한 개최에 따라 국제회의 동시통역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동시통역은 더욱 빠른 발 전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통역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 많은 대학에서는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번역 전공 석사과정도 개설하게 되었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가 동시통역의 발전을 위해 각 언어에 상응하는 공헌을 했다. 동시통역은 통역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현대 국제회의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는 통역법이 되었다.

# 2.2. 동시통역의 특징

동시통역의 복잡성은 독특한 동시통역의 특징을 결정했다. 그 특징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 ① 시간의 제한성. 제한된 시간 내에 듣고 말하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뇌는 고도의 긴장 상태가 된다.
- ② 언어의 다양성. 회의 언어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전자기기설비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언어 통역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업무 방식의 특수성. 주요 업무 장소에는 통역부스가 있고, 2-3명이 한 조가 되어 일정한 시간을 번갈아가며 교대로 통역을 한다.
- ④ 번역 방식의 특수성.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통역을 해내야 하고, 언어를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어순에 따라 통역을 하다 보면 문장 구 조에는 어긋나지만 간략하게 요약할 수는 있다.
- ⑤ 경험의 중요성. 다른 통역 형식과 비교해 경험과 배경지식은 동시통역 에서 매우 중요하다.
- ⑥ 경제성. 순차통역과 비교해 회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관련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 3. 동시통역의 분류 방법 및 유형

# 3.1. 동시통역의 분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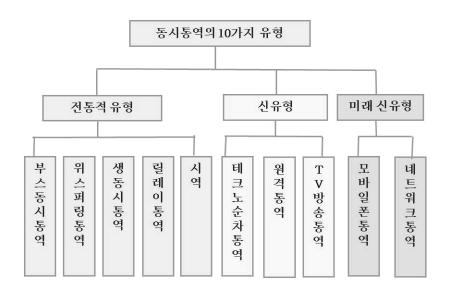
통역의 구분은 주로 시간차(时间差)의 정도에 따라 크게 순차통역과 동시 통역으로 구분하게 되며(남성우 2006: 308) 이 두 가지 통역 종류는 또한 각 기 기준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동시통역의 분류 방법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시통역의 방식에 따라 부스 동시통역, 릴레이 통역, TV방송 통역, 원격 통역 등으로, 동시통역의 분야에 따라 비즈니스 통역, 법정 통역, 과학기술 통역, 교육통역, 취재 통역, 정치회담 통역 등으로, 동시통역의 성격에 따라 회의 통역, 비회의 통역 등으로, 동시통역의 음성 시스템 사용 여부에 따라 생동시 통역, 위스퍼링 통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3.2. 동시통역의 유형

동시통역 유형은 몇 가지나 될까? 현재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필자는 동시통역 업무 방식의 차이에 따라 동시통역의 발전 역사 및 발전 추세를 참고하여 동시통역의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그 출현 기간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근거하여, 이 10가지를 전통적 유형, 신유형, 미래 신유형 등 3가지로 묶어 분류하였다.



〈그림 1〉 동시통역의 10가지 유형

## 3.3. 동시통역 유형 소개

본고는 동시통역의 유형을 전통적 유형, 신유형과 미래 신유형 등 3가지 큰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10가지 작은 유형을 포함하였다.

### 3.3.1. 전통적 유형

전통적 유형은 동시통역이 시작됐을 때부터 존재한 동시통역 방법으로 아 래의 5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 (1) 부스 동시통역(booth): 통역사는 부스(booth) 안에서 연사의 연설을 헤드셋을 이용해 듣고 마이크를 통해 그 내용을 청중들에게 바로 전달해준다.
- (2) 위스퍼링 통역(whispering): 통역사가 통역 장비 없이 들은 연사의 내용을 작은 소리로 가까이에 있는 청자에게 바로 통역한다. 대부분 청자가 두 사람 이내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 (3) 생동시통역(in vivo interpreting/voice over): 소규모 회담이나 면담에서 통역사가 거의 연사와 동시에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통역하는 동시통역 방식이다. 생동시통역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 (4) 릴레이 통역(relay): 국제회의의 공식 사용 언어가 3가지 이상일 때 선택하는 동시통역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연사의 외국어를 통역사가 기타다른 언어 통역사들이 공통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모어라고 부르기도 함)로 동시통역한 후, 통역사들이 이 모어를 듣고 대상국의 언어로 통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5) 시역(Sight Interpreting): 동시통역사가 연사의 발언 원고를 가지고 발언을 듣는 동시에 원고를 보면서 동시통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역은 "원고가 있는 동시통역(有稿同传)"이라고도 불린다.

## 3.3.2. 신유형

신유형은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통신과 정보 기술의 발달 및 사회문화의 발전에 따라 최근 20, 30년간 나타난 새로운 동시통역의 양식을 말한다. 아 래의 3가지를 포함한다.

- (1) 테크노 순차통역: 순차통역을 진행할 때, 녹음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연사의 말을 녹음하고, 녹음된 연사의 말은 노트테이킹을 대신하게 된다.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통역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통역 방식은 순차통역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통역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기도하다. 연사와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순차통역이지만 통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동시통역이다. 이미 연사의 연설을 한번 듣고, 동시통역을 할 때 두 번째 녹음 연설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동시통역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통역의 정확성을 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EU의 일부 통역사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 (2) 원격 통역(teleinterpretation/videoconference): 주로 화상회의를 통해 나타나는 형식이다. 연사와 통역사가 다른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위성 으로 전파된 화면과 음성을 통해 통역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UN, EU, 유네스코(UNESCO)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 (3) TV방송 통역(TV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돌발사건, 톱뉴스 등 내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통역사, 앵커, 기자가 호흡을 맞춰 동시통역, 뉴스보도 등의 방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송하는 동시통역 방식을 말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통역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하는 것을 포함하며, 기타 유형의 TV프로그램의 동시통역도 포함한다.

## 3.3.3. 미래 신유형

미래 신유형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지만 발전 추세로 보아 출현할 수 있는 동시통역의 양식이다.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통신 기술의 발달과 동시통역 발전의 추세를 고려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두 가지 동시통역 유형이 출현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 (1) 모바일폰 통역(mobile phon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음성 또는 동영상을 수신 혹은 전송하여 진행되는 동시통역 방식이다. 방송 통역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으며 모바일폰의 실시간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2) 네트워크 통역(Network simultaneous interpretation)<sup>1</sup>: 인터넷 통신수 단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동영상, 키보드 타이핑 등의 수단을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또는 지연되었거나 저장된 것을 재현하여 진행하는 통역 방식이 다. 비즈니스 담판, 외국과의 교류, 교육(온라인 수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4. TV방송통역

TV방송통역은 새로운 유형의 동시통역으로 동시통역과 뉴스보도가 TV매체와 결합한 산물이다. TV방송통역은 하이테크 및 훌륭한 팀워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새로운 유형의 동시통역이다.

TV방송통역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함으로서 국제뉴스 보도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꼽힌다. 허나 TV방송통역의 발전역사가 길지 않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음으로 하여 TV방송통역을 회의 동시통역과 같은 통역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 4.1. 중국 TV방송통역의 발전

중국 TV방송통역은 2001년 봉황 위성TV(凤凰卫视)가 최초로 TV방송통역에 투입, 사용하여 보도한 9·11테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은 2002년 걸프전쟁 전시상황을 TV방송통역으로보도했다(저자 2009). 이로서 TV동시통역은 중국 TV뉴스속보에서 두각을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동시통역의

<sup>1</sup> 인터넷에 등장하는 네트워크 통역(Network transmission)은 컴퓨터 시스템 간의 복제이다. IT영역에 속하는 용어로 필자가 제시한 번역과학에서의 네트워크 통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사용영역은 뉴스속보에만 제한되지 않고 일부 특집 인터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어 왔다.

중국을 놓고 볼 때 TV방송통역은 신생 사물인 관계로 실패의 고배를 많이 마셨다. 예컨대, 중앙텔레비전방송국은 2005년 러시아 붉은광장 열병식을 생방송 동시통역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그 효과는 거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생방송 동시통역 경험의 부족으로 준비가 부족하였고 러시아어 동시통역사가 지나치게 긴장하여 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열병 원수가 오픈카에 서서 열병을 받고 있는 사병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는데 분명 쉬운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하지 못했었다. TV방송통역은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것이다.

중국 TV방송통역사에 있어서 2014년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한 해라할 수 있겠다. 2014년 상반기 TV방송통역이 대거 등장했는데 이는 중국 TV 방송통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었다.

먼저 연초부터 악화된 우크라이나 위기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후, 2014년 2월 28일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중앙텔레비전방송국은 이 기자회견의 전 과정을 TV생방송 통역으로 보도하였다. 그 후 쭉 이어서 7월 17일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추락사고<sup>2</sup> 등과같은 사건까지 약 반년동안 여러 가지 중대한 돌발사건들을 역시 TV생방송 통역으로 보도했다. 2014년 3월 8일 새벽, 239명의 승객을 태운 말레이시아항공회사 MH370여객기의 실종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어 몇달 동안 말레이시아항공회사 및 말레이시아정부 등 관련 기구가 잇달아 한 기자회견보도도 TV방송통역으로 진행하였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한국 세월호여객선 침몰 사고는 사고발생 당일 아침 첫 뉴스가 나온 후로부터 줄곧 TV방송통역의 형식으로 세월호의 구조현장과 기자회견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연속된 돌발 사고는 인류의 재난과 비극임으로 마땅히 방비해야 한다. 2014년 한해는 중앙방송국 TV방송통역에 있어 시험이였고 경험 축적

<sup>2 2014</sup>年7월17일 298명의 승객을 태운 말레이시아항공소속 여객기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인접한 국경지역에서 추락하였는데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했다는 주장이 우세이다.

의 시간이 되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동시통역은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좋은 효과를 보았다.

필자는 중국 TV방송통역의 대거 출현의 원인이 첫째로 시대발전의 요구에 있고 둘째로 경쟁과 압력이 가져온 변혁이라 생각한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정보접수 방식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CCTV가 첫 순번으로 뉴스를 보도하지 못할 경우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 4.2. TV방송통역의 특징

TV방송통역은 자기만의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보도의 즉시성. 국제 비상사건에 대한 실시간 보도와 방송으로 방송국 의 가치를 구현한다.
  - (2) 뉴스성. 동시통역의 내용은 대부분 뉴스성을 띄고 있으며 다양하다.
  - (3) 가시성. 시청자는 TV영상을 보면서 동시통역사의 음성을 듣는다.
  - (4) 공간의 이질성. TV중계자와 동시통역사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 (5) 통역과 요약의 결부성, 통역이 잘 안될 경우 현장기자 혹은 앵커가 사건에 대해 요약하고 소개하는 등 보완보충을 할 수 있다(예: 2014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기자회견 생중계 통역).
- (6) 팀워크성. 동시통역사와 앵커 및 현장기자는 이심전심으로 협력해야한다. 왜냐하면 발표자와 진행자 및 통역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동시에여러 공간의 화면을 전송하고 자막 처리, 음성 전송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여 훌륭한 팀워크는 필수 요소이다.
- (7) 종합성. 비상사건 발생 즉시 첫 보도가 나간 뒤, 후속 보도는 먼저 보도 된 뉴스를 종합하고 현재 뉴스와 결부시켜 통역할 수 있다. (예: 2014년4월16일 한국 세월호 침몰 사고 통역)
- (8) 통역사 지식의 결핍성. TV생방송 내용이 다양하므로 통역사가 해당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해할 수 있다.

## 4.3. TV방송통역과 회의 동시통역의 차이점

TV방송통역 특유의 특징이 바로 회의 동시통역과의 차이점을 나타냈다.

- (1) 사전 준비의 차이. 돌발사건은 준비가 불가하나 회의 동시통역은 사전 준비시간이 충족하고 목적성이 뚜렷하다.
- (2) 언어문체 및 참가자의 차이. TV방송통역의 참가자로는 발언자, 기자, 사건 참여자 등이 있고 회의 동시통역의 참가자로는 발언자, 청중이 있다. 따라서 언어문체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
- (3) 내용 성격의 차이. TV방송통역의 내용은 대체로 뉴스 위주로 뉴스성과 뉴스의 가치성, 즉 즉시성과 진위성을 중요시하지만 회의 동시통역은 목적성, 전공성 및 학술성을 중요시 한다.

## 4.4. TV방송통역의 부족점

TV방송통역이 아직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실전에 투입되어 사용해보았을 때 많은 부족점이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와 실천 중에서 지속적으로 시정 및 보완 할 필요가 있다.

(1) 기술면의 부족. 2014년 CCTV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 TV방송통역을 분석해 보면 기술면의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어 신호가 단속적으로 이어지고 음량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여 통역에 단선이 생긴 것이다. 이는 충분히 통역사의 리듬을 깨트리고 통역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통역사가 부득이 하게 브리핑 혹은 회의 내용과 무관한 언어로 설명함으로서 회의내용의 전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또한 TV방송통역의 어려움으로 간주된다.

예: 2014년 4월 14일 12:10~12:30 사이, 'CCTV1 호주연합조정센터 브리 핑'을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TV 음성 전송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통역사의 거듭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신호가 많이 끊깁니다."

"통역 신호가 다시 끊겼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통역사의 귀(헤드셋)에 두 음성 채널의 소리가 들리니 한쪽 채널을 꺼주십시오."

"기자분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분의 소리가 너무 낮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하세요."

"기자분이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을 기다려 봅시다."

- (2) 통역환경이 열악하다. 통역부스가 없어 스튜디오에서 직접 진행하다 보니 배경 잡음이 많아 발언자가 마이크에서 멀리하면 통역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통역사 헤드셋이 듀얼 채널이 아니라서 동시통역에 부적합하다.
- (3) 청중의 오해. TV방송통역의 성격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 부족으로 앵 커의 기준으로 동시통역사를 평가할 수 있다.
- (4) 통역사 배치의 불합리성. 동시통역은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정신적 노동으로 2인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돌아가며 통역해야만 최상의 통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TV방송통역은 스폿형식의 생방송이므로 보통 동시통역사를 한명만 배치하여 고군분투하게 한다.
- (5) 돌발사건 영역의 포괄성. 돌발사건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분야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통역사가 통역 내용에 문외한일 경우 통역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 4.5. TV방송통역의 발전추세

앞으로 TV방송통역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예측컨대 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국제적인 돌발사건이 동시통역의 형식으로 보도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시통역사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게스트가 참여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즉 TV토크쇼, 예능과 같은 많은 TV프로그램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동시통역의 질 또한 날로 높아지게 되는 것을 실감하고 TV방송통역의 횟수가 많아지고 보급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방송국에도 동시통역 요구에 걸 맞은 통역부스가 설치될 것이다.

## 5. 동시통역의 미래 신유형

필자는 겸직 동시통역사로서 실제 현장을 다년간 고찰하고 대학에서 15년 간 대학원생 동시통역 강의를 하면서 동시통역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머지 않은 미래에 새로운 두 가지 동시통역 유형이 출현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하나는 모바일폰 동시통역이며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통역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낸 그 용어는 필자가 본고에서 연구하는 동시통역과는 전 혀 다른 IT업의 용어이다.

## 5.1. 모바일폰 동시통역

모바일폰 동시통역(mobile phone simultaneous interpretation)이란 휴대폰 음성 또는 영상을 통해 진행되는 수신 혹은 전송되는 통역방식 중의 하나이다. TV방송 통역의 연장이며 모바일폰의 모든 실시간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기능을 보면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다.

### 5.1.1. 모바일폰 통역

일상 생활에서 외국어가 필요할 때 수시로 휴대폰을 이용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휴대폰 실시간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서비스, 외국인으 로서 여행 관광이나 객지에서의 문의·안내 등 서비스 이용, 병원이나 쇼핑 에서의 통역과 전문 지식에 대한 서비스 이용, 비즈니스 담판, 해외에서의 서비스 이용과 셀프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서비스의 이용 등 등. 이러한 모바일폰 통역의 넓은 의미에서의 서비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

5.1.2. 모바일폰 TV방송 통역(mobile phone TV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동시통역사가 몸소 TV 방송국에 갈 필요 없이 어디서이든지 전용 모바일

폰으로 언제든지 방송국을 위해 동시통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발사건, 톱뉴스 등에 대한 방송국의 동시통역보도 능력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모바일폰 TV방송 통역이 없기 때문에 돌발사건에 대한 방송국의 보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시간 보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 그 원인으로서는 돌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TV방송국에서 지정한 통역사가 돌발사태 발생직후인 첫 시간 때에 방송국의 생방송 통역실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국에서는 사건 발생 즉시로 통역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통역사가 신속히 방송국까지 도착하는 데는 공간적인 장애를 극복해야 하며 도착 시간은 도시 도로 상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분초를 다투며 톱뉴스로 보내는 TV생방송동시통역으로서는 이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예컨대, 2014년4월16일 오전, 한국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중국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의 생동시통역방송은 동시통역사가 그 시간 때에 도착할 수 없어서 첫 시간에는 종합보도의 형식으로 보도를 했으며 동시통역생방송은 톱뉴스가 나간지 약 한 시간 후에부터 시작되었다.

모바일폰 TV방송 동시통역은 바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TV방송국과 통역사 간에는 동시통역 전용칩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수시로 통신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돌발사건이 터질 경우 방송국에서는 그 상대국 언어의 통역을 담당하는 동시통역사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되며, 연락을 받은 통역사는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든지 관계없이 헤드셋을 끼고 방송국에서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한 영상을 보면서 동시통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통역사가 동시통역한 음성은 방송국으로 전송되어 생방송으로 수많은 텔레비 말단기로 전송된다. 이로하여 통역사가 돌발사건 즉시에 방송국에 와서 생동시통역을 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 이는 모바일폰 동시통역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 5.2. 네트워크 동시통역3

네트워크 동시통역(Network simultaneous interpretation)은 인터넷 통신 수단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동영상과 키보드 타이핑 등의 수단을 포함하 여 실시간으로 또는 저장된 것을 재현하여 진행하는 통역 방식이다. 비즈니 스 담판, 외국과의 교류, 교육(온라인 수업), 국제교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6. 결론

동시통역은 현재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통역의 양식으로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편화되지 않은 학문으로 자리하고 있기때문에 통역의 많은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또한 빠른 발전으로 하여예전의 이론은 이 발전된 현실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며, 이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있다. 예컨대, 동시통역에 대한 정의가 바로 그런 사례로 되고 있다. 새로운 동시통역유형의 출현에 따라 동시통역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많은 부족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동시통역 정의는 시대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출현된 신종의 동시통역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인 바 우리는 반드시 이를 받아드려야 하며 동시통역 정의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는 변화한 시대에 따라 동시통역의 정의도 다시 보완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통역은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두 가지로 나눠 정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정의를 협의로 보며 광의의 정의는 필자가 참고로 정의를 내려 본다.

동시통역이란 부스 안에서, 또는 다른 공간에서 통역사가 헤드셋과 마이 크 등 장비를 사용하여 한 언어로 표현한 연사의 연설을 거의 발화와 동시에

<sup>3</sup> 인터넷에 등장하는 네트워크 통역(Network transmission)은 컴퓨터 시스템 간의 복제이다. IT영역에 속하는 용어로서 필자가 제시한 번역과학에서의 네트워크 통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다른 언어로 통역해 주는 방식이며 특수 상황에서의 지체된 개괄과 종합을 포함한다.

필자는 동시통역유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교수와 통역 실천을 토대로 동시통역의 10가지 유형을 정리해 내놓았으며 2014년11월에 개최한 중국비 통용어교학연구회 제15회 학술 토론회의 대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중 5가지는 전통적 의미가 있는 동시통역 유형이며, 3가지는 최근 20, 30년간 새로 나타난 유형이며, 2가지는 필자가 최초로 내놓은 앞으로 출현할 미래 신유형이다. 아직까지 상세한 논증을 하지 못했는 바 이는 향후 필자가 지속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TV방송동시통역도 마찬가지다. 그 발전 중에서 나타난 많은 현상들을 아직은 세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가 결핍한 바 이도 역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요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시통역유형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개척해야할 분야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동시통역의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는 동시통역의 이론과 양식을 보완하고 다양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중요한 과업은 이미 출현한 동시통역유형에 대해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보완하여 체계화해 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정호정(2011) 「국제회의통역에의 초대」、『서울 한국문화사』、20

남성우(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308.

张维为(1999)「英汉同声传译」、『北京 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3-5.

鲍刚(2005)「口译理论概述」、『北京 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4.

国务院学位委员会(2007)「关于下达"翻译硕士专业学位设置方案"的通知(学位〔2007〕11号. 2007.3.30).

姚斌(2009)「关于同声传译的起源」,北京『中国英语教育』14.

陈楠(2009)「电视同传的发展与译员的培养方向」、『考试周刊』第30期(下卷)、

雷静(2009)「访谈类节目同声传译的多任务处理模式」,『中国科技翻译』,2009年 1期.

周青(2007)「电视传媒中的同声传译」、『阜阳师范学院学』第3期。

# On Subject Omission in Japanese and Korean

-Declarative Sentences and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

Eunjoo Park

Koreanische Schule in Hamburg

### 1. Introduction

The subject is frequently omitted within Korean conversation. It is said that a similar phenomenon exists in Japanese. In practice, when Korean and Japanese native speakers talk in their mother tongue, it is not rare to find the use of sentences with subject omission. The phenomenon of subject omission in both languages, sometimes has been examined, but there is not much discussion about under which circumstances it appears.

Does subject omission happen in any sentence of Korean and Japanese, or does it depend on the type of sentence in both languages? If it is the same, then why does it happen?

The method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ose situations in which subject omission is allowed will be examined in via translated conversational declarative sentences from Korean television dramas which have been translated into Japanese. Next, a study of those students of translation whose target language is Korean or Japanese. A study of their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will be examined to determine if the subject omission is the same in the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of both students. This

research could help students who study Japanese or Korean as target languages.

### 2. Subject omission in conversation

Here through the examples of Japanese and Korean to survey the situations where subjects are omitted. Taking very ordinary Korean utterance sentences and translating<sup>1</sup> them into Japanese sentences, check whether they can be perceived as natural utterance sentences for Japanese sentences. Concerning conversation examples<sup>2</sup> take up Korean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

#### 2.1. Close relations

An example of Korean and Japanese sentences follows.

#### Example 1:

윤성현/ 근데 민아, 내가 갖고 있는 사진들 중에, 네 얼굴은 한 장도 없다.

Yun/ (gŭnde mina, nega gajgoissnŭn sajindŭl jung-e, ne ŏlgul-ŭn han jangdo ŏbsda )

ところで、ミン、私の写真の中に君の顔が写ったものは一枚もないわ.

(tokoro-de, Min, watashi-no shashin-no naka-ni kimi-no kao-ga utsuttamono-wa ichimaimonaiwa.)

강민/ 아,  $^{\emptyset}$   $^{\bigcirc}$  찍는 건 해도  $^{\emptyset}$   $^{\bigcirc}$  찍히는 $^{4}$  건 못 하겠더라. 영 어색해서.

180 국제고려학 16호

-

<sup>1</sup> The Japanese Kana are according to the "Dictionary of Korean" 朝鮮語辞典/Chousengojiten (1993).

<sup>2</sup> The conversation examples are sentences from conversations selected from television dramas broadcast in Korea between 1990 and 2015.

<sup>3</sup> The symbol  $\langle \emptyset \rangle$  indicates subject omission.

<sup>4</sup> This sentence is in the passive form. Korean passive sentences do not easily allow the

Kang/ (a, ø ① jjignŭn gŏn hedo ø ② jjighinŭn gŏn mos hagessdŏla, young ŏsaeghaesŏ.)

まあ、 $\emptyset$ ① 撮るのはいいが、 $\emptyset$ ② 撮られるのはなんだか落ち着かなくてさ. (mā, torunowa iiga, torarerunowa nandaka ochitsukanakutesa) (광끼, KBS2, episode 22, 1998)

Example 1 is a conversation between a pair of lovers. Taking example 1 ① and ②, if they are regarded as usual, the subjects "내가(nae-ga)/僕 が(boku-ga)/I"<sup>5</sup> in ① as well as "내가(nae-ga)/僕が(boku-ga)/I" in ②are omitted Even if one translates the Korean sentences are translated into Japanese, the utterance can still be made entirely in the same form. For argument's sake, even if the speakers took the subject, both  $\bigcirc$  and  $\bigcirc$ ,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y would take the subject both in ① and ②. It would rather be assumed that they would be confined to only one place. Therefore in the cases of Korean and Japanese, if ① and ② are both uttered with an inserted subject, it is perceived as even more unnatural. For the listener, such utterances sound either like an unusually long-winded way to speak, or like the way of talking within a formal relationship. This way of talking as in the Korean sentences in example 1 is also perceived as more natural, even by Japanese native speakers.

#### Example 2:

최하경/ 가운 입어, 준서야. 오늘 네가 주도해. 이 환자 병 네 전문분야잖아.

omission of subjects, but it can be said, because in the case is that harmless for him. A detailed explanation about passive sentence is given in chapter 3.

<sup>5</sup> Concerning subject omission appearing in the conversation examples, we have cases of only a noun denoting the subject "나(na)/僕(boku)//1", and also cases where a particle like "내가(nae-ga)/僕が(boku-ga)/I" forms a unit with a noun phrase. In this paper deal with either of these forms without distinction, for convenience, of course, with both in the role of subject omission.

Choi/ (gaun ibŏ, junsŏya. onŭl ne-ga judohae. i hoanja byŏng ne jŏnmunbunyajanha.) ガウン着て、チュンソ. 今日, あなたが執刀して. この患者の病気、あなたの専門分野でしょう. (gaun kite, Chun Sŏ. kyō, anata-ga shittō shite. kono kansha-no byōki,

anata-no senmonbunya deshō.) 하준서/ 됐어, 하경아. 그냥 ø ③지켜만 볼게.

Ha / (doessŏ, Ha Gyŏnga, gŭnyang ø ③ jikyŏ-man bolge.) もういしよ、ハギョン。ただ ø ③ 見守るだけにするよ. (mō iiyo, Ha Gyŏng. tada ø ③ mimamoru dakeni suruyo.) (剤바라기, MBC, episode 8, 1998)

Example 2 is a conversation between doctors who are colleagues and friends. In example 2 ③ the subject 나 (na)/ 僕 (boku)/I is omitted. Even if this Korean sentence is translated into Japanese, true artificiality is not found. In other words, in Korean and in Japanese in such a situation an utterance omitting the subject in the same way can be made. There is not only a probability that the utterance is put in such a way, but, even more, it is perceived as natural.

#### Example 3:

헤인/ 이모, ... 거기 들어있던 준영이 녹음 테이프 못 봤어?
 Hein/ (imo, ... gŏgi dŭlŏissdŏn junyoung-i nogŭm teipŭ mos boassŏ?)
 叔母さん、 ... その中にチュンヨンの録音テープ見なかったの?
 (Obasan, ...sono naka-ni JunYŏng -no rokuon tēpu minakattano?)
 이모/ Ø④ 갖다버렸어. 평생 끼구 Ø⑤ 궁상떨까봐 버렸어.
 Imo/ (Ø④ gajdabŏlyŏssŏ. pyŏngseng ggigu Ø⑤ gungsangddŏlggaboa

Imo/ (ø ④ gajdabŏlyŏssŏ. pyŏngseng ggigu ø ⑤ gungsangddŏlggaboa bŏlyŏssŏ.)

ø ④ 捨てたわ。一生抱えてø⑤ 貧乏たらしくするかと思ってさ.

( ø 4) sutetawa, isshō kakaete ø 5) binbō tarashikusurukato omottesa,)

혜인/ ø ⑥ 왜 그랬어. 이제 ø⑦어떻게 살라구. 듣지두 못 했단 말이야.

(ø  $\mbox{\Large @}$  woe g<br/>ŭlessŏ. ije ø  $\mbox{\Large @}$  ŏddŏhge sallagu. dŭdjidu mos hess<br/>dan maliya.)

⑥ なぜ、そんなことしたの。これから Ø ⑦ どうやって生きられるの。 聞くことさえ惜しんだのに.

(ø 4) naze, sonna kotoshitano, korekara ø 7) döyatte ikirareruno. kikukotosae oshindanoni.)

(슬픈 연가,MBC, episode 10, 2005)

In the above examples 3 the subjects are omitted as follows: "④ 내가 (nae-ga)/私が(watashi-ga)/I", ⑤"네가(ne-ga)/あなたが(anata-ga)/you", ⑥ "이모 (imo)/ 叔母(oba)/aunt", ⑦ "나"(na)/私(watashi)/ I". In the cases of 4 and 5, the speaker does not only omit herself as the subject in her utterance, but also the addressee till 5. Some can consider on the meaning of that along the flow of conversation. The interlocutors' relationship in example 3 is that of an aunt and a niece living together for a long time, like parent and child. The subject omissions @ and 5 are performed in the utterance of the aunt. In the conversation the mutual relation of the "나(na)/私(watashi)" interlocutors with each other becomes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way of talking". If the speaker is close with the addressee he can make use of informal speech style in an intimate way. In other words, if the addressee is an intimate inferior person, it is not rare to speak with an informal speech style. However, in situation 6 while the niece talks to the aunt, she omits the subject "aunt". Briefly, their use of intimate speech style denotes their close relationship. In the conversation, the way of speaking is chosen due to the speaker's and the addressee's relationship. One can say that it is also a special characteristic of this conversation that the way of speaking is definitely determined by the addressee. In other words, the speaker uses different ways of speaking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n intimate relationship or not, or whether there is a business relationship or a private one. In everyday life there are invisible conventions which are

casually practised in the conversation and the mutual interlocutors carry on the conversation accordingly. If thinks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such conversations, it can be said, that, if the relationship is close, there is a tendency for the subject to be frequently omitted in conversation.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Japanese and Korean, the higher the frequency of subject omission within a conversation, the closer intimate relationship within the way of talking can be felt. Therefore concerning the subject omissions arising in example 3 4, 5, 6 and 7, even if translated into Japanese, an artificiality cannot be found.

In the conversation examples above examined the cases of subject omission in "close relations". One can say that in Korean and also equally in Japanese in the conversation of people within "close relations", the omission of subject is phenomenon which often appears. Here can see a feature, that in the utterances the subject omission of the second person "니(nǒ)/君(kimi)/you", "네가(ne-ga)/君が(kimi-ga)/you" etc., denoting the addressee, is mostly seen in a situation where the speaker is senior to the addressee. Such a feature is not only a phenomenon within Korean but also in Japanese.

#### 2.2. Non-intimate relations

When the speakers must talk politely, or when there is no close relation to the addressee, without an omission of sentence forming elements<sup>6</sup> utterances using prototype sentences<sup>7</sup> are a general recognition. Omitting

<sup>6</sup> If searches the pragmatical semantic roles arising from the appearance and omission of the sentence's elements, in the case of Korean or Japanese, utterances where particles are used are more often recognized then utterances where particles are omitted.

<sup>7</sup> Here the prototype sentence means a grammatical sentence.

some sentence elements is appropriate in conversations of closely related people. From the standpoint of a speaker and a non-intimate addressee, it is very probable that such a way of talking gives the impression of a lack of politeness, if it is compared with the prototype sentence. In the following examples, whether subject omissions in conversations of people with a non-intimate relationship do not appear at all will be examined.

#### Example 4:

윤서연/ 태화 어디 있어요?

Yun/ (Tae Hwa ŏdi issŏyo?)

テファ、どこにいるんですか?

(Tae Hwa, dokoni irundesuka?)

나형구/ 그걸 왜 나한테 묻지? 결국 태화 때문에 이자리에 나온 거였군.

Na / (gŭgŏl woe nahante mudji? gyŏlgug Tae-Hwa ddemun-e i jail-e naon gŏyŏssgun.)

それをどうして僕に聞くの? 結局, テファのためにここに来たということな

(sore-o dōshite boku-ni kikuno? kekkyoku, Tae Hwanotameni kokoni kitatoiukotonanoka,)

윤서현/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Ø ① 가보겠어요.

(hal yegi-ga ŏbsŭnigga, gŭlŏm ø ① gabogessŏyo.)

話がないので、ここでø① 失礼します。

(hanashi-ga nainode, kokode ø ① shitsurei shimasu.)

(신화, SBS, episode 5, 2001)

In the above example 4 ① "对는 (jŏ-nŭn)/ 私は(watashi-wa)/I" is omitted. In this conversation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mutual interlocutors are not in an intimate relation. However, the speaker, Na Hyŏng Gu, addresses Yun Sŏ Hyŏn using the ordinary form, whereas the speaker Yun Sŏ Hyŏn uses the polite form towards the addressee, Na

Hyŏng Gu. Concerning the different ways of speaking of the mutual interlocutors, both of them are aware of their unequal relationship and they personally show their relation in that way. Unequal relation means that one person cannot frankly express his or her own feelings to the addressee, or it indicates that it is not within a familiar human relationship like a family or a close friendship where a person can talk at ease.

The Conclusion from the way Na Hyŏng Gu talks facing the addressee Yun Sŏ Hyŏn, Na Hyŏng Gu is senior<sup>8</sup> to Yun Sŏ Hyŏn and can understand from the course of the conversation that Yun Sŏ Hyŏn does not have enough trust in Na Hyŏng Gu to use the ordinary form towards him. Here there is the interesting phenomenon that although Yun Sŏ Hyŏn's utterance included polite level, a subject omission appears. Even if those sentences with subject omission are translated into Japanese, there is truly no impression of artificiality.

#### Example 5:

회장/ 해경이에게 남자가 생겼대. ø② 그것도 모르고 뭘수행하고 다녔다는 거야! Boss/ (Hae Gyŏng-iege namja-ga saenggyŏssdae. ø② gǔ gŏsdo molǔgo muŏl suhenghago danyŏssdanŭn gŏya.)

ヘギョンに男ができたらしい。 $\emptyset$  それも知らず、何を随行したと言っているのだ!

(Hae Gyŏng-ni otoko-ga dekitarashii. ø ② soremo shirazu, nani-o zuikō shita-to itteirunoda!)

이 실장/ 죄송합니다. 회장님! 🛭 ③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sup>8</sup> When making an utterance, due to the circumstances accompanying the speaker or the speaker's character he difference in the way of talking is more or less recognized, but a senior person or a person of high in employment rank within an organisation speaks with the ordinary form towards an inferior. Such a tendency can also be seen with the language customs of Japanese native speakers.

Lee/ (joisonghabnida, hoijangnim! ø 3 jugŭl joi-lŭl jyŏsssebnida, yongsŏhae jusibsiyo.)

申し訳ありません、会長! 🛛 ③とんでもない過ちをおかしました。お 許しください。

(mōshiwake arimasen, kaichō! ø 3 tondemonai ayamachi-o okashimashita. oyurushi kudasai.)

(그녀는 최고, KBS, episode 3, 2003)

Example 5 is a conversation between the head of a company and a subordinate staff member. In ② the subject "넌 (nŏn)/君は (kimi-wa)/you" and in ③ the subject "利가(je-ga)/私が(watashi-ga)/I" is omitted. Also in example 5 the conversation is based on the unequal ways of talking of the mutual interlocutors, as in example 4. These ways of talking like the aforementioned, denote a non-intimate relation among the mutual interlocutors. However, the omission of the subject "년(nŏn)/君は (kimi-wa)/you" 2 takes place in the utterance of the company's head, while the omission of the subject "利가(je-ga)/私が(watashi-ga)/I" ③ arises in the subordinate staff member's utterance. At this time the employee's utterance is exceedingly polite.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although the utterance is made with an omission, it does not give an impression of being an over-familiar intimate speech style to the addressee. In the case of 2 and 3, when translated into Japanese, there is a natural utterance sentence.

#### Example 6:

김유빈/ 죄송합니다. 사실 ø ⑧ 비서경력 없습니다.

Kim/ (joisonghannida, sasil ø 8 bisŏgyŏng ŏbssebnida,)

申し訳ありません。実は ø ⑧ 秘書経歴はありません。

(mōshiwake arimasen, jitsu-wa ø 8 hisho keireki-wa arimasen,)

치승현/ 이력서는 속일 수 있지만, 실력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나가보세요.
Cha/ (ilyŏgsŏ-nŭn sogil su issjiman, sillyŏg-ŭn sogil suga ŏbsŏyo. nagaboseyo.)
履歴書は騙せるけど、実力は騙せません。お帰りください。
(rirekisho-wa damaserukedo, jitsuryoku-wa damasemasen. okaeri kudasai.)

(황태자의 첫사랑, MBC, episode 2, 2004)

Example 6 is a situation of a job application interview. Since the two meet for the first time, they both use polite language towards the addressee. Although there is such a situation, in Kim Yu Bin's utterance a subject omission is seen.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by her utterance, the circumstances cannot be perceived as informal speech style at all. If the subject omission of example 6 8 is translated into Japanese, nothing inappropriate can be seen. Like the foregoing, looking at conversations within non-intimate relations tried to examine the circumstances of the subject omission. However, trying to look at these examples, in the case of using a polite way of talking,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isting recognition, namely that sentence elements are not omitted. If in the conversation the mutual interlocutors do not have an intimate relationship, it yields to subject omission. It could be said that in such examples, for Korean as well as for Japanese native speakers, the mutual interlocutors exist in the same room and since they promote the talk while they directly see each others existence, the subject "oneself" or "the addressee" 9 expresses already old information. In other words, talking to the existing

<sup>9</sup> Subject omission of the first and second person is simple, but in the case of the third person it is difficult to omit the subject. Even if there is a third person in the course of the conversation there are cases where the subject is omitted. However, the frequency of that, compared with first and second person subject omission, is much lower. One can say that the frequency difference depends on the speaker's recognition, that is to say, if the interlocutors talk directly while looking into the face of the addressee or not.

addressee, the conversation consists of the basis of that situation, which can be seen in front of the viewers' eyes. Therefore it can be imagined that the phenomenon of the omission of an existing subject can be seen in the language - because of the original being in front of the speaker's eyes. From the conversation analysis of the "intimate relations" and "non-intimate relations" one common feature can be found. In the case of Korean and Japanese, if the speaker is a person senior to the addressee or superior to the addressee by professional rank, not just in intimate but also in non-intimate relations it can easily be allowed that the second person as a subject is omitted.

In the case where the speaker is minor by age or position, the omission of the first person, who specifies himself as a subject, equally to intimate relations is possible in non-intimate relations, but different from intimate relations, the omission of the second person who specifies the addressee, as a subject is difficult to allow this in the case of non-intimate relation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 first person subject omission, in an intimate relation the speaker can be superior and inferior to the addressee. However, in the case of a second person subject omission, in the "intimate relations", it is possible that the speaker is superior or inferior to the addressee, but a tendency towards people in a superior position to the addressee can easily be seen. In non-intimate relations, the case of a speaker as an inferior is not allowed, but the case of a superior is allowed. In the case where the situations yield similarly as above to subject omission in both languages, one can think that when Japanese native speakers learn Korean, or Korean native speakers learn Japanese, the resemblance of both languages becomes a help for the learning of either target language.

## 3. Survey of subject omission among students

In the previous chapter, having looked at Korean conversation examples, tried to make a survey of subject omission in both languages. Here, taking Japanese and Korean as target languages—examine subject omission in both languages with sentences of students. Taking Japanese and Korean as target languages, taking the situation of suffering from an unexpected harm tried to examine how students of either language on an intermediate level express themselves under these conditions using the target language.

In consequence of that, while have seen in the prior chapter the resemblance of subject omission in Japanese and Korean, cases with differences can be seen. Because of that try to make a survey of the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resemblance in both languages concerning the omission of subjects. The results<sup>10</sup> are taken from the data analysis of a survey performed among both Japanese and Korean students.

## 3.1. Japanese native speakers learning Korean

How do Japanese native speakers as students of Korean express, by way of Korean as the target language, some harm which suddenly happens

<sup>10</sup>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between September and December 2004 with students in courses of Korean as major subject at two Japanese universities and accordingly with students of Japanese as a major subject at one Korean university. The survey was limited to classes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passive sentence forms. The survey method allowed the choice of several answers for every situation. Therefore, in the situation sentences,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can exceed the total number of the 66 Japanese native speakers as students of Korean and 51 Korean native speakers as students of Japanese respectively. A part of this survey's results was published (E. Park, 2005).

to? As the following sentences about a situation show, in the same cases the sentence patterns of the students are comprised of several different expressions.

Situation 1: Telling a friend about having realized that one's bag was snatched and one's purse disappeared in a train.

a.누군가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Someone stole my purse). nugunga-ga nae jigab-ŭl humchŏgassda.  $\bigcirc$ V 11

someone-Nom I-Gen purse-Acc steal-past. (11 students)

b.누군가에게 내 지갑이 스리 당했다<sup>12</sup>(My purse was stolen by someone). nugunga-ege nae jigab-i sŭri danghaessda.

S Agent

someone-by I-Gen purse steal-past. (13 students)

c.지갑을 스리 당했다(My purse was stolen).

jigab-ŭl sŭri danghaessda.

О V

purse-Acc steal-past (46 students)

<sup>11</sup> S = subject, O = object, V = verb, PP = prepositional phrase, Nom=Nominative, Gen=Genitive, Acc=Accusative, pass=passive, past=past tense

<sup>12</sup> When replacing "스리 당했다/seuri danghaessda" by a Japanese passive sentence, it can be translated by "Jbht/surareta", but basically cannot translate without changing the Japanese "-(ら)れる/-(ra)reru"-form into Korean. In "스리 당했다/seuri danghaessda" "스리 /seuri + 당했다/danghaessda (a transitive verb expressing the meaning of ",receiving' harm from someone"), being semantically "-される/-sareru/to get", is not identical with the Japanese passive sentence form. Concerning Korean passive sentences the morphologically active, semantically passive sentence very often the so-called "activo-passive voice". Furthermore, related to this activo-passive form, refer to Hŏ, Myŏng Ja (2004).

Situation 2: Telling a friend that someone stepped on one's foot in a train.

a.누군가가 내 발을 밟았다.
nugunga-ga nae bal-ŭl balbassda.
S O V
someone-Nom I-Gen foot-Acc step-past on.
Someone stepped on my foot. (9 students)

b.누군가에게 내 발이 밟혔다(My foot was stepped on by someone). nugunga-ege nae bal-i balbhyðssda.

Agent S V someone-by I-Gen foot-Nom step-pass-past on, (7 students)

c.발을 밟혔다<sup>13</sup> (My foot was stepped on). bal-ŭl balbhyŏs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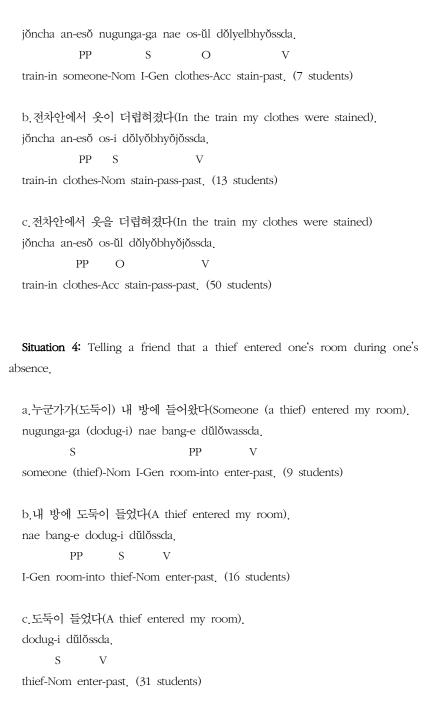
O V

foot-Acc step-pass-past on. (53 students)

Situation 3: Telling a friend that one's clothes got stained by someone in a train

a.전차안에서 누군가가 내 옷을 더럽혔다(In the train someone stained my clothes).

<sup>13</sup> In Korean passive sentences, according to the speaker's intention taking the object-marking particle "-을(-iil)/-를(-lill)", an utterance like "영화가 철수에게 발을 밟혔다/yonghee-ga chŏlsu-ege bal-ŭlbalhi-ess-da/Yong Hee got his foot stepped on by Chŏlsu" is sometimes seen. Due to the semantic role of the subject-marking particles"-이(-i)/-가(-ga)" and the object-marking particles "-을(-iil)/-를(-lill)", probably assumes that the speaker makes an utterance in order to put a focus on the "foot" but it essentially results from the expression aspect of the Korean passive sentence, that "-이(-i)/-가(-ga)" is expected to appear consequently. Without looking at distinct nuance being added due to the pragmatic meaning of that sentence, here only takes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as generally used in conversation, as the topic.



d.도둑을 맞았다(A theft happened to me).
dodug-ŭl majassda.

O V
thief-Acc happen-past. (15 students)

Situation 5: Telling a friend about having been bitten by one's own cat.

a.고양이가 내 손을 물었다(My cat bit my hand). goyangi-ga nae son-ŭl mulŏssda. S O V cat-Nom I-Gen hand-Acc bite-past. (8 students)

b.고양이에게 (내) 손이 물리었다((My )hand was bitten by my cat). goyangi-ege (nae) son-i mulliŏssda.

Agent S V cat-by (I-Gen) hand-Nom bite-pass-past. (4 students)

c.고양이에게 손을 물리었다(My hand was bitten by my cat). goyangi-ege son-ŭl mulliŏssda.

Agent O V cat-by hand-Acc bite-pass-past (57 students)

In the above example sentences, not the situation of example 4 "d. 도 둑을 맞았다 (dodug-ŭl majassda/a theft happened to me)", but the answer sentence "c. 도둑이 들었다 (dodǔg-i dǔlŏssda/a thief entered)" was unexpectedly often chosen, by which an influence due to the learners' mother tongue can be surmised. In other words, when thinking of the form of the Japanese passive, among the above example sentences only "空き巣に入られた(aki su-ni hairareta)" has the difference in the form "-を… (さ)れた/-o …(sa)reta". The result is, due to creating the sentence

#### 194 국제고려학 16호

while speaking, it becomes a fact that the learner is influenced a great deal by the mother tongue.

## 3.2. Korean native speakers learning Japanese

Regarding also Korean native speakers as learners of Japanese, try to survey how they express themselves through Japanese being the target language in each case.

Situation 1: Telling a friend about having realized that one's bag got torn away and one's purse disappeared in a train.

	a.だれかが私の財布をとった(Someone took my purse)。						
	dareka-ga wat	dareka-ga watashi-no saifu-o totta					
	S		O V				
	someone-Nom	I-Gen pur	se-Acc take- <sub>I</sub>	oast (4 stu	udents)		
	b.私の財布がと	られた。/私	ムの財布がする	られた(My	purse was	taken./My	purse
V.	was stolen)。						
	watashi-no saifu-ga torareta/watashi-no saifu-ga surareta						
		S	V/	S	V		
	I-Gen purse-Nom take-past/I-Gen purse-Nom steal-past (19 students)						
	c.財布をとられ	た。/財布を	とすられた(My	purse	was taken	ı./My purse	e was
st	stolen)。						
	saifu-o torareta/saifu-o surareta						
	<i>V</i> O	V/ O	V				
	purse-Acc take	e-pass-past/	purse-Acc s	teal-pass-p	oast (29 stud	dents)	

a.だれかが私の足をふんだ(Someone stepped on my foot.)。						
dareka-ga watashi-no ashi-o funda.						
S O V						
someone-Nom I-Gen foot-Acc step on-past (10 students)						
b.だれかに私の足がふまれた(My foot was stepped on by someone)。						
dareka-ni watashi-no ashi-ga fumareta.						
Agent S V						
someone-by I-Gen foot Nom step on-pass-past (9 students)						
c.足をふまれた((My) foot was stepped on by someone)。						
ashi-o fumareta						
O V						
foot-Acc step on-pass-past (31 students)						
<b>Situation 3:</b> Telling a friend, that one's clothes got stained by someone in a train.						
a.電車の中で、だれかが私の服をよごした(Someone stained my clothes in the						
train)。						
densha-no naka-de, dareka-ga watashi-no fuku-o yogoshita.						
PP S O V						
train-Gen inside-at, someone-Nom I-Gen clothes-Acc stain-past (25 studenst)						
b.電車の中で、だれかに私の服がよごされた(In the train, my clothes were						
stained by someone) <sub>o</sub>						
densha-no naka-de, dareka-ni watashi-no fuku-ga yogosareta						
PP Agent S V						
train-Gen inside-at, someone-by I-Gen clothes-Nom stain-pass-past (20						
196 국제고려학 16호						

Situation 2: Telling a friend, that someone stepped on one's foot in a train.

students)
c.電車の中で、服をよごされた(In the train, my clothes were stained)。
densha-no naka-de, fuku-o yogosareta.
PP O V
train-Gen inside-at, clothes-Acc stain-pass-past. (6 students)
Situation 4: Telling a friend that a thief entered one's room during one's
absence,
a.だれか(どろぼう)が、私の部屋に入った(Someone/A thief entered my roo
m) <sub>o</sub>
dareka (dorobō)-ga, watashi-no heya-ni haitta.
S PP V
someone-Nom/thief-Nom, I-Gen room-into enter-past (22 students)
b. 私の部屋に空き巣が入った(A sneak thief entered my room)。
watashi-no heya-ni akisu-ga haitta.
PP S V
I-Gen room-into sneak thief-Nom enter-past (19 students)
c.空き巣に入られた(A thief sneaked (into my room) (during my absence)。
akisu-ni hairareta.
Agent V
sneak thief-by enter-pass-past (10 students)
Situation 5: Telling a friend after being bitten by one's own cat.
has a What to a take the take to the take the ta
a.うちの猫が私の手を咬んだ(Our cat bit my hand)。
uchi-no neko-ga watashi-no te-o kanda.

S

O

V

we-Gen cat-Nom I-Gen hand-Acc bite-past (25 students)

b. うちの猫に私の手が咬まれた(My hand was bitten by our cat)。 uchi-no neko-ni watashi-no te-ga kamareta.

Agent S V

we-Gen cat-by I-Gen hand-Nom bite-pass-past (17 students)

c. **うち**の猫に手を咬まれた(My hand was bitten by our cat)。 uchi-no neko-ni te-o kamareta.

Agent O V

we-Gen cat-by hand-Acc bite-pass-past (7 students)

If we look at these results, a tendency for Korean native speakers as students of Japanese to apply the passive form of the mother tongue to the target language Japanese can be seen.

Concerning situations 1 and 2, a portion comparatively close to the expressions of the Japanese passive sentences can also be seen, 14 but even so the frequency with which the passive sentence appears with the form "- $\hbar$ '...( $\stackrel{*}{\sim}$ ) $\hbar$   $\stackrel{*}{\sim}$ /-ga ...(sa)reru" cannot be ignored. In the situations in sentences 3 to 5, there is a remarkable appearance of activo-passive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form "- $\hbar$ '...( $\stackrel{*}{\sim}$ ) $\hbar$   $\stackrel{*}{\sim}$ /-ga ...(sa)reru" accounts for a great majority. Nevertheless, in the case of the above situations, if talks using the form "- $\hbar$ '...( $\stackrel{*}{\sim}$ ) $\hbar$   $\stackrel{*}{\sim}$ /-ga ...(sa)reru", it becomes an unnatural expression in Japanese. In other words, such an expression is an expression aspect of Korean passive sentences. Therefore, Korean native speakers learning Japanese when making a sentence in Japanese are still influenced by their mother tongue.

<sup>14</sup> As mentioned before, since in Korean there is also the case when the object-marking particle "-을(-ŭl)/-블(-lŭl)" is used for focusing, it is difficult to judge clearly whether the sentence is built in accordance with the expression aspect of the target language,

## 3.3. Japanese Passive expressions

According to Morita (1990), Japanese passive expressions are classified into ten kinds from the side of the form, and Teramura (1982a) classifies the verbs themselves. It is difficult to gather and deal with all forms of passive classifications. Among those, will only look in detail at the "direct adversative passive expressions" where the transitive verb<sup>15</sup> becomes the predicate and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occur in close relation with the body, possessions, etc. of the subject. Therefore, try to take up only three of the ten kinds of passive forms of Morita (1990).

#### (Japanese Passive Forms)

- a. BハAニCヲ他Vレル形式(私ハ兄ニ手紙ヲ見ラレタ). B-wa A-ni C-o Vtrans-reruform(watashi-waani-nitegami-omi-rareta. /\*I the letter was seen my elder brother.)
- b. BハAニCヲ他Vレル形式 (私ハ母ニ/カラ仕事ヲ頼マレタ). B-wa A-ni C-o Vtrans-reru-form (watashi-wa haha-ni/-kara shigoto-o tanomareta\_/ I was asked by mother to perform a task/work.)
- c. CハAニ他Vレル形式 (私ハ犬ニカマレタ). C-wa A-ni Vtrans-reru-form(watashi-wainu-nikamareta/Iwasbittenbyadog).) (Morita 1990: 142-144)

In what way does the "-を /-o" which appears in Japanese passive expressions express the meaning? As mentioned before, what might be the reason that the form "-を…(さ)れる/ -o … (sa)reru" is used more often than "-が ... (さ)れる/-ga ... (sa)reru?". According to Itou, Tahara and

<sup>15</sup> According to Teramura (1982a: 244), there is a case like in "車に遊び場を奪われた子どもた ちのために/kuruma-ni asobiba-o ubawareta kodomotachi-notameni /the children got deprived of the playground by a car" when a transitive verb expresses an indirect passive. But mainly transitive verbs that form direct passive sentences are taken as the topic.

Park (1993: 110), in the Japanese transitive verb sentence, in the case the agent-patient-relation is marked based on case-marking particles "- $\hbar$ \$/-ga" and "- $\frac{1}{2}$ /-o" are used. The case-marking particle "- $\hbar$ \$/-ga" as nominative case particle does not only label the agent, the experiencer etc., but in the potential sentence and passive sentence it shows on the contrary the instrument, patient etc. On the one hand, the case-marking particle "- $\frac{1}{2}$ 2/-o", from the passive sentence, under any sentence pattern label, does not use a marking of the agent, in a simple sentence in the case of showing the relation agent-patient, it necessarily marks the patient. Consequently, if one can say about the meaning of the case-marking particles "- $\frac{1}{2}$ 3/-ga" and "- $\frac{1}{2}$ 4/-o" and the form of the corresponding "key of confidence", in simple sentences the case-marking particle "- $\frac{1}{2}$ 4/-o" more than the case-marking particles "- $\frac{1}{2}$ 3/-ga" is a particle that distinctly shows the relation.

This means that it can be said that here is the psychological effect that the speaker, by using "-龙/-o" in connection with direct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wants to communicate to the addressee, wherever practical, clearly some fact, in other words about harm suffered for direct by self. Even so, in the above passive form 'a', the owner of C being in the "-龙/-o"-case or the subject B are considered to be the patient, seen from B's side, which is an indirect passive expression. That means, B is the owner of the letter, but C is not a part of B's body, and he doesn't necessarily wear it. From such a recognition of the speaker, this case is considered to be an indirect adversative passive in terms of meaning. When trying to compare that form with the previously mentioned passive form of the situation sentences, one understands immediately the difference. Namely, all situation example sentences precisely express the harm that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subject. Certainly, like in "私の財布/watashi-no saifu/my

purse" and "私の足/ watashi-no ashi/my foot", the person who suffered essentially from that harm is dropped in the sentence, but in the case of the Japanese native speaker, a harm which oneself suffered from "the closest relative", separately without detachment, since it is the language behaviour that one recognizes from the same rank as oneself. At the point, where the harm is suffered in particular, like "足/ashi/foot" or "頭 /atama/head", in the case where a part of the person becomes subject, if the subject and the speaker are identical, the passive sentence form takes invariably the "-を/-o"-case and the subject is omitted. Mizutani (1985) gives the following explanations for such Japanese expressions. (The sentence) "ダレカガワタシノ財布ヲトッタ/dareka-ga watashi-no saifu-o totta./ Someone took my purse" is perceived by a Japanese native speaker as unnatural and one can hear the fact of having lost the purse is as if reported without a relation to the speaker. This means that the calamity which happened to oneself, told as "somebody else's affair" gives an incongruous feeling to a Japanese native speaker. "財布をとられ た/saifu-o torareta/the purse was taken", "足をふまれたashi-o fumareta/the foot was stepped on" etc., something which happened to oneself personally, the thought that it should be reported by self, exists within the Japanese native speaker's consciousness. Consequently, if says something like "ダレカガワタシノ財布ヲトッタ/ dareka-ga watashi-no saifu-o totta/someone took my purse", "ダレカガワタシ ノ足ヲフンダ /dareka-ga watashi-no ashi-o funda/someone stepped on my foot", it sounds unspiritual and in human in the absence of the speaker. One can say that with such are cognition there is quitea different expression aspect in Korean. Concerning form 'b', there are many cases that express an action which is actively influenced by me (patient) from the side of the addressee.

Therefore also verbs, which function as the predicate and verbs premising personal relations, are limited to transitive verbs denoting behaviour and conduct in the form of "from person A to person B". Also in a form like "負うた子に浅瀬を教えられる/ outako-ni asase-o oshierareru / literally: the shallows are taught by a child on the back = a wise man can be taught by a fool" an example can be seen, where we have a passive of a benefit (Morita 1990: 142-143). The above form 'c', "C-wa (Nom) A-ni (by) (direct) ... される /sareru" the victim's consciousness is at the basis and is a typical adversative passive sentence. Because of physical conduct a corporal damage as well as "F/mono/thing, Ih /koto/affair" as subject is also widely considered as phenomenal damage of direct action. When trying to compare this form also with the situation sentences, one can identify differences identical to the circumstances to form 'b', which means, when saying "ワタシハ犬ニカマレタ/watashi-wa inu-ni kamareta/I was bitten by a dog" the fact of a directly experienced harm can be recognised but in the following grade one can say that the location is not obvious concerning a most specific part. On the subject of Japanese passive expressions, like those in all forms, each has a characteristic, "-を(-が) …(さ)れる/-o(-ga)…(sa)reru" maintains an overall similarity of reporting a fact. The Japanese adversative passive form is chosen in the case when having suffered harm and the progress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harm is influenced by the relation (far or near) of the object experiencing the harm to the subject. If it does not express the adequate form, for example, although the hearer can comprehend semantically, it is perceived as unnatural Japanese. In particular, in the case that the subject directly experiences harm, there is no "-ħ\$/-ga", but it takes "-を/-o" and the subject is necessarily omitted. Also in Japanese there is the case where the construction "-が... (さ)れる/-ga ...(sa)reru"

taking a subject expresses an adversative passive sentence. On the subject of that expression, the position of the person who experienced harm, is not identical with the speaker in the case of a distant existence, namely, only when the speaker in an objective standpoint mentions a third person's harm. The difference in the expression aspect exerts a great influence on the appearance and omission of a subject in Japanese and Korean "direct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 3.4. Korean Passive expressions

Some adversative passive forms are used in Korean, look for each characteristic while applying them to the passive expressions of the situations. The examples in the Korean passive forms of 3.4. (A to E) below, by comparison, have only direct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but in practice the Korean passive expression in the case of "possible, benefitting, neutrality" is used in the same form. Here do not intend to go deep into the passive form, but since there is only a little development of the theory in the present academic world, want to touch on the common opinions about the scope of the Korean passiv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tandard viewpoints about the passive form which occur in Korean. For example, there is a standpoint which considers 16 only things with the affix "o]/I" as a passive form and there is also the standpoint which considers<sup>17</sup> all forms that produce the sino-korean verbs "-받다/-badda/ -당하다/ -danghada/ -되다/-doeda" etc., as passive The

<sup>16</sup> For details refer to Im, Hong Bin(1978) /Sŏ, Jŏng Su(1994).

<sup>17</sup> For a concrete discussion of "-되다(-doeda)/-받다(-badda)/-당하다(-danghada)" as passive forms refer to (Lee, Sang Ök, 1970), (Choi, Hŏn Bae, 1975), (Shin, Gi Chŏl/Shin, Yong Chŏl, 1975), (Lee, Gi Dong, 1976), (Yan, Dong Hui, 1979), (Shim, Gae Gi, 1982), (Woo, In He, 1993) etc.

reason that these opinions about such passive forms do not accord is that the "이/I" form is morphologically passive, while "-받다/ -badda/ -당하다/ -danghada/ -되다/-doeda" is considered to be lexically passive. Furthermore, in the case of the "이/I"-form, because the verbs, which can connect are restricted, seem to be extremely low in productivity. In the case where the "이/I"-form cannot be extablished, the passive meaning is expressed by the proper Korean verb "-지다/-jida". This "-지다/-jida", occuring in combination with a verb, is more often used in a lot of situations as passive rather than the "이/I"-form, since there are a few restrictions with other connecting verbs. The Korean passive does not appear in only one form, but can be expressed by means of several forms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special conditions for the low productivity of the forms which describe the above mentioned passive in the first place.

#### (Korean passive forms)

- A. -0]/i"-form
  - a.내(긴) 머리가 엄마에게 잘렸다.(My (long) hair was cut by my mother). nae (gin) mŏri-ga ŏmma-ege jal-li-ŏss-da.
  - I-Gen (long) hair-Nom mother-by cut-pass-past.
- b. (내)손이 낯선 사람에게 잡히었다((My) hand was seized by a stranger). (nae)son-i nadsŏnsaram-ege jab-hi-ŏss-da. (I-Gen) hand-Nom stranger-by seize-pass-past.
- B. -지다/-jida"-form
  - a.(내)안경이 그에 의해 깨어졌다( My glasses were broken by him). (nae)angyŏng-i gŭ-e-ŭhae ggea-ŏ-ji-ŏss-da.
  - (I-Gen) glasses-Nom he-by break-pass-past
- C. -되다"/-doeda"-form
  - a. (내)월급이 지난달부터 감봉 되었다((My) salary was reduced since last month).
  - (nae)wolgŭb-i jinandal-butŏ gambong-doe-ŏss-da.

(I-Gen) salary-Nom last month-since reduce-pass-past

D. -받다/-badda"-form

a. 버스의 급정거로 (내) 목이 충격 받았다Since the bus suddenly stopped, my neck bounced).

bŏsŭ-ŭ bŭbjŏnggŏ-lo (nae)mog-i chunggyŏg-bad-ass-da.

bus-Gen sudden stop-at (I-Gen) neck-Nom bounce-past

E. -당하다/-danghada"-form

a. 내 차가 도난 당했다.(My car got stolen).<sup>18</sup> nae cha-ga donan-dangha-ess-da.

I-Gen car-Nom steal-past

The "o]/I"-form in 'A' is recognized by Korean native speakers as the actual typical passive form.

This is equivalent to the Japanese passive form "-步" ... (さ) 차 중/-ga ... (sa) reru". In other words, in "내 머리가 엄마에게 잘렸다/ nae mŏri-ga ŏmma-ege jalliŏssda" in 'A.a' 리/li" not only expresses a passive form, but, at the position of "엄마에게 /ŏmma-ege(by mother)" the agent-marker "에게/ege" also occurs. As already referred to, if in 'A.a', denotes a fact, an object with the particle "-를/-lǔl" is used, like in the situation sentences, then in the case of a Korean expression it becomes necessarily an active sentence. In this case, if the mother's act is an annoyance for the speaker, semantically a recognition is reached by the activo-passive sentence which expresses harm. However, this form is also a truly active sentence. Therefore, since the verb "자르다/cut" can be in the "이/I"-passive form, it is necessary to express the passive by that very form. On the other hand, while also semantically denoting the adversative passive, there are types of verbs which cannot be in the passive form.

<sup>18</sup> In the examples 'D' and 'E' the sentences' form is active. Therefore chose a translation with "got" in 'E' in order to approach an "activo-passive" construction.

For example, "太郎が次郎を殴った/Tarou-ga Jirou-o nagutta/Tarou hit Jirou" is expressed by the Japanese passive sentence "次郎が太郎に殴られ ta/ Jirou-ga Tarou-ni nagurareta/Jirou was hit by Tarou". However, in Korean such a form cannot express the passive. "타로가 지로를 때렸다 /Taro-ga Jiro-lŭl ddaelyŏssda./ 太郎が次郎を殴った/ Tarou-ga Jirou-o nagutta./Tarou hit Jirou" becomes an active sentence like "지로가 타로에 게 맞았다 /Jirou-ga Tarou-ege majassda./ (次郎が太郎に(殴を)受けた)/ Jirou-ga Tarou-ni (naguri-o)uketa./Jirou received (a hit) by Tarou". In other words, by using "맞다"(a transitive verb meaning "being hit by someone") it denotes only "Jiro receiving harm". Then by using the agent marker in "타로에게/Taro-ege/by Taro", it can be a person called "타로 /Taro" distinctly limited to the fact that "지로/Jiro" was directly harmed by a person called "타로/Taro". In Korean, the activo-passive form is widely used. Therefore, the passive agent marker's role is important. As exemplary passive agents' markers there are "-에/-e/to", "-에게/-ege/by", "-에 의해 (서)/-e uihae(sŏ)/by means of", "-한테/-hante/by", "-부터/-butŏ/ from", but additionally "-(으)로/-ŭlo/at", "-에서/-esŏ/from", "-때문/-ddaemun /because of" etc. which can also be used in the same role. One can say that these markers considerably resemble Japanese agent markers. 19 In a case where the agent is specified, one of these agent markers, attached to the agent, thereby forming a noun phrase, functions as a marker of a passive sentence. The sentences which are formed by the kinds of verbs which denote harm by the meaning itself, are usually considered as lexical adversative passive. On the occasion of using these kinds of verbs, the

<sup>19</sup> For a concrete discussion of "-に(-ni), -から(-kara), -によって(-niyotte), -によって (-niyotte)", -のために(-notameni)", -のおかげで (-nookagede), -を通じて(-otsujite), -の間 (-noaida)" as agent markers refer to Teramura(1982b), Sunagawa(1984), Kudō(1990), Noda(1991), Nitta(1993).

function of the agent markers are particularly important. Furthermore, C, D, E etc. are also used as passive sentences due to the lexical meaning. However, in the case when "-받다/-badda" is used as a Sino-Korean verb in combination with a Sino-Korean noun, by the meaning of noun that is in front "-받다/badda" is divided depending on the meaning, i.e. whether it a harm or a benefit. This means, if the noun's meaning carries an annoyance to the subject, it denotes an adversative passive, if it is a benefit to the subject, it is considered as a passive benefit. The difference between "-당하다/-danghada" in E and "-받다/-badda" in D, like the aforementioned, is that D can have a semantic role in both fields of harm and benefit, but "-당하다/-danghada" in E can be used, only when entirely denoting harm. When comparing "-되다/-doeda" in C with "-받다 /-badda" in D and "-당하다/-danghada" in E, a slightly different nuance can be seen in the lexical nature of "-되다" itself. In general, the passive of the verb form "noun + -하다/-hada" shows a substitution of "-하다 /-hada/to do" with "-되다/-doeda".20 When this verb "-되다/-doeda" is used as an intransitive verb, there is the case when it is used as a suffix. When it is used as an intransitive verb, it has several semantic roles, but it is used as denoting a passive meaning from the following two meanings.<sup>21</sup> At first, combining "-되다/-doeda" with the particles "-이(-i)/-7](-ga)" etc., which are joined with the noun, there is a change in the state that is represented by that noun. Secondly, using "-되다/-doeda" together with the particle "-게/-ge", there is a change in the state on its own, or it performs an action. The important rules with such Korean passive forms is that there is either the so-called passive form of the

<sup>20</sup> For Sino-Korean (+verb )passive form details refer to (Hŏ, Myŏng Ja 2004: 56-58).

<sup>21</sup> See Shin, Gi Chŏl/Shin, Yong Chŏl (1975: 934) for reference.

passive sentence or the activo-passive form; even if there are both forms, it denotes a fact with the agent and the patient. Therefore, in the case of Korean, direct or indirect, in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the subject omission is restricted. The restriction of the subject omission thereby differs from the Japanese expression aspect.

## 4. Conclusion

In which the subject is omitted in Japanese and Korean tried to compare the situations. At first in conversations when trying to compare the cases of subject omission in both languages, a resemblance in the case where subject omission is shown can be seen. Japanese and Korean native speakers, when the mutual interlocutors directly talk to the addressee, there is a tendency to make use of subject omission. This means that, when Japanese and Korean native speakers are in a conversation, speaker and listener, namely when the interlocutors are facing each other in order to talk on a factual basis, it cannot always be considered as necessary that the subject - the first or second person is used. This is because the usual language customs of Korean and Japanese native speaker, the subject pointing at the speaker personally is omitted in utterances for the sake of a more compact conversation and this is perceived as a more natural dialogue form. Next carried out a survey of students, taking Japanese and Korean as their target language, who use "direct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In both languages subject omission is without resemblance and in each expression aspect of either language a difference can be seen. In other words, the "direct adversative passive sentence", being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versation sentence, due to the difference of both languages' passive expression in the case of expressing a similar scene, truly differing sentence expressions are searched for. In the case of the Korean expression aspect, a so-called "statement-form for the stress-of-an-affair"22 appreciates expressing an affair as it is in detail. Therefore, it become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subject is omitt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Japanese expression aspect, more than expressing the whole flow of the "affair", in that occurrence, taking on a tendency of a "statement-form for the stress-of-a-speaker"23, it describes the harm arising(happening) to the speaker in particular. To support that, mainly in Japanese through the relation(farandclose) of the subject and the affair, it uses an expression which emphasizes the standpoint of the speaker.

Therefore, when expressing that there is no direct to relationship the speaker, expressing a thing or an affair in a far distance (no himself)to the speaker, it takes the form of using the subject like in "-が ... (さ)れる /-ga ...(sa)reru" in the case when expressing a thing or an object being in a relation close to the speaker, it takes the form "--を ... (さ)れる/-o ... (sa)reru".

In this analysis it becomes clearer that there are cases in Japanese and Korean when subject omission has a resemblance and cases when it has not. Subject omission in Japanese and Korean, has been widely known about that there is a resemblance, but with "direct adversative passive sentences" the difference in subject omission has now been confirmed.

<sup>22</sup> In Mizutani(1985), such an expression aspect is the termed "fact orientation" (事実志向 性jijitsu shikōsei) but hier as a matter of convenience call a specific statement of the flow of affairs which occurred "statement-form for the stress-of-an-affair/事件重視陳述形".

<sup>23</sup> In Mizutani(1985), such an expression aspect takes the term "standpoint orientation" (立 場志向性'tachiba shikōsei) but hier as a matter of convenience call emphasizing the effect of the harm focussing on the damage, suffered by the speaker, "statement-form for the stress of the speaker/話者重視陳述形".

## Bibliographies

- 서정수(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 나무.
- 신기철·신용철(1975)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십재기(1982) 『国語語彙論』, 서울: 집문당.
- 양동휘(1979) 「국어의 피·사동」, 『한글』第166号, 서울: 한글학회.
- 우인혜(1993) 「"되다" 피동표현의 통시적고찰」, 『한양어문연구』第11号, 서울: 한양대학교 한양어문연구회.
- 이기동(1976)「한국어 피동형 분석의 검토」、『人文科学論叢 9』, 서울: 건국대.
- 이상억(1970) 「국어의사역·피동구문연구」, 『国語研究』, 서울: 국어연구회.
- 임홍빈(1978) 「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서울: 국어학회, 185-206.
- 최현배(1975)『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Hŏ, Myŏngja (2004) 'A comparative study of passive in Japanese and Korean,' Tokyo: Hitsuzisyobo.
- Ito, Takehiko · Tahara, Shunji · Park, Wonsuk (1993) 'Bun no rikai ni hatasu joshi no hataraki: nihongo to kankokugo wo chuusin ni,' Tokyo: Kazamashobo.
- Kudo, Yumiko (1990) 'Gendainihongo no Judoubun,' in Gengogaku Kenkyūkai(ed.) Kotoba no kagaku 4, Tokyo: Mugishobo, 47-102.
- Mizutani, Nobuko (1985) 'Nichi-Ei hikaku hanashi kotoba no bunpō,' Tokyo: Kuroshioshuppan,
- Morita, Yoshiyuki (1990) 'Nihongogaku to nihongo kyōiku,' Tokyo: Bonjinsha.
- Nitta, Yoshio (ed.) (1993) 'Nihongo no kaku o megutte,' Tokyo: Kuroshioshuppan.
- Noda, Hisashi (1991) 'Hajimete no hito no nihongo bunpō,' Tokyo: Kuroshioshuppan.
- Park, Eunjoo (2005) 'Nihongo to kankokugo no ukemibuntaishoukenkyu-higaiukemibun ni okeru goyou wo Megutte,' Iloekyoyuk 34, Busan: Hankuk-ilboneohakke, 103-124.
- Shogakukan Korean-Japanese dictionary, Tokyo: Shogakukan Publishing (1993).
- Sunagawa, Yuriko (1984) 'Ni ukemibuntoniyotteukemibun,' Nihongogaku 3.7, 76-87.
- Teramura, Hideo (1982a) 'Nihongo no shintakusu to imi,' Tokyo: Kuroshioshuppan.
- \_\_\_\_\_ (1982b) 'Gengo no Taishoutekibunsheki to Kijutsu no Houhou,' in
  - Teramura et al. (eds.) Kouza nihongogaku 10, Tokyo: Meijishoin,1-14.

# The Languages of Korean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Nam Sun Song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 1. Introduc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languages use by Koreans in the colonial period and right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 Imperial Japan imposed the Japanese language on Koreans as the primary language for Koreans. This policy made Koreans bilingual of Korean and Japanese. This resulted in making an mixed language use of the two languages as the Korean community inner code.

The paper also illustrates language education in Korean ethnic schools after Korea's liberation and focuses on the education at the schools run by Chongryun, which has played the primary role in maintaining Korean language use in Japan.

It is argued that there has been a new trend in which the functions of Korean language go beyond those of inner community language. It is also shown that Japanese people's sentiments of Korea and Korean culture swing between love and hatred.

# 2. The Languages of Koreans in Japan

Imperial Japan imposed the Japanese language on Koreans as the Japanese national language. The use of Japanese was encouraged and enforced in every situation at schools, Japan's attempts to diffuse their language among Koreans were not necessarily successful through the first decade of the 1900's, the 1920's and 1930's. Kumatani states that in 1942 the number of Japanese speakers did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ns (1997: 169). This ratio was far from sufficient to insure the full conscription of all Korean males as imperial soldiers.

In 1942, in preparation for the full conscriptio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ilt 2,699 "Special Training Stations for Adolescents" to compel young Korean men to take a one year intensive language course. Due to the desperate commitments by the Japanese authorities Koreans formed a bilingual society of Korean and Japanese where the latter was given the superior rank. In this process the Korean language was constant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language. By the time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the code-mixing of the two languages became so usual and frequent that many Koreans used Japanese even when they intended to speak or write in their mother tongue.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Japan continued their bilingual life after 1945 without giving Japanese language a superior status. Since the majority of Koreans who came or were brought to Japan had already been bilingual in Korean and Japanese, their linguistic transition to Japanese was rather fast and smooth albeit the Japanese spoken by Koreans had some indigenous features that were a result from interference with their first language. For instance, they were apt to replace the initial unrounded middle-high vowel with a rounded back

vowel as in /wuru/ for /uru/ 'sell'. The initial voiced consonants are devocalized as in /komu/ for /gomu/ [rubber] and voiceless consonants in a word are vocalized as in /wadasi/ for /watasi/ [I]. Initial alveolar voiced fricatives which do not exist in Korean are frequently replaced by alveolar voiceless fricatives as in /subon/ for /zubon/ [pants]. It may be interesting to know that Korean newcomers employ a different strategy for the last case. They allocate alveolar affricates for alveolar fricatives not found in the Korean language as in /cubon/ for /zubon/ [pants].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by the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s tends to be confined to communication among them. They employ mixed codes that have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mixed codes used in the peninsular. The following examples are from Kim Misun (2003: 48-49). The underlined is Japanese.

- (1) <u>honde</u> yekwuan <u>tomari</u>-hamen pang hana pilese haepangtoetorok kekeyse saltaka de taephan naelyewuacwugey.
  - 'Then I stayed in a hotel rented a room and lived (there) until liberation, and came down to Osaka.'
- (2) <u>chikaitoko yakara, tamaniwa asobini oidena</u> key. 'Since it's near, come to see us from time to time, right?'

In example (1) Japanese elements are embedded in a Korean syntactic structure while (2) is an example in which a Korean sentential ending particle key is attached to a Japanese sentence.

One frequently used mixed-form is the addition of the Korean verb ha [to do] to the continuative form of a Japanese verb or an adjective verb as in *tomari-hada* [stay over a night], *aimai-hada* [be ambiguous], *kime-hada* [to decide]. These forms were widely used in the Korean homeland and Koreans living in Japan simply continued using them. This

word formation strategy is so grammaticalized that they replace Korean ha with Japanese su [do] creating such words as kime-suru [to decide], odori-suru [to dance], kangae-suru [to think], etc., despite the availability of existing Japanese words kimeru, odoru, kangaeru, etc.

Three reasons might be raised for the use of these mixed codes. First, these mixed codes were already acquired by Koreans in their homeland. The second possible reason is their shortage of knowledge and skills of both in th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he third most important reason might be that they employed the mixed codes as part of their inner-community language to express their fellowship and closeness.

The first language for the second generation and thereafter is Japanese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monolingual in Japanese except for those who studied at Korean schools or had a chance to study in Korea. Second generation Koreans living in Japan might learn some Korean through contact with first generation Koreans. However, their knowledge is confined to greetings, and basic vocabulary for family members, relatives, daily necessaries, foods, etc.

# 3.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Ethnic Schools

As aforementioned, the majority of Japan-born Korean speakers are those educated in Korean ethnic schools. Fujii (1999: 140) and Ueda Kouji (2001: 122) quote that the Korean speakers number approximately 160,000 to 170,000, albeit there is no way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number. Pak Sam Suk writes that Korean school graduates s are estimated at around 100,000 as of October 1996 (1997: 72). They more or less have a command of the Korean language and constitute the

mainstream Korean speakers in Japan. This section illustrates language education in Korean ethnic schools and focuses on the education at the schools run by the Chyongryun which has played the primary role in maintaining Korean language use in Japan.

## 3.1. The League's Korean School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Koreans in Japan formed *Caeil cosenin yenmeng* [the League of Koreans in Japan], hereafter the League. The major purpose of the organization was the repatriation of all Koreans currently living in Japan. Their activities at first included demanding compensation for Korean workers forcibly taken to Japan as well as the fair distribution of food rations to the Japanese and Koreans by the occupational forces. The leadership of the League was controlled by communists and leftists and they formed close ties with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Anti-communists organized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Japan [Mindan]. The League brought togethe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Koreans living in Japan. Ōnuma points out that the League received support from 60 to 90 percent of Koreans living in Japan (1980: 241 n87).

As the peak of repatriation passed, the main concern of the League shif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lives and education of Koreans remaining in Japan. The League integrated Korean schools which had been built by individual efforts and constructed new schools throughout Japan upholding the slogan "with money you can afford, with strength you are strong and with knowledge you are educated." By October 1946, the League built 525 primary schools catering to 42,000 students, four junior high schools servicing 1,180 students and ten adolescent schools

with 714 students total (Lee 2006: 219-2220). These Korean ethnic schools were welcomed and supported with enthusiasm by the majority of Korean communities in Japan. By October 1947, 541 elementary schools, seven junior high schools, eight high schools as well as twenty-two adolescent schools, came to existence (Inokuchi 2000: 149). The educational orientation of the league was nationalist rather than communist.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schools was to restore Korean culture and history and improve Korean language skills all of which had been suppressed under the imperial rule.

The allied occupational forces were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chools. They regarded the existence of the Korean ethnic community as a source of social conflict (Inokuchi 2000: 149). They claimed that Korean children must be included in Japanese compulsory education. The official reason was that SCAP regarded Koreans in Japan as Japanese nationals. However, the real reason was their definition of Koreans schools as being "hostile educational institutions" run by a communist organization (Shin 2005: 275). At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intended to approv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chools as "miscellaneous schools" (Lee 2006: 220-221); a category for schools whose educational credentials did not fulfill the entry requirements into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changed its policy in accordance to the policies of the allied occupational forces and on the 24<sup>th</sup> of January 1948, issued the order, that all Korean children must attend schools accredi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order was followed by a series of school closure orders issued by several prefectures. This resulted in intense anger from Koreans and their Japanese supporters. Large protests and demonstrations spread all over Japan which culminated in the "Kobe and Osaka Education Struggles"

(Incidents)." In Kobe, the US military commander proclaimed a state of emergency. This is the only proclamation of an emergency state issued during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Nishimura 2004: 22). In Osaka, 30,000 outraged Koreans gathered. They were confronted by the police force and consequently a sixteen-year-old boy was shot to death. In September 1949, the Japanese government, backed by SCAP, applied the order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anti-democratic" and "terrorist" organizations to the league and in the process the league dissolved. Korean schools were simultaneously ordered to clos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jority of Korean schools built and supported by Mindan were closed by the same order. This indicates that what annoye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occupation authorities was not only the threat of communism but the very existence of undesirable ethnic minority groups.

Until the suppression of Korean schools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occupation authorities in 1948, the League played the major role in promo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schools run by the League was primarily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history, as well as to develop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o ensure that young Koreans in Japan were prepared for repatriation. According Kim Dong-Ryong, the mission of the schools was "to train Korean children in Japan to be Korean nationals who are able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new democratic country" (2002: 32) The basic content of the education that appears nationalist with strong socialistic flavor was stated as follows:

(1) To teach true democracy under which the entire nation can have a better life.

- (2) To foster love of Korea based on the scientific view of history.
- (3) To develop a unique sense of admiration for the fine arts and creative activities based on everyday life experience.
- (4) To develop a respect for labor through everyday experience and learning.
- (5) To make every effort for research in science and the improvement of skills
- (6) To encourage the investigation of social relations between science, labor, and economic activities
- (7) To thoroughly conduct the co-education of both genders. (See Kim Dong-Ryong 2003: 33)

Immediately after its formation, the League actively worked on recruiting editors for Korean language and history textbooks and manuals for teacher training.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irst Korean language textbook, *Hangul kyopem*, edited by Lee Jin Gyu was published one month after the foundation of the League, and followed by a series of independent textbooks (See Kim Dong-Ryong 2002: 35-53). The first teachers training institute was founded in Osaka in September 1946. The institute offered a seven-month to one year course to tra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December 1947, the League founded the Central Teachers Training College in Tokyo to train and provide recurrent education for Korean school teachers. These colleges continued producing teachers for Korean schools until the schools were closed in 1949. The total number of the student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cited by Kim Dong-Ryong (2002: 65) was 43,344 in October 1946, 49,688 in October 1947, 57,204 in April 1948, and 36,890 in July 1949.

After the closure of Korean schools and the dissolution of the League of Koreans in Japan in 1949, ethnic education was succeeded to and continued in much more informal manner.

### 3.2. Chongryun's Korean Schools

Chongryun was founded in May 1955, as an organization for overseas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s goal was to unify all of the Koreans living in Japan and direct them towards the cause for the prosperity of North Korea. The former leftist organizations, the league and Minjun, committed themselves heavily in the democratization of Japan and the revolution in Japan. Chongryun, unlike the league and Minjun, did not involve itself in Japanese politics but strived to raise the consciousness of its members and affiliates to devote themselves to North Korea. From its own self-definition of an organization for North Korean overseas nationals, Chongryun seems to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wards directing Koreans in Japan to demand social and political rights such as those that would equate having citizenship. In fact, Chongryun, unlike the South Korean supported Mindan, has consistently been opposed to the Koreans' demand for suffrage in Japan. It was also indifferent to the Koreans' movement to refuse fingerprints on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s in the 1980's.

Chongryun established a nationwide organizational network. It built more than 150 Korean schools including nursery,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and one university. The educational policy put forth by Chongryun was "to conduct democratic ethnic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Koreans in Japan by means of instruction in the language of our homeland, to overcome the colonial slavery concepts and the feudalistic convention, to eliminate illiteracy, and to work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Shin 2005: 277)." Democratic ethnic education, according to Chongryun's definition, is education that is ethnic in its form and democratic in its content. The policy was underpinned

by a clear principle: to raise children who are loyal to North Korea as the new generation.

Ryang writes that in the 1959-1960 academic year, there were a total of 30,484 enrollments in Chongryun schools (1997: 24). By April 1961, the number had increased to 40,542, excluding about 10,000 students who we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 number decreased thereafter. The number of schools has also decreased to currently number 121. The total number of current students is, in accordance to Chongryun's official report, about 20,000. Chongryun has provided Japan-born Korean children with a highly effective bilingual education. Without the commitments of Chongryun,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language among resident Korean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Korean schools run by Chongryun are acknowledged by the Japanese education authorities and titled, kakushyu gakkou, a miscellaneous school which is the status generally granted to non-academic, skill-oriented schools such as driving schools, language schools, etc., whose educational credentials do not constitute fulfilling th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s miscellaneous schools they are not eligible for the benefits enjoyed by Japanese schools, including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Chongryun's Korean schools in return are exempted from regular inspection and other forms of intervention by Japanese education authorities. Therefore they have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in stipulating the curriculum content. Textbooks are written and edited by Chongryun's school teachers and printed by Chongryun's publishing company. The editorial committees belonging to Chongryun's educational department are in charge of the editing process.

The curriculum of Chongryun schools largely overlaps with that of

Japanese schools (See Ryang 1997: 25). It includes Japanese, mathematics, English, science, history, geography, and physical education. The main difference is that Chongryun schools teach "ideological education subjects" or "loyalty education subjects" such as the "childhood of Father Marshal Kim Il Sung" and the "revolutionary activities of the Great Leader Kim Il Sung."

All subjects except for English and Japanese are taught in Korean. Students are encouraged and required to use Korean, not only in class but during breaks, lunch time, and while involv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belief that the language is exactly the nation, which is based on the teachings of the former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Chongryun and the resident Koreans affiliated with it have formed a rather closed community in Japan. Korean is Chongryun's "official" language and is used at all meetings, conferences, seminars, art performances and events. As Irina Kim, I points out,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ongryun's schools is, therefore, indispensable for continuity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of Chongryun (1994: 187).

The majority of students at Chongryun's schools are now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Koreans whose first language is Japanese. They speak Japanese at home with their parents. Most teachers graduate from Korea University founded by Chongryun. They are Japan-born, second generation and third generation Koreans. This poses a problem for the Chongryun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is limited in schools where the students are hardly exposed to native-spoken Korean.

Since the children enrolled in Chongryun's elementary schools are monolingual in Japanese, lessons are taught in a mixture of Korean and Japanese for the first several months. The ratio of the hours devoted to Korean in the curriculum is high. It occupies 26,6percent of the total class hours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education (Kim Dong-Ryong 1991: 128). The ratio is particularly high in the initial years of elementary education, first year being 43.8percent and 37.5 percent in the second year.

Strong glamorization of the language of the motherland is seen in Chongryun's Korean community. The Korean language is always described as something Koreans living in Japan were deprived of and that they must reclaim or restore the Korean language at any cost, while Japanese is something imposed on them and something they must overcome. In the schools, Korean is 'good' while Japanese is 'bad'.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s constantly associated with the restoration of ethnic pride and nationhood as Koreans while speaking Japanese is associated to the continuation of colonial slavery. Thus having to use both Korean and Japanese has been described in terms of victimization and shame. In these contexts the mastery of Japanese language by Korean children as their first language, which is an inevitable result, is taken in Chongryun to be abnormal.

Prior to the editing of new textbooks in 1983, Korean language education had been carried out with the principle that Korean is their mother tongue and Japanese is a second language. During the period, textbooks for Chongryun's schools were modeled on North Korean textbooks and teaching manuals. Japanese language was taught in Korean in class. This means that until the 1980's ethnic education as well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Chongryun had been implemented with a fictitious presupposition that residency of Koreans in Japan was temporal and that all Koreans would sooner or later be repatriated to their

reunified homeland.

Since late 1970's partial reforms of the curriculum have been made on several occasions, shifting from repatriation-oriented education to settlement-oriented education. In 1993, Chongryun made an extensive reform of its school curriculum (See Ryang 1997: 51-61). Under the new curriculum, the ideological education subjects disappeared. The new curriculum covered the broader issues that were missing from the former textbooks. The subjects of history and geography that had previously dealt only with North Korea, Eastern Europe, and African countries now cover Japan and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new textbooks refer to Christianity and other major religions. Social study subjects now cover more Japanese politics and the economy. Japanese and English textbooks include American modern literature, Greek myths, and Japanese folklore and classics. These reforms should not be perceived as an indication that Chongryun gave up its educational policy to raise Korean children in Japan as the new generations of North Korean overseas nationals who are loyal to their homeland and its leader.

The major shift included in the ten-year reform program launched by Chongryun in 1993, emphasised teaching the spoken version of Korean. The old Korean language textbooks taught the formal written language with dominant ending forms, *ida* [to be] and *handa* [to do]. This hindered the students from acquiring colloquial Korean with a variety of sentential endings. According to Ryang (1997: 57), in the new textbook for the second year of elementary school, fourteen out of twenty-eight lessons are dedicated to informal, spoken forms while in none of the thirty-five lessons of the old edition were these dealt with. The lessons concentrate on colloquial Korean with ending forms appropriate for children to use among peers such as *iyeiye* or *ya* [to be] and *haeye* or *hae* [to do].

This shift seems to have two implications. First, it took nearly forty years for Korean nationalism in Japan to acknowledge the simple fact that the mother tongue of Japan-born Koreans is Japanese and it is perfectly "normal." In 1983 Chongryun officially defined the Korean language as the second language for the students of its schools. However, their practical approach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did not change very much. In the content, as well as the teaching metho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inued to be carried out as kwuke [the national language] education as it is done in Korea where children do not have to learn colloquial Korean in school. The target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s obviously the mastery of the written language. Since the discourse that the Korean language is the mother tongue of Koreans in Japan has been so predominant, Chongryun-affiliated intellectuals seemed reluctant to accept the apparent reality. Their reservation can be seen in the following statements: "...most [children] start learning Korean which should have been their mother tongue in ethnic educational institutions... in an ethnic education school you can see children learning Korean as if it were a foreign language for them ... they learn Korean as their second language after having mastered Japanese which should have been a foreign language for them (Kim Dong-Ryong 1991: 127-128)." "Most students enrolled in Korean schools learn Korean as if it were a foreign language (Shin Chang Soo 2004: 277)." For these Chongryun-affiliated intellectuals, acquisition of Japanese as the first language by Japan-born Korean children is a lack of ethnic authenticity and an unacceptable state of affairs

The second implication of the 1993 reform should be evaluated more carefully and with some reservation. As mentioned earlier, Korean language functions as an inner language to maintain Chonryun's isolated

community. Kim- I (1994) and Ryang (1997) provide detailed illustrations of the Korean language used by Chongryun-affiliated Koreans and the students of Chongryun schools.

First, the Korean language of Chongryun is limited to the settings in which it is used. It is mainly used within the schools and offices of the organization. Outside of class, students switch to Japanese. They speak Japanese at home even if their parents are graduates of Korean schools.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at the Korean language is limited i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Korean is reserved for referring to matter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North Korea. For Chungryun affiliates Korean is the language used in Chongryun's public life while Japanese is the language for private life. Korean vocabulary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life and North Korea, therefore survive while words irrelevant to the organization do not take hold in the memory and are replaced by the corresponding Japanese words. Korean vocabulary is a closed set of words concentrating on political expressions, while Japanese vocabulary is open-ended. The Korean language used by schoolchildren is heavily influenced by Japanese. The Tokyo- and Osaka-born Korean heritage children speak Korean with Tokyo- and Osaka-Japanese accents respectively. Outside school, they mix Korean and Japanese inventing pidginized Korean exemplified as follows:

<u>korewa</u> wulitul-uy honno kimochi imnita (Japanese underlined) "This is just a token of our gratitude."

The speech of the Korean language by Chungry affiliates and the students of Chungryun schools is also is marked by the dependency on the written and formal forms. It does not have the variety of Korean

colloquial styles spoken in the homeland. As aforementioned, only a few forms are available for sentence endings.

The Korean language spoken by Chongryun school children is an application of the formal written language to speech. They have also developed highly situation-dependant mixed versions of Japanese and Korean. For the purpose of inner organizational community communications these pidginized forms are sufficient and even effective. An optimistic interpretation of the reform in 1993 is that Chongryun decided to reformulate its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the education for the communication in its closed community to teaching Korean to communicate with the broader Korean-spoken community including th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 3.3. South Korea-affiliated Korean schools

There are four Korean schools in Japan which were founded more or less with support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indan: Tokyo Korean School founded in 1954 (a junior high and high school), Kunkook School founded in Osaka in 1946 (a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Kunkang School founded in Osaka in 1946 (a nursery,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and Kyoto International School in 1947 (a junior high and high school). Although these schools maintain some associ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indan, the closeness of their relations varies

The Tokyo Korean School was founded in 1954, and was established within the building of the central headquarters of Mindan. It served as a Korean ethnic school for Mindan-supported Korean residents in Japan. It was acknowledg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55, as a

miscellaneous school which is the same categorization awarded to Chongryun's schools. In 1962, it was fully accredi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the South Korean economy grew, more children of South Koreans working in Japan were temporarily enrolled, and have surpassed the number of resident Korean students. The current ratio of the resident Korean students is less than 10 percent. Most subjects are taught in Korean and they arealigned closely with the curriculum specifi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us the current purpose of the school is to provide sojourning Koreans with the same education that they would receive in South Korea, rather than implementing ethnic education for resident Koreans.

The other three schools are ethnic schools that survived the 1949 suppression of Korean schools by SCAP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hey are all fully accredi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have a status equivalent to Japanese schools. The history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unkook School reflect a typical pursuit of Korean ethnic education through being integrated into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The Kunkook School was founded in the year following Korea's liberation to "train personnel useful for the democratic fatherland." It survived the 1949 suppression by applying for full accreditation by Japanese education authorities right after the suppression albeit the application was approved in 1951. To be accredi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eant that the school curriculum had to be oriented and conducted alongside the curriculum taught in the Japanese schools. The lessons have to be taught in Japanese, except for in Korean language class. The founders of the school decided to pursue ethnic education to the extent that was allowed in Japanese private schools. In other words, the school forfeited full-scale ethnic education, as that in Chongryun

schools, to obtain a more legally secure status in return. The number of the students continued to increase and peaked in 1967 with 1,234 in total. Then it decreased by one fourth in 1977. The reason for the decrease might be that to the eyes of those who were keen about maintaining ethnic identity, as well as the language, Kunkook School looked incomplete and partial, while to the eyes of those who wanted their children to be assimilated into the Japanese society it looked too ethnic.

Since its foundation, the Kunkook School maintained its neutrality rejecting a one-sided tie to either Korea. However, it declared to have official affiliation with South Korea and began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hen the student number hit bottom in 1977. It also accepted Korean language teachers dispatc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he formal affiliation with South Korea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reputation of the school among Koreans in Japan. The student number has gradually recovered since 1979. Students whose parents are newcomers to Japan or sojourning Koreans are increasing. Their ratio in the nursery is about 50 percent, 40 percent of the elementary school and 30 percent in the junior high school (Maeda Tadahiko 2005: 236-240).

# 4. Linguistic Nationalism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recent Western contexts, the assertion that nationality is based on descent and language does not enjoy broad support, as typically seen in Kohn (1945: 13): "nationalism comes into existence only when objective bonds delimit a social group. A nationality generally has several potentially unifying elements; very few have all of them. The most usual of them

are common descent, language, territory, political entity, customs and tradition, (but) none of them is essential to the existence of nationality." If only language were to be considered as the sufficient ingredient of nationalism (defined as a politically mobilizing and state-seeking ideology), there would be several thousand sovereign states, rather than the existing two hundred (Safran 1999: 78). It is not the consciousness of having a common language that makes for nationalism but the growth of nationalist sentiment that endows language with political importance. Alfred Cobban says that the common consciousness of being a nation was derived far more from living together and sharing common ideals than from any racial, linguistic, or cultural inheritance (1970: 121-122).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has been conducted under pressure from the three parties: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ere language, descent, and nationhood are equal. The three parties, more or less, have dealt with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with a black-white dichotomy, promoting the idea that you are "one of us" or you are "one of them." Nationality (North Korean, South Korean or Japanese) and language have been seen as key indicators of an individual's positioning with respect to this dichotomy. The identities of human beings in modern societies are complex. People live their lives by constantly changing their roles and expectations, and by constructing complex identities in which ethnicity is but one component, and not always the dominant one. However, the black-white dichotomy imposed by surrounding powers has pushed to the side the numerous variations and options that should have been available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Japanese authorities and leaders, who have faith in the discourse of Japan being a homogeneous single nation-state where one's mother tongue is automatically one's national language, have not been imaginative enough to realize that they have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in their territory whose mother tongue is not compatible. Their attitudes toward Korean ethnic education have been either suppressive or indifferent. They suppressed Korean ethnic schools closing them by force in the late 1940s. They have treated Korean schools run by Chongryun as if they did not exis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funded Chongryun schools which have been run by Korean heritage tax payers. Recently the situation has changed slightly, as some local governments have decided to aid to Korean schools in some ways. In Kanagawa prefecture, for instance, the allowances from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Chongryun school students are only one quarter of those for Japanese private school students (Ryang 1997: 24). Hitherto not a single yen has come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s central funds.

The ethnic identity of "self" is constructed in contrast with an ethnic one of "others". Many Japan-born Koreans visit South Korea to learnthe Korean language. Due to the language barrier they have had the common experience of feeling more alienated in their homeland than in Japan, while in Japan they feel they have Korean ethnic identity. Japan-born Koreans are viewed and illustrated in South Korea either as deplorable people who lost their language and identity or the laudable ones who continue to strive to restore their identity. In either case, residents Koreans are portrayed in terms of being victims. The following remarks made by a Japan-born traditional Korean dance performer paints a good picture:

Taking a taxi and exchanging a few words with the driver, he often asks, "Have you been abroad for long?" or "Are you from Japan?" The taxi drivers carrying various customers instantly tell correctly where their customer is from and how old he/she is. I reply, "I am *caeil kyopho* [Korean Japanesel." Then he says "You are good at our language," However, in this country [Koreal"you are good at our language" instantly switches to "Aren't you Korean? How can you be so bad at Korean?" depending on the occasion. It is a well-worn phrase for picking on Korean-Japanese. They don't hesitate even to say "Go back to Japan." (Chsung Daekyun 2001: 127)

Congruency of the South Korean speech community and the South Koreans' faith in the discourse that their nationhood lies in their language hinder them from understanding the cost and the time Japan-born Koreans spend to learn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the Chongryun has been carried out under the heavy influence of linguistic nationalism in North Korea. It has been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 nationalistic views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orean nation. The discourse that Korean is beautiful, rich, and superior to other languages prevails in Chongryun schools. Students are often taught without theoretical or practical grounds, that the sound system of Korean is so wide-ranged and abundant that Korean speakers can correctly produce any sound of any language of the world. Since nationhood is supposed to lie in an individual's descent and language, someone lacking in either could, therefore, not be Korean. Equating the national language with nationhood entails that the majority of resident Koreans who are monolingual in Japanese are not full-fledged Koreans. It is advocated Chungryun that they can 'become' Korean only through the endeavor to learn Korean language. In other words, the Chongryun Korean language

classes are considered a sacred ordeal whereby one can restore one's deprived ethnic identity and become a genuine Korean.

In Chongryun Korean schools, Korean children going to Japanese schools are often described as pitiable young people possessed by ethnic nihilism. They are often called "half Koreans" or even "fake Koreans." This indicates the process in which the nationalism of the host country and that of the home country is copied by a minority group to reproduce discrimination within the community. A well-known Japan-born Korean writer, Yang Suk II, remarks that patriotic ethnic consciousness of Koreans in Japan is measured by his/her competence in the language of motherland.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hat the pressure to use the heritage language may be strong where languages are tied to ethnic identities and are perceived as threatened. In such cases, not knowing the language can be a source of shame, embarrassment, or criticism. Maeda Tatsurou (2005) interviewed a group of Japan-born Koreans who managed to acquire considerable command of Korean language without going to Korean schools in Japan. Some went to South Korea to learn the language while others managed to learn Korean in Japan His analysis shows that they felt that they could not be a genuine Korean but for the good command of the language. The ideology that equalizes nationhood with language acquisition was their main motivation for learning Korean. It is suggestive that his interviews with those who do not have any knowledge of Korean shows that Koreans in Japan share the belief that ethnic identity is represented by language and many of them feel ashamed of not being able to speak Korean. The discourse that nationhood is language prevails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regardless of their Korean language competence. This ideology has been a strong motivator for those learning Korean and at the same time has generated not only a constant pressure on Japan-born Koreans but also a sentiment of shame.

#### 5. Love and Hatred

In the 1990s and the early years of the 21<sup>st</sup> century the impression of South Korea held among the Japanese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The Seoul Olympics in 1988 removed the image of South Korea as a state of military dictatorship. Joint sponsorship of 2002 Soccer World Cup generated a sense of consensus between the younger generations of both Korean and Japanese. Korean pop culture became popular throughout Japan. Together, these events assisted to change the context in which South Korea is viewed in Japan. South Korea used to be referred to in terms of civil war, military conflicts and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It is now mentioned alongside the names of famous pop singers and soccer players, new fashion trends and food from the Kangnam area of Seoul, and even the location where the main characters of a TV drama first met.

The new trends have inspired many Japanese as well as resident Koreans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Forty-two Japanese high schools taught the Korean language in 1993. This number increased to 159 in 1999, and 219 in 2003. In 2012, 318 high schools taught the Korean language. In 2003, 334 universities out of a total of 702 Japanese universities started Korean language courses. The number increased to 450 in 2010. There are two majo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s in Japan.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is administered by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ssociation,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established by resident Koreans. The first test was administered in 1993 with 2,010 candidates sitting the exam. The number kept growing almost for two decades to reach 25,189 in 2011. The other major test is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sponso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first TOPIK in Japan was taken by 298 people in 1997. The number had continued to increase to reach 18,143 in 2012.

While *Hallyu* attracted many Japanese, antipathy silently grew. In the 1990s and in the early 2000s there was a rise of nationalism in Japan. Sasada points out that the external threats including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he ever-growing claims of military and economic prowess of China opened a way for Japan to make a shift from its traditional postwar pacifism to nationalism (2006: 109).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a more assertive national defense capability and an uncompromising stance toward its hostile neighbors enjoyed increasing support amongst the Japanese public. North Korean kidnapping of Japanese citizens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and South Korea were the driving factors for the shift. This political climate caused a fundamental change in public opinion and nurtured negative views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China and Korea.

The territorial disputes, the campaigns to make a new history textbook initiated by Japanese conservative intellectuals in the mid-1990s, as well as the Prime Minister of Japan visiting Yasukuni Shrine, which commemorates "Class-A war criminals", fueled anti-Japanese sentiments in South Korea and China. As the antagonism toward Japan grew in China and Korea, the Japanese in turn countered with a renewed vigor for nationalism. Numerous nationalistic messages started to appear on websites referring to the anti-Japanese demonstrations in China and South Korea. Many of

these messages were xenophobic toward Koreans. The World Cup Soccer Tournament, jointly sponsored by South Korea and Japan, showed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Japanese sentiments toward Korea. The Japanese mainstream media conveyed only a positive picture in which the people of both nations worked together by assisting each other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event and even provided support for each sponsor's team. Meanwhile, the Internet forums were full of anonymous messages condemning the 'unfair' play of South Korean team and unbridled bias of its supporters. The love and hatred of Korea coexisted and the pendulum was swinging toward the latter.

It did not take long before the antagonism of Korea amongst the Japanese was directed to resident Koreans. At the beginning of 2000s the hatred on the Internet spilled into streets. Demonstrations by ultra-right activists using hate speech and intimidation were repeated in the central Tokyo neighborhood of Sin-Okubo, which had come to represent a symbol of Korean pop culture in Japan. The demonstrators waved Japanese flags and carried signs that read "roaches" and "Go back to Korea," They shouted in unison, "Let's kill Koreans," The hate speech rallies in Sin-Okubo were followed by a series of rallies in Tsuruhashi, where the largest Korean community in Osaka is located and the rallies spread to small municipalities around the country. One of the main organizers of the campaigns is a group called Zainichi Tokken wo Yurusanai Shimin no Kai (Group of citizens who do not tolerate privileges for ethnic Korean residents in Japan) formed in 2007.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roup held its first anti-Korean rally in 2009 attacking the Kyoto Chosen Dai-ichi Primary School, one of the Korean primary schools sponsored by Chongryun. In 2010,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rged Japan to adopt a law

to ban hate speech. The government of Japan responded only by citing a possible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by its constitution.

The surveys conducted by the Japanese Cabinet Office clearly indicate that the Japanese sentiments toward Korea changed during the 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From 1999 when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o 2004, the percentage of the Japanese saying that they feel friendship toward South Korea was less than those who do not. The percentage of those holding a positive or a negative perspective reversed in 2005. The percentage of those with a favorable attitude toward South Korea continued to rise until 2010 when it hit 61.8. However, the percentage of people holding a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 reversed again in the following year and in 2012 the percentage holding a positive perspective declined to 39.2 while the percentage of those holding a negative perspective was 59.0. The number of people who took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which had constantly increased from 2006 to 2011, showed a decline over two consecutive years: 25,025 in 2012 and 22,776 in 2013. The number of candidate ssitting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had consistently increased over the years and it achieved the largest number of candidates in 2012, but this exam suffered a similar decline in numbers to 17,905 in 2013 and then 16,546 in 2014.

Korean communities in Japan have also gone through important changes. Third and fourth generation Koreans are less interested in the power politics in their homelands and within their local Korean communities. Instead, they focus on improving their status in Japan by attempting to obtain citizenship rights. More Koreans including those affiliated with Chongryun take their ethnic identity only as part of their

own individual identity. They do not want to delimit their communities in terms of the language anymore. They seem to be more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integrate their complex identities including their ethnic background rather than deciding where they belong.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Korean residents in Japan have been constantly pressured by the strong nationalism that exists in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y have been tested as to the ascription of their loyalty to a state by means of nationality. They have also been tested as to their entitlement to membership in a community by means of language acquisition. This paradigm remains unchanged. However, Koreans in Japan seem to have become more flexible and have been coping carefully with the black-white dichotomy imposed by the surrounding nations.

As aforementioned, the Korean language used in Japan has functioned mainly as an inner-community language, a tool to express solidarity, to confirm one's identity and belonging, and to demonstrate one's adherence to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homeland. Koreans in Japan learned the Korean language to preserve their ethnic identity. As Korean newcomers to Japan increase, resident Koreans have more contact with native Koreans and they are more exposed to the popular culture of South Korea. This changes the functions of the Korean language used by Koreans residing in Japan. More resident Koreans are learning Korean for their jobs, for a better education, and for sufficing their own cultural interests, which goes well beyond using the Korean language as a community language. It would be most desirable if these new trends consolidate to make the Korean language a language for the future of Koreans living in Japan.

#### References

- Chung, Daekyun (2001) Zainichi kankokujin no syuuen, Bungeishyunjuu.
- Cobban, Alfred (1970) *The Nation-State and National Self-Determination*. New York: Crowell.
- Coulmas, Florian (1999) The Far Est. In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ed. by Fishman, Joshua A. Oxford University Press. 399-412.
- Erikson, Erik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W. Norton & Company. Inc.
- Fishman, Joshua A. ed (1999)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Oxford University Press.
- Fought, Carmen (2006) Language and Ethnic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jii, Kounosuke (1999) Tagengo shyakai nippon—chousengo ①. In *Kotoba to shyakai*, vol.1. Sangenshya. 136-142.
- Helbig, Gerhard (1970) 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Unter dem besonderen Aspekt der Grammatiktheortie—.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Leipzig.
- Hester, Jeffry T (2000) Kids between nations: ethnic classes in the construction of Korean identities in Japanese public schools.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175-196.
- Humbolt, Wilhelm v (1910) Über das vergleichende Sprachstrudium in Beziehung auf die verschiedenen Epochen der Sprachentwicklung, Leipzig.
- Inokuchi, Hiromitsu (2000) Korean ethnic schools in occupied Japan, 1945-52.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140-156.
- Kim, Dong-Ryong (1991) Zainichi chousenjin shijyo no bairingarizum. In Nihon no bairingarizumu, eds. by Maha, John C. and Kyouko Yashiro. Kenkyuushya shyuppan. 125-148.
- (2002) Chousen gakkou no sengoshi: 1945-1942, Shyakai hyouronshya,
- Kim, Irina (1994) Chousen souren no chousengo kyouiku komyunitii saiseisan no tekunorojī. In *Atarashii nihonkan · sekaikan ni mukatte*, eds. by Maha. John C. and Nobuyuki Honna. Kokusai Shoin. 182-199.
- Kim, Kwang Hae (1995) Cyomang kwuke ey taehan ilpene uy kansep. *Sae kwuke saenghwual*, vol 5. 2. Kwuklip kwuke yengkwuwen.
- Kim, Misun (2003) Majiriau kotoba—zainichi korian issei no konyuu kōdo nit suite. *Gekkan gengo*, vol. 32, no 6. 46-52. Taishuukan shyoten.

- Kohn, Hans (1945) The Idea of Nationalism. New York: Macmillan.
- Kumatani, Akiyasu (1997) Chousengo nasyonarizumu to nihongo. In Gengo kokka soshite kenryoku, eds. by Tanaka, Katsuhiko, Naoshi Yamawaki and Kasuya, Keisuke, Sinseishya, 164-193,
- Lee, Wul Soon (2006) Zainichi chousenjin no minzoku kyouiku to zainichi chousenjin kyouiku. In Zainichi chousenjin no rekishi to bunka, ed. by Pak Chung Myung. Akashi shyoten, 211-249,
- Maeda, Tadahiko (2005) Kankokukei minzoku gakou no jirei Hakutou gakuin kenkoku you shyou chyuu koutou gakkou no baai- In Zainichi korian no gengosou, eds. by Sanada, Sinji, Noaki Ogoshi, and Im, Yungchul. Izumi Shyoin. 227-269.
- Maeda, Tatsurou (2005) Zainichi no gengo ishiki-esunishiti to gengo. In. Zainichi korian no gengosou, eds. by Sanada, Sinji, Noaki Ogoshi, and Im, Yungchul. Izumi Shyoin. 87-114.
- Ōnuma, Yasuaki (1980) Zainichi chousenjin no houteki chii ni kansuru ichi kousatsu. 4, Hōgaku kyōkai zasshi 97, 2: 192-269.
- Pak, Sam Suk (1997) Nihon no nakano chousen gakkou-21 seiki ni habataku-. Chousen seinenshya.
-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Westview Press.
- Ryang, Sonia (2000) The North Korean homeland of Koreans in Japan.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32-54.
- Sasada, Hironori (2006) Youth and Nationalism in Japan. SAIS Review vol. XXVI no.2. 109-122.
- Safran, William (1999) Nationalism. In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ed. by Joshua A. Fishman, Oxford University Press, 77-93.
- Shin, Chang Soo (2005) Minzoku kyouiku no rekishi to chousen gakkou ni okeru chousengo kyouiku. In Zainichi korian no gengosou, eds. by Sanada, Sinji, Noaki Ogoshi, and Im, Yungchul. Izumi Shyoin. 271-297.
- Song, Namsun (2012) Minzokcywuuy wua caiil kyopho. Kwukcey koryehak. 11-30.
- Ueda, Kouji (2001) [Chousen sourengo] no kisoteki kenkyuu. In Tadashisa heno toi: hihanteki shyakai gengogaku no kokoromi, eds. by Noro, Kayoko and Hitoshi Yamashita, Sangenshya, 111-147.

#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고찰

-이용서비스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강민호

도시샤대학대학원 박사과정

## 1. 서론

#### 1.1. 연구배경

2014년 현재, 한국 내 한부모가족<sup>1</sup>은 1,74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5), 한부모가족이 1990년에 889,000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통계청 2012), 24년 만에 2배가량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姜民護 2015: 41).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미혼 등 다양한 이유로 형성되지만, 배우자의 상실이 동반하는 충격과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유사하며 그 안에서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김은지(2013)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은 불안정한 주거 및 고용환경을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을 물론, 한부모(양육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우울증 경험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어른없이 홀로 보내는 평균 시간이 24시간 중 약 3.4시간으로 많았으며, 2006년 서울가정법원 소녀

<sup>1</sup>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이혼, 미혼, 별거(복역・병역,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로 인해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자원보호자협의회는 교정시설 수용 경험이 있는 2,031명 중 69.5%가 한부모 가족의 자녀였음을 보고하고 있다(강준구 2006.7.14). 이러한 보고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한국사회 내의 중요한 복지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 7월 A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이라는 시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설립하였다. 이는 A시 주민예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용서비스를 전담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처음이다(姜民護 2016). 이것이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다. A시는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의해 직접서비스를 담당하게 하였고 2009년에 설립한 A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의해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서포터하게 하여 그 기능을 분배함으로써 새로운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족이 갖는 다양한 어려움을 지차체가 직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12월 현재,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가 종결되면서 사실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체계의 방향성은 모호해 진 것이 현 주소이다. 또한 부분적이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시하고 있던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 지원기관의 미활용이라는 의문 또한 지울 수 없다. 이는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종결과 함께 그 업무의 일부가 A시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에 이양된것을 그 근거로써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로써는 크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연구(진미정·차지영·정영숙 2009; 이승미·김선미 2005; 박정윤 2010)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개발에 관한 연구(전명희·양혜원·김희수 2012; 주소희 2002; 서영숙·황은숙 2007),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조사보고서(홍미희 2012; 김은지 2013; 문은영 2010) 등이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검토

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나마 홍미희(2012)과 문은영(2010)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이다. 홍미희(2012: 54-59)에 의하면 B시는 B시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한부모가족을 담당하는 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² 해당 팀의 실무자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한부모가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문은영(2010: 155)은 현재, 제도적으로 많은 서비스 및 지원이 마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서비스 및 지원의 추가 도입보다 기존의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연결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플래너, 또는 지원 매니져 제도의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홍미희(2012)와 문은영(2010)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홍미희(2012)는 한부모가족 지원의 관계자에 대한 설문지 조사로 상기의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설문 대상자가 10명으로 충분치 않은 점에서 결과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문은영(2010)은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플래너, 지원 매니져 제도의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서비스 및 지원의 충분함을 분석하고 있지 않기에 논거가 약하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구축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구축의 이해관계 기관으로써 그 중심에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용 나아가 법적 근거 및 운영현황 비교·검토는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자료로써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착안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음이 검토되었기에 학술적으로

<sup>2</sup> B시는 2012년 현재, B시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8개소에 한부모가족 담당 팀을 구성하여 한 부모가족에 대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홍미희 2012), 하나의 독립된 센터가 아닌 것이 A시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 1.2. 연구목적 및 시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족의 이용서비스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실시한다. 먼저 한부모가족 이용서비스지원기관의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이용서비스지원기관의 운영현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이용서비스지원기관의 지원내용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점을 갖는다. 첫째,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구축은 이용서비스지원체계를 의미한다. 3 둘째, 한부모가족 이용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지원기관으로써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 칭함)<sup>4</sup>,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초점을 맞춘다. 5 셋째, 법적 근거, 운영현황, 지원내용의 검토는 비교의 시점으로 실시한다.

#### 1.3. 연구방법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각 지원체계의

<sup>3</sup>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이용서비스와 입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각의 서비스는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틀에서 함께 논하기 힘들다. 이는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것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입소서비스지원기관으로써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이, 이용서비스지원기관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sup>4</sup> 본 연구에서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란 A시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5개소를 의미한다.

<sup>5</sup> 각주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이용서비스지원기관으로 한부모가족복 지상담소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전국에 3개소로 역할의 한계가 우려스러우 며 한부모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에 비해, 한부모가족지 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 지만, 전국적으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실제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법률과 해당 조항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운영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 및 한국건강가정진홍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웹 사이트 및 각종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현재 A시 소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내용과 사업홍보 및 사업결과물을 분석하였다.

#### 2. 본론

#### 2.1. 지원기관의 법적 근거 검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한부 모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 조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 법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각각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센터의 설치 규정 조항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A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 제 ①항에 지자체장에 의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①항에 국가 및 지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①항에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 〈표 1〉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구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센터 설치 규정 조항	•A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설치 및 기능) 제 ①항 :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A시 한부모가족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센터의 설치) 제 ①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지시설의 설치) 제 ①항
지원 대상 규정 조항	•A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지원대상) 제 ①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건강가정기본법 제 20조(가정에 대한 지 원) 제 ④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5(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 ②항 :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 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

출처: A시 한부모기족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가정기본밥; 사회복지사업법을 참조하여 작성.

이와 같이,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한 규정, 나아가 의무가 아닌 권한으로 서의 명시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센터의 지속성이 언제든 좌우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써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1년 6개 월 만에 업무가 종결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의무가 아닌 권한으로 설치 · 운영이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아닌 법률에 의해 규 정되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로써 이미 자리매김한 점을 감 안하면, 그다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 규정 조항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A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제 ①항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자로 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표 1〉의 주2 참조). 건 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20조 제 ④항에 국가 및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법 제 31조 제 ①・②・③항에 이혼 분쟁 전・중・후에 걸쳐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5 제 ②항에 사회복지관의 지원 대상자가 지역주민임을 명시하면서 동조 동항 제 2호에 한부모가족이 지원의 우선 순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원 대상 규정 조항에 각 지원기관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다르게 건경가정지원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은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형성 원인 중 하나인 이혼 분쟁의 전과 후에도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현행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의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 2.2. 지원기관의 운영현황 검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현황을 법적 근거, 관할 관청, 센터 수, 대상자,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현황

구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법적 근거	지자체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관할 관청	지자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센터 수	5개소	152개소	448개소
대상자	한부모가족 및 개인	모든 가정	저소득층 가족 및 개인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실시	다양한 가족 지원프로그램과 가족역량강화지원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한부 모가족 관련 지원 실시는 센터의 재량이기에 지원 내용이 센터별로 상이함. 가족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은 152개소 중 3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180%이하 라는 조건이 있음	센터에 따라 실시하는 곳과 실시하지 않은 곳이 있으며 지원내용도 센터 재량이기에 센터별로 상 이함

출처: A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한국종합사회복지관 웹 사이트(2015/3/15) 및 각종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주1 : 센터 수는 2014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A시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수이며 건강 가정지원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수이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법적 근거는 앞장에서 다룬 것과 같이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는 지자체 조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종합사 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할 관청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는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종합사회복지관은 보 건복지부이며 2014년 12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5개소, 건강가정지 원센터는 152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4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및 개인(양육자, 자녀)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가정을,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가족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겠지만,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 지원프로그램과 가족역량강화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지원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은 센터의 재량이기에 모든 센터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姜民護 2015), 가족역량강화지원프로그램도 전 152개소 중 30개소에서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가족역량강화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80%이하의한부모가족으로 정해져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사례관리팀, 서비스제공팀, 지역조직팀에서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지만 센터에 따라서 실시하는 곳과 실시하지 않은 곳이 있고 지원내용도 센터 별로상이하다. 이는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선정, 실시가 센터의 재량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이 다르다는 점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센터 수가 다른 지원체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의 실시유무는 센터의 재량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관할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센터 수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상의 접근성이 다른 지원체계에 비해 좋다. 그리고 지원의 실시가 센터의 재량인 것은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 2.3.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검토

A시 소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소, 종합사회 복지관 98개소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을 검토했다.6 구체적인 검 토 방법으로 먼저 각 기관의 웹 사이트상의 지원내용과 사업홍보 및 사업결 과물을 수집하여 그 중에 '한부모' '모자' '부자' '미혼모' '미혼부' '조손' '이혼' '사별' '미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원들을 분류하였다. 그 후 분류된 각 기관의 지원을 지원의 취지, 목적, 내용, 대상을 고려하여 대상별로(부모에 대한 지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지원, 자녀에 대한 지원, 그 외(타인) 지원) 재분류하였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7

〈표 3〉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상별 지원내용

구분		부모	부모와 자녀	자녀	그 외 (타인)
한부모기족 지원센터의 지원내용	자 지	●위기지원: 금전 · 물품 ●생활코다네이터 ●미혼모가죽 대상 양육코칭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자 조모임 ●검정고시지원 ●부자가정 대상 자조모임 ●진로탐색 ●자기개발워크샵 ●직업정보 제공 및 알선 ●이미지 메이킹 방법 ●미혼모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 집단상담, 자조그룹, 원가족과의 관계개선 ●부자가족 대상 연극요법 ●정신건강교육 ●성교육 ●성교육	●전문상담 ●한부모가족 축제 ●세미나 및 포럼 ●정서지원사업 ●경제교육	●진로탐색 ●정서지원사업: 사회심리극	●인식개선사업 ●한부모가정 이 해교육 전문강사 파견 ●유관기관과의 연계 ●연구보고서 발간 ●소시오드라마를 이용한 한부모가 족 이해교육
건강가정지 원센터의 지원내용	독 자 지 원	•이혼위기부부 집단상담 •한부모 집단상담 •주거환경개선지원 •재혼준비지원 •부모역할교육	●인식개선사업 ●가족관계개선지원 ●가족상담	●여름・겨울방학         중 돌봄지원         ●자기표현력 및         적응력 향상지원         ●성교육         ●집단활동         ●경제교육         ●문화체험	없음

<sup>6</sup> A시 소재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용서비스지원을 전담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은 전국에서 A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sup>7</sup> 검토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6개소 중 19개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98개소 중 50개소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예절교육 ●심리 및 정서지원	
종합사회 복지관의 지원내용	독 자 지 원	●부모 간담회 ●심리요법 ●대인관계훈련	●기족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가족봉사활동 ●가족관계개선지원 ●가족상담	●자립성강화지원 ●영양지원  ●사회성향상지원 ●특기지완: 예체능 ●상담지원 ●캠프 ●이혼가정자녀지원: 이혼이해, 스 트레스 경감 ●문화체험 ●예절교육 ●심리 및 정서지원	없음

세 기관의 중복 지원내용	복 지	●모자가정 대상 자조모임 ●모자가정 대상 양육코칭 ●직업역량강화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이혼에 대한 법률상담) ●경제교육 ●창업지원 ●감정 컨트롤 교육(스트레스컨트롤 교육)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상담지원) ●부자가정 대상 양육 코칭 ●가족갈등해결프로그램(자녀와의 갈등 개선 지원) ●차녀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가족캠프 ●가족문화지원: 소풍, 연극관람, 문화체험 등		없음
---------------------	--------	---	---------------------------------------	--	----

- 출처: A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4); 각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브로셔; A시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종합사회복지 관의 지원내용 및 사업홍보, 사업 결과물을 참조하여 작성(2015/3/15).
- 주 1: 중복지원이란 세 기관의 지원 중 유사한 지원을 의미하며 두 기관만이 유사한 지원인 경우에는 독자지원으로 취급하였음.
- 주 2: 중복지원 중 괄호 안의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명임. 예를 들어, 법률상담 및 교육(이혼 에 대한 법률상담)의 법률상담 및 교육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지원명이고 이혼에 대한 법률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명임.
- 주 3: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기관의 지원은 분석대상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소, 종 합사회복지관 98개소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며, 지원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5개소 중 2개소가, 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소 중 10개소가,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 중 30개소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도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세부내용을 생략하였음.
- 주 4: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내용을 비교·검토한 결과, 세 지원기관의 지원 중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원이 존재하였다. 이는 흥미희(2012)가 소수의 사람이 중복지원을 받고 있으며한부모가족 지원의 유관기관 또는 지원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지적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중복지원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우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모자가정 대상 자조모임, 모자가정 대상 양육 코칭, 직업역량강화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이혼에 대한 법률상담), 경제교육, 창업지원, 감정 컨트롤 교육(스트 레스 컨트롤 교육),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상담지원), 부자가정 대상 양육 코칭, 가족갈등해결프로그램(자녀와의 갈등 개선 지원),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었다.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가족캠프, 가족문화지원(소풍, 연극관람, 문화체험 등)이 있었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학습지원, 진로탐색, 집단활동, 한부모에 대한 이해교육이 있었다. 그 외(타인)의 지원은 없었다.

각 지원기관의 독자지원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위기지원(금전·물품), 생활코디네이터, 미혼모가족 대상 양육 코칭,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자조모임, 검정고시지원, 부자가정 대상 자조모임, 진로탐색, 자기개발워크샵, 직업정보 제공 및 알선, 이미지 메이킹 방법, 미혼모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집단상담, 자조그룹, 원가족과의 관계개선), 부자가족 대상 연극요법, 정신건강교육, 성교육, 중독예방교육이 있었다.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는 전문상담, 한부모가족 축제, 세미나 및 포럼, 정서지원사업, 경제교육이 있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는 진로탐색, 정서지원사업(사회심리극)이 있었다. 그 외(타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는 인식개선사업,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전문강사 파견, 유관기관과의 연계, 연구보고서 발간, 소시오드리마를 이용한 한부모가족 이해교육이 있었다. 다음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를 대상으로한 지원으로는 이혼위기부부 집단상담, 한부모 집단상담, 주거환경개선지원, 재혼준비지원, 부모역할교육이 있었다.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

로는 인식개선사업, 가족관계개선지원, 가족상담이 있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는 여름 · 겨울방학 중 돌봄지원, 자기표현력 및 적응력 향상지원, 성교육, 집단활동, 경제교육, 문화체험, 예절교육, 심리 및 정서지원이 있었고 그 외(타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없었다.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는 부모 간담회, 심리요법, 대인관계훈련이 있었고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는 가족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가족봉사활동, 가족관계개선지원, 가족상담이 있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는 자립성강화지원, 영양지원, 사회성향상지원, 특기지원(예체능), 상담지원, 캠프, 이혼가정자녀지원(이혼이해, 스트레스 경감), 문화체험, 예절교육, 심리 및 정서지원이 있었고 그 외(타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없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기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중에 중복지 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자지원 중 부모와 그 외(타인)를 대상 으로 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녀 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해 한부모가족지 원센터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부족한 이유로 접근성의 부재를 지적 할 수 있다. 나아가 각 지원기관의 독자지원 중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생활 코디네이터8, 미혼모가족 대상 양육 코칭,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자조모 임, 검정고시지원, 부자가정 대상 자조모임, 미혼모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은 한부모의 욕구를 고려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남성 양육자 대상의 지원과 미혼모 · 부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보고(홍미희 2012)를 고려하면 이러 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은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이혼위기부부 집단상담은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 에서 실시되는 지원으로 앞장에서 지적한 듯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의미를 같이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이혼가정자녀지원(이혼

<sup>8</sup> 한부모 당사자가 서포터로 활동하며 초기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응·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해, 스트레스 경감)은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를 고려한 지원으로 한부모가 족에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한다.

### 3. 결론

### 3.1. 새로운 지원체계에 대한 고찰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이용서비 스지원기관으로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의 법적 근거, 운영현황, 지원내용을 비교·검토해 왔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비교·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지원체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 3.1.1. '한부모가족 지원'의 의미에 대한 논의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이라 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을 정의하고 있는 사별·이혼·미혼·별거로 인해 모 또는 부,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원이라는 인식 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사후적 대처에서 예방적 대처로'라는 패러다임의 변 화와 그에 대한 강조가 한부모가족 지원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닌 점을 감 안하면 한부모가족 지원에서의 한부모가족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혼 전·중·후에 걸쳐서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제 31조제 ①·②·③항). 또한 실제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위기부부집단상담이라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 기관의 중복지원으로 법률상담

및 교육(이혼에 대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이혼숙려제도 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sup>9</sup>

이와 같은 시사를 주는 선행연구의 발표로써 姜民護(2014)는 부모의 이혼 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 하고 있다.

자녀에게 있어 부모의 이혼은 이혼 분쟁이라는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전 부모의 지속적인 갈등의 결과이며 이혼 후 부모의 갈등, 전학, 이사, 면회교류, 놀이의 부재, 경제적 고통, 재혼 등의 사건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 중략 … 자녀는 이혼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선행요인은 이혼 분쟁뿐 아니라 이혼 전·후에 경험하는 사건에도 존재한다(姜民護 2014: 177-178).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곤란과 욕구는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의 사건 및 상황으로부터 기인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의 적절한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혼 전·중, 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에 제공되는 지원도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만을 대 상으로 하는 지원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테면, 이혼위기부부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 등이다.

# 3.1.2. 이용서비스지원기관을 활용한 지원체계의 구축

앞절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의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up>9</sup> 이혼숙려제도는 민법 제 836조 2의 개정에 의해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협의이혼 당사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없는 경우엔 1개월이 경과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고 이혼이 가능하다. 단 폭력, 학대 등 이혼의 이유가 긴박한 상황에는 상기의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주장에 입각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 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한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 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이유로 첫째, 전국에 448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예산, 인력, 접근성 등 여러 면에서 현실적이다. 둘째,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지원의 지속성이 확보되어 있다. 셋째, 오래된 역사와 함께 복지전달체계로써 이미 자리매김하였고 지역에 많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5개소로 이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그 한계는 뚜렷하며<sup>10</sup> 법률에 의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업의 지속성도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2개소로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역사가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이제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 중에 있다고 할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이유로 첫째,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전후상담 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2015년 현재 35개소). 둘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11 셋째, 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지원의 지속성이 확보되어 있다. 한편, A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가 이혼가족지원전문가협의체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혼 중 및 후에 대한 지원이 중심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에 비해 다소 사후적 대처에 가깝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서비스 조정 및 연계, 지원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

<sup>10</sup>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중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하나의 근 거로 들 수 있다.

<sup>11</sup> A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종결과 함께 그 기능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양하는 이유로 낙인효과로 인한 센터의 미이용을 지적하였다(A시 2014).

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원기관의 지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각 기관의 지원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있었다. 이는 홍미희(2012)의 지적처럼 서비스의 중복제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분석으로, 문은영(2010)의 지적과 같이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과 의미를 같이한다. 12 또한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할 기관으로써 기대할 수 있으며 단순히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후적 대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방적 대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비스 조정과 연계, 연구 및 개발,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써 첫째,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법률적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하며 둘째,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한부모가족 지원 담당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이용서비스지원기관으로써 한부 모가족복지상담소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추후에는 한부모가족복 지상담소를 비롯한 입소서비스지원기관을 총망라한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를 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실제적인 제안을 위하여 현재 각 지원체계들 이 한부모가족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갖는 과제를 분석하는 연구, 각 지원체 계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sup>12</sup> 중복제공이 있을 수 있음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의 충분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A시(2014)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안)』, A시 여성가족정책실.
- A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4)『사회통합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 포럼』
- A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 sca&target=ordin&MST=625470&type=HTML&mobileYn=, 2015,3.30).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74563A7B18F7 4A26AB4222F95F1B9E1A101K, 2015.3.31).
-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http://www.kaswc.or.kr/, 2015.3.15).
-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main.php, 2015.3.15).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4) 『2013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홍미희(2012) 『인천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전명희·양혜원·김희수(2012)「이혼가족 자녀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과 요인 -수정된 CODIP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한국가족치료 학회』 20(3), 375-401.
- 진미정·차지영·정영숙(2009)「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관악구 건강가정지 원센터의 해피콜 홈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한국가정관리학회제46회 추계학술발 표대회자료집』(가톨릭대학), 171-178
- 주소희(2002)「이혼가정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성 연구」,『한국가족복지학』9, 77-106.
- 강준구(2006.7.14) 『이혼이 비행청소년 만든다 -자녀 70% 탈선』, 국민일보.
- 姜民護(2014)「両親の離婚が子ども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研究課題 -日韓の研究から得られる示唆に着目してつ」、『評論・社会科学』111, 157-186.
- 姜民護(2015) 「健康家庭支援センターによるひとり親家庭の子どもに対する支援の課題 支援に対する検討と評価を通して-」、『同志社社会福祉学会』 29,41-56.
- 姜民護(2016)「韓国におけるひとり親家族支援センターの利用を低下するリスク要因分析 支援先の視点に着目して-」、『関西社会福祉学会』 2,53-64.
- 김은지(201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승권·김연우(2012)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59-69.
- 건강가정기본법(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1822C88218E54D CF985BD8B928F00D16101K, 2015.3.30).
- 이승미·김선미(2005)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례에 비추어 본 지원방안 연구 -건강가정지 원센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95-112.
- 문은영(2010)『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윤(2010)「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한부모가정 관련 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67-178.
- 사회복지사업법(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A63F2B09BFCE4 97E8A8BA1DA00190B44101K, 2015.3,30).
- 서영숙·황은숙(2007)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열린유 아교육연구』7(1), 205-227.
- 통계청(2012) 『e-나라지표 한부모가족의 현황』.
- 통계청(2015) 『한부모가구비율』(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1578, 2015.10.15).

# 한국과 대만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아내학대의 관련성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박지선 (우송대학교)
윤정수 (바이카여자대학)
김정숙 (경상남도청)
엄기욱 (군산대학교)
나카지마 가즈오 (료비헬시케어)

# 1. 서론

한국사회는 결혼이주, 노동이주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 문화사회로 변모 중이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 의 급격한 증가는 다문화가족의 수적 증가에 기여하면서 2020년에는 다문화 가족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이는 '이 주의 여성화'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일 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성 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이주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 배경에는 성비 불균형과 여성의 학력 신장 및 독신여성의 증가 등 을 원인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들과 결혼이주가 노동이주보다 해외 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법적으로 안정된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주여성 들의 이해가 서로 맞물리면서 성립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박민서 2011).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은 낯선 나라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이주민으로서의 과업과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윤명숙·최현미·김남희 2013). 또한 많은 경우의 결혼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남성의 비용 지불 등을 통해이루어지면서 가정 내 가부장적 계급질서가 형성되어 부부 간 권력의 불균형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언어 사용이 미숙한 경우가 많아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상호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있다(위인백 2011). 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다문화가족의 아내학대(wife abuse) 및 살해, 가정해체와 같은 소식들은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있다(박지선·류한수 2014).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과 달리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행위자와 피해자가함께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태영·박소영 2010). 이러한 가정폭력은 직접 피해자를 비롯하여 간접 피해자에게까지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게 된다. 직접 피해자들은 두통, 위장장애 등의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감, 죄책감, 분노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Zlotnick et al. 1998) 간접피해자들 역시 우울감과 불안감 등의 문제를 보인다(김은영 외 2009). 이와같이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해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인 폭력, 경제적 폭력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08).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등 가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일컫지만 한국에서는 아 내학대나 아내구타와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아(박영란 2007) 통상적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라 는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로 아내학대(wife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스트레스와 폭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보고 되어 왔다.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갈등을 해결하는 대 처전략 또는 방편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가정폭력 전문가들에 의해 '갈등으로 야기되는 폭력(conflict instigated violence)'이라는 것으로 공식화 되고 있다(신성자 1999) 결혼이주여성들이 타지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결 혼생활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국제결혼이라는 환경 적 변화는 남성들 역시 사회적, 개인적, 가정적으로 많은 변화와 적응을 요 구하며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김계하ㆍ선정주ㆍ 오숙희 2013). 그러나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의 주된 학문적 관심대상은 결혼 이주여성들이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편이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 한 관심은 크게 부족했다. 그럼에도 최근 다문화가족 남편의 스트레스를 보 고한 몇몇 연구들이 보인다. 김민경(2012)은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McCubbin (1981)이 개발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척도 를 활용하여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가 족관계, 경제문제, 직장 및 가정갈등, 대인관계, 건강 및 상실 등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최현미(2014)는 결혼이주여성뿐만 아 니라 한국인 남편에게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나타난다고 보며 이러한 스 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 다. 김혜신·김경신(2011)의 연구에서도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문제를 다루면서 남편의 문화충격이 아내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편 류한수 외(2011)는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생활관련 스트레스를 측 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감정, 경제적 압박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이 척도는 尹靖水 외(2011)의 연구를 통해서 국제결혼한 대만인 남편에게도 적용되어 남편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尹靖水 외 (2014)는 이후의 연구에서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상생활 스트레

스가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행동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지선·류한수(2014)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배우자 학대에 초점을 맞춰한국인 남편이 결혼생활 중 느끼는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로 표출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Lazarus 외(1984)는 스트레스인지이론을 통해 개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가 개인의 대처전략(coping)에 대한 선택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때 대처전략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압력을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압력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학대 행위를 꼽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남편은 문화적, 정서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생활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보다약자로 여겨지는 아내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아내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학대 발생원인으로 설정하여 다문화가족 남편을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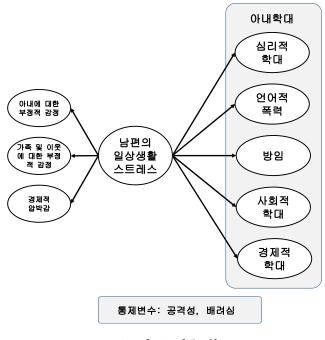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Lazarus 외(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의 남편들이 겪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아내학대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Lazarus 외(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아내학대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모형

을 구축하였다. 이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자 남편의 개인적 특성(배려심, 공격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 2.2.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가족 남편 가운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남편으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A와 B지역에 소재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협력을 통해 센터를 이용 중인 한국인 남편 1,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만에서는 D, E, F지역의 유치원을 이용 중인 대만인 부친 6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진행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책임자가 연구참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참여 시 익명성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자발적인 연구참여에 대한 동

의와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포함한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한국 1,040부, 대만 511부였고,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경우만을 필터링한 결과, 한국 555부, 대만 247부가 남았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필요한 변수에 모두 응답한 한국 219부, 대만 221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3. 분석자료

조사내용은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남편의 연령, 학력, 수입, 아내의 연령, 국적, 결혼지속기간)과 개인적 특성(배려심, 공격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 레스, 아내학대로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 및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남편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은 한국인 남편과 대만인 남편을 대상으로 진행된 柳漢守 외(2011), 尹靖水 외(2011; 2014), 박지선·류한수(2014)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척도는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정, 가족 및 이웃에 대한 부정적 감정, 경제적 압박감이라는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로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측정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3점 매우 그렇게 느낀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학대 측정척도 역시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 및 남편대상 인 터뷰 조사를 토대로 심리적 학대, 언어폭력, 방임, 사회적 학대, 경제적 학대 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영역별로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만 학대의 빈도보다는 학대의 발생유무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분석 시에는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를 '있다'로 변환

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공격성은 安藤明人 외(1999)가 개발한 '일본판BAQ24문항판'을 본 연구자들이 단축판으로 개발한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4점 매우 해당한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배려심은 毛新華·大坊郁夫(2008)가 개발한 사회적 스킬을 구성하는 요인 중 배려심(compassion) 요인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할 수 없다~3점 할 수 있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3요인 2차요인모형 을 독립변수, 아내학대 5요인 사교모형을 종속변수, 배려심과 공격성을 통제 변수로 한 인과관계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인과관계모형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을 채택하였고, 추정법으로는 WLSMV법을 채용하였다. 적합도 지표로는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0.9이 상, RMSEA는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Hu 외 1999). 또한 모형의 표준화계수(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를 표준 오차에서 제외한 값을 참고로 그 절대값이 1.96이상(5% 유의수준)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Peek 2000). 이 때 경로계수값은 표준 화된 값으로 나타냈다. 측정척도의 신뢰성은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와 Kuder-Richerdson 공식20(KR-20)으로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변수에 결손치가 없는 한국인 남편 219명, 대만인 남편 22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PSS12.0J와 M-plus Version 2.14를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분포 (<표 1>)

### 3.1.1. 한국 데이터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평균 44.4세(표준편차 6.2, 범위 26~65세), 아내의 연령은 평균 27.7세(표준편차 5.7, 범위 19~51세)였다. 남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18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이 48명(21.9%), '전문대학 졸업'이 23명(1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편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07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3명(24.2%), '100만원 미만'이 34명(15.5%) 순이었다.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은 130명(59.4%)이었고, 이어 '필리핀'이 39명(17.8%), '캄보디아'가 18명(8.2%), '중화인민공화국'이 17명(7.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은 평균 48.9개월(표준편차 34.2, 범위 1~168개월)이었다.

### 3.1.2. 대만 데이터

대만인 남편의 연령은 평균 39.9세(표준편차 6.5, 범위 28~63세), 아내의 연령은 평균 29.2세(표준편차 2.9, 범위 24~40세)였다. 남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9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이 49명(22.2%), '전문대학 졸업'이 36명(1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편의 월수입은 '3만이상~6만 대만달러 미만'이 175명(7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만대만달러 미만'이 40명(18.1%), '6만~10만 대만달러 미만'이 6명(2.7%) 순이었다.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은 82명(37.1%)이었고,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이 72명(32.6%), '인도네시아'가 31명(14.0%), '태국'이 21명(9.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은 평균 83.4개월(표준편차 23.8, 범위 9~151개월)이었다.

(표 1)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분포

		한국 (n=219)		대만 (n=221)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어크	남편	44.4세±6.2	26~65	39.9세±6.5	28~63	
연령	아내	27.7세±5.7	19~51	29.2세±2.9	24~40	
결혼지속기간		48.9개월±34.2	1~168	83.4개월±23.8	9~151	
		명	%	명	%	
	미취학	2	0.9	0	0	
	초등학교	15	6.8	4	1.8	
	중학교	48	21.9	49	22.2	
최종학력	고등학교	118	53.9	109	49.3	
	전문대학	23	10.5	36	16.3	
	4년제대학	11	5.0	23	10.4	
	대학원	2	0.9	0	0	
월소득 <sup>쥐)</sup>	100만원 미만	34	15.5	40	18.1	
	100~200만원 미만	107	48.9	175	79.2	
	200~300만원 미만	53	24.2	6	2.7	
	300~400만원 미만	15	6.8	0	0	
	400~500만원 미만	3	1.4	0	0	
	수입없음	7	3.2	0	0	
	중화인민공화국	17	7.7	72	32.6	
아내의 출신국적	베트남	130	59.4	82	37.1	
	필리핀	39	17.8	9	4.1	
	태국	2	0.9	21	9.5	
	캄보디아	18	8.2	2	0.9	
	인도네시아	3	1.4	31	14	
	몽골	5	2.3	0	0	
	러시아	0	0	2	0.9	
	기타	5	2.3	2	0.9	

주1) 대만의 월소득은 '3만 대만달러 미만, 3만 대만달러 이상~6만 대만달러 미만, 6만 대만달러 이상~10만 대 만달러 미만, 수입없음'으로 조사함.

### 3.2. 측정척도의 응답분포 및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결과

### 3.2.1.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표 2〉)

### 3.2.1.1. 한국 데이터

한국인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chi^2$ (df)=49.333(37), CFI=0.970, TLI=0.993, RMSEA=0.039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Cronbach's  $\alpha$  신뢰성 계수는 0.918로 하위영역별로 보면,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0.840, 가족 및 이웃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0.902, 경제적 압박감이 0.875였다.

### 3.2.1.2. 대만 데이터

대만인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chi^2$ (df)=130.642(62), CFI=0.955, TLI=0.972, RMSEA=0.071 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Cronbach's  $\alpha$  신뢰성 계수는 0.901로 하위영역별로 보면,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0.776, 가족 및 이웃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0.847, 경제적 압박감이 0.841이었다.

### 3.2.2. 남편의 아내학대

### 3.2.2.1. 한국 데이터

아내학대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 남편의 아내학대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chi^2$ (df)=23.080(14), CFI=0.997, TLI=0.998, RMSEA=0.054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척도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KR-20 신뢰성 계수를 편의상 학대의 모든 문항을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0.925로 양호한 값을 보였다.

### 3.2.2.2. 대만 데이터

대만인 남편의 아내학대 측정척도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χ²(df)=39.941 (28), CFI=0.978, TLI=0.980, RMSEA=0.044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고, KR-20 신뢰성 계수는 0.812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한국 대만 Cronbach's a Cronbach's a x 2 (df) **x** <sup>2</sup> (df) CFI TLI RMSEA 신뢰성계수 CFI TLI RMSEA 신뢰성계수 또는 KR-20 또는 KR-20 남편의 0,918 0,901 일상생활 49,333(37) 0,970 0,993 0,039 130,642(62) 0,955 0,972 0.071 스트레스 아내 학대 23.080(14) 0.997 0.998 0.054 0 925 0 044 0812 39,941(28) 0,978 0,980

(표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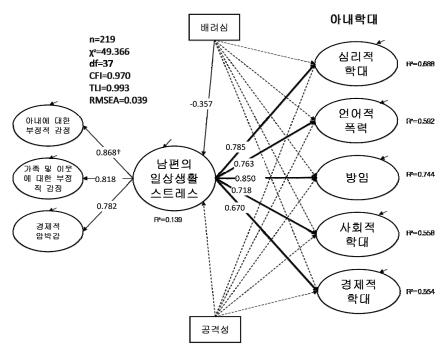
### 3.3.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아내학대의 관련성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아내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 간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3.1. 한국 데이터 (〈그림 2〉)

모형의 적합도는 χ²(df)=49.366(37), CFI=0.970, TLI=0.993, RMSEA=0.039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편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아내학대를 구성하는 다섯 영역 모두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남편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언어폭력, 방임, 사회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가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던 배려심 및 공격성과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배려심이 일상생활스트레스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배려심이 깊은 남편일수록 일상

생활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1) +는 모형의 식별을 위해 제약을 가한 곳을 의미한다.

주2) 점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를, 실선은 유의한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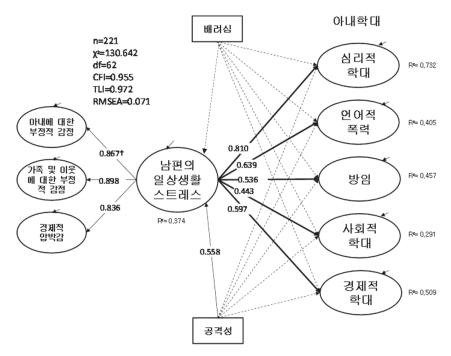
주3) 그림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트레스와 아내학대의 관측변수는 생략하였다.

〈그림 2〉 한국 모형분석 결과 (표준화계수)

### 3.3.2. 대만 데이터 (그림 3)

모형의 적합도는 χ²(df)=130.642(62), CFI=0.955, TLI=0.972, RMSEA=0.071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편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아내학대를 구성하는 다섯 영역 모두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남편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언어폭력, 방임, 사회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가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던 배려심 및 공격성과 독립변수, 종

속변수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공격성만이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공격성이 강한 남편일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1) +는 모형의 식별을 위해 제약을 가한 곳을 의미한다. 주2) 점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를, 실선은 유의한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주3) 그림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트레스와 아내학대의 관측변수는 생략하였다.

(그림 3) 대만 모형분석 결과 (표준화계수)

# 4. 고찰

본 연구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가족 남편이 인지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아내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보고자 진행된 것이다. 분석에는 한국 219명, 대만 221명의 남편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확인되어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한 척도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째, 한국과 대만 다문화가족 남편의 공통적인 결과로 남편이 인지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학대, 언어 폭력, 방임, 사회적 학대, 경제적 학대로 구성된 아내학대의 모든 영역에 정 (+)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한국과 대만 다문화가족 남편이 아내를 비롯하여 가족 및 이웃, 경제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고 있을수록 아내에 대한 심리적, 언어적, 방임, 사회적, 경제적 학대라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학대라는 부적절한 행위를 선택한다는 Lazarus 외(1984)의 스트레 스인지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박지선·류한수(2014)의 연구에서도 보고하 고 있듯이 다문화가족 남편이 갖는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남편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개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는 아내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남편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피학대자인 아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은 남편에 대해서는 부부를 모두 개입대상으로 염두해 둘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구성한 스트레스 영역은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 정, 가족 및 이웃에 대한 부정적 감정, 경제적 압박감이었다. 이러한 스트레 스 문항들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개입 준비 시 어떠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남편 개개인의 구체적인 스트레스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스트레스 하위영역의 경로 계수를 확인해보면 한국에서는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향하는 경로계 수가, 대만에서는 가족 및 이웃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아내와의 관계 속

에서, 대만에서는 가족 내 관계 및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초점을 맞춘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과 대만 다문화가족 남편에게서 나타나는 차이점으로는 한국의 경우, 남편에게 내재된 개인적 특성 요인 중 배려심이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만의 경우, 공격성이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개인적 특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학대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편의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남편 개개인의 특성 및 국가별로 적 합한 개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테면 한국의 경우, 남편의 아내 에 대한 배려심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배려 심은 사회적 기술의 한 영역으로 타인과의 긍정적 교류를 위해 중요한 요인 이다. 내국인 부부에게서도 나타나는 성 인식 차이를 비롯하여 국제결혼 부 부에게서는 문화 차이, 언어 및 표현방식의 차이 등이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아내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남편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및 관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 이지 않은 배려심을 발휘한다면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현장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 남편 교실 등에서 배려심이나 사회적 기술 향 상프로그램을 투입해 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만의 경우에는 남편의 공격적 성향이 스트레스를 유 발시켜 이것이 아내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편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아내학대의 유형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리적 학대, 방임, 언어적 폭력, 사회적학대, 경제적 학대 외에도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가 포함된다. 그러나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입장에서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파악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실제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으로 연계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하국어

- 김계하·선정주·오숙희(2013)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29-39.
- 김민경(2012)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족스트레스, 부정적 정서와 사회부적응 -레질리언 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3), 101-123.
- 김은영·임승희·박소영(2009)『가족복지론』서울: 학현사.
- 김혜신·김경신(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관계학회지』16(2), 59-86.
- 류한수 외(2011)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스트레스 문제」, 『호남대학교 여성문화연구』 5(1), 67-90.
- 박민서(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1(5), 393-402.
- 박영란(2007)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피해자 보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여성학』 23(3), 189-214.
- 박지선·류한수(2014)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학대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4(1), 722-731.
- 박태영·박소영(2010)「가정폭력에 대한 부부치료 사례 분석: 가정폭력 쉼터에 거주하는 부인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75-88.
- 신성자(1999) 「부부간의 열등감, 성역할 태도와 스트레스가 아내강간 경험 및 피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117-151.
- 여성가족부(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4)『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 위인백(2011)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한국콘텐츠학회논 문지』11(5), 317-327.
- 윤명숙·최현미·김남희(2013)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음주문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영향 -사회적 지지와 가정폭력피해경험의 다중매개효과-」、『한국가족복지학』 42, 83-111

최현미(2014)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의 조절효과」、『한국가족복지학』 45, 259-284.

#### 일본어

- 安藤明人・曽我祥子・山崎勝之・島井哲志・嶋田洋徳・宇津木成介・大声治・坂井明子(1999) 「日本版Buss-Perry攻撃性質問紙(BAQ)の作成と妥当性,信頼性の検討」,『心理学研究』70(5),384-392.
- 毛新華・大坊郁夫(2008)「社会的スキルの内容に関する中国人大学生と日本人大学生の比較」、『対人社会心理学研究』8,123-128.
- 尹靖水・百瀬英樹・黒木保博・中嶋和夫(2011)「台湾の多文化家族の夫の日常生活に関連 したストレス問題」、『評論・社会科学』97,41-58.
- 尹靖水・朴志先・金貞淑・黒木保博・中嶋和夫(2014)「韓国における多文化家族の親の生活 問題と児に対する不適切な育児行動の関連性」、『評論社会科学』107, 1-19.

#### 영어

- Hu, L.T. and Bentler, P.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azarus, R.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Peek, M.K. (20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9(3), 301-309.
- Zlotnick, C., Kohn, R., Peterson, J., and Pearlstein, T. (1998) 'Partner physical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1), 156-166.

# 한국 '기지촌', 이민자 2세 아이들의 언어생활

정육자

도쿄대학대학원 박사과정

#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이민 마이너리티(minority)가 처해있는 다중언어 상황과 언어교육에 대하여 민족지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민자들의 언어교육이나 언어사용 등에 깊이 연관되는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떤 일정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이유, 경위,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환경, 지역 커뮤니티(community)의 형성 등 이민자들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그들의 언어생활과 언어교육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1. 기지촌과 다문화가정: 연구상황

2000년대에 들어 한국에서 급격히 증가한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다문화가 정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며, 한국어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언어적 디스커뮤니케이션(dis-communication)에 있었고, 그로 인해 언어적 지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지원대상으로서 명단에 오른 '다문화가정'이란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李 2012), 정책적으로 관심을 모은

한국 '기지촌', 이민자 2세 아이들의 언어생활 279

사람들은 한정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가 부여된 높은 가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민가족, 그 중에서도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언어생활과 언어교육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특수한 환경이란 미군기지에 경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성립되는 '기지촌'이며 한국 내에 위치함에도 한국어의 사용이 극단적으로 적은 언어환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민생활에서 언어문제는 특히 시급한 문제로 제기될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한국임에도 한국어 대신 영어가 주된 언어로 유통하고 있는 지역, '기지촌'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기지의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에서는 외국인 전용 클럽 등이 밀집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 러 나라와 러시아 등지에서, 이른바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E-6비자를 취득 한 1년 기한의 취업목적 외국인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체류가 장기화 되면서 이민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 여성들 대부분은 사회적,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장래에 대한 계획도 불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 여성들의 가족, 특히 그들의 자녀들의 언어생활과 언어교육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기지촌'에 관련된 연구는 Moon(1997)에서 '기지촌'의 정치적 의미를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해석한 작업을 비롯하여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미군 기지 문제와 더불어 제기되었다. 그 작업들은 사회학이나 여성학 분야에서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나 젠더(gender) 등의 시각에서 이론적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예를 들어, 이나영 2007; 2011; 山下 2010; 박정미 2014 등). 인류학 분야에서는 '기지촌'의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선택, 엔터테이너(entertainer)로서의 직업의 식 등, 그들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삶의 주체자로서 무대에 올렸다(Cheng 2013; 徐 2007 등). 또한 학계 외에서도 정부와 NGO가 수집한 두레방(2007) 과 같은 자료들이 '기지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소수이지만 '기지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지촌' 여성들과 그들의 생활, 역사적·정치적 배경, 그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 문제 등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에서 '기지촌'에서 생계를 이으는 여성들의 2세로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 1.2. 아이들과의 만남: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이민가정, 특히 귀국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체류에서 장기적 체류로 넘어간 가정의 언어환경이다. 경기도 D시, '기지촌' 인근에 소재하는 공립 B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반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의 공립초등학교에서 미등록1 아이들을 포함한 다문화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B초등학교 다문화반을 중심으로 기지촌 2세 아이들의 언어생활과 언어교육의 상황을 살펴본다.

조사협력자를 찾기 위해 맨 처음 방문한 곳은 기지촌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NGO단체이다. 그곳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 언어교육을 받을 만한 학령기<sup>2</sup>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학령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중 필리핀 여성은 자녀가 있어도 아직 말을 배울 단계가 아닌, 수유중의 유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sup>1</sup> 법적으로 거주 자격이 없는 상태인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로 민간단체에서 선택적으로 쓰인다. 이것은 밀입국도 범죄자도 아닌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용어로 해석된다.

<sup>2</sup> 한국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학령기(学齢期)란 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 야 할 시기인 만 6~12세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학령기를 만 6~12세 전후의 나이, 즉 언어 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까지를 포함해서 논하기로 한다.

"필리핀 여성들은 애기들 나면, 여기에서 애기를 키우면은 자기가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료를 시키거나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본국에 있는 엄마나 이모나 누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이들 돌봐주고, 필리핀 여성은 (일부가) 불법적인 상태에서 일하면서 생계비를 보내지. 근데 러시아는 그런 문화가 조금 부족할수도... 굉장히 모계사회.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거의 뭐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애." [NGO원장]

학령기의 아이들은 의외로 그 수가 적었고 그 중에 조사에 협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다. 러시아 여성 3명과 몽골 여성 1명을 만났으나 결국 인터뷰 허락을 받은 것은 러시아 여성 3명뿐이었다.

한편 미등록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원을 설치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NGO단체도 소개받았으나 아쉽게도 보육원사업은 시작된지 5년만에 종료되어, 첫 방문이 단체의 마지막 행사인 사업보고회였다. 그러나 그 보육원에 다녔던 아이 한 명이 조사협력자인 러시아 여성의 자녀였고, 보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의 공립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아이가 다니는 D시의 B초등학교를 찾아가게 되었다.

본 논문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실시한 질적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B초등학교 다문화반에서의 참여관찰과 담임교사의 인터뷰, NGO에서의 인터뷰, 조사협력 가정에서의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처음엔 질의응답형식으로, 나아가서는 자유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아이들의 언어사용 상황을 음성자료로 수집하기도 했다.

# 2. 이민과 기지의 사이- '기지촌'

# 2.1. 기지촌이란

'기지촌'의 형성과정을 지리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기지촌'이란 "정치적, 전략적,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주둔하는 병영을 중심으로 그 주변

에 발달되며 서어비스업 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군사취락(聚落)"(金在洙 1980: 277)으로 설명된다.

한국 사회 내에서 '기지촌'은 "한국 성매매의 역사의 공간이기도 하며, 한국 근·현대사의 뒤틀린 역사적 기호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상징적 공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두레방 2007). 이러한 차별과 억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지촌'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들의 호칭이다. 즉 양갈보(洋蝎甫)³, 양공주(洋公主), 유엔마담, 특수접대부, 양부인, 윤락여성, 매춘여성 등으로 불리는 여성들은 모두 무관심과 혐오, 비난, 흑은 동정의 대상이었다고 한다(김미덕 2014: 123-124). 사실 필자는 조사과정에서 오래전에 성산업에 종사했고 독거노인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한 한 국인 여성이 "우리끼리 양갈보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그렇게 부르는 건 매우 화가 난다"고 분노한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전경수(2007)는 '기지촌'을 "성적 욕구로 충만한 미군병사와 그들의 상대역으로 생활수단을 삼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것이 기지촌이 아니다. 그 것은 기지촌의 극단적인 한 모습"(전경수 2007: 163)이라며 그 기능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金朝寧(1978)에서는 '기지촌'에서 경관의 특색을 상가(商街)와 위안부촌(慰安婦村)으로 나누어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金朝寧 1978: 94-96). 이것 또한 '기지촌'의 기능이 성산업만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하고 있다.

# 2.2. '기지촌'과 이민자: 여성들의 경우

'기지촌'에는 199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외국인 여성이 유입되기 시작했다.4 1996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5가 외국인 연예인에게 적용되면서 필리

<sup>3</sup> 李能和(1992=1927)에서 갈보(蝎甫)란 유녀(遊女)의 총칭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sup>4</sup> 현재 미군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며 한국인 여성들은 일부 포주나 영업관리자로서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도 잘 알리지 않는다. 실체로 필자가 이런 연구에 대해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이야

핀, 러시아 등지의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 입국이 증가했다. 그러한 현상은 1999년부터 간소화된 수속절차로 인해 더욱더 증가해 왔다(문화관광부 외 2006: 3).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현지업자와 한국의 기획사가 연결되어 모집에서 입국까지 모든 절차가 조직적으로 추진된다(두레방 2007). 2000년 대 중반부터 예술흥행(E-6) 비자의 절차가 정책적으로 까다로워지면서 발급 받은 여성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들어 E-6 비자 입국자가 감소하여, 그 후 러시아 여성들은 일반종합(C-3) 비자6를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장준오 외 2011; 두레방 2007).

연예홍행(E-6)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이 된다. 2003년부터 예술 홍생(E-6) 비자가 세분화되어 고급 예술공연을 의미하는 예술연예(E-6-1) 비자와 운동(E-6-3) 비자, 그리고 예술흥행(E-6) 혹은 호텔유흥(E-6-2) 비자는 관광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방공연의 비자로 나뉘어졌다(두레방 2007: 22-23). 〈표 1〉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예술연예(E-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총체 외국인 여성과 필리핀 여성의 수를 나타낸 통계자료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에서는 비자 종류가 분류별로 나뉘어져 나와 있다. 수치로 부터 예술연예(E-6) 중 호텔유흥(E-6-2)의 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필리핀 여성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표 2〉은 러시아 여성의 단기종합(C-3)과 연예

기할 때도 잘 몰랐다고 놀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sup>5</sup>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의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술흥행(E-6) 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유흥업소로 들어가는 대 표적인 형태이다. 두 번째는 성산업 아닌 업종으로 취업하였다가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여성들은 비자 상실과 동시에 미등록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두레방 2007; 설동훈 외 2011).

<sup>6</sup> 일반종합(C-3) 비자는 90일 기한으로, 영리목적 제외한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범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 2014).

흥행(E-6)의 통계를 비교한 것이다. 러시아 여성의 경우 연예흥행(E-6)이 아닌 단기종합(C-3)으로 입국한 여성이 대부분인 것이 확인이 된다.

(표 1) E-6 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 체류 현황(2007-2013)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3336 (2259)	3736 (2924)	3373 (3067)	3258	3830	3481	3220
예술흥행(E-6)*	2681 (1932)	3100 (2566)	3065 (2806)	2862	3171	2930	2760

\*2009년까지 괄호 안의 수는 E-6-2의 통계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

#### (표 2) 사증별 러시아 여성 체류 현황(2007-2013)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기종합(C-3)	1981	1435	1396	1063	1289	1362	1677
예술흥행(E-6)*	187 (94)	132 (101)		71	80	62	56

\*2009년까지 괄호 안의 수는 E-6-2의 통계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

### 2.3. 조사협력가정: 첫 만남

연구를 시작한 최초에는 필리핀 여성들을 찾아가 인터뷰 의뢰를 할 계획이었다. 필리핀 여성들은 영어와 타갈로그(Tagalog)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에 체류하는 필리핀 여성의 경우, 그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유아가 대부분이었고 아직 말을 배우기 전 단계였다. 외국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NGO에서들은 설명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에서 계속 육아를 하지 않고 필리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고 한국에서 월급을 송금하는 경우가 거의전부였다. 또한 그들은 가족의 유대감이 강하여 비자 만료와 동시에 귀국하

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단 본 논문에서는 그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만난 여성은 몽골 출신이었다. 몽골 여성은 그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주로 영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령기의 아이가 있는 한 여성에게 조사 협조를 의뢰했으나 거절당했다. 그이유로 과거 언론에서 취재를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을 들었다. 그녀는 필자에게 아이들이 몽골어를 배웠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했다. 필자의 관심을 끈 이야기였으나 정중하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존중하였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 러시아 여성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경기북부지역 D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은 생활하는 곳이 서울에서 거리가 아주 멀기때문에 서울에 있는 러시아인 학교나 교회(러시아정교회)와 같은 곳에 다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렇듯 러시아인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기어려운 상황도 영어권인 '기지촌' 지역에서 영어사용을 생활의 중심이 되게만든다. 여성들은 모두 '기지촌'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현재 미등록상태로 난민신청을 한 상태이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가정들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장기체류와 한국에서의 육아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듯하다. 필자가 세 명의 러시아 여성들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출신지역과 연령대는 달랐지만 서로 알고 지내며 그들의 아이들끼리도 친한 친구 사이었다. 이 세 명의 여성들은 인터뷰 의뢰를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이 논문에 그들의 생활이야기를 제공해주는 주된 협력자가 되었다. 세 명의 여성과 그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는 2013년 11월말부터 12월초에 실시했고, 제시한 연령과 학년은 인터뷰 당시의 것이다.

#### 〈사례1〉

### MD 여, 40세,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대학시절, 용돈벌이를 위해 시작한 사업 때문에 처음 한국에 왔다. 그 후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한국과 러시아 사이를 왕래하다가 계속 체류하게 된지 12년이 지났다. 처음엔 1년만 있다 가려고 했지만 어느새 장기화되면서 5년째 무렵부터 정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귀국할 생각은 없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영어학습의 경험이 있어 영어회화에는 어려움이 없다. 러시아어가 제1언어이지만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영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고, 한 국에서 생활하면서 친구한테 조금씩 배웠다. 자유롭게 일상회화를 구사할 수는 없 지만 듣기와 간단한 대화 정도는 가능하다.

(\*이 가정은 인터뷰 당시 미등록 상태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었다. 2014년말에 난 민으로 인정받았다.)

### NT 여, 9세

MD의 외동딸. 인터뷰 당시에 9세로 외국인학교에서 2학년이었다. 제1언어는 영어이다. 장래 한국에서 대학교 진학을 하려면 한국어 학습이 필수가 된다. 미국 대학으로 보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어머니)

한국어는 외국인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의 토요일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말하기는 못한다. 외할머니가 러시아어만 하니까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 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어는 간단한 듣기 정도만 가능하다. 특이사항으로 난 독증 증세가 보이며 그로 인해 학습에 있어서 고생하는 상황이다.

#### 〈사례2〉

### EL <u>여, 38세, 하바롭스크 출신</u>

부모님과 동생은 다른 외국으로 이주했고 러시아에 가족이 남아 있지 않는다. 2001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2002년부터 4-5년정도 러시아와 한국을 왕래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11년이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래에 대해선 잘모른다. 지금의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진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는 러시아에서 배웠지만 말하기 실력은 한국에 오고난 후 생활하면서 조금씩 익혔다. 한국어는 간단한 듣기가 가능하며 약간의 회화도 한다. 영어는 학습하기 쉽지만 한국어는 학습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한다. 직장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한국어는 2년 전에 다문화센터에서 배운 적이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초보반이 없다. 한국어를 못해서 곤란한 적이 가끔 있다. 길을 묻거나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하는 것이 어렵다.

아이가 셋이며 큰애는 러시아에서, 둘째와 셋째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큰 애만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읽기 쓰기는 안 됨). 둘째와 셋째는 몇 개 단어를 아는 정도이다. 아이들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알면 좋겠지만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 셋째가 한국의 공립 B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다문화반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있고, 방과 후의 프로그램도 풍부해 매우 만족스럽다. (공립학교가 무료이기에) 등록금 면에서도 부담이 없어서 좋다.

(\*이 가정은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가족이다. 인터뷰한 1년 후에 경기도 남부지역으로 이사갔다.)

### EV 남, 15세

외국인학교에서 9학년(고1)이다. 5살 때 한국으로 와서 러시아어도 할 줄 알지만 제1언어는 영어이다.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 컴퓨터 게임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다. 진로에 대해 아직 깊히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언젠가 한 번러시아에 가보고는 싶지만 살 생각은 없다.

### RC 남, 9세

외국인학교에서 4학년. 러시아어는 단어 몇 개를 아는 정도이다. 한국어는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의 토요일학교에서 배워 조금 이해한다.

인터뷰 6개월 후에 동생이 먼저 다니고 있던 B초등학교에 전학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이사갔지만 전학신청은 아직 안 한 상태이다.)

### <u>MR</u> 남, 7세

B초등학교 1학년. NGO가 주최한 지원보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한국어를 습득한 후 B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영어도 할 줄 알지만 한국어가 '제일 편하다'고 하며, 현재 제1언어는 한국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나이에 비해 말이 서툴다는 인상이 있으나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양이었

다. (\*인터뷰 1년 후에 이사했지만 형인RC와 마찬가지로 전학신청은 아직 안 한 상 태이다.)

## 〈사례3〉

## GI 여, 31세,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2001년 당시, 처음으로 한국에 왔었던 이유는 외국에 가보고 싶어서였다. 그 후 12년간, 왕내를 해오다 2007년부터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이유는 자녀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교육을 시키는 일은 상상도 못한다. 남편은 페루사람이지만 페루는 안전하지 못하기에 가서 살 생각은 없다. 스페인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주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다소 할 줄 안다. 2013년에 3개월 정도 배웠고, 계속 안 쓰면 잊어버리니까 다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다. 가정 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로, 상황에 따라 영어를 쓰기도 한다. 남편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들은 후 영어로 대답한다.

## NZ 여, 10세(?)

초등학교 3, 4학년(정확히 듣지를 못했음)으로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다. 인터 뷰에 협조하기 위해 일찍 하교했지만 결국 낮을 가려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학교 성적도 좋다고 한다.

## SB 남, 4세

초등학교 입학 전이며 겨우 말하기 시작한 나이이다.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2015년도 입학을 앞두고 B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 견학을 가기도 헸으나 외국인학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사례3〉은 이민언어가 가정 내에서 다중언어화한 사례이며, 4개의 언어가 한 가정 내에서 교차하는 매우 복잡한 언어사용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형태는 '기지촌'이라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또다른 언어권을 형성하는 곳, 즉 한국사회와 미군문화가 접촉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공간을 Pratt(2008=1992)은 '콘택트 존(contact

zone)'이라 불렀다. '콘택트 존'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meet), 충돌하여 (clash), 격투하는(grapple) 사회적 공간으로서 지배와 종속이라는 극단적인 비대조적 관계(asymmetrical relations)에서 생긴다고 한다(Pratt 2008=1992: 7). 田中(2007)는 Pratt의 '콘택트 존'을 패전 후, 미군정기 하 일본에 존재한 일종의 '기지촌'에 적용했다. 田中의 분석에서 한국 '기지촌' 나아가 3장에서 논하려고 하는 B초등학교 다문화반이라는 공간 또한 '콘택트 존'이 될수 있으며 '기지촌' 공간과 또다른 아이들만의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2〉는 같은 집에서 사는 한 가족 내에서도 접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제 간에 다른 언어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사례이다. 〈사례3〉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의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데, 부모가 서로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형제는 부모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형제끼리는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즉, 언어습득은 형제간에서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는점에서 〈사례2〉와의 큰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다.

〈사례1〉의 언어상황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아이가 글 배우기에 약간의 복잡한 순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수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한국어 학습 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말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그리고 이 가정의 아이 NZ는 세 가정 중 2015년도 현재 유일하게 B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필자의 중요한 연구 협력자가 될 것이다.

# 3. B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앞에서 사례로 제시했듯이 아이들 중 몇 명이 다니고 있는 배움터를 찾다가 B초등학교 다문화반을 만나게 되었다. 다문화반에 다니는 학생들과 담임교사, 그리고 강사들과의 첫 만남은 2014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될 때였다.

다문화반 학생들은 인종과 민족, 부모의 출신지역, 본인의 출생지 등 모두 가 다양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피부색, 사용언어도 당연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한 가정에서 한 부모가 다른 형제간의 피부색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

친구가 오리지널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담임교사가 필자에게 한 학생을 소개시켜주면서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8살 때 한국에 입국한 학생이었고 한국에서 태어난 나이지리아 학생과 정서가 조금 다른 점도 지적하였다. "머리나 생긴 게 다른 나이지리아 친구랑 조금 다르잖아요. 부족이 다르대요." 당연한 일이지만 같은 나라 출신이라고 해도 그 모습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듯 다문화반 학생들의 가정 환경은 다양하다. 부모들의 직업도 다양하고, 선교사가 있다고 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다. 또한 흑인 전용 미용실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있고 미군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아버지도 있다. 생활환경 면에서도 한부모가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양부모가 모두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돌봄이 없어 혼자 방치된 아이들의 경우도 있었다. 앞에서 논하듯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등록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모이는 것은 B초등학교이외에는 없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도 몇 군데있으나, 그 지역에서는 어떤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고 거기서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아도다양성은 거의 없다. B초등학교의 특수 환경은 미군기지 때문이라고 담임이말한다. "영어가 되니까......" 미군기지와 미군기지에 의해 형성된 '기지촌'에모여서 사는 외국인들은 영어 생활권에 모인 것이다.

D시에는 미국 시카고주 교육과정에 따라 그대로 교육하는 미국학교가 있다. 미국학교 부지 내의 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한국어 교실도 열려 있다. 영어생활권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미국학교에서 해결되지만 비싼 등록금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한부모의 경우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기에 바빠 그로 인해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한다. 방치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가정이 많은 것도 다문화반의 특징이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깊지 않다. 또한 부모가비영어권 출신인 경우 부모의 제1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거의 없는 상황이며, 앞에서 논했듯이 같은 나라

나 지역 출신의 커뮤니티(학교, 교회 등)에 접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제1언어를 배우는(inherit)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부모의 출신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의 부담이 없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비롯한 여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에 다니려면 일정 정도 수준의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미등록인 경우, 한국어 소통이 잘 안 되어 부모가 입학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NGO단체가 보육사업을 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을 찾아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이끌어낸 일은 하나의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아쉽게도 사업이 5년으로끝났지만 B초등학교에서 다문화반이 개설된 것이 2012년이며, 그 시기와 겹쳤던 것이 외국인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7지금 B초등학교에도 외국인 아이들이 신입생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학기 중에도 필자가 찾아갈 때마다 중도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몇명 보였다. 필자가 처음으로 B초등학교 다문화반을 찾아간 후, 다시방문한 불과3개월 사이에 학생 수가 거의 2배가 되어 있었다. 다소 과밀한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미등록 외국인 학생은 국제조약이나 한국법에서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서 학생들의 입학은 의무교육에 한해서는 학교마다 교장 재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B초등학교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법적근거를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 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경기도 초등학교 다문화특별학급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sup>8</sup> (「다문화예비·특별학급운영계획」전문에서)

<sup>7</sup>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비원보육사업은 2013년 12월에 종료했다. (월드비전경기북지부 외 2013).

지금까지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왔다. 2008년에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 법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된 '결혼이민자가족법'에 불가하다는 지적도 있다(李 2012).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정의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법적 지위가 미등록인 상태로 이전되면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종료한 NGO의 보육원사업도 그런 사각지대를 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민간 복지지설로 인정받은 보육원에서 고용된 교사는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자격만이 인정되는 시설을 유지하려면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포기한 교육봉사자가 필요했다. 한편 B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 능력이 전무한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영어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반 담임교사에게 영어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반 담임교사의 설명에 의하면 경기도는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도의 내부 지역마다 출신국, 출신지역 등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그 중에서 D시는 미군기지시설이 많고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기지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기지와 '기지촌'에서 일하는 가족도 많다는 특징이 있다. '기지촌'에서 일한다는 것이 곧 성산업에 종사한다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학생들의 부모 중에서는 예컨대 '기지촌'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하거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D시는 또한, 다른 지역처럼 출신지역이나 국가가 같은 외국인들이 집결해서 거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지시설 주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출신국이나 지역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sup>8</sup> B초등학교 다문화반의 설립에 관한 법적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항, 제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2012~2016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2012.01) 에 있다.

## 3.1. 다문화반에 모이는 아이들

다문화반은 B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20%가 넘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오가고 있다는 표현은 다문화반이 학생들을 일반 학급에 보내기 위한 과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은 다음 2절에서 논하기로 하고 우선 어떤 학생들이 다문하반에 다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다문화반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다.

- 1) 법령에 지정된 대상
  - ·외국에서 귀국,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기타의 아동·학생
  - ·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보장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보장' 행정지침
- 2) UN아동의 권리 협약 등
- 3) 경기도교육청 다문화특별학급 교육과정운영방침
  - · 외국인가정 자녀(미등록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 중도입국학생, 국제결혼가 정자녀
  - · 학년은 학생의 학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의 수학능력, 연령 및 학부모 의 의견 등을 고려함, 특별학급의 재학기간은 2년까지.

위의 규정에 따라 다문화반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이미 중학생이 되어야 할 나이의 학생도 있다. 언어 문제 그리고 문화 차이에의 적응 문제 때문에 학년과 연령이 일반 학생들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형제와 함께 다니는 학생도 많고, 그들 중에는 실제 나이가 학령기에 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는 학생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태어난 그 학생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 또한 멀리 떨어진 거주지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 중에는 일반 학급에 들어갈 시점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로 전학했다가 적응이 안 되어서 다시 B초등학교로 돌아온 학생도 있다. 성장 배경도 다양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학생도 있고 중도 입국한 재외국민 학생도 있다.

학생들의 구성은 〈표 3〉에 제시한다.

(표 3) B초등학교 다문화반 현황 (2014년 6월)

(단위: 명)

구 분 9	필리핀	중국	나 이 지 리 아	미국	베트남	일본	북 한 10	파키스탄	페루	태국	리 시 아	방 글 라 데 시	남아공	라 이 베 리 아	합계
남	12	5	4	3		1		1		1	2		1	1	31
여	8	2		1	2	1	2	1	2		1	2		1	23
계	20	7	4	4	2	2	2	2	2	1	3	2	1	2	54

## 3.2. 다문화가정 예비·특별학급

학생들이 다문화반을 오가고 있다고 앞에서 기술했는데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B초등학교가 작성한 다문화반 운영 계획서를 살펴보자.

다문화반의 개설목적은 한국어 활용능력 신장, 생활 적응력 신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학습 적응력 신장을 통한 학교생활의 질 향상, 생활지원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무학년제로 한 학급(다문화반)을 개설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담임 한 명, 한국어강사 한 명, 이중언어강사(이주여성) 두 명이며, 1년의 예비학급과 그 후의 특별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비학급은 한국어 학습을 중심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1년간의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어과'로 옮긴다. 특별학급은 예비학급을 종료한 후에 시작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학습지도가 도입이 된다. 그 외에 발명교실, 국악(사물놀이 등), 생활체육(축구 등), 생활국어(연극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학급 시기부터 조금씩 입학 시에 배정되

<sup>9</sup> 다문화 사유로 구분이 되므로서 현재 국적이 한국일 경우가 있다.

<sup>10 〈</sup>표 3〉은 B초등학교에서 작성한 책자를 참고로 재구성한 것이며 본 논문에서 사용한 표현 은 참고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임을 확인한다.

었던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다문화반 운영의 최종목표는 학생들이 일반학급에 완전 환급(還級)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학생에 따라 그 비율과 속도에 차이가 있다.

다문화반은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제의 다문화센터나 대학생 봉사, 그리고 NGO 등과의 제휴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학생을 돌보기에는 담임교사 한 명과 계약 언어강사 세 명으로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 배경언어도 다르고 학습진도와 학교문화에의 적응 속도도다른 학생들을 개인별 지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늘 인력이 부족하다. 문화차이로 인한 학생들의 충돌도 교사들의 지도가 미치지 않는 빈틈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늘 불안정하며 때때로 갑작스레 예산에 관한 통보가 내려오기도 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교육방침을 세우기가 어렵다.

예산과 관련해서 강사의 인건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어강사와 이중언어강사는 서로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자격을 부여 받아 다문화반에서 근무하고 있고<sup>11</sup> 고용체제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인건비문제에 예민하다. 2014년 말, 세 명의 강사의 서로 다른 재계약에 관한 문제가제기되었다. 먼저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이중언어강사였다. 학년말까지 두 달남긴 2월,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었고 재계약의 전망도 안 보인 채 학교를떠나야 했다. 결국 2015년도부터 근무시간을 줄여서 다시 계약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한국어강사가 계약갱신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강사는 줄어든 것이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의 10분의 1이 된 것도 그러한 상황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랜드가 바뀐 거예요. 다문화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 초등학교에서 성과를 보였으니까 다음엔 중학교로 예산이 옮기고 ··· 유행 타는 것 맞아요." [다문화반 담임]

<sup>11</sup> 필자는 강사양성과정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교육이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다문화반 학생이 한국 전체로 보면 극소수자이기 때문이다. 혹은 자주 이동해서 학생교체가 심하고 유동성이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다.

## 3.3. 아이들의 언어생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B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양하다. 그 중 영어권 나라에서 한국에 왔거나 부모가 영어권 출신이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일 경우가 제일 많다. 영어권 출신의 부모, 혹은 학생들이 다수인 것은 B초등학교가 '기지촌' 인근에 위치한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중에는 필리핀 출신이 제일 많고,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공식적으로는 영어로, 같은 필리핀 학생들끼리는 타갈로그로 대화를 나누었다. 필리핀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 출신의 학생이다. 이중언어강사 중에 한 명은 중국 조선족 출신임으로 가끔씩 중국어를 섞어서 그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수업도 시작하고 있다.

영어권이라는 관점에서 필리핀과 더불어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남아공의 아프리카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아시아계, 그리고 러시아 학생까지 포함하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에는 영어가 중심이 된다. 언어가 통하는 친구들끼리 무리지어 노는 경향도 있다. 같은 나라 출신 부모가 형성한 작은 커뮤니티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끼리만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출신지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과 그 지역의 언어로 채팅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툰 학생은 교사가 유도하면 한국어로 말하기에 노력을 보이다가 가끔 아이 콘택트로 넘어가려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교사에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어 습득의 속도와 운영능력은 본인의 학습의지와 크게 관련이 있다.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 중에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학습 부진아였던 경우가 몇몇 있다. 그런 경우는 습득이 느린 편이라고 한다. 아프리카계 학생들은 습득 능력이 상당히 높아보이긴 하나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는 습관이 안배어 있어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 체류해온 학생의 언어능력은 타학생에 비해 높으며 체류기간에 따라 한국어습득속도에는 차이가 생긴다.

'기지촌'에서 종사했던 여성의 가정은 다문화반에서 따로 찾을 수 없었으나 미군과 필리핀 여성이 결혼한 미군가정을 배경으로 갖는 학생은 몇명 있었다. 그런 경우 어머니가 결혼 전에 어떤 직업이었으며 어떻게 미군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 미군가정 학생 중에 다음과 같은 사례를 발견했다.

### 〈사례4〉

JA 여, 15세

Ⅱ 여, 14세

ZI 여, 11세

미군가정의 세 자매이다. 2014년 6월에 B초등학교 다문화 반에 입학하였다. 2015년 1월에 한국을 떠날 것이 경정된 상황이었지만 6개월이라도 한국어가 배우고 싶다며 입학을 희망했다. 6개월 후에는 독일 아니면 하와이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세 자매 중 JA와 JI는 모두 중학교에 다닐 나이였지만 다문화반에서 한국 어를 배우고 있었다. 학습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가을이 되어서는 JA가 심한 감기 때문에 결석을 한 것을 계기로 아예 학교에 안 오게 되었다. 결국 세 자매 모두가 한국을 떠나기 2달도 전 부터 등교하지 않게 되었다. JA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한국 음악에 관 심이 있다고도 했으나 그것이 학습의 동기부여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결석 이 계속되었기에 담임교사가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는 학교에서 영 어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킬 줄 알았다고 했다.

《사례4》는 정착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B초등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킨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4〉의 자매를 주목한 것은 역시 '기지촌'의 특수성과 '한국사회와 미군문화가 접촉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행동들이었기 때문이다. 조금 되돌아 〈사례2〉를 다시살펴보면 MR는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 거의 2년만에, RC는 중도 입학하자마자 6개월만에 학교를 떠났다. 어머니가 이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伊豫谷(2007)는 이민연구에서 공간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이라는 행위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기했다. 이동이라는 행위에서 '기지촌'을 재고한다면 〈사례4〉와 〈사례2〉는 별로 특별한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거기에 '기지촌'이 있기에 가서 살게 된 것이고 그들의 생활 공간은 한국의 D시의 '기지촌'만이 아니라 '기지촌' 혹은 '기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사용과 선택, 그리고 언어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사례2〉, 〈사례4〉와 같은 이동하는 가정들이 〈사례1〉, 〈사례3〉의 가정들과는 다른 점은 '기지촌' 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사례1〉, 〈사례3〉의 가정도 언제 어디로 이사할지는 모르는 사정이다. 〈사례3〉의 경우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로 계속 D시에 머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사례3〉에서 세 남매가 모두 외국인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도 그런 추측에 또 하나의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생활공간의 이동에 의해 교육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다. B초등학교 다문화반 담임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생활공간 이동이 또 다른시각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이 지속됨을 강조한다. "문제는 부모님이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담임교사의 시각은물론 이민자의 시각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대안이없는데....."라는 말에서 학생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교사의 열정과 애정이 느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착이 삶의 전제라는 그 말은 이동과는 대립된

개념으로 보이기도 하다.

담임교사에 의하면 〈사례1〉의 NT는 한글 읽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이 언어습득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글을 배울 때는 그림을 활용해 영상을 떠올리며 외우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읽기 외의 말하기, 듣기, 쓰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실제로 D초등학교에 입학한지 10개월 지나서 2015년 신학기에는 4학년으로 진급한 NT는 한국어로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다. 어떠한 요구 사항이 있거나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말하려할 때에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조금씩 일반학급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어머니인 MD가 NT를 외국인학교에서 D초등학교로 전학시킨 것도 정착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사례1〉가정의 공간 선택은 일단 한국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 선택에 따라자녀인 NT의 언어교육도 한국어 중심의 언어교육으로 선택한 것이다.

## 4. 나가며: 과제와 전망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기지 촌' 인근에 위치하는 B초등학교의 다문화반을 비롯해, '기지촌'에 생계를 의존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NGO 등에서 참여관찰을 하고 몇명의 협력자를 얻어 인터뷰를 실시했다. 한국의 공립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미등록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기에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자료수집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충분한 분석자료가 준비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연구과정에 있고 앞으로 남긴 과제도 많다.

본 논문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기지촌'지역에서는 주류 언어로 영어가 쓰이기 때문에 영어만 사용할수 있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영어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NGO 등 민간과 공공 지원서비스도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은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

- 2) 부모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 가정 내에서 두 개 이상의 복수 언어가 교차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B초등학교에 입학 한 아이들은 다중언어상황에 놓인 가정과 한국어를 주류언어로 하는 학교 사이를 왕래하고 있다.
- 3) 다문화반 담임교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강조하지만 '기지촌' 혹은 '기지'에서 생활하는 가정은 자주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유동성이 크다. 이동이라는 행위에서 '기지촌'을 볼 때는 시각이 달라진다. '기지촌' 혹은 '기지'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생활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4) 하지만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이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B초등학교 다문화반의 담임교사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확률이 높은 아이들은 장래를 생각해 한국어가 필수라고 주장하며, 미국학교에 보내는 것의 불이익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또한 강조했다. 유동성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출신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한국에 온 부모들이 많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바빠 아이들의 교육까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지촌'은 경제기반을 기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큰 공간으로서 영어가 주류언어로 사용되고, B초등학교 다문화반의 경우, '기지촌' 주변지역까지 그 범주를 넓히면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교육을, 나아가 한국의 학교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한국사회와 미군문화가 접촉하는 공간'으로서의 '기지촌'이 '콘택트 존'이면 '기지촌' 인근에 위치하면서 거기서다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B초등학교 다문화반은 학생들만의 '콘택트 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콘택트 존'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교차한다.

山本(2007)는 복수 언어와 문화가 교차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언어선택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언어선택에 있어서 언어환경적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회적·교육적 언어지원'과 가족의 이동태도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鈴木(2007)는 이중언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언어선택에는 부모의 지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냈다. 그런 의미에서 B초등학교 다문화반에 다니는 학생들은 부모가 한국으로 이민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학생들의 선택이 부모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가 아이들을 미국학교를 보낼 선택을 한〈사례3〉에서 아이들은 영어를 선택한다. 하지만 B초등학교 다문화반에서학생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보다 더 다이나믹할 수도 있다. 언어사용에 대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보다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학생들 간의 회화 속에 이런 의문들의 답을 찾을 있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학생들 간의 회화를 토대로 담화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요구되고 있는 과제는 많다. '한국사회와 미군문화가 접촉하는 공간'에서는 선택과 그러한 선택을 유도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그 공간 안에서 다문화반 학생들의 언어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영어 〉

- Cheng, Sealing (2013) On the Move for Love: Migrant Entertainers and the U.S. Military in South Kore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oon, Katharine H. S. (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Pratt, Mary Louise (2008=1992)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 〈 하국어 〉

- 김미덕(2014) 「주한미군 기지 정치(Base Politics)연구에 대한 검토」, 『아태연구』 21(1), 경 희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109-141.
- 金在洙(1980)「基地村에 關한 社會地理學的 研究 -東豆川을 事例로-」,『국토지리학회』5, 국토지리학회, 274-294.

- 金朝寧(1978)「基地村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京畿道 坡州地方을 中心으로-」,『지리학과 지리교육』8,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75-105
- 두레방(2007)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연국용역 사업보고서」, 경기도.
- 문화관광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06) 「200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2014) 「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
  oti0096&strWrtNo=126&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
  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2015\_04\_07)
- 설동훈·한건수·정경숙·박수미·조진경·박혜정(2011)「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나영(2007)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한국여성학회, 5-48.
- \_\_\_\_(2011)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 주'」, 『東方學志』16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38.
- 월드비전경기북지부, D시가정개발센터(2013)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5주년 사업 보고서』, 월드비전경기북지부.
- 李能和(李在崑訳)(1992=1927)『朝鮮解語花史』, 서울: 東文選.
- 장준오·이윤미·한종만·김정훈·배규성·김봉석(2011) 「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경수(2007)「沖縄(日本) 基地村의 形成과 美軍-住民 關係: 金武町의 新開地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1, 서울: 서울대학교지리교육과, 125-176.
- B초등학교(2014)「다문화예비·특별학급운영계획」.
- \_\_\_\_\_(2014) 「스스로 발전하고 서로 어우러지며 변화를 선도하는 Global Literacy 기르는 B다문화교육」

### 〈일본어〉

- 李賢珠(2012)「韓国における結婚移民者の急増と「多文化家族支援法」」,川村千鶴子編,『3.11後の多文化家族-未来を拓く人びと』,東京:明石書店,197-205.
- 伊豫谷登士翁(2007)「方法としての移民」,伊豫谷登士翁編,『移動から場所を問う一現代移 民研究の課題』,東京:有信堂高文社,3-23.
- 鈴木一代(2007)「国際家族における言語・文化の継承―その要因とメカニズム―」, 異文化教育学会, 『異文化教育』 26, 京都: アカデミア出版会, 14-26.

- 徐玉子(2008)「性産業に携わる外国人女性たちの表象とエイジェンシーー在韓米軍基地村のフィリピン人女性「エンターテイナー」の事例から」、『コンタクト・ゾーン= Contact zone』 2, 京都: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人文学国際研究センター, 71-88.
- 田中雅一(2007)「コンタクト・ゾーンの文化人類学誌へー『帝国のまなざし』を読む」,『コンタクト・ゾーン= Contact zone』1, 京都: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人文学国際研究センター, 31-43.
- 山下英愛(2010) 「韓国における性売買政策の概観」、宋連玉・金栄編著、『軍隊と性暴力: 朝鮮半島の20世紀』、東京: 現代史料出版、305-357.
- 山本雅代(2007)「複数の言語と文化が交差するところ-「異言語間家族学」への一考察-」、 異文化教育学会、『異文化教育』26、京都:アカデミア出版会、2-13.

# 한국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정희성

도시샤대학대학원 박사과정

## 1. 서론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독거노인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변용, 노부모 부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미혼 및 황혼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홀로 사는 고령자 수의 증가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통계청(2012)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全)세대 중에서, 노인단독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이며, 2035년에는 약 38%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고령자세대 중에서 단독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45.1%이며, 2035년에는 약 51.4%까지 증가하여 고령자세대의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독거노인 수의 증가와 함께 그들을 둘러싼 자살, 고독사(고립사),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문제를 비롯해 그에 대한 예방책은 한국을 포함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독사와 자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2012)에 따르면 독거노인세대 총 119만 명 중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세대는 약 3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 가맹국 중에서도 2012년도 인구 10만명당 자

살률이 29.1명으로 가장 높은 실정인데, 이러한 결과는 과거 10년간에 걸쳐 지속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한국의 자살률이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고령자의 높은 자살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8.8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인 12.5명보다 약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3).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자살, 고독사,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대부분이었고, 시설 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진입하면서 독거노인 수는 서서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재가노인 중에서 도 원조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가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그 결과, 1987년부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도입되었고, 1993년에는 노인 복지법 개정과 동시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사업 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개하게 된다(이은희 2009: 185-195). 2007년에는 본격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과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이 도입되었고, 독거노인의 안전을 둘러싼 사회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다. 2009년 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이 '노인돌봄서 비스'로 통합되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로,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각각 사업명칭이 바뀌게 된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후 '기본서비스'라 칭함)는 독거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살, 고독사,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안전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사업이며, 구체적으로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종합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서비스의 정착과 관련된 문

제점은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과의 연계, 서비스의 효과성, 직무환경 등에 있어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권동준 2010; 김옥희 2011 등).

지금까지 기본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를 통한 서비스 효과성 평가, 이용자의 만족도, 독거노인의 우울 및 자살생각 등 다수의 선행 연구가 보고 되어 왔고, 이를 통해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향후 질적 연구를 통해 기본서비스 이용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당사자의 시점에서 조사하고,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다각적인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착안하여, 기본서비스를 이용해도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는 이용자의 일상생활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최근 10년 동안 독거노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자살과 고독사,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독거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취약한 부분을 다른 노인세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또한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연구의 동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 2.1. 독거노인을 둘러싼 사회문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96.8%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자 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21.7%에 그치고 있어 향후 노인단독세대 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노인단독세대는 다른 노 인세대보다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상황에서의 불만족도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을 포함)는, 부부세대 39.5%, 자녀 동거세대 45.1%, 그리고 단독세대는 약 5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독거노 인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는 주거관리비가 56.4%로 가장 높 으며, 보건·의료 25.5%, 식비 9.6%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에 대한 불 만족도는 부부세대와 자녀 동거세대가 약 42%를 차지하는 데 비해, 단독세 대는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및 만족을 포함)는, 부부세대 79.2%, 자녀 동거세대 69.9%, 그리 고 단독세대는 65%로 가장 낮았다. 또한 만성질환을 안고 있는 고령자 중 단독세대가 55%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세대는 39.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신숙 외(2011: 23-60)의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92명을 대 상으로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약 70%는 건 강하지 않고, 하루 한끼 이상 결식하는 고령자는 54.8%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은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자녀와의 관계 등과 관련된 생활 만족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독거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김기태·박봉규(2000: 153-168)의 연구에서는 지역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 197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용민·이상주(2003: 193-217)는 독거노인 190명을 대상으로 가족, 친척, 이웃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망과 생활의 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족접촉질, 가족접촉빈도, 경제상태 순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서경현·김영숙(2003: 7-26)은 독거노인의사회지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사회지원을 덜 받고 여성일수록, 낮은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더높은 우울 수준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신영·김은정(2012: 137-164)은 2008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원유형이 우울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였으며, 친구·이웃과의 연락빈도, 정서적 지원 유형, 성별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 와 이웃도 독거노인의 우울성향을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시 사하고 있다. 김윤신 외(2011: 143-169)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독거노인간의 지역연락망 구축이 고독사 예 방 및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 다. 하지만 1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201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고령자 자살자 수는 OECD 평균 자살자 수(12.1명)보다 약 7.3배나 높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전 연령대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특히 80세 이상 남성고령자의 자살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181.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3). 또한 보건복지부(2012)에 의해 실시된「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생각을 가진 고령자 비율을 세대별로 보았을 때, 단독세대가 15.1%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 동거세대가 11.5%, 부부세대는 9.2%로 나타났다. 노인 단독세대에서의 자살생각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35.8%로 가장 높았고, 건강 문제가 21.8%, 고독이 16.8%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과거 자살시도 비율은 단신세대가 1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세대가 11.3%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부(2012)는 독거노인의 일생생활 수행능력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따라 위기세대, 취약세대 등 총 4단계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에서 사회와의 단절 및 일상생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위기세대에 포함된 9만 5천 명과, 사회와의 교류는 있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약간의 제한이 있는 취약세대에 포함된 20만 5천명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세대수는 노인단독세대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독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일본 내각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가깝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령자 전체의 42.9%이었고, 독거노인만을 분석 자료로 추출하였을 때 그 비율은 약 62.7%를 차지하고 있었다(内閣府 2010: 1-5). 또한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소도시와 농촌보다는 대도시와 중도시에 사는 고령자가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고독사에 대한 정의는 불명확하며, 전국단위로 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上冊 5 2010: 111).

## 2.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연구동향과 과제

기본서비스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해서, 권중돈(2010: 100-104)은 돌봄서비스 이용자 2,240명을 대상으로 효과평가 연구를 실시하여 서비스 이용 후의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조사 결과, 기본서비스를 이 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는 고독감 감소가 92%, 사고 또는 응급시 등에 대한 위기상황에서의 불안감 감소는 83%,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이 78%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현물 서비스 지급량의 증가가 73%, 가족 · 친구 · 이웃 등과의 교류 증가가 50%로 나타났 다. 권중돈 외(2011: 297-320)는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과거 자살시도 경험과 자살생각 및 각 두 변수에 대한 음주행위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여 독거노인 자살예방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조사 결 과를 통해,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독거노인을 신속히 발굴하고, 그들을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인 예방개입과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민홍 외(2013: 787-803)는 기본서비스가 독거노인의 우울, 자기방임, 그리 고 사회적 관계망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업의 효 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우울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 나, 자기방임의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났다.

기본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하여, 김옥희(2011: 279-304)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둘러싼 저임금, 과대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 남성 독거노인의 지원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서비스 대상 판정 및 선정, 기본 서비스의 업무 등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권중돈 2010: 146-161).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검토 결과로부터,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는 양적 연구를 통한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이용자의 만족도, 독거노인의 우울 및 자살생각 등에 대한 상관관계 검증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이 기본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게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서비스를 이용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용자의 일상생활문제와기본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참여기관은 S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24개소 중 약 20개소에 대해 조사에 대한 참여의사를 확인하였고, 참여 의사를 밝힌 3개소만이 본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각 기관의서비스 관리자에게 인터뷰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 관리자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명, 서비스 이용자 3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

도록 양해를 구하였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자기표현능력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 추천을 받 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9명, 서비스 제공자 6명(서비스 관리자 3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3년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15일간에 걸 쳐 진행되었다. 면접은 이용자의 경우 피면접자의 자택에서 실시하였고, 서 비스 제공자는 기관 내 상담실이나 가까운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조 사를 실시하는데 앞서, 조사목적과 조사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조사 설명서에는, 조사 내용은 전부 녹 음되며, 녹음된 음성자료 및 문서화된 음성자료는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 록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관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하 지 않을 것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면접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의 신분은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소문자로 서 비스 제공자는 대문자로 표기하였고, 서비스 제공자의 두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서비스 관리자만 알파벳에 동그라미를 중복 표기하였다.

## 3.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Glaser·Strauss(1967)가 제안한 'Grounded Theory Approach(GTA)'를 토대로 木下가 개발한 '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M-GTA)'를 활용하였다. M-GTA는 휴먼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질적 조사분석에 적합하며, 계속적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개념을 생성하는 데효과적이기 때문이다(木下 2007: 1-10).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인 서비스이용자와 제공자가 생각하는 현상 및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명확한의미를 찾기 위해 M-GTA의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조사는 반구조화 면접법에 의한 개인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개인 속성(연령, 학력, 가족 구성 등)을 포함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기본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자는 녹음된 면접 내용을 반복해서 청취하여 문자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분석 틀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력하여 개념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인터뷰 조사에서 얻은 각 개념들 중 상호 관련성이 있거나 중복된 내용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각 카테고리의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카테고리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카테고리를 「」으표기하였고, 상위 카테고리는 『』로 표시하였다.

## 4. 조사 분석 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기본 특성

## 4.1.1. 서비스 이용자

독거노인 9명중 8명이 여성이고, 1명을 제외한 8명은 자녀가 있었다. 주택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로 구분되었는데, 전세가 3명이었고, 생활보호 수급자를 포함한 4명은 월세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모든 이용자는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독거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고, 독거 연수는 최단 5년부터최장 60년을 홀로 살아온 이용자도 있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소득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명, 장애연금 1명, 국가유공자연금 수급자가 1명이었고, 기초노령연금만 지급받는 이용자도 3명 있었다. 서비스이용 기간은 최단 6개월부터 최장 7년까지 다양하였고, 본 서비스가 시행된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해 온 이용자가 4명 포함되어 있었다.

기본서비스 이용자										
기관			D기관		G기관					
참여자코드	a	b	С	d	е	f	g	h	i	
성별	여	여	여	여	여	남	여	여	여	
연령	78	74	88	88	72	75	88	83	84	
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결혼상태	사별	사별	사별	사별	사별	사별	사별	사별	사별	
자녀 수	3남1녀	3남4녀	1년	무	2남1녀	1남2녀	1남1녀	1남1녀	1남1녀	
독거년수	25년	14년	60년	20년	45년	10년	5년	45년	34년	
주택형태	자가	월세	전세	전세	월세	자가	월세	전세	월세	
スカムモ	기초노령	기초노령	생활보호	생활보호	생활보호	장애연금	생활보호	기초노령	국가유공자	
주요소득	연금	연금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78 개연급	수급자	연금	연금	
서비스 이용기간	5년	2년	7년	3년	6개월	5년	7년	7년	7년	

## 4.1.2.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6명 모두 여성이었고,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먼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연령이 51세부터 61세까지 있었고,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근무 기간은 3년이 1명이고, 본 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약 7년 동안 근속한 자가 2명이었다. 담당하고 있는서비스 이용자 수는 27명, 28명, 30명으로 각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달리하고 있었다.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보다 연령증이 비교적 젊었으며,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근무 기간은 1년에서 2년이었고, 서비스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수는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독기	1노인 생활관	리사	서비스 관리자					
참여자코드	A	D	G	A	(D)	G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연령	57	51	64	40	25	25			
학력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자격증	자격증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근무기간	3년	7년	7년	1년7개월	2년	1년			
	사	비스 이용자	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수					
담당인원	27명	28명	30명	36명 (서비스관리자 2명)	36명 (서비스관리자 2명)	20명			

## 4.2. 서비스 이용자를 둘러싼 문제

본 조사에서는 13개의 개념이 추출되었고, 이를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고독감」, 「일시적인 일상생활기능의 저하」, 「빈곤상태」, 「사회적지지망의 결핍」이 서비스 이용자를 둘러싼 주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 4.2.1. 고독감

기본서비스를 이용한 뒤,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었으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a, b, f). 한편 9명 중 6명은 여전히 고독감 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건강상태의 악화', '혼자만의 식사시간', '과거 재해나 사고로부터의 경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시적인 건강 문제는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결식하게 되거나 식사를 해도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건강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이나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고독한 식사시간에 대해외로움 또는 고독감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발언한 이용자가 3명 있었고,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 지인의 죽음이나 과거 화재를 경험했던 이용자 중에는, 사건이나사고가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사나 사고 발생에 대한불안감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g).

뭐 그렇게 힘든 건 없지만, 그래도 아플 때나 밥 먹을 때는 엄청 서러워(d). 83살 되니까 걷는 것도 그렇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먹는 것을 여럿이서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는 혼자서만 이리 먹으니 재미도 없고, 밥도 안 넘어가. 병원에서 밥도 잘 챙겨 먹으라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마음대로 잘 안돼. 그리고 밤에 자다

가 갑자기 병이 날까 봐 겁나. 아프면 정신은 없는데 고통은 있잖아, 근데 아무도 없으면 그게 겁나(h). 밥을 먹을 때 혼자서 만들어 먹을 때가 가장 힘들어. 매번 밥 해서 먹는 게 힘들잖아. 외롭기도 하고(i).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지. 마음이 잘 맞는 어르신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디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a). 외롭고 고독한 건 못 느꼈었는데, 근데 몸이 약해지고 가진 게 없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c).

### 4.2.2 일시적인 일상생활기능의 저하

우측 하반신 마비(e), 다리 통증(b, f) 등 4명의 이용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건강은 노후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태의 악화가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일시적인 건강상태의 악화가 '가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었는데, 특히 식사 준비와 집안 정리에 대한 곤란함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도시락 한 개로 점심과 저녁 하루 두 끼를 나누어 섭취하는 이용자가소수 있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는 '외출'을 비롯한 야외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지역 내 가까운 복지관이나 노인정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것조차 힘들어 갈 수가 없다고 발언한 이용자도 소수 있었다. 그 때문에 b씨의 경우에는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에만 외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처럼 건강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가 개인의 영양상태와 소셜네트워크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 아파서 누워만 있고, 딸네 집이 근처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이 들어(b). 몸이 자꾸 아프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나네. 복지관에서 도시락 주는데 그거로 두끼도 먹고 그래. 내가 위장이 좋아서 빵 한 개로도 때울 수 있어. 그리고 허리랑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는 힘들어서 못 가고, 병원가면 내가 귀가 나빠서 편잔 주고 그래서 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노인정도 못 가. 허리아파서. 그래서 교회나 도시락 가지러만 왔다 갔다 해(c). 팔이 안 좋으니깐 밥 해

먹는 게 힘들어. 그냥 하기 싫어요 팔 때문에. 아플 때나 이사 짐 옮길 때 그 때가 가장 힘들어. 그 때 내 힘으로 막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e).

## 4.2.3. 빈곤상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분석해 보았을 때, 본 조사에서는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비수급자 그룹에 속하는 이용자(a, b, h)는 전부 저소득층으로, 이들은 진료비와 생활비에 대한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룹에 있어서는 g씨와 i씨만이 생활비에 대한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의대부분이 값비싼 월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화로 전환되고 있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월세 값의 상승이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안에는 지금보다 저렴한 월세 방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이용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거액의 보증금과 이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로 하며, 또한 수십 년 동안 함께한 지역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비수급자 그룹에 속하는 이용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b).

한편, 비수급자 그룹에서는 박스나 폐지 수집을 통해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태어 살아가고 있는 이용자도 있었는데, 그 수입은 극히 적고,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폐지수집을 하는 사람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 기존에 적었던 수입이 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 또한 노인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도 있었는데, 활동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에는 단기사업이라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난방비가 문제에요. 난방은 틀지도 않았는데 6만원인가 나왔어요. 의료비도 문제이고요(b). 전세 값 올린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 내놓으라고 할런지. 그게 두렵죠(h). 집 보증금 500에 월60만원씩 빠져 나가고 있는데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어딜 못 가. 그리고 이 동네 말고 다른데로이사 가면우울증 걸릴 거야. 여기는 살던데라 괜찮은데다른데로 가면그래. 근데계속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 봐 겁나(i). 이집을 3년 동안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10월달에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하면두 달전에 불나서집주인도돈이 많이들었거든. 그건알겠는데, 근데 앞으로 월세를 더받겠다고하는 거야(g). 고물주우리다니면하루에 많이 벌면 3000원도받고보통은 1500원 정도벌어. 아침에한 바퀴돌고 저녁에도한 바퀴돌고그러지. 근데요즘하는 사람들이워낙 많아져서잘 안돼(h). 한바퀴 빵돌아서 깡통이랑폐지줍고온 거야. 그거팔아서생활비에보대써야지. 근데돈은안돼. 수급자아니면정말힘들어. 의료보험료는올랐고,병원은비싸서가지도못하고, 그래서살기가너무힘들어(h). 내가몸이너무아파서병원에 갔다왔는데,약먹고괜찮아졌거든. 근데또똑같이아파서병원에 갔는데,이번인병원에서뭐찍는다고 15만원달라고하는 거야. 그래서안했어(i).

## 4.2.4. 사회적지지망의 결핍

본 조사대상자의 주요 사회적지지원(social supporter)으로는, '자녀'와 '교회',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로 크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원 안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녀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a, b, c, h)가 4명 있었고,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이용자는(e, h) 2명이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 계기로는, 본인과 자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 상태의 지속이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c, h).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로는, 젊은 시기의 이혼과 빈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 조사에서는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지원과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이용자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서비스의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확인, 현황조사, 생활교육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조사 대상자 중에서 생활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이용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참가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상의 문제, 흥미가 없어서, 이동간

의 불편함 등이 거론되었다.

자녀랑 같이 살면 서로 힘들어.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며느리가 어디 나갔다들어오면 애들 밥도 다 차려야 하고 다 귀찮아. 그래서 따로 시는 게 제일 편해. 교회가면 마음이 편해져. 친구들도 만들고. 밥 먹을 때도 친구들이랑 오래 얘기할 수있고(i). 올해 다행히 임대아파트가 됐거든. 근데 딸이랑 같이 들어가면 서로 힘들고 괴로움만 줘(c). 혼자 산지는 45년쯤 됐고, 27살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 뒤로 자녀랑은 연락 안 해요. 안 한지 한 30-40년 정도 됐어요.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e). 자식이랑은 연락 안 해. 멀리 이사 간 이후로, 전화번호도 다 바뀌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 거기서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서 내 주고 그래(g).

## 4.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문제

선행연구에서 발표되어 온 기본서비스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탐색하고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각 개념들을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를 『기능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라는 2개의 상위 카테고리로 포괄할 수 있었다. 『기능적 요인』은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형평성 결여」, 「기존 업무 및 현황조사의병행 실시에 따른 소진」이 추출되었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열악한 직무환경」, 「전문적인 직원교육의 부재」, 「위기관기 개입에 따른 곤란함」이 문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 4.3.1. 기능적 요인

# (1)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

기본서비스 대상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활용함으로써 독거노인을 대 상으로 한 전국적인 현황조사가 실시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 로 선정된다. 한편, 기본서비스 이용자가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기본서비스 이용자 가 요양서비스 판정수급을 받고 다른 서비스로 변경하게 될 때에는, 기본서 비스를 종결하여야 한다. 실제로 기본 서비스에서 요양서비스로 변경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지속적으로 기본서비스에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반면, 고연령자, 건강상의 리스크가 높거나 남성 독거노인에 있어서는 서비스 대상자로서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고연령자나 건강상의 리스크가 높은 이용자는 병원 동행이나 긴급 대처에 대한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A). 또한 남성 이용자에 대한 기피요인으로는, 협소한 공간에서 건장한 남성 고령자와 둘이 있을 시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본 조사에서 밝혀졌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또한 실적을 중요시하기 때 문에 실적 높이기에 적합한 어르신들을 선정하기도 하죠. 또한 너무 취약한 어르신 들은 방문요양 서비스가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은 제외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업무 를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를 안내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서비스에 연계하면 본 서비스는 종결하고 새 로운 취약 독거어르신을 발굴해야 해요. 이처럼 서비스 종결자가 생기면 새로운 독 거노인을 발견해서 담당 인수(최소 25명)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 아요.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이 서 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면 본 서비스 대상자로 받아들이기도 해요(④).

## (2) 서비스 연계에 대한 형평성 결여

과거 원조물품(현물 서비스)은, 주로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어 왔다. 본 조사에서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의해 전달되고 있는 현물 서비스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쌀과 김치 등을 포함한 현물을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기부한 기업이나 단체측에서 물품 지급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거나 우선시하려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뿐만 아니라 현물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비수급자도 다수 있었지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급자에게까지 전달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물품 종류도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욕구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볼수 있다. 반면, 현물 서비스가 한 명에게 중복 지급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관리자가 물품지급 현황표를 직접작성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지만, 이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현물 서비스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생활보호 수급자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한 명에게 여러 개의 물품이 중복해서 지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반면에 한 개의 물품도 못 받고 있는 비수급자가 적지 않게 있어요(A, D, G, ⑩). 특히, 현물 서비스를 지급할 때,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나 환경들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요(D, G, ⑥). 지역 자원들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연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⑩).

## (3) 기존 업무 및 현황조사의 병행 실시에 따른 소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기존 업무와 함께 현황조사를 병행해서 수행하는데, 그에 따라오는 심리적 · 체력적 소진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현황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이다. 현황조사 기간 중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기존부터 실시해 왔던 이용자의 안부확인과 서비스연계 업무를 포함해 독거노인 실태조사도 병행해야만 한다. 그로 인해 기본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형식적인 안부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잦고(⑥),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황조사와 직접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현황조사 대상자의 명부가 불명확한 점과(D, G), 명부에는 조사대상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재자에 대

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주소가 부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높임과 동시에 업무에 대한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을 명부만 보며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정보유출 사고 때문에 더 그랬죠. 그리고 찾아가도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고 왔냐며 이상한 사람인 듯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화를 걸어도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했냐며 그냥 끊어 버리세요. 그리고 전수기간 동안에는 어르신들께 제대로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아침부터 전수조사 하느라 뛰어 다니는데 본질적인 서비스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죠. 해마다 똑같은 사람들 조사하라고 하니까. 그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는 모르고 주소만 보고 찾아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원해 다른 선생님이담당하고 있는 대상자인데, 언젠가 그 명부가 저한테 넘어 와서 찾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소는 틀린데다가,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한 200명 정도 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G).

## 4.3.2. 환경적 요인

## (1) 열악한 직무환경

직무환경을 관련해서는 저임금, 과다한 업무량 및 빈번한 잔업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먼저, 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서비스 관리자 양측 모두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본 직종에 대해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언급하였다(A, D). 서비스 관리자의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으며, 또한 계약직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되었다(⑥). 이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낮추고, 자기 개발을 위한 동기 부여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다음으로, 과다한 행정업무와 빈번한 잔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소진이 직무환경을 둘러싼 주요한 문제점으

로 거론되었는데, 이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나타났다 (A, D, G). 특히 단시간 안에 과다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잦은 잔업과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고독감해소와 심충적인 욕구 파악을 위해서는 적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로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제공자의 근무시간이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근무 시간이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고,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시간적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어요. 뭐 돈을 보고 하지는 않고, 그래도 일하는 보 람이 커서 계속 하고 있어요(A). 요양보호사랑 투잡으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요. 근무시간이 상당히 탄력적이라서요. 근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 혹시 (기관에서) 투잡을 못하게 한다면 이직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D).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도 불 구하고 보통 두 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잔업을 지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지 작성이나 정산 입력 같은 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있거든요(A). 서류적인 업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업무시간을 초과할 때가 많 이 있죠(D).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관리, 이용자 개입, 그리고 기관에서 내려오는 사 업계획서도 작성해야 하고, 혹시나 복지관 내에 있는 관리자의 경우는 복지관 일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또한 계약직이다 보니까 저희 일만 하면 좋지만, 그 이외 에 다른 업무도 해야 하고, 그에 비해 인건비는 너무 적은 게 문제죠. 전문성을 필요 로 하는 직업인데, 계약직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떨어지고 자기개발을 하 고 싶어 하는 마음조차 안 생긴다는 게 이 일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하루에 이 용자 여섯 분 댁에 방문하고 있는데 30분은 너무 짧아요. 가서 어르신 얼굴 보고 안부 확인만 하는 수준이라서 어르신들이 뭐 와 봤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 을 거에요(A),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고 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데,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G).

# (2) 전문적인 직원교육의 부재

직원 교육에 관해서는 크게 3개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첫째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자원 개발에 대한 교육의 부재이다. 기본서

비스가 시행된 시점에서는 자원 개발에 관한 교육이 자주 있었지만, 현재는 본 조사기관 3곳 모두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A, D, G).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지역자원 개발에 대한 서비스 관리자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교육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A). 2014년 돌봄서비스 사업내용에서도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둘째로 독거 노인 생활관리사의 사례관리 및 상담에 관한 교육의 부재이다. 서비스 이용 자를 대상으로 한 안부확인과 상담은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관리자를 대 상으로는 특히 사례관리나 상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A, G). 셋째는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질 높은 교육의 미실시이다. 서비스 관리자 3명 모두 자신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질 높 은 교육을 위해서는 외부 강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할 필요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관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 보험료, 통화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직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적 확보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⑥).

서비스가 시행된 시점에서는 많은 기관에서 자원 발굴이나 연계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은 그와 관련된 특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A). 자원 발굴이나 연계에 대한 교육은 없고, 형식적인 교육이 많이 있어요(D). 자원 발굴도 독거노인 생활보호사의 역량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죠. 저희들의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에도 차이가 나니까요. 하지만, 서비스 연계에 대한 교육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아요(G). 독거노인 생활보호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생활보호사 분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특히 전산교육, 서비스 연계 등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서요(A).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보통 외부 교육은 운영비로 실시할 수 있지만, 전화비나 직원 보험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운영비에 따라서 직원교육의 횟수나 교육의 질도 달라질 수 있겠죠(⑥).

#### (3) 위기관리개입에 따른 곤란함

서비스 제공자는 폭염, 한파 및 폭설 특보 발령 기간이 되면 안전 확인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고위험군에 속하는 이용자 집을 매일 방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때문에해당시기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이는 정신적 ·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14년부터 폭염 및 한파 시기에는 생활관리사에게 3만원의 수당이 더 지급되도록 되었지만,그들을 둘러싼 과다한 업무량은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파 또는 폭염 때는 고위험군 어르신들 위주로 거의 매일 전화하고 있어요. 전화 안 받으면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찾아가기도 하죠. 그 때는 날씨도 덥고, 춥고 해서 저희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죠(D). 보통 주 2회 정도 안전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폭염이나 한파 때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매일 방문하라고 해요. 직원을 더 채용하든, 아니면 안전 확인 대상자 수를 줄이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업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매일 방문하라고 하니까 생활보호사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⑥).

# 5. 결론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평균수명 중가에 따라 고령기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고령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붐세대를 다수 포함한 현대의 고령자세대는 과거에 비해, 자녀와의 동거보다 독거 생활을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가치관 및 가족의 기능 및 구조의 변용, 미혼·이혼율의 중가에 따라 홀로 사는 고령자 수는 급속하게 중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고독사, 사회적 고립, 자살, 그리고 자기 방임과 같은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 도시를 중심으

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고령자 단독세대 및 부부세대가 이전부터 보편화되어 왔던 유럽국가와는 달리, 핵가족화와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를 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된 기본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이용자가 직면한 미해결 문제와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고 있는 지원상의 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본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착안하였다.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가 직면한 문제로 「고독감」,「일시적인 일상생활기능의 저하」,「빈곤상태」,「사회적지지망의 결핍」이라고 하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형평성 결여」,「기존 업무 및 현황조사의 병행 실시에 따른 소진」,「열악한 직무환경」,「전문적인 직원교육의 부재」,「위기관기개입에 따른 곤란함」이 기본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시점에 입각한 기본서비스의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할수 있다.

# 5.1.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조사를 통한 지원과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 기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로는 고독감, 일시적인 일상 생활기능의 저하, 빈곤상태, 사회적지지망의 결핍이 발견되었다. 서비스 이용 자의 욕구에 따른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고독 및 소외감을 포함한 정서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를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관련기관, 그리고 비공식 자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에 경로당이나 커뮤니티에 자주적이고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재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활성

화된 커뮤니티 모임은, 공동 식사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고독감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일시적인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해 일상생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의 악화가 결식 횟수의 증가와 영양소 결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로한국건강증진재단(2013)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다른 고령자 세대보다 건강상태가 안 좋고,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결식 유무, 식습관, 질병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일시적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같은 타 서비스와의 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거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확한 욕구파악을 전제로 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물품이 수급자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과 의료부문에 대한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은 젊은 시기의 빈곤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기본서비스를 통한 안전 확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 본인과 자녀와의 관계 개선이 향후 서비스의 이용 또는 후원물품의 선정기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5.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발전방안 모색

본 연구에서는 기본서비스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앞으로 나아

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통한 기본서비스의 향후 과제는, 다음 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기본서비스 대상자의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지속적인 독거노인 수의 증가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수요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근무시간은 30분단축된 4시간 30분으로, 이는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의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을 맞추고,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한 근무시간을 통한 서비스 질 확보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은 행정기관, 기업, 영리·비영리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생활관리사의 자원개발 능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물 서비스의 중복 지급 방지로, 보다 형평성 있는 현물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한 이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고려 할 뿐만 아니라,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물품지급 현황표를 체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양질의 교육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이다. 서비스 제공 지는 이용자의 안전 확인뿐만 아니라, 욕구 조사, 서비스 연계, 위기관리 시에 는 신속한 개입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전문성 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례 관리, 상담, 자원개발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관리자의 계약 조건이 나 교육 환경에 대한 재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2) 『「독거노인」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최용민·이상주(2003) 「사회적 지원망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 구』 22, 한국노인복지학회, 193-217.
- Glaser, Strauss(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deline.
- 김기태·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한국노년학회, 153-168.
- 김옥희(2011) 「노인돌보미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요인 연구 -노인돌보미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한국노인복지학회, 279-304.
- 김윤신·이철민·남궁선주·김혜경(2011)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연락망의 효과성 연구」,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50(2), 143-169.
- 한국건강증진재단(2013) 『혼자 시는 어르신,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 들여다보니..-우리나라 독거노인 영양불량 심각~』.
- 木下康二(2003)『グラウンデッド・セオリー・アプローチの実践: 質的研究への誘い』, 弘文堂、木下康二(2007)「修正版グラウンデッド・セオリー・アプローチ(M-GTA)の分析技法」,『富山大学看護学会誌』6(2), 富山大学, 1-10.
- 권중돈(2010)『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가족부
- 권중돈·김유진·엄태영(2012)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살시도경험과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51, 한국노인복지학회, 297-320.
- 内閣府(2010)『「高齢者の地域におけるライフスタイルに関する調査」結果』、
- 이은희(2009) 『최신노인복지론』, 학지사, 185-195.
- 이민홍·강은나·이재정(2013)「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효과성 분석 -우울, 자기방임,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4), 한국노년학회, 787-803.
- 이신숙·김성희(2011)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11(1), 한국지역발전학회, 23-60.
- 이신영·김은정(2012) 「독거노인의 친구·이웃과의 사회적 지원과 우울성향」, 『노인복지역구』 56, 한국노인복지학회, 137-164
- 서경현·김영숙(2003)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지원과 정신건강에 관한 탐색」, 『노인복지연구』 21, 한국노인복지학회, 7-26.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1990~2035』.

통계청(2013)『2012년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4)『고령인구비율2003~2013』.

上田智子・上原英正・加藤佳子・志水映子・伊藤和子・森扶由彦・木下寿恵・藤原秀子・川角真弓(2010)「孤独死(孤立死)の定義と関連する要因の検証及び思想的考究と今後の課題」、『名古屋経営短期大学紀要』51,名古屋経営短期大学,109-131.

# 한국문화와 효의 현대적 의미 변용 연구

**최태호** 중부대학교

# 1. 서론

孝(HYO)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상 중의 하나로 '忠孝'라고 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오랜 세월 한국인의 심저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면서 매커니즘의 발달과 인성교육의 부재로 기본적인 충효사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특히 효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마저 생겼다. 최근에 인천에 효 관련 전문대학원·대학교가 생겨 효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를 거부한 종교는 없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에 대한 첫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당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 12).'라고 하였고, 불교도 『대반열반경』을 보면 "재가의 사람은 네 가지 익혀야 할 법(四修習法)이 있느니라.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효도 봉양하며, 둘째는 항상 선법으로 부인과 자식을 이끌며……(대장경 권1: 196)"라고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적효의 역사적 인식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사상으로서효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효를 인지하고 실천할수 있기 때문이다.

# 2. 한국문화와 효

#### 2.1. 신라시대의 과거제도와『효경』

신라는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을 실현했다. 신라시대의 효는 충과 더불어 '孝忠雙全'1이라 일컬어졌다. 풍류도인 화랑의 세속오계2를 보면 '事 君以忠,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이라 하였다. 忠이 으뜸이 고 孝가 버금이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또한 신라의 과거제도를 보면 788년(신라 원성왕 4)에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孝經』이 과거 시험과목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원성왕은 유학적 정치사상을 펼치기 위하여 788년에 국학 내에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였다. 유생들의 독서능력에 따라 3등급으로 성적을 나누어 구별하여 관리로 선발하는 데 참고하였다. 독서삼품이란 하품(下品)은 곡례, 논어를 읽을 줄 아는 자, 중품(中品)은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을 줄 아는 자, 상품(上品)은 춘추 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통달하고 또한 논어, 효경에도 밝은 자를 말한다. 특히 오경, 삼사(사기, 한서, 후한서), 제자백가의 문헌에 두루 능통한 자는 관리로 특별 채용하였다. 중품과 상품에 『孝經』 과목이들어 있고, 상품에서는 『孝經』에 밝은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통해 인성교육의 기본을 『孝經』에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기본사상이라고 할수 있는 세속오계와 독서삼품과 등에서 효에 대한 깊은 성찰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신라시대는 충과 효를 온전히 하는 사람을 관리로 채택하여 효충쌍전의 시대이며 유가적 성향을 강하게 표출한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충효쌍전

<sup>1</sup> 신라가 백제와 황산벌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를 때 장군 흠춘은 아들 반굴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孝忠雙全(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을 다함 만한 것이 없고,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를 다함 만함이 없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는 것은 효와 충성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sup>2</sup> 신라 진평왕 때의 승려인 원광이 화랑에게 준 5가지 교훈.

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작품으로는 『三國史記』열전에 나오는「효녀지은」 (『三國史記』卷第四十八 列傳 第八3)과「설씨녀」(『三國史記』卷第四十八 列 傳 第八4) 이야기가 유명하다. 설씨녀와 지은은 모두 충과 효를 겸비한 인물 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손순매아」(『三國遺事』권 제9 孝善5)는 지극한 효성 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설화 외에도 『三國遺事』 孝善 第九에「眞定師 孝善雙美」,「大成孝二世父母」,「貧女養母」,「向得舍知 割股供親」 등 다양한 효행설화가 전하고 있다.

신라시대의 설화나 열전 등은 다분히 토픽성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특별한 사안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울러 나라에서도 효성이 지극한 자를 매우 우대하였다. 「효녀지은」이나「설씨녀」설화를 통해 충효가 동시에 소중한 자산임을 보여주었고, 손순매아 설화에서는 신라의 민생정치를 알 수 있고, 설씨녀에서는 효와 국가관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신라시대에는 유교적(혹은 유학적) 효사상이 중심을 이룬 시대로 『효경』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광법사의 세속오계 중 둘째 항목이 '事親以孝'인데 투철한 국가관에 이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세속오계의 기본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화랑도의 기본사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 신라의기본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국학에서 『논어』와함께 『효경』을 필수과목으로 설정하여 유학적 효사상이 당시 식자층의 기본사상의 토대가 되었다. 신라시대의 효사상은 충효쌍전이라 마무리할 수 있고, 유학적 사고에 기반을 둔 효사상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sup>3</sup> 孝女知恩 韓歧部百姓連權女子也〈중략〉即以其兄憲康王之女 妻之.

<sup>4</sup> 薛氏女 栗里民家女子也〈夸락〉薛氏得之呼过 父及室人失喜 遂約異日相會 與之偕老.

<sup>5</sup> 孫順者(古今作孫舜) 牟梁里人〈중략〉名 完乎坪 今訛云 枝良坪.

#### 2.2. 고려시대의 효사상

고려는 나라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불교사상이나 백성들의 의식은 신라를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국가의 기반이 바로 서지 못해서 정략결혼을 통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척들의 세력은 무너지고 능력 있는 선비들이 입각하게 되었다.

『고려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효 사상을 일별해 보기로 한다. 고려시 대 효사상을 완성시킨 인물은 성종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무릇 나라를 다스 리는 것은 반드시 그 근본이 되는 것을 힘써야 하나니, 그 근본이란 효보다 더한 것이 없다. 효는 삼황오제의 근본 업무이며 모든 일의 기강이요, 온갖 선한 일의 근원이다."라고 하여 전국에서 80세 이상 되는 노인을 조사하여 하사품을 내리는 등 모범을 보였다. 현재 향교에서 시행하는 기로연의 기원 이 성종 조에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신라시대보다 진보된 경로사상의 체계가 이루어졌다. 60세 이상 노인, 80세 이상 노인, 의지할 데 없는 노인 등으로 구분하여 경로잔치를 베풀고 양식을 하사했으며 80세 이 상 노인에게는 왕이 친히 나가 茶藥을 내렸다(『경향신문』1979). 고려시대 에는 효행자를 우대하여 술과 비단, 약식 등과 같은 상품을 하사하였고, 조 세를 감면해 주고, 부역을 면해주는가 하면, 정려를 세워주고, 신분을 해방 시켜 주기도 하였다. 또한 관리로 특채하기도 하였다. 특히 성종은 12목에 경학박사를 두어 "재능과 인격을 겸비하여 임금을 섬김은 충의 시작이요, 입 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냄은 효의 마지막이다"라고 하여 효를 고려 사상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고려사』권 제121「열전」제34를 보면 孝友條가 있다. 고려시대에도 효에 관한 내용은 역사의 한 편에 기록했던 것이다. 文忠을 비롯하여 15명의효자가 기록되어 있고, 열녀도 胡壽의 妻 兪氏 외 11명의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崔婁伯의 이야기6는 당시 많이 알려져 있던 이야기다. 최루백은 과거에급제하여 의종 때에 여러 관직을 거쳐 起居舍人 國子司業 翰林學士 벼슬을

하였다(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1966). 최루백의 이야기 외에도 「위초」, 「서롱」, 「김천」 등의 이야기는 효를 권장한 고려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고려시대 우리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불교다. 고려는 초기에 유학사상을 강화하고 旌表政策을 통해 효행자들을 표창하는 등 유학적 효사상의 실천을 권장했다. 그러나 당시대의 민중과 지배층들은 거의 불교식 제례를 따랐다. 고려 성종 조에 유학이 주도적 정치관으로 수립되고 그 중앙에 『효경』 사상이 있었다. 고려 말기에 권부(權專)에 의해 편찬된 『효행록 孝行錄』이 그 대표가 된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초기경전에서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학의 기본이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것이 "부모은중경"이다. 고려시대의 효사상은 불교와 유학의 접합점에서 시작하였다. 생시에는 유학적 효사상으로 봉양하고 사후에는 불교적으로 절에 안치하여 극락왕생을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효사상은 유불습합적인 모습이 강했다.

# 2.3. 조선시대의『東國新續三綱行實圖』와 효

조선은 유학을 국시로 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충효사상은 조선 시대를 통 괄하는 중요한 사상이다. 불교의 효와 달리 유학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많 았는데 충과 효를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주자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맹의 철학이 기저를 형성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孟子는 효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나이가 어리면 부모를 사모하고 여색을 알면 젊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 하는 처자가 있으면 처자를 사랑하고, 벼슬을 하면 임금을 사모한다. … 위대한 효

<sup>6</sup> 본고에서는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편찬 『고려사』(1966)를 인용하였다. 다만 표기법은 대한민국의 표준어 규정에 의거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자는 평생토록 부모를 사모한다(大孝終身慕父母)(『孟子』,「萬章」上).

조선시대의 효를 알기 위해서는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살펴보아야 한 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에 피폐한 국민성과 도 의를 바로잡고자 광해군 때에 편찬한 것이다. 처음 계획은 임진왜란 당시 발 생한 충신 · 열녀 · 효자 등의 행실을 채집 수록하여 민심을 격려하고자 함이 었으나, 편집 과정 중 그 폭을 넓혀 고려시대를 포함하여 『동국여지승람』에 내재된 효자, 충신을 첨가하고 각 지역의 보고 자료를 신중히 취합하여 1,600 여 명의 거대한 자료를 약전으로 만들고 그림을 그려 국역하였다. 당시『東 國新續三綱行實圖』의 제작은 거창한 사업이었는데 편찬에 종사한 畵員과 寫 字官을 비롯하여 조판과 인쇄ㆍ제책에 동원된 인원은 부지기수였다. 이 책 의 편찬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撰集廳의 힘만으로는 이 대업을 수행하기 어 려워 나라에서는 영을 내려 본서 28책을 전라 · 경상 · 公洪(충청) · 황해 · 평 안 5도에 분배 각인케 하는 등 거의 전국을 동원하였다(한국학연구원 1985: 847~848). 이 책은 본래「續附」1권,「孝子」8권,「忠臣」1권,「烈女」8권 도합 18권 1帙로 만들어 규잣각에 보관하였다 1985년 大提閣에서 한 권으 로 影印하기도 하였다.7 효자편을 목차의 첫머리에 두었고, 연대는 고려와 조선을 통합하였다.

〈표 1〉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내용 분석표

	효자	충신		열녀	비고
고려	62	고구려	2	30	고려조에 고구려 상재
		고려	20		상재
백제		2		1	
신라	4	70		4	
조선	683	4		729	
계(%)	749(46.5%)	96(6.1%)		764(47.4%)	1,611(100%)

<sup>7</sup> 필자는 1985년 대제각에서 영인한 原本『東國新續三綱行實圖』 영인본을 활용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자와 열녀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많고 효자보다는 열녀의 이야기가 약간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三綱의 기본은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려준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후 국민도의를 부흥시키려고 한 기획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 3. 효(HYO)의 현대적 의미 변용

2007년 8월 3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610호로 신 규·제정되었다. 최성규 총장8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기초를 걱정한 사람 들이 한국의 효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를 결성 하였다.9 또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 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 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려는 것(김덕균 2009: 363)" 이라고 되어있다. 이렇게 효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럽 기는 하지만 아직 현행교육이나 가정에서 효의 기본덕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근자에 들어 한국은 다시 효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효운동 단체가 많이 생겼고, 민간을 중심으로 효의 활로를 찾고 있다. 최 총장의 시도로 인해 지역(서울, 인천, 대전, 세종, 대구 등)에 많은 효교육센터가 설립되었고, 효지도사(2급과정)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그 효용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천안효교육센타의 경우 현재 13기를 배출하였으며, 그 외 대전효교 육센타, 유성효교육센터, 세종효교육센터 등에서 꾸준히 효지도사를 양성하 고 있다. 대전의 경우 효운동과 함께 칭찬운동을 병행하여 '현대의 효는 칭

<sup>8</sup>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순복음인천교회 담임목사.

<sup>9</sup>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에는 2009년 11월 현재 27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주요단체로는 성균관유림회, (사)한국효도회,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세계효문화본부, 한국효학회, 원불교효 도회, 효국민연합, 한국효지도사협회 등이다.

찬이다(오원균 2012)<sup>110</sup>라는 명제하에 효의 개념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천안 효교육원의 최기복은 『효담』이라는 저서를 통해 최성규 총장의 3통7효의 효 운동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토인비는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효에서 찾았다.<sup>11</sup>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현실은 요원하다. 1972년 토인비가 한국의 효사상을 극찬한 이후 다시 효는 꼭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의식이 싹터 1997년 효전문대학원이 설립되기도 하였다.<sup>12</sup> 토인비가 한국의 효를 말한 후 25년이 지난 후에 효운동이 본격적으로 학문으로 정착한 것이다.

#### 3.1. 孝(HYO)의 현대적 의미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의 효는 치사랑(올리사랑)만을 이야기하였다. 부모나 조상에 대한 자식의 섬김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1950년대 베이비부머들의 경제 활성화로 인해 국가적 부는 성장하였으나 이들의 자녀교육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한국전쟁을 통한 극한 고통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져 잘못된 자식교육의 계기를 만들었다. 자신은 못 해도 자녀들은 모든 것을 해 주어야 했고, 이로 인해 자녀들은 이기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권 실추와 교사관의 변질로 교사는 하나의 직업군에 머물게 되었다. 인성교육보다는 대학진학을 위한 성적 중심의교육으로 효의 개념은 교육에서 멀어져 있었다.

과거의 효가 부모 섬김만을 주장했다면 현대의 효는 사회전반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甲乙關係(상하관계 혹은 주종관계)를 평등관계로 설

<sup>10</sup> 오원균 원장은 대전효교육원 원장이면서 칭찬운동의 생활화를 주창하고 있다.

<sup>11</sup>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1889~1975)는 "한국문화에서 앞으로 인류에 가장 공헌 할 것이 있다면 효일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다른 위성으로 간다면 "한국의 제도와 효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다.

<sup>12 1997</sup>년 12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설립 인가됨.

정해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어른이 아이들 돌봐주듯이,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한다. 과거에도 효를 어른에게 옮기면 敬<sup>13</sup>이라고 했다. 이렇게 효를 이웃에게 베풀고,<sup>14</sup> 이것을 확대하여 청소년과 국가로, 더욱 확장하여 자연 사랑까지 이어진다면 효의 효용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효를 논하는 학자들은 孝를 'HYO'라고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HYO란 'Harmony of Young & Old'15라고 풀어 쓴다. 치사랑(올리사랑)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개념에 비해 '화해'와 '평등'의 개념이 강하다. 최성규는 효 실천을 7가지(7효)로 나누어 ① 경천애인, ② 부모 어른 스승 존경, ③ 어린이, 청소년 제자사랑, ④ 가족사랑, ⑤ 나라사랑, ⑥ 자연사랑, 환경보호, ⑦ 이웃사랑, 인류봉사 등 7行(김덕균 외 2009: 147-360)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현대의 효(HYO)운동은 과거의 수직적인 효 사상에서 발전하여 수평적이며 자연사랑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Harmony라는 서구의 개념과 올리사랑이라는 동양의 개념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개념으로 변모하였다고 하겠다.

#### 3.2. 인성교육과 효사상의 세계화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1월 20일 인성교육진홍법<sup>16</sup>이 통과되었다. 그로 인해 2015년 7월 21일부터 각 시도교육감은 인성교육기본안을 수립하여 교 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sup>13</sup> 以孝諸長則敬.

<sup>14</sup> 以吾老而及人之老, 孟子.

<sup>15</sup> 이하 HYO에 관한 내용은 2015년 1월 11일 최성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최 총장은 효(HYO)가 인류행복의 초석이라 하면서 효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sup>16</sup>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2015.1.20. 법률 제13004호. 시행일 2015.7.21.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진홍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7 각 지역교육청 별로 인성교육기본안을 수립하여 2015년 7월 21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인성교육지도교사 연수 혹은 인성교육지도사를 양성해서 전진배치해야 하고 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자에 들어 효의 세계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굳이 토인비를 논하지 않더라도 세계가 한국의 효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8 중국은 효도법을 만들어 자녀가 의무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19 싱가포르도 1994년 〈부모부양법〉을 만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불응할 경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최근에는 베트남, 미국 등에서도 효사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효행장려법은 있지만 효도법(경주포커스 2013.8.7) 20은 아직 없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에 맞게 효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효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이다(김덕균·전게서: 18). 효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민족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인종, 사상, 종교 간의 많은 갈등이 있지만 어느 종교든지 효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종교는 없다. 그러므로 세계 사상의 바탕에 효를 깔고 실천한다면 세계평화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다. 효는 21세기의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인류공통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효사상과 각 종교간에 흐르고 있는 효 사상을 하나로 묶어 경천애인, 부모사랑, 자녀와 제자

<sup>17</sup>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2항.

<sup>18</sup> 최성규 총장에게 효에 관한 특강을 요청했거나 기 실시한 대학도 북경 사범대를 비롯하여 인민철학원, 상공대, 호북공정대, 미국 스프링필드 신학대 등 다양하다.

<sup>19</sup> 중국은 '노인권익보장법'을 만들어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고,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다만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sup>20</sup>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6일 자녀가 부모봉앙을 전제로 증여받은 뒤,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시 중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랑, 나라사랑, 자연과 환경사랑운동을 펼친다면 세대 간이나 민족 간의 갈 등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4. 결론

효는 한국문화의 중심사상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효경』을 중심으로 한 유학적 효가 바탕이 되었고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불교에서도 효를 접목하여 『父母恩重經』과 같은 경이 도입되어 효를 중요시하였다. 고려 성종 조에는 시기에는 신라시대보다 진보된 경로사상의체계가 이루어져 60세 이상 노인, 80세 이상 노인, 의지할 데 없는 노인 등으로 구분하여 경로잔치를 베풀고 양식을 하사했으며 80세 이상 노인에게는왕이 친히 나가 茶藥을 내렸다. 고려시대의 효사상은 불교와 유학의 접합점에서 시작하였는데 생시에는 유학적 효 사상으로 봉양하고 사후에는 불교적으로 절에 안치하여 극락왕생을 도모하였다. 이는 고려시대의 효사상이 유불습합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효사상은 주로 『주자가례』의 예법을 실천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삼강행실을 논함에 열녀와 효자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룰 정도로 효자는 한국 이야기의 중심 소재였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46.7%가 효자의이야기다. 이만큼 효가 이 시대의 중심 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효자 이야기 전체 749(46.5%)개 중 조선시대에 관한 내용이 683개로 91.2%를 차지한다. 당시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건이 효도 이야기였음을 말해준다.

현대로 오면서 물질문명의 폐해로 효사상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2009년 효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를 결성되었고, 여기에는 11개의 효 관련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효대학원대학교가 생기고,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현대의 효(HYO: Harmony of Young & Old)는 'Harmony'를 중심사상으로 담고 있다. 민족과 나라간의 갈등을 하모니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과거의 효가 올리

사랑 중심이었다면 현대의 효는 보편적 사랑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7효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① 경천애인, ② 부모 어른 스승 존경, ③ 어린이, 청소년 제자사랑, ④ 가족사랑, ⑤ 나라사랑, ⑥ 자연사랑, 환경보호, ⑦ 이웃사랑, 인류봉사 등 7行을 강조하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현대까지 효는 대한민국을 통괄하는 통시적인 개념의 민족사상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효의 개념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기저에 있는 사상은 비슷하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현대의 효를 세계화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풀고 민족과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성경.

『大般涅槃經』, 대장경 권1.

『三國史記』

『三國遺事』

『孟子』、「萬章」上。

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高麗史』.

한국학연구원(1985)『東國新續三綱行實圖』해제.

김덕균 외(2009) 『효 가족 효 나라 효 세상』, 도서출판 성산서원.

오원균(2012) 『효는 칭찬이다』, 애드라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3) 『올리사랑(孝)운동 교사용지도자료』중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3)『올리사랑(孝)운동 교사용지도자료』초등.

통계청(2001,12)『장래인구추계』.

#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 나타난 탈식민성 비교 연구

**칸 앞잘 아흐메드** 경북대학교

#### 1. 머리말

본 연구는 한반도1의 근대전환기의 대표 작가 중의 하나인 이광수(1892-1950)의 『무정』(1917)과 인도 근대식민지 시대의 대표 작가 중의 하나인 타고르(1961-1940)의 대표 걸작인 『고라』(1910)에 나타난 탈식민성을 분석 및 비교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광수와 타고르는 두 나라의 근대문학사에서 계몽주의 색채가 가장 농후한 문학가로 알려져 있다. 양국의 두 작가의 소설은 각각 식민주의가 창궐하던 상황에서 양국의 근대적인 모습과 식민지의시대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식민주의적 박해를 경험했던 한반도와 인도는 현재 각자 분열된 국가의 상태2로 처신되어 있는데,3 그원인은 식민지 해방 후부터가 아닌 일찍이 식민주의가 펼쳐졌을 시초로 거

<sup>1</sup> 여기서 한반도라는 것은 조선반도와 동일한 의미이고, 본 논문에서 식민지 이전의 반도를 '한반도'라 청하며 식민지 이후의 분단된 반도 영토를 각각 '한국과 북조선' 또는 남측/북측으로 청한다.

<sup>2</sup>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인도는 현재의 인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분열되었다.

<sup>3</sup>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칸 앞잘 아흐메드(2011) 「신채호와 쁘램짠드 소설의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참고,

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었다. 분열되게 만든 이 불화의 씨앗이 이미 심어 져 놓은 그 식민지 시대는 비록 현재에는 100년 이상이나 지났다 하더라도 그 양상들이 그저 지나간 과거 이야기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탐색과 연구의 중요성은 당시 형성된 정치, 경제, 종교, 인도 등 문화 사상 등 양상들이 지금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필자는 한반도와 인도의 현재 문제성에 대해 유의미한 분석을 하려면 우 선 식민지 시대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과거 식민지 상황을 잘 반 영해 줄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식민지 시대의 작가들이 창작해놓은 문학 작품 이라고 본다. 본고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데 단순히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이 아닌, 일제의 사상을 잘 터득한 계몽주의 문학 가인 이광수가 쓴 한반도 근대사의 첫 장편소설로 평가된 작품인 『무정』과 인도의 근대계몽기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문학가 아시 아 첫 노벨 문학 수상가인 타고르가 쓴 『고라』를 택했다. 아쉽게도 인도에서 한반도의 문학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타 고르의 소설인 『고라』는 한반도가 비참했던 일본 식민지시기에 한반도에서 번역되어『동아일보』에서 1928년에 발행했다.4 이는 한반도에서 발행한 최 초의 인도 소설이고 일본 식민지에 처한 땅인 한반도와 이 땅에 사는 민중에 게 여러 면에서 유의미한 작품이 되었다. 타고르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일찍 이 한반도에 알려졌고 한민족은 당시에 타고르를 자신과 같은 위치에 처해 있었던 피식민지인으로 인식했고 타고르의 수많은 글을 번역하여 발행하기 도 하였다.5

<sup>4</sup> 타고르의 소설 「고라」는 『동아일보』에서 「고오라」라는 이름으로 3차례로 1926년 2월 26일, 28일, 그리고 3월 3일은 '국긔렬'에 의해 번역되어 연재되었다. 검열이 심한 일제강점기에 식민자의 억압과 피식민자의 저항을 보여주는 타고르의 이 작품을 전부 번역하여 연재하기가 쉽지 않아 한반도의 민중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일부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번역및 요약하여 소개했다고 할 수 있다. 소설 「고라」는 다시 해방 이후에 유영 교수에 의해 번역되고 발행되었다.

<sup>5</sup> 당시 타고르의 소설뿐만 아니라 그의 시, 회곡과 수필, 논설 등 수 많은 글들은 번역되고 소 개되었다.

이광수와 타고르는 각각 자신의 조국에서 문학을 통해 당시 시대상황에 맞게 피식민지인의 신분을 가진 민중들에게 근대와 계몽인식을 주입하려고 노력했었다. 또한 이 두 작가는 작품을 통해 각각 자기 나라의 민중을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광수는 『무정』에서 진화론적 사상과 진보된 서양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한민족의 단결력으로 한반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타고르는 애국심과 단결력의 고취와 같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노선에서 벗어나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노선으로 국가의 독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겉으로 보면 두 작가는 각각 약간 다른 사상을 가지고 개화 계몽운동을 진행했으나 실제로 그들이 각각 조국의 시대 상황과 문화적인 공간 및 분위기에 맞게 조국을 위해 새로운 가능성 및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마음이 다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작품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작중 인물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 물들은 작가의 대리인이자 작가의 세계관의 반영하는 인물로 간주할 수 있 다. 특히 비교 문학 분야에서는 작중 인물에 관한 이해는 여러 방면에서 중 요하다. 작중 인물은 자기 자신과 그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나 견해에 해당한다(김욱동 1988: 168), 한 작가가 소설 속에 어떤 유형의 인물을 설정하는가 또 그 인물이 어떤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느냐는 단순히 기교상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 작가가 인물 설정 의 도와 작중 인물의 관심사는 한 작가의 특질을 본질적으로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조남현 1983: 156), 작가는 그가 의도한 테마의 성취를 위하여 그에 적 합한 작중인물들을 창조해낸다고 하겠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작 중인물들의 행위와 사상의 분석을 통해 작가의 주제의식 내지 지향점을 밝 힐 수 있다. 본고는 서론을 이어 우선 두 작가의 생애와 문학관을 간단하게 비교하다 그 다음으로 3장에서는 두 작품의 등장인물을 비교하여 작품의 내용을 통해 양국의 식민지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근대성이라는 긍정적인 면 과 내부 및 외부의 불화의 부정적인 면, 즉 식민지 시대에서 벌어졌던 상황

을 명확히 살펴본다. 이어서 4장에서는 두 작가의 시대 인식과 아울러 한반 도와 인도의 식민지 상황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유의미한 결론을 짓도록 한 다.

# 2. 이광수와 타고르의 생애와 문학관

한반도의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 평가받는 소설 『무정』의 작가 이광수는 한반도의 개화기에 1892년 2월 28일 평안북도 중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 반도의 근대전환기에 일어났던 동학혁명, 청일전쟁, 조선왕조의 멸망, 대한 제국의 성립과 멸망, 러시아와 일본 전쟁 이후 일본의 한반도를 보호국으로 삼는 것과 일본의 한반도 병합 등 여러 사건들 몸소 체험한 작가였다. 그는 한반도의 근대와 식민지 시대의 격동기에 불운한 유년기와 일본의 유학생활 및 귀국 후의 교사생활을 경험하며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장편 『무정』은 그의 초기 장편 작품으로 당시 문단에서 기존 소설의 작성 방식과 달리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한반도의 대표적인 소설가, 시인, 문학평론가, 페미니즘 운동가,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왕가의 방계 혈족, 사상가, 기자, 번역가, 자유주의 운동가로 역사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도 연구되어 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그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신한청년당,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또한 임정 사료 평찬위원회와 독립 신문 등을 맡기도 했었다. 그는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으 면서 한반도의 유교적 봉건 도덕, 윤리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그는 『무정』에서도 많이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여성 해방과 자유 연애 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광수는 1909년에 첫 작품인 「사랑인가」의 일본어 파 발표로부터 행보를 시작하였다. 이후에 일본 유학 중에 수많은 소설과 시 논설 등을 발표하였다. 귀국 이후에 식민화가 되어버린 조국의 오산학교에 서 잠깐의 교사 생활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무정』의 작업도 그는 일본 유학시절에서 하였다(하타노 세츠코 2008). 그는 일제의 억압이 심해 1919년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의 2·8독립선언을 주도했고, 한반도의

유명한 3·1운동의 기점은 바로 이광수가 쓴 2·8독립선언서였다. 이후에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가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1921년에 귀국 후에 그는 『동아일보』와『조선일보』신문지와 기타 문예지에서 논설, 단편, 장편, 시 등을 발표했다. 1920년대 그는 대표작으로 「소년에게」, 「원각경」, 「할 맘」, 「가실」, 「선도자」,「허생전」, 「재생」, 「마의태자」, 「단종애사」 등을 발표했으며, 1930년대에는 「혁명가의 아내」, 「이순신」, 「흙」 등을 발표했다.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일제가 그를 투옥했고, 이후에 그는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과 같이 본격적으로 친일로 변모하게 되었다. 1950년 한반도의 내전 당시 "모시기 정책"의 일환으로 끌려가서 병사하였다고 한다.

이광수의 문학관은 '동시대 최선의 세계관을 선택하고 동시대와 인물의 중심계급을 전형화하였다'는 작가의 말을 참고하더라도 그는 퇴폐적인 문학이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극단적 문학관을 지향하였다. 필자가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대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되었다고 본다. 그는 『무정』을 러일전쟁에 눈뜬 조선으로 보고, 한일합방으로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의 조선을 「개척자」로 그렸다. 그리고 한반도의 만세운동을 「재생」으로 소설화하였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그는 일본식민지시기에 '사실주의문학'을 지향하려고 하였다. 그는 민족 근대사의 수난을 순교자처럼 받았고, 그것을 민감하게 소설, 논설문, 시와 수필, 기행문 등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광수는 흔히 한반도 근대문학사에서 선구적인 작가로서 계몽주의 민족주의 인도주의의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의인생관과 문학관은 한반도의 전환기 역사와 매우 일치하고, 닮았고, 이광수만의 인생을 공부해도 한반도의 근대전화기사를 공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의 인생과 문학관은 당대의 일본 식민지하의 사회적인 조건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의해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국식민지의 마약에 깊이 취하고 잠자던 인도가 1857년에 결국 반영국 운동의 시작으로 깨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61년 5월 7일 인도 동부지역 인 벵갈의 수도인 캘커타에서 유명한 문학 가정에서 인도가 자랑하는 작가 인 타고르는 부모의 14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타고르의 말을 빌면 그가 태어 났을 때는 인도에서 세 가지 고동이 인간의 생명 속에서 합류하고 있었다 (R. Tagore 1928: 1). 그 하나는 거대한 지성을 가진 고결한 인사 모한 로이 (Raja Ram Mohan Roy)에 의해 도입된 종교적인 것으로서 매우 개혁적인 사회운동이었다. 둘째는 타고르가 태어난 지역인 벵갈에서 현지어인 벵갈어로 된 문학의 개혁 운동이었다. 셋째는 인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민운동이었다. 국민운동은 정치와 사회적인 것이었고 인도 민중들은 영국의 굴욕적인 멍에에서 벗어나려는 광범한 민족운동이었다. 타고르의 어렸을 때의 상황은 이광수의 생애와 비교해보면 한반도의 근대전환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다. 한반도에서 동학운동처럼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수정 및 개편운동이일어났고, 이는 '브라흐마교'적 힌두교의 새로운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한반도에서의 개화 계몽 운동처럼 인도에서도 문학과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구국운동이 펼치기 시작한 시기였다. 타고르와 이광수가 자라난 이러한 양국의사회적인 상황과 환경은 비교해보면 매우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좋은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타고르는 어렸을 때부터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고, 타고난 천재형의 작가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타고르의 집안은 대가족이었으며, 그 형제들도 재능이 뛰어났고, 타고르의 지적·시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1870년대 타고르는 아버지와 함께 인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인도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이해했고, 아버지의 지도하에 그는 수많은 인도 작품들을 섭렵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문예지에 그는 시와 수필을 발행했고 1870년 말부터 여러 차례로 영국에서 단기 유학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이는 그에게 인도를 이해하고 나서 서구적인교육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타고르는 전반기에 문예지 『사다나』(수행), 희곡「치트랑가」, 시집「치탈리」을 발행했고, 1900대에 들어와서 희곡「암실의 왕」, 「우체국」, 「기탄잘리」 등을 발표하였다. 1910년에 소설 「고라」, 1912년에 「기타날리」의 영역본을 출간했다. 이듬해에 인도뿐만 아니라 온아시아의 최초의 문학노벨 수상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였다. 1915년에 그는 영국의 조지 5세로부터 나이트 작위를 받게 되었다. 영어에 능통한타고르는 종종 영국과 미국 및 서구의 대학에 가서 '인도 문명'과 '세계 평화',

'계몽사상'에 인류 지도 등 관련 수많은 특강 및 연설하였고 수많은 글들을 발표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와 만나려고 했던 한반도 청년 유학생 중에 이광수도 있었다. 타고르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각국에서 강연하고 작품을 발표하였다. 1921년에 그는 인도로 돌아와 위슈와바라티(Vishva Bharati) '타고르국제대학'을 개교하였고, 작품인 「운명의 난파」과 「상상의 유희」등을 발표하였다. 1924년에 소설 「고라」의 영어판이 번역되어 발행되었고, 바로 2년 후인 1926년에 이 작품이 한반도에서 『동아일보』를 통해 한반도 민중에게 소개되었다. 작품의 인기가 너무 많아 1938년에 인도에서 「고라」를 개작하여 「고라」 영화를 만들었다. 타고르는이 외에도 인도의 애국가의 작곡가이며 작가이고 인도와 분리된 방글라데시의 애국가를 쓴 사람도 타고르이다.

타고르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많은 작품을 썼다. 그는 생애의 후기 25년 동안 21권의 저작을 펴냈고 1941년 8월 7일 인도의 독립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8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작품들 상당수가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영역되었지만, 영문판들은 벵골어 원작에 비해 문학적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한반도에서 타고르의 작품수용은 외국의 어느 다른 작가보다도 많았다. 한반도에서 일제강점기 때 문학가 김억에 의해 그의 시집『기탄잘리』가 번역되었고, 해방 이후 김양식과유영에 의해 그의 기타 작품들은 번역되어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 '타고르소사이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타고르의 사상을 펼치고 있다. 인도에서 한반도의 문학가에 대해 생소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인도 문학가 타고르 관련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광수와 타고르는 1800년대 중반과 후반에 태어난 점, 유년시절에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 국내에서 풍부한 문학활 동을 한다는 점, 해외에서 유학과 포부를 펼친다는 점, 그리고 각각 외국어 에 능통한다는 점에서 보면 당시 격변기에 있던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일찍이 뛰어난 세계화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무정』과『고라』 소설의 인물 비교

이광수의 작품 『무정』을 살펴보면 작품의 등장하는 주인공 이형식은 일본식민지 시대에 몰락해 가는 한반도에서 한 고아로 태어나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경 유학까지 마친 조선의 지식인 중의 한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친 뒤 조국을 발전시키려는 포부를 가지고 경성학교의 교사로 학생들에게 신교육을 실시한다. 근무하다가 재력가 가문의 딸 김선형과 기생으로 전략한 과거 은사인 박진사의딸인 박영채를 만나 둘 사이에서 애정의 갈등을 겪고 방황한다. 그는 결말부분에 선형과 약혼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길에 기차에서 영채를 다시 만나갈등을 다시 겪게 되었지만 삼량진 수해 현장을 보고 곤경에 빠진 한반도민중들의 어려움을 보며 민족애를 출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학하고 조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기도 한다. 이광수의이 소설에서 주인공 형식은 전반부에는 과도기적 근대를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지식인상을 보여주었고 후반부와 결말 부분에 가서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선구자적 지식인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으로 타고르의 『고라』는 근대화 과정에 있던 인도에서 영국식민지 양상뿐만 아니라, 사랑과 모성애, 조국애, 인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사회적 문제를 잘 다루는 작품이다. 타고르의 소설 『고라』에 등장 주인공은 '고라'6이다. 그는 인도에서 거주하는 영국인 아이로 1857년의 인도에서 일어났던 첫 반-영국 식민지 반란 때 태어났지만 그의 영국인 친부모가 반란 속에서 죽고 말았다. 고라는 우연히 한 명 힌두교 가정에 의해 부양받아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서 보수적인 힌두교 지식인으로 성장하게된다.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 옛날 전통을 지켜오는 보수과 힌두교와 낡은 관습을 타파하여 새 물결을 일으키고자 하는 혁신파인 브라흐마교가 존재하

<sup>6</sup>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을 '고라'라고 부른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어두운 색깔이나 검은 피부를 가진 대부분 사람 중에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인도에서 태어나면 사람들이 흔히 그를 '고라' 혹은 'Englishm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 있다. 이 신구(新舊) 대립의 극심한 소용돌이 속에서 고라는 힌두교 가정 에서 자라났으나 새로 일어나는 바람에 휩쓸려 브라흐마교의 가정에서 자란 여주인공 수차리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도에서 자신 과 다른 종교, 다른 계급 사이에 연애와 결혼할 수 없는 원칙이었으며 통혼 하면 보수적인 힌두교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속의 탐을 버리고 고행자로 인도 사회의 구원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고향을 떠나 인도 사회의 식민지화로 각 타락되는 모습을 보고 고라는 크게 충격을 받고 그의 인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고행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후 그는 힌두 교 성직자 되기 위한 제사 의식을 지내기로 한다. 그렇지만 고라의 양부가 고라가 힌두교 아이가 아니라는 관계로 고라의 이 결정을 듣고 매우 흥분하 고 걱정한다. 고라의 수양아버지가 어떻게 한 명 영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 기가 힌두교 성직자가 될 수 있냐의 충격에 정신적으로 좌절에 빠져 기절하 기도 한다. 아버지가 아파진 소식을 듣고 만나러 온 고라는 어머니에게서 자 신이 인도인이 아니라 영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자기야말로 참다운 진실한 인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기로 하고 여자 주인공 수차리타와의 결혼을 완성하기로 한다.

이광수와 타고르의 이 두 작품은 모두 각각 한반도와 인도 근대의 격변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근대지식인들이 등장인물로 설정되어 있고 주변인물의 설정도 역시 지식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광수의 『무정』과 타고르의 『고라』에서 인물들의 설정과 성격이 매우 뚜렷하고 명확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을 통해 근대성 속에 한반도와 인도의 지식인 사이에 어떤 유사한 부분을 갖고 있으며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고자한다. 우선 두 작품의 지식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다.

# 3.1. 『무정』의 개별 인물의 형상화

주인공 이형식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후, 서울에 위치한 조선의 경 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한다. 어느 날, 김종렬이라는 학생이 찾아와서 학 생에 대한 배학감의 악행에 대해 항의하며 많은 학생들과 같이 퇴학하겠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배학감이 교사들에게도 독재 행위를 행한다.

"저의 모교 당국은 부패지극에 달하였읍니다. 차제를 당해 저희 용감한 청년들이 일대 혁명을 아니 일으키면 오히려 모교는 멸망할 것이올시다."...

허, 일본에 큰 교육가가 있소? 참 일본의 교육은 극히 불완전합니다.』 하고 자기는 청출어람이라는 격언과 같이 일본서 배워왔거마는 .... (생략)

일찍이 형식이가 조롱 겸 배 학감에게 물었다. 선생의 신학설은 뉘 학설을 근거로 한 것이오니까?...(생략)...<sup>7</sup>

김종렬은 공부를 잘 못하지만 서양사에서 얻어들은 자료를 가지고 나폴레 응을 유일한 숭배 인물로 삼고 있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을 대표해서 배학감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며 항의했다. 배학감은 경성학교의 학감 겸 지리 역사를 담임한 교사이다. 술을 먹고 화류계에 다니면서 청년 교육자 될 자격이 없을뿐더러 늘 학생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며 상벌을 항상 공평하지 못했다. 그 부패지극은 바로 배학감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나왔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상 학문적인 이론에 대해 제대로 습득하지 않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자아중심의 사람이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원리는 가장 우월한 이론이라고 일본을 비하하기도 한다. 형식은 식민자의 태도를 취하는 독재자 같은 배학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또한 배학감의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이기적인 심리를 엿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학감을 탄압하여 학습의 좋은 품질을 쟁취한다.

형식은 자기가 조선에 있어서는 가장 진보한 사상을 가진 선각자로 자신한다. …(중략)…

<sup>7</sup> 이광수(1971) 「무정」, 『이광수전집 1』, 44~46.

그는 조선인 교육계에 대하여 항상 불만한 생각을 품는다. …(중략)…

남들이 형식의 의견을 채용치 아니함은 자기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함이라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네의 보기에 형식의 의견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이요, 또 설사 실행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듯한 것이었다.<sup>8</sup>

형식은 경성학교의 진보한 서양문화를 가장 잘 습득한 교사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형식의 생각이 당시 식민지 시대의 한반도에 너무 이상적이고 환상적이라 그 사회에서 실행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당시 사회에서 그 문명 문화를 펼치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효력이 생기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존재는 곧 사람들에게 발전과 혁신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식민주의"라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때의 형식은 그 전체적인 실상을 생각하지 못한 채 덜 실용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다는 것이다.

형식의 특색은 영어를 많이 섞고 서양 유명한 사람의 이름과 말을 많이 인용하여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할 말을 길게 함이었다.9···(중략)···

그는 조선식 예수교의 신앙을 알 따름이요, 예수교의 진수가 무엇이며 예수교와 인류의 관계 또는 예수와 조선 사람의 관계는 물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중략)··· 서양 사람의 문명의 내용은 모르면서 서양 옷을 입고, 서양식 집을 짓고, 서양식 풍속을 따름을 흉내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하리오.10

선형은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선형의 속에 있는 〈사람〉은 아직 깨지 못하였다. <sup>11</sup>

당시 일본의 식민지화된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색한 문화는 이러한 모방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형식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sup>8</sup> 이광수(1971) 『이광수전집 1』, 124~125.

<sup>9</sup> 이광수(1971) 『이광수전집 1』, 124.

<sup>10</sup> 이광수(1971) 『이광수전집 1』, 139.

<sup>11</sup> 이광수(1971) 『이광수전집 1』, 56.

없을 정도로 서양식 언어적인 표현을 어색하게 많이 사용한다. 그의 미래의 장인인 김 장로와 약혼녀인 선형은 서양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양식을 흉내 내기만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불완전해지게 되어 있다. 여기서 형식과 선형 및 김장로를 통해 식민지 시기의 한반도는 제대로된 자유로운 교육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조국애의 부족한 실상을 보여준다.

박진사는 남이 웃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영채를 학교에 보내며 학교에서 돌아 온 뒤에는 [소학], [열녀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열두살 되던 해 여름에는 [시전]도 가 르쳤다.

"아니 죽고 어떡헙니까, …(중략)…,"

"일조에 정절을 더럽히고...."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지요."12

작품에서 영채는 조선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여성이다. 어렸을 때부터학문을 잘 습득했고 전형적인 숙녀였으나 가문의 비극에 기생으로 전략하게된다. 그녀는 학감 배명식과 김현수의 악행으로 인해 정조를 잃은 뒤 자살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서울에서 평양으로 떠난다. 기차에 있을 때 우연히 김병욱이라는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귀향한 여학생을 만난다. 김병욱은 영채에게 낡은 폐습 속에서 구원해준 중요한 인물이다. 선형에 대해 "아직은 사람이 안 되었다"라고 말한 형식의 이론에 따르면 김병욱 여학생은 정조를 잃은 영채를 떠난 이형식과 부도덕성의 배학감 같은 일본유학파보다김병욱은 훨씬 더 "사람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科學)을 주어야 하겠어요. 지식을 주어야 하겠어요"

<sup>12</sup> 이광수(1971) 『이광수전집 1』, 27, 155 참조.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중략)…

"교육으로, 실행으로"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 서 힘을 얻어 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sup>13</sup>

진정한 스스로의 인식과 주체성을 찾지 못했던 형식이 한반도 민중들의수난 상황을 보고 깨달은 내용이다. 또한, 당시에 같이 있던 선형, 영채 및 병욱이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즉, 한반도 민중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반도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이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고 있던 형식과 선행, 일본에 가고 있던 병욱과 영채는 모두 그 책임을 잘 맡으려고 하는 계몽의 인물이다. 자아도취나 자아폄하의 심리를 없애야 하며 교육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나라가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우선은 말을 이어

"나도 오늘 이때, 이 땅 사람이 되었네. 힘껏 정성껏 붓대를 둘러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공헌함이 있으려 하네..."

"영채씨, 이전 버릇없던 것은 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될랍니다."14

신우선이라는 인물이 형식의 친구로 소설에서 등장한다. 그는 철저한 이익만 보고 다니는 기자이다. 그는 영채가 배학감과 김현수의 악행을 당하기전에 이미 관련 소식을 들었으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채를 구조해줄 마음이 없을뿐더러 이를 기자의 소재로 삼으려고 작정한다. 신우선은 다른 인물들과 달리 한반도를 위해 생각해 주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남의 일들을 장난으로 삼아 이익을 얻기에만 바쁜 사람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

<sup>13</sup> 이광수(1971) 『이광수전집 1』, 205~206.

<sup>14</sup> 이광수(1971) 『이광수전집 1』, 207~209.

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이지만 모든 고난을 오직 옆에서 바라보기만 한 무관심의 태도는 일종의 범죄 협조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에 다행히 주인공 형식의 깨달음과 같이 각성한 신우선의 모습이 있는데 이는 당시 피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반성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 3.2. 『고라』의 개별 인물의 형상화

소설 『고라』는 매우 많은 인물들의 대화로 조성된 거작이다. 본 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인 인물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담론을 통해 당시 인도 내에서 안고 있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즉, 고라, 비노이, 하란, 아난다모니의 담론을 비교의 대상으로 한다.

"어머니가 라치미와 같은 그리스도 교도의 하녀를 부리고 있는 한 어머니의 방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상황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융화 단결하는 것이 우리가 주안으로 삼아야 할 일이 아닐까.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차를 마셔도 좋은가 어떤가의 문제를 단 한 마디로 결정해야겠지"<sup>15</sup>

인도의 영국 식민지 시기 때 카스트 제도를 중요시하는 힌두교 입장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인도 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주인공 고라는 힌두교의 전통을 위반하는 신 개혁 종교인 바라흐마교와 기타 종교를 배척하고자 했으며 그들이 만든 음식을 안 먹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간섭하려고 했다.

인도 구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고 늘 인도의 구문화의 노래하는 고라는 모든 인도사람들이 하나로 되어 나라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카스트 제도 내의 병폐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너무나 사소하고

<sup>15</sup> R. Tagore, 유영 옮김(2002) 『고라』, 범우사, 30, 83.

지엽적인 일에 구애되는 행위이니 인도를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 고라는 식민주의를 모방해서 국가 개혁하는 일은 최우선시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했다. 그는 개혁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랑과 존경이오, 개혁은 인도인들이일치단결하는 날 우리 스스로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 고라의 강렬한 보수적인 전통과 힌두교의 정신을 가진 극단적인 애국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만한 어조로 하란이 대답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정신적 도덕적 가르침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런 자들은 영국 문명의 장점에 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중략)… 그들은 인도에 있어서의 영국의 지배가 하늘의 배려라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영국 책에서 읽은 것을 그대로 되받아 외고 있을 뿐, 사실의 진상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정도의 솔직한 노여움으로써 영국의 폐습을 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말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경전에 따르면 여성은 '가정'에 빛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숭배를 받을 만하다고 했어-하지만 영국인의 관습대로 사나이의 마음에 불을 지름으로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존경은 숭배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거야"<sup>16</sup>

'하란'과 같이 애국심이 없는 지식인 인물들이 인도가 받는 굴욕과 수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비교적나은 특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탁상공론을 펼치고 외세에 노예근성을 보이는 추한 모습에 대해 고라는 경멸하고 지적했다. 또한, 겉모습에만 속지 말고 외세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즉, 하란은 맹목적으로 영국의 식민주의 문명에 따르기만 하며 사실상 피식민지인 인도 민중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인물이다. 고라는 서양을 모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영국인이 여성에게 진정한 존경을 할 줄 모른다고 주장하고 영국인이 인도인을 비하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고라가 인도 전통의 미를 통해 단결력을 키우고자 하

<sup>16</sup> R. Tagore, 유영 옮김(2002) 『고라』, 범우사, 26, 71, 196.

여 외래의 세력에 대한 눈먼 추종을 굳게 반대하는 입장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보아온 바로는 그들의 직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남의 어깨를 타고 올라앉게 되면 여지없이 동포를 눈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고 말지요"

"내가 숭배하는 여신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가난과 배고픔, 고통과 모욕이 있는 곳에서 나의 여신을 본다."<sup>17</sup>

인도에 영국 식민지 시대에 있어, 외세에 의해 동화된 지식인 동포들이 높은 위치에 가면 자국 민중들에게 오만한 태도로 독재자 행위를 행한다. 고라의 눈에는 이들이 외세의 힘을 입은 동시에 나라의 단결력을 파괴시키는 위험한 현상이다. 18 또한, 인도의 각종 미개의 문제를 핑계로 대어 나라를 계몽시키겠다는 척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고라는 인도의 가난, 배고픔, 고통 및 모욕이 있는 곳에서 구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들이야말로 외세에 의한 타락 모습임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친외세자로 인해 인도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따위의 일들은 호흡과도 같은 것으로, 쓰지도 달지도 않게 느껴지지-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도 실망도, 또한 기쁨도 슬픔도 주지 않아. 우리의 세월은 헛되이 사라져가고,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한가운데에 서서 우리들 자신도 우리의 조국도 자각하지 못하게 되고 미는 거야."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는 믿지 않아. 온 우주의 의지력과 사고력이 안과 밖에서 그것을 몰아내고 있어. 비노이, 내 조국의 자유 실현이불가능하다고는 꿈에서조차 생각지 말라고 …(중략)…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것보다 더 비겁한 일은 없다고 나는 생각해"<sup>19</sup>

<sup>17</sup> R. Tagore, 유영 옮김(2002) 『고라』, 범우사, 105, 146.

<sup>18</sup> 호미 바바의 이론으로 보면 식민주의를 모방하는 이러한 행위자들을 혼존성과 양가성 및 모 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Homi K. Bhabha(2004), The Location of Culture, Rutledge, 참고할 것.

<sup>19</sup> R. Tagore, 유영 옮김(2002) 『고라』, 범우사, 116.

고라의 친구 비노이는 적극적이지도 않고 반대 입장도 없는 무관심 태도를 보이는 한 지식인이다. 식민지의 현상에 마비된 비노이의 모습을 보고 고라는 절대로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고 외친다. 비노이의 말을 통해 식민지에 발생한 각종 불평등과 억압에 좌절에 빠진 피식민지인의 인도 민중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고라는 모든 국민들이 힌두교의 정신을 발휘해서 국가를 구원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에게는 나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라의 적극적인 애국의실천력과 그 반대된 비노이의 자포자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너는 이제까지 라치미의 손으로 밥을 먹지 않았니? 너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또 너를 길러낸 것도 모두가 라치미란다. …(중략)…

라치미는 헌신적으로 간호해서 너를 살려놓았다. 그런 일이 어디 쉬운 일인 줄아니? …(중략)… 그 사람은 땅도 돈도 탐내지 않는다. 다만 너를 지켜보고 싶어서함께 있는거야."

"나는 이 세상 누구의 손으로부터라도 물을 받아 마실 것이다!"<sup>20</sup>

소설에서 고라의 아버지도 손수 만든 요리가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을 정도로 힌두교 정통파이다. 그러나 고라의 어머니로 등장한 아난다모이가 그렇지 않았다. 종교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진 현명한 아난다모이에게 고라는 매우 센 고집쟁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고라가 저런 기세로자기식의 힌두교를 고집해나가다가는 끔찍한 큰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 걱정한다. 또한, 어머니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싸운 고라와 비노이를 화해시키기위해 고라에게 우정과 휴머니즘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뒤, 고라는 비로소 태도가 개선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고라의 양모인 아난다모이가 전통파 가정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보다 더욱더 개방적인 사상을 갖고종교 같은 외적인 요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없는 진보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다.

<sup>20</sup> R. Tagore, 유영 옮김(2002) 『고라』, 범우사, 30-31.

"우리의 조국애에는 크나큰 결점이 있는 듯이 생각돼. 우리는 다만 인도의 반쪽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중략)… 우리는 인도를 단순히 남성의 나라로만 생각하고 여성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즉 여성들이 장막 뒤에 숨어 있는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쪽의 진리일 뿐이며, 따라서 우리의 풍부한 사랑과 열성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sup>21</sup>

위는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비노이는 고라의 열정에 영향을 받아 인도 문제에 대해 사고하는 모습이다. 고라는 오직 일방적으로 자기가 생각 하는 전통에만 빠져 있고 그 고정된 방식으로만 애국심을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미 세계화의 길에 들어가고 있던 인도에 있어서 고라는 여전 히 서양식 개혁의 영향을 반항하려고 했고 이의 문제점을 비노이가 끄집어 내었다. 즉, 비노이는 인도의 여성들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변화를 막으려던 고라에 대해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제 저는 자유의 몸입니다. 더 이상 오염과 파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진실로 인도에 봉사할 수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노력의 무대가 제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저만의 공상이 아니라 실로 인도 2억 5000만 동포의 행복에 관한 현실의 무대입니다."

오늘 저는 진짜 인도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미 힌두, 마호메트 교도, 또는 그리스도 교도 사이에 아무런 대립이 없습니다. 인도에 있어서의 모든 카스트는 모두 저의 카스트입니다.<sup>22</sup>

고라는 자기가 영국인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기존 가졌던 폐쇄적 인 보수적 생각을 전부 버릴 수 있게 된다. 그는 힌두교 전통 종파 집안에서 태어났고 국가의 진정한 종교인 힌두교에만 사수해 왔으나 이제 그의 신분 이 다양성을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한 인도라는 이 국가의 다원적인

<sup>21</sup> R. Tagore, 유영 옮김(2002) 『고라』, 범우사, 121.

<sup>22</sup> R. Tagore, 유영 옮김(2002) 『고라』, 범우사, 489~490.

모습을 받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인도는 힌두교만의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발전과 행복은 대립이 없는 데에서만 시작된다. 모든 변화가 다 중요한 것이며 그 나라의 현실적인 변화에 맞춰서 서로 존경하며 편견 없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인식해야만 진정한 그 국가의 행복한 국민이될 수 있다는 것을 고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렇듯 한국과 인도의 근대시대는 수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한 혼란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와 타고르의 각각 두 작품 속의 지식 인 주인공들과 같이 초기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시야에 갇혀 개방적인 마 인드로 사회를 바라보지 못해 많은 갈등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정』 에 나타난 한국의 지식인 경우에는 형식과 김장로 및 선형은 세계 변화를 일으킨 식민주의 문명의 세례를 받았으나 식민지 한반도의 보수적인 전통관 에 갇혀 있는 면이 있어 식민자의 모방 차원에만 맴돌 수밖에 없다. 『고라』 에 나타난 인도의 지식인 경우에는 하란은 분명히 식민자의 문명을 잘 경험 한 자다. 그러나 그는 융통성이 없을뿐더러 외세에 지나친 숭배로 인해 오히 려 외세의 괴뢰 역할로 사용된다. 이는 한국/조선 작품의 인물인 배학감과 상통한 면이 없지 않다. 배학감은 융통성이 없을뿐더러 자아도취와 도덕성 이 없는 점은 피식민지라는 어려운 상황에 혼란만 일으키는 부정적인 유형 의 인물이다. 반면에 고라는 지극한 애국주의자 지식인으로서 긍정적인 면 을 가졌으나 전통에 너무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심각한 종교적인 편견에 빠 지게 되어 나라의 과도기 속에서 차별과 편견 및 우매의 애국심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한편으로 고라의 양모 아난다모이는 이미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랑 및 인정미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 닫는다. 한국 인물인 영채의 경우는 변화가 생긴 식민지 한반도에서 많은 피 해를 입었으나 마지막에서 낡은 사상을 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잘 응하는 김 병욱 여학생과 같이 나라를 위해 공부해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지식인들의 내적인 변화에 있어서 반동 인물인 배학감과 하란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한다. 즉, 식민지인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세계와 연결되어야 하는

교육'과 '과학 기술'이라는 요소만은 가장 유일한 유용의 해약이며 인도의 상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와 카스트 제도로부터 오는 편견과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과 이 외에 역시 '전통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빠져 나와 혁신된 세계화의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의 이 두 작품에서 나타난 두 작가가 제시한 이 두가지의 해결방안은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 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4. 두 작품의 특성과 의의 - 결론 대신하여

한반도는 문호개방(1876년), 즉 개항 이후 중화적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 고 있던 중국 이외에는 또 다른 서양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바로 서양이라는 존재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과의 종속 관계를 해체하게 되어 민족의 자주와 국가의 독립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한 민족은 자기 각성을 촉구하면서 개화 시기 때 국어국문운동을 제창하기 시 작했다. 이는 개화계몽운동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봉건사회에 대한 반항의 시작이었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혁명은 1984년의 동학농민혁명운동이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근대적 변혁을 위해 민족적 주체의 확립과 새로운 근대적 가치를 인식하며 했던 혁명운동이었다. 더 깊이 보면 동학운동은 농민계급 을 위한 봉건적인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저항과 서양의 학과 대응되는 의미 와 같이 외세를 배척하고자 하던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혁명 운동이었다. 그 후에 계몽의식을 가진 독립협회운동도 있었는데 입헌군주제의 이름을 보유 하지만 집권 보수 세력이 와해한 상태였다. 국어운동 부분에 있어 새로운 교 육제도들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사립 소학교 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기도 했었다. 1905년에 보성학교, 한성법학교 와 같은 고등 교육 기관까지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에서 국어, 국사, 수신뿐 만 아니라 서구의 새로운 문물과 제도, 근대적 이념과 가치 등 개화사상에 대해서도 강조되며 교수되고 있었다. 그 후 일본 보호국이 되면서 식민지로 전락되며 애국 정서와 같이 계몽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에서는 한반도의 동학과 같은 성격의 혁명으로 1857년에 영국식민자 100년이나 지배 후 종교적 박해에 의해 일어난 혁명 운동이 있었다. 이 혁명 운동에서는 지배자의 도발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자 자아각성의 행동이었다. 타고르와 그의 가족은 역시 그 선각자 중의 하나였다. 타고르의 시대에 큰 변동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모한 로이에 의해 도입된종교적 개혁파, 벵갈 문학의 개혁운동 및 국민운동이었다. 이렇듯 식민지에서 문화들이 서양세계와 동양세계의 사이에서 각각 수정되고 충돌된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배경에 있어 작품의의의는 인도와 한반도 혹은 식민지를 경험한 다른 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전통문화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공간에서 상상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그 전통은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지지 않으면이 세계의 '대공동체'에서 탈락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두 작가는 작품 인물을 설정한 점이 가장 독특하다. 한반도에 있어, 한반도의 근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인물은 동학 교주 최제우이다. 그가 창시한 동서양 종교의 혼합체인 동학은 조선국민들로 하여금 개화사상을 흡수하게 되어 서양문명에 대해 눈을 뜨게 하였다. 동학이 나중에 봉건사회의 폐단과 탐관오리의 수탈 및 러시아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과 중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인도에서 힌두교나 기타 구수파에서 오는 사회에 깔려있는 악습과 폐단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도에 최제우와 동일한 역할을 한 사람이 '라자 람 모한 로이'였다. 그는 서양종교, 이슬람교의 장점과 동양 힌두교와 불교, 자이나교의 장점을 혼합시켜 '바라흐마(우주)'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립하였다. 이광수는 『무정』에서 영채의아버지 박진사가 동학 혁명자의 역할을 맡았다는 설정을 통해 이광수가 민족주의 사상을 보여주었으며 새로운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 타고르는 『고라』에서는 직접 바라흐마교의 이름을 사용해서 바라흐마 종교의 설정을 통해 인도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계몽의 과실을 기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당시 이 두 작가는 당시에 '전통'이라는 공간에서만 살아

갈 수 없고 이 세계의 '대공동체'에서 수정되지 않으면 탈락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려고 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광수와 타고르는 각각 문학을 통해 당시 시대상황에 맞게 피식민 국가의 신분을 가진 국민들에게 계몽인식을 주입하려고 했었다. 이광수는 『무정』에서 진화론의 사상과 서양식 교육을 필요하다고 암시하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타고르는 『고라』에서 애국심과 단결력의 고취와 같이 보수적인 노선에서 벗어나 세계 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으로 연결되어 국가의 독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겉으로 보면 두 작가는 각각 다른 사상을 가지고 개화 계몽운동을 진행했으나 실제로 그들이 자기 나라의 현지 문화에서 각각 전부 새로운 변 화를 추구하고자 한 마음이 다름이 없었다.

### 참고문헌

기본 자료-이광수(1971) 「무정」, 『이광수전집』, 삼종당. 타고르, 유영 옮김(2001) 『고라』, 범우사.

기타 자료-

권보드래(2000) 「『무정』의 발견과 근대성」、『문학과 교육』 13호.

김욱동(1988)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동아일보(1928).

유영(1983) 『타골의 문학: 그 신화와 신비의 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옥순(2006)『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인도』, 푸른역사.

조남현(1983) 『소설원론』, 고려원.

최주한(2014)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피터 차일즈(2004)『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하타노 세츠코 지음/ 최주한 옮김(2008)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허병식(2003)「식민지 청년과 교양의 구조:「무정」과 식민지적 무의식」,『한국어문학연구』 41집

A. Chakravarty(1961) A Tagore Reader, New York.

#### 364 국제고려학 16호

Bhabha, Homi K. (2004) The Location of Culture, Rutledge.

K. Kripalani(1962) Rabindranath Tagore: A Biography, Yew York, Grove Press.

R. Tagore(1928) Lectures and Addresses, My Life, London.

# 김달수와 문학운동

-리얼리즘연구회를 중심으로-

**히로세 요이치**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1. 용어에 대해서

본고는 현재 일반적으로 '(재일)코리안'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재일)조선인', 국가로서 '한국'을 '남조선' 혹은 '조선남부'라고 호칭하는 등의, 현시점에서 본다면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논문의 사정상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에 김달수가 사용했었고 일본사회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필자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 2. 들어가며

김달수(金達寿 1920-97)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얼마 안 되어 본격적으로 지적활동을 시작하여 반세기에 걸쳐 재일조선인사회와 일본인사회에서 활약 한 재일조선인 지식인이다. 그는 70년대를 경계로 인생의 전반은 문학, 후반 은 고대사라고 하는 전혀 다른 학문 영역을 주된 활동 무대로 삼으면서 동시 기의 조선반도의 정세와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를 둘

<sup>\*</sup> 본고는 특별연구원 장려비(과제 번호 267974)의 조성을 받은 것입니다.

러싼 여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각양각층에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에 관한 동시대의 평가나 학술논문은 문학활동에 관한 것들이 압도적이며 그 외의 지적활동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특히 그의 고대사연구는 그 시대의 조선반도의 정세와 일본사회에서의 재일조선 인을 둘러싼 여러 문제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문물들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조선반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민족중심주의적인 역사관이란 비판을 받으며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20년 이상을 재일조선인문학자의 제일선에서 활약해 왔던 그가 거기서 획득한 인식이 고대사연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까. 또한 가령 그의고대사연구가 어려웠던 현실로부터의 도피의 소산이라면 왜 이러한 비판정신을 소실한 아마추어의 제언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학술서적에서 사용했던 '귀화인(帰化人)'이라는 용어가 '도래인(渡来人)'으로 변경되는 것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더욱이 김달수 자신(1972: 3)이『일본 속의조선문화(日本の中の朝鮮文化)』의 "첫 권이 나온 후 나는 일본 전국의 독자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천수백 장에 가까운 많은 '애독자카드'를받았다. 이 카드 중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한 작업에 대하여 공감을표하는 것들뿐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출판했었고 그 나름의 반응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직접적이며 큰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공감했을까.

그의 고대사연구에 대한 반향은 전례 없는 "직접적이며 큰 반응"이었다는 것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인 石母田正(이시모다 타다시)는 이미 발표한 논문을 『고대일본국가론(古代日本国家論)』에 수록할 때 "김 달수씨 등의 제언에 따라 '귀화인'을 '도래인'으로 수정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石母田 1973: v-vi). 또한 역사학자인 森浩一(모리 코이치)의 다음과 같은 담화는 김달수의 고대사연구가 역사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달수씨는 소설가라고 할까, 고대역사가라고 할까, 예를 들면 우리대학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학생이 '지금부터 김달수 류의 발상으로 전환합니다'라며 버젓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학뿐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어느 날 동경대학의 井上光貞(이노우에 미츠사다)씨도 "동경대학도 정말 같아요'라며 이노우에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김달수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김달수씨의 학설이 상당히 풍미되고 있습니다. (森 1979: 37)

김달수의 고대사연구에 영향을 받은 이는 이러한 아카데믹한 학자나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전국각지의 향토사학자와 역사애호가들 또한 연이어 고향의 고대문화유적을 조선반도와 연관시켜 재검토를 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방과후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같이 유적의 유래를 조사하는 중, 고교의 교원들도 있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김달수의 고대사연구가 전문가들도 무시할 수 없었으며 종래의 일본고대사 연구방법에 미흡함을 느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비친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김달수의 고대사연구는 어떻게 해서 고대사 전문 연구자와 아마추어 향토사학자, 역사애호가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적 장벽을 넘어 커다란 연대관계를 이루어 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

김달수를 재일조선인문학자로서만 파악한다면 이러한 의문의 해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종래의 김달수 연구는 그의 지적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문학활동만을 추출한 것으로, 김달수의 지적활동의 발자취를 살피지 않은 '재일조선인문학(在日朝鮮人文学)'이라는, 미리 정해진 이론적 틀에 맞추어진 해석이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달수의 고대사연구가 학설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계몽했을 뿐만아니라 스스로가 행동으로 보여 주었을 정도로 일종의 '활력'을 가져다주었던 것으로 그 의의는 그의 문학활동에 비교해보아도 조금도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날로 긴박해지고 있는 일한(日韓)・일조(日朝)관계와, 재일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떠올려 본다면 김달수가 고대사연구를 통하여 형성한 네트워크를 재구축시키는 일이야말로 하루빨리 요구되는 일이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김달수의 문학활동을 자기 완결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이러한 연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고대사연구의 근저에 있는 김달수의 인식의 힘까지 범위에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김달수의 이러한 인식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얻은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리얼리즘연구회(リフリズム研究会)에 초점을 맞춰서 고찰할 것이다.

리얼리즘연구회는 김달수가 57년 11월에 일본인문학자와 결성해 65년까지 운영되었던 문학단체이다. 김달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학활동단체로서는 최대의 규모지만 지금까지 이 연구회에 초점을 맞춘 논고는 없었으며 그 역시 자전인 『나의 문학과 생활(わが文学と生活)』에서도 전혀 다루지않고 있다. 이 시기에 관하여 자전에서는 『조선(朝鮮)』(1958)에 대한 비판캠페인이 발단이 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에서 받았던 조직적인 압력에 괴로워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金 1998: 212-253). 이로 인하여 그의 문학에서 고대사로의 전환은 "'조국'과 같은 것"(金 1998: 196)이라 여기며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조총련에 대한 환상과 그에 따른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향'으로서 논의한 것은 있으나 리얼리즘연구회와 연결되지는 않았다.

분명히 그의 인생에 있어 일본공산당과 조총련 등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직"(金 1998: 185)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리얼리즘연구회의 활동을 하찮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리얼리즘연구회 보다 조총련과의 관계가 자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전을 쓸 당시의 그의 관심이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얼리즘연구회는 하찮은 조직이 아니라 8년에 걸쳐 1,000명 이상의 문학관계자와 작가지망생 등이 모여 일본 전국에 몇 곳의 지부를 결성할 정도로 상당히 큰 문학단체였다. 이러한 점에서 리얼리즘연구회는 조총련과의 알력에만 주목을 해서는 보여지지 않는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전반의 김달수의 지적 활동의 내실을 볼 수 있는 조직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50년대 전반의 김달수의 문학운동에서 리얼리즘연구회 결성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개관할 것이다. 다음으로 리얼리즘연구회의 활동내용과 김달수가 완수한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더하여 김달수가 리얼리즘연구회에서 어떠한 인식을 얻게 되었는가를 밝힐 것이다. 또한 필자는 김달수의 문학운동과 리얼리즘연구회에 대하여 지금까지 일본어로 몇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廣瀬 2014 등) 또한 박사논문(廣瀬 2015)으로 완결했다. 본고는 박사논문중에서 리얼리즘연구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이 김달수의 문학활동의 발자취와 그 의의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필자가 일본국내에만 발신해왔던 고대사연구까지 범위에 넣은 김달수의 지적활동의 가능성을 펼쳐 한국사회에 제시하고자 한다.

# 3. 김달수의 문학적 투쟁 - 리얼리즘연구회 결성까지

리얼리즘연구회는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에 걸쳐 일본의 프롤레타리 아문학이 개척하던 새로운 리얼리즘의 방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전후 일본 민주주의문학운동의 정체적 상황의 극복을 꾀했던 문학운동단체이다. 창설 당시의 멤버는 소설가인 김달수‧西野辰吉(니시노 타츠키치)‧窪田精(쿠보타세이)‧霜多正次(시모타 세이지) 그리고 문예평론가인 小原元(오바라 겐)의 5인으로 일본공산당의 실질적인 하부조직이었던 신일본문학회(新日本文学) 회원들이다. 이들은 1910년 중반에서 20년 중반에 태어나, 일본의 패전으로 부터 50년 전후에 문학적 경력을 쌓기 시작한 이들로 20년대부터 제일선에서 활약했었던 문학자들에 의해 결성된 신일본문학회회원들 중에는 젊은 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설가였던 4인은 연구회설립 당시 이미「현해탄(玄海灘)」(김달수)ㆍ「지치부곤민당(秩父困民党)」(니시노) 등 각각의 출세작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운 연구회를 결성함에 있어 진보적 문학운동의 정체 요인으로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당과 신일본문학학회와의 관계에 체 현된 전후 일본의 공산주의 운동의 '정치와 문학'의 문제고 둘째는 자연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문학형식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45년 12월에 창립한 신일본문학회는 전후 재빠르게 문학자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문학단체로서 출발했다. 그러나 중심 멤버의많은 수가 전향(転向)의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연구회의 활동은 宮本顕治(미야모토 켄지)·徳田球一(도쿠다 큐이치) 등의 옥중에서 비전향을 관철시켰던 일본공산당의 지도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어졌다. 예로 신일본문학회내 일부의 문학자들이 50년 11월에 『인민문학(人民文学)』을 발간하고 신일본문학회의 중진이었던 中野重治(나카노 시게하루)와 宮本百合子(미야모토유리코)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문학적 비판이라기보다는 '50년 문제'라 불리는 50년 초기 당내에서 발발한 격렬한 권력투쟁이시초가 된 당내 항쟁이 신일본문학내부에 파급된 현저한 사례라 생각해야할 것이다.

또한 자연주의리얼리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니시노는 후에「지치부곤민당」이 자연주의리얼리즘의 소설로 분류되었던 것에 불만을 느꼈다고 언급했지만(西野·矢作 1977: 14) 이러한 생각은 다른 멤버도 같았다. 즉 그들은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이 문학에 사회성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개척하고 있었지만 전시하의 좌익의 전면 붕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중단하게 되고, 전후에도 문학에 대한 정치 = 당의 우위성이 화근이 되어 거기에 관한 검토가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일의 중요성을 주장했다(西野·小原·窪田·金·霜多 1960; 霜多·小原·窪田·金·西野 1963).

이 점을 바탕으로 김달수가 리얼리즘연구회 결성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일반적으로 志質直哉(시가 나오야)에게 강한 영향을 받아 문학활동을 시작하고 자신의 체험과 가족·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와 제국주의적 지배에 대한 조선인 민중의 저항을 생애에 걸쳐 자연주의리얼리즘의 문체로 그려낸 소설가로 보여지고 있다.

(전략) 나는 『시가 나오야 집(志賀直哉集)』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작품들을 맹독했으며 권말에 수록된「창작여담(創作余談)」등도 반복적으로 읽으며 느낀 점은 시가 나오야는 대부분 전부라 해도 좋을 만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 작품으로 쓴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처음으로 일본의 전형적인 사소설(私小説)에 부닥친 셈이었지만 시가 나오야가 그렇다면 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우리 조 선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보자 라고.

#### …(중략)…

그것(시가의 소설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생활이 궁핍하지 않는 부르주아들뿐인데 가난한 조선사람인 내가 감동하는 것 - 인용자)은 왜일까. 거기에는 공통의 인간적 진실이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 진실은 서로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조선인,일본인이라는 국한되지 않는 그 어떤 이에게도 공통적인 것으로서이다. 그렇다, 나는 우리 조선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사람들의 인간적인 진실에 호소하는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金 1977: 169-170).

위의 글은 김달수의 문학적 출발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그의 문학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현해탄(玄海灘)」을 연재 중이었던 50년대 전반부터 시가문학으로 대표되는 일본근대문학의 관념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느끼기 시작하며, 자연주의리얼리즘을 대신할 새로운 리얼리즘을 탄생시키기 위해 문학적 투쟁을 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먼저 이 장편(『현해탄』 - 인용자)에서는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조선민족의 생활과 저항을 전면적으로 다루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으나 이 방법(주요 등장인물 두 사람의 시점을 서로 겹치게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방식 - 인용자)은 아무래도 "전면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서경태(西敬泰)" 한 사람이 아닌 또 한 사람의 "백성오(白省五)" 이 둘의 시점을 설정했지만 그러나 나·작자는 "전면적(全面的)"이라고 하기에는 이 두 가지의 시점, 이 두 사람의 시야에 비추어진 것들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 두 사람 외에 다양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여전히 이 두 사람의 시점과 시야로서만 파악하고 있다.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작지는 이 두 사람의 생활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첫 번째로 "저항(抵抗)"이라 할지라도 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권력 측의 내부까지 파고들어가 쓸 수가 없었다. "전면적" 혹은 전체적이라 함은 내가 거기까지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수동적인 상태로 끝이 난다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자연주의로부터 근본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현해탄』을 서둘러 끝내고 속편이라 할 수 있는 「태백산맥(太白山脈)」을 준비하면서 경계와 다원적 시점(多元的視点)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金 1958a: 21)

김달수는 자연주의리얼리즘 방식으로 쓴 자신의 소설의 한계가 조선민족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권력의 측"에 대하여 쓸 수 없었던 것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 권력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확실히 제시할 수 없다면 아무리 조선인의 생활과 저항의 모습을 그려낸다 해도 현실에 대한 수동적인 해석으로 그치고 말아, 적극적인 변혁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다원적 시점", 즉 자연주의리얼리즘을 대신하는 새로운 리얼리즘의 방법이, 피억압자의 측과 권력자 측의 양방을 조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그려내는 것으로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창출하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 김달수는 반공주의적인 한국인 청년과 경찰관등 권력측의 인간을 소설에 등장시키거나 서간체로 써 내려가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꾀했다. '50년 문제'사건에 휘말렸던체험을 소재로 한 연재소설「일본의 겨울(日本の冬)」(공산당기관지『아카하타(アカハタ)』1956)도 그 중 하나다. 이 소설은 공산당에서 제명된 신삼식(辛三植)이라는 재일조선인과 그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법무성특심국(法務省特審局)의 츠지이 츠기오(辻井次夫)가 파견한 야마키 케스케(八巻啓介)라는 두 사람의 시점을 통해 그려낸 것으로 두 사람의 시점이 서로 겹쳐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점은 「현해탄」과 같다. 그러나 야마기의 상사인츠지이가 동시에 공산당의 지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삼식의 상사로 나오는설정은 독특하다. 하지만 어느 소설도 주위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으며그는 자신의 문자가 마음에 걸려 문장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자

노이로제(文字/イローゼ)"(金 1957b)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한편 그는 전후 수년간의 경험에서 진보적이라 생각되는 일본지식인들 중에 조선어를 「그리고」과 같은 기본적인 접속사조차 없는 언어라고 생각한다든지, 중국과 조선 등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전후 부흥에 공감하면서 최종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쥐는 것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등, '대일본제국'시대의 제국주의자들과 다름없는 생각을 가진 '식민지적 인간(植民地的人間)'(金 1952)이 적지 않은 점과 재일조선인들중에서도 지금까지 전쟁 전과 전쟁 중의 '노예근성(奴隷根性)'을 극복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하고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 아니라, 타국의 침략과 지배를 꾀하는 제국주의국가와 그 지배자들에 의해 종용 당해진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단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는 일본인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식민지지배에 대한 가해자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먼저 조선인에 대해서 볼 때 삼식 자신을 포함해서 그들은 어제까지도 억압당했 던 식민지인이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아직 노예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 다.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일본인은 어느 쪽인가 하면 억압하는 측이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 역시 조선인 에 억압을 가했던 그 억압자들로부터 억압당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까지 공산주의와 완전히 정 반대인 군국주의·파시즘을 구사했던 것이었다.

노예근성과 파시즘의 구사 그것은 같은 맥락이다. 그것으로 인한 왜곡을 부정할 수는 없다.

…(중략)…

노예근성과 곧바로 직결되는 사대주의, 파시즘을 구사했던 정신 그대로의 권위주의·조평근성(助平根性)·신비주의·야로자대(夜郞自大)·관료주의 등등 그것들은 당이 비대해지는 것과 같이 그대로 부풀어 올랐던 것이다. 그 당이 하나의 작은 시련인, 국제비판에 의해 덜거럭거리며 무너졌다. 그것이 이번의 분열이다. (金 1957a: 219-220)

이러한 문학적 정치적 투쟁 끝에 김달수(1958a)는 "시점이란 문체의 문제 이다"라는 것을 느끼며 이것을 실마리로 「박달의 재판(朴達の裁判)」(『신일 본문학』1958)을 완성했다. 이 소설은 "남부조선K(南部朝鮮K)"라고 하는 가 공의 마을을 무대로 박달이라고 하는 조선인 청년 혼자서 펼치는 기묘한 정 치운동을 통해서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을 우의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박달 은 원래 대지주에게 고용된 배우지 못한 사용인에 지나지 않았으나 조선전 쟁 직전에 북조선의 빨치산으로 오해받아 체포를 당한다. 옥중에서 "정치· 사상범"과의 만남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출옥한 후 조선의 독립과 민족해방 을 위해서 투쟁하게 된다. 그러나 "남부조선"에서 공산주의적인 운동이 될 리가 없었으며 그는 금방 체포되어 버린다. 그러자 이번에는 울부짖으면서 용서를 청한다. 그리고 석방이 되자마자 "남부조선" 정부와 미군에 대한 비 판을 재개하며, 체포당하면 또 다시 "전향"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을 끊임없 이 반복한다. 이 때문에 그는 옥중의 "정치·사상범"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만 마을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정과 공감이 뒤 엉킨, 일종의 영웅적 존재가 되 어있었고 경찰이나 검찰청 안에서도 점차 그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생긴다. 오히려 그를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치안검사 김남철(金南徹)이 무슨 까닭인지 차츰 고립되어 간다. 이러한 황당무계하게 보이는 이야기는 자연주의리얼리즘과는 이질적인 옛날이야기를 하는 듯한 어조로 그러내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는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박달의 재판』은 전향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이 직접적인 모티브입니다. 박달은 끊임없이 전향을 하고 있지만 실은 전혀 전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혁명운동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권력자가 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 권력투쟁을 하더라도 차기권력의 좌에 앉지 않는 인간, 그러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경우 그에게 있어서는 전향도 아무것도 없다. 요컨대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다. 자신은 도리를 지킨다던가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랬어 인텔리 중에서도. 그렇

게 된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되면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지. 무엇이 전향인지 아닌지 그런 곤란에 빠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깨끗함이 권력에는 못 당하지요. (金·針生 1980: 194)

윗글은 「박달의 재판」 발표 후 약 20년 후의 발언이므로 사후적인 자기해석이 더해졌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 전향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권력과의 투쟁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은 집필 당시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박달은 김남식에게 끊임없이 곤혹감을 안기고 안달 나게 한다 - "그러나 김남철의 경우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이 남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이번만이 아니며, 그는 박달을 취조하면서 마지막에는 정해진 것처럼 자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정색을 하며 화를 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졌다"(金 1958b: 48) - 는 것은, 실로 박달의 내면을 간파하지 못하는일로부터 생긴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움 때문인 것이다.

「박달의 재판」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공복이문(公僕異聞)」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살피겠지만 어쨌던 간에 김달수는 이 소설에 문학을 정치 = 일본공산당으로부터 해방시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일본근대문학을 사소설에 체현시킨 자연주의리얼리즘에 의한 '왜곡'에서 해방 가능한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이 감촉을 확고히 하기 위해 문학자 친구들과 함께 문학적 연구를 쌓는다. 이것이 바로 그가 리얼리즘연구회 활동을 본격화시킨 요인이다.

# 4. 리얼리즘 연구회의 전개

57년 11월에 사적인 학습회로서 리얼리즘연구회를 결성했던 그들은, 58년 1월부터 『리얼리즘연구회 뉴스(リアリズム研究会ニュース)』라는 등사판 인쇄의 팜플렛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기관지인 『리얼리즘(リアリズム)』을 발행했다. 1호와 2호는 부정기적 간행이었지만 60년 1월 간행본인 3호부터는 계간으로 되었다. 하지만 6호부터 8호까지는 다시 부정기적으로 간행

되었다. 더불어 연구회의 규약도 2호까지 연구회의 그룹내적인 성격을 바꾸어 전국적인 문학운동체를 지향하는 쪽으로 수정된다. 전국 각지에 연구회지부를 만들고 지부를 통해서 문학적인 창조운동의 기운을 고조시키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전환 후 불과 2개월 정도 만에 관동을 중심으로 몇 곳에 지부가 결성되고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회원수도 4호 간행 때에는 200명 정도에 달했으며 4호는 4,300부가 인쇄될 정도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62년 5월 간행인 9호부터는 월간으로 간행함과 동시에 잡지제목도『현실과 문학(現実と文学)』으로 게재 후 발행처도 새로이 설립한 문학사로옮겼다. 그 후 65년 10월 50호로 종간할 때까지 이 체제로 운영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구회 설립 시 멤버 5명은 모두가 신일본문학회의 회원이며 김달수와 니시노는 연구회의 상임위원이었다. 또한 니시노·시모 타·오바라는 공산당 당원이었으며(구보타는 불명) 김달수는 조총련과 그산하 단체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사이에 김달수는 『조선』을 둘러싸고 조총련의 압력을 받고 있었지만, 당과 신일본문학회는 50년대 전반의 과격했던 폭력투쟁과 내부저항에 대한 자기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리얼리즘연구회가 결성된 당시에는 특별한 간섭은 없었다고한다(西野·矢作 1977: 14).

하지만 59년이 되면서 상황은 변한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신일본문학』 (59년 6월)에 게재된 竹內好(타케우치 요시미)의 제언이다. 타케우치는 46년 여름에 복원귀국(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군인 - 역자) 후 『신일본문학』을 몇 편인가를 읽었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동회의 "그 태도하며 자신의 일은 제쳐놓은 채 초월적인 단죄"를 한 것에 실망했다라는 에 피소드를 말하며, 현재도 동회에 대하여 그때 느낀 위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회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1959: 104-105)는 신 일본문학회는 지금의 프롤레타리아문학과의 계승관계를 결산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하며 동회는 '민주주의문학'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 "민주주의문학은 유파인 것인가, 스타일인 것인가, 방법인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 때문

에, "민주주의를 지항하는 문학자들의 집단이 되어야 할 단체가, 민주주의문학을 지향하는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과오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개조 내지는 해산을 제안했다. 그의 생각(1959: 105)은 "신일본문학회는 하나의 문학운동의 주체가 아니"고 "문학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회의 "조직형태는 유연한 연대조직으로써 적시 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하여 리얼리즘연구회의 멤버 각각은 연구회의 해산을 제외한 찬성하는 내용의 문장을 작성했다(西野 1959; 窪田 1959; 霜多 1959). 그리고 그들은 같은 해 11월 신일본문학회 제9회 대회에서 "신일본문학회는 문학자의 '통일전선체' = 에콜 그룹의 협의체이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田所 2000: 77). 이것은 그들도 타케우치와 같은 생각으로 신일본문학회는 "문학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회에서 정치적 패권을 쥐려 한다든가 궤멸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인민문학』과 인맥도 사상도 운영방침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인민문학』적인 파벌주의를 또 다시 신일본문학회에 들여오고자 하는 문학자들의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고 말았다. 실제로, 연구회 동인이었던 埴作楽(하니와 사라쿠)는 60년 여름에 원고를 의뢰했던 6명중 2명으로부터 리얼리즘연구회는 『인민문학』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집필을 할 수 없다라는 답신을 받았다는 것이다(塙 1960). 이러한 오해는 60년대 전후에는 약간의 신빙성을 가지고 유통되었던 것 같다.

게다가 당과 신일본문학회의 사이에도 59년 11월의 일미안전보장조약의 연장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국회로 진입한 사건을 둘러싸고 『신일본문학』이 학생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특집을 꾸민 것을 계기로 대립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리얼리즘연구회에서도 조약연장에 반대하는 운동을 둘러싼 총괄적 토의가 이루어졌으며(無署名 1960: 68), 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59년에서 61년에 걸쳐, 『아카하타』에 연구회 동인의 소설이 연이어 게재되고 더욱이 당이 『신일본문학』에 대항하려는듯, 61년 11월에 『문화평론(文化評論)』을 창간하자 거기에서도 시모타가 새

로운 연재를 개시하는 등, 공산당기관지에 연구회회원의 기용이 이어졌다. 또한 리얼리즘연구회의 기관지에서 62년 7월 11호를 마지막으로 『신일본문학』의 광고가 사라지는 한편, 『문화평론』의 광고는 9호부터 50호까지 계속적으로 게재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 일로 인하여 정치적 당파성으로 부터 문학운동을 자립시키고자 하는 연구회동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이 신일본문학회와 대립하고 당에 충성을 다하는 그룹이라는 인상이 무조건적으로 주위에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당초의 목표였던 자연주의리얼리즘을 대신할 새로운 리얼리즘확립을 향해 연구회의 활동을 진행시킬 수가 있었다면 김달수와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문학이론을 심화시키는 일도 연구회를 창조적인 문학운동체로서의 기능하게 하지도 못했다.

확실히 그들은 전후 일본의 문학운동을 총괄하는 좌담회에 활발하게 참가하는 등 자신들이 품었던 창작상의 문제점을 논하는 문장을 발표하며 또한 매월 잡지의 합평회를 열어 토의했다. 전국 각지의 독자조직의 수도 순조롭게 증가했고 64년 말에는 회원수가 1,000명을 넘었다. 이 회원 수를 토대로 동경에서 63년 10월과 64년 10월에 리얼리즘연구회 전국연구집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4권의 저작을 간행하고 리얼리즘문학상을 창설하는 등 신인발굴에도 힘썼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고 연구회내부에는 강경화·관료주의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김달수의 문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소설 「공복이문」(『현실과 문학』 1965)은 그 현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5. 「공복이문」을 둘러싸고

「공복이문」은 "나"라고 하는 김달수와 등신대의 주인공이 4~5년 정도 전부터 살고 있는 "동경도 N구 나카노쵸(東京都N区中野町)"에서 2년 반 정도전에 알게 된 "와다 지로타(和田次郎太)"라는 인물을 둘러싼 소설이다.

#### 380 국제고려학 16호

나카노쵸는, 동경도내 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오래된 무사시노(武蔵野 - 옛 지명)의 모습이 남아있는 지역이었다. 근래의 개발 붐으로 논밭이 주택지로 바뀌면서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 고장의 농민과 지주들은 땅값을 더 올리기 위해 구획정리를 한 뒤 반듯한 도로도 깔았지만 사람들과 자동차의 왕래로 도로는 금방 파손되고 우천 시에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이 지방의 의원들은 선거 이외에는 이 고장을 방문하는 일은 없었고 아무도 도로를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거기에 와다가 홀연히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오래된 자전거에 "공복(公僕) 와다 지로타"라는 기를 달고 거푸집과 삽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을 도로 보수 작업을 했다. "나"는 일과인 산책 중에 그를 만나 친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도로보수작업 을 계속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그는 그 옛날 공산당의 슬로건이었던 "보답 받을 일이 없는 인민들에 대한 헌신"의 자기 나름의 실천이라고 털어놓았다.

전후 얼마 되지 않아, 와다는 쿠키 켄이치(久木元一)라는 공산당원이 중심인 마을의 문화 동아리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는 쿠키의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인간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자신도 입당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당이 "보답 받을 일이 없는 인민들에 대한 헌신" 등의 슬로건을 걸고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민"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않는 것이 의문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입당하기전에 몇 명의 당원에게 그 점에 대해 질문을 했었지만 납득이 갈만한 대답은 듣지 못한 체 그러던 중 50년 문제가 발생해 입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말았다. 그는 그 후에도 잠시 동안 "보답 받을 일이 없는 인민들에 대한 헌신"이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했었지만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이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기분이 되고 말았다.

그런 때 그는 근무하고 있던 Q시의 시청에서 시의원들이 의제에 대하여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의 부서 과장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놀랐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그 지방의 의원이 되기 로 생각했다. 하지만 Q시는 지연과 혈연 등이 바둑판처럼 짜여있어 신참이 파고 들어갈 만한 여지가 없었다. 거기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내"가살고 있던 나카노쵸였다. 여기도 역시 혈연과 지연 등의 관계로 의회에 신참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은 Q시와 마찬가지였으나 대조적으로 주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선거권은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원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보답 받을 일이 없는 인민들에 대한 헌신"을 한다면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헌신은 보답 없는 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의원에 당선된다면 월급 10만 엔 이상의 고수입원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이렇게 "보답 받을 일이 없는 인민들의 헌신"에 대하여 계속 생각했던 와다는, 서로가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의회에도 무관심한 주민들을 통해서 헌신을 보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발판을 굳혔던 것이다. "나"는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변화를 "전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하여 판별할수는 없지만 그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에도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을 여기저기의 도로 등을 계속 수리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인기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차기 구의회선거철이 되자 그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다. "나"는 선거권이 없는 재일조선인이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모로 그를 응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보기 좋게 당선되어 "나"는 안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월급 10만엔 이상의 구 의회 의원이 된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일들이 거짓말 인양 낙담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그와의 만남을 끊었다.

그리고 또 다시 "나"는 일과인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공복 와다지로타"라고 쓰여진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 깃발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 자 그는 도로 옆 도랑의 시궁창 청소를 하면서 의원은 되었지만 역시 파손된 도로를 보면 그냥 둘 수가 없어 앞으로도 구 의회의 일이 없는 날에는 지금 처럼 도로정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대신에 뭔가를 새롭게 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음"하고 되새기며 그 자리에 계속 서있었다.

김달수에 의하면 이 소설은 예전에 전향을 옳고 그름의 이항적대립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상을 도출하고자 쓴 「박달의 재판」의 속편으로 구상 했던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이 소설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그것(권력자가 왜 부정적인 의견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 인용자)을 구조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즉 그 권력이란 "선택하기"와 "선택받기"의 관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라 여겼던 까닭이었던 것이다.

물론 현재 행하고 있는 "선거"라는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비근한 것이 아닌, 좀 더 다른,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의 그것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권력이라는 것이 그 "선택하기"와 "선택받기"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했을 때, 우리들은 그 "선택하기"와 "선택받기"라고 하는 관계 그 자체를 전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관계·구조가 바뀐다면, 그로 인해 "선택받는" 인간의 의식도 바뀌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것을 소설로 써 보자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부터 10년 정도 전에 쓴 중편 『공복이문』이었던 것이다. (金 1971: 14-15)

위의 설명은, 김달수가 와다를 박달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의를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한 기묘한 실천 활동을 통해서, 권력을 둘러싼 사회적 여러 관계의 변혁을 지향하는 인물로 그려 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복이문」은, 「박달의 재판」으로부터 크게 후퇴한 소설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먼저「박달의 재판」도 「공복이문」도 등장인물의 '전향'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박달의 전향은 "무엇이 전향인지 아닌지"를 권력 측의 사람들은 물론 그 지역의 사람들, 더하게는 독자들까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박달의 재판」에서는 박달이 왜 어떻게 이처럼 기묘한 전향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경위가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여기에 비해, 「공복이문」에서 와다의 '전향'이 설명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묵묵히 도로보수에 매진하는 와다의 진의가 「참된 공무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월급 10만 엔 이상의 고수입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기심을 감추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은 아닐까 라는 등장인물과 독 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역할밖에는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박달의 재판」에서는 박달에 의해 남부조선K의 실권을 잡고 있던 김남철이 궁지에 몰림으로 인해서, 그의 권력기반의 위태로움이 부각되어, 지배하는 측과 지배를 당하는 측의 관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혁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공복이문」에서의 와다의 존재는 N구의 구의회의원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선거제도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선택하기"와 "선택받기"의 관계기반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관계가 변할까 그렇지 않을까가 전적으로 당선 후도 도로보수에 힘을 다하는 와다의 마음가짐에 맡겨져 있다. 이것은 관계나 구조가 변한다면 "선택받는 (기)"인간의 의식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김달수의 생각과는 정반대이다.

실제로도「공복이문」은 겨우 문예평론가인 平野謙(히라노 켄)이(1965: 3), 정당이 관료주의적인 조직이 되어 버린 현실을 비판하고, 와다가 내건 슬로 건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암묵리에 혁신정당에 요구하는 점은 성공했다고 할 정도이며,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연구회의동인이나 일반회원의 평가도 대체로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현실과 문학』48호의「리얼리즘 통신(リアリズム通信)」난에,「본지의 발신(本誌への発信)」이란 항목이 만들어져(無署名 1965: 115),「공복이문」에 대한 두 사람의 감상문이 실려 있다. 그 중 한 사람은 호의적 평가를 하면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알 수가 없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한사람은 불만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리얼리즘』・『현실과 문학』을 통틀어 이러한 발신난이 만들어진 것은 이때뿐이었다. 편집부에는, 그 외에도 의견을 구하는 편지들이 도착해 이러한 이유로 니시노・오바라・시모타 3인이,「공복이문」에 관한 좌담회를 열었다.

그들은 앞서 각지의 독자연구회 등과 편집부에 도착한 의견을 정리한 후 「공복이문」의 내용과 창작방법에 대하여 검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많은 부분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후,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와다랑 김달수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명확히 한 후에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그리고 「공복이문」은 당을 비판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반동적이고 부당하며, 편집부는 책임을 지고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는 성급한 의견이야말로, 반동적이며 관료주의 그 자체가 아닌가 라며 개타했다.

오바라 …(전략)… 김달수든 누구든지 간에, 예를 들어 싫어하는 이가 썼다라고 해도 말이에요, 무작정 덤벼들 것이 아니라 불만은 불만으로 부정하고 싶으면 부정을 해도 괜찮은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적어도, 자신에 비추어 생각해보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금방 당을 비방한다고 하지. 작품내용의 객관적인 분석을 뛰어넘어 정치주의적인 공격을 가해오는 것은 곤란하죠.

…(중략)…

시모타 오바라군의 말처럼 이러한 비평이 바로 나올듯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김 군이 이 작품을 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 경향들은 나는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컨대 이것은 일종의 분파주의죠. 주관주의인 거지. 그것은 자본주의사회가 필연적으로 생성해내는 부르주아사상, 혹은 소 부르주아사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노동자의 사상을 익힐 수 있는가가, 계급적정당의 임무가 되겠지. (西野・小原・霜多 1965: 96-97)

이 좌담회에 관해서 김달수는 후에, "흥미로웠다. 결점이 되는 부분은 결점으로서 지적하면서, 옹호해야 할 부분에서는 옹호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생각된다"(金·矢作·塙·後藤 1979a: 23)라고 평가했지만,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론한다든지 자기변호를 한 문서는 특별히 찾아볼수 없으며, 소설의 작자로서는 대체적으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 연구회를 주도하고 운영해온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이소설을 계기로 현존화된 연구회내부의 관료주의적 경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6절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66년 5월 3-4일에 개최되었던 『민주문학(民主文学)』 제1회 전국지부대표자회의 발언을 실마리로 고찰할 것이다.

### 6. 문학자의 지도자의식

『민주문학』은 65년 12월에 창간된, 일본민주주의문학동맹이 운영하는 공산당계열의 문학잡지이다. 『현실과 문학』의 재정적자를 『민주문학』이 대변하는 형태로 흡수합병 되면서 65년 10월에 종간했기 때문에 『민주문학』은 계승지라 할 수 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연구회의 상황과 각 지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등이 보고 되고, 앞으로 『민주문학』을 본거지로 문학운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분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김달수는, 거기에서 의논 되고 있는 논재들이, 20년 전 자신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신일본문학회의 대 회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참가자들에게 만연해 있 는 무의식적인 대중멸시 = 지도자의식을 경고했다.

최근 우리들은 작품을 쓰는 것에 있어, '전 존재를 걸고'라는 말을 곧잘 사용합니다만, 그 모든 존재를 걸면서까지 과연 상대를 타인을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조금도 상처받는 일없이, 공식에만 기대고 잔재주만 부린다면, 결코 상대를 설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문학자가 있다면, 반드시 다름 아닌 문학으로 인해 복수당하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金 1966: 87)

그는, 안이한 공식에 기댄 도식적인 소설, 현실과 싸우고 있는 척하며 작자 자신은 조금도 싸우고 있지 않는 소설을,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서 감동했다라고 칭찬하는 "활동가적 문학자"가 적지 않은데 그들 중의 많은 이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 소설을, 자신은 조금도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민대중들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읽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쁜 지도자의식과, 그 반대로 우민사상을 가지고 문학을 하는 한, 그 사람은 타인을 설득하기는커녕 문학에 복수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견, 그의 이 발언은,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직에

#### 386 국제고려학 16호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 흔히 가질 수 있는 특권의식이나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워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려고 하는 당파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로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 발언을 문학경험이 많은 베테랑작가가 신인이나아마추어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겨울』에서 조선전쟁 발발 후 얼마 되지 않아, 주인공인 신삼식이 분파로 몰리면서 일방적으로 제명된 뒤, 그를 찾아온 어느 재일조선인당원에게 "앞으로 우리들은 조금은 스스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金 1957a: 97)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이것은 대략 이 시기의 김달수의생각과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우리들은 이 발언을, 미국제국주의와의 투쟁은 제처놓은 체 분파투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당원들을 얕보고 한 말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김달수는 불과 1년 정도 전에, 이른바 (여수·순천)사건을 알게 되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사고하지 않은 채 살아 왔는지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달수가 공산당에 입당 후 처음으로 발표한 소설 「반란군(叛乱軍)」에는 그를 모델로 한 추훈(秋薰)과 김달수의 친구인 張斗植(장두식)을 모델로 한 박인규(朴仁奎)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음과같이 그려내고 있다.

"…(전략)… 요컨대 인규,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소. …(중략)… 어쨌든 나는 지금 우리들의 독립과 혁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겠지."

라고 추훈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넌 열심히 싸웠어. 아니, 지금도 넌 열심히 싸우는 중요한 한 사람이지." "그런대 말이야 인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지?" "그건  $8\cdot 15$ 부터이지."

"그것이야, 그것인 것이야, 인규, 문제는. 그때부터 그때까지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추훈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아이처럼 울 것 같은 표정을 하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며 외쳤다. (金 1949: 89-90)

김달수(1954: 4)는 43-44년에 걸쳐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의 기자로 일했던 것을, 전후 통렬하게 자기비판을 하고 있지만,「일본의 겨울」의 신삼식이나「반란군」의 추훈의 발언의 근저에는, 김달수가 짊어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맥을 소거해버린다면, 신삼식의 "앞으로 우리들은 조금은 스스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은 별다른 점이 없는 염불이 되어 버린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문학동맹 대표자회의에서의 김달수의 발언에도 해당된다. 이것은 높은 견지에서 발단한 경고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그 자신 또한 리얼리즘연구회를 통해서, "문학 그 자체에 의해 복수를 당한"문학자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자기비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김달수는 후에 초기의 리얼리즘연구회는 동경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있었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이라는 것이 없고, 각지의 연구회가 횡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64년 3월에 열린 신일본문학회제11회 대회 이후, 조직이 변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金·矢作·塙·後藤 1979a: 8). 당과 신일본문학회의 대립이 연구회내부에까지 반입되어, 본격적으로 연구회가 당의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과 신일본문학회는 59년 말부터 대립관계였지만이 대회 한 달 전, 신일본문학회회장인武井照夫(타케이 테루오)가 일반활동보고초안「오늘날에 있어 문학운동의 과제와 방향(今日における文学運動の課題と方向)」을『신일본문학』에 발표했다. 이 안에 "일부 회원의 활동이 일본공산당과 그 기관지에 나타나는 바, 우리 문학운동에 대한 오해·곡해에기초한 비방·중상과 결부되어 있다"(武井 1964: 221) 라는, 문학회에 대한당의 간섭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2월 초순에서 3월말까지, 연일『아카하타』 지상에는 신일본문학회의 '분열주의자'에 맞서 투쟁을 호소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때 리얼리즘연구회의 멤버도 같은 기관지에 비판기사를 썼다. 또한 공산당계열의 문학 그룹은 대안을 내려는 이야기로 이어져, 니시노와 시모타 및 江口渙(에구치 칸)이 연맹해 문서를 작

성하고 대회당일에 배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일본문학회에서 규칙위반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 그들은 곧 제명당하거나, 스스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연구회내부에서는, 1,000명을 거느리는 단체로서, 점점 내부적인 연구회가 아닌, 전국적인 문학운동조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金·矢作·塙·後藤 1979a: 8). 이때 연구회에는 공산당에 당적을 둔 회원이 다수 있었으며, 그들은 독자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문학에 관한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까지도 독자적으로 논의하게 되어(金達寿·矢作·塙·後藤 1979a: 10-11), 그들로 인해 연구회전체가 당의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조직의 확대로 인하여 재정적자가악화되어 운영위원이 잡무에 쫓기게 된 것도 연구회 본래의 자세를 크게 왜곡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연구회는 문학운동으로서의 이론이나 창작방법의 문제를 의논하는 대중단체가 아닌 조직의 존속을 자기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책임이 김달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이 상황의 변화에 휘둘린 것이다. 그것은 니시노와 시모타 등 그 외의 연구 회창설멤버도 같았다. 그러나, 당시의 그들은 김달수만큼, 당의 지도아래서 문학운동이 중앙집권적으로 조직 되는 것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연구회내부의 그룹에서 민주주의문학동맹의 결성대회에 제출하기 위한 운동방침안 작성시,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宮本顕治(미야모토 켄지)가 수정을 명했을 때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의견을 내는 이 없이 따랐다고 한다. 그리고 대회에서 그 수정안을, 시모타가 「일본민주주의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日本民主主義文学の発展のために)」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물론 속사정을 공개하는 일없이 자주적으로 작성한 방침 안으로서 발표했던 것이다(이 에피소드에 관해서는 北村(1973)을 참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에 당원인지 아닌지는 불명하지만, 이 에피서드 로부터 엿볼 수 있듯이 당에 대한 이러한 충성을 한층 강하게 유지한 사람 은 쿠보타이다. 쿠보타는 83-99년까지 문학동맹의 의장직을 맡고 그 후에도 2004년에 타계할 때까지 문학동맹의 중심적인 존재였다. 그는 자전인 「문학 운동 속에서(文学運動のなかで)」(1978: 540-545)에서 문학동맹이 "민주주의 문학운동에 참가하는 많은 문학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결성된 것이라 강조하며, 당의 주도로 설립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니시노의 변절을 개탄했다.

시모타는 쿠보타와 다르게, 자전인「츄라카사(ちゅらかさ)」에서, 문학동 맹결성에 있어 당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모타 (2000: 638)는 양자의 관계는 "세상에서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라며 또한 "일본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이, 대중단체에서의 분획활동을 규약으로써 명기하고 있다. 공산당 뿐만이 아니라, 근대정당은 모두 대중단체로서의 당 활동 없이는 성립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학동맹의 간사나 상임간사의 대 부분이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룹회의의 결정이 그대로 문학동맹의 결정이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고 언급하며 "당의 대중단체에의 간섭, 운동의 '사물화(私物化)'를 이유로, 김달수와 니시노가 문학동맹을 탈퇴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점에서는 오바라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문학동맹의 상임간사(常任 幹事)의 선출방법에 의문을 느낀 고토 나오시라는 리얼리즘연구회 회원이, 현재의 상임간사체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비 당원을 넣어야 한다고 오바라에게 의견을 말했다가 오바라는 그에게 "이 바보 같은 녀석, 반공분 자", "네가 상임간사가 되고 싶은 것이야. 그런 역량도 없으면서 고위층이 되 고 싶은 것이야"라며 격노했다고 한다(金·矢作·塙·後藤 1979b: 6-7).

한편, 니시노는 반생기(半生記) 『전후 문학을 기억하는 책(戦後文学覚え書)』과 쿠보타를 향한 반론 「문학과 정치(文学と政治)」에서, 연구회해산으로부터 문학동맹설립에 있어, 당의 문화부장이었던蔵原惟人(쿠라하라 코래히토)가 힘쓴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金·矢作·塙·後藤 1979a: 12). 그러나 좌담회의 참가자들이 불만을 토로 하듯이 그 후에도 그(1971: 132-138) 는, 구체적으로 당 전체가 어떤 식으로 간섭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니시노는 현대문학연구회가 자연 소멸한 이후, 정치적이든 문학적이 든 어떠한 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서 문학활동을 이어갔다.

시모타는, 80년대 후반에 문학동맹과 당에서도 탈퇴하고 동인잡지 『아시가 (葦牙)』를 주도 하지만 이렇게 문학동맹이 결성되고 수년 뒤, 쿠보타·시모타·오바라는 당파적인 논리에 스스로의 문학활동이 묻혀 버렸고, 니시노는 역으로 조직적인 운동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여기에 비하여 김달수는 어떠했을까.

김달수가 문학연맹에 탈퇴서를 낸 것은 68년 6월 10일의 일이다(新日本文学会幹事会 1965: 13). 이미 65년 8월 31일에는 신일본문학회에 탈퇴서를 제출했으며(窪田 1997: 193), 문학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은 당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 후 그는 金嬉老(김희로)의 특별변호인과 잡지『일본 속의 조선문화(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편집 등의, 문학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 단계에서 새로운 문학운동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69년 7월 리얼리즘연구회의 동인이었던 하니와·야하기·고토와 모였을 때, 또다시 문학관계의 동인잡지를 시작하고자 했다(塙 1970: 21). 거기에서 그들은 10월에 현대문학연구회(現代文学研究会)를 시작하고, 기관지『현대와 문학(現代と文学)』창간준비호를 발행했다. 70년 1월부터는 동지를 격월간으로 발행했지만 곧, 문학동맹을 그만두고 현대문학연구회에 참가했던 당원들이 당과 문학동맹과의 관계를 또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金·矢作·塙·後藤 1979b: 9). 이 때문에, 현대문학연구회의 활동은 결국, 잡지를 4호까지 발간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후에 김달수가 문학운동과 관련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

이것을 보면, 실패는 했지만, 김달수는 문학동맹을 탈퇴한 후에도 문학운동을 한다면 공산당 등의 특정의 정치적 조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즘연구회처럼 "중앙"을 가지지 않으며 완만한 횡의 관계로 묶여있는 대중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쿠보타나시모타랑 니시노와도 다른 코스였던 것은 명백하지만 결국은 '정치와 문학'의 관계로부터 계속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김달수는 과연 이 책임이 당 측에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필자는 『일본의 겨울』에서 신삼식이 도달한 결론이, "조직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보다 더 인간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을 제시했지만, 여기서 그가 부딪혔던 것도 같은 문제였다. 김달수 쪽에서 보자면, 리얼리즘연구회로부터 현대문학연구회에 이르기까지, 문학운동은 당의 지도하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회원들도 또한, "파시즘의 구가(謳歌)"와 모순된 관계에 있는 자신 속의 "노예근성"을 자각조차 할 수 없는 "식민지적 인간"임에는 변함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공복이문」을, "'선택하기'・'선택받기'이라는 관계 자체"가 "변한다면, 이를 통해 '선택 받는(기)'인간의 의식도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말할 때, 연구회의 회원의 관계가 변화하여, 당의 체질을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엿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공복이문」은 그 의도가 적절히 반영이된 소설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이 소설의 실패는, 그가 "다원적 시점" - 「박달의 재판」에서 막 터득한 '수동적'인 종래의 자연주의리얼리즘을 넘어설 '능동적'인 새로운 리얼리즘 - 을 이념으로서는 몰라도, 실제로는 작자의 '일원적 시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밖에 제시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김달수가, 리얼리즘연구회에서 현대문학연구회에이르기까지 문학운동을, "다원적 시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역으로 조직의논리에 묻혀 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그는, 자신이 아직도 "식민지적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만 것이 아닐까. "문학 그자체에 복수 당하는"이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일 것이라 생각된다.

### 7. 나가며

문학운동을 통해서 현실의 변혁을 목표로 한 리얼리즘연구회의 야심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또한, 김달수가 "재일조선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있어 '조국'과 같은 것"이라 느끼고 있었던 조총련과의 관계도 악화의 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역경 속에 있어도, 리얼리즘연구회의 실패에서 배운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필자가 그 근거로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본고의 시 작 부분에서 언급한 그의 고대사연구이다. 후에 『일본 속의 조선문화』로 정 리되는 연재를 시작했을 때, 김달수는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시대가 변해도, 일본인의 의식은 여전히 '황국사관(皇国史観)'에 사로잡혀,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재를 시작하자 그는 자신이 '지도'할 것도 없이 이 미 일본각지에서 향토사학자와 역사애호가들이 비판의식을 가지고 고대사에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방침을 바꿔 오히려 자신이 그들을 따라서 문화유적과 사찰불각(社寺仏閣)을 탐방하게 되었다. 그의 연구가 민족의 차이를 넘어 많은 일본인에게 받아들여진 이유 중 하 나는, 그 자신이 언급하듯, 일본인의 연구를 사용함으로써 재일조선인인 그 가 자민족중심주의적 역사관을 날조하고 있다는 오해를 경계하고 전략적으 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가 유연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러한 태도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리얼리즘연구회와 같은 선례 는 결코 밝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그의 자기비판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우리 들은 여기에서, 문학운동에 의해서는 실현되지 않았던, 독자적인 "중앙"이 없는,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한 연대라고 하는, 연구회 발족 당시의 이념이 구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얼리 즘연구회는, 운동으로서는 실패로 끝났지만, 김달수의 문학활동과 고대사연 구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リアリズム』(1958-61),『現実と文学』(1962-65),『現代と文学』(1969-70)					
石母田正(1973)『日本古代国家論 第一部一官僚制と法の問題』,岩波書店.					
北村耕(1978)「神々」たちの館」,『新日本文学』,新日本文学会.					
金達寿(1949)「叛乱軍(下)」,『潮流』,彩流社.					
(1952)「しょくみんちてきにんげん」,『近代文学』,近代文学社.					
(1954)「責任ぼかす客観報道/新聞記者としての後悔」、『新聞協会報』、日本新聞協会.					
(1957a) 『日本の冬』,筑摩書房.					
(1957b)「文字ノイローゼ」,『2日』, 2日会.					
(1958a)「視点について -どうかくかの問題・ノオト」,『リアリズム』, リアリズム					
研究会.					
(1958b)「朴達の裁判」,『新日本文学』,新日本文学会.					
(1965)「公僕異聞」,『現実と文学』, 現実と文学社.					
(1966)「文学と指導者意識について」、『民主文学』、民主主義文学同盟.					
(1971)「権力というもの」、『展望』、筑摩書房.					
(1972)『日本の中の朝鮮文化』2,講談社.					
(1977)『わがアリランの歌』,中央公論社.					
(1998)『わが文学と生活』,青丘文化社.					
窪田精(1959)「一つの方策」,『リアリズム』, リアリズム研究会.					
(1978)『文学運動のなかで一戦後民主主義文学私記』,光和堂.					
(1997)「金達寿のこと」、『民主文学』、民主主義文学同盟.					
霜多正次(1959)「文学運動について」、『リアリズム』、リアリズム研究会)。					
(1993) 「ちゅらかさ -民主主義文学運動と私」、霜多正次全集刊行委員会(編)(2000)					
『霜多正次全集』5,沖積舎に収録.					
新日本文学会幹事会(1965)「声明日本民主主義文学同盟の結成について」、『新日本文学』、新					
日本文学会.					
武井昭夫(1964)「今日における文学運動の課題と方向 -新日本文学会第十一回大会への一					
般活動報告 草案」,『新日本文学』,新日本文学会.					
竹内好(1959)「新日本文学会への提案」,『新日本文学』,新日本文学会.					
西野辰吉(1959)「文学創造と組織問題 「新日本文学会」論」、『リアリズム』、リアリズム研					
究会.					
(1971)『戦後文学覚え書 -党をめぐる文学運動の批判と反省』,三一書房.					
(1978)「文学と政治 -そして歴史」、『季刊直』、「直」発行所.					

- 塙作楽(1960)「「私の報告」」、『リアリズム』、リアリズム研究会、
- (1970)「苛立ちと焦り」、『現代と文学』、現代文学研究会」
- 平野謙(1965)「今月の小説(下)」、『毎日新聞』夕刊、毎日新聞社、
- 廣瀬陽一(2014)「文学と指導者意識――リアリズム研究会をめぐって」、『人間社会学研究 集録』9号,大阪府立大学大学院人間社会学研究科.
- (2015) 「「在日コリアン文学」の始源としての金達寿文学 -その総合的研究」、 大阪府立大学大学院人間社会学研究科,博士学位論文
- 森浩一(1979)「無題」、矢作勝美・李進熙・後藤直『わがアリランの歌』を出した金達寿の会 (編)『『わがアリランの歌』を出した金達寿の会』, 非売品.
- 両野辰吉・小原元・窪田精・金達寿・霜多正次(1960) 「現実変革の思想と方法 -民丰丰義 文学運動の再検討」、『リアリズム』3-5、 リアリズム研究会.
- 霜多正次・小原元・窪田精・金達寿・西野辰吉(1963)「現実変革の思想と方法」、『現実と文 学』、現実と文学社
- 西野辰吉・小原元・霜多正次(1965)「「公僕異聞」について」、『現実と文学』、現実と文学社、
- 西野辰吉・矢作勝美(1977)「リアリズム研究会の生と死(1)」、『季刊直』、「直」発行所、
- 金達寿・矢作勝美・塙作楽・後藤直(1979a) 「リアリズム研究会の生と死(6)」、『季刊直』、 直の会。
- (1979b)「リアリズム研究会の生と死(最終回)」、『季刊直』、直の会
- 金達寿・針生一郎(1980)「反権力の個人史と創作活動」,新日本文学会(編)『作家との午後』, 毎日新聞社.
- 無署名(1960)「リアリズム研究会のおしらせ」、『リアリズム』、リアリズム研究会.
- 無署名(1965)「リアリズム通信 No.37 本誌への発言」、『現実と文学』、現実と文学社

#### Modern Places. Modern Minds

-Functions of Narrative Space in Yi Gwangsu's Novels-

Lyudmila Atanasova

하국외국어대학교

In the novels of Yi Gwangsu certain narrative spaces are used to introduce the reader to the modern novelties in the society, to present crucial changes in the worldview of the characters and to motivate actions that would be unacceptable in the context of the traditional values of the Korea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s in the functions of narrative space starting with Yi Gwangsu's earlier novels The Heartless (Mujeong)(1917) and Rebirth (Jaesaeng) (1924), and following through with the 1930s' representative work *The Warm-hearted* (Yujeong) (1933). The ways in which space is employed to further the plot and to promote values that are controversial show the advances in the author's thought, especially concerning his idea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Central to the analysis of narrative place is Michel Foucault's concept of *heterotopi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 1. Modernity and Space: Research Background and Methodology

Yi Gwangsu is one of the Korean intellectuals from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who met with enthusiasm the incoming wave of modernization. He made profound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process by educating Koreans about the new social realities. In his first novel The Heartless, considered by many the first modern novel of Korea, the lengthy digressions into the meaning of Christianity, the concept of romantic love, the rights of women, etc. make obvious his endeavors in that direction. His early editorials (1906-1916) are predominantly concerned with the problems of educating the young people of Joseon. Some of his articles are devoted to the modern type of family and to the issue of developing the Korean villag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entral to his attention is the individual. Yi Gwangsu's preoccupation with the individual crystallizes in his Minjokkejoron 1 (Yi 1922). There he asserts that the way to improve the society is to stop following false (old) virtues and to educate sincere individuals who put the interest of the country above everything else. This idea appears prominently in *The Heartless*. By 1933, when The Warm-hearted was published, the relationship has become a more complex one, with more emphasis being placed on the individual. Space in Yi Gwangsu's novels is utilized to explore the radically changing society and the individual's place in it.

Modernity is usually seen as a historical period, a period of time, mostly defined against the backdrop of previous eras through the differences it shows with them. In this study Modernity is mainly looked at as space.

<sup>1</sup> Minjokkejoron - Reforming the Nation.

The reason is that spaces/places that pertain to Modernity are found to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t has been common in Western<sup>2</sup> thought to associate modernization with time rather than with space.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though, it has also been perceived as a space phenomenon. The modern technological,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advances were adopted from outside, creating various types of interaction with the local social order.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among different social spaces has not been well researched. The focus has rather been on the mutual influence of separate elements of the spaces that co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In the case of Korea, modernization came partly directly from the West and partly through Japan. Koreans met the changes with mixed feelings, as the rapid transformations threatened the long-established order. The social relations that had existed for centuries and the traditional values that had held the society together were undermined by the new ideas and new ways of social organization coming from the West. Two different social and value systems came to compete for the same social space.

In some areas of social life and in certain geographical places, the new ways were adopted faster. Two parallel worlds came to exist. While most of the Koreans were hesitant to abandon the traditions, some of the people had a lifestyle similar to that in the European cities of the time. While many continued living in traditional Korean houses and wore

<sup>2</sup> Here and hereafter the terms 'West' and 'Western' refer to the countries of Western and Central Europe, Australia and North America, which have experienced the modernization of their societies as a process from within. Although, strictly speaking this is only true of Western Europe, the common roots, cultural closeness and the intense exchange with the European countries contributed to the immediate and natural adoption of the new model of social ordering by Australia and North America.

hanbok, others lived in new Western-style houses and wore Western clothes. While some had never seen a train, others were regularly riding on it during their travels in the country and abroad.

When the novels that are in the focus of this study were written, objects, vehicles, spaces pertaining to the Western "ways" were still considered rather exotic.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still perceived the modern spaces of the bank, the concert hall, the church as unfamiliar and intimidating.

In relation to traditional spaces, these newly emerged spaces can be viewed as what Foucault calls "heterotopias" (Foucault 1986). Introduced in his lecture Of Other Spaces, the concept of heterotopia has been widely used to describe and analyze spaces in different fields of research. Among the various places existing, Foucault is interested in "certain ones that have the curious property of being in relation with all the other sites, but in such a way as to suspect, neutralize, or invert the sets of relations that they happen to designate, mirror or reflect" (Foucault 1986: 24). He distinguishes between two types of such places: unreal (utopias) and real (heterotopias). Utopias "are sites that have a general relation of direct or inverted analogy with the real space of Society. They present society itself in a perfected form, or else society turned upside down..." (Foucault 1986: 24) Heterotopias are real places, "counter-sites" outside of other places, but they are in a close relationship of mirroring, reflecting and inverting with those places. Heterotopias not only passively reflect and mirror the rest of the places. The act of mirroring itself produces effect that influences the dynamics of the relationships inside those places. As examples of heterotopias, Foucault takes graveyards, libraries, the place of the honeymoon trip, prisons, etc.

Yi Gwangsu sets his novels mainly in the city, namely in Gyeongseong,

today's Seoul. In his early novels, most of the characters are modern people. They move around the busy streets, travel by tram, train or car, attend concerts, go to church, paint in a studio, do experiments in a laboratory. At times, the author breaks the story to describe at length these modern spaces, often contrasting them with their traditional counterparts and making comments on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social relations

# 2. Space and Identity. The Powerful Modern: Functions of Narrative Space in The Heartless and Rebirth

To illustrate the function of the spaces that pertain to the realm of the modern, I will take as an example the beginning of the novel *The Heartless*,

Hyeongsik is on his way to the house of Presbyter Kim who has asked him to teach English to his daughter. He is full of anticipation, but he is also rather nervous as he has not had much experience in interacting with young women.

"How should I greet her? As a man greeting another man? [...] I will be teaching her for a while. She will be my student. Shouldn't there be some distinction? Shouldn't she be the first one to extend a greeting? And only then I can answer."

Hyeongsik has been thinking about that since yesterday, when Presbyter Kim asked him to teach his daughter, but he has been unable to imagine the situation,

"Are we going to sit at a table facing each other? Then our breaths will be colliding with each other. At times, will her hair be brushing against my forehead?

Presbyter Kim has been to America. He is one of the richest men in the capital and lives in a big house. Hyeongsik is has never been to a place like that before.

He heard the voice of the maid, urging him to come in, and his heart started beating faster. He passed through the inner gate and entered the living room. In the past, it was unthinkable for a non-member of the family to ever go beyond the inner gate of a house, but the old habits had changed.

The windows in the living room were covered with glass panels. In the middle there was a table covered with a colorful piece of cloth and four or five chairs. In front of the north wall there was a bookcase, about the height of a man, with old and new books piled on the shelves.

(Yi 1974a: 17)

As someone who studied abroad and in his capacity of a pastor at of church, Presbyter Kim is a person who has emerged from the realm of the traditional and has been able to transfer to the realm of the modern. Entering the space of his house is a special event for Hyeongsik and even minor details make an impression on him. His perceptions are of a person who is encountering certain objects for the first time and can only see them in the context of his own existing map of reality. The windows are "glass panels". In traditional houses they are made of paper. There is a tablecloth on the table. Koreans used to leave tables uncovered. The chairs and the tall bookcase are attributes of a Western interior.

<sup>3</sup> All the translations from the original Korean texts are mine.

The interior of the room is modern, but the way Hyeongsik perceives it, invokes also the image of a traditional room. Presented through Hyeongsik's eyes, the living room of Presbyter Kim's house does not exist on its own, but only in an opposition to a room in a Korean house. All the objects and their relations have their counterparts in another space. As that "other" space is part of the traditional social ordering, the opposing relation between the two spaces provides also a time dimension to the room.

Relying on the character's perceptions to present and interpret the space pertains to the subjectivist approach of analysis.<sup>4</sup>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oom is not entirely dependent on the character to acquire its space and time coordinates, that is, its time and space properties do not exist only in Hyeongsik's mind but are objective reality. Even an objectivist approach would lead to the same results.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presence of the old books. Among the things in the room, the old books have a special meaning as they are the only objects that refer to a past rooted in tradition. They secure the time dimension of the space. They show that the inhabitants of the house have acquired the traditional learning first, and have later moved on to

<sup>4</sup> Bourdieu explains the two opposing approaches of social science – objectivist and subjectivist. "Speaking in the most general terms, social science, be it anthropology, sociology or history, oscillates between two seemingly incompatible points of view, two apparently irreconcilable perspectives: objectivism and subjectivism or, if you prefer, between physicalism and psychologism (which can take on various colorings, phenomenological, semiological, etc.). On the one hand, it can "treat social facts as things", according to the old Durkheimian precept, and thus leave out everything that they owe to the fact that they are objects of knowledge, of cognitions – or misrecognition – within social existence. On the other hand, it can reduce the social world to the representations that agents have of it, the task of social science consisting then an "account of the accounts" produced by social subjects" (Bourdieu 1989: 14-15).

attain Western education. The old and the new books point to a process of transition – from the traditional to the modern, from the past to the future. Without them, the room would have been frozen in the present. It could have belonged to a foreigner. As an objective entity, it would have been foreign to the Korean social environment.

The living room of Presbyter Kim is not an ordinary place. In contrast with the traditional living spaces, it acts as the "other" space. It puts the existing spaces in a new context. The social relations that it symbolizes highlight the old-established social relations and give them a new meaning. As a heterotopia, it mirrors its corresponding places, endows the relations that exist within them with different significance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changing of the social ordering of those places.

While Foucault's concept of heterotopia is instrumental in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spaces, it only indirectly explains the relations between spaces and individuals.

To shed more light on that problem, I will employ Arnold Van Gennep's anthropological inquiry into the meaning of the rites of passage (ceremonies on the occasions of coming of age, marriage, death, baptism) (Van Gennep 1977) and Victor Turner's analysis of the process of those rites (Turner 1969). The rites of passage signify moving from one realm to another and emerging with a different identity. The realms are usually not physical ones but generally the rites of passage include moving through physical space to illustrate the transition that occurs in another dimension. Van Gennep determines that the purpose of these rites is socialization. To acquire new social identity the individual has to go through a certain process. Turner distinguishes three phases of the

process of the ritual: separation, transition and reaggregation/reincorporation (Turner 1969: 80-81). During the first stage the individual leaves his social status. In many cases, as for instance the coming of age ritual in many native tribes in North America, the separation is physical and the person goes to a secluded place. In other cases, the severing of the connection with the previous self is symbolic, as the shaving of the hair of Buddhist monks during the initiation ceremony. The second phase is the one where transformation occurs. This stage is between the other two and is characterized with uncertainty and instability of the person's identity. It often involves testing of the powers of the individual and obstacles to be overcome. It is commonly called liminal stage (limen (Lat.) - threshold) as one can only cross into the other side if he/she succeeds in "stepping over" the symbolic threshold of the ordeal. The liminal stage is the most dynamic of the three. Compared to the other two stages, where the identity is established and belongs to a social system of order, the liminal phase is chaotic, out of control and insecure. Spatially, in relation to the other two stages it is marginal. In the final phase of the ritual, the person is reintegrated into the society with a new identity.

For Hyeongsik, entering the space of the room is equivalent to crossing into a different realm. The inner gate of the house serves as a crossing point. Before stepping inside, he is Hyeongsik, the English teacher, who is intimidated by women and is insecure in modern environment. When he comes out, his identity has changed. He is Hyeongsik, the tutor of the daughter of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own, who has frequent access to the modern space of Presbyter Kim's house and in that space is treated with respect. He is now one of the people who act in modern spaces, who belong to the realm of the modern.

In this case, the space of the house, during Hyeongsik's first visit is

a liminal space. From Hyeongsik's perspective it has insecure ordering. The very fact that he is allowed to go beyond the inner gate, tells him that the laws of his familiar spaces do not apply here. He has doubts even about the appropriate way to extend a greeting.

The spatial metaphor of moving not only physically, but also spiritually between different realms is enhanced by the fact that on his way to Presbyter Kim's house, Hyeongsik meets his friend Shin Useon, a journalist working for a local newspaper. Shin Useon moves freely in the modern circles of the society. He knows important people and is not intimidated by them. Hearing the news that Hyeongsik is on his way to visit the pretty daughter of Presbyter Kim, he jumps directly to the question when their engagement will be. The role of the journalist, in this case, could be interpreted as that of a messenger from the other realm

## 2.1. The Spaces of the Car and the *Train in The Heartless and Rebirth*

In the novels *The Heartless* and *Rebirth*, the spaces of the car and the train play an important role in advancing the plot and motivating crucial transformations in the value systems of the characters.

The car and the train are spaces that belong to the realm of modernity, but their mobility makes them different from the other modern spaces. There are no objects in the traditional society that correspond to them. They possess the ability to move through space with speed unseen in the past. Their dynamism makes them spaces of intense social processes. On the other hand, their lack of grounding in the tradition and their ability to conquer space endow them, to some extent, with metaphysical

properties that are morally charged.

In *Rebirth*, Kim Sunyeong, a smart and talented young girl blinded by luxury and wealth, becomes the mistress of a rich man.

Prior to getting into the car that takes her meet the wealthy gentleman, she is a confident young woman, who broke many suitors' hearts. However, the interior of the car shakes her value system and by the time she reaches the rich man's house, all she wants is to be part of the world of the "chosen few".

The driver confidently jumped out from his seat, looked discretely at Sunyeong, took off his hat and gestured to her to get in. For a moment, Sunyeong hesitated, but then, as if thinking: "What are you doing", she quickly assumed the air of a distinguished lady and lifting with one hand her dress, she got in and sat down. From the pressure of her weight, the springs in the seat moved up and down, making her body sway. Sunyeong liked the feeling. She examined the interior of the car, covered with expensive silk. She brushed her fingers against the window made of glass, as thick as a man's palm and as clear as crystal and the light grey curtain that was half covering it. She slid her white hand into the handle, hanging from the ceiling and looked at the white chrysanthemum tucked behind the wheel. And then, her face started turning red with excitement, and an unknown until this moment desire set her heart in colorful flames

For a few short moments, she sat in the car waiting for her brother – it really was just like a moment. An extremely short moment, it could have been three short minutes that were enough for her to forget all the moral lessons she had learned from Mrs.P at school during the last ten years. So big was the impression the car made on her.

Of course, this was not the first time Sunyeong had ridden in a car.

[···] But this [particular] car was a symbol of wealth. Among the infinite number of people, only a chosen few have ridden in it, and to her it seemed to be as high and as precious as the throne of a king or a queen. The moment

she sat in it, she owned it, it fitted her and for the first time in her life she felt important.

(Yi 1974c: 33)

A few years later, Sunyeong gets in a car with Shin Bonggu, a young man who has been in love with her since both of them were young and idealistic. Shin Bonggu has just come out of prison, where he had been sent for his involvemen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onggu believes that Sunyeong has been faithfully waiting for him and he is excited to go on a trip to a spa resort with her. By Sunyeong's request, Bonggu runs around in the streets of the city, trying to find a car to take them to the train station. When they finally get in the car, instead of the long-awaited happiness of being together, there is uneasiness and tension between them.

When they got off the car and entered the station, they had the feeling that they had been riding in the car for more than two hours. For a long time, they had not had the opportunity to be together, just the two of them, but even they found themselves unprepared for the complicated emotions that flooded them during the short fifteen minutes of the ride.

(Yi 1974c: 19)

In the two novels, cars only appear within the space of the city. As there are many alternative means of transportation – tram, rickshaw, even walking, the car becomes a symbol of wealth, as Yi Gwangsu, himself points out in the quote above.

The car is a small isolated space that moves independently around the city. The people riding in the car feel superior to the ones in the streets. They are empowered by the car's speed, size and disconnectedness from

#### 408 국제고려학 16호

the society. In Yi Gwangsu's novels cars are elitist objects.

They are endowed with negative connotations. In both examples above, cars seem to be spaces of moral transgression, temptation, greed and dishonesty. If, in Van Gennep's terms, they are analyzed as places of passage, it becomes clear that the new identities the characters acquire are judged in the context of the plot as negative ones.

At first, Sunyeong is hesitant and insecure about getting in the car, but then she decides to take on a false identity. Tempted by the power she feels inside the car, she chooses to break her values and to turn her back on everything she knows to be right, in order to be able to remain in that position of power.

Bonggu listens to Sunyeong and follows her wish to get a car to go to the train station, even though he knows that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finding a car at that time, getting on the tram could be faster. His desire to be with Sunyeong and to make her "his own" leads him to neglect the fact that he had already heard from his mother that Sunyeong is a mistress to a rich man. He does not want to believe that. By getting in the car with her, he also chooses to forego his values.

Both Sunyeong's life as a rich powerful woman and her relationship with Bonggu do not last long and come to a tragic end. The identities attained in the space of the car do not lead to development.

The car moves around the city in a chaotic manner. There is no single direction, no exact route to where it is going. Time inside it also seems to be in disarray. In the first example, it flows too fast, in the second – too slow. There are no time indications of historicity. Consequently, the processes occurring inside the space of the car have no future.

In *The Heartless*, Yeongche, after being physically assaulted decides to

put an end to her life. She heads to Pyeongyang, where she intends to throw herself in the waters of the Tedong river. Crying, Yeongche sticks her head out of the window to feel for the last time the wind, and some charcoal dust from the train gets in to her eyes. A young woman named Byeonguk insists on helping her. Byeonguk is a modern woman who studies music in Tokyo. After getting a clean towel and soap, she accompanies Yeongche to the sink and while "supporting her firmly", carefully washes the dust out of her eyes. Driven by curiosity, Byeonguk starts asking Yeongche questions and learns the tragic story of her life.

Byeonguk convinces Yeongche that she does need to die and gives her hope for new life.

As a result of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Yeongche realizes that she does not love Hyeongsik, who she has been looking for during the last seven years and for whom she had been saving her chastity. She had single-mindedly followed a remark made by her father in her childhood that Hyeongsik was to be her husband. Byeonguk remarks that for hundreds of years Confucius's idea of children having to obey their parents and wives follow their husbands has made countless people miserable. She convinces Yeongche that "women are people, too" and should be able to make their own choices. Yeongche sees an opportunity for new life in front of her.

A few months later, Yeongche and Byeonguk head together to Tokyo. Yeongche has also decided to study music there. On the train, they meet Hyeongsik and Seonhyeong who are going to America to study. Given the conflicting situations among the characters in the past, the encounter is rather delicate. On the way, the train stops because of a sudden flood in the area, they are passing through. The four characters are deeply moved by the suffering of the locals and forgetting all their differences

decide to organize a charity concert at the train station to help the people deal with the losses.

The narrator praises them and declares that these young people are the hope and the future of the nation.

The encounters on the train and the processes occurring there seem quite unreal, naïve and utopist.

The function of the train as a space is opposite to that of the car. The train constitutes a space in which many people are moving together in one direction. While the car is a space inhabited by individualists and elitists, the train is a place for people who are united by a common direction. The trajectory of the train is linear. Its movement forward is both in space and time. Consequently, the processes that occur in the space of the train have a future. The positive connotation of the train is in line with Yi Gwangsu's idea of modern individuals who devote themselves to the nation

As a place of passage, the train is a space of rebirth. The characters that emerge from the liminal space of the train are reborn for a better new life

In the case of Yeongche, the ritual of the careful washing of her eyes signifies clearing her from the physical stain of the assault and washing away all the misconceptions she had about the world and herself. For the four young people, the flood, too, serves a similar purpose.

The spaces of the car and the train are unique as it is hard to find spaces to which they are related as heterotopias. They do not seem to reflect the relations of other physical spaces, but as mentioned above, they do exhibit metaphysical properties. The ordering of the space of the train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a non-physical space - the space of utopia. In religious terms, it could be seen as symbolizing heaven, while the space of the car with its referenced to temptation and deceit is more reminiscent of hell.

## 3. Disillusions and Utopias: Functions of Space in *The Warm-hearted*

By the 1930s, the euphoria caused by the new Modern "ways" had settled, cooled by the closer acquaintance with the West and especially by the tightening of the Japanese Regime's grip on the Korean society. In *The Warm-hearted*, the spaces pertaining to Modernity are not featured in a special way and are not the assigned the role they play in the two earlier novels analyzed above.

The novel is centered around the forbidden love of a married middle-aged man and a young girl, whom he essentially raised as his foster daughter. The premises of the plot are controversial enough to raise issues even in today's "open-minded" societies. In this work, Yi Gwangsu attempts new narrative approaches: the story is mainly told through the letters and the diaries of the main characters. In contrast with his earlier works, the author's direct interference is not present. The actions of the characters appear to be removed from the forefront of the story as they do not occur in "real" narrative time, but are delayed and processed through the recollections of the central personas. Instead of action and dialog, what defines the characters are their words, put in writing, with their feelings being the main object of exploration and the source that creates the conflict for the plot to move forward. The main characters Choi Seok and Nam Jeongim appear in person at the end of the novel, before that they are veiled in mystery, with the only physical traces of them presented to the reader being sheets of paper. From the very beginning, the main narrative line seems to be removed from the physical reality: the reader is in touch not with the characters themselves, but with their words sounding like coming from beyond; and their feelings, not their actions, advance the plot.

The settings of the story vary greatly from Kyeongseong to Tokyo, Harbin, a lake in Manchuria, Baikal, Irkutsk. Kyeongseong is the point of origin and also the place which rejects the characters and from which they escape. The accusations of adultery that Choi Seok's wife makes public, lead to him being put in a position of disgrace. He decides to disappear from the country and from everyone he knows but before that he goes to see Nam Jeongim who is in a hospital in Tokyo. Despite the powerful feelings that threaten to start pouring out, the characters manage to contain their emotions. The space of the bustling westernized city is ruled by the same social ordering as the Joseon society. The author's disappointment and the critique of the Western values and transpire in the description of the hotel lobby. Choi Seok feel completely alone and alienated. He feels very different from the "Aryan men" (Yi 1974c: 47) who are all accompanied by Japanese or other Asian women. The only person he perceives as somewhat close to himself is an Indian gentlemen. The tone in these descriptions is very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two earlier novels. The characters in The Warm-hearted have become modern people. They are not in transition from traditional to modern individuals, as the characters in Yi Gwangsu's novels of the 1910s and the 1920s. But achieving the goal, that was greatly idealized in earlier, has not made them flawless happy beings living in a perfect society. Subdued criticism of the Joseon society appears over and over again, but it is not limited to it. Tokyo also does seem to be a space that is able to accommodate Choi Seok and provide him with comfort. In reality, the author does not pay much attention to any of these places. The place that is described in greatest detail is the Manchurian wilderness. Over and over, it is referred to as "unearthly". Its colors at night and during the day, its fresh transparent air, its peace are all qualities that remind of an unreal place, a realm close to heaven. Moreover, Choi Seok meets there a couple, whose story is strikingly similar to his and Jeongim's. The man and the woman, who were also victims of forbidden feelings, came to this remote place to find unity in death, but instead, the magic of the place helped them to discover new life. They found strength to stand against the world and created a family in this remote location.

The fact that the couple had their grave dug out and had even laid in it prepared to die, before the beauty of the surroundings made them "rise from the grave", suggests the motif of rebirth.

The peculiar narrative elements and the way spaces are treated in The Warm-hearte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wilderness in Manchuria acts as a heterotopia, or rather a utopia in relation to all the other places. The oppositions physical/metaphysical, real/unreal, here/beyond, earth/heaven appear on multi levels all throughout the work. The idealization of the unreal is in itself a critique of the social reality and a sign of desire to escape from it.

The individuals in this novel are not put in service of the society. They are trying to overcome it. This shows a reverse in the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society.

The vehicles brought about by the Modernization, which have important parts to play in the early novels, do not control the characters of *The Warm-hearted*. They serve the modern people to conquer the physical space and even move beyond the physical realm.

#### 4. Conclusion

The current comparative analysis of space as it is presented in Yi Gwangsu's early novels *The Heartless* and *Rebirth*, and in his 1933 novel *The Warm-hearted* has shown that in connection to Modernity, space has multiple meanings, with different spaces fulfilling specific functions.

In the 1910s and 1920s novels, spaces of Modernity act as heterotopias in relation to corresponding spaces in the traditional society and are thus able to give new meaning to the social processes existing within the traditional realm. In the 1930s novel, on the other hand, spaces pertaining to the Modern have not been featured as prominently, but the accent is rather on an idealized unreal utopic place, which serves to express disappointment with the existing social order.

A close connection exists between the described spac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haracters. In *The Heartless* and *Rebirth*, the spaces of the car and the train are found to possess qualities that differ from the rest of the modern spaces. On the one hand, their dynamism makes them the setting of crucial turns in the plot and of radical change in the characters. On the other hand, they are found to have metaphysical properties with the car referencing hell and the train – heaven. In *The Warm-hearted*, the characters are shown to be disconnected from the "real" social environment. Their strong feelings make them beings belonging to another realm, and ultimately do lead to their death (leaving the physical reality).

The symbolism of space in the two novels is in accordance with Yi Gwangsu's idea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The treatment of space shows the evolution of his thought. In his early years as a writer he believes in reforming the society through

educating individuals who are willing to put the nation above everything else. Later, the individual becomes of central importance, with the society presented as limiting to the range of human spirit.

#### References

Bourdieu, Pierre(1989) 'Social Space and Symbolic Power', Sociological Theory, Vol. 7, No.1. (Spring), pp.14-25.

Foucault, Michel (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 (1), Spring Issue, pp. 22-27.

Hetherington, K(1997) The Badlands of Modernity: Heterotopia and Social Order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Turner, Victor(1969) The Ritual Process. London: Penguin.

Van Gennep, Arnold(1977) Rites of Pass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Yi Gwangsu(1922) Minjokkejoron, in Gaebyeok, Issue 5.

Yi Gwangsu(1974a) Yi Gwangsu jeonchip, Vol.1. Seoul: Samjungdang.

Yi Gwangsu(1974b) Yi Gwangsu jeonchip, Vol.2. Seoul: Samjungdang.

Yi Gwangsu(1974c) Yi Gwangsu jeonchip, Vol.3. Seoul: Samjungdang

### 21세기 한민족(한겨레, 조선동포)공동체 형성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한국철학의 과제

**김방룡** 충남대학교

#### 1. 서론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남한과 북한(북조선) 그리고 재외한인 학자들이 한마음을 모아 민족통일과 한민족의 번영을 향한 지혜를 모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한민족(한겨례, 조선동포)은 1945년 해방과 분단을 맞이하기까지 1000여 년을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며 운명공동체로서 민족적 애환을 같이 해왔다. 그러나 지난 70년의 분단과정 속에서 불행히도우리는 민족의 가슴에 서로 총을 겨누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였고, 반목과 대립의 갈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생각해보면 36년 일제 식민지의경험은 '일제'라는 분명한 적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이에 함께 저항하였지만,분단 70년의 세월은 외세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단임에도 불구하고지구촌 이념분쟁의 첨병이 되어 같은 형제 사이에 정치적으로 조장된 적대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니 민족사적 차원에서 보면 일제시대보다 더 비극적이라 할 수도 있다.

'민족' 혹은 '민족주의'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 와 또 현 시기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남쪽 내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경우에 있어서 평화적

21세기 하민족(하겨레, 조선동포)공동체 형성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하 하국철학의 과제 417

인 방법에 의한 민족통일은 민족번영뿐만 아니라 인류평화를 위하여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이란 엄중한 역사적 과제 앞에 철학계와 종교계는 무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에 대한 문제이다.

21세기 남과 북을 포함한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서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가?', '인간에게는 도대체 보편적인 이성이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 또 '첨단과학의 발달과 물질문명의 진척이 과연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풍유하게 하였는가?',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사회주의의 인민민주주의 이념이 과연 우리 민족의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조차 품게 된다.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 정치ㆍ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를 보면서 세계 많은 지성들이 동아시아적 가치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남과 북의 정치적 분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정신사ㆍ철학사의 분단(단절)이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분단의 극복과정은 남과 북이 함께 단절된 민족의 얼과 정신을 복원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이제 근대 서구적 가치(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역사에서 벗어나 민족사상의 바탕 위에 서구적 가치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현 시기를 민족사의 관점에서 보면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을 일구어가는 시기'로 규정하고, '21세기 현재 남과 북을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의 필요성과 그 정체성의 한 기제로서 한국철학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2. 한민족(한겨레, 조선동포)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논자는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에서 정서적 민족주 의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철학계와 역사학계 및 정치학계 등에서 '민족'과 '민족통일'의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연구와 성찰을

#### 418 국제고려학 16호

해 온 학자들과는 달리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 할 수 있다. 다만 현 시기 한국철학의 중심과제가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한국불교철학의 전공자로서 '미래 통일국가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 가?' 하는 문제와 '그 철학적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는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갤러와 스미스 등 서구의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된 논의를 바탕으로 남쪽 내에서 다양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개 18, 19세기 유럽사회에서 민족국가가 생긴 이래 민족주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일례를 들면 앤서니 D. 스미스는 "민족주의란 '어느 인구 집단 구성원들의 일부가 그 집단이 실제적이거나 혹은 잠재적인 '민족'을 구성한다고 믿으며 그 자율성, 통합,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이다"(앤서니 D. 스미스, 강철구 옮김 2012: 25)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근대국가와 더불어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족'과 '민족주의'를 구별하자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기원을 고대나 중세의 시기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아닌 혈연과 언어 및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일반적 관념체계임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회학자 캘훈(Craig Calhoun)은 『민족주의(Nationalism)』(1997)에서 민족주의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민족주의가 단순한 정치교의를 넘어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함으로서 민족주의를 넓은 의미의 정체성이나 의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문석 2011: 61).

이와 같이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우선 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장문석은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민족**주의) 사이의 구분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동안 민족주의의 기원을 둘러싸고 벌이는 숱한 논쟁들이 모두똑같이 '민족주의'를 말하면서도 한편은 민족**주의**를 다른 한편은 **민족**주의를 뜻한 탓에 논쟁은 공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장문석 2011: 61)라고 말한다. 논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이하 **민족**주

의는 민족주의를 말함)'이다.

김의수는 민족주의는 '같은 혈통과 언어와 문화를 갖는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서로 힘을 합쳐 경제적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 는 이념'(김의수 2002: 12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박대재는 "객관적으로 언어 · 지역 · 혈연 · 문화 · 정치 · 경제 · 역사 등을 공동으로 하여 공고히 결 합되고, 그 기초 위에 한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공고하 게 결합된 인간공동체"라고 정의한다(김기승·김민호·이정주 외 2003: 17). '혈연과 언어와 문화' 등을 공통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오랜 역사를 같이해 온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공동의 번영과 인간 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서구사회의 근 대 민족주의에는 분명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요소가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제 36년과 분단 70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한민족(조선동 포)에 있어서는 분단을 극복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고, 또 그 중심에 '민족 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민족의 정체성이 다의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재 우리 민족이 민족주의를 포기한 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는 민족 정체성이 사라지고 마침내는 문화적 식민지의 한 주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하다.

일제시대 단재 신채호는 역사는 '我와 非我의 투쟁사'라고 말했다. 실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인간으로서 동물의 경계를 세우고, 또 황인종으로서 백인종 및 흑인종과 경계를 세우며,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하여 다른 민족과 국가와 경계를 세운다. 불교와 도가에서는 이러한 분별과 경계가 고통을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분별을 넘어선 不二의 세계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분별과 경계의 현실적 삶을 해체하라는 의미 보다는 분별과 경계의 현실적 삶 속에서 집착과 편견을 버려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바람직하다. 1000여 년 간¹을 단일민족국가로 살아온 한민족의 특수한 상황

을 감안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에게 '민족'은 구체적인 현실적 삶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 기제이다. 결국 '민족'과 '민족국가'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동안 '민족주의'가 남과 북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온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해체와 탈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담론들에는 인간적인 진실성과 긍정적인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를 해체하고서 또 다른 정체성을 세운다고 할 때 그만한 실효성이 있을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세계시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민족정체성을 포기한 상황 속에서 타 민족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 문화에 편입되어 종속된 제2 민족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할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민족주의적 여러 유형을 다 경험하였다. 즉 오랜 역사 동안 혈연과 언어 및 문화공동체로서 민족주의를 유지해왔으며, 또 동학혁명운동을 기치로 하여 서구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이념을 형성해왔다. 그런가 하면 남한의 경우 유신과 군사독재의 시절에는 극우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이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평등과 민주를 바탕으로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개방적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김의수 2002: 128-129). 본 논의는 바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이는 혈연공동체로서 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지명은 인간됨과 민족됨을 이항적 대립적 관계로 설명한다. 즉 현대사회 속에서 '민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역동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인데, 인간이 나약하여 민족 내에 안주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민족을 이탈하여야 인간됨을 찾을 수 있지만, 민족을 벗어나면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들이 민족에 안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up>1 &#</sup>x27;우리 민족이 단일민족국가를 언제부터 구성했는가?'하는 문제는 삼국시대 이후 역사를 통일 신라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발해와 신라의 남북국시대로 볼 것인가? 하는 역사인식과 관 런되어 있다. 논자는 이에 대하여 남북국시대로 바라보고 있다.

한 민족 되기란 개인들이 가지는 다양한 차이를 뛰어넘고 집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아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한 인간되기란 민족이라는 집단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확인하는 실존의 문제다. 따라서 민족이 된다는 것은 개인을 집단이라는 범주 속에 가두는 억압의 지점이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민족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개체성을 실현하는 해방의 지점이다. 이처럼 인간됨과 민족됨은 제로 섬(Zero-sum)의 대립적 관계로 읽힐 수 있다. (이지명 2008: 94)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가 모여 기관을 이루고, 또 여러 기관이 모여 하나 의 개체를 이룬다. 하나의 세포가 기관과 개체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인 간 또한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는 없다. 인류사회는 '국가'와 '민족'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형성되어 있고, 특히 우리 한민족은 오랜 세월 민족과 더불어 존재해왔다. '인간됨과 민족됨은 제로 섬의 대립적 관계로 읽힐 수 있다'는 이지명의 위의 주장은 민족을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로 여기는 데에서 출발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민족'이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됨을 말살하는 존 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지명이 말하고 있는 '민족'이란 일차적 으로 서구의 제국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한국사회의 역대 군사정권의 이데올 로기적 민족주의를 엮두에 두고 있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족주 의의 부정적 속성을 전제로 하여 민족주의 성격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민족'과 '인간됨'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민족통일과 민족문화의 복원을 통하여 인간됨이 실현하는 상보적 관계라 할 수 있다. 분단 체제에서 각각 분단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로서 유사 민족주의를 강요한 것이 문제이지, 민족주의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분단의 극복과정을 거쳐 이상적인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 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남한사회에는 '민족과 국가 가운데 어느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국가정체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민족'의 가치가 우선시되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의 등장 이후에는 '국가'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논의가 기세를 부리고 있다.

민족을 우선적 가치로 두는 사람들은 북한(북조선)을 민족의 동반자로 보고 통일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한다. 물론 구체적인 통일방안과 통일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김구의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우선적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70년의 분단과정에서 이질화된 현실에 안주하며 현재의 안정적인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소시민적인 생각과 더불어, 북한(북조선)을 민족의 동반자가 아닌 타자 내지 군사적 적 혹은 대치상태에 있는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과 북의 경제적인 상황을 전제하고서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통일을 가정하며, 통일을 위하여 감내하여야 할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승만의 건국정신에서 찾고 있다. 북한(북조선)의 상황 또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과 소련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 계를 조율하면 민족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는 많은 난제가 있기 마련이다. 본고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유보하고 자 한다. 다만 백낙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 시기를 '분단체제'로 정의하 고, 분단의 극복과정을 위한 노력을 범민족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한다. 백낙청이 주장하고 있듯이, 통일은 분단의 '체제'를 극복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분단체제가 세계체제의 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세계적 인 안목과 세계사적 안목을 가져야 하며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백낙청 1998: 169-170).

논자가 주장하는 것은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한민족(한겨례, 조선동 포)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이와 관련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지도 모르나, 민족통일에 대한 지 향을 염두에 두고 현 시기를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과도기적 시기로 규정 하여 남과 북의 일방적 입장에서 전개하는 것이 아닌 민족구성원의 진정한 화합과 유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민족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그 외연은 남한과 북한(북조선), 재외 한인은 물론 한민족(조선동 포)과 결혼한 외국인, 그리고 한국이나 북한(북조선)에 귀화한 외국인, 그리고 한국문화에 심취되어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지구촌 전체에 광범위한 한민족(한겨래, 조선동포)공동체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한민족 스스로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남과 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국가를 만들어나가는 작업과 병행하여야 하며, 타민족과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인류를 사랑하되,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것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탈민족주의와 국제주의(세계주의) 입장에서 비판이가능하다. 탈민족주의의 입장은 민족주의의 틀을 깨고 개인이나 계급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연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스탈린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 남한 내의 임지현이 민족담론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다. 임지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1세기의 민족주의 담론은 국가 권력이 설정한 경계를 넘나들면서 타자화된 '우리'와 '우리'화된 타자 간의 수평적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논리에 입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민중이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민중적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계화를 전유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지명 2008: 87. 재인용)

이러한 논의는 근대 '중심부-주변부 이론' 즉 선진과 후진을 나누어 바라보는 입장을 비판하고 개인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민족과 국가를 해체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우리민족의 현실에서 보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주의(세계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 등의 예를 통하여 민족주의에서 국제주의(세계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진보로 인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국제주의는 선진과 후진, 문명과 야만의 구조가 해체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문화의 중심에는 민족과 종교가 자리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타문화와 수평적으로 공존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민족의 분단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민족주의 혹은 국제주의(세계주의)에 대한 주장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민족국가를 만든 이후에 논의될 담론이지 적어도 민족통일의 역사적 당면과제를 염두에 둔다면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현재 남한 내에는 조선족과 탈북자 그리고 외국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에 의한 다문화가정 등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오랜 세월 단일민족으 로 살아온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다문화가 공존하는 방식이 서투르고,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배타와 차별이 심한 사 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민 족주의이며, 그 대안으로 다문화가 평등하게 공존한 다문화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분단국가의 현 실을 전제하지 않고 자칫 통일이 근본적인 과제가 아니라 남한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으로 확대하여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분명 해외동포에 대한 차별은 사라져야 하고 또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 인 문제는 분단극복과 통일민족국가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며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성숙한 의식 과 법적 사회적 장치들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단극복과 통일 민 족국가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다면 백낙청이 주장하는 '다민족 복합국가'가 한반도에서 건설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민족 복합국가의 효용 성에 대하여 백낙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지주적인 다민족 복합국가가 한반도에 건설됨으로써 전 세계 한민족의 궁지를 드높이고 현실적으로 든든한 뒷배가 됨은 물론이지만, 바로 그러한 성격의 국가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성립하고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재외 조선족의 생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며 다국적 한민족공동체가 세계 속에서 순탄하게 존속할 터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백낙청 1998: 195)

'한민족(한겨레, 조선동포)공동체'의 형성은 타민족과의 대결이나 타민족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타민족과 진정으로 공존하기 위하여 민족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내에서부터 타민족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모습을 보일 때, 재외 한인들 역시 그들이 속한 국가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이 전재되었을 때 분단극복과 진정한 민족통일의 길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 3. 민족정체성 확립과 한국철학의 과제

분단 70여 년의 세월은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민족고유의 전통과 철학은 주도적 위치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김교빈은 민족이나 민족의 존립 근거는 주체성이며, 민족 주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민족의 고유한 철학사상이라고 말한다. 또 민족의 고유한 철학이란 그 민족의 보편적 사유체계이며 그 속의 나름의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이 나오기 때문에 고유한 사유체계를 지니지 못한 민족은 더 이상 민족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잃게 된다고 말한다(김교빈 2000: 7-8).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철학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민족 고유의 정체성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정체성'이란 통시적으로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속에서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체성이 없는 민족은 유지될 수 없고, 설사 유지

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다. 또한 타민족과의 관계에서 열등민족으로 전략하여 피지배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역으로 민족정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민족우월주의를 조장하게 되면 독재나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면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입장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타민족과의 평등과 조화를 통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외세에 의한 우리 민족의 분단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낳았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체제제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정치체제로 나뉘게 되면서 전통철학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와 해석을 낳게되었다.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과 북을 아우르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민족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그 중심적인 역할은 남북한 철학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현재 남북한의 학술교류는 다양한 영역에서 진척되고 있다. 국어의 영역에서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사의 영역에서 고대사에 대한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공동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는 철학의 중요성이 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과 북 양측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엄중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남과 북 그리고 재외한인 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철학적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본격적인 작업은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그 시작으로 '국제고려학회 철학·종교분과'가 중심이 되어 주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 통일 민족국가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각 회별 토론 주제(가안)
- 1회 : '한국철학'의 정의
- 2회 : 전통철학에 대한 접근 방법론

- 3회 : 시기구분(예: 고대,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일제)

- 4회-9회 : 각 시기 별 당면 철학적 문제와 주요 사상가 및 대표적 쟁점

- 10회 : 현재 남·북 철학에 대한 현황과 비판

- 11회 : 통일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확립을 기본 원칙

- 12회 : 통일 민족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

#### 4. 결론

두려운 것은 분단의 세월 속에서 남과 북이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우리 민족 사이에 '다름'과 '차이'가 고착화 되어가고 민족 동질성이 와해되어 가고 있는 엄중한 현실이다. '같음'을 크게 생각하고(大同) '다름'을 작게 생각하여(小異)-민족 앞에 하나가 되면서도 서로 다른 차이를 껴안을 수 있는'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남과 북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민족학자들이 오늘 이렇게 '국제고려학회'의 장에서 서로 만나게 된 이유와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되자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우선 서로 모여 가슴을 열고 정(情)을 나누며, 또 서로 '다름'을 허심탄회하게 쏟아 내놓고 토론하다 보면, 분명 같이 걸어갈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는 분단국복과 민족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일이란 전제 아래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는 '한민족(한겨레, 조선동포)공동체'를 건설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그를 위해 민족주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철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통일 민족국가와 전지구촌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민족주체성을 정초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로 본 '국제고려학회 철학·종교분과'가 중심이되어 주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단행본으로 발간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대강의 일정을 예시해 보았다.

#### 참고문헌

- 김교빈(2000) 「우리 철학의 길」, 『동서철학연구』 제19호, 대전: 한국동서철학회.
- 김교빈(1994) 「북한철학계의 전통철학 연구 경향과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연구」, 『시대와 철학』 5권 2호, 서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김기승·김민호·이정주 외(2003) 『21세기에도 우리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울: 지 영사.
- 김방룡(2010) 「최봉익의 지눌관 및 혜심관을 통해 본 남북한 불교철학 사이의 소통 가능성고찰」,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13호, 서울: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 김방룡(2013)「다문화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 문제」,『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19권 1호, 서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 김성윤(1993) 「한국 민족주의 발전과 참민족주의의 실체」, 통일학술세미나 자료집, 『참민족주의에 의한 분단극복 방안』, 서울: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 김영작 엮음(2006) 『한국 내셔널리즘의 전개와 글로벌리즘』, 서울: 백산서당.
- 김영희·김동노·신명직 외(2009) 『민족과 국민, 정체성과 재구성』, 서울: 혜안.
- 김원일(2009) 「남북한 전통 유교 철학 연구들에 대한 계보학적 고찰」, 『시대와 철학』20권 3호, 서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김의수(2002) 「민족주의의 양면성과 한민족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지향의 생활세계를 위하여」, 『시대와 철학』 13권 1호, 서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김인중(2014) 『민족주의와 역사 -겔너와 스미스』, 서울: 아카넷
- 박이문(2002) 「철학은 끝났는가? -현대사회와 철학의 정체성-」, 한국철학연구회편, 『한국 철학의 정체성과 한국철학의 정립』,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 안현수(1996) 「민족주의와 통일문제」, 『시대와 철학』 7권 2호, 서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앤서니 D. 스미스, 강철구 옮김(2012)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용의숲.
- 양광식(1993) 「통일을 위한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향」, 통일학술세미나 자료집, 『참민 족주의에 의한 분단극복 방안』, 서울: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 열암기념사업회편(1988) 『박종홍전집 IV -한국사상사 1』, 서울: 민음사.
- 열암기념사업회편(1988)『박종홍전집 V -한국사상사 2』, 서울: 민음사.
- 윤사순·이광래(2001) 『우리 사상 100년』, 서울: 현암사.
- 윤인진(2009) 「한민족 이산(Diaspora)과 한민족공동체 형성방안」,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서울: 해안.
- 이기상(2002) 「한국의 해석학적 상황과 초월론적 자아 -현상학 · 실존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의 정립-」, 한국철학연구회편, 『한국철학의 정체성과 한국철학의 정립』, 서울: 철

학과현실사.

- 이병수(2009) 「고형곤과 박종홍의 전통철학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대와 철학』 20 권 2호, 서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이신철(2008) 『북한 민족주의 운동 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지명(2008) 『넘쳐나는 민족 사라지는 주체 -민족 담론의 공존을 위해』, 서울: 책세상.
- 이 훈(1994) 「북한철학의 흐름」, 『시대와 철학』 5권 2호, 서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임지현(2000)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 임형택·김재관 편(2001)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장벽을 넘어』,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장문석(2011) 『민족주의』, 서울: 책세상.
- 전미영(2003)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 통일이념의 모색」, 『국제정 치논총』 43집 1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 정경환(2009) 『민족주의 연구』, 서울: 이경.
- 정상모(2005) 『위기의 한민족, 평화민족주의로 넘는다』, 서울: 풀빛.
- 차남희(2012) 「주제사상과 민족주의 -북한사회 통치이념의 항상성과 변용성」, 『담론 201』 15권 4호, 서울: 한국사회역사학회.
- 최봉익(1986) 『조선철학사개요 -주체사상에 대한 『조선철학사』(1862)의 지양-』, 평양: 사회고학원출판사(1989, 서울: 한마당).
- 최창집(1996) 『한국 민족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 홍건영(1994) 「주체사상 체계 확립 이후의 북한철학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5권 2호, 서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한국전통사상 속에 나타난 관용의 정신

이병욱

고려대학교

#### 1. 서론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의 하나는 자신의 견해와 다른 쪽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대결구도를 벌인다는 점에 있다. 이는 정치의 측면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대결구도로 나타나고, 종교의 측면에서는 기독교와 전통종교의 대립구도로 등장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와결혼 이주자에 대한 편견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더 크게 한반도의 차원에서 보자면 남한과 북한의 대결구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결구도가 치열해지는 원인의 하나로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관용의 정신'이 부족한 점을 거론하고자 한다.

물론 앞에 거론한 한국사회의 문제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이겠지만, 그 가운데 문화적 요소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에 '관용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관용의 정신'이 부족한 것이 다른 문제와 얽히면서 결국 여러 측면에서 치열한 대결구도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의 정신'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방식과는 다른 것, 곧 다른 생각이나 행동방식을 묵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의 정신'을 좀 더 좁은 의미로 보자면, 한 국가 안에서 지배적인 종교 이외에 다른 것, 곧 다른 종교, 종파, 제식, 세계관이 묵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다른 각도에서 범위를 넓혀서 '관용의 정신'을

해석하면, 그것은 정치적 이념에 대한 관용,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다른 민족에 대한 관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서양에서 전개된 '관용의 역사'를 개관해 본다. 그리스시대와 로마시대에는 다신론이었으므로 폭넓은 관용이 존재하였고, 로마제국시대에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였을 경우에 그 민족의 종교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기독교의 경우에는 로마제국시대에 정치적인 차원에서 박해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자,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 탄압을 하였다.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의 공식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전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종교전쟁을 반성해서 '관용의 정신'이 다시 주장되기에 이르렀고, 그 대표적 이론가가 영국의 로크(John Locke, 1632-1704)와 프랑스의 볼테르(Voltaire, 1694-1788)라고 할 수 있다.

로크는 『관용에 관한 서한』에서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는 서로 다른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민적 이익을 보호하고 중진하기 위해서 형성한 사회이고, 교회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형성된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가 그 성원들에게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선동하거나 다른 이방의 군주에게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는 한, 모든 교회는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로크는 주장한다. 또 볼테르는 『관용론』에서 가톨릭의 광신에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복권하기 위해서 '이성의 빛'을 강조하였다.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과 종교의 부당한 권위를 비판하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학계에서는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면, 주로 서양에서 전개된 것을 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경향은 한국의 사상적 전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도 '관용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

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풍류도의 조화사상이고, 둘째 한국불교의 회통(會通)정신 또는 화쟁(和諍)사상이며, 셋째 조선조 후기 영조와 정조에 의한 탕평책의 실시인데, 다만 여기서는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영조의 탕평 책에만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풍류도의 조화사상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흥왕 37년에 화랑제도를 마련하였다. 처음에는 원화(源花)라고 하고, 2명의 여성을 대표로 뽑았는데, 이 2명의 여성이 서로 절투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귀인의 자제 가운데 남자를 뽑아서 대표로 삼고, 화랑(花郞)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화랑을 대표로 해서 모여서 도의(道義)로써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거워하며, 산수(山水)를 감상하고 즐기면서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의 삿된 점과 바른 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선한 사람을 택해서 조정에 천거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인용되어 있는데, 현명한 신해[賢佐]와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 화랑제도를 통해서 등장하고, 좋은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화랑제도를 통해서 생겨났다고 한다(『삼국사기』 4권, 진흥왕 37년).

『삼국사기』에 따르면, 풍류도는 화랑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풍류도는 화랑이 공부하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소개되어 있는 최치원의 「난 랑비서(鸞郎碑序)」에 따르면, 이 풍류도는 유교, 도교, 불교의 3교의 근원이되는 것이고, 여기에 3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풍류도의 정신은 서로 종교를 달리 한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내용을 포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관용이 싹트는 것이다.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말하였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이는] 3교를 시설하는 근원인데, [그 내용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풍류의 내용에는] 실제로 3교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많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

이다. 우선 [집에] 들어가서는 집안 어른에게 효도하고, [집을] 나와서는 나라에 충성을 한다. [이것은] 노나라 사구(司寇: 司法대신), 곧 공자의 가르침이다. 무위의 일에 처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이것은] 주나라 규사(圭史), 곧 노자의 가르침이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것은] 인도(竺乾)의 태자, 곧 석가 모니의 가르침이다(『삼국사기』 4권, 진흥왕 37년).

### 3. 한국불교의 회통사상

한국불교사상의 특징의 하나로서 회통(會通)불교, 줄여서 통(通)불교를 거론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학계에 있지만, 필자는 회통불교가한국불교사상의 특징의 하나라고 수용하는 쪽이다. 한국의 회통불교는 신라시대의 원효의 화쟁사상, 의상의 화엄사상, 고려시대의 대각국사 의천의 사상,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 조선시대의 함허득통의 3교조화론으로 이어진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원효(元曉, 617-686)는, 널리 알려진 대로, 화쟁사상을 주장해서 자신과다른 불교적 견해에 대해 조화하려고 추구하였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이문(一心二門: 일심을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는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이 '일심이문'으로 모든 불교이론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대승기신론』의 뜻을 펼치면무수히 많은 경론(經論)의 뜻과 통하고, 『대승기신론』의 뜻을 간추리면 '일심이문'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의 뜻을 무한정 펼쳐서전개하여도 아주 많은 경론의 뜻이 '일심이문'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번거롭지 않고, 여러 경론 중에서 간추려서 『대승기신론』에만 주목해도 '일심이문'에는 이미 여러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좁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론을 주장해도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냈다는 허물이 없고, 이론을 깨뜨려도 일방적으로 버리기만 하는 허물도 없다(이병욱 2008: 197-200).

그리고 원효의 저술 『법화종요』에서는 삼론종과 법상종의 다른 견해를 구체적으로 화해하고 있다. 삼론종에서는 『법화경』을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보고 있고, 법상종에서는 『법화경』을 불완전한 가르침이라고 보고 있다. 원효

#### 434 국제고려학 16호

는 이 둘의 견해를 각각 인정해주면서 궁극에는 삼론종의 입장이 옳고 법상 종의 입장이 옳지 않다고 정리한다. 그러면서도 삼론종의 주장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법상종의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는 것 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삼론종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도 법상종의 주장 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이병욱 2008: 200-209).

화엄종의 의상(義湘, 625-702)도 자신의 교판론에서 회통의 맥락을 보여 주고 있다. 의상은 일승원교(一乘圓敎)와 삼승별교(三乘別敎)의 중도를 말한 다. '일승원교'는 화엄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삼승별교'는 소승과 대승을 포함하는 일반적 불교의 가르침이다. 만약 화엄종의 입장에 선다면 화엄종 의 가르침이 다른 종파의 가르침에 비해 우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 반적 모습일 것이다. 그렇지만 의상은 그렇지 않고, 화엄종의 사상인 '일승원 교'가 다른 종파의 가르침인 '삼승별교'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 라는 중도의 입장을 주장한다. 또한 의상은 이것을 일즉일체(一即一切)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화엄의 사상인 '일승원교'가 하나(ㅡ)이고 일반적 불교의 가르침인 '삼승별교'는 일체(一切)에 속한다. 그렇다면 하나(一)의 '일승별교' 는 일체(一切)의 '삼승별교'에 녹아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삼승별교' 에 대해 그 의미를 인정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삼승별교'에도 '일승원교'의 의미가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다 각각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화엄사상이 자기독자 성을 유지하지만 그 화엄사상 속에 모든 불교사상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상도 화쟁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병욱 2008: 194).

그리고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은 원효를 다시 발견한 인물로 평가된다. 대각국사 의천은 천태종을 세웠는데, 그는 중국의 천태종을 세운 천태대사 지의(智顗)보다 오히려 원효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의천이 회통을 추구하는 것은 그의 저술「강원각경발사(講圓覺經發辭)」에 잘 나타난다. 이 문헌에서 의천은 선종과 교종을 일치시키고 있고, 그리고 교종 가운데에서 법상종, 법성종(화엄종), 반야종 등을 회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문헌의 다른 곳에서는 유교, 도교, 불교를 회통시키고 있다(이병욱 2006: 81-86).

보조국사 지눌(知訥)은 선종(禪宗)의 사상에 근거한 선종과 교종(敎宗)의일치, 곧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추구하고 있다. 그 방식은 두 가지다. 지눌의저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서는 종밀이 제시한 개념을 활용해서 선종과 교종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고, 또 다른 지눌의 저서 『원돈성불론』에서는 선종과 교종(화엄종)이 돈오점수(頓悟漸修)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다(이병욱 2010: 154-158).

이러한 흐름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거의 대부분의 불교사상가들이 유교 와 불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조선시대의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은 그의 저술『현정론』에서 유교와 도교와 불교의 3교조화를 주 장하였는데, 그 주장 속에서 불교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현정론』55-56). 함허득통의 저술로 가탁된『유석질의론』에서도 유교와 도교와 불교의 3교조 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 주장 속에서도 불교의 우위를 제시하고 있다(『유석 질의론』79). 이『유석질의론』의 내용은 앞의 함허득통의 저술인『현정론』 의 내용에 비해 더 사상적으로 치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허응당 보우(普 雨, ?-1565)는 유교와 불교의 일치를 넘어서서 유교의 언어를 통해서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이병욱 2010: 208-216).

이처럼, 한국불교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자신과 다른 불교적 견해나 종파에 대해 배척하기보다는 화해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우연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자신과 다른 불교 종파적 견 해에 대해 의미를 인정하고자 하는 '관용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나아가 다 른 종교까지도 포용하려는 '관용의 정신'이 간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4. 영조의 탕평책과 수양론

조선조 후기에 영조와 정조는 붕당을 타파한다는 탕평책(蕩平策)을 추구하였다. 당시 지식인들은 당쟁(黨爭)이 대체로 3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 436 국제고려학 16호

보았다. 처음에는 정치원칙에 대한 당파간의 의견 차이에서 싸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문벌과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마지막으로 원수 간의 생사를 건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탕평책의 목표는 이러한 복잡한 사회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 해결과정은 위에서 말한 3단계 순서를 거꾸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우선, 원수 간의 생사를 건 싸움을 중지하기 위해 누가 옳고 그른지 하는 시비(是非)논쟁을 금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문벌과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다시 조종하였다. 그래서 관직배분에 균형을 추구하는 인사탕평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원칙의 대립상태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절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앞의 두 단계는 영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세 번째 단계는 정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박광용 2000: 265-266).

영조와 정조가 추구한 탕평책은 당파가 다르다고 해도 인재를 발탁해서 등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당파에 의한 편견을 넘어서서 '관용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 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 4.1. 영조의 탕평책 실시

영조는 탕평(蕩平)을 하는 것은 공(公)이고, 붕당으로 나누어져 치우친 것은 사(私)라고 보고, 탕평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영조는 세자에게도 탕평을 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영조는 자신이 탕평을 제대로 이루어 내었다고 보지 않았다. 그리고 영조가 탕평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1728년(무신년)에 일어난 무신란(戊申亂)이라고 한다. 영조는 이 무신란이 일어난 원인이 붕당의 지나친 대결구도에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서 탕평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영조는 1724년에 즉위하면서 탕평(蕩平)을 하는 것은 공(公)이고, 붕당으로 나누어져 치우친 것은 사(私)라고 주장하고 있다.

탕평을 하는 것은 공(公)이고 당습(黨習)에 물드는 것인 사(私)이다. 여러 신하들은 공(公)을 실천하고자 하는가? 사(私)를 실천하고자 하는가? 비록 내가 덕은 부족하지만, 말은 충심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의견을 구하는 것을 빙자해서 [한쪽에] 기울어서 다투는 무리에게는 [내가] 변방에 귀양 보내는 법을 시행할 것이다. (『영조실록』, 영조 즉위년(1724) 1월 21일)

그래서 영조는 붕당에 관계없이 인재를 쓰고, 당습(黨習)에 관계된 인물을 천거하면 그 천거한 사람을 처벌해서 귀양을 보내겠다고 말한다.

지금의 이 처분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과거에 많은 신하가 개인적인 복수를 우선 시 하고 국사를 뒤로 하였고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말을 모두 장악하고, [신하가 임금을] 뵙기를 청하는 일을 제멋대로 막아서 마침내 임금을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내가 크게 쇄신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나는 다만 인재를 취해서 활용할 따름이다. 만약 [어떤 신하가] 당습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내 앞에 추천하면, [그 추천한 사람을] 마땅히 쫓아내고 귀양을 보내어 서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겠다. (『영조실록』, 영조3년(1727) 7월 4일)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붕당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세자를 훈계하면서 영조는 말하고 있 고 아울러 영조는 신하를 화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세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인용문은 다음의 2개이다.

내가 약을 조제하는 [듯이 탕평책을 실시하는] 것에 고심하는 것은 붕당이 반드시나라를 망하도록 할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이 천거되고 간사한 사람이 물러나는 것도 [나라의] 홍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너(세자)는 이 뜻을 체득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조실록』, 영조25년(1749) 2월 17일)

내가 하나의 정사와 하나의 명령에도 감히 마음을 놓고 하지 않고 [약재를] 조제 하듯이 [화합을 하는 데] 고심하였고, 그래서 머리와 수염이 거의 희어졌다. [그 결과 영조가 임금이 된 지] 25년 동안 서로 죽이는 일이 없었으니 너(세자)는 [이것을] 지키는 것을 금석처럼 하라. 임금이 신하를 활용하는 도(道)에서 보면, [신하를] 화합

해서 쓰는 것이 옳겠는가? [신하를] 분리해서 쓰는 것이 옳겠는가? 저 대부분의 신하의 조상을 미루어보면, 모두 혼인으로 맺어져서 서로 좋은 관계이다. 그런데 당론 (黨論)이 한번 제기되면, 초나라와 월나라의 관계(원수관계)처럼 되어 각기 서로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다. 내가 [약재를] 조제하듯이 화합하는 것을 고집한 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다. (『영조실록』, 영조25년(1749) 2월 16일)

한편, 영조는 자신이 탕평책을 실시해서 외형상으로는 붕당의 대립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붕당의 조짐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금일 조정에서는 겉으로는 붕당이 없는 것 같지만, 또한 [붕당의] 거점이 없다고 어떻게 확실하게 알겠는가? 나는 이미 늙었고, 여러 신하들도 늙었으니, 후일의 근심이라고 해서 어떻게 가볍게 보겠는가? (『영조실록』, 영조21년(1745) 9월 14일)

나아가 영조는 탕평책을 제대로 해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내가 즉위한 지 50년이 되었지만, 내세울 만한 사업을 한 것이 없다. 양역(良役) 의 문제와 준천(濬川)의 문제에서는 사업이라고 조금 말할 수 있겠지만, 탕평에서 어찌 해내었다고 말하겠는가? (『영조실록』, 영조49년(1773) 12월 20일)

그런데 영조가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게 된 계기는 무신란(戊申亂)이라고 한다. 이는 1728년(무신년)에 일어난 반란사건인데 이것을 무신란(戊申亂)이라고 부른다. 무신란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무장봉기였다. 현직관료를 포함한 문벌양반이 주도하였고, 집약농업과 유통경제에서 돈을 번 중간계층이 중간지도층의 역할을 하였으며, 각 지방의 행정실무자인 군관과 향임(鄕任: 지방자치단체인 향청의 임원)들이 반란군의 실무를 맡았다. 그리고 소상인, 소작인, 노비 같은 기층민은 행동대인 일반 군사로 적극 참여하였다.

이 무장봉기의 명분은 일차적으로는 경종이 영조에게 독살 당했다는 '경종독살설'에 있다. 소론 급진파와 남인 문내파를 포함하는 명문집안의 다수가 봉기군에 참여하거나 연루되었다. 무신난에 가담한 이사성(李思晟)은 당시 소론당의 최고지도자 이광좌의 제자이면서 현직 평안감사로서 정예군을

지휘한 뛰어난 장군이었다. 정희량(鄭希良)은 거창을 점령한 봉기군을 지휘하였는데, 정희량은 남인의 명문으로 정온(鄭蘊) 봉사손(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자손)의 아들이었다. 이인좌(李麟佐)는 청주를 점령한 봉기군을 지휘하였는데, 이인좌는 남인의 명문으로 윤휴(尹鐫)의 손녀사위였다. 이밖에도 조광조의 봉사손 조문보(趙文普), 장희빈의 친동생인 장희재(張希載)의 아들 장휘(張輝)도 무신란에 참여하였다.

또한 무신난의 봉기군은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인 군포와 여타의 세금을 감면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는 영세한 소작인이나 자기 토지가 없는 소작인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한 무신난의 봉기군은 전국적인 장시망(場市網: 시장의 조직)을 연결통로로 이용하였다. 아무튼 1728년의 무신란은 실패했지만, 이는 전국적인 봉기조직을 반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박광용 2000: 286-288).

영조는 무신란(戊申亂)의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조정에서 붕당을 일삼아서 자신의 당파의 사람을 추천하고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역적으로 몰린 사람 가운데 이름난 사대부와 세가(世家: 대대로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집안)의 대족(大族: 자손이 많고 세력이 있는 집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에 붕당의 대결로 인해 복수를 당한 경우이다. 둘째,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데도 조정에서는 붕당끼리 공격하는 것에 골몰하느라고 백성이 삶을 보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이 역적의 주장에 쉽게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영조는 이 반란의 배후에는 조정에서 서로 패가 나뉘어 싸운 붕당의 잘못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것(무신란)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정에서 다만 붕당으로 일삼고, 재능 있는 사람이 쓰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파로 추천한다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역적에 포함되어 국문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이름난 사대부와 세가(世家)의 대족(大族)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에 의한 것이겠는가? [이는] 붕당의 재앙이 만든 것이다. 이것은 붕당의 논의가 일으킨 것이다. 그 하나는 해마다 계속 기근이 들어서 백성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 백성을] 구제해서 살릴 길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붕당끼리 공격하는 것을 일

로 삼는 것이다. 불쌍한 우리 백성이 조정이 있는 줄 모르는 것이 오래되었구나. 그들이 무너져서 역적에게 의탁한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다. [그것은] 실로 조정의 잘 못이다. 이것도 붕당의 논의가 일으킨 것이다. 바로 이른바 첫째도 붕당[의 잘못]이고 둘째도 붕당[의 잘못]이다. (『영조실록』, 영조4년(1728) 3월 25일)

### 4.2. 영조의 수양론: 탕평을 추구하는 것은 수양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탕평을 하는 것은 공(公)이고, 당습(黨習)에 물드는 것은 사(私)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기수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탕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수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조는 공(公)을 따르는 것이 훌륭한 임금이 되는 길이고, 공(公)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욕(人欲)을 막아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자기수양'과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公)은 탕평을 하는 것이고, 사(私)는 붕당으로 나누어져 치우치는 것인데, 이 공(公)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수양이 필요하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치를 궁구해서 지(知)를 이루는 것은 공(公)으로 가는 길이고, 그렇지 못해서 절도 있는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이는 사(私)로가는 길이다.

순(舜)과 도척(盜蹠: 춘추전국시대의 도적)의 구분은 공(公)과 사(私)에 있을 뿐이다. 공(公)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리다. 사(私)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욕이다. 오! 비록 성인(聖人)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욕망이 없겠는가? 성인은 자연스럽게 절도 있는 생활에 맞아서 천리에 부합한다. 많은 사람은 절도 있는 생활을 지키지 못해서 인욕에 흐른다. 이것(천리와 인욕)을 구분하려면 이치를 궁구하고[窮理] 지를 이루는 젓[致知]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겠는가? (『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 내편(內篇)』, 『영조의 말』, 139)

그래서 영조는 천리, 곧 공(公)에 따르면 현명한 임금이 되고, 인욕(人欲), 곧 사(私)에 따르면 못난 임금이 된다고 세자에게 가르쳐준다. 영조의 말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公)을 추구하면 훌륭한 업적을 남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어찌되었든 간에 사(私)를 추구하면 좋은 업적을 남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천리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천리는] 나의 마음에 있다. 비록 천리가 높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힘써 실천하면 [천리와] 부합할 수 있고, 힘써 실천하지 않는다면 물욕에 가려질 것이다. 못난 임금과 현명한 임금의 구분은 다만 천리와 인욕[을 따르고], 공과 사[를 따르는 것]의 구분에 있을 따름이니, 어찌 너(세자)도 [이러한 점을] 모르겠는가? (『영조실록』, 영조25년(1749) 2월 17일)

영조는 인욕(人欲)을 막는 방법으로서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제시한다.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자면, 인욕을 막기위해서는 자신을 적당히 합리화하지 말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며,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마주치는 욕망의 파도에 대해서는 제어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연(本然)의 성품의 착함(性蓄)은 하늘에서 품부받은 것인데, 이 선(善)을 확충하면 성인도 될 수 있고 현인도 될 수 있다. 공부를 할 때에 인욕을 막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 내편(內篇)』, 『영조의 말』, 137)

그리고 영조는 사(私)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천리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사(私)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조는 어떤 사람의말이 옳고 그 행위가 선한 것이라고 해도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私)에 속한다고 본다. 만약 이것을 붕당의 대결정치에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말이 옳고 행위가 선한 것이라도 그 말과 행위가 결국자신의 붕당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공(公)이 되지 못하고 사(私)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영조는 상당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사(私)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다만 물욕(物欲)을 가리키는 것이겠는가? 비록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옳고, 행위하는 것이 선하다고 해도, 그것(말하는 것과 행위하는 것)이 [천리가 아닌 무엇을] 위해서 말한 것이고, [천리가 아닌 무엇을] 위해서 행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사(私)이다. (『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 내편(內篇)』,『영조의 말』, 135)

나아가 영조는 학문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학문을 한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붕당의 다툼을 제거하며 검소함을 숭상하고 정신을 단련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현대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자신을 단련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학문, 곧 인문학을 성심껏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성품은 하늘에서 품부받은 것인데 성인에서 한 등급을 내려오면, 각기 기질의 치우침이 있다. 이것(기질의 치우침)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하늘을 공경하려고 해도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면 [하늘을] 공경할 길이 없다. 조상을 본받으려고 해도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면 [조상을] 본받을 길이 없다. 친척과 가깝게 지내려고 해도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면 [친척과] 가깝게 지낼 길이 없다. 백성을 사랑하려고 해도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면 [백성을] 사랑할 길이 없다. 붕당의 다툼을 제거하려고 해도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면 [붕당의 다툼을] 제거할 길이 없다. 검소함을 숭상하려고 해도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면 [경소함을] 숭상할 길이 없다. 정신을 단련하려고 해도 학문이 아니면 [정신을] 단련할 길이 없다. 지금 나는 학문을 권하는 것으로 최종의 도리로 삼을 것이다. (「어제상훈(御製常訓)」, 『영조의 말』, 147)

# 5.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서 전개된 '관용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2장에서는 풍류도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풍류도가 유교, 도

교, 불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교라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포용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풍류도의 정신을 보자면,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한국불교의 특징의 하나로서 회통(會通)불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효는 화쟁(和諍)을 주장하였고, 의상은 화엄의 가르침인 '일승원교'와일반의 불교를 의미하는 '삼승별교'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하는데, 이는 또 다른 각도에서 화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화엄사상 속에도 일반의 불교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화엄이의 다른 가르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활동한 대각국사 의천은 선종과 교종을 회통하고, 나아가 교종의 여러 종파를 회통하고, 유교와 도교와 불교를 회통하고 있다. 보조국사지눌은 의천보다는 사상적 규모가 줄어들어서, 선종과 교종의 회통을 말하는 데 그친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도교와 불교의 회통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과 저술은 함허득통의 『현정론』이고, 또 함허득통에 가탁된 『유석질의론』이다. 이처럼 한국불교에서는 불교의 다른 종파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유교와 도교와 불교의 회통을 말하고 있는 점은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영조의 탕평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조는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고, 탕평을 하는 것이 '공'이고 붕당으로 나누어져 치우친 것은 '사'라고 한다. 이처럼 영조가 탕평책을 강조한 것은 1728년 무신년에 일어난 무신란(戊申亂)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무신란'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무장봉기였다. 그런데 이 무장봉기가 일반백성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은 조정에서 자신의 당파의 사람만 등용하고 인재를 등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의 삶을 보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영조는 진단한다. 그리고 앞에서 탕평을 하는 것은 '공'이고, 붕당으로 나누어져 치우친 것은 '사'라고 하였는데, 이 '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욕(人欲)을 제어하는 자기수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조는 이 '공'을 이루기 위해서 학문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오늘날의

인문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인문학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자기수양의 측면을 포함하는 인문학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문학이라고 해도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인문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문학과 구분되는 것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학을 영조가 강조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영조의 탕평책은 정치적 소신이 다른 인물이더라도 등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관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과제를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치의 측면에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관용', 종교의 측면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관용',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치열한 대결구도를 완화하고 제거하는 데에 한국사회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서도 '정치적 이념에 대한 관용'(영조의 탕평책)과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풍류도와 한국불교의 회통사상)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다른 민족에 대한 관용'은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서 찾기 어려운데, 이는 '정치적 신념에 대한 관용',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에서 자연히 유추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과 정치적 신념이 다른 인재를 등용하고, 자신과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을 용인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용의 정신'이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 깃들어있지만, 일제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그러한 '관용의 정신'은 한반도에서 거의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관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서양의 철학과 사상에서 그 근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서 그 대안을 구하고자 하는 쪽에 서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 전통사상 속의 '관용의 정신'을 이 한반도에서 다시 세울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이 아니면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어렵다할지라도다시 '관용의 정신'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관용의

정신'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영조의 말처럼, 학문, 곧 자기 수양을 전제로 하는 '인문학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이한반도에서 '관용의 정신'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도 이 '인문학의 정신'이 엷어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관용의 정신'과 '인문학 정신'은 그 궤도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용의 정신'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멀어져간 '인문학의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부식(1983/1992) 『삼국사기(상)』, 이병도 역주, 서울: 을유문화사

함허(1988) 『현정론』, 김달진 역, 서울: 동국대 역경원, 현대불교신서 63.

함허(1984) 『유석질의론』, 송재운 역, 서울: 동국대 역경원, 현대불교신서51.

박광용(1998/2000) 『영조와 정조의 나라』, 서울: 푸른역사.

영조(2014) 『영조의 말』, 강현규 엮음, 박승원 옮김, 서울: 소울메이트.

유동식(1997)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연세대출판부.

- 이도흠(2000/2001)『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서울: 푸른역사.
- 이병욱(2010)『한국불교사상의 전개』, 서울: 집문당.
- 이병욱(2006)「고려시대 개경에서 활동한 천태사상가」,『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8호,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 이병욱(2008) 「원효의 화쟁사상을 통한 남북한 사상의 조화」,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 문집』11호,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 하승우(2003/2007) 『희망의 사회윤리 똘레랑스』, 서울: 첵세상.
- 홍세화(1995)『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홍세화(1999/2000)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 Suffering, Evil, and the Emotions

-A Joseon Debate between Neo-Confucianism and Buddhism-

Eric Nelson 홍콩과기대학

### 1. Introduction

This essay will offer a reassessment of the moral psychologic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the debates between Buddhism and Neo-Confucianism that occurred during the decisive period of the end of the Goryeo (高麗) dynasty and formation of the early Joseon (朝鮮) dynasty.¹ The debates and decisions of this epoch resulted in the hegemonic dominance of Neo-Confucianism and the marginalization of Buddhism that had previously been a state religion in Korea,²

<sup>1</sup> I would like to thank Halla Kim and Jin Y. Park for their encouragement and opportunity to present this work in public. Note that in this essay, I rely on Charles Muller's online versions of his edition and translation of the two texts under discussion. They are available online at: http://www.acmuller.net/index.html. They are published in: A. Charles Muller, Korea's Great Buddhist-Confucian Debate: The Treatises of Chong Tojon (Sambong) and Hamho Tuktong (Kihw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5).

<sup>2</sup> On the decline of Korean Buddhism, see James Huntley Grayson, *Korea: A Religious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2), 184. Buddhism was marginalized among the political and scholarly elites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has seen a remarkable revival since its demise. On the modern renewal of Korean Buddhism, see the essays in Jin Y.

I examine in this paper how texts such as the *Array of Critiques against Buddhism (Bulssi Japbyeon* 佛氏雜辨) of the politician and Confucian thinker Jeong Dojeon (鄭道傳, penname Sambong 삼봉, 三峰; 1342- 1398) and *The Exposition of the Correct (Hyeonjeong non* 顯正論) by the Sŏn (C. Chan 禪) Buddhist monk Gihwa (기화, 己和; Hamheo Deuktong 涵虚得通; 1376-1433) offe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project of self-cultivation in relation to established forms of social relationships, the moral psychology of the emotions, and the problems of evil and suffering.<sup>3</sup>

Drawing on earlier Neo-Confucian critiques of Buddhism, Jeong argued that Buddhism is an intrinsically flawed way of life insofar as it undermines proper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hierarchies, ignores natural human emotions and their appropriate cultivation in achieving the ethical personhood of the exemplary person (*C. junzi*, *K. kunja* 君子), and relies on superstitious and speculative ideas such as the ideas of rebirth and karma to explain human suffering and install fear among the masses. Buddhism appears in both its vulgar karmic and elite antinomian manifestations to be contrary to the natural tendencies of things and humans, as Jeong envisioned—based on the Sino-Korean interpretation of Mengzi (孟子) and the *Yijing* (易經)—the cosmos to be a natural-ethical whole that is enacted and reenacted in cultivated forms of ritual life that

Park, *Makers of Modern Korean Buddhis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0).

<sup>3</sup> Despite English-language translations being available online, there has been surprisingly little discussion of these important texts. Previous English-language accounts of the debate include: Yeon-sik Choi, "To survive as a Buddhist Monk in a Confucian State: Gihwa's Response to Jeong Do-jeon's Critique of Buddhism," *Korea Journal* 47 (2007): 104-133; Charles Muller, "The Centerpiece of the Goryeo-Joseon Buddhist-Confucian Confrontation: A Comparison of the Positions of the Bulssi japbyeon and the Hyeonjeong non." 韓國佛教學 9 (2003): 23-46.

personally and socially follow, cultivate, and perfect the natural rhythms, seasonality, and temporality (C. *shi*, K. *si* 時) of life.

Gihwa belonged to the Imje Sŏn (臨齊禪) lineage that promoted *hwadu* ("critical phrase" 話頭) *kong'an* (公安) meditation. Gihwa's response to Neo-Confucian critiques of Buddhism does not reject or polemicize against Confucianism as such. Confucianism s encompassed as a valuable moral perspective within a broader more comprehensive Buddhist whole. Gihwa articulated how Buddhism is capable of developing and incorporating multiple and diverse practices, methods, and forms of thought and feeling through "skillful means" (C. *fangbian*, K. *pangp'yŏn* 方便) that differentiate and address various levels and ways of understanding in order to promote awakening in diverse settings. The two authors' divergent understandings of "moral psychology" and models of self-cultivation inform how they evaluate the respective merits and failures of Confucian and Buddhist projects as socially embodied practices that presuppose and rework the emotions in improving or perfecting the self.

While Jeong focused on the incommensurability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Gihwa denied that Buddhism is a position vis-à-vis Confucianism. It is a transformative way that can incorporate and transcend positions, including its own position. In eclectically or pluralistically recognizing the unity of the three teachings (C. sanjiao, K. samkyo 三教) of Buddhism, Confucianism, and Daoism, Buddhism reveals itself to be more than one teaching or perspective. It can both recognize the natural moral sensibilities presupposed in Confucianism and provide ways of realizing Confucianism's own project of becoming a sage (C. shengren, K. sŏngin 聖人) as a spontaneous and responsive ethical condition.

# 2. Intercultural and Interasian Philosophy

Intercultural philosophy is increasingly perceived as a necessary task for philosophy.

This task is typically interpreted to broaden and open philosophy in a way that still presupposes Western philosophy to set the standard of what counts as philosophy. It is the normative model according to which other philosophies are judged and evaluated.

The word "philosophy" has a Greek origin and a "Western"—and often underemphasized Middle Eastern—history, only being introduced into East Asia through its encounter with the west. Still, the matter to be thought that it names has a broader intention than Western intellectual history or the Western history of metaphysics. The history of Buddhist thought in East Asia, for instance, provides multiple examples of the prospects and risks of philosophizing across cultural differences.

It is sometimes argues that the west is transcultural and multicultural in a way that other cultures and civilizations are not. We might ask: has there and can there be transcultural thinking in East Asia? For example, we might consider the encounters, confrontations, and adaptations between Buddhist and Confucian philosophie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into East Asian cultures.

Confucian thinkers often regarded Buddhism with suspicion as an alien tradition introduced from South and Central Asia. Buddhists in China, Korea, Japan, and Vietnam—but especially in China and Korea where Neo-Confucianism became a dominant ideological force—were forced to justify or excuse the legitimacy of taking up a form of life and thought adopted from the "West": South and Central Asia. One strategy was to Sinicize the Buddha into a Chinese sage by claiming he was Laozi after he left China.

Other Buddhist thinkers decentering the center: Another strategy was to deemphasize notions of "center," "East" and "West", barbarian and non-barbarian. This strategy, along with the argument for the inner harmony of the three teachings of Buddhism, Confucianism, and Daoism occurs in The Exposition of the Correct (Hyeonjeong non 顯正論) of the Sŏn Buddhist monk Gihwa (己和, 1376-1433) whose personal name was Hamheo Deuktong (涵虛得通).

Jeong Dojeon 鄭道傳 was a leading Confucian intellectual and political figure of the late Goryeo (고려, 高麗) and early Joseon (朝鮮) period. As the author of Array of Critiques against Buddhism (Bulssi Japbyeon 佛氏 雜辨), he is considered a merely ideological, political, and repressive figure by his Buddhist critics. Yet he remains popular in Confucian and Korean historically-oriented popular traditions, after being vilified for a long time by the Joseon dynasty that he helped found, even appearing on Korean TV in a historical drama series devoted to his life.

Gihwa did not have a television series made about his life, though there is one about his teacher Muhak Jacho (無學自超; 1327-1405). In the context of critiques such as his Array of Critiques against Buddhism, Gihwa remarked:

"East' and 'West' are nothing more than names that are applied to this or that place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re is no such thing as occupying the center and determining East and West" (Gihwa, HBJ 7,223b15).

East, West, and Center are conditional orientations rather than absolute positions. Merleau-Ponty said of philosophy: "Its center is everywhere, its circumference nowhere."4

<sup>4</sup> Maurice Merleau-Ponty, Sign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128.

It would be anachronistic to identify Gihwa's statements with current debates about multiculturalism or identity politics, yet they do indicate a kind of transcultural thinking that cannot be limited by national origin or character. Gihwa's argument concerns the judgments about the other's way based on tribal origin. He remarked:

If we do not respect the Way of the Buddha because he is a barbarian, shall we also not respect the Ways of Shun, who was born among the Eastern tribes, and King Wen, who was born among the Western tribes? Can we disparage a person's Way just on the basis of their being foreign? [It should be based on] the results of their works and the Way which governed their behavior (Gihwa, HBJ 7,223b15).

Sino-Korean debates between Neo-Confucianism and Buddhism often involved the foreignness of Buddhism and its appropriateness in China and East Asia. Jeong Dojeon cites two scholars referring to the Buddha as a barbarian. Yet his main argument does not rest on the foreignness of the Buddha. Jeong turned the Buddhist universalist claim around against itself when he claimed that the Buddha's foreignness cannot excuse the Buddha's flawed understanding of humanity and his inadequate practice of benevolence:

Although the Buddha was a foreigner, he was still a human being. So how could he alone lack this heart-mind? (Jeong, 80c).

Jeong belonged to the activist-reformist tradition of Confucianism that appealed to Mengzi's ethico-political "people-centered" (C. *minben*, K. *minbon* 民本) insights strongly rooted in an account of nurturing and activating the goodness inherent in human nature.<sup>5</sup> The heart-mind that

is identified with the four sprouts of human nature by Mengzi appears to be lacking in the Buddha's teaching. The Buddha's practice of benevolence is imperfect in its disregard for our emotional connections with those who should be closest to us. Jeong's critique centers on the universality of the heart-mind (C. xin, K. sim 心) in the nature of all humans rather than the foreignness of the teaching as such, since even foreigners have the sprout of compassion articulated by Mengzi as leading to the attunement of benevolence.

The *Array* of Jeong Dojeon and *The Exposition* of Gihwa need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early Joseon politics and the ideological consolidation of Neo-Confucianism and the declining political fortunes of Buddhism. We also see, however, genuine argumentation that should be considered philosophical in that it addresses issues of ontology, cosmology, and—in particular—ethics and moral psychology. There is intellectual content to this dispute between these different interpretations concerning human nature and the cosmos and how best to live and flourish amidst the changing phases—interpreted through the five elements or phases (C. wuxin, K. ohaeng 五行), yinyang (K. ŭmyang 陰陽) theory, the Yijing, and so forth—or interconnected interdependent karmic nexus of life.

# 3. Suffering, Evil, and the Emotions

Questions of the causes and conditions for evil and suffering have been posed across multiple philosophical and religious traditions. We might ask in the context of these two texts: Why do suffering and evil

<sup>5</sup> See Sung-hwan Yi, A Topography of Confucian Discourse: Politico-Philosophical Reflections on Confucian Discourse since Modernity (Paramus, NJ: Homa Sekey Books, 2005), 79,

befall persons and sentient beings in the way that they do? Is it karma or the mediation of virtue and destiny described in the Sino-Korean tradition through paradigmatic works such as the Yijing?

The role of the emotions and "moral psychology" are key elements in cultivating an appropriate way of life in both Confucianism and Buddhism, even as they dispute their nature, role, and scope. We can consequently pose the questions: Are emotions intrinsically moral or "good" such that they need cultivation into a proper form of life that is emotionally balanced and responsive to the natural and human orders and their hierarchies? Or should the emotions be unfolded in response to karmic conditioning into unlimited compassion for all sentient beings?

The problems of "evil" and suffering play significant roles in Sino-Korean debates between Neo-Confucianism and Buddhism. We can well inquire: Is there a problem of evil in East Asian thought that has the same function or is parallel to the role of theodicy ("God's justice") in Western thought?6 There are questions in these two texts of how and why suffering happens and whether suffering is connected with moral virtue and vice, merit and fault. Each author raised the problem of suffering in response to the other tradition. According to Jeong, Buddhist karma is an inadequate explanation of suffering. Buddhism blames the victims for things outside of their control and power through the doctrine of karma, and is cruel in its understanding of karmic fate and hells.<sup>7</sup> For Gihwa, however,

<sup>6</sup> On the problem of evil outside Western philosophy, compare Franklin Perkins, *Heaven* and Earth Are Not Humane: The Problem of Evil in Classical Chinese Philosoph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4).

<sup>7</sup> Jeong critiques the popular understanding of karma without considering more sophisticated accounts that are precisely concerned with issues such as complicity and suffering. Compare the discussion of karma in: Eric S. Nelson, "Questioning Karma, Buddhism and the Phenomenology of the Ethical," *Journal of Buddhist Ethics: Revisioning Karma*, 2005:

Confucianism lacks an adequate sense of the suffering and interconnectedness of sentient beings. He strongly emphasizes the problem of animal suffering, which he argues is repressed in Confucianism, in describing his own conversion from Confucianism to Buddhism as a more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teaching.

#### 4. The Trouble with Buddhism

Drawing on earlier Sino-Korean "school of principle" (C. lixue, K. lihak 理學) Neo-Confucian critiques of Buddhism, particularly Zhu Xi 朱熹, Jeong Dojeon argued that Buddhism is an intrinsically flawed way of life insofar as it undermines proper natural and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appropriate hierarchies, ignores natural emotions and their appropriate cultivation in achieving the ethical personhood of the exemplary person, manipulates the people through fear through its images of hells and karmic retribution, and relies on superstitious and speculative ideas in its popular forms such as rebirth, transmigration, and karma, while its elite forms are antinomian, nihilistic, and involve arbitrary personal excesses.

Jeong maintained that Buddhism is inadequate to the real problems of suffering it aims to overcome. His argument can be reconstructed using vocabulary from Western accounts of the problem of evil. In Jeong's interpretation of Buddhism, "physical evil" is suffering and "moral evil" is due to the lack of merit producing activities and lack of faith. The consequences of this lack are karmic retribution, including numerous hell regions and rebirth. The explanation is the "metaphysical evil" of karma.

<sup>353-373;</sup> Eric S. Nelson, "The Complicity of the Ethical: Causality, Karma, and Violence in Buddhism and Levinas." Leah Kalmanson, Frank Garrett and Sarah Mattice, Levinas and Asian Thought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2013), 99-114.

The problem with karma is that it blames and punishes those who are not responsible, since they have been karmically conditioned, and it threatens excessive punishment that creates a deficient moral psychology based in fear and anxiety. Thus, he gives the example that the criminal should be cained rather than threatened with being sent to hell. Hell does not exist, and even if it does exist there is—according to Confucianism in this case—no constant self that endures past this life to go to hell. Jeong employs a Confucian notion of a relational and temporally finite self to reject the fiction of a self that continues over multiple lifetimes.

Based in the Confucian understanding of the emotions in moral life, Jeong argues that Buddhism undermines appropriate moral emotions (such as morally based disgust, contempt, disdain, etc.) while creating excessive emotions in the general population (such as fear and resentment) and in its elite practitioners (such as arbitrariness). Fong employs an argumentative strategy similar to Western critics of religious belief, such as Hume and Nietzsche's arguments about the moral psychology of punishment in religion, and draws on his interpretation of the moral psychology of taste in Mengzi in offering the following anecdote to support his case that Buddhism distorts ethical taste and judgment by utilizing fear and anxiety rather than resolving them in the balanced heart-mind:

<sup>8</sup> On the significance of the emotions and negative emotions in Confucian moral psychology, see Eric S. Nelson, "Resentment in Western and Confucian Philosophy," in Jeanne Riou and Mary Gallagher, ed., *Re-thinking Ressentiment: On the Limits of Criticism and the Limits of its Critics*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16); Eric S. Nelson, "Recognition and Resentment in the Confucian Analects."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41, 2, 2013, 287-306; and Eric S. Nelson, "The Question of Resentment in Nietzsche and Confucian Ethics." *Taiw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0, No. 1 (Issue 19), June 2013: 17-51,

A monk asked, "If there were no hell, what could be used to frighten people from doing evil?" I said, "the liking of goodness and the dislike of evil seen in the exemplary person, is like 'liking an attractive color, and disliking a repugnant odor," —they arise from within oneself and there is no contrived intent that brings these feelings out. Once one has an evil reputation, then his/her mind is filled with shame. Contrary to the punitive appeal to supernatural destiny, if one receives a public caning, why does he or she need the teaching of hell in order to not behave in an evil manner?" (Jeong, 82a).

## 5. On Responding to Misfortune

Buddhism is, in both its "popular" fear-based karmic and "elite" antinomian manifestations, contrary to natural ethical and moral psychological tendencies in Jeong's naturalistically oriented critique. Jeong envisioned the cosmos instead as a natural-ethical whole that is enacted and reenacted in cultivated forms of ritual life in the individual and community. Suffering and evil are due to departing from the fabric of virtue and destiny. They are due to excess and deficiency in the changing character of things and persons, as described in the *Yijing* and traditional works on *yinyang* and the five phases.

Imbalance and suffering in life are unavailable and call for a proper emotional response so that one remains unafflicted and ethically motivated even in the midst of misfortune. Jeong's depiction of Confucianism on suffering can be reconstructed in the following terms: "Physical evil" is suffering and "moral evil" is the lack of virtue and appropriateness. The consequences of moral evil are personal and social imbalances that perpetuate and heighten suffering. The explanation for this cycle lies in the changing patterns of vital forces.

The virtuous tend to be more fortunate because of their moral psychology,

yet there is no underlying or absolute correlation of virtue and misfortune. The problem then cannot be resolved by advocating karma. Instead of blaming individuals for bad karma, one should adopt to the changing world. That is, the exemplary person is not excessive in fortune or misfortune. Fortune and misfortune are largely contingent beyond one's own sphere of virtue. One can only adopt oneself to the situation as one does to the changing of the seasons. Confucianism cultivates appropriate emotions and balanced emotional states that lead one to be sympathetic to others by extending from nearest to farthest. An emotionally balanced and non-excessive life is a necessary condition, if not sufficient, for virtue and well-being.

Liberation from fear and anxiety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ranquility and benevolence. How do exemplary people deal with misfortune and fortune? They correct their own mind and nothing more. They cultivate the self, nothing else. Fortune need not be sought to be obtained, and misfortune need not be avoided for one to keep it at a distance. Jeong refers to the Confucian idea that: "The exemplary person experiences a lifetime of trouble without a moment of anxiety" (Jeong, 82b). If misfortune comes to one from the outside, one goes along with it, and that's it. It is like the cold and hot weather passing before us, which we cannot control and that have no direct relation to ourselves.

# 6. Gihwa's Response

Jeong argues that Buddhism fails in achieving tranquility and its tranquility is disconnected from what matters in an emotionally balanced and just social life. Gihwa maintained that the three teachings are encompassed as valuable perspectives within a broader more comprehensive

Buddhist vision. His argumentation on behalf of synthesis was based on Buddhist conceptions of "essence-function" (C. tiyong, K. che-yong 體用) and the "mutual interpenetration of phenomena" (C. shishi wuai, K. sa-sa mu-ae 事事無礙).9 Gihwa criticizes Confucian virtues and arguments for their partiality and limitation, reinterpreting them in a more universal perspective of essence and interdependence that he associated with the inner truth of Buddhism.

Universalization is the key to Gihwa's argument for Buddhism, as he stressed both the universality of the message and the universality of the experience of suffering, including the animal suffering that has been forgotten in conventional Confucianism:

This doubt [about Confucian humaneness] was buried within my mind for a long time without being resolved. Then, while traveling around Samgak-san in 1396, I arrived to Seungga-sa, where I had the chance to chat with an old Sŏn monk throughout the night. The monk said: "The Buddha has ten grave precepts, the first of which is to not take life." Upon hearing this explanation, my mind was suddenly overturned, and I recognized for myself that this was indeed the behavior of the truly humane person. I was hereupon able to deeply embody the teachings of the Way of humanity. From this time forth, I was never again to be confused regarding the differences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Gihwa, HBJ 7.220a14)

Gihwa indicates that we should examine the full range and scope of the ethical in each philosophy: Do compassion and responsiveness apply only to some select beings or all sentient beings? He claimed:

<sup>9</sup> See A. Charles Muller, "The Key Operative Concepts in Korean Buddhist Syncretic Philosophy: Interpenetration (通達) and Essence-Function (體用) in Wŏnhyo, Chinul and Kihwa." Bulletin of Toyo Gakuen University No. 3, March 1995: 33-48.

All creatures are like this, sharing in the same inherent spiritual awareness. Furthermore sharing in the emotion of loving life and hating to be killed, how do they differ from human beings? Hearing the sound of ripping flesh and the cutting of the knife, they are in utter fright as they approach their death. Their eyes are wild and they cry out in agony. How could they not harbor bitter and resentful sentiments? And yet people are able to turn a deaf ear. In this way human beings and the creatures of the world affect each other without awareness and compensate each other without pause. If there were a humane person present, how could he/she observe such suffering and continue to act as if nothing was wrong?" (Gihwa, HBJ 7,220b4).

What the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karma and compassion that Confucian critics of Buddhism have placed into doubt? Gihwa's argument can be reconstructed by using the following distinctions. "Physical evil" indicates the universality of suffering. "Moral evil" is the lack of insight in our own participation in the reproduction of suffering and lack of universalized compassion. The explanation is karma as a moral-causal logic that requires a change in attitude about suffering and the liberation from karma. The evidence for karmic causality rests on stories of karmic rebirth such that hells and karmic consequences are real. The motivation for this analysis is not to frighten but to liberate. Buddhists do not wish bad karmic consequences on anyone; they wish liberation from the sources of those consequences. Misfortunes are unwanted and their suffering is real, yet they also indicate turning points for eliminating suffering by cultivating an attunement of spontaneous awareness and compassion.

# 7. Conclusion: Human Nature and "Moral Psychology"

Two conceptions of human nature and the emotions are at work in this debate: For Jeong, nature is ordered as a whole, but finite (one birth and death) and governed by cycles outside of human responsibility and choice. Famine is due to flux in vital forces, not previous bad deeds. One needs to control, manage, and balance personal, social, and natural life. This can be done through following a work such as the *Yijing*, which—following Zhu Xi—has a naturalistic and practical for Jeong rather than a metaphysical and supernatural character. In Gihwa's account, by contrast, nature is ordered as a whole and in its macrocosmic and microcosmic correlations; it is knowable through traditional Sino-Korean conceptions of the five phases, *yinyang*, the *Yijing*, and so on; but more fundamentally through the Buddhist experience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karma.

There are two conflicting conceptions of the heart-mind as responsiveness to suffering at play in the debate between Neo-Confucianism and Buddhism. From the Neo-Confucian Perspective, Buddhism limits and undermines the heart-mind and natural moral affections that are the basis of a balanced life and a just social order. Emotions are extended outwards in greater circles into one body, but the near has priority over the far, the elder deserves more respect than the young.

From Gihwa's Buddhist perspective, which defends both popular and Sŏn Buddhism in response to Jeong's Neo-Confucian criticisms, he answers by arguing that limited and partial conceptions of Confucianism limit the heart-mind, and the compassion and humaneness that it valorizes, by not embracing sentient beings as a whole. Buddhism does not so much reject and repress partial and limited forms of love through

fear; it expands and encompasses the emotions in practicing unrestricted compassion, generosity, and loving kindness. Jeong's concerns were legitimate given the fallenness of actual Buddhist practices even as he failed to appropriately address core Buddhist experiences and ideas.

# 해양명칭 논쟁의 본질과 해법 모색

-한국의 동해 명칭을 사례로-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 1. 서론

지명을 제정하고 명명하는 행위는 대단히 중요하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한 국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명 제정의 문제만하더라도, 인근 지자체 간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쟁점이 되기도하는데, 하물며, 세계지도에 표기되는 명칭의 경우, 지명 하나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존의 지명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아니다.

바다 이름의 경우, 해당 수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변 국가 명칭이나 해당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바다 이름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도 해당 수역의 의미와 그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간결하게 명명될 필요가 있다. 과거 대항해 시대에는 탐험가들의 의지에 따라 임의로 지명이 명명되기도 하였고,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정해진 명칭들은 수 세기 동안에 다양한 명칭으로 변화되었으며, 대부분의 명칭들은 제국주의 시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요컨대,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양 지명들은 서구의 강대국들에 의해 명명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해양 명칭은 19세기 전후에 일반화되었는데, 식민주의 이후, 예

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신생 독립국들은 저마다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토와 해양의 범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국 주변 해역의 명칭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신생 독립국들은 제국주의 시기에 강대국들에의해 이미 정해지고 확립된 바다명칭에 대해 자국의 입장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만의 명칭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명칭과 새롭게 대두되는 명칭 간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해양의 명칭은 누구를 위해, 누구의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해양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겠는가?

오늘날 동아시아에는 서로 다른 서너 개의 동해(East Sea) 명칭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세계지도에 정착된 중국의 동해 명칭은 동중국해(East China Sea, Dong Hai)로 표기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이 한국측 입장의 동해(East Sea)와 기존의 일본해(Sea of Japan) 명칭이 병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베트남 정부 또한 현재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명칭으로 정착된 수역 명칭에 대해 그들의 Biển Đông(East Sea) 명칭이 세계지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바다 명칭에 관한 문제는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일본은 국제수로기구 회 의<sup>2</sup>에 참가하였는데, 한국은 식민지 상태였으므로 외교권도 없었고, 국제사

<sup>1</sup> Biến Đông(East Sea)은 오래 전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사용해온 그들의 고유한 명칭이며, 베트남 사람들에게 Biến Đông 명칭은 이 나라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1945년 이래로, 베트남 에서는 공식 문서에 Biến Đông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 베트남에서 이 명칭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975년 이후, 베트남에서는 Biến Đông 명칭에 대한 국제적인 표기명칭을 "Bien Dong Sea"로 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베트남 학자들과 해외 학자들 중에서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명칭을 "동남아해 (Southeast Asia Sea)" 또는 "베트남해(Viêt Nam Sea)"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Nguyen Thi Hanh, 하노이국립사범대학교 교수, 인터뷰, 2015,4,20).

<sup>2 1919</sup>년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IHB) 창설을 결의하고, 1921년에 19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모나코에 국제수로국이 설립되었다.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제시할만한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일간의 해역 명칭은 〈일본해〉로 굳어져 갔다.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을 겪고, 혼란한 상황에 처해있던 한국 정부는 바다명칭에 대해 신경 쓸여유가 없었을 것이며, 1992년에 이르러,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SGN)에서 동해 명칭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때 이후로 동해 명칭에 관심이었는 한국의 학자들은 IHO 회의뿐만 아니라 유엔지명전문가회의(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등에 참가하여 한국측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동해명칭의 문제를 제기한지도 어느덧 20여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는 여전히 일본해 단일명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지도제작사나 신문사, 방송사 등의 언론매체들은 한국의 동해명칭을 일본해 명칭과 병기해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주장하는 동해명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이미 정착된 일본해 명칭과의 병기 문제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남북한 간의 동해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동해명칭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한국의 동해명칭은 중국의동중국해 명칭에 묻힐 우려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 정부는 현재남중국해로 불리고 있는 수역에 대해 그들의 동해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동해 명칭의 논거는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동해명칭이 적절한지를 논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의 변천사를 엄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동해명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국제수로국을 계승하는 것으로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1957년 국제수로기구의 전신인 국제수로국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2011년 현재 국 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은 1989년 국제수로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부분의 연구는 일본해 명칭의 부당성을 보여주거나,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연구는 한일 간의 갈등상황을 다루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3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은 단지 한국인들을 위한 명칭이 되어서도 안되며, 일본 중심으로 표기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한일 간의 수역 명칭이 세계지도에 표기되는 만큼 한국과 일본만의 관심사가 아닌, 해당 수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인들의 관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동해로 불리고 있는 해양지명, 특히 한국의 동해 명칭을 사례로 해당 수역에 인접한 로컬 커뮤니티의입장과 외부자의 관점에 대해, 그리고 제국주의의 산물로서의 명칭과 신생독립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명칭 간의 충돌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특정 지역의 해양명칭이 어느 날 세계지도상에 새롭게 등장하였던 시점으로부터 수 세기 후, 외부 세력 또는 새로운 지배 세력에 의해 새로운 명칭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또는 어느 순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등 명칭의 속성 자체를 지명의 생태학적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한일간의 바다명칭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보고,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명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sup>3</sup> 동해 표기명칭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김순배·김영훈·이상균(2015), 주성재(2007) 등이 있으며, 일본해 명칭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연구는 북한 사회과학원의 Hwang Myong-Chol(2014), Yi Saangkyun(2014) 등의 연구가 있다. 그 외에도, 고지도 및 고문헌 관련 연구는 김신(2001), 김종연(2012), 심정보(2013), 심정보·정인철(2011), 양보경(2004), 이기석(1992), 이상태(1995), 이상태(2004), 이상태(2007), 이승수오일환(2010), 이찬(1992) 등의 연구가 있으며, 정치지리 및 지정학 관련 연구는 임덕순(1992), 주성재(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지명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김순배(2012), 김종연(2008), 심정보(2007), 정인철(2010), 주성재(2012) 등이 있으며, 지리교재 관련 연구는 손용택·한관종(2006), 심정보(2013), 최종남·심정보·윤옥경 (2011) 등이 있다. 해양학, 국제법, 국제기구 관련 연구는 한상복(1992), 김덕주(1999), 박찬호 (2012), 이기석(1998), 이기석(2004), 이기석(2008), Kim Shin(2004)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토 착지명(Endonym) 관련 연구(주성재 2009) 또한 시도되고 있다.

첫째, 세계지도 제작과 해양명칭에 관한 장에서는 서구의 해양국가들이 17-18세기 무렵,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세계지도에 해양명칭을 표기하던 상황으로부터 제국주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특정 수역에 대해 다양하게 존재했던 명칭들이 단일 명칭으로 표준화되었던 사례를 검토하고, 특정 수역에 인접한 국가의 입장보다는 외부의 지도제작 주체들(외부자)의 관점에서 해양명칭이 정해지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탈식민주의와 해양명칭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기 전과 후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이후,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한민족의 정신이 담긴 바다명칭이 세계지도에 표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일본해 명칭과는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동해 명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주장하는 동해 명칭도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한국의 동해명칭을 지명의 생태학적 측면, 즉, 생성, 변화, 소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동해명칭을 지금 당장 한일간의 문제로 보기 이전에 수 세기 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인식되었던 동해 명칭의 보다 근본적인 속성까지 확인하기 위한 시도이다.

지난 20세기가 표준화를 추구했던 시기였다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해당 수역에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지도에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의 동해 수역은 지난 수 세기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제작된 지도에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된바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한국의 동해 명칭은 일본해로 굳어졌으며,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지도를 이용하는 전 세계 시민들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당사국간의 문제로 내버려

둘 일이 아니며, 당사국 정부 및 학계,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의 이성적인 지혜를 모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명칭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 2. 세계지도 제작과 해양명칭의 변천

15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새로운 세계와 문명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해외 식민지 개척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던 스페인은 16세기 중반에이르러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까지 진출하였으며, 1571년에는 필리핀 제도를 점령하였다. 반면, 16세기 초, 인도 서해안을 점령함으로써 동아시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포르투갈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명으로부터 마카오를할양 받아 동아시아 무역의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7세기 후반, 프랑스 과학원이 국가 지형도 제작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지도를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국과의 삼각망연결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지의 좌표를 수집해야만 했는데, 이는 지도제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국가들과의 식민지 경쟁 및 상업적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었다. 루이 14세는 동방에 대한 관심과지도제작에 필요한 세계의 좌표를 수집할 목적으로 선교사가 아닌 과학자를중국에 파견하였다(정인철 2014: 586-589).4

한편, 17세기 중엽, 러시아가 흑룡강 방면으로 진출해 옴에 따라,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강희제때 청나라는 러시아에 패하였고,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국경을 획정하였다. 청나라 제4대 황제 강희제는 몽골과 티베트 원정 등 몸소 전쟁을

<sup>4</sup>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의 신분이 과학자였던 이유는 당시 동방에서의 교회보호권 (padroado)을 가지고 있었던 포르투갈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프랑스 왕실에서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교류 및 중국에 관한 지리정보 수집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왕실 수학자 자격으로 중국에 파송되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정인철의 연구(2014: 585-600)를 참조할 것.

지휘하면서 정확한 지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후, 프랑스 선교사 제르비용(Gerbillon, 중국명 張誠)<sup>5</sup>으로부터 유럽에서 제작된 아시아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 지도에 표현된 중국의 지리정보는 상세하지 않았다. 이에, 강희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도제작의 필요성을 깨닫고, 서양의 측량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전도 제작을 기획하게 되었다. 10년간의 실측작업 끝에 1717년, 결국, 지도를 완성하고, 강희제는 이 지도를 『황여전람도』라 명명하였다.



〈그림 1〉 17세기 무렵, 한국의 동해 명칭: 중국해

출처: Philipp Clüver, 1600년경, Imperii Sinarvm Nova Deseriptio, Germany.

프랑스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완성된 『황여전람도』는 선교사들의 본국인 프랑스로 보내졌으며, 프랑스의 위대한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은 새로운 지리정보가 포함된 세계지도를 제작하여 유럽과 전 세계에 보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에 관한 지리정보 또한 「황여전람

<sup>5</sup>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당시, 프랑스 선교사 제르비용이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강희제의 신임을 받아 결국 프랑스 선교사들이 청나라의 지도제작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이명희 2011: 104-118).

도」에 포함되어 세계지도 제작에 반영되었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동아시아에 관한 지도제작 및 해양명칭은 17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달라진다. 즉, 1600년대에 제작된 세계지도를 보면, 한반도의 형상이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해양명칭 또한 세분되지 않은 채 동중국해와 한국의 동해가 모두중국해로 표기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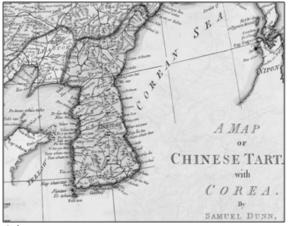
그림 2는 1794년에 영국에서 제작된 아시아 지도인데, 남중국해 부근에 중국해 명칭(China Sea)이 표기되어 있고, 한국의 동해는 한국만(Gulf of Corea)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해 명칭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중국의 황해는 영어식 명칭은 없으며 중국식 발음(Hoan Hay)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시기에는 아직 동중국해 명칭이 분화되지 않았으며, 난징만(Bay of Nankin)이란 명칭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 3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제작된 동아시아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한국의 동해는 한국해(Corean Sea)로 표기되어 있으며, 황해는 Yellow Sea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4는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아시아 지도이다. 이 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동해는 한국해와 일본해로 병기되어 있으며, 동중국해는 중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2〉 18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해양명칭

출처: Robert Wilkinson, 1794, A New Map of Asia drawn from the latest discoveries, England.

## 〈그림 3〉 18세기 후반의 동해 명칭 : 한국해



출처: Samuel Dunn, 1794, A Map of Chinese Tartary with Corea, England.

서양지도를 보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는 〈한국해〉 명칭이〈일본해〉 명칭보다 훨씬 많았으나, 프랑스 라페루즈의 항해(1787) 이후, 한국해 명칭은 급속히 감소된 반면, 일본해 명칭은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이는 라페루즈가 탐험 후 발행한 지도에 한국의 동해 수역의 명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한편, 19세기 전반부 동안에 일본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을 확인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반으로 나눠서 한국쪽 연안의 바다명은 조선해(朝鮮海)로, 일본쪽 연안의 바다 명칭은 일본해로 표기하였다(그림 5). 이러한일본의 지도제작 전통은 당시 일본에 채류하던 독일인 박물학자 시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6를 통하여 유럽의 지도제작에도 영

<sup>6</sup> 시볼트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일본인 지리학자 高橋景保(다카하시 가게야스)를 만났으며, 그를 통하여 일본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입수하여 독일에서 출간함으로써 극동에 관한 당 시의 지리정보를 유럽과 전 세계로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1853년에는 동인도 함대 를 이끌고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의 Matthew Calbraith Perry(1794-1858) 제독에게 시볼트의 저서가 제공됨으로써 일본 및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는 독일을 경유하여 미국에 직접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남영우·김부성 2009: 1-12), 한편, 이른바 시볼트 사건으로 인하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19세기 초반, 한국의 동해 명칭: 한국해/일본해 병기



출처: J.A. Dezauche, 1805, Carte D'Asie,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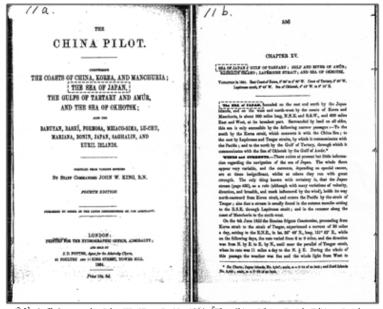
〈그림 5〉 19세기초, 일본의 '조선해' 인식



출처: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1810, 「Shintei bankoku zenzu(新訂萬國全圖)」, Japan.

여, 조선의 김정호에 비견될 수 있는 일본의 위대한 지리학자 다카하시는 옥사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Klinghoffer · Arthur Jay 2006: 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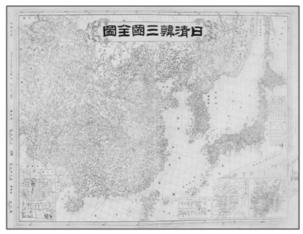
19세기 중반 무렵, 일본해 명칭의 급속한 확산에 영향을 미쳤던 또 다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영국에서 편집된 『중국 수로지(China Pilot)』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19세기 중반 무렵에 이미 〈일본해(Sea of Japan)〉 명칭이 서구 제국의 중요 문서에 명확하게 자리잡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영국과 같은 해양 강국들의 입장이 여타 국가들의 지도제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사실상, 19세기 중반에는 일본해 명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



〈그림 6〉 『중국 수로지』에 표기된 일본해 명칭

출처: Staff Commander John W. King, R. N., 1864, 『The China Pilot』, Fourth Edition, London.

〈그림 7〉 19세기 일본의 세계지도 제작에 반영된 해양경계 관념



출처: 스즈키 시계유키(鈴木茂行), 1894, 일청한삼국전도(日清韓三國全圖), 일본.

19세기 초반, 일본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 한국쪽 동해 수역 명칭은 조선해(朝鮮海)로 표기되었는데(그림 5), 그러한 전통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7). 『일청한삼국전도』(1894)를 보면, 한국측 동해 명칭은 '조선해'로, 일본측 해양 명칭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에는 지나해(支那海, China Sea)로 표기되어있고, 동중국해 위치에는 東海(동해)로, 남중국해 위치에는 南海(남해)로 표기되는 등 중국의 바다 명칭은 18세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세분화되었으며, 지도제작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식 방위 명칭이 동해 및 남해와 같이 별도로표기되었듯이, 중국측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7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 이래로 19세기 후반까지 동아시아의 해양명칭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분화되었다. 처음에는 중국해와 한국의 동해가 모두 '중국해'로 표기되었다가, 점차 한국해와 중국해가 분리되고, 한국해는 다시 한국해와 일본해로 나뉘어졌고, 중국해는 중국의 동해와 남해로 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up>7</sup> 이 무렵에는 동중국해(East China Sea), 남중국해(South China Sea)와 같은 외부자적 관점의 명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탈식민주의와 해양명칭을 둘러싼 갈등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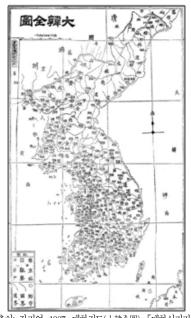
19세기는 서구 열강들의 해외 식민지 쟁탈전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35년간 식민지배하였는데, 이 시기에 한국의 동해명칭은 일본해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19세기 말까지 한국의 동해를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일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동해 명칭을 〈일본해〉8로 등록함에 따라 오늘날까지 많은 국가가 '일본해' 명칭을 채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서구의 많은 국가가 오랫동안 해당수역(한국의 동해)에 대한 명칭을 일본해로 명명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일본해 명칭이 정착된 것이라고 그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과거의 지도 자료를 분석해보면 일본의 주장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서구의 지도에 표기된일본해 명칭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해, 동양해, 병기(한국해/일본해, 한국해/동양해 등) 사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8) 일제강점기 직전의 한국 동해 명칭 : 일본해

출처: 호시카 슈이치(穂坂秀一), 1904, 극동전요지도(極東戰要地圖), 한반도 및 동해 부분도, 일본,

<sup>8</sup> IHO는 1929년 총회에서 그간 회원국 간에 합의된 해양과 바다의 명칭을 모아『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 SP-23)』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세계 해양지명의 표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한국의 동해〉 또는 〈한국해〉 가 아닌 〈일본해〉 명칭을 등록하였고, 이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 직전의 지도를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19세기 말까지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 사이의 해역을 절반으로 나누어 조선해와 일본해로 표기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해당 수역의 중앙에 일본해 명칭을 표기한 것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패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양국 사이의 해역 명칭을 일본 국명이 포함된 일본해로 썼던 것은 자국의 일본지도가 아닌 일본이 포함된 세계지도 제작의 전통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찍이 서구 열강들과 교류하는 동안 서구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의 표기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일제 강점기 초, 한국의 동해명칭: 대한해

출처: 장지연, 1907, 대한전도(大韓全圖), 『대한신지지』

일제 강점기 직전, 조선의 선각자들은 위태로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다양 한 방식으로 민중을 계몽하였다. 그들 중 장지연<sup>9</sup>은 지리교과서를 집필하였

#### 476 국제고려학 16호

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당시의 세계정세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지연의 『대한신지지』에는 「대한전도」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지도에는 한국의동해 명칭이 大韓海(Sea of Korea)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한국해(대한해) 명칭은 본래 17-18세기 동안에 서구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일반적으로 표기되었던 명칭인데, 19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된 반면,일본해 명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도상에서 사라져갔다. 그런 중에, 장지연이 집필해서 보급했던 지리교과서에 대한해 명칭이 표기된 지도가 수록되었던 것은 의미심장하게 여겨진다. 이 시기에 장지연은 애국계몽의 관점에서 국가명이 들어간 바다명칭을 표기했을 수도 있고, 당시 세계지도 제작의흐름을 간과하고 외부자의 관점에서 국가명이 포함된 해양명칭을 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인들의 애국계몽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었지만, 결국, 1910년 경술국치로부터 35년간 조선은 일제의 한 지방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동해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존재하는 일본의 내해로 인식되었다. 일제의 팽창주의 정책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머물지 않고, 서태평양 일대까지 확장되었다. 일제는 소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내세우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으며, 서태평양 일대를 그들의 세력권에 넣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45년, 연합군에 패함에 따라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망은 꺾일 수밖에 없었다.

<sup>9</sup> 장지연(1864-1921)은 일제 강점기 초기의 언론인으로서, 1905년 11월 20일자 사설에 '목놓아 통곡한다'는 의미의「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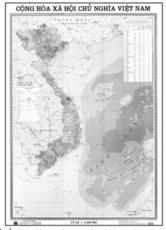
〈그림 10〉 대동아전쟁도: 아시아 태평양을 향한 일본 제국주의의 야망



출처: 조선총독부, 1944, 「大東亞戰爭圖)」, 『초등지리』, 제5학년, 139.

한편,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학교에서 가르쳐졌던 지리교과서에는 당시 일제가 일으켰던 대동아전쟁과 이 전쟁의 전개 상황을 담은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그림 10〉). 이 시기에 일제는 이미 서태평양 일대를 그들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일본열도 동쪽 해역에는 해양명칭이아닌 〈대일본〉이라는 국가명이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따르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11〉 베트남의 동해(Biển Đông—South China Sea) 명칭



출처: http://www.biengioihaidao.wordpress.com

일제의 패망 이후, 동아시아 일대에서는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동해상에 있는 섬, 즉 독도를 한국이실효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부와 20세기 전반부를 지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믿어지는 〈일본해〉 명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바다명칭은 한국과 일본 간의 또 다른 민감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이래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동해(East Sea) 명칭이 일본해 명칭과 병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해외의 일부 학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예 컨대, Klinghoffer는 과거 서구인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 명칭을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했던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인들은 Sea of Korea 명칭보다는 East Sea 명칭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외부자들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명칭이라기보다는 자신들만의 국수주의적 자 궁심의 발로라고 비꼬기도 하였다(Klinghoffer 2006: 32-33).

탈식민주의적 측면에서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를 베트남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남중국해(South China Sea)로 알려진 해역 명칭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그들의 동해(Biển Đông) 명칭이 표기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명칭이 '동남아해(Southeast Asia Sea)' 또는 '베트남해(Viêt Nam Sea)'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나 베트남이 식민지 상태로 있을 때에는 외교권도 없었으므로 그들만의 권리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나 해방 후, 이들 국가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한국과 베트남 모두 〈동해〉라 부르고 있는 바다를 민족적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상징적 공간으로 여기고, 세계지도 상에 그들의 동해 명칭이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림 12) 제1회 국제수로회의, 1919, 런던.



주: 일본 대표(Mr. Minato)는 맨 앞줄 오른쪽 끝.

한국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당하고 있던 시기에, 국제사회는 해양의 명칭을 표준화한다는 명목 하에 모임을 추진하고 있었다. 즉, 20세기는 표준화의시대라고도 볼 수 있듯이, 1919년 런던에서는 제1회 국제수로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인은 이와 같은 모임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의심의 여지없이, 일본의 대표가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은〈일본해〉로 확정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림 12〉는 당시 국제수로회의에 참가했던 각국 대표단의 기념사진이며, 일본의 대표는 앞줄의 맨 우측에 앉아 있다.

20세기가 대량생산과 표준화를 추구하던 때였다면, 21세기는 다양성이 존 중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학문적, 사회적 변화의 조류를 따라 해양지명 관련 분야의 학자들은 외래지명(Exonym)과 토착지명(Endonym) 관련 지명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동해 명칭이 토착지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계지도에 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지명의 구심력과 원심력

	지명 사례	지명의 변천 양상	
지명의 구심력 (지배계층)	<ul> <li>행정 권력에 의한 지명의 획일화</li> <li>전국(national) 단위의 지명 개정(두 글자 한자 지명화)</li> <li>조선시대 지방(local) 관인층 및 사족에 의한 유교적이고 미화적인 지명 개정(두 글자 형태)</li> <li>하천 지명의 구심력</li> </ul>	- 지명의 통일성, 단일성, 표 준성 강화 - 지명의 동질화, 중앙집권화	
지명의 원심력 (피지배계층)	- 일반 언중의 고유 지명 사용(순수 토착어) - 일반 언중의 지명 인식과 다양한 지명 명명	- 지명의 다양화, 지방분권화 - 단일지명 거부, 비판, 파괴	

출처: 김순배(2012: 85)의 자료를 수정·재인용함.

지명연구의 관점에서 동해표기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나, 최근 지명연구의 경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해양 명칭의 경우, 기존의 명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지명을 하나의 지도에 모두 표기해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표 1〉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관점과 의지가 반영된 지명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탈식민주의와 해양명칭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이 표를 통해 잘 설명된다.

# 4. 지명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동해 명칭

한국의 동해표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단순히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찾는 연구나 일본해 명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형의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가? 이제는 단순히 동해냐 일본해냐의 문제가 아닌, 표준화와 다원화 사이에 놓인 해양지명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고민해야 할 때이다. 즉, 한 차원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간의 논쟁이 아닌, 동아시아가 포함된 세계지도를 이용하는 세계인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 명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난 세기에는 특정 해양 명칭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예컨대, 프랑스 정부의 공식입장이 〈일본해〉단일명칭 표기라고 한다면, 프랑스에 있는 지도제작사나 방송 매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적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록 정부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개별적인 지도제작 주체들은 자율적으로 표기명칭에 대한 그들만의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도제작사라 하더라도 특정 명칭 한가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버전의 표기명칭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3〉은 프랑스의 한 신문사에서 보도된 일본 관련 기사 사례이다. 해당 기사를 보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수역 명칭을 〈한국해(Mer de Coree)〉와 〈일본해(Mer du Japon)〉 명칭을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단히 흥미롭게 여겨진다. 왜냐하면, 지난 20여 년간 한국정부가 동해(Mer de l'Est) 명칭 확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기관과 주요 지도제작사, 방송매체들 또한 그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수역 명칭에 대해서는 그들의 방식대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한국해/일본해 병기 사례

출처: Liberation, 2011년 3월 13일자 기사.

〈그림 14〉 인터넷판 텔레비전 뉴스 기사: 한국의 동해명칭에 대한 설명

# La Corée du Nord a lance deux nouveaux missiles vers la mer Les forces d'auto-défense (le nom de l'armée japonaise) ont été autorisées à détruire tout missile nord-coréen qui menacerait le territoire nippon, avait indiqué lundi un porte-parole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Outre les batteries de Patriot, Tokyo a déployé des destroyers équipés du système d'interception Aegis en mer du Japon (appelée mer de l'Est par les Coréens), avait précisé ce respons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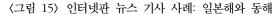
출처: Tf1, 2013년 4월 9일자 뉴스영상과 인터넷판 기사.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명칭(동해, Mer de l'Est) 대신에, 한국해 명칭을 일본해 명칭과 병기하고 있는 것일까? East Sea(동해) 명칭에 대해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어느 시민에게 묻는다면, 동해가 어디에 있는 바다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해나 일본해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최소한 한국이나 일본 근처에 있는 바다라고 연상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 사실, 17-18세기에 서구의 지도제작 관계자들은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을 한국해로 표기한 바 있으며, 19세기 전반부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본해 명칭이 증가하면서, 결국, 일본해명칭이 한국해 명칭을 대체하게 되었다. 물론, 그사이에 다른 명칭으로 표기된 적도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명칭이 병기된 적도 있었다.

〈그림 14〉는 프랑스의 한 민영 방송사에서 보도된 텔레비전 뉴스 화면과 인터넷판 기사의 일부분이다. 이 뉴스 화면을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 다 명칭은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았으며, 인터넷판 기사 내용을 보면, 일본해 (Mer du Japon)라고 표기하고, 괄호 안에 별도로 '한국인들은 동해(Mer de l'Est)라 부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뉴스 기사를 쓴 담당자는 왜 동해라는 표현을 간단히 처리하지 않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에 의해 동해라 불리는 이라는 주를 더 달아야만 했을까? 아마도, 동해라는 명칭을 썼을 때, 유럽의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 에 그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누군가가 유 럽 현지 신문기사를 통해 Mer de l'Est(동해) 명칭을 쓴다고 가정할 때, 독자 들의 입장에서 이 명칭이 어느 바다를 가리키는지 바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불편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명칭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신문기사나 텔레비전 뉴스의 내용을 잘 알아듣기 위해 사전에 한국 정부가 일러준 특정 바다 명칭과 위치에 대해 별도로 학습해야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한국인들이 쓰고 있는 명칭대로 불러주기를 바라 는 것은 단지 한국인들의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른다. 동해라는 명칭이 한국 인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외부 세계의 사람들에게 동 해라는 명칭은 단지 방향성이 있는 추상적인 보통명사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15〉는 독도를 다루는 어느 인터넷판 텔레비전 뉴스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면, 독도를 설명하면서 일본어와 한국어로는 각각 독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이 섬이 위치해 있는 바다가 일본에서는 일본해(Mer du Japon)로, 한국에서는 동해(Mer de l'Est)라 부른다고 친절하게 진술하고 있다. 독도에 관한 뉴스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어떻게 부르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내용의 기사였다면, 일본해 명칭 위주로 기사를 쓰면서,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간략히 '한국인들이 부르는 동해'에 관하여 주를 달아 설명해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간단명료하게 써도 이해될 수 있는 명칭과 별도로 설명을 추

가해야지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명칭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지겠는가?





Les îlots Dokdo en coréen)-Takeshima (en japonais), en mer du Japon (en japonais mer de l'Est (en coréen). Séoul maintient sur place un petit détachement de garde-côtes sur ces îlots appelés aussi rochers Liancourt en français. La photo a été prise par un hélicoptère sud-coréen. © Reuters

출처: France Télévisions, 2014년 1월 27일자 인터넷파 기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해양명칭을 정할 때는 해당 수역과 인접해 있는 국가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세계지도를 이용하는 세계인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같이, 유럽의 어느 신문사는 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을 동해(Mer de l'Est)와 일본해(Mer du Japon)를 병기하지 않고, 한국해(Mer de Coree)와 일본해(Mer du Japon)를 병기했겠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 수역의 좌측면은 한국이고 우측면은 일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해(Mer de l'Est)라는 명칭에 대해 유럽인들은 그 명칭과 한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판 기사의 경우, 유럽의 어느 독자에게 〈동해(Mer de l'Est)〉, 〈일본해(Mer du Japon)〉, 〈동양해

(Mer Orientale)》 등의 표기 명칭을 제시했을 때, 어느 명칭이 제일 명료하다고 여기겠는가? 답은 〈일본해〉 명칭일 것이다. 왜냐하면, 동해나 동양해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호한 느낌이 들지만, 일본해는 일본 인근에 있을 것으로 연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명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동해라고 써왔는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일본의 서해나 일본해로 불러왔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인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 논의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세계지도에 표기되는 명칭은 전적으로 외부자의 관점에서 가장 알기 편한 명칭이 채택되어야 하기때문이다.

20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20세기 후반부 시기 전반부 -18세기 - 17세기 -19세기 - 혀재 (일제강점기) 조선해 한국해 무표기 (한국해) 동양해 한국해 동양해 동양해 동양해 표기 병기(동해/일본해) 유형 병기 병기 병기 중국해 동양해 일본해 일본해 일본해 일본해 일본해

〈표 2〉 한국 동해 명칭의 변천과정

(표 2)는 16세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동해명칭에 대한 진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6세기 무렵에는 중국해, 한국해, 일본해, 동양해 명칭이 고르게 명명되다가,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부까지는 중국해와 한국해가 분화되면서 한국해 명칭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기되었고, 일본해 명칭의 표기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전반부를 지나면서, 한국해 명칭은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일본해 명칭은 크게 증가하였다. 20세기 전반부 동안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해 명칭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으며, 한국

해(Sea of Korea) 명칭은 결국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린 바다 명칭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명칭은 과거에 통용되다가 사라진 한국해(Sea of Korea) 명칭이 아닌 동해(East Sea) 명칭이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해 명칭은 소멸되었으며, 동해 명칭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결국, 해양명칭은 생물처럼, 생성과진화(변화),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 명칭은 무엇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는가? 해외독자들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겠는가?

오늘날 영미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도를 한 장 꺼내서 살펴보면 그림 16 과 같은 지도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동해는 일본해(Sea of Japan) 명칭 과 동해(East Sea) 명칭이 병기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동중국 해(East China Sea) 명칭을 보면, 괄호 안에 동해에 해당하는 중국식 발음 (Dong Hai)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국의 동해나 한국에서 여기고 있 는 동해(東海)는 사실상 같은 한자표기로부터 출발한다. 베트남의 사례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주장하는 동해 명칭보다는 일본해 명칭이 더 명료하고 현실적이라고 여길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베 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베트남식 동해 명칭을 세계지도에 표기해 달 라고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답하겠는가? 뻔한 답이겠지만, 남중국 해 명칭이 오래전부터 확립되었고, 많은 국가가 그렇게 표기하고 있으니, 우 리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나 프랑스 정부를 향해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들 또한 다음과 같 이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해 명칭이 이미 오래 전부터 확 립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일본해 명칭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갑작스럽게 당신들이 요구하는 동해 명칭을 써주기는 쉽지 않다."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더 많이 남아 있다. 예컨대, 남북한은 비록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오래 전부터 동해바다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남과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해 명칭은 동일하지 않다. 남한에서는 동해(East Sea) 명칭을 쓰고, 북한에서는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 명칭을 쓰고 있다. 국제적으로, 남과 북이 별도의 명칭을 갖고 일본과 대응하는 것보다는 남과 북이 단일 명칭을 도출하여일본해 명칭과 병기를 시도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노력해온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림 16〉 한국과 중국의 동해명칭 사례

출처: Collins World Atlas Complete Edition, 2005, 81.

또한, 한국에서 만든 동해표기 관련 홍보자료를 보면, 논리가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민족은 2000년 전부터 동해(東海) 명칭을 사용해 왔으므로 동해(East Sea) 명칭을 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서구인들이 세계지도를 제작하면서 우리의 동해 수역에 대해 일본해 명칭 말고도 다양한 명칭을 써주었으므로 오늘날에도 일본해 명칭만을 표기하는

### 488 국제고려학 16호

것은 적절치 않으며, 따라서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명칭도 같이 써주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상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으로서 동해(East Sea) 명칭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며, 외부 세계에서 세계지도를 이용하는 독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조차 검토되지 않은 채 입안된 동해표기 정책 또한 큰 문제라 할 수있다.

바다명칭은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그 명칭 이 바뀔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동해표기 명칭 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뭐라고 답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인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동해로 하든, 한국해로 하든, 또는 단독으로 하든, 일본해 명칭과 병기를 하든 간에, 해양명칭에 대 한 선택의 문제는 한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교섭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 니라, 외부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 지도제작 주체들이나 미디어 매체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그들의 고객이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편한 명칭을 쓰는 것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수 세기 동안 다양한 명칭으로 생성되고, 변화하고, 소멸되는 등의 역사성도 중요한 요소이고, 현재 독자들이 특정 명칭을 접했을 때 그곳이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지 곧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실용성). 요컨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대안적인 바다명칭은 한국 정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유럽이나 미주, 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세계 시민들이 보기에 가 장 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이 뭔가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 라 사료된다.

# 5. 결론

이 연구는 한일간의 해양명칭 논쟁의 본질이 뭔가를 파헤치기 위한 차원 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양 명칭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천되었는 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식민주의 이후, 제기되고 있는 해양명칭 논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관련 연구는 주로 한일간의 갈등상황을 다루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다른 한쪽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데 집중되었다. 반면, 이 연구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구도로부터 한걸음 떨어져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외부 독자들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세계지도에 표기되는 동해냐 일본해냐의 문제는 단지 한일 당사국 간의 갈등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계지도를 이용하는 전 세계 독자들과 지도제작 주체들, 그리고 언론매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일 간 수역 명칭 이슈는 현재의 관점에서 즉흥적이거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양국 사이의 해양명칭이 세계지도상에 처음 등장하던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변천되고 정착되어온 전 과정을 추적해보고, 그러한 과정에 개입했던 다양한 세력들, 그리고 그들 간의영향관계를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 명칭이 세계인들이 보기에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수역 명칭이 표기된 세계지도를 이용하게 될 독자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라기보다는 외부 세계에존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걸(2015) 「대한민국 동해의 국제표준 명칭에 대한 발전적 대안 모색」, 『한국도시지리학 회지』 18(3), 한국도시지리학회, 137-145.

김덕주(1999) 「동해 표기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6(2), 서울국제 법연구원, 1-26.

김순배(2012) 「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 서울: 경인문화사. 김순배(2013) 「한국 지명의 표준화 역사와 경향」, 『지명학』 19, 한국지명학회, 5-70. 김순배·김영후·이상균(2015) 「지명 표기에서 병기 논리의 접근과 시각: 동해 지명 병기

#### 490 국제고려학 16호

- 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5(1), 한국지도학회, 1-14.
- 김신(2001) 「동해표기의 역사적 과정」, 『경영사학』 16(3), 한국경영사학회, 199-222.
- 김신(2010) 「해양환경 변화와 '동해'표기」, 『독도연구저널』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1-60.
- 김신(2011) 「동해경계와 표기과정 재조명」, 『인터넷비즈니스연구』 12(1), 한국인터넷비즈 니스학회, 111-133.
- 김종연(2008) 「외국의 해외지명 결정 관련 조직 현황에 대한 연구: 영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지리화경교육학회지』 16(4), 한국지리화경교육학회, 387-398.
- 김종연(2011) 「한국에 대한 '통상적 영어지명' 형성과정에서의 영국 지리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11(1), 한국지도학회, 13-24.
- 김종연(2012) 「20세기 초반 영국 정부와 지도학자들이 수집한 한국 관련 지도 자료에 대한 고찰」, 한국지도학회지, 12(1), 한국지도학회, 85-102.
- 남영우·김부성(2009) 「독일 지도학자 Siebold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지』 9(1), 한국지도학회, 1-12.
- 박영한(1992) 「동해지명에 대한 지리학 세미나」, 『지리학』 27(3), 대한지리학회, 262.
- 박찬호(2012)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UNCSGN과 IHO 결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3(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15-141.
- 서정철·김인환(2010) 『지도 위의 전쟁』, 서울: 동아일보사.
- 손용택·한관종(2006)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5(4), 한국사회 과교육연구학회, 83-106.
- 심정보(2007)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7(2), 한국지도학회, 15-24
- 심정보(2013) 「근대 일본과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지명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5(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37-55.
- 심정보(2013) 「일본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해역의 지명」, 『한국고지도연구』 5(2), 한국고 지도연구학회, 19-31.
- 심정보·정인철(2011)「세계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 나타난 지명 병기의 사례 연구」, 『영토해양연구』 2,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6-29.
- 양보경(2004)「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지명」, 『문화역사지리』 16(1), 한국문화역사 지리학회, 89-111.
- 이기석(1992) 「발견시대 전후 동해의 인식」, 『지리학』 48, 대한지리학회, 278-283.
- 이기석(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72, 대한지리학회, 541-556.
- 이기석(2004) 「지리학 연구와 국제기구: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 회지』 39(1), 대한지리학회, 1-12.

- 이기석(2008) 「'동해'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통용을 위한 방책」, 『지명의 지리학』, 한 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서울: 푸른길, 278-306.
- 이명희(2011) 「청 강희 시기(1662-1722) 전국지도 제작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3(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04-118.
- 이상태(1995) 「역사문헌상의 동해 표기에 대하여」, 『사학연구』 50, 한국사학회, 473-485. 이상태(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6(1), 한국 문화역사지리학회, 157-164.
- 이상태(2007) 「조선시대의 동해 인식에 관한 연구」, 『역사와 실학』 32, 역사실학회, 497-526.
- 이승수오일환(2010) 「조선시대의 동해에 대한 지리인식과 문학적 형상」, 『한국지역지리학 회지』 16(5), 한국지역지리학회, 441-456.
- 이찬(1992) 「한국의 고지도에서 본 동해」, 『지리학』 27(3), 대한지리학회, 263-267.
- 임덕순(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으로 본 동해지명」, 『지리학』 27(3), 대한지리학회, 268-271. 장지연(1907) 「대한전도」, 『대한신지지』, 서울: 휘문관.
- 정인철(201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조사 연구」, 『한국지도학회지』10(2), 한국지도학회, 13-27.
- 정인철(2014) 「프랑스 왕실 과학원이 18세기 유럽의 중국지도제작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9(4), 대한지리학회, 585-600.
- 조선신보사(1983) 『1:50,000,000 축척 지구본』, 평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조선총독부(1944)「大東亞戰爭圖」、『초등지리』제5학년、서울: 조선총독부, 139.
- 주성재(2007) 「동해 명칭 복원을 위한 최근 논의의 진전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지도학회 지』 7(1), 한국지도학회, 1-9.
- 주성재(2009) 「토착지명, 지리적 실체, 그리고 인식의 문제: 동해/일본해 표기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5), 대한지리학회, 661-674.
- 주성재(2010)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표기 문제」, 『한국지도학회지』 10(2), 한국지도학 회, 1-11.
- 주성재(2012)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 『대한지리학회 지』 47(6), 대한지리학회, 870-883.
- 최종남·심정보·윤옥경(2011) 「영미권 지도 및 지리교재 제작사의 지명 표기 원칙에 따른 동해해역의 지명표기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1(2), 한국지도학회, 27-37
- 한상복(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명칭」, 『지리학』 27(3), 대한지리학회, 272-277.

Hwang, Myong-Chol(2014) 'Historic Origin of East Sea of Korea and Criminal Character

#### 492 국제고려학 16호

- of Having Marked (Sea of Japan), Asia-Pacific Journal of Marine Science & Education 4(1), Bladivostok, 127-135.
-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1929)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the First Supplementary International Conference, Monaco, 9-20.
- Kim, Shin(2004), 'East Sea and IHO: Focused on the Limits of Oceans and Seas,' 10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149-161.
- Klinghoffer, Arthur Jay(2006) The power of projections: how maps reflect global politics and history, London: Praeger.
- Neuyen, Thi Hanh(2013) 'Vietnam's Actions to Assert and Enforce its Sovereignty over the East Sea during the period 1884-1954: An approach from France's archives', Southeast Asian Studies, Hanoi, 15-24.
- Tran, Khanh(2013) 'Current East Sea disputes : Possible solution', Southeast Asian Studies, Hanoi, 3-14.
- Yi, Saangkyun(2014) 'The Geopolitics of Seas and the Cartography of Naming Seas: The Name "Sea of Japan" Reflecting an Imperialist Ideology', Asia-Pacific Journal of Marine Science&Education 4(1), Bladivostok, 29-43.

#### 〈고지도 자료〉

Philipp Clüver(1600년경) Imperii Sinarym Nova Deseriptio(중국제국도), Germany.

Robert Wilkinson(1794) A New Map of Asia drawn from the latest discoveries, England. Samuel Dunn(1794) A Map of Chinese Tartary with Corea, England.

J. A. Dezauche(1805) Carte D'Asie, France.

Staff Commander John W. King, R. N. (1864) The China Pilot, Fourth Edition, London. 高橋景保(1810)「Shintei bankoku zenzu(新訂萬國全圖)」, 일본.

鈴木茂行(1894) 『일청한삼국전도(日淸韓三國全圖)』, 일본,

穂坂秀一(1904)『극동전요지도(極東戰要地圖)』、일본、

# 한국의 재외동포 포용정책과 탈영토화

-초국가주의의 '도전'에 직면한 민족국가의 '응전'-

송창주

오클래드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지난 20년 동안 민족국가들은 더욱 글로벌화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을 받아왔다. 특히 국경 안과 밖에서 시민들 사이에 커가고 있는 초국가적인 생활방식은 민족국가들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국제 이주자의 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 1990년도에 약 15,5000,000명 정도였던 국제 이주자의 수는 25년 후인 2015년에는 무려 24,374,000명으로 증가했다(UN Population Division 2015). 이와 더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초국가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이제 사람들의 삶은, 그 들이 어디에 거주하는 지와는 상관없이,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에 걸쳐있게되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나라에 걸쳐 생활공간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늘어가면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한정된 영토에 기반을 두어왔던 민족국가들에게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수단의 기술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초국가화 되도록 만들었다(Boyd 1989; Ong 1999; Schuerkens 2005). 이런 도전은 몇몇 학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의 초국가적 생활방식이 전통적인 국가들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까지 주장하도록 만들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cf. Appadurai 1996).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족들의 수가 늘어나자, 정부는 전통적인 시민권과 투표권의 개념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 인도,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족들을 자국의 중요한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며 이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허용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Smith 2003; Bauböck 2007). Smith가 말한 바와같이 민족국가들은 자국들과 글로벌 체계와의 관계가 바뀌었을 때 비로소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된다(Smith 2003: 727).

오늘날 세계 각국에 거의 700만 명의 재외 동포들을 갖고 있는 남한의 경우도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바꾼 나라들의 한 예이다. 특히 재외 한인들이 한국의 강력한 이웃나라(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다는 사실이 이런 정책적 변화를 유도했다. 초기 이민자들이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를 위해 일본, 미국 혹은 다른 서양의 나라들로의 이민을 택했다면, 최근에는 고학력의 중산층 한국인 가족들이 더 나은 생활방식과 더 우수한 교육 환경을 위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추세다. 한국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이민의 '전환점'을 지났지만(즉, 한국으로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 많아졌다), 위에 언급한 나라들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재외한인의 수가 늘고 남한과세계 경제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재외동포의 중요성 또한 커졌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부와 사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외동포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정부 쪽에서 재외동포들을 민족 공동체로 끌어들이려는 노 력이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재외동포에 대해 한국의 정부는 어떠한 조치 를 취해왔는가? 재외 동포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의 계기 는 무엇이었으며, 이런 변화를 만든 한국 정부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세계화, 초국가화 시대에 한국이, 국민을 해외로 떠나보내는 나라 로서, 해외에 있는 자국의 국민과 동족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이런 도전들에 직면하며 한국의 국가가 어떻게 재외국 민들과 동포를 "탈영토화"된 민족공동체에 포용해왔고, 또 그럼으로써 어떻 게 "민족의 범주"를 확대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내정치와 국내경제에 관련된 그 들의 권한을 넓혀 그들을 "민족 공동체"에 소속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포함한다. 더불어 재외국민을 향한 이런 "포용정책"을 통한 "장거리 민족주의"의 강화정책 배후에 어떤 국내적 국외적 이유들이 있는지도살펴본다.

장거리 민족주의에 관련한 디아스포라 연구의 대부분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 초점을 두어왔다. 즉, 국민들을 외국으로 보낸 고국의 관점을 고려하기보다는 고국을 떠난 이주자들이 어떻게 고향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왔다(Anderson 1992; Glick Schiller 2001; Brand 2006; Gamlen 2008; Bauböck 2013). 장거리 민족주의 육성이라는 주제에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고국의 관점을 고려해서, 이 글은 고국이 재외국민과 동포를 위해 경주해온 노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국과 이주자들 (디아스포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이것은 민족 국가가 어떻게 해외의 국민들과 동포들을 통제하고 또 이용하려고 노력했는 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cf. Brand 2006).

세계화는 민족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초국가적이민자 수의 증가가 민족구가에게는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과거에는 자기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고국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그들의 시민권은 당연히 취소되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많은 민족국가들이 동포 디아스포라를 경제적(그리고 정치적 또 문화적) 성장의 근원으로 여겨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동포의 수가 700만 명이 넘는 민족국가 한국은 자국민들의 초국가적이주에 따르는 각종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으로 이주해 나가는 중산층사람들은, 비록 1990년대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 시기 동안에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 민족국가의 전통적인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해외로 이주한 한인 동포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강화켜왔다. 이 글의 목적은 (1)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한국

국가가 해외한인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구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또 (2) 이런 디아스포라 포용정책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거리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고국에 향해 행동했는가 하는 데에 촛점을 두었지만, 한국 민족국가의 경우를 보면 민족국가들이 해외동포들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또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하는데에 관심을 갖게한다. 여태까지 디 아스포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주민" 혹은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난 사 람 혹은 집단)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주민을 보낸 나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Glick-Schiller(1999)와 Andersen (1992) 등은 모두 해외동포들 또는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들의 고국에 대해 갖는 장거리 민족주의에 대해 언급을 했다. 하지만 이들의 고국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기 동포들의 공동체에 장거리 민족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펼친 노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Rainer Bauböck(2007) 또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며, Alan Gamlen(2008)도 이민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 이민자 를 수용하는 국가의 정책에만 초점을 둔 것을 정확히 비판했다. 그리고 송출 국가들은 이민정치와 거버넌스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만, 이들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최근에는 이런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증대되고 있다. Fitzerald(2008)는 이민 송출 국가와 디아스포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 이중국적의 용인, 그리고 고국내에서의 정 치참여에 관한 협상에 대해 다루었다.

이런 상황은 한국 민족국가와 해외 한인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Sonya Ryang과 John Lie's 2009년도 책 Diaspora without Homeland: Being Korean in Japan 에서는 디아스포라와 고국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송출국과 디아스포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잘 보아야 할까? 재외동포 (디아스포라),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민족국가 사이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고국의 다양한 집단 - 예를 들면 비지니스, 당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의 활동도 보아야 한다. 이 글은 기존의 문헌으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1) 재외동포 포용에 관련된 언설; (2) 재외한인들을 국

가 인구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와 실행; (3) 재외국민에게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기관들; (4) 재외국민에 의 선거권 부여; 그리고 (5)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재외동포들의 충성을 얻 기 위한 국가의 노력들이 그것이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국정부에 로비를 하여 해외동포들도 고국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중 시민권을 주도록 요청했다(Lee 2010: 237). 한국은 1990년대 까지 재외동포들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고, 1991년 전에는 재외동포에 대 한 통계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이들 가운데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 들의 수 등에 대한 정보도 모으지 않았으며 이런 정보를 제한했다. 1990년도 초반에 들어와서야 한국정부는 비로소 해외동포(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이면서 법적으로는 외국인인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내기 시작했고, 이때에 와서 중 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구소련에 거주하던 소비에트 한인들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불과 천4백7십만이었던 "해 외한인"들의 수가 갑자기 5백만으로 늘었다(Yoon 2007: 91). 여기에서 동포 라는 말이 재발견되었고 세계의 모든 한인들에게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리 고 같은 맥락에서 "동포"(同胞)라는 말이 새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 말이 세계각지에 거주하는 모는 한인들을 표시하는 말이 되었다. 그때까지는 재 외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도 없었다. 유일한 정책이라면 더 많은 한국 인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인구밀도 를 좀 낮출 수 있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962년에 제정된 해외이주법은 바로 이런 목표를 가진 법이었다(Yoon 2007: 91).

더불어, 한국 디아스포라의 역사 기록학은 방법론의 민족주의라는 부담을 지게 되었고, 이런 연구는 민족국가, 식민주의와 냉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했다. 미래에는 더 이상 냉전시대의 민족주의 생각에서 벗어나 분권적이고,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역사를 쓸 필요가 있다.

# 2. 탈영토화한 민족공동체와 장거리 민족주의를 위한 한국국 가의 노력

한국에서는 1960년대를 거쳐 외화벌이,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증가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활발하게 해외이민 장려정책을 시행했고 이런 정책은 곧 효력을 발휘해 해외에 나가는 한국인 이민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박정희 시대인 1960년대 초반 한국정부는 남미 지역의 파라과이,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가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1965년에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한 이후에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는데,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는 매년 2만 5천에서 3만 명의 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 중에는 군인, 그리고 노동자의 신분으로써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보내졌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는 수많은 기술자와 노동자로서 한인들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이민 역시 활발해졌다.

한국 정부는 해외이민을 그렇게 장려했으면서도 정작 외국으로 보내진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명확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재일 한국인들은 그 중에서 예외로서, 조총련을 위시한북한의 재일교포에 대한 섭외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그들을 방치할 수없었다. 만약 그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면, 그것은 외국으로 자국민들을 "수출"함으로써 증가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재정에 필요하던 외화를 이민자들을 통해 벌어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들은 1962년에 제정된 해외 이민법(Yoon 2007: 91)에 나타나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91년까지 재외동포들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모으지도 않았고,이민을 떠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교포들의 대한 조사역시 없었다. 그 후 1990년대 초반부터야 비로소 정부는 중국과 소련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고려사람 등을 포함한 한국계 외국시민권자들 재외동포에 포함시켰다. 이러함으로써 1989년에는 통계상으로 147만 명으로 여겨졌던 재외동포의 수가 1990년대 후반에는 갑자기 5백만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Yoon 2007: 91).

여태까지 북한의 재외동포에 대한 접근 또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에 대해서 만 관심을 기울여왔던 한국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는 80년대 말에 와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제 재외동포들은 더 이상 인구문제의 완화와 외화 벌이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정보와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선, 그동안 잊혀져 있던 중국의 조선족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사람들, 그리고 사할린의 한인 교포들이 1980년대말에 들어 보다 큰 범한민족 커뮤니티의 중요한 요소들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남한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같은 북방 공산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방정책"을 수립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 북방정책은 냉전의 종말 무렵 공산국가들과의 수교를 맺어 대북한 우위를 점하고 동시에 이들 국가들의 자원과 소비시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 2.1. 포용적 민족공동체 개념

한국 정부는 해외에 거주중인 한인들을 1995년부터 공식적으로 "재외동 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공문서에서 여러 표현이 쓰여지고 있 었으며, 그중에는 해외교포, 한국교민, 해외한인 또는 재외국민 같은 표현들 이 포함되어있었다. 새로 인정을 받은 "재외동포"라는 말에는 외국에 거주하 는 한인들을 형제나 다름없는 "동포"라고 인정하는 긍정적인 당시 내국민들 의 열의가 담겨있다.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있어 "한 민족"이란 단어는 같은 핏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해외한인들이 아 무리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그들이 한민족의 일부분이라고 생각 하는데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다.

한국 대중들의 정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항상 같은 민족으로 여겨왔지만, 앞서 말했듯이, 1990년도 초반 이전까지 남한 정부는 이들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의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태도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고 정부는 재외동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이 설립중에 있던 1995년 재외동포재단법은 "시민권에 관계없이 한국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을 동포로 규정하였다. 그렇게 하여 남한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인의 피를 지닌 모든 이들을 한인들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법이 제정되면서 단숨에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더욱 팽창되었고 그 때까지 정부의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국의 조선족들과 구소련의 고려사람들이 정부의 통계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재외동포들을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에 설치된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한인 사회를 돕고 그들을 잇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1997년에 공식 적으로 출범했는데, 이 기관에 의하면 2010년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한인들 의 숫자는 7백만명이 넘었다. 이는 남한 인구의 15%에 해당하며, 한반도 전 체 인구를 따져도 10%가 넘는다. 재외동포들이 집중된 곳은 중국(190만명의 조선족을 포함하여 전체 한인 인구수(3백만명), 미국(2백만명 이상), 영연방 국가들(50만명), 그리고 일본(귀화한 한인 30만명을 포함하여 90만명)이었 다. 드디어 적어도 정부의 관점에서는 해외동포들의 수가 확실해졌고, 한민 족 공동체의 범위가 명백하게 확립된 셈이었다.

# 2.1.1. 재외동포재단(1997), 그리고 재외동포법(1999년제정, 2004년 개정)

재외동포재단의 설립과 함께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시는 실 질적으로 표출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의 목적은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 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 것이었다. 재외동포재단 의 권병헌 이사장은 2003년에 말하기를 "디지털 시대"를 맞은 오늘날 국경들 이 더 이상 민족들을 갈라놓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21세기는 그야말로 "디아스포라의 시대"이며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경은 쇠퇴하고, 전세계에 흩어져있지만 공통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묶여있는 경제적, 문화 적 집단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은 비록 흩어져있지만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로 뭉쳐진 사회들을 말하지, 더 이상 제한된 영토에 가반한 것이 아니다(The Korea Herald, 15 January 2003).

재외동포재단은 계간으로 재외동포소식 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는데, 이 잡지의 전체적인 기조는 범한민족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예를 들어, 1998년도에 실린 한 기사는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재외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정치와 경제 면에서 저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에 해외유대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중 국경제의 저런 괄목할 만한 성장은 전세계의 5천만 화교의 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악재를 겪고도 일어설수 있었던 베트남 경제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들의 성과라고 불러도 무관하다. 보트피플로서 베트남을 도망쳤지만, 그들은 베트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내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의 진정한 애국심이 필요할 때이다. 어느 나라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대신 해줄것이며,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에 지고 있는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지혜와 자원으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빚을 갚아야한다. 국가의 불행 앞에 재외동포와 내국인의 차이는 없다. 국가의 위기는 무리 민족모두의 위기이다(김봉규 1998: 3).

한국정부는 1999년 재외동포법을 공표하였다. 이 법은 재외동포들에게 많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법에 의해 재외동포들은 자유롭게 한국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제약없이 거의 모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및 법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이 법으로 인해 재외동포들은 한국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거의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무렵에 이 법은 거주하는 나라에 관계없이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범의에 있어서 변화를 겪었는데, 조선족들과 고려사람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걱정한 중국과 구소련 국가들의 반

대, 그리고 또 이들 국가에서 몰려들 노동자들로 인해 생길 국내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우려한 노동부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조선족 과 구소련의 고려사람들은 이 법의 혜택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러나 이 재외 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재외동포들을 한민족의 이름아래 규합할 것 을 널리 알린 첫 시작이었다.

## 2.1.2. 입양아 껴안기

한국 정부는 또한 한국계 입양아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이 되어 나간 아이들의 수는 20만명이 넘고, 이들은 전체 재외동포의 3%를 차지한다. 한국 사회가 여태 이렇게 많은 수의 입양아들을 "나라망신"으로 취급해 왔지만, 최근들어 한국 정부는 이입양아들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여 이들을 한민족 공동체의 일부로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입양아들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는 그들이 주로 부유한 서구 사회에 살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따라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 때문이다(T. Hübinette 2006; E. Kim 2003; 2007). 김대중 전 대통령이한국인 입양아들이 많은 스웨덴을 공식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이 입양아들이두 국가간의 연대를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함으로써한국 정부는 한인 입양아들의 정치적 중요성을 깨달았음을 알렸다(H binette 2003: 257).

한인 입양아들을 민족 공동체에 재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돕기위해 재외동포재단은 한인 입양아들을 위한 섬머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것은 해외의 한인 입양아들을 그들의 고국인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입양아들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이런 사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0년에 모든 한인 입양아들의 이중 국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의 공식 출판물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들은 그들이 가진 한국

#### 504 국제고려학 16호

인의 육체,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받은 그들의 문화적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한국을 국제사회와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E. Kim 2007: 507). 해외 입양아들과의 이런 관계 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정부가 목표로 삼는 '괴'로 이어진 세계 한민족 공동체의 이상향에 합쳐져 간다(H binette 2003: 263).

### 2.1.3. 해외한인들 데려오기

199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인 자손들의 일부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위한 노력도 했다. 특히 중국이나 구소련에 남겨진 한인 독립투사들의 후예들과 사할린의 한인들의 경우가 그랬다. 가장 잘 알려진 한국으로의 영구귀화는 사할린에서 귀화한 노인들이다. 이들의 귀화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3천명이 넘는 사할린 한인들이 한국에 살고있다. 사할린 한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1996년 일본 적십자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투사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한국에서 늘 어느정도 특별한 대우를받았으며, 그들이 외국에 돌아오면 시민권과 함께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해왔다. 정착 지원금, 주택, 교육 등의 혜택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2012년에는 중국으로부터 13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들어와 시민권을 인정받았다(SBS August 13, 2012). 비록 너무 소극적이고 느리다는 지적을 받기기는했지만 한국정부가 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탈북자들의 "고국으로의 귀환"도 이런 범주에 속하며 그들도 정착 지원을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따라서 북한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한국으로 오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데,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은 주택, 취업, 그리고 다른 정착 서비스를 받는다.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수는 2만8천명에 달한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과 구소련의 고려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일종의 귀환인데, 이들 가운데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국적을 되찾음 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 중국 조선족 가운데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국적회복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장자들이지만, 이들이 국적회복을 한 다음 자식들과 친인척들을 초청하고, 초청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 2.2.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형성

한국 정부는 세계 각지의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묶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는데, 무역 중진을 위한 단체인 세계한인 무역협화(Overseas Korean Trade Association; OKTA)를 위시하여 위에서 언급한 한인 입양아 출신들, 청소년 단체, 여성 단체, 외국인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 한인 네트워크망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그 결과는 이들에 의한 다양한 행사들과 인터넷 사이트들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동포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재외동포 지도자 모임 같은 행사에 초대를 받는다. 한국 정부는 또한 재외동포를 위한 운동 대회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같은 행사들을 주최하여 재외동포들간의 네트워크 결속은 물론 이들이 민족적 소속감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은 재외한인 청년들 사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면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그 밖에 재외동포 청년들이 한국으로와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재외동포 청년들이 차세대로서 자신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또 조국인 대한민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인 EPIK와 Talk등도 영어권 국가 출신 한인 청년들이(물론 이 프로그램들은 오로지 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와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고국과 연결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2.3. 이민 사회에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파

한국정부는 또한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또 한국문화를 배우도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것은 물론 이민 2세대 또는그 후세대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어디서든지 한인 재외동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정부가 직접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교육활동들을 지원하였다. 지원활동은 교과서의보급,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위한 한국 견학, 한국어 교사들의 해외파견, 그리고 재외 교사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한국정부의 다양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하나인 해외의 한국문화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지만 재외동포의 교육을 위한다른 프로젝트인 한국교육원들은 교육부가 운영한다. 이 두 기관들은 전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 일을 하고있다. 교육부는 1990년대초부터 재외국민교육원이라는 이름의 한국어 학교들을 다수 운영하였다. 이름으로만 봐서는해외 거주중인 재외국민들만을 위한 시설 같아 보이지만, 실상 대부분의 교육원들이 재외국민 인구가 극히 적은 곳에 세워진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의교육 대상은 오히려 재외 동포들이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타쉬켄트, 카작스탄의 알마틔, 그리고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등에 이미 1990년대 초에 교육원이 개설되었는데, 이들 기관에서 가르치는 한글 과정은 지극히 기초적인 과정에 불과하여 한국어의 수준이 높은 재외국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알마틔와 타쉬켄트의 교육원은 결국 한국어를 교육시킨다기보다는 공산권에 속했던 이 지역의 재외동포들에게 한국문화를 전파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던 같다. 이들 기관들은 실제로 이지역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민족교육에 밑거름이 되었다.

덧붙여 한국정부는 이미 오랫동안 재외동포들이 문화관광과 가족들과의

재회를 위해 고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1989년부터 국민생활체육회의 주최로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한민족축전 같은 것도 이런 활동의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회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한인대표들이 초청된다. 재외동포법(1999)에 의하여 재외동포들이 고국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더불어, 2011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영구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안이었지만 한국 내에서도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나간다는 걸 반영한 것이다.

사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이미 60년대와 70년대에 이뤄진 바가 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었다. 그러나 1975년 전쟁이 끝난 후 이 제도는 취소되었다. 1999년, 재일교포들이 헌법의 조항을 들어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을 주장하였으나 한국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2007년, 법원은 1999년의 판결을 뒤집으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Kalicki 2009a; 2009b). 그리하여 2009년에 법이 개정되고 2012년에 처음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있었다. 1 그러나 일부 차세대 한인동포들은 재외국민 투표가 한인이민자들이 현지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과 활동에 해를 주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Chung 2009). 2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재외동포들을 범국가적 민족공동체에 엮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는 장거리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국경 없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표방한다. 이는 한국 내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인들의 범민족주의를 이끌기 위해서다. Bauböck 이 옳게 지적했듯이 만약 국가가 공통된 언어, 역사, 문화 또는 전통을 공유한 상상된 공동체이라면 그 멤버십은 굳

<sup>1</sup> Kalicki는 한국의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논쟁이 세금과 병역문제를 포괄한 시민권리에 관련한 것이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비해 2006년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준 일본의 경우 논쟁은 투표권자의 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자격 문제에 국한되었었다(Kalicki 2009a; 2009b).

<sup>2 2012</sup>년 10월 한국 정부는 재외 유권자들이 이메일을 이용하여 현지 영시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그 국가의 영토내에서 사는 사람에게만 국한될 필요성이 없다 (Bauböck 2007: 2414). 그리고 남한 국가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북한국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언제나 이런 관념을 받아들일 것이다.

# 3. 왜 탈영토적 민족국가를 지향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초에 들어서야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에 대해 국가적 수준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민족공동체에 소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벌여왔다. 여기에는 재외한인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을 한국민족의 상상된 공동체로 껴안으려는(따라서 글자 그대로 "탈영토적"이다) 노력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장거리 민족주의를 세우려는 노력도 역시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한국 국가는 1990년대 초에 이런 탈영토화한 민족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 이 장에서는 남한 국가로 하여금 이런 노력을 경주하여 재외동포들에게 거의 남한 국민들에 준하는 권리를 누리도록 한 국내적, 국제적 필요와 이익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국의 정부와 재외동포들의 관계에서 민족국가들은 자신과 세계체제의 관계를 고쳐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Smith 2003). 멕시코 국가와 미국내 멕시코 이주민들의 관계, 이탈리아 본토와 미국에 정착한 이탈리아계 이민자들, 그리고 폴랜드 국가와 재미 폴랜드인들의 관계는 이들 나라들과 세계체제와의 관계가 변할 때 이들 나라들이 그들의 재외동포들과의 관계를 바꾸려 했음을 보여준다(Smith 2003). 필자는 한국 역시 한국국가가 세계체제에 더욱 밀접하게 편입하려 했을 때 한국국가와 재외동포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한국의 경우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 국내적 요소들도 작용했다.

## 3.1. 남한 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도전들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도의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과다한 인구 증가와 가난이었다. 이 때(1960년대 초) 한국의 인구는 2천7백만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00달러였다. 한국의 인구는 1970년에 3천2백만으로 늘었고, 다시 1980년에는 3천8백만으로 증가했다.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이동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만 해도 70% 가량의 남한 인구가 시골에 거주하였으나, 80년대에는 고작 30% 이하의 인구만이 시골에 남았다. 이런 거대하고 빠른 규모의 도시화는 도시의 공장지대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아무튼 1960년대 초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62년에 집중적인 가정계획을 세워 산아제한을했으며 동시에 해외로 많은 노동력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각각 1963년과 1966년에 시작된 서독으로의 광부수출과 간호사수출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갑작스럽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상경하는 농촌출신 남성 인구들은 이미 1980년대가 되면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성 인구들은 여전히 농촌에서 도시로 꾸준한 이동을 보였으며, 이로써 지역적으로 심각한 인구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농촌 남성들이 외국인 아내들을 맞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농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감소하면서 도시에서는 노동력의 부족이 초래되면서임금이 상승하였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 말에 오면 아주 심각해져서 소위 "3D" 직종들은 주변 후진국으로부터 이주한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곧 이어 낮아진 출산율(OECD 내에서 최하)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의 위협이 한국에 닥쳐왔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인구증가를 억제하려고 산아제한을 하고 노동력을 수출했던 현실에서 인구감소의 위협에 당면한 한국정부는 이런 급박한 변화에 당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외국으로의 이민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미국 등지로의 대규모이민이 장려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보다는 그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더

나은 질의 삶과 자식들을 위한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중산층 가정들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그리고 그 외국인들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여태까지 세계에서 가장 단일민족적 나라였던 한국 사회에 새로운 현실이 되고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인 혈통을 가진 인구의 감소, 비한국계 외국인의 증가, 그리고 꾸준히 나타나는 외국으로의 이주자 들, 그리고 이의 결과로 계속 증가하는 재외동포들이다.

## 3.2. 경제적 필요

국제이주는 송출국가의 경제적 이익, 특히 송출국가로 이민자들이 보내는 송금을 위해 이용되어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외국의 한인들로부터 보내지는 송금이 크게 중요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모국에 했던 투자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서독으로 파견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개발자금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임금이 높은 선진국으로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이런 자금을 얻기에 좋은 방법이었다. 또한 한국 내의 인구증가와 취업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세계 경제 속에서 빠르게 성장해가던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의 경제적이익을 위해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재외동포들은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냉전시대가 끝난 후 한국 정부와 사회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소련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2백50만 명을 "재인식" 하였고 그들의 경제적 잠재력 (그리고 정치적 잠재력도)을 알게 되았다. 공산권의 몰락과 변화 후 새로이 열린 중국과 구소련의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던 한국기업들에게 이들 재외동포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시장 개척과 원자재 확보를 위하여 중국과 구소 런의 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그 때까지 한국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거 의 모든 원자재는 모두 선진국인 구미와 일본의 회사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 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었다. 그래서 냉전이 끝 나가던 1980년 말엽에 중국과 소련은 한국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타났으 며 그 두 나라의 거대한 시장 속에 살고있던 조선족과 고려사람 등의 재외동 포들의 존재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했다. 이미 오랫동안 시베리아의 천연자 원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던 현대의 정주영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자신 감과 기대를 표했다:

비록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시베리아의 천연자원 개발을 앞서서 시작했지만,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관계로 인하여 큰 성과를 보지못하였다. 우리는 일본과 비교할때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사할린과 시베리아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많은 수의 우리 동포가 거주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만주에 살고있는 중국 동포들의 노동력을 시베리아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말이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보다 훨씬수월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시베리아의 자원을 개발을 할수 있는 이유다(정주영 1997).

글로벌 무대 속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동포들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알고있던 사람은 정주영만이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무렵 재외동포 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그 때가 해외 동포들이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담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기였다. 해외 동포를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을 이끈 이원범은 이런 담론을 지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해외동포는 국가의 자산이며,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 재단같은 정부 기관을 설립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원범 1997).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해외동포들에 대해 갖고있는 부정적인 생각 즉, 해외동포들이 국가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생각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해

외동포들과 대한민국은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해외 동포의 지위 상승은 글로벌 커뮤니티 속의 대한민국의 지위 상승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권위 상승은 해외 동포의 지위 상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이워범 1997).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 세계의 한인들을 아우르는 범한민족주의를 옹호했고,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사회가 추구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중국에 200만, 일본에 80만, 그리고 미국에 120만명이 넘는 동포들이 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그 수는 500만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동포들이 4대 강국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인 나라들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글로벌 정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이다. 우리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협력하여 범세계 한인커무니티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거주국과 모국과의 관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한다. 우선 그들로 하여금 거주국에 충성하도록 하며, 둘째로는 거주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기위해 노력하게 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범한민족주의는 편협한 범독일주의 또는 범슬라브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구종서 1995: 177-178).

한국이 금융 위기에 처한 1997년말 한국은 해외동포들의 도움이 절실했을 때, 부유한 나라들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대한국 투자가 많았다. 해외의 동포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1999년의 재외동포법은 실제로 어느 정도는 1997년 한국 금융 위기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 3.3. 인구학적 필요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의 갑작스런 정책변화는 한국 사회내부의 다양한 필 요성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첫 "재외국민정 책"은 한국이 1960년대초에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할 무렵 인구의 과잉을 완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은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의 다른 후진 국들처럼 1960년대에 심각한 인구 과잉문제를 겪고 있었고, 해외로의 이주는 이 문제를 완화시켜줄 좋은 방법이었다. 이런 이유로 1960년대 초, 미국이 비유럽인 이민자들을 허용하도록 이민정책을 바꾸기 전, 한국정부는 남미로의 한인 이주를 추구했다. 또한 1990년대 초에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바꿨을 무렵 한국은 또 다른 인구학적 문제, 즉 줄어드는 출생률과 고령화되는 사회, 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고 있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인구 부족이었는데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남성들은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같은 외국으로부터 신부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서 고학력이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산층 가족들이 교육과 평화로운 삶을 찾아 지속적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 이민을 갔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 반면에 한국에 거주하는 비한국인 거주자들의 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었다. 어떤 정부라도 이런 문제에 당면하면 불안함을 느낄 것인데, 특히 종족적인 민족주의를 설립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한국 같은 나라에게는 특히 이런 일들이 심각한 도전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재외동포들에게 손을 뻗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는 단 한 사람의 "한국인"도 중요해졌다.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을 받아야하고, 한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이제 "한민족"과 "한국"을 규정하는데 영토는 확실히 덜 중요해졌다. 비록 "융통성있는 시민권" (flexible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이 외국의 시민권을 일종의 보험으로 여기는 개인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나오기는 했지만(Ong 1999), 한국의 경우 국가가 융통성있는 시민권을 도입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탈영토화된 민족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인구학적, 경제적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바로 정치 문화적인 필요이다. 우

선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또 대북관계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재외 한인들의 역사에 나타나 있는데, 식민지시대 당시 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의 미래에 유일한 정치적 희망이었을 때가 있었다. 한 국인에 의한 독립운동의 대부분은 나라 밖에서 행해졌는데, 바로 조국의 독 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한인들이 중국, 소련,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벌였던 반일운동과 구국투쟁이다.

고국에 대한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정치적 지지는 오늘 날 그들의 자손들이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 인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졌다. 많은 해외 한인들이 거주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정부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다른 사업체들 내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다른 서양 국가들의 한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이고 중산층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현지 국가내에서 영향력도 높다. 한국이 세계경제 체제와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재외동포들의 상황이 한국에 점점 더 중요해졌다.

한 예로, 2012년 프랑스의 새 정부에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Fleur Pellerin 이 장관직에 임명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뻴르렝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6살 때 프랑스 가족에 의해 입양되었다. 한국계가 서양 국가의 장관이 된 것은 처음이었으므로 이 보도는 한국에서 큰 뉴스였다(연합뉴스 2012). 한인이민자들이 현지 이렇게 거주국에서 잘 정착하고 주류사회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사회와 정부는 한국의 세계전략을 위하여 이런 재외동포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문화적인 이유도 있다. 한 예로, 1990년도 초에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즉, 맥도날디제이션)가 많아졌을 때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2백만 명의 조선족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는 소수 문화나 언어들은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족처럼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한인들은 한국어와 한

국문화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일 정한 수의 한국어 사용자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 속에서 한국어와 한 국문화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조 선족들이 중국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권중달 2000).

이런 이유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조선족들의 인력개발을 위해 한국 정부가 그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활동이 통일, 동북아시아의 발전, 그리고 남한의 인력수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조은상 2002).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들을 한국민족 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Shin 2006).

앞서 분석하였듯이, 한국 정부는 탈영토화된 민족국가, 그리고 장거리 민족주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범한민족주의를 앙양하며 세계적인 "한인 네트워크"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런 한국의 사례는 몇 몇 학자들이 제시한 대로 세계화와 초국가화 라는 도전에 대면해 민족국가의 존재가 더약화되지 않게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그 존재감을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의 한 예가 되었다.

# 4. 나가는 말

Waldinger와 Fitzerald가 지적한 것처럼 이민자들의 초국가적 생활방식과 활동은 민족국가에 의해 그 모양이 형성되고 또 통제되고 있다(Waldinger & Fiterald 2004). 그리고 민족국가들은 국가적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삶에 개입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국가 재외동포들에 대해 이루려고 했던 바인데, 한국국가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거의 시민권에 준하는 권한을 허용했고, 이들이 외국에서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 516 국제고려학 16호

한국 정부가 해외 거주 한인(디아스포라)들과 비거주적 시민들을 향해 취한 이런 여러가지 정책들은 한국정부와 한국사회가 당면한 내적, 외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때로 이런 변화들은 정치적으로 연루된 재외동포들의 손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 국가 또한 국가와 세계체제와의 관계로 인한 자국의 인구학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필요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외동포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렇다면 한국은 다시 "민족화"되고 "자국민 이주자는 포용하고 외국출신 이민자는 공격하는" 것과 같이 Joppke(2003)가 몇 몇 유럽 국가들로부터 목격한 현상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은 더 자유민주적이고 시민적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2006년 도에 외국출신 이주자들이 총선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한 국가이다. 이런의미로는 한국의 사례가 비거주 시민들과 비시만 거주민들 모두를 투표에참여하게 하는 Baubőck의 "스테이크홀더 모델"(Baubőck 2007)에 더 맞는 것 같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한국 정부와 사회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화, 초국적화 시대 에서 한국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인구적, 정치적, 문화적 필요 때문 이다. 한국의 지극히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 비한국계 인구의 증가 등의 현상을 고려해본다면, 한국 민족국가에게 재외동포를 더욱 더 포용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는 것 같다. 이런 한국의 재외동포 포용정책의 사례 는 비슷한 도전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구종서(1995) 「범한민족주의가 21세기 한국의 선택」, 『월간원』 1995년 8월호, 176-179. 권중달(2000) 「중국인과 한국인의 민족관 차이: 재중국 조선족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본적 검토」, 『중앙대학교민족발전연구』 Vol.4, 9-24.

김봉규(1998)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변화와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교민논총』 2, 1-5.

- 김봉규(1998) 「세계 한민족생활권에서 재일동포의 위치와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교민논 총』 2, 6-12.
- 연합뉴스(2012) 「한국계최초佛장관된플뢰르펠르랭」.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5/17/0200000000AKR20120517108900009. HTML?did=1179m. (2012.8.20)
- 윤인진(2007) 「남북한재외동포정책의비교」, 『한국사회』 Vol.16. No.1/2, 80-99.
- 이원범(1997)「해외동포재단 설립에 즈음해 해외동포는 민족자산」, 『매일경제』1997년 4월 24일.
- 정주영(1997)『새로운 시작의 열망』, 울산대학교출판부.
- 조은상(2002)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및 정책과제」, 『한국북방학회논집』 Vol.9, 223-242.
- Andersen, Benedict(1992) Long-distance Nationalism: World Capitalism and the Rise of Identity Politics. Amsterdam: Center for Asian Studies.
- Appadurai, Arjun(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ubock, Ranier(2007) "Stakeholder Citizenship and Transna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 Normative Evaluation of External Voting" Fordham Law Review 75/5, 2393–2410.
- Boyd, M. (1989) "Family and Personal Networks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cent Developments and New Agenda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638-670.
- Brand, Laurie (2006) Citizens Abroad: State and Emigra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ung, Aeran (2009) "The Politics of Contingent Citizenship: Korean Political Engagemen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Sonia Ryang and John Lie eds. Diaspora Without Homeland: Being Korean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47-167.
- Fitzerald, David(2008) A Nation of Emigrants: How Mexico Manages its Mig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amlen, Alan(2008) "The emigration state and the modern geopolitical imagination" *Political Geography*, 27/8, 840-856.
- Glick-Schiller, Nina(1999)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s: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pp. 94–119 in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edited by Charles Hirschman, Philip Kasinitz, and Josh DeWind. New York: Russell Sage.

#### 518 국제고려학 16호

- Hübinette, Tobias (2006)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adopted Koreans in Korean popular culture, Korean Studies Series No. 32, Seoul: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 Joppke, Christian (2003) "Citizenship between De- and Re-Ethniciz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44/3, 429-458.
- Kalicki, Konrad(2009a) "Electoral Rights Beyond Territory and Beyond Citizenship? The Case of South Korea,"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3, 289-311.
- Kalicki, Konrad(2009b) "Ethnic Nationalism and Political Community: The Overseas Suffrage Debates in Japan and South Korea." Asian Studies Review 33/2, 175-195.
- Kim, Eleana(2007) "Our Adoptee, Our Alien: Transnational Adoptees as Specters of Foreignness and Family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80, no. 2, 497-531.
- Kim, Eleana(2003) "Wedding Citizenship and Culture: Korean Adoptees and the Global Family of Korea." Social Text 21, no. 1, 57-81.
- Lee, Chulwoo(2010)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ate-Nation Nexu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0/2, 230-251.
- Ong, Aihwa(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 of Transnationality,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Ryang, Sonia(2009) "Between the nations: Diaspora and Koreans in Japan" in Diaspora without homeland: being Korean in Japan, edited by Sonia Ryang and John Lie, 1-20.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uerkens, Ulrike (2005) Transnational migrations and social transformations: A theoretical perspective Current Sociology 53/4, 535-553.
-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Smith, Robert C(2003) "Diasporic Memberships in Historical Perspective: Comparative Insights from the Mexican, Italian and Polish Cas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724-759.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5) International Migration.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publications/wallc hart/docs/MigrationWallChart2015.pdf.
- Yoon, In Jin(2007) "A Comparis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Policy of Overseas Korean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6, no.  $\frac{1}{2}$ , 80-99.

# 조선봉건왕조실록번역의 학술적 기초

송현원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민족문화유산이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대에 물려준 정신 및 물질적 재부로서 여기에는 한 민족의 장구한 력사발전 단계의 사회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이 풍부히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문화유산은 한 민족의 자주의 력사, 창조의 력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실물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해당 민족의 구성성원들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을 지니도록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도록 하는데서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족문화유산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랑찬 민족, 발전력사를 과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나서는 중요 한 문제이다.

우리의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서 민족고전유산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족고전유산에 대한 연구정리사업을 심화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국보급의 민족고전들을 비롯한 민족고전들을 번역, 출판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보급의 민조고전 조선봉건왕조실록을 전면 번역하여 출판한 것 은 참으로 민족문화사적인 거창한 사업이었다.

실록은 조선봉건왕조의 500년 력사를 왕대별로 년원일에 따라 기록한 정부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귀중한 력사문헌이다.

실록은 그 력사적 포괄기간이 장구하며 담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분량이 방대하나 력사문헌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며 국보적인 민족고전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문민족고전이다.

실록은 500여년에 걸치는 조선봉건왕조의 전 력사적 기간을 포괄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사서이다. 세계적으로 비교적 긴 력사적 기간을 포괄하고 분량도 많은 사서들이 적지 않지만 하나의 왕조사를 이 책처럼 오랜 력사적 기간을 담아 방대한 분량으로 편찬, 출판한 실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도 명실록이나 청실록을 비롯하여 몇종의 실록이 있지만 명실록은 그 포괄기간이 300년이 채 못되고 책수로는 500책으로서 조선봉건왕조실록은 이에 비하면 200여년의 포괄기간과 근 400책의 분량을 더 헤아리게 되는 장구한 기간의 방대한 사서이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 존속기간의 장구성을 전제로 하면서 이 장구한 기간의 민족사를 후세에 전하려는 의도, 그에 따르는 지구적인 편찬 조직 진행과 관련되는 것이다.

실록은 또한 그 수록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실록은 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사회생활로부터 천문, 기상, 지리, 의학 등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풍부한 내용을 폭 넓게 담고 있다.

정치관계 내용으로서는 당시의 중앙과 지방의 통치기구 구조와 그 변천, 정책작성과 그 시행과정, 각종 제도와 인사행정문제,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 건투쟁 등에 관한 것들을 풍부히 담고 있는데 일본침략자들의 침략을 반대 하여 투쟁한 임진조국전쟁자료와 16세기 림꺽정 농민무장대의 투쟁자료, 평 양지방인민들의 반봉건투쟁자료 등이 수많이 있다.

경제관계 내용으로서는 토지, 조세, 공납, 환자 관계와 수공업, 광업, 무역

등 여러 분야의 자료가 있으며 교육, 예술, 출판 등 문화관계 내용, 군종과 군사편제, 군사훈련과 군사시설을 비롯한 군사관계 내용도 폭넓게 담고 있 다.

자연과학관계의 내용 가운데는 특히 천문, 기상관계 자료들이 많은데 일식과 월식, 혜성의 출현, 눈, 비, 서리, 우박이 내리고 강풍이 분데 대한 관측자료들이 시일과 지역, 심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실려 있으며 지진, 해안 등에 관한 자료들도 적지 않다.

실록에는 이밖에도 주변나라들인 중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주의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관계 자료들, 주변나라들의 일부 력사, 문화관계 자료들도 실려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녀진, 일본, 류뀨 등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적 풍부한 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중국, 일본관계의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중단없이 올라있으며 류뀨에 대해서도 기후, 풍토, 물산, 세태풍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비롯하여 호상 래왕한 자료들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녀진관계 자료는 그 갈래와 거주지역, 그들 호상간의 관계, 경제생활, 우리나라와 중국 명나라에 대한 태도, 누르하치의 계보와 그에 의한 청나라 건국과정에 대한 정확하고도 상세한 리해를 줄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한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내외에 공인되고 있다.

중국에서 출판된 『청사잡고』나 『중국사학사』에 의하면 중국학자들도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6대조인 동맹가청목아에 대한 자료는 조선봉건왕조실록에 가장 명백하게 실려있으며 명실록에 실려있지 않고 청나라 사람들이 내놓고 말하지 않는 내용도 조선봉건왕조실록에는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실려있기 때문에 청나라 초기 력사연구자들의 필수자료로 된다고 그 사료적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실록이 이렇듯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진 력사문헌으로 될 수 있은 것은 원래 민족발전 력사의 내용이 다양한데다가 실록편찬에 기울인 선조들의 비상한 노력과 관련된다고 보아진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족문화유산을 창조하고 그 전질을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렇듯 값높은 이 민족유산은 옥에도 티가 있듯이 결코 스쳐버릴 수 없는 아쉬운 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서사생활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전문이 어려운 한문으로 씌여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록을 한문으로 씌여진 그대로 두어둔다면 후대에 가서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리용할 수도 없게 될 것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자명한 리치인 것이다.

선조들이 창조하여 후대에 남긴 모든 훌륭한 민족유산을 한없이 아끼고 그것을 후대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쏟아 부어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이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 오시였으며 주체59(1970)년 10월에는 또다시 실록을 전면 번역할데 대한 거창한 사업을 발기하시였다.

내외에 커다란 반향과 경탄을 불러일으킨 실록번역출판과 같은 민족문화적 대업은 이렇게 시작되고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 1. 실록번역에서 견지한 기본원칙

실록을 번역하는데서 견지한 기본원칙의 하나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록의 구성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이다.

실록은 봉건국가의 력사로서 어디까지나 봉건적인 국왕중심의 왕대사이다. 따라서 그 전반에 봉건유교사상과 그에 대한 선전, 국왕에 대한 우상화와 지나친 찬미 등으로 일관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력사적 사실들에 대한 부정확한 서술, 허황한 미신과 비과학적인 내용이 짙게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 및 사관들과 편찬자들의 세계관적 제한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봉건시기의 력사서적들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록에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번역하기 힘든 그런 내용도 실려있다.

실록은 편찬체제에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록이 편년체력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와 같은 편년체력사에 기전체력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세종실록』이 가장 심한데 애당초 그 편찬체제 문제로 론의가 많다가 결국 편년체로 편찬하면서 기전체력사의 지(志)에 해당하는 것들을 포함시키기로 락착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실록』에는 오례의, 악보, 지리지, 칠정산 등 36권이들어가게 되었다. 오례의는 봉건국가의 의식절차, 악보는 조회때와 제사때의 음악, 지리지는 당시 8도의 종합지리서, 칠정산은 력법을 수록한 것으로서 이것들은 각각 기전체력사의 례지, 악지, 지리지, 력지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는 칠정산을 비롯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서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다.

또한 일부 왕대의 실록들에는 수정실록이나 보충 부분이 첨부된 편찬체제가 반영되어 있다. 『선조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경종실록』들은 각각 원실록박에 『선조수정실록』, 『현종개수실록』, 『경종수정실록』, 『숙종실록』 로보궐정오』가 있는데 『선조수정실록』, 『현종개수실록』, 『경종수정실록』 은 원실록과 딴책으로 되어 있고 『숙종실록보궐정오』는 해당 권의 뒤에 첨부되어 있으며 권수로 보면 『현종실록』은 원실록보다 개수실록이 더 많다.

실록이 이렇게 수정실록이나 보충 부분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봉건 통치 계급 내부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던 심각한 당쟁과 관련된 산물이었다.

『선조실록』은 원래 북인파가 편찬한 것인데 뒤에 서인파가 집권한 후 원실록 편찬자들이 사관들의 글을 삭제해 버리고 근거없는 말들을 날조하여 시비를 뒤엎고 자기 당파를 극구 찬양하였다고 하여 수정실록을 편찬하였다.

『현종실록』인 경우에는 남인파가 편찬한 원실록에 대하여 그후에 집권한 서인파가 원실록 편찬자들 대부분이 나라를 그르친 간사한 무리들로서 기사 가 소루하고 인물 평가도 잘못한 것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 수정할 것을 청하여 개수실록을 편찬하였다.

『숙종실록』은 원래 로론파가 맡아 편찬을 거의 끝낼 무렵에 갑자기 정국이 바뀌어 원실록 편찬자들이 다 쫓겨나자 권세를 잡은 소론파가 수정할 것을 제의하여 보궐정오를 붙였다.

『경종실록』은 소론파가 편찬하였는데 뒤에 로론파가 득세하자 영조를 세제(世弟)로 세운데 관한 기사내용을 둘러싸고 원실록 편찬자들이 사실을 허구날조하였다고 하면서 수정실록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각 당파가 저마다 실록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편찬하려는 야망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당대의 관리들까지도 '당파의 여독이 선대의 실록에까지 미친다.'고 통탄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번지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수정실록이나 보충실록이 원실록과 함께 병존하는 것이다. 『고려사』와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에 걸쳐 고쳐 편찬되었으나 먼저 편찬한 것들은 다 폐기되고 나중에 편찬된 것만 남아있지만 실록인 경우에는 수정실록이나 보충실록이 병존하고 있다. 이것은 실록을 매우 중시하던 당대의 관점으로 일단 편찬된 것을 감히 폐기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으며 한편 당파의 립장과 편견에 의하여 수록된 사실들에 대하여 량본을 다같이 보존함으로써 후세에 시비가 갈라지기를 기대한 점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같은 실록에 원실록과 보충실록이 있다는 것은 번역가들에게 일정한 주견을 가지고 합당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실록이 성격상 봉건왕조의 국왕 중심 력사기록으로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다는 것, 편찬체제의 특성으로부터 리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된 지(志)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일부 왕대의 실록에 두 가지 본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상황은 실록 번역 성원들 속에서 그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다시 말하여 원문의 일부를 빼버리고 번역하는가 아니면 원문 그대로 번

역하는가 하는 심각한 주장이 엇갈렸던 것이다.

이런 실태를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문 그대로 번역할데 대한 원칙을 명철하게 내놓으시었다.

원문대로 번역할데 대한 원칙은 실록의 내용을 보태지도 덜지도 말고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으로서 민족고전 일반 특히 력사사료 관계의 민족고전에 대한 번역에서 신빙성과 과학적 가치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는 기본원칙의 하나였다.

사실 번역을 시작한 초기에는 실록의 내용 가운데서 비위에 맞지 않는 내용 들을 무턱대고 빼버리고 번역하려는 경향과 이런 내용의 기록들에 대하여 번 역자들에게 허용되는 한계 이상의 표현상 가공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이것은 바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민족고전 유산인 경우 그 일부를 빼버리거나 연구, 정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에 따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준으로 하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올바로 해석하고 왜곡되고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은 력 사적으로 고증하여 그 허위성을 밝혀내어 바로잡으며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계급적, 사회 력사적 제약성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립장과 태도가 서있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력사사료의 번역은 그 번역된 자료를 리용하는 과정에 그 리용자들이 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비판적인 태도와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과학성과 신빙성, 객관성을 담보하고 사료로서의 면모를 손상시키지 않고 완전히 보존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편향은 원문의 사료적 가치를 손상시키고 번역과정에 이러저러한 부족점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원문 그대로 번역할데 대한 원칙은 번역 일반의 본질적 요구를 가장 정확 히 반영하고 력사사료 번역의 특성을 옳게 살릴데 대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 하고 있으며 실록의 내용구성과 편찬체제상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것으로서 민족고전 번역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로 된다.

원문 그대로 번역할데 대한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실록번역에서 제기되던 이러저러한 편향들을 원만히 극복하고 이 사업을 올바로 벌려나갈 수 있었 다

실록을 번역하는데서 견지한 기본원칙의 다른 하나는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말로 번역할데 대한 원칙은 어디까지나고유말을 널리 쓰고 문화어 규범에 의거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풀어서 번역하는 것으로서 민족고전 번역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던 종래의 본질적 결함을 극복하고 번역문의 인민성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는 기본원칙의 하나였다.

원래 민족고전에 대한 번역과정에 번역언어의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편향은 어려운 한자말과 한문식 표현을 그대로 쓰거나 번역문장에 한문 고유의 문장구조를 기계적으로 옮겨놓는 등 문화어 규범과 맞지 않는 한문식 번역, 언해식 번역을 하는 것과 지나치게 현대화하여 력사물의 참맛 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은 바로 민족고전 번역의 기본요구와 목적을 올바로 리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우리 인민들에게 친숙한 문화어를 살려 쓰려는 관점과 립장이 굳건하지 못하고 번역자들에게 주어진 일정한 표현상 가공의 의무까지도 외면한데서 나온 것이며 력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요구를 옮게 구현하지 못하는데서 나온 것이였다.

더구나 원래부터 우리 말에 한자말이 깊이 침투되어 있는 사정은 자칫하면 기성 한자 어휘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낯선 한자말들이 더 침투되기쉬운 조건에서 이에 대하여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종래의 옛날책 번역에서 나타났던 부족점과 관련하여서도 절박하게 제기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옛날책에 대한 번역에서는 한문식, 언해식 번역이 많았으며 그 여파가 해방 후에까지 미치어 번역하였다는 것들조차 인민들에게 그대로 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옛날에 나온 국문고전들이나 번역된 책들은 례외없이 한자말을 우리 글자로 옮겨놓고 거기에 우리 말 토를 달아 놓은 것들이었는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번역방법의 여파가 해방 후에까지 적지 않게 미치어 우리 학자들이 번역한 책들에도 고유한 우리 말을 살려쓸 대신 어려운 한자말을 그대로 두는 편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읽기가 힘들 뿐 아니라 읽고도 잘 리해하지 못하여 책으로서의 리용가치가 크게 손상되었다.

민족고전에 대한 번역에서 나타난 이런 편향은 번역된 책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도 알 수 없게 하거나 반대로 옛날책을 지나치게 현대판으로 만들어고전으로서의 그 참맛을 잃게 하는 심중한 편향으로 된다.

후대들이 보고 알기 쉽게 우리 말로 번역할데 대한 원칙은 실록의 문체적 특성과 종래의 한문식, 언해식 번역의 결함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것 으로서 민족고전 번역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또 하나의 기본원칙 으로 된다.

알기 쉽게 우리 말로 번역할데 대한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실록번역본이 우리 인민들의 참된 향유물로 되고 먼 후대에까지 대대손손 전해져 갈 귀중 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값높은 민족적 재보로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실록번역에서 견지한 기본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실록번역사업이 아무런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끝나고 실록번역본이 과학성과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 담보된 믿음직한 책으로, 후손만대에 가서도 그 가치를 잃지않는 생명력을 가진 우리 인민의 참된 향유물로, 온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될 수 있게 되었다.

# 2. 조선식 한문요소들에 대한 해명

번역이란 하나의 언어로 씌여진 글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 옮겨놓는 작업

이다. 번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번역 대상의 언어에 대한 충분한 파악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한문도 하나의 언어로서 언어학적 구성과 일정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 한 문은 특히 자모문자에 기초하고 있는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글자가 수만자 가 되며 글자들마다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글자가 여러개의 뜻을 가지고 글자가 곧 단어로도 되고 있다. 따라서 수만자나 되는 글자들의 음과 뜻을 충분히 습득하고 단어들에 대한 폭넓은 리해와 문장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가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론의하면 일반한문의 내용을 번역하는데서는 그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번역자들의 언어학적 지식 소유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반한문을 번역하는데서는 두드러진 그 어떤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민족고전들에는 일반한문 속에 독특한 한문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글자와 어휘, 문장 등 모든 측면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이 독특한 문체야말로 우리의 민족고전들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 민족고전들은 중국사람들이나 인디아사람들이 쓰고 있는 한문투와는 차이나는 독특한 한문투, 리두가 섞인 한문투로 씌여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몹씨 힘들며 조선식 한문으로 되어있는 한문을 번역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다고 가르치시었다.

조선식 한문은 우리 선조들이 한문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 서사어로 쓰는 과정에 구두어의 강한 영향으로 생겨났다.

조선식 한문의 본질적 내용은 일반한문과 구별되는 독특한 한문 리두가 섞인 한문이라는 것이다.

한문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글자와 어휘, 문장의 모든 측면에서 자기의 일정한 체계와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문을 서사어로 사용하는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지 그에 내재하는 언어학적 체계와 규범에 의거하여야한다.

그러나 결코 한문의 고유한 언어학적 법칙에만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구두어의 반작용에 따라 이러저러한 자기식의 보충과 수정을 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나의 언어인 경우에도 장구한 기간의 내적 발전과정에 여러모로 변천이 있기 마련인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것도 서사어로만 받아들여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더구나 당연한 귀결이라고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문을 서사수단으로 쓰면서 한문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적지 않은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글자와 어휘들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이 미 있는 한자들에 새로운 음이나 새로운 뜻을 보충하고 한자의 음을 우리 말 어음체계에 복종시켜 끊임없이 변화시켰으며 한문문장을 우리말 문장구 조에 접근시키고 자기식 문장읽기방법을 고안하여 냈다. 이런 과정을 통하 여 조선식 한문이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 민족고전들에 반영되게 되었다.

조선식 한문의 본질적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리두가 섞여있고 우리나라 에서만 쓰이는 고유한 한문 요소들이 일반한문 가운데 적지 않게 섞여있다 는 것이다.

조선식 한문의 내용은 무엇보다 먼저 리두가 섞여있는 한문투라는 것이다.

리두란 우리 선조들이 한문을 서사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한자의 음이나 한 자의 뜻, 그리고 새로 만든 한자모양의 글자들을 가지고 우리 말을 적은 독 특한 서사체계, 서사방식이다.

리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전에 발생하여 오랫동안 쓰이여 오면서 리두글자, 리두어휘, 리두토, 리두문장 등 일정한 체계를 갖춘 독특한 우리 말서사체계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리두라는 것도 한문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문과 밀접 한 련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한문과 쉽게 융합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리두가 기사수단으로 삼고있는 것은 일부 새로 만든 리두글자밖에는 모두 이미 있는 일반한자들로서 그 음과 뜻을 빌어 우리 말을 적었고 나아가서 필요되는 리두음이나 리두뜻을 일반한자에 더 보충하였으며 새로 만든 리두 글자인 경우에도 순전히 일반한자의 조성원리에 의하여 만들었거나 심지어 정음자의 받침형식으로 결합된 리두글자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일반한자들을 조성자료로 하여 합성하였다. 따라서 리두글자는 기본적으로 한자의 외피를 쓰고 있다.

리두어휘인 경우에도 그 조성에 참가하고 있는 글자들은 대부분이 한자이 거나 한자의 외피를 쓰고있는 리두글자이다.

문장인 경우에도 주로는 한문으로 씌여있고 단지 문장어순이 리두식어순 곧 우리 말 문장어순으로 짜여졌거나 문장 속에 리두토가 들어가 짜여져 있 다는 점에서만 일반한문 문장과 차이난다.

이러한 리유로부터 리두는 일반한문 속에 쉽게 침투될 수 있었고 그것과 자연스럽게 융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리두가 섞인 한문, 조선식 한문이 생겨나게 되었다.

조선식 한문의 다른 하나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만 고유하게 쓰이는 한문 요소들이 일반한문 속에 섞여있는 한문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한자모양의 글자나 일반한자 어휘 형식의 어휘들은 우리의 민족고전에서만 쓰이고 있는 점에서 일반한자나 일반한자 어휘와 구별되며 또 리두적 색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리두글자나 리두어휘와도 구별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새로 만든 글자나 어휘라고 하여 그것을 일괄하여 리두 글자나 리두어휘라고 단정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론의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 면 리두글자나 리두어휘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은 그것들이 새로 만든 글자나 어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 리두적 색채가 반영 되어 있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인 경우에는 밀몰아 리두어휘롤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글자인 경우에는 연구를 더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고유 조선한자 어휘이다. 고유 조선한자 어휘 는 그 조성에 참가하는 한자들이 모두 일반한자이고 조성수법이 일반한자 어휘와 다른 점이 없으며 단지 다른 나라의 사전에 올라있지 않고 우리의 민족고전에서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한자 어휘와 구별될 뿐이다. 이 런 점에서 이것도 조선식 한문의 표징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식 한문은 리두가 섞인 한문투를 기본으로 하면서 고유 조선한자 어휘도 섞여있는 독특한 한문이다.

실록에도 조선식 한문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록의 번역방법을 론하는 데서는 무엇보다도 이 조선식 한문의 요소인 글자, 어휘,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고찰·해명하고 그것을 번역과정에 어떻게 구현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심문제로 된다.

### 2.1. 글자

일반적으로 글자는 모양과 음을 가지고 있으며 한자와 같은 뜻글자인 경우에는 그밖에 뜻을 더 가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한자를 받아들여 오랫동안 서사수단으로 써오면서 그 과정에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 내거나 이미 있는 한자에 음과 뜻을 새로 보충하여 쓰기도 하였다.

원래 한자는 뜻글자로서 그 조성방법이 다양하다. 그런데 한자를 받아들 여 서사수단으로 리용하는 어떤 나라에서나 자체의 언어 생활상 필요에 따라 한자조성의 일반적 원리에 맞게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 내거나 자기 나라 글자의 활용원리에 의거하여 글자들을 만들어 쓸 수도 있으며 한자 활용의 일반적 원리에 맞게 이미 있는 한자에 새로운 음이나 뜻을 보충하여 쓸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자를 서사수단으로 받아들일 때 글자의 모양과 뜻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음은 우리말 어음체계와 일정한 대응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음과 뜻을 보충하여 썼다.

새로 만든 글자에 대해서는 크게 한자조성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만든 것

과 정음자의 활용원리에 맞게 기성한자들에 다른 글자들을 받침형식으로 결합시켜 만든 것으로 갈라서 고찰할 수 있다.

한자는 그 조성구조에 따라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네 가지로 구분하고 그 활용 원리에 따라 전주(轉注), 가차(假借)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통털어 륙서(六書)라고 일러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선조들은 새로운 글자들을 만드는데서 기본적으로 한자조성 원리에 의거하였다.

한자조성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새로 만든 글자들은 그 구조로 보아 일반 한자와 전혀 다른 점이 없어 자서들에 의거하여 대조·확인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원래부터 써오는 한자인지 아니면 새로 만든 글자인지 하는 것을 갈 라낼 수도 없다.

한자조성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새로 만든 글자들은 그 대부분이 뜻과 음과의 겹자 곧 형성자의 조성구조로 되어 있다.

실록에는 이렇게 새로 만든 글자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미 그 음고 뜻이 해명된 것들도 있고 실록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들도 있었다. 실록 처음으로 나온 글자들에 대해서는 번역과정에 해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德 이 글자는 실록에서 처음으로 나온 글자인데 그 음과 뜻에 대하여 연구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선조실록』에서 黃水德이라고 쓴 고장 이름을 『정조실록』에서는 '黃水德'으로 썼다. 그리고 『백두산유록』, 『고금석림』, 『아언각비』와 같은 책들에서 산등판우의 펑퍼짐한 지대를 德이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德자는 바로 새로 만든 글자로서 음이 '덕'이고 뜻이 '덕'(더기)라고 판명할 수 있었다.

'리두글자'이 글자도 실록에서 처음으로 나온 글자인데 이 글자에 대해서는 해명한 것이 없으나 간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음과 뜻을 밝혀낼 수 있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燕伏苗에 대하여 주석하면서 연복묘를 방언으로 며(於)라고 하는데 곧 선복화(旋覆花)의 뿌리라고 하였으며 같은 책에서

선복(旋葍)을 메뿌리라고 주석하였다. 『물명고』에서도 선화(旋花)를 메꽃이라고 우리 글로 밝히고 선복(旋葍)을 메뿌리라고 주석하였다.

결국 燕伏, 旋覆, 旋葍은 같은 대상을 달리 쓴 것으로서 메를 이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자의 음은 며이고 뜻은 메라는 것을 밝혀 내었다.

'리두글자'이 글자도 실록에서 처음으로 나왔으며 역시 해명되지 않는 글 자였다.

해명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없으나 실록에 나오는 置 '리두글자' 衣左右라는 문장과 黑 '리두글자' 衣로 卷?야 至於燒火라는 문장의 내용을 통하여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금석림』에서는 荐衣라는 말에 대하여 세속에서 자그마한 이불을 천의라 한다고 주석하였다. '리두글자' 자의 薦과 荐의 음은 다같이 '천'이며 내용으로 보아 '리두글자'衣 荐衣는 그 뜻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글자의 음은 '천', 뜻은 자그마한 이불이나 어린애를 싸업는 포대기의 한가지인 처네로 판명하였다.

囕 이 글자도 실록에서 처음으로 찾아 내었고 옥편들에도 올라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글자의 뜻을 밝혀낼 수 있는 요긴한 자료가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에 나왔다. 『현종실록』에서는 범이 나라말 25마리를 물어 죽였다고 쓰면서 囕殺이라고 썼고 『현종개수실록』에서는 이 내용을 쓰면서 咬殺이라고 썼다.

결국 이 글자의 음은 覽자의 음을 따서 '람'으로 되고 뜻은 범이 물다는 뜻으로 되는 것이다.

새로 만든 글자들 가운데는 정음자의 활용원리에 맞게 기성한자에 다른 글자들을 받침형식으로 결합하여 만든 글자들도 있다. 이런 글자들은 그 구조와 음표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정음자의 활용원리에 부합되게 만든 것이다.

『훈민정음해례』에서는 받침은 가운데 소리를 나타내는 모음자 아래에 붙여 쓰고 받침자로는 14개의 자음 가운데서 ㄱ, ㅇ, ㄷ, ㄴ, ㅁ, ㅂ, ㅅ, ㄹ

8개만 쓴다고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이 8개의 종성이 다른 모든 종성의 음을 다 나타낼 수 있다고 본 데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는 ㄷ와 ㅅ는 한가지로 발음되기 때문에 7개의 종성만이 받침으로 쓰이였다.

정음자의 받침결합 형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에는 이런 활용원리가 적용 되었는데 받침처럼 쓰인 글자들은 다음과 같다.

- □ 정음자 □
- ㄴ 구결자 □(隱자의 부수인 쬠의 변형자)
- ㄹ 한자 乙
- ㅁ 한자 音
- ㅂ 한자 몹
- 스 한자 叱
- 하자 應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ㄱ으로는 한자가 아니라 정음자 ㄱ을 쓰고 ㄴ으로는 역시 한자가 아니라 구결자 卩을 쓴 것이다. ㅇ으로는 한자 應을 썼는데 그것이 받침형식으로 결합된 글자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은 정음자 받침들인 ᄉ, ㄱ, ㅂ으로 통용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ᄉ으로 널리 쓰이였다.

- 木 '唜'(굿) '리두글자'(줓)『실록』余叱(엿) 『향약집성방』
- 기 林'리두글자' 正(림꺽정)『실록』 卧叱多太(왁대콩)『금양잡록』
- ㅂ 仍叱菜(넘나물)\*『향약집성방』
- \* '넘나물'은 '넙나물'을 발음되는대로 표기한것이다.

叱자가 스, ¬, ㅂ으로 통용되고 ㄷ으로도 발음되는 것은 정음자에서 그 것들이 통용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 『훈민정음해례』에서는 붓을 붇, 못을 몯으로 쓰고 『훈몽자회』에서는 붓을 붑, 속을 솝, 밖을 밧으로 썼는

데 이것이 그 증거로 된다.

叱이 받침형식으로 결합된 글자들 가운데는 된소리로 읽는 것들도 있는데 역시 정음자의 활용방법을 따른 것이다.

'리두글자'介 똥개

'리두글자'正 꺽정

'리두글자'뿐

실록에서는 우에서 든 받침형식으로 결합된 글자가 나오기 전에 받침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글자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內隠(난)

石乙(돌)

古音(공)

古邑(곱)

者叱(잣)

加應(장)

실록에는 정음자의 받침형식으로 결합된 글자가 적지 않게 쓰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실록에서 처음으로 나온 글자에 대해서는 역시 번역과정에 해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리두글자'이 글자는 실록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그 음도 해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련의 자료들에 의거하여 이 글자의 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림원십륙지』에서 文鞭魚를 그리?로, 『리두편람』에서 方文里와 加文刺를 각각 방그리와 더그레로 밝혔는데 여기서 文자가 다같이 '글'로 읽혔다는 것 은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자의 음은 '글'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리'로 음 이 변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리두글자'이 글자도 실록에서 처음으로 나왔으며 해명되지 않은 글자였다.

실록에서는 고장 이름과 문서 이름에 쓰이였다. 고장 이름인 '리두글자' 加 退件加堆로도 쓰고 있으며 『대동여지도』에서는 件加堆로 썼는데 이렇게 같 은 고장 이름을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이 점이 바로 이 글자의 음을 바로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된다.

件자는 원래 물건을 헤아릴 때 한 가지 두 가지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더 올라가서는 옷가지를 세는 단위사인 한벌, 두벌 하는 뜻을 가 지고 있다. 그런데 벌은 고어로 '?'이다. 물건의 종류나 수량을 적은 명세서 인 件記도 건기로 읽은 것이 아니라 ?지로 읽었다.

그러므로 우에서 든 고장 이름인 件加堆나 件加退도 건가퇴가 아니라 발가퇴로 읽어야 타당한 것이다. 그것을 반증하는 자료로서는 우의 고장 이름들을 『세종실록』에서는 孛加退(발가퇴)로 쓰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리두글자' 자는 그 음이 '발'로 되는 것이다.

우에서 든 정음자의 받침결합 형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은 모두 받침으로 되는 글자가 아닌 웃쪽의 글자들을 한자의 뜻으로 읽은 것이다.

정음자의 받침결합 형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에는 받침으로 되는 글자가 아닌 웃쪽의 글자들을 한자의 음으로 읽는 것이 많은데 妑(갈), '리두글자' (골), গ(둘), 乶(볼), '리두글자'(잣), '리두글자'(줏)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이미 있는 기성한자들에 음이나 뜻을 새로 보충하여 썼다. 이것은 륙서의 한자 활용방법인 전주와 가차의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실록에는 이렇게 새로 음이나 뜻을 보충한 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련의 문헌적 근거에 의거하여 그 음과 뜻을 올바로 밝혀내고 번 역과정에 구현하였다.

庫 일반한자로서는 음이 '고', 뜻이 창고인데 곳(군데, 장소)이라는 뜻을 새로 보충하여 썼다.

衿 일반한자로서는 음이 '금', 뜻이 옷깃인데 깃(몫)이라는 뜻을 새로 보충하여 썼다.

縛 일반한자로서는 음이 '박', 뜻이 얽다, 묶다인데 얼굴이 얽다는 뜻을 새

로 보충하여 썼다.

靱 일반한자로서는 음이 '십', 뜻이 아이 신발인데 '깁'이라는 음과 깁신(비 단신)이라는 뜻을 새로 보충하여 썼다.

洑 일반한자로서는 음이 '복', 뜻이 땅속으로 흐르는 물인데 '보'라는 음과 보(보뚝)이라는 뜻을 새로 보충하여 썼다.

干 일반한자로서는 음이 '간', 뜻이 방패인데 '한'이라는 음과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류라는 뜻을 새로 보충하여 썼다.

기성한자들에 새로운 음과 뜻이 보충된 글자들에 대하여 그 음과 뜻을 올 바로 해명하는 것도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었다.

### 2.2. 어휘

우리 선조들은 한문을 서사수단으로 써오면서 한자 어휘의 일반적 조성수법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고전에서만 고유하게 쓰이는 어휘들을 만들어 썼으며 우리 말 고유 어휘를 한자의 음이나 뜻을 리용하여 만들거나 표기한 리두어휘들도 썼다.

- 일반한자로 만든 어휘 擧條, 免新, 知家, 私馬上京, 三丁一子 - 새로 만든 글자를 섞어 만든 어휘 豫皮, 囕殺, 閪失, 田畓, 柧木 - 새로운 뜻을 보충한 글자를 섞어 만든 어휘

이런 갈래의 어휘들은 그것을 리해하고 번역하는데서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일반한자로 만든 어휘인 경우에는 주로 각종 제도와 관련된 것이 많은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免新이란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같은 동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선배들에게

음식을 차려 먹이거나 물건을 주는 등 한턱 내는 것인데 처음에는 문학 관계 관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뒤에는 일반 관청과 아전, 하인들에게까지 그렇 게 하도록 토색질이 가해졌다.

私馬上京이란 임금의 지시를 받고 지방에 파견된 관리나 지방의 관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시행하는 처벌의 하나로서 역마를 리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부담으로 말을 얻어 수도로 올라오게 하던 일종의 제재였다.

三丁一子란 향리가 그 신역을 담당할 아들 셋을 두었을 때 향리역을 면제 받는 한 아들을 이르는 말이다. 향리는 그 역을 세습하였는데 그 역이 고되 므로 아들 셋이 있을 경우에는 한 아들만은 향리의 역을 면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잡과에 응시하여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던 것이다. 향 리뿐만 아니라 수군이나 그밖의 다른 세습하는 고된 신역에는 이것이 적용 되었었다.

새로 만든 글자를 섞어 만든 어휘인 경우에는 그 새로 만든 글자의 음과 뜻이 해명되면 다른 문제는 없으나 새로 만든 글자들 가운데는 楓자와 같이 음을 나타내는 홑자 瓜를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같은 음인 '외'로 읽는 경우도 있다는데 류의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뜻을 보충한 글자를 섞어 만든 어휘인 경우에는 그 새로운 뜻을 보충한 글자를 판별하고 보충된 뜻으로 해석하도록 하기에 힘썼으며 件記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件자를 한자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뜻 발(벌의 고어)로 읽어야 한다는 것도 스쳐 보내지 않았다.

고유 조선말을 한자로 표기한 어휘들은 그 조성수법이 일반한자와는 같지 않고 조선말로 이루어져 있는 어휘들을 일반한자나 새로 만든 글자의 음이 나 뜻을 빌어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리두어휘들이다.

이런 어휘들에는 주로 사람 이름, 고장 이름, 물건 이름들이 많다.

표기류형은 기본적으로 한자나 새로 만든 글자의 음으로만 적은 것, 한자나 새로 만든 글자의 뜻으로만 적은 것, 한자나 새로 만든 글자의 음과 뜻을 섞어 적은 것으로 갈라볼 수 있다.

#### 540 국제고려학 16호

- 한자의 음으로만 적은 어휘 加里亇 가리마

古介 고개

把子 바자

雪馬 썰매

小時郞 쇠스랑이

阿只 아기

- 한자의 뜻으로 적은 어휘

日 耕

날일 갈경 날갈이

回 鞭

돌회 채편 도리채(도리깨)

※ 鞭 채편『훈몽자회』

耞 도리채가 『훈몽자회』

斗 落

말두 질락 마지기

※ 落 딜락『훈몽자회』

水 鐵

물수 쇠철 무쇠

開 金

열개 쇠금 열쇠

- 한자의 음과 뜻을 섞어 적은 어휘

鬼麥

귀 밀맥 귀밀

都里鞭

도리채편 도리채(도리깨)

資作木

자작나무목 자작나무

只火

기불화 기불(기울)

※ 多多只(다다기) 『금양잡록』牛阿之소우아지소아지(송아지)

고유 조선말을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어 표기한 어휘들을 처리하는데서 특별히 류의한 것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달리 표기한 것들이었다.

례를 들면 사람 이름에서 같은 한사람의 이름을 小斤伊와 者斤伊, 於于同과 於乙字同, 破回와 岩回로 표기한 것들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한 사람이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 되고 마는 큰 착오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小斤伊와 者斤伊에서는 小자를 한자의 뜻으로 읽고 者斤은 한자의 음으로 읽어야 같은 작은이로 되고 於于同과 於乙字同에서는 於자를 한자의 뜻 늘로 읽고 于同과 字同은 한자의 음으로 읽어야 같은 늘우동으로 되며 破回와 岩回에서도 岩자는 한자의 뜻으로 읽고 破자는 한자의 음으로 읽어야만 같은 바위로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고장 이름인 경우에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같은 하나의 고장 이름이 鳥嶺과 草帖, 皮島와 椵島, 牛山, 所山, 所伊山, 蘆洞과 磨乙骨, 孫石項, 孫乭項, 孫梁項으로 달리 표기된 것들도 바로 처리 하지 못하면 하나의 같은 고장 이름이 두개나 세개의 서로 다른 고장으로 되는 엄청난 착오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鳥嶺과 草帖에서 鳥는 뜻이 새(날아다니는)이고 草는 뜻이 새(풀)이며 嶺 과 岾은 다같이 재(고개)인만큼 이 두 표기를 한자의 뜻으로 읽으면 하나의 새재라는 같은 고장 이름으로 된다.

\*\* 木賊 束草(속새)『향약집성방』 嶺 재령『훈몽자회』帖 (재)『오주연문장전산고』

皮島와 椵島에서 椵는 뜻이 피(피나무)이고 皮는 음이 '피'로서 椵는 한자

의 뜻으로 읽고 皮는 한자의 음으로 읽으면 피섬이라는 하나의 같은 고장 이름으로 된다.

牛山, 所山, 所伊山도 牛는 한자의 뜻으로 읽고 所는 한자의 음으로 읽으면 소산, 소산, 쇠산으로서 하나의 같은 고장 이름으로 된다.

蘆洞과 磨乙骨에서 蘆, 洞, 磨를 한자의 뜻으로 읽고 骨을 한자의 음으로 읽으면 갈골이라는 하나의 같은 고장 이름으로 된다.

※ 蘆 갈로『훈몽자회』洞 골동『아학편』

孫石項, 孫乭項, 孫梁項에서도 孫은 한자의 음으로 읽고 石과 項은 한자의 뜻으로 乭은 리두음으로 읽으면 모두 손돌목이라는 같은 고장 이름으로 된다.

※ 梁 돌량『훈몽자회』⑦ 돌『오주연문장전산고』項 목항『훈몽자회』

이런 복잡성은 우리나라에서 한문 문장을 번역하여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 뜻으로 읽고 어떤 경우에 음으로 읽는가 하는데 대한 통일적인 언어학적 규범이 정연히 세워져 있지 않은데다가 그후 고장 이름들에 대한 한자화가 강행된 결과 하나의 같은 대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기되고 그것을 읽는데서도 혼란이 빚어진 데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휘들을 읽는 데서도 류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었다.

立廛, 件記, 尺文, 紅箭門, 魚箭 등은 원래의 한자음으로는 각각 립전, 발기, 척문, 홍전문, 어전이지만 이런 어휘조성에 참가한 일부 글자들은 한자의 음이 아니라 한자의 뜻으로 읽어 선전, 발기, 자문, 홍살문, 어살 등으로 읽어야 한다는 근거를 쥐고 그대로 읽었다.

그리고 고유말을 표기하는데 쓰인 일부 한자들의 음도 원래의 한자음과 달리 읽어야 한다는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번역에 구현하였다. 阿只, 波獨只, 月者只 등에 들어가 있는 只자의 한자음은 '지'이지만 '기'라 는 변화된 음으로 널리 쓰이였다.

『유서필지』에서 役只를 격기로, 惟只를 아기로 읽은 것을 비롯하여 只를 리두음으로는 '기'로 읽었다.

또 『향약집성방』에서는 遠志를 阿只草라고 쓰고 아기풀이라고 밝혔으며 『금양잡록』에서는 多多只를 다다기라고 하고 白黔夫只를 흰 검부기라고 하 였다.

따라서 우에서 든 阿只, 波獨只, 月老只도 각각 고유 조선말인 아기, 파도기(바둑), 다로기(도로기의 고어)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 2.3. 문장

우리 선조들은 한문을 서사수단으로 써오면서 한문의 문장구조를 우리 말문장구조에 접근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여왔다. 그리하여 리두식문장이 생겨나고 우리 말 어순에 가까운 한문 문장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조선식 한문 문장은 리두적 어순이 반영되어 있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한문 문장과는 일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문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어순과 조사가 중요한 문장론적 기능을 수행 한다.

그런데 조선식 한문 문장은 일반한문 문장안에 부분적으로 섞여있으며 따라서 일반한문 문장에서처럼 조사가 쓰이고 있다.

조선식 한문 문장과 일반한문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중요한 문 장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순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한문 문장에서는 한문 고유의 문장 구성 규범에 벗어나 우리 말 어순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선식 한문 문장의 중요한 언어학적 특성으로 된다.

조선식 한문 문장과 일반한문 문장의 어순에서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은 보어와 술어가 문장 속에서 놓이는 자리이다.

원래 한문 문장과 우리 말 문장에서 문장 성분들이 놓이는 자리는 같은

#### 544 국제고려학 16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우리 말 문장의 어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어가 앞에 놓이고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술어가 놓이며 규정어는 피규정어 앞에 놓이고 상황어는 술어 앞에 놓인다.

한문 문장에서는 주어가 앞에 놓이고 그 다음에 술어, 그 다음에 직접보어, 그 다음에 간접보어가 놓이며 규정어와 상황어는 우리나라 어순과 마찬가지로 각각 피규정어와 상황어 앞에 놓인다.

결국 한문 문장과 우리 말 문장에서 주어, 규정어, 상황어의 자리는 같고 보어와 술어의 자리는 다르다. 따라서 보어와 술어가 놓이는 자리는 조선식 한문 문장과 일반한문 문장의 차이를 규정하는 기본 기준으로 된다.

일반한문 문장과 조선식 한문 문장에서 보어와 술어가 놓이는 자리는 다음과 같다.

일반한문 문장 술어-직접보어-간접보어 조선식 한문 문장 간접보어-직접보어-술어 직접보어-간접보어-술어

조선식 한문 문장은 그 구조의 성격에 따라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 장과 일반한문 문장 어순에 우리 말 어순이 섞여있는 혼합식 어순으로 된 문장으로 갈라볼 수 있다.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과 혼합식 어순으로 된 문장의 차이를 규정하는 것도 역시 문장 안에서 보어와 술어가 놓이는 자리이다.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 간접보어-직접보어-술어 직접보어-간접보어-술어 혼합식 어순으로 된 문장 직접보어-술어-간접보어 △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되었다는 것은 문장 구성에 참가하는 문장 성분들의 자리가 모두 우리 말 문장 성분들의 자리와 일치하다는 것을 말한다.

순수 우리 말 문장 어순으로 된 문장은 보어와 술어의 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밖의 특성에 따라 몇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직접보어가 술어의 앞에 놓이는 문장

일반적으로 한문 문장에서는 직접보어가 술어의 뒤에 놓이는 것이 정칙적 어순이다. 그러나 조선식 한문 문장에서는 우리 말 문장의 어순과 같이 직접 보어가 술어의 앞에 놓이는데 이것이 조선식 한문 문장이 일반한문 문장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된다.

諸邑諸鎭諸浦軍器 摘姦『예종실록 5권』

(직접보어) (술어)

(여러 고을들, 여러 진들, 여러 포구들의 무기를 검열할 것이다.)

비교:

點檢 諸邑諸鎭諸浦軍器『예종실록 6권』

(술어) (직접보어)

(여러 고을들, 여러 진들, 여러 포구들의 무기를 검열할 것이다.)

- 간접보어가 술어의 앞에 놓이는 문장

일반적으로 한문 문장에서는 지점, 장소, 대상을 나타내는 간접보어가 술 어의 뒤에 놓이는 것이 정칙적 어순이다. 그러나 조선식 한문 문장에서는 그 런 간접보어가 우리 말 문장의 어순과 같이 술어의 앞에 놓이는데 이것도 조선식 한문 문장이 일반한문 문장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으로 된다.

鳳山等地 雨雹『숙종실록 5권』

(간접보어) (술어)

(봉산 등지에서 우박이 쏟아졌다.)

비교:

雨雹于碧潼『숙종실록 5권』 (술어) (간접보어) (벽동에서 우박이 쏟아졌다.)

#### - 직접보어와 간접보어가 모두 술어의 앞에 놓이는 문장

일반적으로 한문 문장에서는 직접보어와 지점, 장소, 대상을 나타내는 간접보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 직접보어는 술어의 바로 뒤에 놓이고 간접보어는 직접보어의 뒤에 놓이는 것이 정칙적 어순이다. 그러나 조선식 한문 문장에서는 직접보어와 간접보어가 다같이 술어의 앞에 놓이며 직접보어와 간접보어의 자리도 서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선식 한문 문장이 일반한문 문장과 구별되는 차이점의 하나로 된다.

米二百石 內需司 輸送 『광해군일기 80권』 (직접보어) (간접보어) (술어) (쌀 200석을 내수사에 실어보낼것이다.) 平安道 木麥種一萬石 題給 『세종실록 108권』 (간접보어) (직접보어) (술어) (평안도에 메밀종자 1만석을 떼여줄것이다.) 비교: 輸送米三十項于鄭眉壽家『연산군일기 52권』 (정미수의 집에 쌀 30석을 실어보낼것이다.)

#### △ 혼합식 어순으로 된 문장

혼합식 어순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떤 문장에 일반한문 문장 어순과 우리 말 문장 어순으로 된 문장이 섞여있는 것 곧 일반한문 문장 속에 일부 문장 성분들이 우리 말 문장 어순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혼합식 어순으로 된 문장에서도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과 마찬가지로 론의의 중심은 보어와 술어가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 문제이다. 혼합식 어순으로 된 문장은 문장 구성에 우리 말 어순으로 들어가는 성분들의 자격에 따라 몇가지로 갈라볼 수 있다. - 개별적 단어가 우리 말 어순으로 들어가 문장

이런 문장은 개별적인 단어가 우리 말 어순으로 일반한문 문장 속에 직접 보어와 가접보어로 들어가 이루어진 문장이다

米二十項輸送于鷹房『연산군일기 52권』 (쌀 20석을 응방에 실어보낼것이다.)

이 문장은 직접보어와 술어와의 관계에서는 우리 말 어순으로 되고 간접 보어와 술어와의 관계에서는 일반한문 문장으로 되어있다. 이런 점에서 혼 합식 어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갈래의 혼합식 어순으로 된 문장은 직접보어나 간접보어만이 우리 말 어순으로 문장 구성에 들어가는 경우와 직접보어와 간접보어가 모두 우 리 말 어순으로 문장 구성에 들어가는 경우로 갈라볼 수 있다.

·/직접보어-술어/인 경우

胡椒二十石入內 『연산군일기 52권』

(후추 20섬을 대궐에 들여올것이다.)

· /간접보어-술어/인 경우

於南山種松柘『태종실록 21권』

(남산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을것이다.)

·/직접보어-간접보어-술어/인 경우

弓子… 抹樓下埋置『고아해군일기 1권』

(활…을 마루밑에 묻어두었다.)

·/간접보어-직접보어-술어/인 경우

年過七十者紬木各一疋加給『영종실록 109권』

(70살이 넘은 사람에게는 명주와 무명 각각 1필씩을 더 줄것이다.)

- 우리 말 어순으로 된 구가 우리 말 어순으로 들어간 문장 이런 문장은 개별적 단어가 우리 말 어순으로 일반한문 문장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경우와는 달리 우리 말 어순으로 이루어진 구가 일반한문 문장의

성분에 우리 말 어순으로 들어가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런 갈래의 혼합식 어순으로 된 문장은 우리말 어순으로 된 구가 일반한 문 문장의 어떤 성분으로 들어가는가에 따라 주어구로 문장 구성에 들어가 는 경우, 직접보어구로 문장구성에 들어가는 경우, 간접보어구로 문장 구성 에 들어가는 경우로 갈라볼 수 있다.

· 주어구로 문장 구성에 들어가는 경우

天二青大中小并三百塊載船到泊於豆毛浦『연산군 54권』

(천이청 큰것, 중질, 작은것 모두 300덩이를 실은 배가 두모포에 와 대였다.)

· 직접보어구로 문장 구성에 들어가는 경우

病人救療唐藥難備『세종실록 23권』

(앓는 사람들을 치료할 단약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 간접보어구로 문장 구성에 들어가는 경우

金豆仇里盖兒覔進人萬山給綿布五十匹『성종실록 4권』

(금두구리뚜껑을 찾아 바친 사람 만산에게 무명 50필을 줄것이다.)

조선식 한문 문장에는 일반한문의 정상 규범과 어긋나는 현상도 반영되어 있다.

일반한문 문장에서는 有,無와 같은 글자들이 반드시 그와 관계를 맺는 단어의 앞에 놓이는 것이 규범이지만 우리의 민족고전들에서는 그와 어긋나 게 뒤에 놓이는 실례들이 나오고 있다.

『문종실록』에서는 『옹성이 없다』, '나라창고가 없다'는 내용을 擁城無, 國庫無라고 썼고 '동문이 있다.'는 내용을 東門有라고 썼다.

또 일반한문 문장에서는 自, 至와 같은 글자들도 그와 관계를 맺는 단어의 앞에 놓이고 있으나 『선조실록』에서는 '미시부터 신시까지'라는 내용을 未時始申時至라고 썼으며 『태종실록』에서는 '료동까지 호송하였다'는 내용을 遼東至護送이라고 썼다.

우리의 민족고전들에 쓰인 한문 문장들에는 일반한문 문장과 그 구조가 같은 내용인 경우에도 조선식 한문 요소들이 여러모로 반영되어 있다. 앞에

서 이미 말한 리두글자나 리두어휘들, 조선 고유 한자 어휘, 리두토들을 들 수 있다.

이런 글자와 어휘들은 오랜 기간을 두고 써내려 오는 과정에 그 음과 뜻이 끊임없이 변천되고 지방적 차이들도 생기게 되어 해석이 쉽지 않은 것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문의 문장 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 문장 내용을 리해하는데서는 일정한 난점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매우 복잡하고 량적으로도 적지 않은 리두토인 경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리두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성과들에서 읽기와 기능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정리,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리두토가 쓰이고 있던 당시에 그에 대한국가적 규범화가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 속에서지방적 차이가 생겼으며 오랜 기간의 변천이 있은 것 등 사정으로부터 오늘날의 언어 규범으로는 리해되지도 않고 현대 조선말토의 기능과 맞지도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록에는 리두토가 달린 문장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지만 『비변사등록』이 나 『승정원일기』 등에 매우 많이 나오는 것만큼 이 문제는 해결을 요하는 과제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실록번역의 학술적 기초와 방법에 대하여 조선식 한문을 기본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보았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우리의 민족고전들에 반영된 조선식 한문에 대하여 충분히 고찰·해명하고 그것을 번역 사업에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한문은 물론리두와 조선말고어 등 련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리해를 가지고 총발동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고 말할 수 있다.

# The Significance of the Sillok in the Western World

-Past, Present, and Future-

Milan Hejtmanek Seoul National University

#### 1. Introduction

Historical texts have an unsettled and elusive relation with any given age. Morphing in social significance to meet the often inchoate needs the day, they present a fresh visage to each new reader. As a massive text of texts—each constituent section itself replete with complex possibilities deriving from vastly different regions of the Korean past—the *Chosŏn wangjo sillok* (hereafter referred as the *Sillok* or Veritable Records) in its various incarnations has proven during its short life in the West of almost 60 years has spurred the discovery, rediscovery, and elaboration of much new knowledge. And this process has barely just begun.

#### 2. Pas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illok* created the field of Chosŏn-period stud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It is now impossible

to conceive of sustained scholarly encounters with the Korean past from the 15<sup>th</sup> to the 19<sup>th</sup> centuries absent the fundament of the *Sillok*. To be sure, historical studies in Western languages, typified in the English language by works such as those by James Scarth Gal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1926) and Homer Hulbert (*History of Korea* 1905) strove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d accurate narrative of the Korean past, but they suffered from lack of access to the great wealth of Chosŏn-period sources that have been made available after 1945.

This was facilitated politically by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nation from the Japanese empire, which had limited access to great bulk of the documentary treasures of the Korean past, and by the Herculean efforts of scholars, both in the ROK and DPRK, at a time of dire national privation. The resulting flood of publication from the 1950s through the 1970s of a vast corpus of representative historical texts ranging across the entire landscape of the Korean past and the subsequent first discoveries of entirely new historiographical realms is a fascinating moment in intellectual history and perhaps one day will receive the detailed attention it deserves. This movement had its impact in the West in buttressing the formation of Korean studies in a dozen or so academic institutions, given birth in the context of Cold War, but insulated from it.<sup>1</sup>

An illustrative case was that of Harvard University, where in the 1950s the historian of ancient Japan, Edwin Reischauer, fostered a graduate student, Edward Wagner, for a new position at Harvard in Korean history. Reischauer had originally hoped Wagner would study the *Gaoli tujing* 

<sup>1</sup> See Appendix A for a list of Western institutions holding the original *Sillok* edition from the 1950s.

(*Koryŏ togyŏng*) written by the Northern Song dynasty official Xu Jing after an 1123 visit to Koryŏ. Wagner, himself, had hoped to research the March 1<sup>st</sup> (1919) Movement, and they compromised on dissertation topic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fifteen and sixteenth centuries.

This happenstance of choice of research topic would have major consequences for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stretching down to the present. In writing first his dissertation and then subsequent book The Literati Purges<sup>2</sup> (1974), Wagner became the first western scholar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newly available edition of the Sillok photo-reproduction, which had appeared in the latter part of the 1950s. Wagner always took special pride in noting that his dissertation bibliography contained not a single work in a western language, and the bulk of his footnotes referenced passages from the Sillok. On each page shone forth the newly visible world of the early Choson period, much of it studied in depth for the first time anywhere. In it the historiographical voices that appear is largely that of the Sillok historians themselves, through generous use of telling quotations. From this moment onward, the Sillok became the centerpiece, the starting point, the foundational text for all subsequent studies at Harvard involving the Choson period. The acceleration of Korean studies at Harvard into the Choson era deriving from access to first the Sillok and then an ever-widening pool of fresh primary sources may be seen from the list of Ph.D. students specializing in the Choson era who studied with Wagner, including those in related schools and departments at Harvard: Ching Young Choe(1960), James Palais(1968), Fuji Kawashima(1972),

2 Edward W. Wagner, *The Literati Purges: Political Conflict in Early Yi Korea* (Cambridge, MA: East Asian Research Center, 1974)

Young Ick Lew(1972), Robert Provine(1973), Shin, Susan(1973), Hwi-Joon Ahn(1974), Kenneth Quinones(1975), David McCann(1976), Dong Jae Yim(1976), Michael Charles Kalton(1977), Donald Clark(1978), Pong Hyon Paek(1981), Mark Arlen Peterson(1987), Milan Hejtmanek(1994), Kyung Moon Hwang(1997), and Eugene Park(1999). These disciples of Wagner went on to forge, at a wide assortment of institutions academic and non-academic institutions, influential career involving close connection to Korea and Korean studies. Among them, James Palais distinguished himself through both his scholarship and mentoring of the next generation of Chosŏn-period scholars, most prominently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ohn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and Sun Joo Kim (Harvard)

The importance of the *Sillok* helping enrich Korean studies across the academ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was also evidenced in the careers of Korean studies pioneers elsewhere, especially at Columbia University by Gari Ledyard whose work on the creation of *han'gŭl* in the 15<sup>th</sup> century and subsequent research on a wealth of topics ranging from the Dutch arrival in Chosŏn Korea in the seventeenth century to Chosŏn-era cartography, to Chosŏn visitors to China—especially the 18th-century literatus Hong Tae-yong--grounded his work on the wealth of possibilities in the *Sillok*, even as he explored other textual possibilities. His students, including most prominently his successor, JaHyun Kim Haboush, continued and extended this tradition.

Europe as well saw the rise of a generation of scholars who made

<sup>3</sup> See Appendix D for a list of their dissertation titles.

good use of the Sillok to further their own research into Choson-period topics, including among their ranks Daniel Bouchez (France), Martina Deuchler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Werner Sasse (Germany), and Boudewijn Walraven (Netherlands). They, in turn, have produced a subsequent generations of Choson-era scholars making substantial use of the Sillok.

Whether in North America or in Europe, post-liberation Choson-era scholars all have given training in the use and importance of the Sillok, and they are all to a major extent its intellectual offspring.

The first academic exploration in the West of the Sillok as an historical text in appeared in 1971 article by James Palais i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Records and Record-keeping in Nineteenth-Century Korea" in which he draws upon existing ROK and Japanese scholarship as well as in own expertise in introducing briefly the Sillok, Ilsong-nok (Records of Daily Reflection), Sungiongwon ilgi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Pibyonsa tungnok (Defense Border Command Record Book), Munhon pigo (Reference Compilation of Documents on Korea), munjip (literary collections), and yasa (unofficial histories). The early work of Palais dealt largely with the turbulent events of the late 19<sup>th</sup> century, and he was duly sensitive to the uses and abuses of history writing so prominent in that period. The Kojong Sillok proved an especially contentious work, compiled as it was under Japanese rule in the 1930s. The edition that Palais had used for his own dissertation research in the Harvard Yenching collection was in fact published in 1959 in Beijing as part of a joint publication by

<sup>4</sup> James Palais, "Records and Record-keeping in Nineteenth-Century Korea", Journal of Asian Studies, 30:3, pp. 583-591.

the DPRK Academy of Science and the PRC Academy of Science.<sup>5</sup> So it was that DPRK scholarship came to inform the work of a major pioneer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 3. Present

Arbitrarily, the "present" of the *Sillok* in the West may be set as dating from the 1980s, when the full impact of the newly available translations into modern Korean of institutions in the ROK and DPRK became available. 6 These transformed the nature of *Sillok* use in several important ways.

First, it became easier to scan long stretches of the *Sillok* narrative and thereby gain interpretive purchase on complex issues stretching over longer period. Researching themes such as the *taedong-bŏb* or *t'angp'yŏng-ch'aek* became not only feasible, but highly enjoyable. The sheer pleasure of apprehending the wealth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illok* was made available to a much wider range of Western students, including advanced undergraduate and young graduate students, whose classical Chinese might be still shaky.

Second, the translations provided a wealth of explanatory information included in footnotes and embodied in the translations themselves of terms that are highly obscure in the original text. This was particularly

<sup>5</sup> Chosŏn Kwahagwŏn & Zhongguo Kexueyuan, bian, Yijo sillok : Kojong sillok, v. 1-9, Sunjong sillok, v. 10, Beijing: Kwahak Ch'ulp'ansa, 1959.

<sup>6</sup> See Appendix B for a list of institutions in the West holding the ROK Sillok translation and Appendix C for a list of institutions in the West holding the DPRK Sillok translation.

the case with the DPRK Sillok translation, which, unlike the ROK version, translates everything solely into *han'gŭl*, thereby necessarily providing an interpretation of every passage of the *Sillok*. As a result of the publication of these twin translations, sustained reading of the *Sillok* became tantamount to an education into Chosŏn-era institutions, titles, and a host of related issues that otherwise would have required many times the effort to acquire through individual effort. This acceleration in education, however, did bear the significant risk of crediting the mistranslations, misunderstandings, and outright errors that pop up sporadically in the translations.

Third, and perhaps most important of all, were the new indexes to each reign provided by translations. The single volume summary index for the original edition of the *Sillok* had been serviceable, but on the whole was sorely lacking and produced great frustration in attempting to find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a given topic. While the new indexes accompanying the translations were not perfect and could vary in quality greatly from reign to reign, they still represented a striking advance that could save many days, if not months, during intensive research.

These translations opened the *Sillok* to a host of scholars from areas outside the traditional ken of Korean studies. These would come to include such diverse fields as environmental history, gender studies, macro-economics, research into historical climate and meteorology, constitutionalism, regional trade with Tsushima and Ryukyu, famine relief, the Guan Yu Cult, Chosŏn-era mathematics, and a wealth of other topics. The floodgates to use of the *Sillok* by non-specialists in classical Chinese had opened.<sup>7</sup>

Such broader use of the *Sillok* was greatly accelerated from the 1990s by the appearance of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Sillok*, superintended by Kim Hyeon, from Seoul Systems, on CD-ROM disks. This was a startling advancement in three ways. First, it made possible the use of the *Sillok* almost anywhere and freed the researcher from needing access to one of the relatively few libraries that could afford to purchase and store the massive *Sillok* translations. Second, it now became possible to print out one's own selections for careful arrangement and perusal. And most important of all, it now became possible to search the entire extent of the *Sillok* for any imaginable person or topic, not just the ones the indexers had seen fit to include, and stretching across all the reigns. The sum result was a quantum leap in interest in the *Sillok* and use of it for a wide range of projects.

This ease of access has been even further enhanced for users of the *Sillok* around the globe in the past decade b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providing access via the world wide web to the original *Sillok* in both photographic reproduction and unicode, as well as its modern Korean translation. Now almost anywhere world it is possible read the *Sillok*, even on smart phones. As a result, scholars in any institution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can now quickly and effectively use the Sillok for their diverse purposes. The transition from the *Sillok* as a highly secret document accessible only to the privileged few to a highly respected historical text deemed the common property of all of mankind is now complete.

<sup>7</sup> For a sampling the full range of academic works making use of the *Sillok*, see the article collections at *\(\sigma jstor.org\)* and *\(\sigma muse.jhu.edu\)*, in which may be found dozens of examples,

#### 4. Future

With the relentless and accelerating pace of globalization, it seems clear that use of major historical documents such as the *Sillok* will find increasing fresh and increasingly diverse audiences and uses in a ever-shrinking world. Vital to this process will be the extension in various ways of the *Sillok* into new formats, accomplished in manner faithful and sensitive to its inner, complex richness, including its contradictions.

Among such "re-appropriations" of the *Sillok* the most ambitious and enduring will likely be its translation into the lingua franca of the 21<sup>st</sup> century: English. As will be immediately obvious to even a casual observer, this is an immense task, likely to be generations in the undertaking and replete with possibilities for error, many quite subtle. Important, but largely unanswerable, questions such as whether the inner world of a 15<sup>th</sup> century Korean literatus can ever be made apprehensible in English to a 21<sup>st</sup> century reader aside, simply attempting to produce a consistent, clear rendering of the *Sillok* into a Western language a daunting task. However, after some years of consideration of the issue, I believe the task is worthwhile and indeed necessar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for a variety of factors stemming from both tidal changes in intellectual fashion and macroeconomic considerations, Chosŏn-era studies is currently losing out in the marketplace of graduate student interest. Given the realities of the difficulty of professional academic advancement and the perceived utility (falsely so, I believe) of research into more recent and hence "safer" fields of historical research as well as the long years of study necessary to read the *Sillok* in its original form,

without fresh effort the field is in danger of withering. The English translation project can serve to focus the fresh interest of generations of future scholars as well as provide badly needed economic support during the crucial years of their apprenticeship.

Second, as the burgeoning field of World History takes shape and gains professional credibility and momentum in the West, it is vital that the full range of the Korean past be accessible to its scholars. It is, alas, unrealistic to expect that future scholars of, say, comparative commodity flow globally should learn Korean to use the *Sillok* or that those who can do so be fully conversant in every field of history in which it might be relevant. The recent importance and significance accorded Kenneth Pomerantz's work The Great Divergence, in which the author compares the macro-economic history of Europe and East Asia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all without a single reference to Chosŏn Korea, is an alarming wake-up call. To be sure, the availability of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Sillok cannot ensure the misappropriation of information out of context, but it will be harder to justify completely ignoring the Korean past. When rendered into English hosts of scholars from many different fields will find material of interest within the Sillok.

Third, I anticipate that the translation of the *Sillok* into English will prove salutary to its understanding within Korea and ironically help to raise its prominence among younger Koreans generally. Personally I have found when teaching Korean history in English within Korea, students respond with pleasure to the challenge of rendering chosen selections of the *Sillok* into English, garnering from the process fresh appreciation for the Korean past. For many young Koreans, the use of English is coolly

cosmopolitan, and for them encountering the familiar, seemingly boring past in the fresh garb of English can help kindle fresh excitement in learning Korean history. I can well imagine, for example, a selection of dramatic scenes from the *Sillok*, rendered into English, becoming a best seller among young people in South Korea.

Beyond the English translation, I anticipate that the *Sillok* will in the near future come to play a major role in the quickly emerging field of "digital humanities", in which past cultural productions are re-examined with the host of sophisticated new approaches made possible in the digital age.<sup>8</sup> Latent within *Sillok* are to be found potentially a host of new insights bound up within the nuances of the text itself. Much as new imaging techniques can reveal hitherto unanticipated depths to canvas masterpieces, so too, the *Sillok* likely has many secrets to yield through text mining approaches. A key to future such uses of the *Sillok* will be institutions such as NIKH, who can help facilitate it.

One model for such endeavors is the Old Bailey Online project, which makes available the entire world accounts of trials held in London's main criminal court from 1674-1913, comprising 197,745 trials and 127 million words of text. Through access to this database, historians are able to examine in depth criminal behavior and its institutional treatment across the full range of English society form the late 17<sup>th</sup> to the early 20<sup>th</sup> centuries. The *Sillok* is an even more magisterial document, and it is to be hoped in the future that full access to it and its expanding English translation will be made available in a requisite electronic form.

8 For an overview of the potential of the digital humanities in Korea, see the presentation by Kim Hyeon at \( \sqrt{www.slideshare.net/ddokbaro/20141205-42453463} \).

Beyond the academe, I anticipate the *Sillok*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opular culture. In various forms and to different extents around the world there has been steadily growing interesting in popular Korean culture, some of it including historical dramas already informed by reference to the *Sillok*. It could well be, for example, that Sillok animations in translation, or graphic novels could find broad audiences. The sheer dramatic richness and pageantry of the Korean past lies with the *Sillok* waiting to be conveyed to centuries of new audiences.

#### 5. Conclusion

Considering its early history as a precious record of the Chosŏn state's most secret and sensitive conversations and events, access to which was strictly controlled, the *Sillok* has had a strange future indeed. Transported in first book, the electronic form to distant libraries and readers in foreign lands, it has informed and inspired now three generations of an ever-expanding pool of foreign experts seeking better both to understand both the Korean past and the human condition generally. Although it was never their intention, the brave officials who painstakingly recorded events and crafted them into the Veritable Records the future of the *Sillok* would, after due consideration, be both amazed and pleased that their attempts to record truth would find global interest and approval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Korea.

#### Appendix A: Western Institutions that Holding the Original Sillok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Toronto East Asian Library

Bayerische Staatsbibliothek

Stanford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Indiana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Yenching Library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niversity of Nebraska at Lincoln

Columbia University

Cornel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Pittsburgh

Brigham Young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British Library, Reference Collections

SOAS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of Oxford

Source: OCLC WorldCat.

\https://www.oclc.org/worldcat.en.html>

#### Appendix B: Western institutions Holding the ROK Sillok transl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Toronto East Asian Library Stanford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Yale University Library of Congres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niversity of Chicago Harvard University, Yenching Library Columbia University Cornel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Source: OCLC WorldCat

(https://www.oclc.org/worldcat.en.html)

SOAS University of London

Appendix C: Western institutions Holding the DPRK Sillok translation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tanford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ibrary of Congress

564 국제고려학 16호

Harvard University, Yenching Library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British Library, Reference Collections

Source: OCLC WorldCat

\https://www.oclc.org/worldcat.en.html>

## Appendix D Ph.D. Dissertations in Chosŏn-period Korean Studies from Harvard Using the Sillok, 1959-1998

- Edward Wagner (1959) 'The literati purges: case studies in the factionalism of the early Yi Dynasty'.
- Choe, Ching Young (1960) 'The decade of the Taewongun: reform, seclusion and disaster'.
- James Palais (1968) 'Korea on the eve of the Kanghwa Treaty, 1873-1876'.
- Fujiya Kawashima (1972) 'Clan structure and political power in Yi dynasty Korea: a case study of the Munhwa Yu clan'.
- Young Ick Lew (1972) 'The Kabo reform movement: Korean and Japanese reform efforts in Korea', 1894.
- Robert Provine (1973) 'Chinese ritual music in Korean sacrificial rites: music palingenesis in the early fifteenth century'.
- Susan Shin (1973) 'Land tenure and the agrarian economy in Yi Dynasty Korea, 1600-1800'.
- Hwi-Joon Ahn (1974) 'Korean landscape painting in the early Yi period; the Kuo Hsi tradition'.
- Carlos Kenneth Quinones (1975) 'The prerequisites for power in late Yi Korea: 1864-1894'.
- David McCann (1976) 'The prosodic structure of pre-modern Korean verse'.
- Dong Jae Yim (1976) 'Factional ties in seventeenth century Korea: a reevaluation of traditional concepts'.
- Michael Charles Kalton (1977) 'The Neo-Confucian world view and value system of Yi

dynasty Korea'.

William Shaw (1977)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Donald Clark (1978) 'Autonomy, legitimacy, and tributary politics: Sino-Korean relations in the fall of Koryŏ and the founding of the Yi'.

Pong Hyon Paek Pong (1981) 'Silhak scholarship in Yi Korea'.

Mark Peterson (1987) 'The mid Yi dynasty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family and lineage: an examination of adoption and inheritance practices'.

Milan Hejtmanek (1994) 'Sŏwŏn in Chosŏn Korea, 1543-1741'.

Kyung Moon Hwang (1997), 'Bureaucracy in the transition to Korean modernity: secondary status groups and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and society, 1880-1930'.

Eugene Park (1999) 'Military officials in Chosŏn Korea, 1392-1863'.

Source: (hollis\_harvard\_edu).

### 새로 조사발굴된 고구려 평양성 일대의 성곽 유적들에 대하여

손수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우리나라 중세초기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는 근 1000년간 존재한 동방 강대국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가 오랜기간 외래침략 자들의 수많은 침입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를 지켜낼 수 있은 것 은 온 나라 곳곳에 수많은 견고한 성곽들을 쌓고 그에 의거하여 반침략투쟁 을 벌린 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구려에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성을 많이 쌓았으며 이 성곽들은 고구려를 방위하는 견고한 요새로 되었다. 고구려는 튼튼한 성곽에 의거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 을 고수하였으며 민족의 영예를 빛내었다.

고구려 성곽은 고구려 사람들이 나라방위를 위하여 창조한 우수한 창조물로서 여기에는 그들의 높은 창조적 지혜와 재능, 애국심이 깃들어 있다. 고구려 성곽은 그 위치와 지형선정, 성벽 축조방법, 성벽 시설물, 성 방어체계의 형성 등에서 이웃나라들의 성곽과는 다른 독특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성곽들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 잘 다듬은 성돌로 견고하게 축 조되고 여러 가지 독창적인 성 시설물들을 갖춘 것으로 하여 외래침략자들 이 매우 무서워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었다.

고구려의 천년력사를 증명해주는 성곽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진

행되고 종합적으로 연구된 성과들도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 전면적으로 조사발굴된 고구려의 수도성이였던 대성산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고구려 성곽들과 중국 동북지역의 성곽들에 이르기까지 매 성곽들과 그 성들을 련결하는 여러 가지 성 방어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역별로 보면 일부 지역의 고구려성들은 일반적 소개와 함께 옛 기록들만 보고 서술한 글도 없지 않아 있다.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동방강국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곽 유 적들에 대한 조사와 발굴사업을 활발히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산성들을 더 찾아내거나 조사발굴을 통하여 이미 있던 성곽들을 고구려의 성으로 확정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2011년 고구려의 수도성이였던 평양성의 서쪽인 평양시 만경대구역 선내 동에 있는 서산에서 서산성(적두산성)이 조사발굴되었다. 본래 이름이 적두 산성이였으나 산성의 위치에 따라 서산성으로 새로 명명하였다. 또한 이미 알려져 있던 성들인 청암동토성, 고방산성, 청호동토성을 비롯하여 고구려 수도성 주변의 성곽 유적들에 대한 조사발굴을 새롭게 진행하였고 전국적 범위에서 산성 유적들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무갈리성과 달보산성, 문성진성, 장새성, 덕산토성 등 많은 성을 고구려의 성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고구려 수도성인 평양성의 외성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을 진행하여 외성이 전반적으로 돌성벽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보통강반에 쌓은 성의 기초부분에 대한 발굴을 통하여 성벽기초가 매우 넓고 높으며 아주 견고하게 쌓아졌다는 것과 돌성벽 구조에서 새로운 축조방법을 찾아볼수 있다는데 대하여 확증하였다.

이밖에도 황해남도 일대에서 옹진고성, 강령읍성, 수양산성 등과 강원도 일대에서 '국동6'으로 볼 수 있는 이천-철원 일대의 고구려 산성들 그리고 평 안북도와 함경남도 일대의 고구려 산성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새로운 자 료들이 많이 알려졌다. 평안북도 일대에서는 백마산성, 롱오리산성, 통주성, 릉한산성, 기룡리니성 등 여러개의 산성들을 조사발굴하여 성의 규모와 성 벽 축조상태 등의 자료들을 새롭게 확보하였으며 함경남도 일대에서 백운산 성과 가응산성, 거산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이 성들이 고구려시기 나 라의 동북지역을 방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 증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평양성 주변의 고구려성들의 조사발굴 정형에 대하여서만 소 개하려고 한다.

먼저 서산성 즉 적두산성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지난 기간 적두산성은 고구려의 성 일람표에 이름만 올라 있었다(지승철 2003: 204).

적두산성은 평양성의 외성밖으로 흐르는 보통강을 경계로 그 맞은편 서산에 위치하고 있다. 적두산성에서 동쪽으로 평양성 외성벽까지는 약 800m, 남쪽으로 대동강과 보통강의 합수목까지는 약 500m이다.

성은 현재 해발 92.6m되는 봉우리로부터 그 동남쪽의 산륭선들과 평지부분을 리용하여 쌓았다. 그러므로 성의 세면은 산륭선이고 동쪽부분은 산륭선과 평지부분이 결합되어 있다.

성의 생김새는 네모에 가까운 장방형이며 전반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지난 시기의 력사책들에서 적두산성에 대하여 처음 서술한 것은 『동국여지승람』이며 적두산성과 관련된 기록들은 『고려사』나 『대동수경』 등 여러책들에서 볼 수 있고 성의 위치에 대하여서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표시되어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평양의 고적을 소개하면서 "적두산성이 있는데 흙으로 쌓았다. 평양강의 서부에 있으며 주위는 5100척에 달한다. 높이는 11척이며 묘청의 반란시에 김부식이 쌓았다고 한다."라고 전하고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다산 정약용은 『대동수경』에서 "평양성 동쪽의 강은 대동강이라고 하는데 옛 명칭이 패수이며 혹은 왕성강이라고 한다. 여기에 합류되는 로수는 평양성 서쪽에 이르러 서강이라고 하며 보통문밖을 지나 대수에 들어가는데 평양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정약용). 따라서 적두산성은 보통문밖

을 흘러 대동강에 들어가는 평양강(현재의 보통강) 서쪽에 있는 것으로 되며 길이는 약 2000m에 달하는 것으로 된다.

기록에는 적두산성을 고려때 김부식이 쌓았다고 하지만 그 성은 고구려시기에 쌓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와 같은 기록에는 고구려의 보장왕 19년에 평양의 하천이 피와 같이 붉었으며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장수 검모잠이 발로수를 건너 로성을 공격했는데 『명일통지』에서는 발로하가 평양성 서쪽에 있다고 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로성은 로선들이 다니던 로문(다경문)옆의 평양성이며 검모잠은 적두성을 기지로 삼고 평양성 외성을 공격했다고보아야 한다.

적두산성에서 나온 고구려의 붉은기와와 회색기와, 질그릇쪼각들은 이 성이 고구려시기에 축조된 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적두산성에 대한 조사답사를 거쳐 2011 년 5월~6월 사이에 이 성에 대한 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산성벽은 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와 그 북쪽과 남쪽으로 련결된 산륭선들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나지막한 륭선들에 축조되어 있다. 서산산봉우리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간 륭선은 대체로 곧추 놓여있는데 가장 높은 주봉으로부터 북쪽으로 130m되는 곳과 남쪽으로 400m정도 되는 곳에서 보통강변인 동쪽을 향하여 경사져 내려간 륭선을 따라 성이 쌓아져 있고 그가운데는 크지 않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경사가 급해지면서 평지와 련결된다. 산성은 서산의 이러한 자연지세를 리용하여 서쪽으로 병풍처럼 둘러막힌 산봉우리와 그 남쪽과 북쪽에서 뻗어내린 륭선들에 축조되어 있다.

성벽은 동벽, 북벽, 서벽, 남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벽은 보통강과 면한 제일 낮은 지대에 있다. 동벽의 북쪽부분은 서산의 서북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다가 남쪽으로 꺾인 륭선의 북쪽 끝부분에 쌓아졌는데 성벽의 남은 높이는 3.6m, 밑너비 9m, 웃너비는 3.2m이다. 성벽은 룽선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졌는데 북쪽 100m정도 되는 곳에서는 높이 1.5m, 밑너비 7m, 웃너비 1m정도밖에 안된다. 성벽의 동쪽바깥은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안쪽은 완만한 경사면으로 되어 있다. 남쪽 끝에서

릉선을 따라 280m정도 떨어져 도로가 있다. 여기서부터 성벽은 릉선을 따라 서쪽으로 꺾이여 경사지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는 북벽이다.

동벽의 남쪽부분은 150m정도의 길이로 남아있는데 강기슭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어내린 릉선에 있다. 성벽은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도로 자기의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성벽은 웃너비 1.5~2m, 안쪽높이 0.8~1m되는 곳도 있고 웃너비 0.8~1m, 안쪽높이 0.2~0.5m되는 곳도 있다. 성벽의 동쪽 바깥면은 경사지면서 얼마간 내려가다가 보통강과 면한 낭떠러지와 이어졌다.

북벽은 동벽의 북쪽 끝에서 서산을 향하여 뻗어 올라간 륭선에 있는데 룽선 아랫부분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륭선 웃부분은 비교적 급하다. 25°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룽선에 있는 성벽은 북벽의 동쪽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북벽의 동쪽부분에 해당되는 룽선은 북쪽 바깥쪽이 급한 비탈면을 이루며 경사져 내렸고 안쪽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중간부분 성벽이비교적 잘 남아있다. 높이는 안에서 보면 1m이고 바깥에서 보면 7~10m이며성벽 웃너비는 약 3m정도이다. 바깥면의 경사각도는 55°이고 안쪽면의 경사각도는 35°이다. 경사가 완만한 아래룽선의 성벽과 급한 웃릉선 성벽 사이는 너비 15~20m정도로 성벽이 잘려있었는데 여기에 북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급하게 경사져 올라간 룽선에 있는 성벽은 북벽의 서쪽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룽선도 아래룽선과 같이 북쪽 바깥비탈면이 급하고 남쪽의 안쪽경 사면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이 룽선의 성벽은 웃너비가 1.5~2m이고 높이가 안쪽에서 0.5~0.8m이다. 성벽 바깥면은 50°정도로 경사져 있는데 골짜기비탈면에 이어지면서 30~40m정도 밑으로 내려갔다.

서벽은 서산과 그것을 련결하는 산릉선을 따라 곧추 축조되었던 것인데 적지 않은 부분이 없어졌다. 북쪽 끝에서 서산봉우리까지 사이의 성벽은 서벽 북쪽부분에 해당되는데 중간에 일부분이 남아있고 대부분이 없어졌다. 남은 성벽은 4~5m정도인데 웃너비는 1.5m, 안쪽에서의 높이는 1m이다. 바깥면은 급한 경사면으로 되었는데 높이가 4~5m정도 된다.

서산봉우리와 그 남쪽에 있는 릉선의 성벽은 서벽 중간부분과 남쪽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서산봉우리에서 남쪽으로 160m되는 곳의 성벽은 웃너비 2.5~3m이고 안쪽에서의 높이가 1~1.5m이며 바깥에서의 높이는 5~6m이다. 바깥면의 경사각도는 50°정도이다. 240m되는 곳에 있는 성벽은 웃너비가 3m, 안쪽에서의 높이가 0.5~0.8m, 바깥에서의 높이가 7~8m이다. 바깥면의 경사각도는 50~60°이다. 그리고 360m정도되는 곳의 성벽은 웃너비 2m, 안쪽높이 2m, 바깥높이 6~7m, 안팎의 경사각도 50°이다. 릉선의 제일 남쪽에는 직경 20m정도 되는 평평한 곳이 있는데 장대로 썼을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된다.

성벽은 장대터로 볼 수 있는 지대를 에돌아 동쪽으로 꺾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남벽이 시작된다. 완만한 경사를 이룬 룽선에는 남벽의 중간부분과 동쪽부분에 해당되는 성벽이 있다. 이 부분에는 성벽이 약 150m의 길이로 남아있다. 성벽의 웃너비는 1.5~2m, 안쪽에서의 높이는 0.5m이다. 바깥면은 경사지면서 내려갔다. 바깥성벽의 높이는 10m이다. 성벽이 잘 남아있는 부분은 웃부분의 너비가 3m정도 되는 곳도 있다.

산성성벽의 총 연장길이는 2074m, 북벽의 길이는 470m, 서벽의 길이는 530m, 남벽의 길이는 350m, 동벽의 길이는 724m이다.

성벽 축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4개 지점의 성벽을 잘랐다.

하나는 동벽 북쪽부분 남쪽 끝(제 1지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벽이 놓인 릉선의 경사가 급한 부분과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접하는 곳(제 2지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산봉우리의 남쪽 100m 되는 곳(제 3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벽의 남쪽 끝(제 4지점)이다.

제 1지점의 성벽은 높이 3.6m, 밑너비 9m, 웃너비 3.2m로 남아 있는데 암반우에 판축하는 방법으로 흙을 쌓아 축조하였다.

성벽은 밝은색을 띠는 황갈색석비레훍과 조금 어두운색을 띠는 황갈색석비레흙을 엇바꾸어가며 층층히 다지면서 쌓았다. 어두운색의 황갈색석비레흙층은 대부분 밝은색의 황갈색석비레흙층보다 두텁다. 어두운색의 황갈색석비레층은 두께가 8cm인 곳도 있지만 20~30cm되는 곳이 많다. 그리고 밝은

색의 황갈색석비레층은 두께가 4~6cm인 곳이 많고 8~10cm되는 곳도 더러 있다. 성벽을 판축하면서 다졌기 때문에 매우 굳다.

제 2지점 성벽은 높이 1.6m, 웃너비 1m, 밑너비 6m정도로 남아있다. 제 2지점 성벽에서도 판축의 방법으로 흙을 쌓아 성을 쌓은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약간 어두운색의 황갈색석비레층이 두께 4~5cm정도로 나타났다. 흙을 층층히 엇바꾸어가며 다져서 쌓았으므로 매우 굳다.

제 3지점은 우가 평평하고 바깥쪽이 경사져 내려간 비탈면으로 되어 있는데 비탈면에서 안쪽으로 4m되는 곳까지 내려 파서 성벽 상태를 확인하였다. 성벽은 암반우에 쌓았는데 판축하는 방법으로 흙을 다짐하였다. 안면에 나타난 성벽의 높이는 1.6m정도이다. 이를 통하여 바깥 비탈면이 급하고 웃부분이 평평한 지대로 이루어진 롱선들에는 성벽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제 4지점의 성벽은 너비 2m, 높이 1.5m정도로 남아있다. 성벽은 암반우에 축조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처럼 판축한 상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암반우의 70cm정도는 약간 어두운색을 띠는 황갈색석비레층이고 그우에 80cm정도는 밝은색을 띠는 황갈색석비레층이다. 성벽이 2개의 층으로 나타나지만잘 알리지 않는다.

성벽을 자른 제 1지점, 제 3지점, 제 4지점에서 기와쪼각들이 나왔고 제 2지점에서 질그릇쪼각이 나왔다. 기와쪼각은 붉은색기와와 회색기와쪼각들이다. 회색기와 가운데는 안면에 네모구획안에 사선평행선들이 서로 방향을 달리하며 배렬되어 있는 무늬와 전나무잎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기와의 두께는 붉은색기와가 1.5~2cm, 회색기와가 1.6~2cm이다. 질그릇쪼각은 경질의 것인데 회색을 띤다. 두께는 0.5cm이다.

적두산성은 고구려 수도성인 평양성(장안성)의 서쪽 방어성으로서 고구려 시기에 축조되었다. 성의 축성시기 문제는 문헌기록이 없는 조건에서 성벽 의 구조와 형식, 성에서 발견된 유물, 성의 방어적 목적 등으로 밝힐 수 있 다.

현재 발굴된 부분에서 앞성돌이 많이 류실되고 한돌기 남아있으므로 구체

적인 성벽 축조형식에 대하여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앞성돌이 밑부분에 4개 남아있고 뒤부분에 돌들이 여러 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웃부분도 같은 성돌로 성벽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발굴된 4개의 앞성돌은 모두 4각추 모양인데 그 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너비 26cm 높이 13cm 길이 41cm 너비 37cm 높이 14cm 길이 31cm 너비 35cm 높이 18cm 길이 37cm 너비 28cm 높이 13cm 길이 29cm

성돌들은 모두 응회암과 분암계통의 돌들이다. 이 돌들의 분포지역은 이 곳으로부터 10리 또는 그 이상 떨어져 있는 룡악산 일대와 칠골, 팔골 등지이다. 적두산성에서 4각추 모양의 성돌은 동성벽 남쪽부분의 교란된 성벽에서도 여러개 발굴되었는데 그 크기를 보면 20×20×35cm, 29×19×34cm, 26×15×45cm, 24×16×42cm 등이다.

적두산성에서 발굴된 성벽 축조형식과 성돌은 이 성을 고구려시기에 처음으로 쌓았다는 중요한 근거로 된다. 성벽 축조에서 산경사면을 깎아내고 밑에서부터 성벽을 돌과 흙으로 쌓은 것은 고구려 평양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여러 고구려시기 쌓은 성들에서도 잘 알려졌다. 특히 고구려 평양성의 북성 부근, 모란봉의 을밀대 부근의 성벽은 모두 산경사면을 깎아내고 밑부분을 평평하게 한 다음 성벽을 쌓았다.

성벽을 4각추 모양으로 가공한 성돌들로 쌓은 것은 고구려시기 성벽 축조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평양성, 대성산성, 황룡산성, 청룡산성, 롱오리산성, 태백산성 등 수많은 고구려성들은 모두 성돌을 4각추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근거는 다음으로 고구려시기 붉은색기와쪼각들이 성안과 성벽에서 수많이 발견된 것이다. 적두산성에서 고구려시기 붉은색기와는 성벽 부근과 성안의 여러 곳에서 알려졌는데 특히 동성벽 남쪽부분 1발굴 지점에서 특별히

많이 알려졌고 남성벽에서도 비교적 많이 알려졌다.

적두산성에서 발굴된 고구려시기 붉은색기와의 종류는 암기와와 수기와이다. 수기와는 크기에 따라 두부류로 갈라볼 수 있고 암기와는 무늬에 따라크게 7가지로 갈라볼 수 있다. 암기와 무늬를 구체적으로 보면 노끈무늬, 그물무늬(사선격자무늬), 삿자리무늬, 릉형무늬, 불길(꽃)무늬, 전나무잎무늬, 종선무늬 등인데 노끈무늬는 가는 노끈무늬와 굵은 노끈무늬로 갈라볼 수있고 그물무늬(사선격자무늬)는 무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5가지로 갈라지며 릉형무늬도 무늬형태에 따라 3가지로 갈라볼 수 있다.

적두산성에서 발굴된 암기와 무늬를 고구려시기 기와가 많이 발굴된 유적들과 대비하여 보면 대성산성에서 6종, 청암동토성에서 5종, 정릉사에서 8종, 평양성에서 9종, 장수산성에서 8종, 산성자산성에서 3종, 동대자유적에서 3종 등이다.

적두산성은 고구려가 수도 평양성을 더욱 튼튼히 방어하기 위하여 쌓았다고 볼 수 있다. 평양성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서산지역이며 적두산성이 위치한 곳이다. 그리고 적들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보통강에 들어서면서 평양성 외성을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옛날 양명포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평양성 방어에서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볼수 있는 외성의 맞은편 서산에 적두산성을 쌓아 수도 평양성 방어를 튼튼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적두산성의 구체적인 축조시기를 잘 알 수 없지만 고구려 평양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쌓았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산성에서 발굴된 성돌 가공방법이 평양성 성돌 가공방법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적두산성은 고려시기에도 평양성 방어를 위하여 계속 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산성 성벽과 성안에서 고려시기 기와들이 수많이 발굴되고 북성 벽의 일부 구간들에서 고려시기 보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성벽 흔적이 발견된 것은 이 성이 고려시기에도 일정하게 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두산성을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부터 고적으로 전해왔고 그 이후 시기에도 계 속 고적으로 전해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두산성은 고구려시기 평양성 방어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쌓은 보조 방어성이다.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한 고구려가 6세기에 새로운 수도성을 쌓고 586년에 도읍을 옮긴 평양성(장안성)의 구조형식에 대하여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평양성의 중성 서남벽이 있는 안산으로부터 뻗어내려 보통장 기슭과 대동장 기슭을 따라 축조된 외성은 오랜기간 흙에 덮여있어 토성으로만 보여왔다. 평양성 외성도 고구려시기에 돌로 축조한 돌성벽이였다는 것은 지난 시기의 조사와 부분적인 발굴에 의하여 증명되었으나 외성의 세부적인 돌성벽 구조와 기초부분 축조형식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못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2011년 5월에 현재 남아있는 평양성 외성 성벽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두개소에서 부분적인 발굴을 진행하였다.

외성은 평양성의 제일 남쪽에 중성에 붙어있는 외곽성이다. 외성의 성벽은 북벽, 서벽, 서남벽, 동남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성의 북벽은 동쪽끝이 중성의 서남모서리벽에 잇대여 있는데 서쪽으로 800m정도까지 곧추 나가다가 남쪽으로 약간 꺾이면서 200m정도 더 나아가서는 현재 류실되었다. 동쪽끝에서 서쪽으로 300m정도 되는 곳에 외성의 북문인 선요문 자리가 있다.

대체로 북벽의 성벽은 매우 높은데 북벽의 동쪽끝에서 서쪽으로 150m정도 되는 곳의 성벽의 크기는 바깥쪽에서의 높이 7.5m, 안쪽에서의 높이 6m, 밑너비 30m, 웃너비 4m정도이다. 성벽의 바깥면 경사도는 35°이고 안쪽면 경사도는 25°이다.

선요문 자리는 성벽의 중간이 잘리워 없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너비는 14m이다. 선요문 자리에서 서쪽으로 50m정도 되는 곳의 성벽은 앞의 것보다 더 높다. 성벽의 바깥면에서의 높이는 8.7m이고 안쪽면에서의 높이는 7.5m이며 밑너비는 21.3m, 웃너비는 3m이다. 경사도는 앞의 것과 비슷하다. 북벽의 중간부분과 서쪽부분의 성벽 상태는 선요문 서쪽 성벽 상태와 류

사하다.

외성 서벽은 중간부분과 남쪽부분이 남아있다.

중간부분에는 약 50m의 길이로 성벽이 남아있는데 그 높이는 5m, 밑너비는 16m, 웃너비는 4m정도이다. 중간부분의 성벽은 북쪽끝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그 폭이 좁아졌다.

남쪽부분에는 200m정도의 길이로 성벽이 남아있으며 높이가 4.5m, 밑너비는 10m, 웃너비가 2.5m이다.

외성의 서남벽은 서쪽부분에 200~300m, 중간부분에서 200~300m의 성벽이 남아있다. 성벽의 높이는 6m이고 밑너비는 15m정도이며 웃너비는 3m이다.

외성의 성벽들 가운데서 서남벽의 서쪽끝에서 동쪽으로 100m되는 곳과 북벽의 선요문 동쪽 10m되는 곳의 성벽 바깥면에 대한 조사발굴을 진행하 였다. 서남벽의 조사발굴은 성벽의 바깥면에 성돌들이 일부 나타난 것을 근 거로 하여 그 주변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성벽의 조사구역 너비 는 9.3m이다.

성벽을 기초부분과 성벽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초부분은 제일 밑부분이 현지표에서 70cm의 깊이에서 나타났다. 기초는 원토층을 고루고 돌과 진흙을 다지면서 계단식으로 우로 올라가며 쌓았다. 계단식 굽도리의 안쪽에는 진한 갈색을 띠는 붉은진흙을 다짐하였다. 돌로 쌓은 기초의 바깥면은 밑돌기에서 우로 올라가면서 4돌기까지 계단식으로 되었지만 그우는 쌓은 방법이 지형에 따라 좀 다르다. 기초의 밑부분에 쌓은 돌들은 밑단에 놓인 돌우에 안쪽으로 얼마간 들여다 그 웃단의 돌을 놓는 방법으로 쌓았다. 밑부분에 계단식으로 쌓은 성돌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밑단이 놓인 성돌우에 20cm 들여다 그우의 성돌을 놓고 그우에 14cm, 그우에 16cm, 그우에 22cm씩 안으로 들여다 성돌을 놓았다. 계단식으로 쌓은 기초 밑부분의 높이는 68~74cm이다.

밑부분우에 쌓은 웃부분은 밑부분과 같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이와는 달리 거의 수직으로 올려쌓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9.3m의 조사구 간에서 서쪽의 5.7m 구간은 곧추 올려쌓고 그 나머지 구간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계단식으로 된 부분의 성돌은 밑부분에 이어 계속하여 12단까지 올려쌓았는데 어떤 곳에서는 7번째의 성돌이 또 어떤 곳에서는 8번째 돌기의 성돌이 빠져있는 곳도 있다. 성돌 쌓는 방법은 아래부분과 같으며 밑부분과 웃부분의 기초석이 쌓인 높이는 합하여 280cm정도이다. 곧추 쌓은 부분은 계단식으로 쌓은 밑부분 기초에서 안으로 60cm정도 들어와 성돌을 쌓았다. 성돌쌓은 방법은 계단식으로 쌓은 기초부분과 달리 거의 곧추 올려쌓았다. 이 기초부분은 10단까지 남아있는데 돌을 쌓은 상태를 보면 밑단 성돌우에 10cm 들여다 우의 성돌을 놓고 그우의 성돌은 6cm, 그우의 성돌은 각각 7cm, 8cm, 4cm, 1cm, 5cm, 9cm, 5cm씩 들여다 놓았다. 이 기초부분의 높이는 160cm이다.

기초 웃부분의 성돌 쌓은 방식은 두 가지로 갈라지지만 그것들은 다 한 시기에 쌓은 것이다. 그것은 계단식으로 쌓은 성돌들 가운데서 네번째단에 쌓은 성돌 하나가 곧추 쌓은 성돌과 6합식으로 물려있는데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 성돌은 우와 아래의 절반은 곧추 쌓은 성벽에 절반은 계단식 성벽에 맞물려있다. 이 성돌 하나로 하여 성벽 기초부분은 한 시기에 같이 쌓은 성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석으로 쌓은 성돌은 네모나게 대충 다듬은 석회암 돌인데 화강암 돌 도 더러 섞여있다. 기초 웃부분의 성돌 안쪽은 밑부분과 같이 진한 갈색을 띠는 붉은 진흙을 다짐하여 놓았다.

성벽의 성돌들은 기초돌의 웃면에서 안쪽으로 140cm 들여다 쌓았다. 성벽 밑은 진한 갈색을 따는 붉은진흙을 다져서 만든 지반으로 되어 있었다. 성벽의 성돌은 6단까지 남아있는데 제일 밑단우에 놓인 성돌이 안으로 5~7cm 들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대체로 곧추 쌓여져있다. 성돌은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성돌 하나하나를 품을 들여 가공하였다. 성벽은 성돌을 가로 줄을 맞추면서 올려 쌓았는데 앞면이 비교적 수직면을 이루고 있다. 현재 남은 성벽의 높이는 약 140cm이다.

외성 서남벽 조사발굴 구역에서는 기와쪼각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기와

의 색같은 붉은색과 회색이고 종류로는 암기와와 수기와, 수기와막새들이다.

기와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온 것은 회색수기와 1개이다. 기와의 길이는 32.5cm, 너비는 15cm, 물림턱은 길이가 5.8cm이다. 안쪽면에 베천같은 것을 댔던 흔적이 있고 등면은 매끈하다.

수기와들 가운데는 물림턱의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다. 물림턱이 있는 수기와 4개의 물림턱의 길이를 보면 각각 5cm, 5.8cm, 6.2cm, 3.3cm이다. 수기와쪼각들의 두께는 1.5cm이다.

암기와는 모두 쪼각들인데 안면에 무늬가 있는 것들도 있다. 붉은 암기와 쪼각들에는 네모점으로 찍혀 들어가 이루어진 그물무늬, 한변의 길이가 0.3~0.8cm의 크기를 가진 사선격자무늬, 한변의 길이가 0.2~0.3cm인 사선격자무늬, 전나무잎무늬가 있다. 기와의 두께는 1.5~2cm이다.

회색암기와 쪼각들에는 크고 작은 격자무늬가 있다. 하나는 한변의 길이가 1.2cm인 큰 격자무늬이고 다른 하나는 한변의 길이가 0.6cm인 작은 격자무늬이다. 기와의 두께는 2.4cm, 2cm이다.

외성 북벽에 있는 선요문의 동쪽 10m되는 곳을 발굴구역으로 선정하고 발굴을 진행하였다. 발굴은 바깥벽 기슭에서 안쪽으로 8m정도 들어와 성벽을 내려 파서 돌로 된 벽체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발굴구역의 너비는 3.7m이다. 발굴 과정에 돌로 기초를 쌓고 그우에 다듬은 성돌을 쌓아올린 성벽이 드러났다.

성벽 기초는 생땅우에 크지 않은 돌들을 진흙과 섞어다지면서 80cm의 높이로 쌓아 만들었다.

기초는 성벽 바깥면에서 바깥으로 80cm되는 곳까지 하였다.

기초우에는 가공한 돌들로 쌓은 성벽이 있었는데 18단까지 남아있었다. 성벽은 성돌을 거의 곧추 쌓아 축조하였다. 성돌 쌓은 상태를 보면 밑단우에 3cm 들여다 웃성돌을 놓고 그우에 3cm, 그우에 각각 3cm, 5cm, 2cm, 3cm, 3cm, 3cm, 4cm, 3cm, 4cm, 4cm, 2cm, 1cm, 6cm, 5cm, 5cm씩 성돌을 들여다 놓았다. 현재 성벽의 높이는 330cm이다. 수직선상에서 밑단과 웃단 성돌 사 이의 거리는 50~60cm이다. 그러므로 성벽은 거의 곧추 올려 쌓았다고 할 수 있다.

성벽을 쌓는데 쓰인 성돌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다. 밑에서 9번째 단에는 작은 성돌들로만 단이 쌓아져있다. 크기가 길이 27cm, 높이 23cm인한 성돌은 앞면의 우와 아래, 량옆을 다듬어서 가운데가 변두리보다 4cm 나오게 하였으며 길이 40cm, 높이 12cm인한 성돌은 우, 아래의 앞면 변두리를 다듬어 가운데가 2cm정도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리고 길이 34cm, 높이 13cm인 한성돌은 량옆의 앞면 기슭을 다듬어 가운데가 3cm 나오게 하였다.

성돌 바깥바닥은 7~8°정도의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맨 밑바닥에는 생땅우에 20cm의 두께로 돌층을 만들었다. 돌층은 성벽에서 270~280cm까지 계속되었다. 돌층우에는 황갈색진흙층을 깔았다. 그리고 그우에 쪼각돌과 자갈들을 7~10cm의 두께로 폈는데 성벽에서 220~230cm되는 곳까지 계속되었다.

이 돌충앞에는 40×39×6cm, 26×18×6cm, 40×20×7cm의 크기를 가진 돌들을 놓아 턱처럼 만들었다.

돌바닥우에는 14cm의 두께로 진갈색을 띠는 붉은진흙층을 깔았는데 이 진 흙층은 성벽에서 5.5m되는 곳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붉은진흙층우에는 12cm 두께로 모래 섞인 황갈색진흙층이 있는데 이 층도 붉은진흙층과 같이 계속 되었다.

황갈색진흙층우에는 숯층이 깔려있었다. 숯층은 성벽에 붙어서 바깥으로 퍼져있었는데 성벽에 붙은 곳은 바닥에서 50~65cm의 높이에서 시작되어 70~90cm까지 경사지를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황갈색진흙층우를 따라 계속 연장되었는데 250cm까지 계속되었다. 숯층의 두께는 2~3cm이다. 돌바닥우에 층층이 놓인 흙과 숯층은 성벽에서 멀어질수록 두께가 얇아졌다.

성벽에서는 붉은색의 수기와쪼각과 암기와쪼각, 회색의 수기와쪼각과 암 기와쪼각이 나왔다.

붉은색의 암기와쪼각은 안쪽면에 베천무늬가 있고 등면에는 무늬가 없다. 기와의 두께는 1,2cm이다. 암기와쪼각들에는 안쪽면에 무늬가 있는 것들이 있다. 하나는 노끈무늬 비슷한 무늬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와의 긴축 방향으로 0.5~1cm 간격을 두고 평행선무늬가 있는 것이다. 기와의 두께는 1.4~1.7cm이다.

회색수기와는 물림턱이 있는 것인데 그 길이가 2cm밖에 안된다. 심하게 깨어졌으므로 기와의 두께를 알 수 없다. 회색암기와에는 한쪽면에 세로 평행선과 가로평행선을 돋쳐 만든 그물무늬가 있다. 기와의 두께는 2cm이다.

평양성 외성 서남벽과 북벽이 조사발굴됨으로써 외성 축조형식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평양성의 성벽 구조형식에는 암반우에 기초돌을 밀착시켜 쌓은 형식, 자 갈과 진흙을 섞어다진 우에 큰 장대석을 놓은 형식, 밑에 자갈을 깔고 그우 에 큰돌들을 놓은 형식, 통나무와 자갈, 흙을 결합하는 형식 등 성기초를 그 지형과 지질적 조건에 맞게 축조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다. 외성의 성벽 기초 축조형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서요문터 주변 외성벽은 원토층우에 돌과 진흙을 다져 기초를 넓게 하고 그우에 돌성벽을 쌓은 형식이며 외성 서남쪽의 성벽은 원토층우에 계단식으로 가공한 돌들을 쌓아올리고 안에는 진흙을 다져 기초부분을 높이 만든 다음 그우에 돌성벽을 쌓아올린 형식으로서 이것은 모두 보통강의 범람으로 인한 성벽 기초의 침식을 막고 성벽을 굳건히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진다.

평양성의 성벽 축조형식과 축조기술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이번의 조사발굴을 통하여 우리는 고구려의 견고한 수도성으로서의 평양성의 구조형식과 고구려 사람들의 세련되고 발전된 성 축조기술에 대하여 다시금 확증할 수 있었다.

고구려는 안학궁성을 왕궁성으로 하고 대성산성을 기둥방어성으로, 그밖에 남쪽방향에 있는 대동강가의 청암동토성, 고방산성, 청호동토성 등을 보조방위성으로 하여 궁성을 보위하기 위한 수도방위체계를 형성하였다.

고방산성은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있다.

원래 고방산이란 이름은 한자로 표기하면 '높을 고'(高)자와 '동네방'(坊)자

가 합쳐진 말로서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고대시기의 리두에 의하면 고방이란 고분 곳(고불고불한 곳)이라는 말이며 고구려시기의 방어성이라는 말과도 통한다고 한다. 대성산 남쪽의 대동강반에서 비교적 높은 산인 고방산은 대동강의 본류인 북강과 남강이 합쳐지고 동쪽으로 장수천이 합류되는 곳에 있는 해발 140m의 고방산과 그 서쪽에 있는 소고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남쪽으로 해발 50~90m의 낮은 고지들로 런결되어 있다.

고방산성은 제일 높은 고지를 감싸고 동쪽의 대동강반에 솟은 절벽지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평지대와 런결되었으며 서쪽으로는 낮은 릉선을 따라서 성벽이 내려와 평지대와 런결되었다. 동쪽의 성벽과 서쪽의 성벽 사이에는 작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리 크지 않으며 성은 대체로 사모봉형의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절벽우에 축조된 동쪽 성벽은 남쪽부분과 북쪽부분으로 갈라볼 수 있다. 남쪽부분의 성벽은 많이 흘러내려서 밑너비 2~3m, 높이 60cm~1m정도의 작은 뚝처럼 남아있는데 황갈색진흙에 작은 돌들을 섞어서 다짐하여 쌓았다. 북쪽부분의 성벽은 밑너비가 4m되는 곳도 있고 5~6m정도 되는 곳도 있다. 그 높이는 약 1m이다. 북벽의 동쪽부분은 중간 중간에 성벽이 끊기었는데 길이가 5~10m정도로 200m 구간에서 여러개 나타나 있었다. 제일 잘 남은 성벽의 밑너비는 4m정도이고 높이는 1.4m이다. 북벽의 중간부분에는 밑너비 6~7m, 높이 0.4m정도의 성벽이 나타나 있는데 황갈색의 진흙으로 다짐하여 쌓았다. 북벽의 서쪽부분에는 성벽이 땅겉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표에서 얼마간 내려 파서 생긴 지층단면을 통하여 성벽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산봉우리에서 북쪽으로 얼마간 내려간 곳에는 현지표의 30cm 깊이에서 판축한 성벽의 흔적이 나타났다. 성벽은 암반까지 내려 파고 다져 쌓았는데 연갈색흙층이 7cm, 그우에 회색진흙층이 5cm, 그우에 붉은진흙층이 2cm, 그우에 회색진흙층이 4cm, 그우에 붉은색진흙층이 2cm의 두께로 남아있다.

고방산성 둘레의 길이가 이전에는 4km이라고 전해왔지만 이번에 다시 조사를 진행한데 의하여 그보다 작으며 2km정도로 보인다. 이 성은 산과 평지를 포함하여 쌓은 성으로서 이런 성은 장기간의 전투를 진행하는 데서는 불리한 점이 있으나 강을 방어하기에는 유리하다. 성안에는 당시 군사시설들이 있었던 자리가 있으며 성안의 여러곳에서는 대성산성에서 나온 것과 꼭같은 고구려기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사회과학원 2008: 50).

청호동토성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기 이 토성이 고구려시기에 쌓은 성이며 (남일룡 2000: 72) 수도의 남쪽 관문을 지키기 위한 성이었다고(사회과학원 2009: 51) 기록되어 있지만 그 형태와 크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청호동토성은 고방산성에서 서쪽으로 3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둘레가 1500m정도 되는 이 토성은 다른 토성에 비해 돌을 많이 섞어 쌓았다고 한다. 성벽은 남벽과 북벽, 서벽의 일부만이 남아있고 동벽은 완전히 없어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지형도에 표기된 성벽 지물과 비교적 일치되는 것으로서 현재 디자형으로 되어 있다. 가장 잘 남아있는 성벽은 남벽인데 동쪽의 일부분이 잘리워 없어지고 중간부분과 서쪽부분이 남아있다. 현재 남은 남벽의 동서 길이는 300m정도이고 너비는 7m, 높이는 약 1.5m이다. 남벽은 수로뚝으로 오랫동안 리용되어 왔다.

북벽은 남벽과 평행으로 쌓아져 있는데 동쪽부분과 중간부분이 거의 류실 되고 서쪽의 일부만이 남아있다. 남은 성벽의 길이는 약 50m정도이고 너비 는 8m, 높이는 1.5m정도이다.

서벽의 웃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데 그 길이는 약 300m정도이다. 토성은 붉은색진흙을 리용하여 쌓았다.

청호동토성은 대동강나무다리 유적으로부터 500m정도 가까운 곳에 있으며 그 동쪽 성벽은 다리를 지나 안학궁 정문에 이르는 북남 주작도로와 거의 린접하면서 평행으로 놓인다. 그리고 왕궁인 안학궁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구역을 사이에 두고 청암동토성과 고방산성이 서-동으로 대칭되게 배치된 것처럼 청호동토성도 북쪽의 대성산성과 북-남으로 대칭되게 놓여있다. 이러한 조화롭고 규칙적인 위치관계와 조사답사자료는 청호동토성을 수도의

남쪽 관문을 지키기 위한 방위성으로, 대성산성, 청암동토성, 고방산성들과 함께 고구려 수도의 최종 방어체계를 이루고 있던 것으로 본 종래의 고고학 적견해의 타당성을 확증해 준다.

최근 청암동토성의 일부 성벽을 옛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복원하면서 북 쪽성벽의 일부를 발굴하였다.

새로 발굴한 성벽은 청암동토성 북문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이미 발굴한 성벽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300m 떨어져 있다. 이곳 성벽은 낮은 산륭선을 따라 쌓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으므로 다른 성벽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류 실되어 뚝처럼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약 3m이고 밑너비는 약 12,2m이다. 성벽의 안쪽은 바깥쪽보다 조금 높다.

청암동토성의 북쪽 성벽을 발굴한데 의하면 성벽은 네번 쌓았다는 것이확인되었다.

맨밑에 있는 첫번째 성벽은 여러 가지 흙으로 다지면서 쌓았다. 성벽을 쌓은 흙은 주로 붉은갈색과 갈색흙인데 작은 돌들이 약간 섞여있다. 이 성벽의 현재 밑너비는 약 6.2m이고 높이는 약 2.8m이다. 성벽의 안쪽부분은 많이 류실되어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 성벽의 바깥쪽 경사각도는 약 50°이다.

두번째 성벽은 첫번째 성벽의 바깥쪽을 보강하여 쌓았다. 성벽은 갈색진 흙과 작은 돌들을 섞어 쌓았다. 이 성벽의 밑너비는 약 2.5m이고 높이는 약 3m이며 성벽 경사각도는 약 40°이다.

세번째 성벽은 두번째 성벽 바깥쪽을 보강하여 쌓았다. 이 성벽은 갈색진 흙과 약간 큰 돌을 섞어 쌓았다. 성벽에 섞인 돌의 크기는 약 4~8cm이다.

성벽의 밑너비는 약 1.5m, 높이는 약 2.5m, 성벽 경사각도는 약 40°이다. 네번째 성벽은 세번째 성벽 바깥쪽을 보강하여 쌓았다. 이 성벽은 갈색 진흙과 비교적 큰 돌을 섞어 쌓았다. 성벽에 섞인 돌들의 크기는 대체로 10~25cm이다.

현재 성벽의 바깥부분에 약간 가공한 돌들을 한돌기 쌓은 것이 알려졌으므로 이 성벽의 바깥면으로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성벽 밑너비는 약 2m이다.

청암동토성벽 바깥부분에 성돌을 한돌기 쌓은 것이 약 15m 구간에서 알려졌다. 이 성돌들은 대부분 사암인데 길이 약 25~25cm, 높이 20~30cm, 너비 약 30~35cm이다. 일부 성돌에는 웃부분을 약간 턱을 지어 가공한 흔적이 있다. 성돌은 암반우에 놓은 것도 있고 흙과 돌을 섞어 약간 기초를 한 다음 그우에 놓은 것도 있다.

청암동토성의 마지막 성벽 밖으로는 너비 1.8m, 길이 약 15m 되는 돌로 포장한 도로시설이 새로 알려졌다. 이 도로시설은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계 속된다. 돌 포장한 도로시설에는 갈색사암, 검은색사암을 깔았다. 돌 포장 시설은 두께가 약 10cm되는 각이한 크기의 판돌들을 서로 맞물려 깔았다. 돌 포장 시설 밑에는 진흙에 작은 돌을 섞어 약 10cm정도 깔거나 암반부분 에는 진흙을 약간 깔고 포장돌을 놓았다. 돌 포장 시설은 성을 보위하기 위한 도로로 볼 수 있다.

청암동토성 성벽에서는 밖으로 약 20m 떨어져 너비 약 3m, 깊이 약 1.5m 되는 암반을 까내고 만든 도랑 흔적이 발견되었다. 현재 이 도랑 흔적은 다른 흙으로 메워져 있고 웃부분이 많이 류실되었으므로 원래의 크기와 형태는 잘 알 수 없다. 이 도랑 시설은 일반물 도랑이 아니라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청암동토성의 마지막 성벽에서는 고구려시기 붉은색기와쪼각과 회색질그 릇쪼각들이 발굴되었다.

새로 발굴된 청암동토성의 성벽 구조는 이미 발굴된 북성벽 구조와 같다 (남일룡 2000: 19). 그러므로 청암동토성의 북성벽은 모두 고조선시기에 처음 쌓아졌고 고구려시기에 세번 고쳐 쌓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청암동토성의 85m 구간을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복구하였고 약 200m 구간을 정리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암동토성은 우리 선조들의 높은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보여주며 고조선, 고구려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유적으로 된다.

새로 조사발굴된 고구려의 성곽 유적에 대한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능숙히 리용하면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견고한

성곽 시설들을 수많이 축조하여 성곽의 나라로 이름 높았던 고구려의 강력한 방위력, 고구려 사람들의 발전된 성 축조기술과 고유한 성곽 시설물들의 창안도입 그리고 수도성 방위체계를 비롯한 고구려성 방어체계에 대하여 더 깊이있게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동방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성곽 유적을 비롯한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발굴사업을 더 힘있게 벌려 고구려의 발전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면모를 깊이 있게 밝히고 그 위상을 내외에 널리 떨치도록 하 겠다.

## 참고문헌

남일룡(2000) 『조선의 성곽』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19, p.72. 사회과학원(2008) 『조선고고학총서』 28권, p.50. 사회과학원(2009) 『조선고고학총서』 28권, p.5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평양부 고적조. 지승철(2003) 『고구려의 성곽』, 사회과학출판사, p.204.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1, 대동수경 권3 패수, p.2.

# 전후복구기 보건의료분야 재건에서 외국 원조의 성과와 영향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국립의료원-

황상익

서울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1950년대, 3년 동안의 전쟁1으로 한국사회는 극도로 피폐해졌다.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의료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했고, 의료 인력의 손실도 심각한 상태였다. 복구를 위한 재정도 크게 부족했다(〈표 1〉). 그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했다.

〈표 1〉 1950년대 보건사회부 예산 총액과 보건의료 사업 예산2

연 도	보사부 예산 총액(환)	의료구호사업(환)	보건위생 사업(환)
1951년	1억9,000만환	5,600만환	800만환
1954년	72억4,000만환	5억1,500만환	2억9,700만환
1957년	110억7,700만환	19억6,500만환	11억8,200만환
1959년	134억2,900만환	25억3,500만환	9억2,500만환

<sup>1</sup> 이 글에서 '전쟁', '전쟁 이후', '전후(戰後)' 등으로 표현한 것은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벌어진 '6·25전쟁(Korean War)'을 가리킨다.

<sup>2</sup> 남찬섭(2005). 1950년대 환-달러 환율은 대략 1달러 대 500환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나라가 전쟁의 한 당사국인 미국, 그리고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이었다.<sup>3</sup> 이 4개국은 당시 의료수준이 최첨단이었으며, 국민들의 건강수준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 은 편에 속했다.<sup>4</sup>

한편, 미국은 사적(私的) 의료체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 반면에 스칸디나비아 3국은 당시에도 공공 의료체계의 모범국이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이들 나라들로부터 최첨단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두가지 대조적인 의료체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 셈이었다.

# 2. 1950년대 한국인의 건강상태

1950년대 한국인들의 건강상태를, 가장 대표적인 보건지표(health index) 인 평균수명<sup>5</sup>과 영아사망률<sup>6</sup>을 통해 살펴보자. 1950년대부터 각국의 보건지표를 조사, 수집, 축적해 온 유엔인구국(UN Population Division)의 자료를 보면(〈표 2〉),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50~1955년 47.9세, 1955~1960년 51.2세였으며 영아사망률은 각각 138.1과 114.5였다.

당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지원한 미국이나,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큰 도움을 준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는 물론이고 일본과 비교해도 건강수준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빈국(最貧國) 신화'와

<sup>3</sup>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의 지원도 있었지만 규모나 성과 모두 그리 크지 않았다.

<sup>4</sup>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 스칸디나비아 3국의 건강수준이 더 높았다(〈표 2〉참조).

<sup>5</sup>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출생시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birth)으로, 어떤 해예 출생한 아기가 평균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예측치이며 그 해의 각 연령별 사망률로부터 계산한다.

<sup>6</sup>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은 어떤 해에 태어난 아기가 만 1세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로, 출생아 1000명당 사망 영아 수로 나타낸다.

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1950년대 한국인들의 건강수준은 선 진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하지만 후진국들(less developed regions)보다 는 양호한 편이었고, 세계 평균치와 비교해도 약간 나은 정도였다.<sup>7</sup>

〈표 2〉 1950년대 몇개국의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평균수명(세)		영아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	
	1950~1955	1955~1960	1950~1955	1955~1960
한 국	47.9	51.2	138.1	114.5
덴 마 크	70.9	72.1	28.3	23.6
노르웨이	72.7	73.5	22.3	18.9
스 웨 덴	71.7	72.8	19.7	17.0
미 국	68.6	69.6	30.5	27.3
중 국	44.6	45.0	121.7	117.9
일 본	62.2	66.3	50.1	37.3
소 련	58.5	64.8	100.5	59.4
선 진 국	64.7	67.7	59.6	43.2
후 진 국	41.6	44.2	152.5	140.4
최빈국	36.4	39.0	199.0	180.9
세계 평균	46.8	49.2	141.8	129.7

유엔인구국.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년 개정판.

또한 1950년대에 크게 문제가 되고 피해를 많이 준 질병도 오늘날과 많이 달랐다(〈표 3〉). 당시 한국인들의 사망원인을 보면 폐렴/기관지염, 결핵, 위 장염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고<sup>8</sup> 요즈음 가장 큰 문제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했다. 요컨대 질병 패턴도 전형적인 '후진국형'을 보이고 있었다.

<sup>7</sup> 건강수준은 단순히 의료수준과 보급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한 국가의 모든 측면이 관여해서 결정되는 '종합성적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야 할 것이다.

<sup>8</sup> 통계의 신뢰도와 정확도는 높지 않지만, 이를 통해 당시의 대체적인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변화(인구 10만명당 1년간 사망자 수)

순위	1958년	1966년	1979년	1991년	2001년	2010년
1	폐렴/기관지염	폐렴/기관지염	뇌혈관질환	암	암	암
	(73.8)	(43.8)	(93.7)	(105.2)	(123.5)	(144.4)
2	결핵	결핵	암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39.5)	(35.8)	(74.0)	(72.6)	(73.8)	(53.2)
3	위장염	뇌혈관질환	순환기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심장질환
	(31.0)	(26.1)	(73.1)	(49.1)	(34.2)	(46.9)
4	암	암	고혈압	운수사고	당뇨	자살
	(25.8)	(25.8)	(54.5)	(38.2)	(23.8)	(31.2)
5	뇌혈관질환	위장염	사고	간질환	간질환	당뇨
	(19.6)	(14.2)	(44.4)	(32.2)	(22.3)	(20.7)
6	심장질환	사고	결핵	고혈압질환	운수사고	폐렴
	(8.5)	(12.8)	(30.7)	(29.9)	(21.0)	(14.9)
7	사고 (8,2)	심장질환 (11.7)	간경변/ 간질환 (24.1)	당뇨병 (12.4)	만성 하기도질환 (19.0)	만성 하기도질환 (14.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9) 『사인별 사망률』; 통계청(1991, 2001, 2010) 『시망원인통계』. 해당 연도.

# 3.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국립의료원

# 3.1.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수행9

흔히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라고 불리는 '국립서울대학교 협력사업'은 전쟁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을 재건하는 데 가히 결정 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울의대와 병원에 서 행해지는 교육, 연구, 진료, 간호업무에 지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 다. 또 그러한 영향은 전국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과 병원, 그리고 간호 분야 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었다.

<sup>9</sup>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은 이왕준의 2006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사학 전공 의학 박사 학위논문(지도교수 황상익)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의학교육에 미친 영향"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8·15해방 후 한국의 의학과 의료는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화'하기 시작하였는데,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그러한 과정을 촉진·심화· 공고화하였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제협력본부(ICA, 전신은 해외활동본부 FOA) 가 미네소타 대학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을 지원한 교육원조사업이다. 미국은 전쟁 후 한국의 교육을 재건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그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외 교육원조사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였다. 그만큼 당시 한국의 사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요충지로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교환교수 프로그램, 시설 복구, 장비 지원이었다. 당초 계획은 3년이었지만, 2번의 연장 조치에 따라 1954년 9월부터 1961년 6월까지 약 7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원 분야도 수의과대학과행정대학원까지 확대되었다. 226명의 서울대학교 교수10들이 미네소타 대학에서(일부는 다른 대학과 다른 나라에서) 연수를 하였고 59명의 미국인 자문관이 한국에 상주하며 교육 체계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또한 시설 복구 및개선 사업비로 330만 달러(한국정부 지원 3억400만환 포함), 장비 및 물품지원비로 278만 달러(한국정부 지원 7억7,700만환 포함)가 지원되어 인적교류 비용 350만 달러를 합하면 거의 1,0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이 사업에투여되었다.

의과대학에 미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영향은 다른 단과대학들보다 더 뚜렷하였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건물과 시설들이 대대적으로 개보수되었고, 의과대학 도서관, 간호학과, 간호원 기숙사가 신축되었으며 각종 실험기기와 연구장비들이 면모를 일신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1950년대 말이 되면의과대학과 병원은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제법 갖추게 되어 훨씬 개선된 여건에서 교육과 연구,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sup>10</sup> 조교, 대학원생과 행정직원들도 약간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교부터 교수까지 모두 77명의 교수요원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년 동안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수하였고, 11명의 미국인 자문관이 연이어 서울의대에 상주하며 프로그램의 진행을 도왔다. 그리고 그 기간 동 안 간호학과와 보건대학원이 신설되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연수한 교수들과 미국인 자문관들을 통해 현대의학의 새로운 지식과 교육방법이 소개되고 미국식 의료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일본식의 주입식 이론중심 의학교육은 보다 실용적인 임상중심, 실험중심의 미국식 의학교육으로 대체되었다. 또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증례 위주의 토론방식과 병상교육이 도입되었으며, 학생임상실습제도와인턴, 레지던트 제도가 정착되었다. 불과 몇해 사이에 "급격하고 신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 3.1.1.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입안 과정

미국이 1945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에 제공한 무상 원조는 31억3,730만 달러이며, 그 가운데 56%인 17억4,390만 달러가 1953년 8월부터 1961년 9월 까지 FOA와 ICA를 통해서 제공되었다(홍성유 1962: 21-25). 그리고 FOA, ICA 원조 중 교육분야 원조액은 약 2,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47%(고등교육부문 원조의 86%)가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한준상·김성학 1990: 143).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교 재건은 전쟁 후 교육 분야에 대한 미국 원조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군 정기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국대안)' 이래 일관되게 진행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원조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전쟁 발발 이후 미국정부와 유엔은 공동으로 한국에 대해 교육지원을 하였는데, 1952년부터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교육 재건의 책임을 맡았다. 1952년 유네스코와 UNKRA가 합동으로 구성한 '한국을 위한 교육기획위원회(EPMK)'는 다른 대학들에 앞서 서울대학교부터 복구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의대·농대·공대 및 기초과학분야를 가장 먼저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UNKRA는 미국정부의 FOA와 함께 한국 고등교육 지원을 분담

하게 되었으며, 1955년 FOA의 후신으로 ICA가 설립된 이후에는 UNKRA의 교육지원 임무가 ICA로 이관되었다.

미국과 유엔의 관계자들은 전쟁으로 인한 황폐를 딛고 한국이 발전하려면 고등교육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대학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지도력을 발휘할 대학, 즉 서울대학교")<sup>11</sup>을 지원하여 그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였고, 그리하여 선택된 것이 서울대학교였다.

따라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서울대학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통로로 서울대학교를 선택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을 '미국식'교육과정을 통해 재교육하여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에 교육 원조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당시부터 있었다. 그것은 편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고등교육 재건사 업을 국립대학 중심으로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에만 집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지원을 독차지하는 데 성공하 였다.

서울대학교의 12개 단과대학 중에서도 의대·농대·공대 등 3개 단과대학이 선정된 것은 다른 저개발국가와 마찬가지로 의학·농학·공학 부문이당시 한국 경제와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외 원조, 특히 한국에 대한 원조의 기본목표는 경제적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외부 지원이 최소화되도록 자립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었는바, 이에 따라 교육 분야의 지원도 과학기술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FOA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미국 대학으로 미네소타 대학교를 선정하고 1954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sup>11</sup> 미네소타 대학교의 의학분야 총괄 자문관인 멀로니(William Farlow Maloney)의 표현.

## 3.1.2.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경과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핵심은 교환교수 프로그램이었고, 장비 보완, 건물 및 시설 복구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새로운 장비는 대체로 교수들의 귀국 시 점을 감안하여 도입되었고, 미국인 자문관들의 역할도 귀국한 한국인 교수 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미네소타 대학교는 교환교수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세웠다. 우선 서울대학교 총장, 학장, 병원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에게 3~6개월의시찰 과정을 제공한다. 그 다음으로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에게 새로운 교육내용과 연구방향의 이해를 위해 1년의 연수과정을 마련한다. 그리고 조교수급 이하의 교수들에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심층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학위과정(대체로 2년)을 수료케 하였다.

장비 지원도 미네소타 대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해당 단과대학별로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제출케 한 다음 검토와 토론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였다.

미네소타 대학은 프로젝트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본부에 조정 관을 두고, 한국에는 수석자문관과 단과대학별 총괄자문관 및 세부분야별 자문관을 파견하였다.

사업기간별로 사업 내용과 특징을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사업기간(1954년 9월 28일~1957년 9월 30일)은 주로 한국의 교수요 원들이 미국의 발달된 의학을 보고 배우는 기간으로 학장부터 조교급에 이 르기까지 전체 사업기간 중 가장 많은 인력이 대부분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 수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교환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교수요원 은 모두 122명이며, 그 가운데 의과대학이 36명이었다.

미국인 자문관은 공대와 농대에는 1955년과 1956년에 집중적으로 파견되었으나 의대에는 1957년부터 파견이 본격화되었다. 즉 의대 자문관들은 주로 교환교수의 귀국과 시설복구 및 장비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때에 파견되었다.

#### 594 국제고려학 16호

2차 사업기간(1957년 10월 1일~1959년 9월 30일)에는 자문관들이 세부영역별로 파견되어 연수를 마친 한국인 교수들과 협력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 무렵까지 계획된 시설 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졌고, 여러 장비와 기기가도입되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교육과 연구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빠르게 정착되어 갔다. 새로운 강의 · 실습과 평가방법이 소개되었고 병상교육이 본격화되었으며 학생임상실습제도, 인턴 및 레지던트 제도가 도입되었다. 간호교육이 고등학교 수준의 간호고등기술학교에서 대학급으로 격상되었으며, 공중보건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대학원이 설립되었다.

2차 사업기간 동안 교환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요원은 모두 56명이며, 이 가운데 의과대학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문관 8명 중 의과대학 자문관은 5명이었다.

3차 사업기간(1959년 10월 1일~1961년 6월 30일)은 새로운 교육방식과 제도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미국의사자격시험(ECFMG)에 서울의대 졸업생의 90% 이상이 합격함으로써 새로운 방식, 즉 미국식 의학교육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외국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생기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이룰 만한 변화와 혁신은 거의 이루었으므로 더 이상의 사업 연장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미네소타프로젝트 제14차 진행보고서)라고 할 정도의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또 한 차례 연장을 둘러 싼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정부는 실질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하므로 서울 대학교 지원은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네소타 대학 측은 프로젝트가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새로 문리과대학을 포함시키고 나아가 전국의 국립대학까지 사업대상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업의 종료로 귀결되었다. "이룰 만한 변화와 혁신은 거의 이루었으므로" 굳이 한국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었다.

미국 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자료에 의하

면, 7년 동안 프로젝트에 투여된 비용은 인적 교류에 350만 달러,<sup>12</sup> 건물 복구와 수리에 ICA로부터 300만 달러, 한국정부로부터 30만 달러, 그리고 장비와 물품 공급에 ICA로부터 200만 달러, 한국정부로부터 78만 달러 등 총958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의학 분야에 투여된 비용은 인적 교류에 133만 달러, 건물 개보수와 시설·장비 확충에 136만 달러(한국정부 부담 4만8천 달러 포함) 등총 269만 달러로 프로젝트 전체 사업비의 28.1%이었다.

## 3.1.3.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 3.1.3.1. 교환교수 프로그램의 성과

미네소타 프로젝트 사업기간 동안 의과대학에서는 총 77명이 교환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의학과 교수 62명, 간호요원 9명, 보건대학원 4명, 병원행정직 2명 등이었다(Gault 1961: 13-15).

이 '교환교수 프로그램(faculty exchange program)'은 실제로는 조교수, 강사, 조교 등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 과정과 중견교수들을 위한 견학과정(대체로 3개월부터 1년 이하)으로 진행되었다. 학장과 병원장은 주로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찰을 통해 프로그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의 중견교수들은 대부분 1년 과정의 견학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미국식 의학교육체계와 교육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조교수급 이하의 경우, 기초의학분야는 의무적으로 학위를 받도록 한 반 면, 임상분야는 학위 취득이 필수사항은 아니었고 대학원에 등록하여 학점 을 따도록 하였다.

미네소타 대학은 교환교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것은 미국 원조당국이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미국이 2차대전 후 전세계

<sup>12</sup> 사업 초기 교환교수 프로그램에 책정된 비용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75만 달러이었지만, 1961년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애초 계획의 4.6배가량인 350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수많은 교육원조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지 않은 의과대학 교수가 3명에 불과한 점 또한 호평을 받았다.

교수들의 귀국 후 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다. 그들은 미국에서 배운 의학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전파하였는데, 1차적으로 서울의대 학생들에게, 나아가 전국의 다른 의과대학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3.1.3.2. 미국인 자문관들의 활동

1956년부터 1961년까지 의과대학에 파견된 자문관(대부분 미네소타 대학교수)은 모두 11명으로,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158.5개월(평균 14.4개월)이었다(Gault 1961: 19-21). 자문관의 역할은 귀국한 교환교수들이 연수 중에 습득한 지식 및 기술과 교육방법을 교육과 연구, 진료에 활용할 때 그 효과가극대화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또 관련 제도의 개선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었다.

미네소타 대학의 공식 보고서에는 자문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자문관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 과대학 및 병원의 각종 정규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행정과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문관의 업무수행이 한국 교수들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 으로 여겨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연구, 환자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한국 교수들이 수용하도록 주장 하고 자문하고 지원해야 한다."(University of Minnesota 1960: 60-61).

자문관들의 활동 방식은 회의 참석, 강의와 진료, 권고안 제시, 기술지도, 시범, 개별 자문 및 상담 등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역할을 지원에 한정지었지만, 의과대학과 병원의 연석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함으 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도 하였다(김동익 1979: 167).

#### 3.1.3.3. 시설 복구와 장비 지원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총 74만 달러(한국정부 부담 4만8천 달러 포함)가 의과대학과 병원의 시설 복구에 투자되었다. 이 재원으로 의과대학의수도, 전기 시설, 동물실, 항온실, 강당 등이 개보수되었으며, 150석의 학생열람실과 교수열람실 및 서고를 갖춘 도서관이 증축되었다.

병원에서는 일제 말기에 착공하였지만 중단되었던 서1병동(부인과 병동)과 서2병동(소아과 병동)을 완공하였으며, 난방, 수도 및 전기설비 보수, 복도 개수, 도로 포장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5만 갤런의 저수탱크와 보일러가신설되어 물 공급과 난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1959년에는 수술장건물과 방사선과가 증축되었고, 1961년에는 약국창고, 조제실의 증축과 함께 새로운 취사장과 세탁장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도입한 취사, 세탁시설이 설치되어 병원시설이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었다. 당시 다른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장, 공급실, 취사실, 세탁실 등 새로운 시설들을 견학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현대식 병원'에 대한 교육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기초의학부문에 22만4천 달러, 임상의학부문에 38만1천 달러, 간호학과에 1만4천 달러 등 총 62만 달러가 교육연구 및 진료용 기기 도입에 투입되었다. 특히 투자가 많이 된 곳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과 부속병원 방사선과, 중앙공급실과 간호과였다. 이러한 지원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많은최신식 기기들이 도입되어 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장비가 대폭 보강되었고, 부속병원의 진료 장비가 현대화되었다.

## 3.1.3.4. 의학교육의 개선과 변화 - 교과과정 개편과 임상실습 강화 등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제1기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던 1957년부터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개편이 본격화되었다. 그에 따라 의학과 1, 2학년의 기초의학교육에서 실험실습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강의시간이 줄어들었다. 의학과 3, 4학년의 임상교육에서도 임상실습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임상실습이 입원환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 598 국제고려학 16호

그리고 1959년말 구성된 교과과정위원회의 연구를 통해 3, 4학년 학생들에게 하루 6시간씩 병동과 외래실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임상교육이 더욱 '현대화' '미국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1958년부터 인턴 제도, 1959년부터 레지던트 제도가 정식으로 실시됨으로써 졸업전 및 졸업후 임상교육의 기본 틀이 갖추어졌다.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교육방식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초기에는 교육재료와 시설이 부족하여 종래의 '설교식' 강의 위주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점차 슬라이드, 영화, 비디오, 모형 등 교육재료가 확보되면서 수업방식이 변화하였고, 또 일방통행적인 주입식에서 상호 토의식으로 바뀌어갔다. 그리하여 1960년에 이르러서는 임상-병리토론회 (clinical pathological conference)를 비롯한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그랜드라운드 등의 다양한 교육방식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교수들이 독일어나 라틴어 학술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대체로 영어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

1956년경부터는 영어판 교과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식 의학의 영향이었지만 그와 더불어 도서관이 과거에 비해 충실해졌고 학 생들이 원서를 구입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3.1.3.5. 인턴, 레지던트 제도의 도입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계획되는 과정에서 인턴-레지던트 제도의 도입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식 의학교육과 의사 양성에서 병원내 수련이 졸업후 의학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인턴-레지던트 제도가 확립된 것은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1958년 최초로 18명을 인턴으로 선발하여 1년 동안 수련을 시킴으로서 본격적인 제도 확립에 나섰다. 보건사회부도 서류심사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과도적인

'전문과목 표방허가제'에서 일보 전진하여 1960년 전문의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의 자격고시제'를 마련하였다.

자문관 플링크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당시의 인턴 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인턴 제도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훈련을 완성하기위해 필요하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다른 병원들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의대 자문관들의 공통적이고 확고한 의견이다. 인턴 제도는 다른 의과대학 출신 학생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하며, 인턴은 출신 학교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학생들의 임상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 인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link 1958: 27).

#### 3.1.4.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1950년대 후반 이래 지금까지 서울의대와 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제도와 의료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서울의대 울타리를 넘어 가히 한국사회 의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의과대학에 근무한 마지막 총괄자문관이자 그 뒤에도 China Medical Board를 통한 지원에 관여한 골트(Neal L. Gault)는 1961년 9월 25일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한국, 국제의학교육의 새로운 모험'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한국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룬 성취를 높이 평가하였고 또그것을 통해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성과를 개괄하였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교수들은 연구를 학자의 주요한 책무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시설과 재정의 한계로 제대로 된 연구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임상연 구실험실이 재건됨에 따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은 방사선동위원소와 같은 최신 기술을 연구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몇몇 연구자들의 논문은 미국과 영국의 과학학술지에 실리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의학학술지에도 상당한 양의 논문을 게 재하고 있다.

서울의대는 몇 해 전과는 크게 다른 교육기관으로 변신했다. 미네소타 대학교 등에서 연수를 받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환자진료, 연구 등에서 질적 개선을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러한 성취는 바로 서울의대 교수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다. 우리 자문관들은 단지 지원하는 데 머물렀다. 한국 교수들이 의학교육에서 얼마나 참다운 진전을 이룩했는지는 나의 몇 마디 설명보다 최근 학생들이 미국의사자격시험에서 보여 준 기록이 몇 배 더 생생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졸업생들이이번 시험에서 보여준 90%에 가까운 합격률은 진실로 뛰어난 성취의 하나이다."(University of Minnesota 1961: 73-85).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최근에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1960년대부터 1970년 대초까지 서울의대 출신을 비롯하여 한국의 많은 의료인력이 미국으로 유출 (brain-drainage)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두뇌유출이 당시 한국의 의료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는 옹호론과 또 유출된 의료인력이 그 뒤 한국의학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학이 지나치게 미국식으로 편향되는 데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작용하였다는 비판이다.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의학의 미국화에 큰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미국식 편향이 얼마나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어쨌든 미국측 입장에서 보면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의료체계를 미국화한 것은 대단히 큰 성취였다.

셋째는 미국의 다른 교육원조가 분산지원 방식을 취한 것과는 달리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서울대학교에만 집중된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미국의 한국 교육원조 총 2,000만 달러 가운데 거의 절반(고등교육 부문만계산하면 86%)이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할애됨으로써 서울대학교(의과대학)가 너무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대해 집중지원 방식으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반론도 있다.

## 3.2. 국립의료원 설립과 운영

국립(중앙)의료원은 전후 복구기인 1956년 3월 13일 한국정부, 스칸디나비아 3개국(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정부 그리고 유엔한국재건단(UNKRA)사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세워지게 되었다. 그 '협정'의 골자는 "서울시립병원에 새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설치하는바, UNKRA에서는 중앙의료원의 건물과 시설을 부흥 · 재건하고,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위하여 물자를 비치 · 공급하고 의료요원 및 기술요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도 상응하는 부담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스칸디나비아 3개국이 국립의료원 설립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쟁 중에 의료지원을 13 한 데에서 비롯된다. 즉 노르웨이는 60 병상 규모의 이동외과병원을, 덴마크는 100여 명의 의료요원을 갖춘 병원선 유틀란디아(Jutlandia)호를, 스웨덴은 160여 명의 의료요원으로 이루어진 적십자병원을 파견하여전상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진료, 그리고 한국인 의료진 교육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들 3국의 병원시설과 의료요원은 전쟁이 끝남에 따라철수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정부의 요청과 UNKRA의 중재로 스칸디나비아 3개국은 한국의 전후 의료 재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위의 협정에 따라 관계 국가들과 UNKRA는 1956년 4월부터 병원 재건과 신축에 착수하여 2년 반 뒤인 1958년 10월 2일 "동양 굴지의 의료시설과 규 모를 자랑하는 메디컬 센터"가 준공되었다. 신축 개원한 국립의료원이 동양 굴지인지는 차치하더라도 국내 최고의 시설과 최대의 규모를 갖춘 병원이었 다는 점은 명확하다. 또 당시 국립의료원은 시설과 장비가 뛰어났을 뿐만 아 니라 스칸디나비아의 일급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한국인 의료인으로 구성 된 의료진의 진료 및 간호 실력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에는 개원 초부터 수많은 환자가 밀려들었다. 이렇게 환자들

<sup>13</sup> 스칸디나비아 3국 외에 인도와 이탈리아가 전쟁 중 한국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이 의료원을 많이 찾은 데에는 최상의 시설과 진료수준 이외에 75%의 환자가 무료진료를 받았던 점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요컨대 국립의료원은 당시 수많은 빈곤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말하자면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국립기관이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공공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사설 의료기관이 가장 번성한 미국보다도 공공 의료기관의 비중이더 낮다.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웠던 시절의 국립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 이외에 국립의료원의 설립 목적은 빼어난 실력과 의료인으로서의 인성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행정요원의 양성과 훈련이었다. 의료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국립의료원에서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에게 수련을 받아 뒤에 한국의 의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60년대에 국립의료원은 가장 인기 있는 교육수련병원 중 하나였다. 또한 1959년 6월 국립의료원 부속으로 간호학교(3년제)를 신설하여 직접 간호사들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병원행정 요원들도 북유럽의 선진적인 병원행정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국립의료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병원행정 개선과 발달에 기여하였다.

국립의료원이 개원할 당시의 계획은 5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정부와 의료 요원들의 물적·인적 지원을 받고 1963년 말에는 한국정부가 국립의료원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영권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 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스칸디나비아 정부와 의료요 원의 지원은 1968년까지로 연장되었다.

1968년 10월부터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예산의 감소였다. 이에 따라 무료진료 환자는 크게 감소하였고, 진료비 지불방식도 이전의 종합수가 제(포괄수가제)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바뀌었다. 14 당시의 어려운 형편에 따

<sup>14</sup> 종합수가제(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는 스칸디나비아식 의료체계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수가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이다.

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크 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 3.2.1. 국립의료원의 설립

1956년 3월 13일 한국정부, 스칸디나비아 3국 정부 그리고 UNKRA 사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체결에 앞서 협정(안)을 논의, 의결한 국무회 기록에는 "1951년 의료 지원에 참가하였던 덴마크 병원선 선장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중앙의료원을 설립할 의향을 표명하였던바 당시 스칸디나비아 3국 관계자들은 각기 자기 정부에 대하여 이 문제에 관한 건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3국 및 UNKRA를 당사자로 하여 협정 체결에 착수하게 되었다"고되어 있다. 한국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립의료원 설립에 관여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국립의료원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협정'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한국에서 한국인을 위하여 의료사업을 행하며 한국인 의사, 상급 의학생, 간호원 및 기술자를 훈련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설치 운영한다.
- 2) 의무: (1) 한국정부는 ① 서울시립병원 건물 및 대지를 제공하고 ② 의료원의 건물, 대지의 관리와 유지를 하고 ③ 의료원 직원 충당 및 그들에 대한 급료 지출, 건물에 대한 난방, 전기, 급수, 안전 유지, 의료원의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 환자 간호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부담하고 ④ 스칸디나비아 정부가 채용한 요원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UNKRA 직원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
- (2)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① 의료원 운영을 위하여 약 8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② 스칸디나비아인 직원에 소요되는 제 지출비와 한국 근원 아닌 제시설 및 공급품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하여 건설기에는 2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그리고 건설 만료 후부터 5년간은 매년 1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UNKRA에 기부한다.

#### 604 국제고려학 16호

- (3) UNKRA는 ① 의료원의 부흥, 추가 시설 및 기숙사의 건설 등을 위하여 240만 달러를 제공하고 ② 스칸디나비아 지역 정부가 기부한 기금을 관장, 지출한다.
- 3) 협정의 유효기간 : 의료원의 건설 부흥이 완료되었다고 협정 당사자 간 에 합의된 날짜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4) 의료원 운영: 원장은 한국인이며 원장을 포함한 한국인 3명과 스칸디나비아 의료단장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인 3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운영한다."

협정 내용에 의하면 이 국립의료원 사업은 병원 건설에 240만 달러(UNKRA 제공), 병원 운영에 연간 150만 달러 내지 200만 달러(스칸디나비아 3국 정부부담)가 소요되는, 당시 한국정부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었다. 15 그리고 이 계획은 거의 차질 없이 수행되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1957년 3월 23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디칼 센타는 내가 주모해서 시작하는 것인데 동양에서 제 분야에 중심을 일본에 두는 경향을 시정하고 그 중심을 한국에 옮기자는 원대한 이 상이 있는 것이니 정부에서 원대한 계획으로 본 취지를 살리되 독일이 계획 에 참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장래에는 의과학 분야에 있어 동양의 대표로 서 연구 발명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 주권 하에 운영해야 한다. 메디칼 센타에는 저명한 세계의 의학자를 많이 초빙하고 미국의 저명한 재 단의 원조로서 창생의 구명 사업에 크게 공헌하여야 한다."이 발언에 따르 더라도 국립의료원 사업은 당시 한국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보건의료 사업 이었다.

국립의료원은 1956년 9월 초순에 착공한 지 2년 만인 1958년 10월 2일 준공식을 가졌다. 원래 계획대로 UNKRA 자금 240만 달러로 지어진 국립의 료원(서울시 중구 을지로 5가)은 7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총 건평 7천평, 병상 465개로 국내 최대 규모였다. 장비 또한 국내 어느 병원과 비교할 수

<sup>15</sup>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의학 분야에 투여된 총 비용 269만 달러와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다.

없을 정도로 질과 양에서 뛰어났다. 개원 당시 의료인력은 스칸디나비아 3 개국의 의사 25명, 간호원 43명, 기술직 등 총 88명과 한국인 의사 70명, 간호원 99명으로 한국 최고 수준이었다.

## 3.2.2. 국립의료원 운영(1958년~1968년)의 성과

국립의료원은 1958년 11월 28일 정식으로 개원한 이래 1968년 9월 30일 까지 10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3국과 한국정부 및 의료계의 협력으로 운영되었다. 원래 스칸디나비아 3국은 개원 이후 5년 동안 국립의료원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지원 기간이 5년 연장된 것이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이 그 기간 동안 병원 운영에 투입한 비용은 1,360만 달러였으며, 개원 이전에 장비 및 기기 구입 등에 지원한 170만 달러를 합하면 총 1,530만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10년 동안 국립의료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총 201만여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무료환자가 140만여 명으로 전체의 70%에 이르렀다. 무료환자 비율은 애초에 계획한 75%와 거의 같았다.

10년 동안 국립의료원에서 일한 스칸디나비아 의료인은 노르웨이인 139명, 덴마크인 94명, 스웨덴인 134명 등 총 369명이었다. 이 가운데 의사가 116명, 간호사가 196명, 의료기사가 32명, 그밖에 행정요원 등이 25명이었다. 16

또한 국립의료원은 이 기간 동안 한국인 인턴과 레지던트 1,257명, 약사 203명, 간호사 921명, 의료기사 404명 등 모두 2,785명의 의료요원을 훈련, 양성함으로써 교육병원으로서의 공헌도 매우 컸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의료원은 1959년 한국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병원 연보『국립의료원 연보』를 펴내었으며(『서울의대 부속병원 연보』는 1964년에 창간), 또한 1960년부터는 『서울의대잡지』와 더불어 한국 최초의 단위 의료기관 학술지인 『국립의료원논문집(Medical Bulletin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을 발가하기도 했다.

<sup>16</sup> 이들은 대부분 1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만 2년 이상 근무자는 54명이다.

요컨대 국립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과 공동 운영한 10년 동안 한국 최고 수준의 (교육)병원으로 명성을 날렸다. 특히 최신 장비와 그 활용 면에서 국내 어느 병원도 따를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누렸다. 또한 국립의료원은 어떤 병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료환자를 많이 진료한 한국 공공의료의 메카 구실을 하였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이 중단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의 (교육)병원으로서의 지위가 퇴색되었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도 상실했다. 또한 위상이 떨어짐에 따라 한국인 의료진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생겨난 신설 대학병원들이 국립의료원의 일급 의료인들을 흡수했다.

국립의료원이 초기 10년 동안의 명성과 특성을 상실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 지원의 부족이었다. 재정 능력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 의료기관을 육성할 정부의 의지가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97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부속병원을 떼어내어 독립된 법인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만들었으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잃어갔다. 국립의료원이나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성을 상실해 간 것은 두 병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정책의 결과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의 상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긴 했지만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립의료원과 달리 한국 최고 수준의 (교육)병원이라는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두 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1950년대~60년대 국립의료원의 대표 격인 의사로 활동했던 김종설과 구본술17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국립의료원이 의과대학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과 같이 대학병원의 영향력과 위세가 강력한 의료 환경에서 국립의료원이 최고 수준을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지원 축소가 위

<sup>17</sup> 두 사람 모두 대학병원으로 전직했다.

상 추락을 가속화했으며, 한번 경쟁에서 밀려난 이상 전성기의 역량과 명성을 회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요인으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경청할 만한 견해이다.

## 4. 나가는 말 - 최고의 건강수준과 최악의 의료공공성

평균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등 대표적인 건강지표로 살펴본 오늘날 한국인의 건강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1950년대~60년대에 한국에 의료를 지원했던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미국과 비교하면 모든 건강지표에서 앞선다(〈표 4〉및〈표 5〉).18 유엔인구국의 예측에 의하면 2040년대에는 한국이 일본조차 제치고 평균수명(88세), 영아사망률(1.0명)등 대부분의 건강지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표 4〉 몇개국의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 (2012년)

	평균수명(세)	평균건강수명(세)	영아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
한 국	81	73	3
덴 마 크	80	70	3
노르웨이	82	71	2
스 웨 덴	82	72	2
미 국	79	70	6
중 국	75	68	12
일 본	84	75	2
러 시 아	69	61	9
세계 평균*	70	-	37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통계(World Health Statistics)』, 2014년 판, 59-69쪽,

<sup>\*</sup> http://esa.un.org/wpp/Excel-Data/mortality.htm (2015,4,21)

<sup>18</sup> 이렇게 건강수준이 몇십년 사이에 괄목할 정도로 개선, 향상된 데에 1950년대~60년대 미국 과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 지원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표 5〉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2012년)

	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	손상	합계
한 국	34	302	53	389
덴 마 크	29	406	23	458
노르웨이	25	336	26	387
스 웨 덴	19	333	26	378
미 국	31	413	44	488
중 국	41	576	50	667
일 본	34	244	40	318
러시아	74	790	103	967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통계(World Health Statistics)』, 2014년 판, 71-91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외적인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건강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영양상태의 개선, 위생시설의 확충, 교육수준의 향상, 효과적인 현대의술의 발달과 보급 등이 중요한요인으로 꼽힌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몇십년 동안은 의술 발전이 가장 큰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술과 의료인이 사람의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고 역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증언한다.

그럼 한국인의 건강수준이 비교할 국가나 사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중 진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을 제외하고 건강 선진국들은 대체로 2차대전 이후부터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다. 의료 의 공급과 소비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 에 비해 몇십 년 뒤늦게 1989년부터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시기도 늦었지만 아직까지도 의료의 공급과 소비에서 국가의 역할 은 매우 미약하다. 국가에 의한 의료 공급은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건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인의 교육수준은 세계 최상위이다. 국가의 덕택일까? 초등교육은 1950 년대부터, 중등교육은 1970년대부터 의무·무상교육이 되었다. 하지만 누구나 절감하듯이 초중등 과정에서 사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압도한다. 대학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은 미국을 제치고세계 최고액이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이다.

건강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그 동안 의료수가를 억제해온 것 정도를 국가 의 역할로 꼽을 수 있을지. 하지만 그마저도 변하고 있다.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의료 소비와 건강수준의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다.

요컨대 오늘날 한국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공성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표 6〉에서 보듯이, 공공 병상수의 비중은해가 갈수록 감소해왔다. 총 병상수는 1949년에 비해 무려 78배가 되었지만 공공 병상수 비중은 75.1%에서 11.8%로 크게 떨어졌다. 사실상 공공 병상,나아가 공공 의료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표 6) 병원 병상수(급성기 병상수)의 변화 추이 (1949년~2012년)

연도	총 병상수	공공 병상수	공공 병상수(%)
1949	3,868	2,095	75.1
1960	9,951	6,335	63.7
1970	16,538	7,157	43.3
1980	38,096	11,988	31.5
1990	99,843	19,637	19.7
2000	226,756	35,044	15.5
2012	302,500	35,695	1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공공 병상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하다 (〈표 7〉). 한국은 총 병상수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지만 태반이 사립 병상이다. 공공 병상수 비중은 OECD 34개국 평균 67.3%와 비교할 바가 되지못하는 10.1%이며, 미국의 25.8%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 610 국제고려학 16호

(표 7) 몇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원 병상수 (2011년)

	총 병상수	공공 병상수	공공 병상수(%)
한 국	9.56	0.97	10.1
덴 마 크	3.50	3.35	95.6
노르웨이	3.32	3.00	90.4
스 웨 덴	2.71	2,41	89.0
미 국	3.05	0.79	25.8
중 국	2.75		
일 본	13.40	3.52	26.3
러시아	9.37		
OECD 34국 평균	4.83	3.25	67.3

OECD.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Health at a Glance)』, 2013년 판. 88-89쪽.

보건의료비 지출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표 8)). 전체 보건의료비중 정부 부담률은 유럽 국가들과 일본보다 크게 낮으며 미국과 거의 비슷한수준이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며, 부담 능력에 따라건강수준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다행히 아직은 1인당 보건의료비와 GDP 대비 보건의료비가 미국 및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지만 증가 추세를 보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표 8〉 몇개국의 보건의료비 지출 (2011년)

	총 보건의료비 (% of GDP)	정부 부담 (%)	개인 부담 (%)	1인당 보건의료비 (PPP int. \$)
한 국	7.4	55.3	44.7	2,198
덴 마 크	10.9	85.3	14.7	4,456
노르웨이	9.9	85.1	14.9	6,106
스 웨 덴	9.5	81.6	18.4	3,938
미 국	17.7	47.8	52,2	8,467
중 국	5.1	55.9	44.1	423
일 본	10.0	82.1	17.9	3,415
러시아	6.1	59.8	40.2	1,354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통계(World Health Statistics)』, 2014년 판, 141-151쪽,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최고수준이지만, 한국의 의료공공성은 공급과 소비 측면 모두 매우 열악하다. 건강상태와 의료공공성이 모두 높은 수준인 일본 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건강국가의 새 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2040년대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상회해서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표 9〉). 최장수국이 된다는 것은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 9) 몇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망치 (2015년~2055년)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2055년
한 국	13.0	19.4	27.1	33.0	35.7
덴 마 크	18.6	20.9	23.1	23.6	23.0
노르웨이	16.4	18.7	21.3	22,5	23.0
스 웨 덴	20.0	21.3	22.8	22.9	23.2
미 국	14.7	18.6	20.9	21.2	21.8
중 국	9.5	13.5	19.5	22.8	26.9
일 본	26.4	29.6	32.2	35.8	37.0
러시아	13.2	16.7	17.9	19.0	22.4
세계 평균	8.2	10.3	12.8	14.6	16.8

http://esa.un.org/unpd/wpp/Excel-Data/population.htm (2015.7.7)

⟨표 10⟩ 소득 빈곤율

	65세 이상 빈 <del>곤율</del> (%)
한 국	48.6
덴 마 크	7.1
노르웨이	4.3
스 웨 덴	10.0
미 국	19.1
일 본	19.4
OECD 평균	12.6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7991 (2015.7.7)

더욱이 한국은 65세 이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이다. OECD 평균 12.6%의 거의 4배에 달하는 48.6%나 되며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급증과 높은 노인 빈곤율, 게다가 열약한 의료공공성까지 겹쳐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까지는 주로 국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건강 면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의료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한국은 1950~60년대에 국립의료원을 통해 공공 의료체계의 모범국인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인)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가졌다. 하지만 그 국가들의 의료체계를 수용하지는 못했다. 국가정책의 특성으로 보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사적 의료체계는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9) 『사인별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Health at a Glance)』, 2013년 판. 김동익(1979) 『함춘원 시절』, 서울: 순천당, 167.

남찬섭(2005) 「1950년대의 사회복지2」, 월간복지동향 81, 31

보건복지부(1949, 1960, 1970, 1980, 1990, 2000,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통계(World Health Statistics)』, 2014년 판.

유엔인구국『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년 개정판.

통계청(1991, 2001, 2010)『사망원인통계』.

한준상 · 김성학(1990) 『현대한국교육의 인식』, 서울: 청아출판사, 143.

홍성유(1962) 『한국경제와 미국 원조』, 서울: 박영사, 21-25.

Flink (1958)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27.

Gault, N.L. (1961) 'Observation and Comments on the College of Medicine, Attached Hospital, School of Nursing and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1960) 'Twelfth Semi-Annual Progress Repor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ffice of General Affairs, R.O.K.' 1960,10,19, 60-61.

University of Minnesota (1961) 'Medical Bulletin,' 1961(11), 73-85.

##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 '아리랑'의 곡명과 곡수에 대한 연구

## 공명성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예로부터 노래와 춤을 사랑하고 즐겨온 우리 인민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 로동과 사회생활 과정에 자기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수많은 노래들을 만들어 불렀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민요 유산 가운데는 아리랑, 도라지, 양산도와 같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노래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민요 아리랑은 우리 인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곡의 하나이다.

민요 아리랑은 조선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모르거나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 그 어디서나 들을 수 있 는 우리 민족의 노래이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리랑하면 조선을 먼저 생각하 게 되었고 조선하면 민요 아리랑을 첫 손가락에 꼽아왔다.

이것은 민요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민요를 대표하고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민요 아리랑은 우리 인민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노래이다.

민요 아리랑이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라는 것은 이 노래의 곡명과 곡수를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 '아리랑'의 곡명과 곡수에 대한 연구 615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다. 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라고 하여도 아리랑처럼 지 방마다 자기 특색의 노래를 가지고 온 민족이 애창하는 노래는 세상에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아리랑의 곡명과 곡수를 통하 여 노래가 안고 있는 민족적 성격을 밝혀보려고 하였다.

발생초기 민요 아리랑은 하나의 노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의 노래가 각 지방으로 전파되어 오랫동안 그 지방 인민들의 비위와 감정에 맞게 발전하여 내려오는 과정에 매 지방마다 자기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뚜렷이 갖춘 대표적인 아리랑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같은 지방이라 하여도 군(읍)에 따라 가사와 선률이 다른 아리랑이 생겨났으며 그리고 같은 아리랑이라고 하여도 가창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르는 노래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게 되었다. 지어는 해외에로의 대대적인 이민이 시작되었던 20세기 초에 우리 민족은 타향에서도 고국을 그리며 자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연변아리랑', '하와이아리랑'과 같은 지역 아리랑을 만들어 내었다. 이런 노래들까지다 합치면 그 수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매개의 아리랑들은 가사의 내용과 음악형식 특히 선률의 진행방향과 선률선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래마다 정서적 색깔은 서로 다르다. 이로부터 이 노래를 처음으로 채보한 다른 나라 사람까지도 우리 인민을 가 리켜 '즉홍곡의 명수들'이라고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아리랑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우리 인민이 얼마나 높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재능있고 슬기로운 민족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음악을 사랑하고 즐겨온 민족이며 또 이 부분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음악민족이라고 세상에 긍지높이 말할 수 있다.

조선 사람치고 민요 아리랑을 모르거나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언제 부터 이 노래를 아리랑으로 부르게 되었고 또 이 노래가 몇 곡이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하다.

민요 아리랑을 리해하려면 이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그러면 먼저 아리랑이라는 곡명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달았으며 이 노래의 곡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곡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노래의 이름을 말한다. 곡명은 다른 민요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여줄 뿐 아니라 해당 민요에 대한 표상을 안겨주는 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래에서 곡명은 그 노래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가요에서는 전문 작가에 의하여 노래의 곡명과 가사가 씌여짐으로 이문제는 론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전민요는 전문 작가나 작곡가가 따로 없이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그리고 집에서물레질을 하거나 베를 짜던 평범한 근로인민들이 자기들의 생활과정에서 느끼는 심정을 구두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부른 것만큼 노래가 처음 나올 때에는 곡명이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사람들 속에서 불리워지는 과정에 점차 곡명도 붙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전민요에서는 곡명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달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더우기 민요 아리랑은 전국 각 지방들에서 다불리워졌고 지방마다 곡명과 노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아야이 노래에 대해 충분히 리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요의 곡명은 그 노래를 부른 가창자나 그것을 채보한 사람들에 의하여 달게 된다. 그들이 민요의 곡명을 다는 방법을 보면 대체로 「자장가」, 「타복녀」과 같이 노래가사의 첫 구절을 따서 다는 것, 「어랑타령」, 「홍타령」과 같이 해당 민요에서만 쓰이는 고유한 말을 가지고 다는 것, 「금강산타령」, 「장산곶타령」과 같이 노래하는 대상에 따라 다는 것, 「수심가」, 「리별가」과 같이 노래의 내용에 따라 다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노래가사의 첫 구절을 가지고 곡명을 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창자가 노래를 쉽게 찾아내어 부를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리하여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노래의 곡명을 달아왔고 또 민요 채보자들도 이 방법으로 곡명을 기록하여 놓았다.

아리랑이라는 곡명도 이 노래가사의 첫 구절을 따서 달게 되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 선달에도 꽃만 핀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노래는 아리랑으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노래를 아리랑으로 불러왔을 것이고 채보자도 가창자가 부르 는 이 노래가사의 첫 구절을 따서 아리랑이라고 곡명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 다.

그런데 아리랑 가운데는 「밀양아리랑」과 같이 전렴으로 시작하는 노래들 도 적지 않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후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우에서 보는 것처럼 노래는 「날좀 보소」 의 시작하였지만 곡명은 「밀양아리랑」으로 되어있다.

그것은 이 노래를 다른 지방의 아리랑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 노래가 나온 지명과 후렴에 나오는 아리랑이란 말을 결합하여 곡명을 달아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리랑이란 곡명을 기록으로 처음 남긴 사람은 황현(1855~1910)이다.

그는 1900년 초에 출판한 자기의 저서 『매천야록』에서 "…새로운 소리의 요염한 가락을 울리게 하였으니 이를 일러서 '아리랑타령'이라고 하였거니와 타령이라는 것은 연곡의 속칭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연곡'이란 연주하는 곡을 말하며 '속칭'은 정식으로가 아니라 통속적으로 부르는 것 또는 그 이름을 말한다. 그러므로 '타령'은 우리나라 민요

들에서 많이 쓰이던 노래의 대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요의 곡명에는 음악의 종류와 형식에 따라 '…소리', '…타령', '…풀이', '…거리', '…가' 등으로 쓰이는 노래의 대명사들이 적지 않은데 '타령'은 사람들 속에서 널리 류행되던 통속적이며 서정적인 노래의 대명사이다. 그러므로 『매천야록』에서 '아리랑타령'이라고 한 것은 이 노래가 당시 광범한 대중 속에서 널리 류행되고 있던 통속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노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아리랑은 발생초기에 하나의 노래였으나 그것이 각 지방으로 전파되는 과 정에 지방마다 여러 변종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곡명도 서로 다르 게 달게 되었다.

우리나라 민요에는 아리랑과 같이 하나의 노래에 여러 변종들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적지 않으나 곡명은 대체로 하나 또는 둘로 되어 있다.

실례로 「수심가」은 30곡의 변종을 가지고 있으나 곡명은 「수심가」 또는 「엮음 수심가」로 되어 있고 「어랑타령」은 18곡의 변종이 있으나 「어랑타령」 또는 「신고산타령」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리랑의 곡명은 한두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아리랑이 여러 가지 곡명으로 되게 된 것은 우선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불리워진 노래이고 지방에 따라 가사와 선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들도 여러 가지 변종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노래들은 대체로 해당지방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에 맞게 창조되고 불리워진 것만큼 다른 지방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그 지방에서만 불리워졌다. 그러므로 노래의 가사내용이나 선률형식에서 별로차이가 없으므로 이 매개 변종들에는 따로 곡명을 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아리랑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들에서 다 불리워졌고 또 지방에 따라 가사의 내용과 음악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곡명도 그에 맞게 여러 가지로 달게 되었던 것이다.

아리랑의 곡명을 서로 다르게 달게 된 것은 또한 민요 채보자들이 매개 아리랑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 명칭이나 선률의 양상에 맞 게 곡명을 달아 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민요 채보자들이 이 노래의 곡명을 아리랑이라고만 달아 놓았다면 그것이 어느 지방의 아리랑이며 어떤 양상의 노래인지 쉽게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발생초기 아리랑은 하나였으나 그것이 각 지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매 지방마다 여러 변종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곡명도 각이하게 붙여지게 되었다.

아리랑의 곡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아리랑이라는 말은 이 노래와 함께 생겨났을 것이며 또한 아리랑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불리워진 것이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들에서 다 불리워진 노래라는 것이다.

아리랑을 리해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이 노래가 도대체 몇 곡이 되는 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리랑의 곡수를 알아야 이 노래의 포괄범위와 연구 대상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이 문제가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다.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편 3권에는 지금까지 발굴된 아리랑과 그와 류 사하다고 보이는 50곡의 민요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우선 곡명이 아리랑과 비슷한 것도 있고 곡명은 아리 랑으로 되어 있으나 가사와 선률이 아리랑과 다른 것도 있다. 또한 곡명은 아리랑이 아니지만 가사와 선률이 아리랑과 거의 같은 것도 있으며 같은 노 래인데 채보를 서로 다르게 한 것도 있었다.

이런 노래들을 모두 아리랑으로 보겠는지 아니면 어떤 노래만을 아리랑으로 보겠는지 하는 것은 매개 노래들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그러자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으나 가장 합리적인 것은 우선 노래의 곡명이 아리랑으로 되어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해당 노래에 아리랑의 후 렴이 있는가 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노래이지만 가창자가 다르게 부르거나 채보자가 잘못 채보한 것이 없는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노래 의 가사와 선률을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만일 노래의 곡명이 아리랑이 아니라면 그런 노래를 구태여 아리랑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노래에 아리랑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후렴이 없다면 그런 노래를 아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같은 노래인데 가창자가 노래를 약간 다르게 불렀거나 채보자가 박자, 장단, 조식 등을 다르게 채보한 것은 서로 다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노래로 보아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편 3권에 수록되어 있는 50곡의 민요들을 분석해 보아야 아리랑의 곡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첫째 기준은 노래의 곡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노래의 곡명은 다른 노래들과 구별하게 하는 정표로 되는 것만큼 해당 노래가 아리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르는 데서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이 기준에 따라 50곡의 노래를 분석해 본데 의하면 곡명이 「긴아르래기」, 「신 아르래기」, 「강원도 아르래기」, 「아르릉」, 「아일렁랑」, 「정선아이롱」, 「아리령동」, 「아리랑동」 등 아리랑과 비슷한 노래들이 8곡이나 들어있다. 이런 노래들을 아리랑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기준에 의하면 이 노래들을 아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노래의 곡 명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이 아리랑이 아니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아리랑은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는 노래이고 또 각 지방들에서 다 불리워진 것만큼 혹시 곡명이 와전될 수도 있고 또 지방의 방언과 결부되었 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가창자가 잘못 부르거나 채보자가 잘못 기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노래들은 아리랑의 가사와 선률을 결부시켜 다시 분석해 보 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노래들 가운데서 「아리령동」, 「아일렁랑」은 곡명뿐만 아니라 가사 내용과 선률형식에서도 아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리령동

아리령동 스리령동 도리동 닐리리 갈동 태야 뒷동산 취암산 높은 봉에도 은금 보배가 막 쏟아진다 오는새 좋다리는 고개넘어오고 날랜 제비 삼짇날에 푸르릉 취암산 고개우로

아일렁랑

아일렁랑 디일렁랑 어깨춤나네 일천간장 사대륙신 떼거리 잘잘 달이달달 랄랄랄라리 밝아만지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노래는 곡명은 물론 가사의 내용과 시가형 식, 선율형식에서 아리랑과는 완전히 다르며 다만 곡명과 가사에 아리랑과 비슷한 말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노래들을 아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 평가기준은 아리랑의 후렴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요에서 후렴은 보존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매개 노래의 고 유한 특성을 나타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실례는 「옹혜야」, 「닐리리」, 「강강수월래」, 「쾌지나 칭칭나네」 등 많은 민요들에서 이미 확증되었다.

그러므로 후렴은 해당 노래가 아리랑인가 아닌가를 가르는데서 중요한 평 가기준으로 된다.

이 기준에 따라 50곡의 민요를 분석해 본데 의하면 노래의 곡명은 아리랑으로 되어 있으나 후렴이 아리랑과 다른 것도 있고 또 곡명은 아리랑이 아니지만 후렴이 아리랑과 같거나 비슷한 것도 있다.

이런 노래들을 아리랑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곡명은 아리랑으로 되어 있지만 후렴이 아리랑과 다른 것을 어떻게

## 보겠는가.

긴아리랑

아리랑 고개넘어 봄바람 불고 도라지 바구니엔 꽃잎이 진다 에루야 에루야 큰애기 긴한숨에 봄철이 진다

아리랑동

일조랑군 별랑군아 생리별 잦아서 못살겠네 아리랑동 스리랑동 도리동동 동동아 아리아리아리 스리랑동 흰백로 호르르르 (후렴 늙고개야 네 알 테냐 아리 어데가 걸렸더냐 네알테냐 아리아리 아리 스리랑동 흰백로 호르르르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누굴 믿고서 버리고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오동나무 열두대속에 처녀 총각이 넘나드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 노래의 곡명은 모두 아리랑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긴아리랑」의 가사에는 '아리랑 고개넘어'라는 구절만 있고 후렴은 없으며 「아리랑동」에는 '아리아리아리 스리랑동'과 같은 구절은 있으나 후렴 의 가사는 아리랑과 완전히 다르다.

마지막 아리랑의 후렴 역시 아리랑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지로는 다른 아

리랑의 후렴과는 같지 않다. 즉 첫째, 둘째, 셋째행을 후렴으로 본다면 그것 은 전렴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반복되야 하지만 반복되지 않으며 여섯째, 아홉 째행을 후렴으로 본다고 해도 선률이 서로 다르다.

둘째 평가기준에 의하면 우에서 본 이 세 노래는 아리랑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후렴이 없거나 그와 다르기 때문에 아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노래의 곡명이 아리랑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곡명은 아리랑이 아닌데 가사내용과 후렴이 아리랑과 같거나 류사한 것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이다.

## 긴 아르래기

아리 아리령 이라리요 아리령 고개로 넘어 간다 날 데려 가소 날데려 가소 정드신 랑군님 날 데려가소

## 신 아르래기

아리당다꿍 스리당다꿍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날넘겨주오 공연히 남의 딸 정들여 놨다 시시때때로 못보니야 답답하구나

## 강원도 아르래기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우리 팔만구암자에 불공을 말구 돈없는 이내신세 너무 괄세말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 정선 아이롱

정선읍내 물레방아 신진방아는 사구삼륙 서른여섯칸 일년열두달 멈추지 않고 남천물을 받아 안구서 방굴방굴이 돌구 도는데 우리집의 정드신 님은 어디가서 아니오나 아리아리롱 스리스리롱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롱 고개고개로 날 넘겨 주소

우에 제시한 노래들은 가사의 내용과 시가형식 그리고 선률형식을 보면 아리랑과 같거나 류사하지만 곡명이 「아르래기」, 「아르롱」으로 되어 있다.

현재 설정한 평가기준에 의하면 이 노래들도 아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래의 가사내용과 음악형식이 아리랑과 같은 조건에서 이런 곡명들이 혹시 방언이나 표기변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1900년대 초에 발굴된 아리랑 가운데 이와 류사한 곡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노래들을 아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류사한노래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곡명이 아리랑이 아닌 노래의 가사에 아리 랑의 후렴이 들어있다고 하여 그것을 아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가요 「그리운 강남」을 들어 그것을 립증할 수 있다.

> 정이월 다가고 삼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며는 이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을 어서 가세

이 노래에서 후렴의 가사는 아리랑의 후렴가사와 거의 같지만 이 노래를 아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이 노래의 곡명이 「그리운 강남」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노래에서나 아리랑이라는 말과 후렴이 들어있다 해도 곡명 이 다르면 아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은 셋째기준 즉 곡명과 가사는 같은데 선률이 서로 다르거나 같은 곡

이지만 채보를 다르게 한 것을 하나의 곡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곡으로 보겠는가 하는 것이다.

아리랑 가운데는 우선 노래의 곡명과 가사는 같지만 선률이 서로 다른 노래가 있다.

실례로 「영천아리랑」을 들 수 있다.

아리랑 가운데는 또한 곡명과 가사는 같지만 가창자에 따라 약간 다르게 부르는 노래도 있다.

실례로 「밀양아리랑」을 들 수 있다.

이 노래는 곡명과 가사의 내용, 그리고 장단이 같다. 다만 조식이 서로 다른데로부터 음조에서 약간 차이 날 뿐이지 선률의 정서는 같다.

그러므로 이런 노래는 하나의 곡조에서 파생된 변종으로 볼 수 있다.

아리랑 가운데는 다음으로 하나의 악곡이지만 채보를 다르게 한 것도 있다.

실례로 「서도아리랑」을 들 수 있다.

이 노래의 선률은 조식과 음조도 같고 선율 진행방향과 선률선도 같다. 다만 첫 곡은 9/8박자로 둘째곡은 3/4박자로 채보되어 선률정서에서는 일 정한 차이는 있으나 이런 노래는 하나의 곡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아리랑의 곡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조선민족음악전집』 민 요편 3권에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과 그와 련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민요 50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았다.

민요 아리랑은 그 분포상으로 볼 때 북쪽으로는 평안도, 함경도로부터 남쪽으로는 전라도,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다 분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평안도를 대표하는 「서도아리랑」과「안주아리랑」, 함경도 회령의「구아리랑」,「온성아리랑」,「단천아리랑」, 강원도의「통천아리랑」,「고성아리랑」,「정선아리랑」, 황해도의「해주아리랑」, 경기지방의「긴아리랑」, 충청도의「충주아리랑」, 전라도의「진도아리랑」, 경상도의「밀양아리랑」그리고 연변의「연변아리랑」,「장백아리랑」, 미국 하와이의「하와이아리랑」메히꼬의「에니깽아리랑」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지방 이름을 딴 아리랑이 무

수히 많다.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서 발굴·정리한 민요 가운데서 곡명과 후렴, 가사내용과 시가형식, 음악형식에서 아리랑의 면모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것은 36곡이고 나머지는 아리랑과 류사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서 아리랑만큼 곡명이 다양하고 곡의 수가 많은 노래는 없으며 특히 매곡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정서적 색깔이 다채로운 노래는 찾아볼 수 없다.

## 참고문헌

(고종31년 갑오 2월조) 『매천야록』 권2.

『해동죽지』 중편 속악유희.

(1901.11.13) 『황성신문』.

(1908.4.10) 『대한매일신보』.

(1896) 『조선류기』.

(1901) 『조선반도』.

(1908) 『조선견문기』.

(1914) 『조선속곡집』.

『조선민족음악전집』 민요편 3권.

「일한합병과 아리랑」(일문) 『홋카이도신문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과 개발실태

김철준

사회과학원 과학지도국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세계 여러 나라, 지역들과의 경 제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적 립장이다.

조선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류형의 특수경제지대를 내온 것은 그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이미 전에 조선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 지구,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창설, 운영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나라의 여 러 지역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현재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25개의 특수경제지대들이 존재하고 있다.

조선에서 특수경제지대를 내온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변화된 국제적 환경에 맞게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고 조선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북과 남의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조선에서 특수경제지대를 내온 것은 우선 변화된 국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였다.

지난 시기 조선의 대외무역관계의 70~80%를 차지하던 사회주의시장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일시에 붕괴됨으로써 조선의 대외경제거래는 엄

중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새로운 대외적 환경은 사회주의시장을 위주로 하던 대외경제교류로부터 자본주의시장을 위주로 하는 방향에로 대외교류를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특수경제지대가 단순한 무역교류나 합영, 합작이 아니라 대외경제교류를 더 폭넓게 전개하면서도 다른 나라 기업이나 기술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리용하여 대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대외경제교류에서 보다 높은 단계를 이르는 특수경 제지대를 창설하고 운영할 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조선에서 특수경제지대를 내온 것은 또한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와도 관련된다.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해 나가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선진기술과 외화, 없거나 부족한 원료, 자재들을 적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특수경제 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을 통하여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외화수입을 늘여 원유, 고무, 콕스탄을 비롯하여 부족되는 원료, 연료들을 사들여 올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특수경제지대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첨단설비들을 들여와 빠른 기간에 경제의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공화국정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와 협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합영, 합작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과 함께 특수경제지대를 내올 데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1998년 9월 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 회의에서 수정, 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37조에서는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고 규제함으로써 국제투자관계의 발전 추세에 맞게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고 그 개발·운

영을 통하여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 나가려는 조선로 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조선에서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게 된 것은 또한 북과 남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맞게 조선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단합과 협력, 통일을 바라는 겨례의 지향에 맞게 조선민족끼리힘을 합쳐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대담하고 푹넓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었다.

북남 사이에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태의 하나는 특수경 제지대를 꾸리고 이를 통하여 경제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이었다.

조선의 북과 남은 한 강토,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지만 외세의 책동으로 나라가 분단된 이후 쌍방 사이에는 경제협력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반되 는 정치, 경제제도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 지역들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실현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의 실정에서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은 일정한 지역을 통한 협력과 교류이다. 경제협력에 유리한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설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서로 상품, 기술, 로력, 자금, 자원 면에서 호상교류하면 북남 사이의 생산요소들의 결합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성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서 북남경제협력을 위한 좋은 환경과 경험들을 마련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특수경제지대들은 변화된 국제적 환경에 맞게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대외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민족경제를 균형적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창설되었다.

조선의 특수경제지대들은 각기 자기의 특성이 있으므로 창설경위와 자연

경제적 유리성, 개발실태와 전망 등에 대하여 지대별로 언급하려고 한다.

## 1. 라선경제무역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는 1991년 12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당시)결정 제 74호로 조선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특수경제지대이다.

라선지구에 경제무역지대를 꾸리게 된 것은 이 지구가 국제무역 및 중계 수송의 중심지로 될 황금의 삼각지역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무역지대는 무역과 교통의 분기점으로서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창설하는 것이 관례이다. 경제무역지대의 생명력과 성공의 열 쇠는 자연지리적 위치의 매력성, 개발조건의 유리성에 크게 의존된다. 가공 수출을 위주로 하는 지대는 로동력의 가격과 가공기술수준 등에 그 발전이 크게 의존된다면 중계무역 및 수송봉사를 위주로 하는 경제무역지대에 있어 서 그의 자연지리적 조건의 유리성과 우위성이 항구적이고도 선차적인 요소 라고 말할 수 있다.

라선지구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로써야, 중국과 접경하고 있고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해륙 련계의 관문, 지름길에 놓여있다. 이 지대의 항들은 수심이 깊고 겨울에 얼지 않아 사철 운영할 수 있으며 라 진항은 방파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도 년에 1억t이상으로 항을 개발할 수 있는 유리한 개발경영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난 시기 라선지구를 국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기지, 가공수출기지, 관광기지로 꾸리기 위한 개발이 일정하게 추진되어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라선경제무역지대가 가지고 있는 자연지리적 유리성, 풍부한 경제적 잠재력, 외국투자에 대한 특혜 및 우대는 지대의 투자매력을 높임으로써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을 강하게 자극하였다. 이것은 라선경제무역지대가 창설되자마자 국제적 범위에서 이 지대에 대한 투자열이 고조된 것을 통해서도

#### 632 국제고려학 16호

잘 알 수 있다.

개발의 초 시기인 1996년 8월까지 30여 개 나라에서 300여 개 이상의 대표단이 라선지구를 방문하여 49개 대상에 3억 5000만US\$의 계약을 맺었으며 22개 대상에 4000만US\$가 실지 투자되었다. 그중 약 1300만US\$는 외국단독기업에, 약 2700만US\$는 합영, 합작기업에 투자되었다. 부문별로 보면하부구조건설대상에 1800만US\$, 봉사업부문에 1100만US\$, 생산부문에 100만US\$, 금융봉사부문에 760만US\$, 관광업에 100만US\$가 투자되었다. 1996년 9월에 있은 라선지대국제투자 및 기업토론회에서는 또다시 8개 대상에 2억 8500만US\$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1996년 9월말 현재 총투자계약금액은 6억 3500만US\$였다(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1998: 69).

이미 1994년 8월에 라진항 1호 부두에 현대적인 비료중계장이 1년 10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되었으며 라진항에 각종 기중기, 상하차설비, 지게 차 등이 증설되고 세멘트 저장고가 건설되었다(조선중앙통신사 1995: 164).

휴양관광지개발, 골프장, 임대살림집, 실내오락시설의 건설, 위성통신국 등의 건설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타이의 록쓸리태평양주식회사는 782만 US\$를 투자하여 동북아시아전화통신회사를 설립하였다. 홍콩의 엠페러그룹은 비그스타트 프로피쯔유한회사(엄페러호텔)에 1억 8000만US\$를 투자하고 홍콩 타이슨무역회사가 1190여만US\$를 투자하여 라진호텔과 택시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창설하였다(황금해 2013: 179).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창설이후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간 지대에 대한 외국 투자는 일정하게 증가 경향을 띠고 진행되어 왔다.

2010년까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투자총액은 계약조건으로 1996 년까지의 총액에 비하여 1.8배 정도 늘어난 6억 1700만US\$에 달하였다. 외 국투자는 로씨야, 중국, 중국홍콩, 중국대북, 타이,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일본, 미국 등 9개 나라와 지역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투자액의 22.4% 는 합영기업형태로, 45.6%는 합작기업형태로, 32%는 외국단독기업형태로 투자되었다. 그리고 부문별로는 투자 총액의 68.5%가 봉사부문에, 27.2%가 생산부문에, 4.3%가 하부구조부문에 투자되었다(한경만 2014: 71).

2010년부터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2010년 11월에 조중 두 나라 사이에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공동개발 및 공 동관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기초하여 조중공동지도위원회가 조직되고 지대개발총계획이 작성되어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조중공동개발, 공동관리에 따라 지대개발이 일정하게 추진되었다. 2011년 6월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중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 상 착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착공식에서는 조중공동개발 1차 착공대 상들인 라진항-원정도로개건, 아태라선세멘트공장과 고효률농업시범구의 착공식, 라진항을 통한 중국국내화물중계수송출항식, 자가용차관광출발식이 선포되었다.

원정-권하다리가 2010년 5월에 보수되었으며 2011년 6월에 개건에 착수한 라진항-원정도로(총 연장 길이 50여km, 너비 평균 9m, 최고 16m)의 개통식이 2012년 9월에 진행되었다. 결과 이전보다 주행시간이 절반이상 단축되고 운수수단들의 통과능력도 훨씬 높아졌으며 화물중계수송과 관광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황금해 2013: 180-181).

2014년 6월 22일에는 조중 두 나라 정부 사이에 원정-권하 새 국경 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로동신문 2014.6,28). 앞으로 이 다리가 건설되면 조중 두 나라 사이의 화물수송이 보다 활발히 벌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라진-하싼 사이의 철도와 라진항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었다.

조선과 로씨야는 2001년 8월에 조로모스크바선언에서 조선반도와 로씨야, 유럽을 런결하는 철도수송망건설에 합의한데 기초하여 2008년에 로씨야철 도무역주식회사와 조선의 해당 기관들 사이에 라진항 3호부두개건과 라진하산철도의 개건현대화를 위한 합영회사가 조직되고 10월에 착공식들이 진행되었다(황금해 2013: 179-180), 2013년 9월에 라진-하싼 철도개건구간 개

통식이 진행된데 이어(로동신문 2013.9.23) 2014년 7월에는 라진항 3호부두 준공식이 진행되었다(로동신문 2014.7.19).

조선의 라선시와 로씨야의 연해변강, 중국의 훈춘시를 포괄한 륜환식 관광로정을 새로 형성할 데 대하여 합의한데 기초하여 라선관광관리국과 원동운수련합체 국제관광부, 훈춘삼강국제려행사가 계약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관광을 보장하였다. 라선지구의 관광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싱가포르관광선 '황성호' 개업식이 2013년 2월 라진항에서 진행되었다(로동신문 2013.3.21). 그리고 같은해 5월에 제 1차 관광선 '황성호'에 의한 라진-금강산국제관광개항식이 라진항에서 진행되고 련이어 국제관광이 시작되었다(로동신문 2013.5.19).

앞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중요한 국제화물중계기지로,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수출가공기지, 국제적인 금융, 관광기지로 개발되게 된다.

국제화물중계기지의 사명에 맞게 항과 도로, 철도의 통과능력을 높이고 현대화, 중량화, 고속화하기 위한 건설계획은 두 단계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수출가공기지로서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현대적 기 술에 기초한 공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업구들이 배치되게 된다. 방대한 령역에 풍만한 관광개발자원을 가지고 있는 라선시의 특성을 적극 살려 2개의 관광지구에 20여 개의 개성적인 관광지들을 개발하게 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교류의 중심지 역으로 흌류히 개발되게 될 것이다.

## 2.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 2011년 6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 1693호로 창설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 수경제지대이다.

황금평지구는 평안북도 신도군의 황금평리이며 위화도지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상단리, 하단리, 다지리, 의주군의 서호리로 이루어져 있다.

황금평, 위화도지구는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압록강 하류에 위치하면서 조선 서해의 깊은 바다와 40여km 강물로 련결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황금평은 현재의 조중친선다리로부터 7km 떨어져 있으며 중국의 신단동과의 거리는 200m정도, 중국의 동항까지의 거리는 20km이다.

위화도지구는 조중친선다리로부터 압록강 상류쪽으로 1.1km 떨어져 있으며 단동시와의 거리는 600m정도, 중국 동항까지의 거리는 37km이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 조선과 중국사이의 경제무역교류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중국경지역의 압록강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로서 수운, 해운발전전망도 좋을 뿐 아니라 조선과 중국사이의 가장 규모가 큰 도로, 중국의 만주를 통과하여 로씨야 및 유럽과 런결하는 철도선을 비롯하여 철도 런결점들을 끼고 있으므로 화물 류통이 매우 유리하며 특히 앞으로 조선의 서해선 철길이 이어지는 경우 국제적인 화물 류통지역으로서의 지위는 헤아릴 수 없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으로 하여 황금평, 위화도지구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구로 되고 있으며 큰 리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매혹적인 투자적지로 인정되고 있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개발과 관련하여 2010년 11월 19일 황금평, 위화 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와 관련한 조중 정부간협정이 체결되고 2011년 4월까지 개발총계획요강이 쌍방 정부 사이에 비준되었다.

2011년 6월 8일 황금평경제구현지에서 공동개발착공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에 의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이 채택, 공포되었으며 황금평경제구에 적용할 규정들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었다.

2012년 8월에 진행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계기로 황금평경제구관리위원회가 정식 설립되었다.

현재 황금평경제구개발기업이 선정되어 시범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 황금평지구부터 개발하며 앞으로 위화도지구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발이 진행되게 된다.

황금평지구는 일정한 경제규모와 특징을 가진 최신정보기술산업구, 최신 농업과학기술구, 화물류통구, 무역 및 금융구, 공공봉사구, 관광구 등이 집중 배치되는 종합적인 경제지대로 개발되게 된다.

## 3.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2011년 4월에 창설된 특수경제지대이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창설운영은 금강산관광지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오래전부터 개발, 운영되여 온 금강산 관광지구에 시원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금강산은 조선 동해안의 중부에 있는 산으로서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에 동서 40km, 남북 60km의 길이로 펼쳐져 있으며 530km²의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조선에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명승지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금강산은 으뜸가는 천하절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금강 산을 사랑하였으며 금강산에 한번 가보기를 소원하였다. 특히 조선반도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수십년동안 서로 오가지 못하게 되면서 조선의 명승 금강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공화국정부는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나라가 통일되기 전이라도 금강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소원을 풀어주고 북남경제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려는 립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오는 조치를 취하였다.

금강산관광에 관한 문제가 북남 사이에 합의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가 선 포되기 훨씬 전인 1989년이었다.

북남 사이의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던 당시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은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북행길에 오르는 용단을 내리였다. 고향 방문기간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금강산도 돌아보면서 1월 31일 민간경제단체였던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와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로동신문 2013.3.10).

1998년 6월 정주영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고향인 통천땅을 다시 밟고 그리운 혈육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으며 금강산 등산길에도 올라 고향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다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조선의현대기업 사이에 1998년 6월 22일, 9월 19일, 10월 29일에 각각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 의정서, 합의서,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공화국은 금강산관광지구의 성과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현대 측에 1998년 9월 19일에 금강산관광리용권을 부여하고 11월에는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장전항(금강산지구에 있는 항)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민족 내부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중시하여 1998년 10월 29일 관세 및 부과금으로부터의 면제, 선박운행 및 화물선의 연안직항로운행 등 금강산관광을 위한 수십 가지의 특혜 조치들도 취해 주었다.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합의서가 체결된 지 10 년만에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1998년 11월 18일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 선이 남조선의 항을 출발하여 19일에 장전항에 도착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이 개시되었다(로동신문 2013,3,10).

금강산관광이 시범단계를 거쳐 점차 확대되고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2002년에 금강산지구를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하였으며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 관리운영과 관련한 법규들을 작성, 공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금강산관광지구의 창설을 전후하여 금강산관광이 더욱 다양해지고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초기에는 관광기일이 2박 3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관광방식들이 리용되게 되였다. 2004년 6월 부터 1박 2일 관광이, 그해 9월부터는 당일 관광이 시작되었으며 그후에도 3박 4일 관광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도입되었다.

2006년부터 내금강관광이 시작되어 관광로정이 다양해졌으며 2008년 3월 부터는 승용차관광도 개시되었다.

관광 형태도 보다 효률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처음에 금강산관광은 해 상관광 형태로 진행되었다. 즉 해상을 통하여 금강산에 도착하여 금강산관 광을 하며 숙박은 해상호텔에서 하는 형식으로 관광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에서는 해상통로를 리용하는데 비하여 륙상통로를 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데로부터 북과 남은 2001년 6월 8일과 2003년 1월 18일에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북측 고성과 남측 송현리를 리용하는 륙로관광에 합의하였다(로동신문 2013.3.10).

이에 따라 해상통로를 통한 금강산관광은 2002년 9월에 북남도로련결착 공식이 진행되고 그후 동해선림시도로가 완공된 것을 계기로 점차 륙로관광 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로동신문 2012,12,9).

해상관광이 륙로관광으로 바뀜으로써 금강산관광지구에서 관광객을 확대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되었다.

관광객도 점차 늘어나 년간 관광객 수가 1999년의 약 15만명으로부터 2007년에는 34만 5000명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근 10년간 금강산을 다녀간 남조선관광객수는 무려 3550여차에 192만 6665만명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는 남조선 '국회'의원과 여야정치인, 청와대와행정부 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로동신문 2011.4.9).

조선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활기있게 추진되던 금강산관광은 2008 년에 일어난 남조선관광객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남조선당국의 금강산관광중 단조치로 말미암아 중단되게 되었다.

금강산관광객사건은 2008년 7월 11일 새벽 4시 50분경에 금강산과 린접

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항 지역의 북측 군사통제구역 깊숙이 들어왔던 정체 불명의 남측인원이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일어난 불상사였다. 그러므 로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 제한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금강산관광지구법 제19조 5항의 규정 을 위반한 남측에 있었다(로동신문 2011.4.9).

그러나 북측은 사건 경위가 어떻하든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견지에서 남 측관계자들이 현지에서 진상을 조사하게 하고 즉시 유감표시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자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구체적 경위를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북측이 관광로정에서 관광을 하던 무고한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한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 다음날로 금강산관광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어 3년 이상의 시일이 흐르게 되었으며 이것은 북과 남에 다 같이 큰 피해를 가져왔다.

근 3년간의 관광 중단으로 공화국은 금강산을 그저 놀리다싶이 하였으며 그로 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그 직접 및 간접 손실액을 다 합치면 무려 수천억원에 달하였다(로동신문 2013.4.5).

남측기업들과 인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금강산관광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이 파산·몰락하여 그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되었으며 금 강산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남조선 강원도 고성 주민들이 살길이 막혀 죽음까지 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특구를 내올데 대한 정령을 공포하였으며 남조선 현대아산에 주었던 금강산관광개발독점권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국제관광을 공화국이 맡아 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 발표하였다(로동신문 2013,4,17).

## 4.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는 특수경제지대로서 북남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개성지구가 북남경제협력을 위한 특수경제지대로 설정된 것은 이 지구의 유리성과 관련되어 있다. 북남경제협력을 위한 특수경제지대문제가 상정되 던 초기에 후보지로 제기된 것은 해주, 남포, 신의주, 개성의 4개 지역이었 다. 북과 남은 이 지역들 가운데서 어느 한 곳을 특수경제지대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것이 바로 개성이었 다.

개성은 북남경제협력사업전개에 유리한 교통조건을 가지고 있다. 개성은 청진-목포, 신의주-부산의 중심(청진-목포, 신의주-부산을 잇는 국토의 X자형축의 중앙)에 있고 서울-신의주(서해안)철도와 평양-개성고속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공업지구를 꾸리면 주요 철도, 도로간선을 다 리용하고 북과 남의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 항구와 다 련결될 수 있다. 이것은 개성이 원료, 자재를 끌어들이고 생산된 제품을 조선반도의 임의의 지역으로 날라 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북남철도가 련결되면 개성에서는 씨비리횡단철도와 중국철 도를 리용하여 유럽까지 륙로수송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상수송 이나 항공수송에 비하여 수송비를 대폭 절약하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해외에 수출되는 조건에서 이러한 교통상태는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있어서 유 리한 투자조건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개성지역은 또한 공업지구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개성에서 서울까지는 40km도 안되며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성을 공업지대로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자는 해주나 남포, 신의주등의 지역들에 비하여 개발에 드는 물자와 비용, 시간을 적지 않게 절약할수 있다(로동신문 2013.4.17).

조선의 다른 지역들에 비한 이러한 유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개

성이 북남경제협력을 위한 특수경제지대로 선정되게 되었다.

공화국 북반부지역에 개성공업지구를 내오기 위한 사업은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되었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으로 북남경제협력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린 성과에 토대하여 당시 남조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공화국에 북과 남이 협력하는 공업지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줄데 대한 요청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1999년 10월과 2000년 6월에 정주 영을 친히 접견해 주시고 특수경제지대건설에 대한 그의 요청을 풀어주시었 으며 한번 잘해보라는 신심까지 안겨 주시었다(조선중앙통신사 2001: 271).

2000년 8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아산주식회사 사이에 『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11월 현대아산주식회사가 개성공업지구 1단계 100만평 구역에 대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진행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2004: 285).

북과 남 사이에는 개성공업지구창설을 위한 회담도 여러 단계에서 적극 진행되었다.

개성공업지구개발은 민간급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이지만 그의 성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북남 당국의 승인과 방조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 여야 한다. 이것은 당국회담, 실무회담 등 여러 갈래의 회담들을 열고 제기 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북과 남은 북남상급회담,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의 회담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개성공업지구창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 였다. 특히 2000년 12월에 진행된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는 산하에 개성공업지구건설분과가 조직되었으며 그후에 열린 분과회의들에 서는 개성공업지구창설과 개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 되었다(조선중앙통신사 2005: 266).

이러한 준비사업에 의하여 공업지구창설을 위한 제반 조건들이 성숙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2년 11월 13 일 정령 제 3419호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하 여』를 세상에 공포하였다.

2003년 2월 개성공업지구건설을 위한 남측관계자들의 륙로에 의한 현지 답사가 진행된데 이어 2003년 6월 30일에는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개성공업지구건설 착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조선중앙통신사 2007: 269)

착공식이 진행 된 것에 이어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사업이 다그쳐졌다. 우선 현대공업의 기본 동력인 전기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개성공업지구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 지역에는 공업생산토대가 거의 없고 농업이 위주로 되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대적인 공장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공업지구관리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은 남조 선에서 전력을 송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력시설 건설은 2005년부터 진행된 북남 련결도로를 따라 전주를 세우는 공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공사가 완공되어 그해에 시범공장부지에 대한 전력공급이 시작되었으며 남조선 전력공사의 개성지사가 공업지구에 설립되 었다

또한 통신시설을 갖추는데 큰 힘이 돌려졌다.

2004년 6월에 열린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9차 회의에서는 문산-개성 (전신전화국)-공업지구통신중심 사이에 부설되는 빛섬유전송통로를 리용한 통신을 상업적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로 동신문 2013,4,17: 5).

이에 따라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통신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공업지구-문산간 빛섬유통신선 련결공사를 철도를 따라 진행하여 군사 분계선상에서 련결을 완료하였다. 이어 2005년에 개성공업지구 통신시설 개통식을 진행하고 남조선의 반민간기업인 KT주식회사가 개성공업지구에 KT 개성지사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개성공업지구의 통신은 입주기업-KT개성 지사-개성전신전화소-문산간회선을 따라 진행되게 되었다.

그후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통신회선을 더 증설하여 공업지구의 통신을 보장하였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용수, 오수 및 폐수시설 등도 건설되었다.

2006년 3월에 개성공업지구 용수보장을 위한 정배수장 착공식을 진행하고 다음해에 완공하였다. 완공된 시설은 하루에 수만t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조선중앙통신사 2008: 263).

개성공업지구에 하루 처리능력이 수만㎡에 달하는 오수 및 폐수정화장과 15000t/일의 처리능력을 가진 하수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준공되었다. 매일 12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도 건설되어 운영되었다.

이외에도 개성공업지구 1단계 부지 안에 수십km에 달하는 도로와 상하수 도망들이 건설되었으며 하천정리와 식수사업이 진행되고 울타리공사도 성과 적으로 진행되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하부구조정비가 다그쳐지는데 따라 기업들을 입주시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무엇보다도 시범지구건설과 그에 따르는 투자유치가 다그쳐졌다.

개성공업지구 1단계의 개발은 먼저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부지정리를 진행하여 공장들을 진출시키면서 경험을 쌓고 그 성과에 기초하 여 1단계 나머지 부지에로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상반년에 1만평 시범지구에 대한 공장부지 준공식이 진행되고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생산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관광도 활발히 진행되 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관광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은 2007년에 시작되었다. 그해 11월에 북과 남의 해당 부문 관계자들 사이의 접촉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북남 사이의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합의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현대그룹에 백두산과 개성지구에대한 관광사업권을 주고 2007년 12월부터 개성지구의 력사유적과 명소들에 대한 관광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활기있게 진행되던 개성관광은 2008년 7월에 일어난 관광객사건

을 구실로 취해진 남조선보수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우기 개성공업지구를 북남 대결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발광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말미암아 개성공업지구는 2013년 4월-8월에는 잠정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현재는 개성공업지구사업이 다시 정상화되고 그의 성과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 5. 각 도 경제개발구

오늘 조선에서는 나라의 여러 지역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 전시키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2013년 3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면서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킬데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였다.

조선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경제강국건설을 더욱 활력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확고히 마련해 주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과 경제협력의 뉴대를 비상히 확대, 강화해 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강한 지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이 새로운 전략적 구상과 목표에 따라 조선에서는 2013년 11월 21일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왔다.

조선에서는 경제개발구들의 명칭을 지리적 위치와 자연적 조건, 투자환경과 개발조건에 따라 류형별로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로 가르고 해당 지역의 이름을 결합하여 제정하였다.

최근 시기에 조선의 여러 곳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는 이미 전에 창설된 특 수경제지대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우선 지대의 기능에서 구별된다.

지난 시기에 나온 특수경제지대들은 많은 경우 전문적인 성격이 아니라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실례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에서는 황금평지구에서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한다(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3조)고 규제되어 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발전시키며(제1조) 국가는 경제무역지대에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1차 가공공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구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제3조)고 규제되어 있다.

이것은 라선경제무역지대나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와 같은 특수경제지대가 한 가지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 농업, 상업, 무역, 관광업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개발구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 등 전문적인 성격을 띠는 특수경제지대이며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라고 하여도 이것은 다른 경제개발구와의 대비 속에서 고찰한 상 대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차이점은 또한 경제개발구라는 개념에 지방급의 특수경제지대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구는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킬 데 대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창설된 지역들이다. 그러므로 경제개발구라고 하면 지방급 의 특수경제지대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개발구와 종전의 특수경제지대는 또한 지대의 면적에서 구별된다. 지난 시기 나온 특수경제지대들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로부터 그 면적이 대체로 수십~수백k㎡에 달한다. 실례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국제적인 화물중계수송기지로서의 지대의 기능에 맞게 470k㎡라는 매우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볼 때 각 도 경제개발구들은 주로 전문형의

개발구인 것으로 하여 자연적 조건을 리용하여 개발되는 관광개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km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개발구와 종전의 특수경제지대는 또한 지대밖과의 경제적 련계의 측 면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지난 시기의 특수경제지대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대 안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은 대체로 지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경제개발구는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경제지대인 것으로 하여 기업의 생산, 관리 생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은 개발구안에서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며 많은 경우 개발구 밖의 봉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경제개발구에서는 그 관리운영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제기 되는 많은 문제들이 개발구 밖과의 련계를 필요로 하며 그것을 토대로 발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각 도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는 특수경제지대의 한 형태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창설,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특수경제지 대들과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현재 조선에서는 각 도들에 매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류형의 경제개발구들을 내온데 이어 그 개발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법과 규정들을 제정, 공포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과 경제개발구들을 내올데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요 부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2013년 5월 29일에 제정, 발표되었다.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은 부문법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의 실시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다. 경제개발구의 창설선포, 토지정리 와 하부구조건설, 기업창설승인신청, 개발구의 관리 등 실천적인 사업들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의 제정을 전제로 한다. 이로부터 이미 『경제 개발구창설규정』, 『경제개발구개발규정』, 『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 『경제개발구기업창설운영규정』, 『경제개발구로동규정』, 『경제개발구환경보호규정』 등 세부 규정들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경제개발구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법적담보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었다. 현재 재정, 세무, 회계 등 개발구의 관리운영 및 기업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정, 세칙작성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에서는 경제개발구 개발 총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도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경제개발구의 개발 총계획은 국가의 개발구정책과 국 가경제발전전략에 맞게 개발구를 꾸리며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전망적 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며 설계도이다.

해당 지역의 국토건설 총계획과 도시건설 총계획, 국가가 정한 개발원칙, 개발구법과 그 시행규정, 개발구의 류형, 지리적 위치와 면적, 개발구에 배 치할 주요업종부문, 투자장려조치 등에 맞게 개발 총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와 자연지리적 조건 을 충분히 고려한데 기초하여 개발 총계획을 작성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구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진행되고 있다.

조선에서는 이미 라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특수경제 지대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면서 전문일군들도 일정하게 준비되었으며 적지 않은 경험과 교후도 얻었다.

세계 정치정세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하는 현실은 경제개발 구의 개발과 관리를 그에 따라 능동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부터 조선에서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경제개발구의 성공적인 개발관리와 관 련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여기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 라진해 운대학 등 경제부문을 전문하는 대학들에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학제를 내오 고 개발구 전문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준비사업이 다그쳐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구를 성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강습, 참

관,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13년 10월에는 카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윁남, 인디아, 중국의 권위있는 경제학교수들,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평양에서 '특수경제지대개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주최되었으며 2014년 5월에는 '경제개발구 전문가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들에서는 조선의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함께 여러 나라들에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과 교훈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현실성있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제개발구에 관한 강습이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되고 국제적으로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현지참관을 통하여 일군 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오늘 조선에서는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확대, 발전시킬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류형의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그성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경제지대개발은 많은 자금과 시간, 로력이 드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조선에서 특수경제지대개발이 시작되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적 지 않은 전진이 이룩되었지만 이것은 아직 초보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대외 경제발전을 위하여 특수경제지대개발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며 이 사업에 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로동신문(2003.3.10)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상보」, 로동신문사, 5면

로동신문(2011.4.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 로동신문사, 6면.

로동신문(2011.4.17)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로동신문사, 5, 6면.

로동신문(2012.12.9)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괴뢰보수패당의 반민족적죄행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로동신문사, 5면.

- 로동신문(2013.3,21) 「싱가포르관광선 '황성'호 개업식진행」, 로동신문사, 4면.
- 로동신문(2013.4.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로동신문사, 5면.
- 로동신문(2013,5,19) 「제1차 관광선 '황성'호의 라선-금강산국제관광 출항식진행」, 로동신 문사, 4면.
- 로동신문(2013.9.23) 「라진-하싼철도개건구간 개통식진행」, 로동신문사, 4면.
- 로동신문(2014.6.28)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원정-권하 새 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체결」, 로동신문사, 4면,
- 로동신문(2014.7.19) 「라진항 3호부두 준공식진행」, 로동신문사, 4면.
-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1998)「외국투자실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투 자편람, 사회과학출판사, 69.
- 조선중앙통신사(1995)『사회주의경제건설. 조선중앙년감』, 164.
- 조선중앙통신사(2001)『조국통일과 북남관계. 조선중앙년감』, 271.
- 조선중앙통신사(2003)『조국통일과 북남관계, 조선중앙년감』, 296.
- 조선중앙통신사(2004)『조국통일과 북남관계, 조선중앙년감』, 285.
- 조선중앙통신사(2005)『조국통일과 북남관계, 조선중앙년감』, 266.
- 조선중앙통신사(2007)『조국통일과 북남관계, 조선중앙년감』, 269.
- 조선중앙통신사(2008)『조국통일과 북남관계, 조선중앙년감』, 263.
- 한경만(2014) 『라선경제무역지대를 통한 경제협조관계의 발전. 우리 나라와 중국동북3성 사이의 경제협조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71.
- 황금해(2013)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개발의 촉진. 동북아시아지역경제협력과 두만강지역 개발』, 사회과학출판사, 179-181.

## 『국제고려학』투고교정

#### 1. 분량

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어어

논문작성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 3. 본문

본문의 장, 절, 항은 아라비아숫자를 이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 4 주석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논 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과 출판년도, 쪽수를 밝혀, 홍길동(2007: 123-125)와 같이 표시 한다. 내각주일 경우에는 (홍길동 2007: 123-125)로 한다.

#### 5. 예문 및 인<del>용</del>문

예문이나 인용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한 줄을 띄운다. 예문이 하나 이상일 때에는 붙인다.

#### 6 참고문헌

논문 서지 표기는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1) 한국어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편자명,∨『서적명』, 출판지∨출 판사명,∨쪽수.
  - 예) 홍길동(2006) 「지식인의 역할」, 『국제고려학』 1, 국제고려학회, 100-111.
  - 예) 홍길동(1997) 「욕망과 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편)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서울: 푸른숲, 100-111.
- 2) 일본어, 중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서지 작성 원칙에 준한다.
- - 예)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1, 1-46.
  - 에) Comrie, Bernard (1995) 'Form and function in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Brian Butterworth et al. (ed.) *Explanations for Language Universals*, Berlin: Mouton, 87-104
- 4)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논문 제목과 인터넷 주소, 검색일자를 병기한다. 인용부분을 가능한 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 주소는 html까지 그 페이지 주소창에 뜨는 부분을 모두 적어 준다.
  - প্রী) Allen, Jonathan, 'Balancing Justice and Social Unity: Political Theory and the Idea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utpjournals.com/utlj/493\_allen.html, 2006.5.25)

7.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1) " " : 인용

2)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3) 『 』 : 서적명, 총서명, 원전, 단행본, 신문명, 음반 등 4) 「 」 : 논문명, 기사명, 글명, 작품명, 편명, 조명

5) · : 동일사항의 나열 예) 백두산·한라산·지리산

### 8. 기타

이 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30-0047 日本 大阪府大阪市北区西天満4丁目5-5-506 『국제고려학』 편집위원회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4-5-5-506, Nishitenma, Kita-ku, Osaka, 530-0047, Japan

Email: info@isks.org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 논문모집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 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제고려학회 임원

본부임원

회장 연재훈(영국 University of London)

부회장 宋南先(일본 大阪経済法科大学)

서광웅(평양지부 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徐永彬(아시아분회 회장, 중국 저外经济贸易大学)

황상익(서울지부 회장, 한국 서울대학교)

高龍秀(일본지부 회장, 일본 甲南大学)

Michael Pettid(북미지부 회장,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Rainer Dormels(유럽지부 회장, 오스트리아 Vienna University)

Changzoo Song(대양주지부 회장,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편집위원장 尹靖水(일본 梅花女子大学)

사무총장 裵 龍(일본 大阪経済法科大学)

## 국제고려학 제16호

발행일 2016년 3월 31일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회장

연재훈

편집인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 발행처 국제고려학회

大阪府大阪市北区西天満 4丁目5-5-506 TEL: +81-6-7660-8045 FAX: +81-6-7660-7980

Email: info@isks.org HP: http://www.isks.org

만든곳 도서출판 선인

TEL:+82-2-718-6252

ISSN 1347-7307 2016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